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 - 24 - 01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Building Spatial Model for Safety Nets for Childcare: Foster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in Neighborhoods

건축공간연구원 강현미 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RC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이 보고서는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1. 협동연구총서 시리즈

협동연구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24-24-01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건축공간연구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저 자		강현미, 강지원, 김나영, 윤진희, 한수경, 최이명, 이소영, 이지혜, 조숙인, 권미경, 성유현, 임준경, 김희수		
주관 연구기관	건축공간연구원	강현미 연구위원 (총괄책임자) Kang, Hyunmi, Ph.D.	윤진희 부연구위원 한수경 부연구위원 최이명 부소장 (두리공간연구소)	성유현 연구원
협력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연구위원	이소영 연구위원 이지혜 부연구위원	임준경 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연구위원	조숙인 연구위원 권미경 선임연구위원	김희수 연구원

제 출 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년 10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이 영 범

국문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아동의 이동패턴 및 생활 시간에 대한 행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근린 특성에 맞게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통해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을 근린 유형별로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화 모델의 필요성 및 아동돌봄안전망의 구성 요소를 제시하였다. 아동 돌봄 체계는 다양한 유형의 돌봄, 즉 시설 돌봄과 가정 내 돌봄, 가정 방문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학교 돌봄, 마을 돌봄)이 배타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아동돌봄안전망과 근린환경 요인의 결합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 개념을 제시하고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 근거하여 돌봄 수요를 산정하며 아동의 실질적인 이동가능성을 고려해서 돌봄서비스를 공급하는 순환적 체계를 목표로 한다. 이어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근린 기반 활동으로 자유로운 바깥 놀이, 활동적 이동, 이동독립성을 선정하고, 각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적절한 밀도, 공원 녹지를 비롯한 아동 목적 시설의 도보권 내 입지, 안전한 가로환경은 자유로운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과 독립적 이동에 중요한 요소이며, 근린 내 활동을 기반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내는 환경 요인이다. 특히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에 있어 우리나라 아동들에게 신체활동과 자율적 놀이 활동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근린환경을 향상시켜야 함을 시사한다.

3장에서는 초등학생 1~4학년 학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돌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가 돌봄 실태 및 수요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대도시-중소도시-읍·면·특수지역) 단위보다 근린 단위의 환경이 돌봄 실태와 욕구에 영향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학기 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고, 실제로 학교 안과 밖의 공적 돌봄을 모두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학기 중 돌봄 수요가 크고 동네 시설 이용률 및 도보 통학 비율은 가장 낮은 근린 유형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의 두 가지 행태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있어 근린의 놀이 환경과 보행환경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한편 일정 정도의 돌봄 공백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을 초과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에서도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 초과-2시간 이하의 돌봄 공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이를 또래와 함께 하는 양질의 활동으로 전환하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방향 설정에 근거가 된다.

4장에서는 초등학교 학부모 면담을 통해 다양한 돌봄이용 방식 가운데 발생하는 돌봄 공백 양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육자들의 기회비용, 아동 시공간 사용 행태 특성,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돌봄 시기가 막 종료된 초등학교 3학년이 겪는 돌봄 공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있어 양질의 공공수업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공공 수업에 대해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 아동의 근린 외 통학은 장거리 차량 탑승의 피로 누적, 미디어 접촉 증가 외에도 근린 내 활동에 기반한 또래와의 교류와 신체활동 및 놀이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의 돌봄수요 초과분을 학교-지역 내 연계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을 거듭 보여주었다. 학교를 비롯한 근린환경의 생활인프라 격차가 양육자의 돌봄 부담 강화 또는 경감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다수 사례에서 나타났다.

아동의 시공간 활용 유형 분류와 유형간 상호관련성은,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아동의 생활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을 다루는 방식에서 시간사용의 균형을 고려해 근린 유형별로 차별화된 공간 환경 개선 전략이 필요함을 입증한다. 모든 유형에 근린환경 접촉을 늘리고 미디어 매몰을 막기 위한 차량 이동시간의 감소가 중요하며, 근린 내 돌봄 보장, 그리고 공공생활인프라를 통한 통합된 활동 장소 역시 돌봄 공백의 해소와 생활시간 균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이다. 한편 공적 돌봄에 대해 양육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돌봄시설에 대한 내부 공간 재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며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긴급 돌봄 및 이동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여건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5장에서는 서울과 공주 지역의 초등학생 면담을 통해 아동의 돌봄 현황과 방과후 활동, 근린 경험을 조사하였다. 먼저 아동 면담을 통해서는 학교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과,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는 공주 지역의 아동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인구 밀집 수준이 초등학생의 통학거리를 결정하고, 통학 방법과 방과 후 활동, 근린 내 경험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거듭 확인하였다. 주택 유형에 따라 아동의 놀이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도 나타났는데, 저밀 근린, 저층주거지의 생활인프라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아동 활동의 제약이 확인되었다.

6장에서는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 분석을 위해 사례지역의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현황을 분석하고, 학부모 면담 내용에 드러난 돌봄 및 아동행태 관련 환경 특성을 검토한 후 House of Quality 진단 도구를 적용하여 근린환경 요소와 성장 관련 아동 행태 및 근린 유형 간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구로구와 안산시, 충주시와 옥천군의 100m세생활권 단위로 돌봄 관련 자원(학교, 학교 밖 돌봄시설, 돌봄보조자원으로 활용가능한 공공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지역은 학교 주변에 돌봄 시설과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농촌 지역은 학교와 집에서 돌봄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아동 인구밀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근린 기반 활동 중 아동 성장에 관련된 생활 시간을 좌우하는 것은 이동 패턴이며, 이동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은 근린 밀도(생활인프라 밀도와 아동 인구밀도)와 통학 방식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활인프라 밀도와 통학 방식을 조합하여 고밀-근거리통학, 고밀-원거리통학, 저밀-근거리통학, 저밀-원거리통학으로 근린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 돌봄 공백 발생 특성 및 이동 패턴과 근린 유형 간 대응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 주거섬과 분리형은 서로 구분되는 이동 패턴으로, 유형별 면담자가 거주하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 특성과 아동의 성장 지원 활동 수준(생활 시간)에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높고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우수한 근린에서 발견되는 데 비해, 주거섬과 분리형 이동패턴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 환경은 이와 정반대의 특성을 보인다. 생활시간 균형 면에서도 보행통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야외놀이 등 긍정적 활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외부절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차량 탑승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주거섬과 분리형은 차량 탑승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모두 높다는 특성이 있었다. 특히 아동의 시간 사용 특성에 있어 보행통합형에서는 비율이 낮은 '미디어 중심 실내형'유형이 그 외 유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빈도로 나타나, 근린환경 특성이 이동 패턴을 매개로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다.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은 고밀이나 중밀 근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주거섬은 저밀-원거리 근린의 비율이 높고 분리형은 다양한 유형의 근린에서 찾아볼 수 있었고 근린 전체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가 결합하는 고밀 주거 환경이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다양한 근린 경험에 대해 갖는 이점을 보여주며, 저밀 근린과의 격차 해소에 대한 과제를 남긴다.

7장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환경의 개선 방향을 돌봄 안전과 아동성장의 통합지향, 단시간 돌봄 공백의 건강한 전환,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접근으로 설정하고 근린 유형별 공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밀-근거리통학 근린은 근린 내 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에서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를 확대한다. 저밀-

근거리통학 근린에서는 도보권 내 공공거점시설(앵커시설) 확충을 통해 근린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저밀-원거리통학 근린은 학교 중심 공간 개선으로 아동 활동의 구심점을 확보한다.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로서, 고밀 근린의 경우 주거 유형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다핵 중심형 모델'을,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와 이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학교 중심형 모델'을 지향한다.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다핵 중심형 모델로서 시설 분산 배치를 주된 전략으로 하며, 고밀(중밀)-원거리통학 유형은 다핵 중심형 모델의 변형으로서 통학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밀 근린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저층주거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다.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거점 생활인프라와 연계하여 도보거리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고,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지역 내 소규모 자원을 연계하면서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이되 방과후 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과 활동 다양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한편 저밀 근린에서는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로 도보 가능 범위 밖으로의 차량 이동이 발생하기 쉬운데, 차량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갖춰진 이동 서비스를 활용해 근린 간 연계, 지역 내 중심부와 주변부를 연계하여 전체적으로 거점 생활인프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본 연구는 1)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계획 수립과 보장, 2)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3) 돌봄 권역의 설정, 4) 방과후 돌봄의 성과 측정, 5)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6)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근린 특성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과제로서 아동 돌봄 실태 및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와 이에 관련된 근린 환경 요소에 대해 다각도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정된 기간 내 양적 조사(설문)와 질적 조사(면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여건으로 인해 면담 조사의 제한된 사례에서 도출한 근린 환경과 아동 행태의 관계를 양적 조사에서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채 병렬적인 해석에 집중했다는 한계가 있다. 돌봄 시설의 규모, 즉 돌봄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한계이며, 근린 단위의 돌봄 시설 공급 수준이 환경 특성과 더불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역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돌봄 서비스의 양적·질적 수준에 대한 진단 결과를 근린의 돌봄 수요 및 환경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접근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근린 특성을 고려하여 공적 돌봄을 개선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다.

키워드 : 아동돌봄안전망, 돌봄 공백, 근린공간모델, 아동친화환경, 아동발달, 생활인프라

Abstract

In today's rapidly changing society, with increasing rates of dual-income households and diverse family structures, the importance of childcare is being increasingly emphasized, and there is a growing social demand for a safe and healthy childcare environment that not only ensures the physical safety of children but also actively supports their holistic development. Childcare should be approached as a comprehensive concept that fosters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children, going beyond simply protecting them. It is crucial to recognize that children's development is deeply intertwined with their surrounding environment, particularly their neighborhood.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spatial model for safety nets for childcare tailored to different neighborhood types to balance safe childcare with a healthy lifestyle by considering the physical environment of the neighborhood, children's school travel patterns, and their daily schedules. To achieve this, the study employed a mixed-methods approach incorporating various research methods, including a comprehensive examination of previous studies on childcare, neighborhood environments, and child development to establish a theoretical foundation and guide the research direction. A large-scale survey of 3,000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grades 1-4) was conducted to gather quantitative data on the current state of childcare, childcare needs,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daily lives and neighborhood environments. This survey specifically investigated factors such as parental employment status, childcare arrangements, children's after-school activities, and perceptions of neighborhood safety and amenities. To gain deeper insights into the lived experiences of families and children,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parents and children, exploring topics such as childcare experiences, perceptions of neighborhood environments, children's daily routines in their neighborhoods.

Building upon the survey and interview data, various regions with diverse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were selected as case study areas, involving analyzing the physical environment, accessibility to childcare resources, and children's school travel patterns within those neighborhoods. This analysis included mapping the distribution of childcare facilities, schools, parks, and other relevant amenities, and assessing their accessibility for different groups of children. Through this multi-faceted investigation, the study found that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play activities with friends, physical activity levels, and media usage time were closely related to the physical elements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density, green space, pedestrian environment, etc.) and the childcare environment.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creating child-friendly neighborhoods that encourage outdoor play, active transportation, and social interaction. The study also identified that gaps in childcare provision often arise due to fac-

tors such as parents' economic activities, limited availability of childcare services, and mismatches between school and after-school activity schedules. These self-care time periods can pose challenges for children's safety, learning, and social development, underscoring the need for flexible and accessible childcare options. Furthermore, neighborhoods wer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based on density and school travel distance: high-density with short-distance travel, high-density with long-distance travel, low-density with short-distance travel, and low-density with long-distance travel. The analysis revealed distinct differences in childcare environments, children's school travel patterns, and time allocation among these types. This emphasizes the need for tailored childcare solutions that address the specific needs and challenges of different neighborhood context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a spatial model for safety nets for childcare by neighborhood type, offering specific recommendations for creating supportive and enriching environments for children. High-density neighborhoods should prioritize a multi-core centered model, focusing on reducing disparities between housing types, creating a safe and walkable pedestrian environment, and providing a diverse range of activities for children. In high-density neighborhoods with short-distance travel, improving accessibility through decentralized facility placement is key, while for those with long-distance travel, improving and securing spaces around school travel routes becomes crucial to ensure children's safety and well-being. Low-density neighborhoods should prioritize a school-centered model, strengthening school-centered childcare functions, supporting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nd enhancing community linkages. In low-density neighborhoods with short-distance travel, expanding and connecting key community infrastructure, such as libraries, community centers, and parks, can create a more supportive environment for children, while for those with long-distance travel, connecting small-scale resources within the region and providing transportation support can help address the challenges of accessibility.

This study makes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field of childcare and urban planning by analyzing the complex interplay between neighborhood environments and childcare provisions, offering valuable insights and practical recommendations for policymakers, urban planners, and community organizations seeking to create child-friendly environments that support the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of all children, promoting a more equitable and effective approach to childcare provision.

Keyword : safety net for childcare, gaps in childcare, child-friendly environment, neighborhood spatial model, child development, neighborhood facilities

정책 제안

1)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 계획 수립과 보장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공간 단위에서 결합하기 위한 '근린 단위 방과후 돌봄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1) 지역 단위의 수요에 대한 추정, 2) 지역 단위의 공급량 결정, 3) 지역 단위의 공급 체계의 역할 분담, 4) 공급량과 역할 분담을 고려한 중앙부처의 지원 체계 등을 포함하되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부처를 포함해야 한다. 이 때 지역의 방과후돌봄 공급 계획은 지역 여건, 특히 근린 단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방과후돌봄 시설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방과후돌봄의 보장기관을 명확하게 정하고, 2) 방과후돌봄 보장기관과 재정 부담 방식을 명확히 하는 공급 계획 수립 방식이 필요하다. 특히 근린 단위의 돌봄 수요와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공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방과후 돌봄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계획의 기본이 되는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를 정례화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조사에서는, 아동을 둘러싼 1) 가족의 돌봄 여건(맞벌이,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다문화 등 특별한 욕구 등)과 2) 아동의 상황(나이, 출생 순위, 등하교 방식 등) 등을 고려하고, 3) 방과후돌봄의 필요 여부, 4) 방과후돌봄의 필요 시간(요일, 오전, 저녁, 방학 등), 5) 방과후돌봄 이용 희망(학교 돌봄, 마을 돌봄 등), 6) 학원 등 연계 기관 등이 포괄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의 현황과 개선점 파악을 위한 돌봄 환경 조사가 필요하다. 1) 방과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을 형성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공공체육시설, 공원, 놀이터 등), 2) 아동의 안전한 이동과 돌봄 공백에 간접적 관련이 있는 보행환경과 통합 방식, 이동 시간과 접근성 등이 포괄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3) 돌봄 권역의 설정

지방 교육행정과 일반 지방행정이 분리된 우리나라는 교육체계와 사회복지 체계 간의 협의·조정 기능의 한계 가운데 돌봄 체계의 분절로 인한 비효율을 겪어 왔다. 따라서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을 통해 사업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조정하고 교육-사회복지 전달체계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 교육행정과 일반 지방행정이 결합된 지리적 환경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초등학교의 학군'을 기준으로 초등 돌봄의 권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 때 아동의 생활하는 근린주구의 형태에 보다 가까운 권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생활권과 학군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방과후 돌봄의 성과 측정

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전국적인 공급이 증가하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질 경우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의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방과후 돌봄시설 공급 증가 수준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늘봄학교 도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의 산출과 발표가 필요하다. 개별 학교 단위의 수용 인원과 대기 인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부모의 실질적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5)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나, 돌봄 공백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논의와 기준이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 돌봄 공백은 대부분 30분 이내로 나타났으며, 일정 수준의 돌봄 공백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시간과도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아동 개인의 특성과 근린 환경 여건을 고려하여 돌봄 공백을 보다 건강한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과 공원, 놀이터 등의 근린 시설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생활인프라의 배치와 운영관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6)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 체계 마련

생활인프라는 아동의 방과 후 시간 사용, 다수의 돌봄 장소 간의 연계, 다양한 경험과 또래와의 교류에 중대한 역할을 미치며 돌봄을 위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공적 돌봄과 통합하여 생활인프라를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관점에서 생활인프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린 내 아동의 돌봄 실태, 돌봄 공백 대응 방식, 그로 인한 생활 시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기여하는 수준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동 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을 평가하는 체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6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7
1. 연구의 범위 ····· 7
2. 연구 방법 ····· 8
3. 협동연구 수행 ····· 10

제2장 아동돌봄안전망의 이론적 기반과 정책 동향

제1절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 및 필요성 ····· 15
1.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 ····· 15
2.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과 구성요소 ····· 23
3.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 31

제2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 요소 ····· 35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근린 기반 활동 ····· 36
2. 아동 성장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 요인 ····· 39

제3절 아동 돌봄 정책 및 사업 동향 ····· 81
1. 중앙부처 ····· 81
2. 지방자치단체 ····· 93
3. 국외 사례 ····· 104
4. 아동 성장 지원 관점에서 기존 돌봄 정책의 한계 ····· 113

제3장 아동 돌봄 실태 및 근린 내 행태 영향 요인

제1절 조사 설계 ····· 119
1. 조사 개요 ····· 119
2. 표본 설계 ····· 121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 124

제2절 조사 결과 ····· 126
1. 초등학생 자녀의 활동과 신체 발달 ····· 126

2. 초등학생 자녀 돌봄 욕구 ····· 134
3.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실태 ····· 145
4. 근린 환경과 초등학생 자녀 돌봄 인프라 ····· 166

제3절 아동 행태 영향 요인 ····· 186
1. 분석 개요 ····· 186
2.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 187
3.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 195

제4절 소 결 ····· 201
1.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실태와 환경 ····· 201
2. 아동 행태 영향 요인 ····· 204

제4장 아동 돌봄 이용 현황 및 행태 심층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 207
1. 조사 목적 ····· 207
2. 조사 방법 ····· 207
3. 면담 대상자 선정 ····· 209
4. 분석의 기본 방향 ····· 212

제2절 돌봄조합 선택 및 돌봄 공백 대응 ····· 214
1. 돌봄조합 선택요인과 양육자의 불만/불안 ····· 214
2. 돌봄 공백 발생지점 및 공백시간을 보내는 방법 ····· 229
3. 돌봄 공백발생 방지를 위한 대처과정에서 생기는 기회비용 ····· 234

제3절 아동의 시공간 사용 행태와 생활 균형 ····· 238
1. 아동의 시간 사용 ····· 239
2. 이동패턴 유형분류와 근린 접촉면 ····· 249
3. 생활시간 유형과 이동패턴 유형의 관계 ····· 270

제4절 공적 돌봄에 대한 양육자 인식 ····· 273
1. 이용하는 돌봄 시설의 환경 및 아동 활동 특성 ····· 273
2. 공적 돌봄에 대한 불만족과 개선 방안 ····· 280

제5절 소결 ····· 286
1. 돌봄조합 선택 및 공백 대응 분석의 시사점 ····· 286
2. 아동 시공간 사용 행태 분석의 시사점 ····· 287
3.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 분석의 시사점 ····· 289

제5장 아동의 일상 경험과 공간 인식

제1절 조사 설계 ····· 293
1. 조사 대상 ····· 293
2. 조사 방법 ····· 297

제2절 아동의 공간 경험과 개선 의견 ····· 303
1. 면담 아동 기본 정보 ····· 303
2. 일상 경험과 공간에 대한 아동 인식 ····· 304
3.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아동 의견 ····· 324
4. 소결 ····· 329

제6장 근린 유형별 돌봄 환경 취약 요인

제1절 돌봄 관련 공간 자원 접근성 격차 ····· 333
1. 분석 방법 ····· 333
2. 접근성 현황 분석 결과 ····· 338
3. 분석의 시사점 ····· 359

제2절 돌봄 및 아동 성장의 공간적 취약 요인 ····· 361
1. 공간 취약 요인에 대한 양육자 인지 ····· 361
2.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 ····· 367

제7장 결 론

제1절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 387
1. 돌봄환경 개선의 방향 ····· 387
2.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 ····· 397
3. 정책 제안 ····· 407

제2절 연구의 성과 및 한계 ····· 418
1. 연구의 성과 요약 ····· 418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424

■ **참고문헌** ····· 425
■ **부록1.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 설문지** ····· 441
■ **부록2. 양육자 심층면담 질문지** ····· 458
■ **부록3. 양육자의 주택 및 근린환경 인지** ····· 464

표 차례

〈표 1-1〉 초등 1, 2학년과 초등 3, 4학년의 발달 특징 ····· 5
〈표 1-2〉 주요 법령이 정하는 아동의 범위 ····· 7
〈표 1-3〉 협동연구기관 구성 및 연구내용 ····· 10
〈표 2-1〉 방과후돌봄 시설 학년 비교 ····· 18
〈표 2-2〉 비자발적 방과후돌봄 미이용 사유 ····· 19
〈표 2-3〉 부모 양육 유형별 아동 인구(2018~2022) ····· 25
〈표 2-4〉 양부모 가구의 취업 형태별 아동 인구(2018~2022) ····· 26
〈표 2-5〉 부모의 경제활동 특성(2022) ····· 27
〈표 2-6〉 부모의 기업체 규모(2022) ····· 27
〈표 2-7〉 육아휴직 사용 경험 ····· 27
〈표 2-8〉 육아휴직 사용 당시 기업체 규모 ····· 28
〈표 2-9〉 아동의 자율적 바깥놀이와 관련된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 ····· 40
〈표 2-10〉 아동의 자율적 바깥놀이와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한 주요 계량연구 결과 ····· 46
〈표 2-11〉 아동의 활동적 이동(Active Transportation)과 관련된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 ····· 54
〈표 2-12〉 아동의 활동적 이동(AT)과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한 주요 계량연구 결과 ····· 59
〈표 2-13〉 아동의 이동독립성(Independent Mobility)과 관련된 근린의 물리적 환경요인 ····· 67
〈표 2-14〉 아동의 이동독립성(IM)과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한 주요 계량연구 결과 ····· 73
〈표 2-15〉 중앙정부 아동 돌봄 및 활동 관련 기본계획 과제별 세부 추진전략 ····· 82
〈표 2-16〉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및 개요 ····· 84
〈표 2-17〉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운영 현황 ····· 84
〈표 2-18〉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과 늘봄학교의 차이점 ····· 85
〈표 2-19〉 중앙부처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 비교 ····· 93
〈표 2-20〉 지자체별 아동 돌봄 관련 기본계획 과제별 세부 추진전략 ····· 94
〈표 2-21〉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운영 현황 (2023년 10월 기준) ····· 96
〈표 2-22〉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별 설치·운영 개요 ····· 97
〈표 2-23〉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마을교육프로그램 ····· 98
〈표 2-24〉 굿센스 관계자 및 이용자의 FGI 분석결과 요약 ····· 101
〈표 2-25〉 옥천행복교육지구 과제별 운영계획 ····· 102
〈표 2-26〉 시립 고다이라 제8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비교 ····· 110
〈표 2-27〉 돌봄사업별 공간 활용 및 운영 시간 현황 ····· 115
〈표 3-1〉「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 조사 항목 ····· 120
〈표 3-2〉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수 (2023.4.1. 기준) ····· 121

〈표 3-3〉 지역규모별, 학년별, 성별 초등학생 수 (2023.4.1. 기준) ····· 122
〈표 3-4〉 지역규모별, 학년별, 성별 초등학생 비율 (2023.4.1. 기준) ····· 122
〈표 3-5〉 층별 표본 비례배분 결과 ····· 123
〈표 3-6〉 응답자(가구)의 일반적 특성 ····· 125
〈표 3-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일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 ····· 128
〈표 3-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주로 오후간식을 먹는 장소 (최대 2곳 중복응답) ····· 131
〈표 3-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주로 저녁식사를 하는 장소 (최대 2곳 중복응답) ····· 132
〈표 3-1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 중 돌봄 필요 ····· 135
〈표 3-1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 중 아침 돌봄 필요 ····· 136
〈표 3-1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중 아침 돌봄 필요 시작 시간 ····· 137
〈표 3-1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중 저녁 돌봄 필요 여부 ····· 138
〈표 3-1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 중 저녁 돌봄 필요 (종료 시간) ····· 139
〈표 3-1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여부 ····· 140
〈표 3-1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평일 돌봄 필요 여부 ····· 141
〈표 3-1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주말 돌봄 필요 여부 ····· 142
〈표 3-1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일수 (1주일 기준) ····· 143
〈표 3-1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시간 ····· 144
〈표 3-2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과후 이용 기관 ····· 145
〈표 3-2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과후 기관 이용 유형 ····· 146
〈표 3-2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년별 돌봄 이용 방법 비중 ····· 152
〈표 3-2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가구특성별 돌봄 이용 방법 비중 ····· 153
〈표 3-2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 154
〈표 3-2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혼자 있는 시간 ····· 155
〈표 3-2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이유 ····· 156
〈표 3-2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 157
〈표 3-2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도움 정도 ····· 159
〈표 3-29〉 지난 한 달간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질병 등으로 돌봄 필요 경험과 돌봐준 사람 ····· 162
〈표 3-30〉 지난 한 달간 출장, 야근 등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돌봄 필요 경험과 돌봐준 사람 ·· 163
〈표 3-3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시 항목별 중요도 ····· 165
〈표 3-32〉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평가 ····· 166
〈표 3-3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적당한 정도 ····· 168
〈표 3-3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어려운 이유 ····· 170
〈표 3-3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설별 이용률 (중복응답) ····· 172
〈표 3-3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비율 (중복응답) ···· 176
〈표 3-3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이동 방식과 성인 동행자, 소요 시간 ····· 178

CONTENTS

〈표 3-3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이동 방식별 성인 동행자 ····· 179
〈표 3-3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도보 이동 비율과 혼자 이동 비율 (1) ····· 180
〈표 3-4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도보 이동 비율과 혼자 이동 비율 (2) ····· 181
〈표 3-4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돌봄 인프라가 자녀 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 184
〈표 3-42〉 아동 행태 영향 요인 분석 개요 ····· 186
〈표 3-43〉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 설명 ····· 189
〈표 3-44〉 동네 환경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1) - 고유값 및 분산 ····· 190
〈표 3-45〉 동네 환경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2) - 요인부하량 ····· 191
〈표 3-46〉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의 기술통계 (N=3,442) ····· 192
〈표 3-47〉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이항로짓분석) ····· 194
〈표 3-48〉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 설명 ····· 197
〈표 3-49〉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의 기술통계 (N=3,442) ····· 198
〈표 3-50〉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 결과 (이항로짓분석) ····· 200
〈표 4-1〉 양육자 면담의 주요 항목 ····· 208
〈표 4-2〉 시도 단위 돌봄 환경 유형 구분 (1단계) ····· 209
〈표 4-3〉 심층 면담 대상자 특성 ····· 210
〈표 4-4〉 면담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방과후 돌봄 수급 분위 ····· 211
〈표 4-5〉 면담 참여자 특성 ····· 212
〈표 4-6〉 유형 A (수업위주) 일정운영 집단의 특성 ····· 216
〈표 4-7〉 유형 B (학교돌봄 기반) 일정운영 집단의 특성 ····· 219
〈표 4-8〉 유형 C (방과후수업 통합형 학교돌봄 참여) 집단의 특성 ····· 222
〈표 4-9〉 유형 D (지역아동센터 돌봄 중심) 집단의 특성 ····· 224
〈표 4-10〉 유형 E (학교밖 돌봄 중심) 집단의 특성 ····· 227
〈표 4-11〉 돌봄 조합의 선택요인 ····· 228
〈표 4-12〉 돌봄 공백 발생지점과 발생빈도 ····· 230
〈표 4-13〉 개인, 가구, 근린 차원의 특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돌봄 공백시간 활용양상 ····· 232
〈표 4-14〉 돌봄 공백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아동과 주양육자의 기회비용 ····· 237
〈표 4-15〉 활동구분 카테고리 및 권장기준 참고자료 ····· 240
〈표 4-16〉 유형분류를 위한 참여자 아동의 7가지 활동구분 ····· 240
〈표 4-17〉 7가지 활동시간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그룹별 평균 시간) ····· 241
〈표 4-18〉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개인 특성 ····· 242
〈표 4-19〉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주양육자 근로형태 및 돌봄기관 선택유형 ····· 242
〈표 4-20〉 그룹별 돌봄기관 체류시간 및 돌봄 공백 시간 ····· 243
〈표 4-21〉 3개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주거유형 ····· 244
〈표 4-22〉 3개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근린환경 평가점수 ····· 245

〈표 4-23〉 시간사용 유형 그룹별 활동시간과 권장기준시간 비교 ····· 246
〈표 4-24〉 이동패턴 유형별 근린접촉면 수준 비교 (그룹별 평균) ····· 264
〈표 4-25〉 생활시간유형 군집별 이동패턴 특성 ····· 272
〈표 5-1〉 아동 심층면담 대상자 거주 지역, 아동 연령 종합 ····· 294
〈표 5-2〉 아동 심층면담 실시 일자 및 장소 ····· 297
〈표 5-3〉 아동 심층면담 조사 내용 개요 ····· 298
〈표 5-4〉 아동 심층면담 질문지 ····· 299
〈표 5-5〉 지역별 면담 아동 기본정보 ····· 303
〈표 5-6〉 근린별 면담 아동의 주택 환경 ····· 304
〈표 5-7〉 근린별 면담 아동의 통학로 환경 ····· 309
〈표 5-8〉 근린별 면담 아동의 돌봄시설/학교 환경 ····· 313
〈표 5-9〉 근린별 면담 아동의 방과후 공간 경험 ····· 316
〈표 5-10〉 근린별 면담 아동의 학교 외 공적돌보미설 이용 환경 ····· 321
〈표 5-11〉 근린별 일과 후 돌아가는 상황 ····· 323
〈표 5-12〉 근린별 아동의 환경 인식과 개선 의견 ····· 324
〈표 6-1〉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분석 대상지 선정 ····· 333
〈표 6-2〉 돌봄자원 접근성 산출 대상 시설 ····· 334
〈표 6-3〉 격자 단위 돌봄 자원 접근성 등급 및 취약 유형 설정 ····· 336
〈표 6-4〉 접근성 분석 활용 자료 출처 ····· 337
〈표 6-5〉 인구격자 보행권에 시설이 1개 이상 입지하는 격자의 비율 ····· 341
〈표 6-6〉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거리 ····· 342
〈표 6-7〉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등급별 초등학생 인구 및 비율 ····· 343
〈표 6-8〉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등급별 평균 아동 수 및 학교까지의 거리 ····· 344
〈표 6-9〉 면담 대상자 거주 근린의 구분 ····· 361
〈표 6-10〉 유형별 대상지 특성 ····· 362
〈표 6-11〉 근린 유형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 364
〈표 6-12〉 주택유형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 365
〈표 6-13〉 아동 이동패턴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 366
〈표 6-14〉 면담 대상자의 환경 및 행태 진단 기준 ····· 375
〈표 7-1〉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공간-활동 지원 방향 ····· 393
〈표 7-2〉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계획 지침 ····· 405

그림 차례

[그림 1-1] 부처별 전달체계로 인한 돌봄서비스 이용의 비효율성 ····· 2
[그림 1-2] 지역간 접근성(접근거리) 및 수요 충족률 현황 ····· 4
[그림 1-3] 연구흐름도 ····· 11
[그림 2-1] 아동 돌봄 체계 현황 ····· 17
[그림 2-2] 돌봄 이용률 ····· 20
[그림 2-3] 늘봄학교 운영 현황 ····· 21
[그림 2-4] 아동돌봄안전망 개념의 변화 ····· 25
[그림 2-5] 본 연구의 분석 틀 ····· 33
[그림 2-6]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의 작동 방식 ····· 34
[그림 2-7] 아동의 이동독립성 형성의 메커니즘 ····· 39
[그림 2-8] 통학로 주변 구역의 용도혼합수준을 측정한 방법론적 시도 ····· 43
[그림 2-9] 핀란드·벨라루스에서 나타난 도시화수준과 아동의 가용자원(Affordance) 차이 ····· 50
[그림 2-10] 교외와 도심 공원의 입지 및 경계부 형태의 차이 ····· 52
[그림 2-11] 아동의 집에서 학교까지 최단경로와 실제경로 비교 ····· 66
[그림 2-12] 캐나다 60년대 이전 전통근린(좌)과 교외주거지(우)에서의 독립적 보행통학 추세선 ····· 78
[그림 2-13] 이동독립성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의 집 근처 환경 비교 예시 ····· 79
[그림 2-14] 운영주체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상단) 및 연도별 개인(좌하단)·법인(우하단) 운영 현황 ····· 88
[그림 2-1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2년 12월 말 기준) ····· 89
[그림 2-16] 지역아동센터의 중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90
[그림 2-17] 다함께돌봄센터(좌)와 학교돌봄터(우)의 사업 수행체계 ····· 92
[그림 2-18] 늘봄 명서 및 늘봄 상남의 시설 모습 ····· 95
[그림 2-19] 서울시 중구 돌봄센터 현황 ····· 99
[그림 3-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소 긍정적 활동 횟수 (%) ····· 126
[그림 3-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소 부정적 활동 횟수 (%) ····· 127
[그림 3-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일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 (시간) ····· 128
[그림 3-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시간) ····· 130
[그림 3-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오후 간식 및 저녁 식사 장소 (%) ····· 130
[그림 3-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BMI (%) ····· 133
[그림 3-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요일 (중복응답, %) ····· 143
[그림 3-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전체 (%) ····· 147
[그림 3-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학년별 (%) ····· 148
[그림 3-1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맞벌이 여부별 (%) ····· 149

[그림 3-1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지역별 (%) ····· 150
[그림 3-1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근린밀도와 통학거리별 (%) ····· 151
[그림 3-1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 이유 (%) ····· 160
[그림 3-1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원 이용이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 정도 (점) ····· 161
[그림 3-1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시 항목별 중요도 (%, 점) ····· 164
[그림 3-1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적당한 정도 (점) ·· 168
[그림 3-1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 ····· 171
[그림 3-1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종류 수 (개) ····· 174
[그림 3-1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 ····· 175
[그림 3-2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종류 (개) ··· 177
[그림 3-2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점) ····· 182
[그림 3-2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돌봄인프라가 자녀 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점) ·· 183
[그림 4-1] 주양육자 심층면담 내용 분석의 틀 ····· 213
[그림 4-2] 그룹 A에서 돌봄 공백시간이 미디어 접촉으로 이어지는 사례 (좌_충주 칠금, 우_세종 어진) ····· 243
[그림 4-3] 그룹 B에서 돌봄 공백시간이 바깥놀이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 (좌_세종 소담, 우_덕산 진천) ····· 244
[그림 4-4]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면담참여아동의 BMI 분포 ····· 247
[그림 4-5] 그룹C 중 BMI 가 높은 사례의 아동 일정(좌_비만, 우_과체중 경계) ····· 247
[그림 4-6] 돌봄기관 참여아동이 제공받는 프로그램 중 정적인 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비중 ····· 248
[그림 4-7] 활동거점 분리-통합 및 주요 이동수단을 조합하여 도출한 아동의 4가지 이동패턴 유형 ··· 249
[그림 4-8] 분리형 사례-1 (연천군 연천읍) ····· 250
[그림 4-9] 분리형 사례-2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 251
[그림 4-10] 주거섬 사례-1 (옥천군 안남면) ····· 252
[그림 4-11] 주거섬 사례-2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 253
[그림 4-12] 외부절충형 사례-1 (세종시 어진동) ····· 254
[그림 4-13] 외부절충형 사례-2 (충주시 분평동) ····· 255
[그림 4-14] 보행통합형 사례-1 (수원시 망포동) ····· 256
[그림 4-15] 보행통합형 사례-2 (세종시 다정동) ····· 257
[그림 4-16] 보행통합형 사례-3 (평택시 고덕면-2) ····· 258
[그림 4-17] 보행통합형 사례-4 (안산시 일동) ····· 263
[그림 4-18] 보행통합형 사례-5 (진천군 덕산읍) ····· 264
[그림 4-19] 이동패턴 유형과 근린접촉면(동네 경험) ····· 265
[그림 4-20] 독립이동으로 접근하는 최대 거리와 독립적 이동 영역 면적 ····· 266
[그림 4-21] 이동 패턴-시간 사용 유형별 일상생활 동선 (보행통합형) ····· 267
[그림 4-22] 이동 패턴-시간 사용 유형별 일상생활 동선 (상: 주거섬, 하: 외부절충형) ····· 268
[그림 4-23] 이동 패턴-시간 사용 유형별 일상생활 동선 (분리형) ····· 269

CONTENTS

[그림 5-1] 심층면담 대상지(서대문구, 공주시) 근린 현황 ····· 296
[그림 5-2]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예시1 (초등학교 1학년 여아) ····· 302
[그림 5-3]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예시2 (초등학교 3학년 여아) ····· 302
[그림 5-4]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근린1_서울 아파트주거지) ····· 307
[그림 5-5]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근린 2,3,4) ····· 308
[그림 5-6]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서울 아파트 주거지) ····· 327
[그림 5-7]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서울 저층주거지) ····· 328
[그림 5-8]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공주 아파트 주거지) ····· 328
[그림 5-9]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공주 저층주거지) ····· 328
[그림 6-1] 구로구(상)와 안산시(하)의 아동 인구 분포 ····· 338
[그림 6-2] 충주시의 아동 인구 분포 (상: 전체 행정구역, 하: 동 지역 확대 자료) ····· 339
[그림 6-3] 옥천군의 아동 인구 분포 (상: 전체 행정구역, 하: 읍 지역 확대 자료) ····· 340
[그림 6-4] 구로구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 345
[그림 6-5] 안산시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 346
[그림 6-6] 충주시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 348
[그림 6-7] 옥천군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 349
[그림 6-8] 구로구(상)와 안산시(하)의 생활인프라 현황 ····· 350
[그림 6-9] 충주시(상)와 옥천군(하)의 생활인프라 현황 ····· 351
[그림 6-10] 구로구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고밀-주거섬) ····· 352
[그림 6-11] 안산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성포동, 고밀-보행통합형) ····· 353
[그림 6-12] 안산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일동, 중밀-외부절충형) ····· 354
[그림 6-13] 충주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칠금동, 중밀-분리형) ····· 355
[그림 6-14] 충주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호암동, 중밀-외부절충형) ····· 356
[그림 6-15] 옥천군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안남면, 저밀-주거섬) ····· 357
[그림 6-16] 면담대상자 거주 근린 특성과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종합) ····· 358
[그림 6-17] 근린 유형별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발생 여건 ····· 372
[그림 6-18] HOQ 진단 도구 적용 방식 ····· 374
[그림 6-19] HOQ 도구를 적용한 근린 환경-아동 행태 진단 결과 ····· 377
[그림 6-20] 이동 패턴별 근린 환경-아동 행태 특성의 빈도 ····· 378
[그림 6-21] 근린환경 요소간 관계 및 행태 특성과의 관계 ····· 381
[그림 7-1] 아동의 이동독립성과 다양한 활동을 연계한 돌봄 환경 재구성 ····· 388
[그림 7-2] 근린 유형별 속성(상)과 돌봄 환경 개선 과제(하) ····· 392

01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가. 초저출산에 대응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

현재 대한민국은 전방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총인구 감소 사태를 맞이하였고 2023년에는 합계출산율 0.72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의 하락 속도가 매우 빠르고 초저출산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학계는 노동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2030년의 '인구재앙' 도래와 국가 소멸 위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안심하고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여건 조성에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나,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은 정책 수요자에게 체감되지 못해 근본적인 재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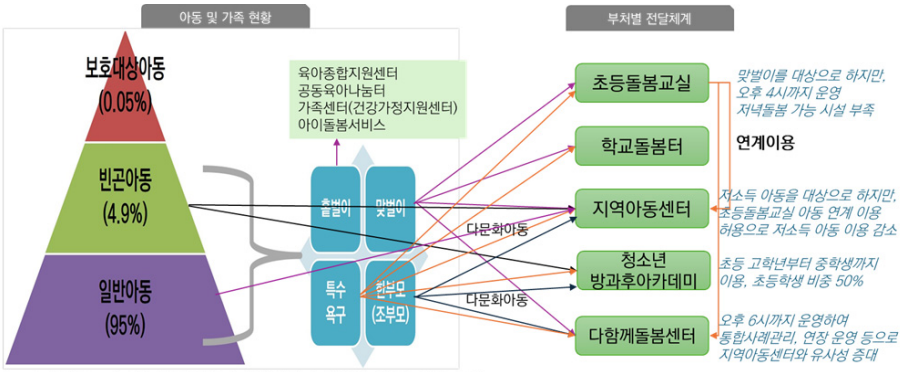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지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경력 단절과 불안정한 돌봄 환경, 높은 사교육비 등은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 대한 국민의 가치적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모든 아이를 국가가 함께 키워준다'는 정책 신뢰 형성이 시급하다. '돌봄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장, 지역사회, 가족 등 다양한 복지제공자의 역할을 재분배하는 문제로,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회복이 중요하다(Daly & Lewis, 2000; 양성욱·노연희, 2012). 또한 돌봄정책 성과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의 생활환경인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이 실행되는 방식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요자 여건에 맞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양육 여건에 놓인 양육 주체들의 요구를 고려, 지역사회 단위에서부터 돌봄 관련 자원 배분 시스템을 재편하여 돌봄 공백을 효과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출산 중심의 수혜성 정책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정책 검토 및 재구조화를 통해 초저출산 대응의 전환기적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나. 공공의 아동복지서비스 분산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 해결이 시급

공공서비스 부족으로 육아 주체가 돌봄 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김주리 외(2021)는 다수의 선행연구를 근거로 방과후 혼자 있는 아동이 학업성취도나 정서발달, 사회 적응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며, 돌봄 공백이 아동의 안전과 복지에 밀접하게 관련되고 양육모가 직장을 떠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였다. 돌봄 공백의 위험은 코로나19 시기 등교 제한 상황에서 더욱 드러났는데, 아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빈곤가정·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생활시간 균형이 무너지고 행복지수가 낮아지며, 계층별 학습·여가 시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이시효, 2021; 정익중 외, 2022).

돌봄은 일종의 관계재로, 인적 자원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돌봄서비스 이용시 불안 요소가 상존하며 공적 돌봄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수요자의 불안이 가중된다. 또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재정적 부담, 심적 부담(불안)이 가중되고, 심한 경우에는 아동 방임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아동 돌봄의 연속성이 부족한 이유는 부처 중심 돌봄 공급 체계의 한계에 기인한다. 방과후 돌봄의 경우 교육체계(교육부)와 복지체계(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부처간에도 돌봄 시설이 개별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비효율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출처: 강지원(2023), p.10.

[그림 1-1] 부처별 전달체계로 인한 돌봄서비스 이용의 비효율성

돌봄 공백 해소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통합돌봄 정보제공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나, 여전히 부처별 시설 및 서비스가 분산된 현재의 방식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불충분하다. 특히 이동 능력이 부족한 아동의 관점에서는 복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개별 돌봄 시설과 생활 환경의 융합이 중요하나, 현재 돌봄 관련 공간환경 정책은 서비스 간 연계에 대한 고려가

부재하여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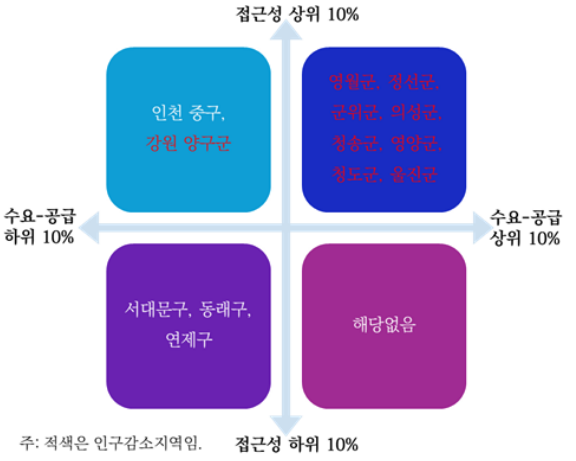
끊기지 않는 돌봄을 위해 정부가 초등학교에서 온종일돌봄을 실시하는 '늘봄학교' 사업을 도입함에 따라, 초등 방과후돌봄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교실)을 통합하여 늘봄학교를 시행하기까지 돌봄 인력 및 행정 체계를 정비하고, 돌봄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과후 돌봄이 안정되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돌봄에 대한 수요가 개인과 지역마다 다른 것 역시 늘봄학교 시행만으로 모든 돌봄 수요를 통합하기 어려운 요인이다. 돌봄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구 아동 뿐만 아니라 외벌이 가구에서도 학교 돌봄에 그 외 시설 이용을 결합한 복합적 돌봄 이용 방식이 나타나고, 이러한 수요가 단순히 돌봄 공백 해소 때문만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학습, 예체능 등의 활동에 대한 욕구에 기반함을 고려할 때, 학교 돌봄만으로 돌봄의 양적 필요(돌봄 시간)과 질에 대한 요구(돌봄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성과 측정에 기반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 정책이 집중하는 돌봄 시간 확대만으로는 돌봄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질적 수준에 대한 보장, 특히 아동과 양육자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환류 체계가 작동되기 어렵다. 양육자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 프로그램을 확충해야 하며, 이는 돌봄 공백의 해소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의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다.

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 돌봄체계 재편 필요

아동의 돌봄 서비스 수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일상생활의 활동 및 경험은 지역의 인구와 돌봄 공급 수준이라는 큰 틀에서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방 소도시와 농촌의 영유아와 아동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며 인구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지자체의 인구 추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돌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마다 돌봄 공급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상당하여, 현행 체계 유지 시 인구감소지역의 돌봄 공백 또는 과잉 공급 등 사회적 비용 소요가 상당할 전망이다. 초등학생 전체를 분모로 할 때, 돌봄 공급률은 상위 10%가 평균 35.6% ~ 하위 10%가 평균 3.4% 수준이며, 돌봄 하위 10% 지역은 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고양, 용인. 김포, 화성), 경남(사천, 양산), 돌봄 상위 10% 지역은 모두 인구감소지역(89개소)과 중복되고 있다(강지원 외, 2023a). 이러한 여건에서, 돌봄을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 추가 공급이 필요한가, 얼마나 더 공급할 것인가, 무엇을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중앙부처 단위의 돌봄 공급은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나 지역 여건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표준적인 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며, 지역의 인구 특성에 따른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역 단위 통합적 돌봄 체계가 필요하다.



출처: 강지원(2023), p.12.

[그림 1-2] 지역간 접근성(접근거리) 및 수요 충족률 현황

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공백 해소의 균형 필요

돌봄은 단순히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넘어,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다. 질 높은 돌봄 서비스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적 돌봄을 포함한 돌봄 서비스가 아동의 발달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판단은 양육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최소화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 돌봄은 초등학생의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한 돌봄과 성장을 위한 경험의 확대 간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초등학생 시기는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학교를 통해 사회를 경험하며 사회의 가치관이나 규범을 익히는 시기로, 친구와의 관계나 학업을 통해 주도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감을 얻게 되면 근면성을 형성하지만, 친구와 비교해 스스로 자신감이 없다고 느끼거나 학교생활 적응이 쉽지 않을 경우 열등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조복희 외, 2020. p.48). 초등 학령기(6세-11세) 안에서도 발달의 차이는 큰데, 초등 1,2 학년과 3, 4학년의 발달 특징은 〈표1-1〉과 같다.

한편 초등 학령기에는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확대되면서 그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집단의 비중이 커지며, 학교생활이 아동의 발달과 성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능력이나 언어능력, 어휘력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욕구도 쉽게 표현하고, 그러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정옥분, 2019. p.471).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넓혀 나가며 부모나 형제자매, 교사와 또래, 다른 성인으로 관계가 확대됨에 따라 활동 반경도 커지게 된다.

〈표 1-1〉 초등 1, 2학년과 초등 3, 4학년의 발달 특징

발달 영역	초등 1, 2학년	초등 3, 4학년
신체발달	-신장, 체중이 청년기 성장 급등까지 느리게 증가 -유치가 빠지고 영구치가 자람 -규칙을 포함하는 거친 신체 놀이가 증가함	-성장의 급등은 남아보다 여아에게 2년 정도 빠르게 나타남 -대근육 운동을 보다 빠르고 협응력 있게 수행
인지발달	-피아제의 보존, 유목, 서열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사고가 논리적으로 변화함 -정보처리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함	-공간적 추론이 증가함 -정보처리속도와 실행기능이 지속적으로 향상. -인지적 자기 조절이 증진됨
언어발달	-단어 수 어휘력이 급증함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이 독서로 이행됨 -언어적 묘사력과 표현능력이 증가하고, 언어 인식도 증가함	-단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고 관련 범주를 강조 -비유나 유머를 이해하고, 단어의 이중적 의미에 관심을 둠 -묘사가 길어지고 평가적 언급이 증가함
정서·사회성 발달	-자기에 대한 개념으로 성격특질, 능력, 사회적 비교를 포함하기 시작함 -자존감이 분화하고 책임감과 독립심이 증가함 -공감능력이 증가함 -신체적 공격성은 감소하고 언어적 공격성 증가	-또래집단이 강조됨 -성공과 실패를 귀인하는 능력, 노력, 운 등의 외적 요인을 구별함 -형제끼리의 경쟁이 증가함 -공감적 반응이 확대됨 -우정이 선택적으로 변화하며 상호신뢰를 강조

출처: Laura E. Berk(2020). 생애발달 I . pp.422-423의 내용을 연구진이 표로 정리함.

초등 학령기의 이러한 발달 특성은 초등학생의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초등 학령기에는 학교를 포함하는 생활환경의 확대가 이루어지므로 가족 이외의 다른 성인과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관계 형성을 긍정적으로 지원할 공간 조성이 요구된다. 둘째, 초등 학령기에는 대근육 활동 및 신체적 활동성의 증가로 인해 돌봄 환경 조성 시 공간의 안전성과 활동 지원 수준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셋째, 초등 학령기에는 호기심과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을 넓혀지는 시기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공간복지 차원의 접근은 정부 기본계획이나 주요 정책사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은 개별 추진과제는 복지적 차원에서 아동권리 보장이 주를 이루며, 공간적 접근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및 놀이 부문에 한정되고 공간환경 개선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계획 및 서비스 기준은 부재한다.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은 부처 협력을 통한 생활SOC복합화사업[1]을 추진하면서 아동돌봄·교육 시설을 포함하는 생활인프라의 양적 확충을 이루었으나(성은영 외, 2021), 3년간의 사업 기간 이후 종료됨에 따라 이러한 혁신적인 사업 방식이 지속되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지자체 단위에서는 83개 지자체(2023년 3월 기준)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하고 아동 관련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사업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아동 권리를 고려한 공간 개선은

1) 생활SOC3개년계획은 생활SOC복합화사업을 통해 부처간의 협력을 통한 생활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복합화대상 시설로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포함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9. p.4.)

부서 단위의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2] 돌봄과 도시 환경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찾아보기 어렵다. 취약계층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여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가족 분야 공공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6%로 OECD 38개국 중 31위에 불과하며, OECD회원국 평균 지출 규모인 GDP 대비 2.1%에 미치지 못한다.[3]

아동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돌봄을 재편하는 데 있어서 근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아동 발달은 가정과 근린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주거지의 열악한 물리적 환경이 유발하는 계층간 성장 격차는 성인기까지 지속되기 때문이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낮은 품질의 주거환경이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4]주거지의 물리적 환경 차이로 인한 아동 발달 지연은 성인기의 삶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아동이 경험하는 근린 환경의 격차는 곧 성장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고, 이는 돌봄인프라 확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처럼 양육자가 안전하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에서, 돌봄 정책 방향이 돌봄 시간의 연장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에만 집중된 경우, 성장 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해야 할 활동은 제약을 받게 된다. 지역과 계층에 따른 아동 성장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에 관련된 근린 환경 요소를 도출하고, 근린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돌봄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공간 계획 전략이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근린 환경이 아동의 돌봄 실태 및 성장 관련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아동이 자라는 동네의 환경이 아이의 돌봄 방식과 돌봄 공백에 대처하는 방식, 그리고 아이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 등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기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하는 공간적 기반으로서 근린 맞춤형 아동돌봄안전망의 조성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으면서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근린 내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의 지향점과 세부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22)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2022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p.60.
4) 경제적으로 빈곤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은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와 관련된 물리적 환경 요인은 주거 불안정, 주택 품질, 소음, 혼잡, 독성 노출, 공적서비스의 품질, 소매시설, 자연환경을 포함하는 여가활동 기회, 가로의 교통량, 교통 접근성, 교육 및 의료시설의 질 등이다(Macintyre et al, 1993; Wandersman & Nation, 1998; Evans, 2004).
5)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A, 2011; 염철호 외(2022), p.17. 재인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연구 대상) 초등 학령기 아동 중 돌봄 수요가 높은 1-4학년에 집중

본 연구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 가운데 정규 수업과 방과후 돌봄이 구분되어 학교-마을 단위의 통합 돌봄에 대한 개선 요구가 큰 연령대인 초등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유아 돌봄의 경우 정원 기준으로 현재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100%를 달성하였고, 앞서 고찰한 것처럼 생활의 중심이 학교로 옮겨가는 초등학령기 아동에 비해 근린 내 독립적 이동이 어려운 연령대의 영유아의 경우 근린 환경이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과 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표 1-2〉 주요 법령이 정하는 아동의 범위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
대상 및 범위	"아동"	"아이"	"영유아"	"의무교육대상자"
	18세 미만인 사람	만 12세 이하 아동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만 6세부터 (수업연한 6년) 중학교: 초등학교 졸업 이후 (수업연한 3년)
관련시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공동육아나눔터	어린이집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

출처 :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나.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요소) 돌봄 시설을 포함하는 생활인프라와 이동 환경

돌봄시설은 방과후 돌봄이 이루어지는 초등학교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 돌봄시설을 의미한다. 기존의 돌봄안전망 관련 논의의 연속선상에서 아동돌봄안전망에 포함되는 사업군은 '0~12세 아동기'에 제공되는 사회적 돌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방과후돌봄, 초등교육을 포함하며 또한 이러한 사업을 운영하는 각 부처의 전달체계를 포함하지만(강지원 외, 2022), 본 연구에서는 연구 범위를 초등 학령기 아동으로 한정함에 따라 돌봄 시설 역시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하였다.

생활인프라는 아동과 양육자의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는 근린 단위에서 아동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서, 행정기관과 도서관, 공공체육시설, 공원, 공공 놀이터 등의 공공 생활인프라와 아파트 단지 놀이터, 학원 등의 민간 생활인프라를 포괄한다. 이동 환경은 아동과 양육자가 돌봄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고 접근하는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로 보행환경과 대중교통, 자동차 이용, 기타 교통수단 제공(셔틀버스 등)을 포함한다.

다. (포커스그룹 사례 지역) 인구 밀도와 돌봄 공급 수준이 상이한 근린

인구밀도에 따라 돌봄시설 설치 기준 및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방식, 돌봄 수요의 집중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돌봄 공백의 수준 및 요인의 격차로 이어진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 밀도가 상이한 근린을 대상으로 아동 및 양육자 포커스그룹을 선정하며, 아동은 서울시 서대문구와 공주시를 대상으로, 양육자는 서울시와 경기도, 세종시, 충청북도의 지자체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돌봄 관련 자원의 접근성 분석 대상지는 양육자 포커스그룹이 거주하는 근린 중 인구 밀도의 차이를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4개 지자체로 서울시 구로구, 안산시, 충주시, 옥천군이다.

2. 연구 방법

가. (문헌조사)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인 도출

초등학령기 아동의 행태와 근린 환경 요인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해외 학술 자료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아동의 신체활동(MVPA, LPA)[6], 바깥놀이활동(Active-free play), 야외활동시간(Time spent outdoors), 활동적 이동(Active transpotation), 이동독립성(Indepen-dent mobility)과 근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 built environment)을 주요 키워드로 해외 문헌을 조사하고, 근린 환경의 물리적 구성 요소를 중점적으로 추출하여 아동 행태와의 영향 관계를 고찰하였다. 검토 대상 문헌은 6-12세 아동을 대상에 포함하는 연구를 우선 선정하였으며. 계량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의미해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질적 연구 또는 국내 연구를 보완하여 살펴보았다.

6)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Moderate-to-vigorous physical activity), 가벼운 신체활동(Light physical activity)

나. (설문조사) 아동 돌봄실태 및 돌봄 환경 조사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주양육자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모집단 층화는 3가지 지역 구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 학년 등급(1, 2학년과 3, 4학년의 2개로 구분), 성별을 층화 변수로 활용하였다. 연구 목적에 맞게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등)을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당하였다.

조사 문항은 아동 돌봄과 근린 내 활동에 관한 선행 연구의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으며, 돌봄 필요와 돌봄 실태,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근린 환경과 돌봄인프라, 아동 발달에 관한 문항을 포함한다.

다. (포커스그룹 연구) 아동 돌봄 실태와 근린 내 행태 조사

인구밀도와 생활인프라 수준이 상이한 근린을 대상으로 양육자와 아동 포커스그룹을 선정하였다. 양육자는 서울과 경기도, 충청북도, 세종시에서 공적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양육자로 한정하여 총 25명, 아동은 서울시와 공주시의 4개 근린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총 32명(근린별 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양육자 면담은 아동의 일상 생활 구성, 공적 돌봄을 통한 돌봄 공백 대응 현황, 근린환경의 돌봄 지원 수준에 대한 질문이며, 면담 질문지를 활용하고 아동 활동일지와 맵핑(mapping)을 통해 아동의 시공간적 행태를 상세히 조사하였다. 아동 면담은 지역사회 돌봄 공간에 대한 인식을 주택과 통학로, 돌봄시설 및 학교, 생활인프라, 학교 외 돌봄, 방과 후 집에 돌아가는 길 등을 중점적으로 질문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구두로만 동네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한계를 느낄 수 있어, 동네에 대한 그림 지도를 그리고 이야기 나누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라. (공간 분석) 돌봄 관련 자원의 접근성 분석

100m 단위 아동 인구 격자를 공간 분석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근린 내 돌봄 관련 주요 자원을 돌봄자원(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돌봄보조자원(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야외여가공간(공원 및 놀이터), 학원으로 구분하여 자원까지의 최단 직선 거리를 산출하고, 학교-돌봄자원 간의 거리, 집에서 돌봄자원 및 돌봄보조자원으로의 거리를 구분자로 격자별 접근성 등급을 구분하였다. 접근성 등급별 인구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수, 그리고 전체 아동 인구에서의 비중을 산출하는 한편 등급 특성에 따른 시각화를 통해 사례대상지(구로구, 안산시, 충주시, 옥천군)의 지역간 격차 및 지역 내에서의 격차를 확인하였다.

3. 협동연구 수행

본 연구는 건축 · 도시환경 분야와 복지 · 돌봄 분야 간의 학제간 연구로 기획되었다. 건축공간연구원의 주관으로 근린 단위의 공간 요소와 행태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구축 방안 연구를 주관하고, 복지·돌봄 분야 정책 전문 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돌봄실태 및 돌봄 환경을 조사하고 돌봄서비스 제고 방안을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건축공간연구원은 근린 단위의 아동 행태와 생활인프라 접근성 관련 연구의 연속선상에서 지역별 돌봄시설 접근성 및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행태와의 연관성에 초점하여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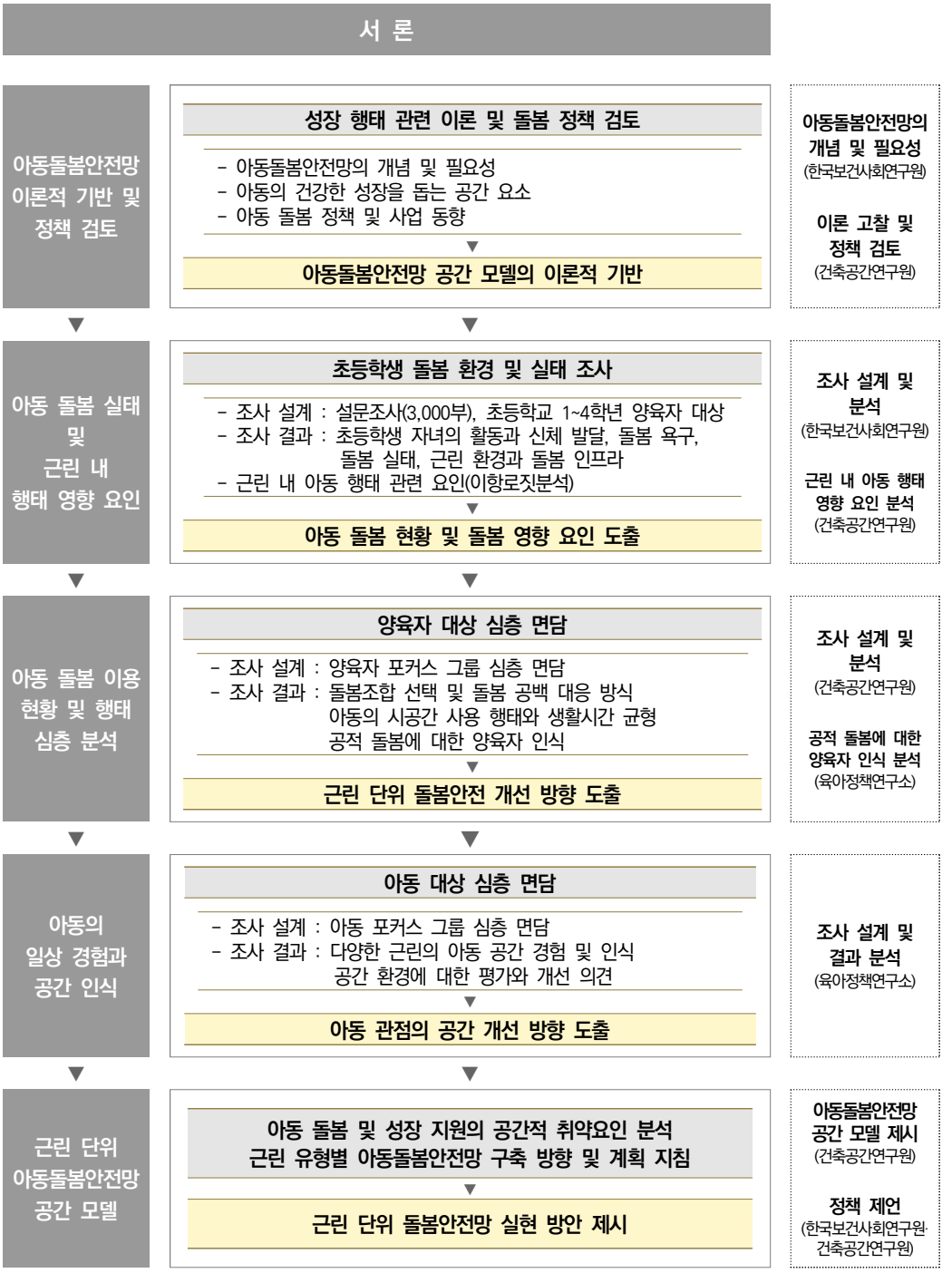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서 사회안전망으로서의 돌봄안전망의 개념 및 실행 방안을 제안한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며, 본 과제에서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돌봄 실태와 돌봄 환경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며 지역·근린 특성에 기반한 아동돌봄안전망 구축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친화 지역사회 주제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아동 발달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연구진을 구성하며, 본 과제에서는 아동 포커스그룹 연구를 전담하고 양육자 포커스그룹 조사 및 분석에 참여하였다. 연구의 흐름은 [그림1-3]과 같다.

〈표 1-3〉 협동연구기관 구성 및 연구내용

협동연구기관 및 연구진	연구 내용	참여 비중
건축공간연구원 (주관)	- 연구 총괄 - 양육자 면담을 통한 돌봄 실태 및 근린 내 아동 행태 조사 (공동) - 사례지역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공간 분석 -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방향 및 지침 제시	45.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위탁연구용역)	-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 및 구성 요소 제시 - 아동 돌봄실태 및 돌봄환경 조사 및 분석 - 양육자 면담을 통한 돌봄 실태 및 근린 내 아동 행태 조사 (공동) -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36.5%
육아정책연구소 (위탁연구용역)	- 아동의 방과후 행태 및 근린 환경 인지에 대한 포커스그룹 연구 - 공적 돌봄 이용에 대한 양육자 인식 분석	18.5%

출처 : 연구진 작성


서 론
아동돌봄안전망 이론적 기반 및 정책 검토
성장 행태 관련 이론 및 돌봄 정책 검토
-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 및 필요성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 요소
- 아동 돌봄 정책 및 사업 동향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의 이론적 기반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 및 필요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론 고찰 및 정책 검토 (건축공간연구원)
아동 돌봄 실태 및 근린 내 행태 영향 요인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 조사
- 조사 설계 : 설문조사(3,000부), 초등학교 1~4학년 양육자 대상
- 조사 결과 : 초등학생 자녀의 활동과 신체 발달, 돌봄 욕구, 돌봄 실태, 근린 환경과 돌봄 인프라
- 근린 내 아동 행태 관련 요인(이항로짓분석)
아동 돌봄 현황 및 돌봄 영향 요인 도출
조사 설계 및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근린 내 아동 행태 영향 요인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아동 돌봄 이용 현황 및 행태 심층 분석
양육자 대상 심층 면담
- 조사 설계 : 양육자 포커스 그룹 심층 면담
- 조사 결과 : 돌봄조합 선택 및 돌봄 공백 대응 방식
아동의 시공간 사용 행태와 생활시간 균형
공적 돌봄에 대한 양육자 인식
근린 단위 돌봄안전 개선 방향 도출
조사 설계 및 분석 (건축공간연구원)
공적 돌봄에 대한 양육자 인식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아동의 일상 경험과 공간 인식
아동 대상 심층 면담
- 조사 설계 : 아동 포커스 그룹 심층 면담
- 조사 결과 : 다양한 근린의 아동 공간 경험 및 인식
공간 환경에 대한 평가와 개선 의견
아동 관점의 공간 개선 방향 도출
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아동 돌봄 및 성장 지원의 공간적 취약요인 분석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구축 방향 및 계획 지침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실현 방안 제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제시 (건축공간연구원)
정책 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건축공간연구원)

[그림 1-3] 연구흐름도

02

아동돌봄안전망의 이론적 기반과 정책 동향

제1절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 및 필요성

1.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

가.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우리나라에서 아동 돌봄은 유자녀 가족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정책으로 도입되었지만(강지원 외, 2021, p.41), 아동에 대한 돌봄 책임을 가족에서 사회로 확대하는 사회정책이다. 이때,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무의 강화는 부모의 근로와 관계없다. 근로하지 않는 부모부터 근로하는 부모까지 아동과 가족이 처한 상황이나 욕구는 다를 수 있지만,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과거에는 아동 돌봄을 아동(복지)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인식하였지만, 최근에는 사회적 돌봄 체계로써 아동 돌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때, 아동 돌봄은 교육과 돌봄의 통합 혹은 긴밀한 연계에 초점을 맞춘다. 즉, 사회적 돌봄 체계로써 아동 돌봄은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회정책이면서 동시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가족 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등 다양한 측면과 교차하는 다면적인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아동 돌봄 정책의 환경은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경제적 맥락을 반영하여 국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7].

과거에는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해야 한다는 인식에 근거한 생계부양자 모델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식적인 돌봄 기관을 확대하여 돌봄 부담을 사회화해야 한다는 돌봄자 모델로 양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부모의 선택과 아동의 권리, 사회적 불평등 등 복잡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정책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노동시장의 결과와 아동 복지를 모두 고려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즉 인구통계학적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가족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가, 시장, 사회, 가족 참여를 포함하여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향은 어린 영유아에 대한 교육·보육(ECEC, Early childhood

7)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아동 돌봄 정책이 교육-교수학습-돌봄을 결합한 통합 모델이 특징이며, 참여, 민주주의, 자율성 및 자유에 초점을 맞춰 아동 중심의 포괄적인 접근법을 강조한다([1]. 북유럽국가에서 아동 돌봄 정책은 일정 수준 이상의 훈련된 전문 인력의 활용과 이에 따른 높은 수준의 서비스 질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서비스 표준화에 대한 압력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임금) 등으로 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ducation and care) 체계에서 시작됐지만, 최근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돌봄(OHSC, Out-of school hour care)까지 확대되고 있다.

나. 아동 돌봄에 대한 통합적 접근

지금까지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은 가정 안과 가정 밖으로 구분하였고, 가정 밖은 다시 학교와 학교 외로 이원화되었다. 이런 가운데 학교는 보편적 욕구를, 학교 외는 특수한 욕구로 이원화되면서 아동 돌봄은 부처 간 경쟁과 대립, 갈등으로 반목하는 관계를 형성하였다. 실제로, 가정에 대한 지원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지원센터를 설치(예, 가족센터, 육아종합센터 등)하였고, 가정 밖의 사회적 돌봄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혹은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설치되면서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이소영 외, 2019; 한성민, 2019; 강지원 외, 2021; 강지원 외, 2022).

강지원 외(2021)와 강지원 외(2022)는 기존의 아동 돌봄 관련 정책이 가정 돌봄보다 사회적 돌봄을 유도하고, 선별적 돌봄보다 보편적 돌봄이 '선(善)'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방과후돌봄의 이원화를 확대했고 이는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시설 돌봄은 아동 돌봄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이며, 한 가지 방식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가 경쟁하듯이 확산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돌봄 방식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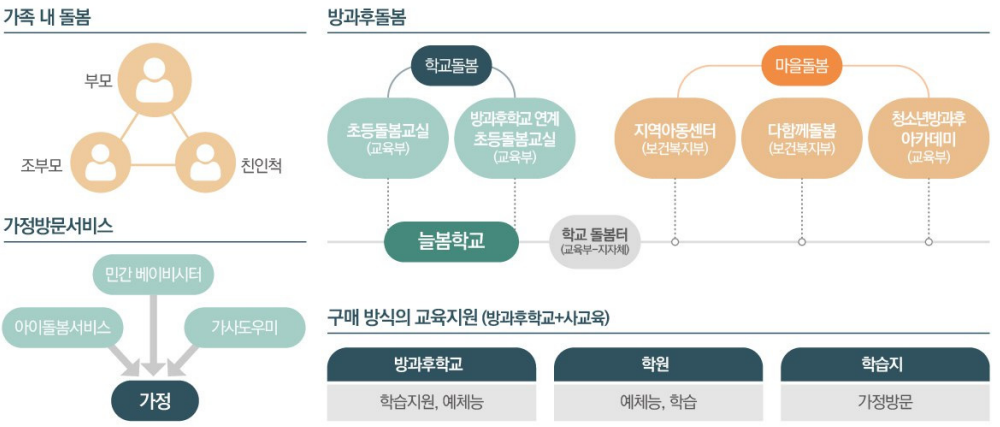
실제로, 아동 돌봄 체계는 크게 네 가지 형태를 띤다(그림 2-1 참조). 첫째, 가정 내에서 부모가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돌봄' 방식이다. 부모는 일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봄을 전적으로 부담할 수도 있고, 일하는 부모는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용하여 자녀를 직접 돌볼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 대신 그 역할을 함께 살거나 근처에 거주하는 조부모나 친인척, 이웃 등 비공식 자원이 대신하기도 한다. 정부는 가정 내 양육을 돕기 위해 '공동육아나눔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설치하여 부모 교육과 양육지원, 교재교구 대여 등을 지원한다(강지원, 2022).

둘째, 자녀의 건강 및 가정 여건 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한 돌봄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가정으로 방문하여 자녀를 돌봐주는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 이용 방식이다. 공적 영역에서 운영하는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인데, 최근에는 민간 영역에서 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구인·구직을 연계하는 온라인 플랫폼(platform)도 성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가정 양육 부모를 지원하는 시간제 방문서비스로 가정보육 전담사가 자신의 집이나 별도의 공간에서 소규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우리나라는 36개월

이하의 영아에 대한 종일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가 혼재하며, 주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강지원, 2022). 아이돌봄서비스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도 시간대를 달리하면 이용할 수 있다.

셋째, 공적인 영역에서 운영하는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영유아기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하며, 초등학생은 방과후에 학교 안에 있는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수 있고 그 외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학교 밖에 있는 돌봄 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강지원, 2022). 단, 중학생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만 이용할 수 있고 초등돌봄교실은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에 집중되어 있으나, 2024년에 늘봄학교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학년과 관계없이 방과후돌봄이 확대될 것이다. 이렇듯 돌봄 시설은 연령별로 시설유형이 구분되며,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연령이라도 시설유형이나 부처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은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교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한다. 주로 학원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학습에 대한 지원을 위한 국영수 중심의 보습학원과 돌봄을 대체하는 태권도 학원 등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농구, 배구, 축구, 발레, 방송 댄스 등 다양한 예체능 활동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료: 강지원 외(2020). p.44, [그림 2-1]을 토대로 연구진 수정·보완

[그림 2-1] 아동 돌봄 체계 현황

이러한 사업들은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는 특성이 있지만, 서로 다른 부처에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상 선정 기준은 부처별, 사업별 차이가 있다.

과거 방과후돌봄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와 저소득가구의 자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로 이원화되었다. 이로 인한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현재 대상 선정 기준의 차이는 형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 운영에서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나이로 구분하는 대상 선정 기준은 일부 한계를 가진다. 연령대를 기준으로 하면, 방과후돌봄은 초등학생에 초점을 맞춘다. 예외적으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외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방과후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는 신규 고등학생의 이용을 허가하지 않고, 기존의 이용 아동이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만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 아동은 중학생까지로 한정되는 것이다. 사실 지역아동센터의 협소한 면적과 돌봄 중심 프로그램 운영, 사회복지사로 한정되는 종사자의 자격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고등학생에게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매우 적합하다고 추천하기는 어렵다. 반면에, 도서·산간 지역 등 방과후에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모여 공부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8)]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에서 방과후돌봄 시설의 이용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과 '만 9세에서 24세 미만 청소년'이지만, 실제 사업별 대상은 초등학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이용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프로그램이 주로 교육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이유로, 강지원 외(2021)는 방과후돌봄의 대상을 '초등학생'으로 한정하고, 아동돌봄안전망의 구축은 출생 직후부터 만 12세 미만 혹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표 2-1〉 방과후돌봄 시설 학년 비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	2	3	4	5	6	1	2	3	1	2	3
초등돌봄교실[1)]	■	■	■	■	■	■						
학교돌봄터	■	■	■	■	■	■						
다함께돌봄센터	■	■	■	■	■	■						
지역아동센터[2)]	■	■	■	■	■	■	■	■	■	■	■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	■	■	■	■			

주: 1) 초등돌봄교실은 주로 저학년에 초점을 맞추며 고학년은 방과후학교연계돌봄교실을 활용함
2)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 모두 이용가능하나, 고등학생의 신규 이용은 허용하지 않음

출처: 강지원(2023), p.142.

둘째, 전달체계에 따른 대상 선정 기준의 구분도 한계를 가진다. 형식적으로 방과후돌봄의 지원 대상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으로 유사해졌고, 세부적인 대상 목록도 완전히 같지는 않

8) 중학생이 이용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경우 주로 청소년수련원에 설치되어 공간적 한계로 인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고등학생까지 대상 연령을 확대하지는 않는다.

지만 상당히 유사하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 돌봄은 '보편적인 대상'으로, 마을 돌봄은 '저소득층'으로 구분된다고 인식한다. 예를 들면,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중 전업주부인 경우에 '맞벌이가 아니어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거나, 맞벌이로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받아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게 되기도 한다.[9] 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시설장들은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만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낙인감이 생긴다'며, '일반 아동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주장한다.[10][11]

김영란 외(2018)와 강지원 외(2020)에서 방과후돌봄을 비자발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시설별 차이는 있으나 두 연구 모두 이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것과 같이 대상 선정 기준으로 방과후돌봄을 이용하지 못한 것이 학교 돌봄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이용하고 싶은 수요에 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2-2〉 비자발적 방과후돌봄 미이용 사유

(단위: %)

구분	김영란 외(2018)			강지원 외(2020)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여서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이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용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하여서
초등돌봄교실	36.5	47.8	43.6	38.3	56.3	43.1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31.6	24.1	32.5	33.5	27.4	38.9
지역아동센터	7.9	14.9	8.1	12.2	9.4	8.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8	8.4	13.9	10.3	4.6	8.7
다함께돌봄센터[1)]	-	-	-	3.4	0.7	0.6
기타[2)]	3.1	4.8	1.8	2.2	1.6	-

주: 1)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에 신규 도입되어, 김영란 외(2018)에서는 조사하지 않았음
2) 김영란 외(2018)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별도로 조사하였으나 강지원 외(2020)와의 비교를 위해 '기타'에 포함하였음
출처: 김영란 외(2018), p.65; 강지원 외(2020), p.114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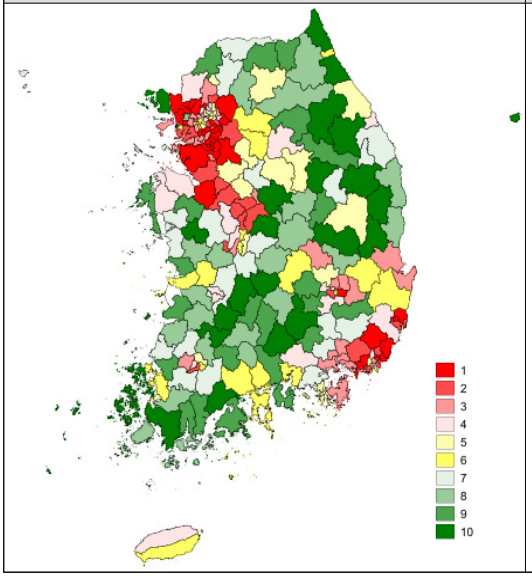
한편,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와 방과후돌봄 모두 예산의 투입으로 공급은 확대됐으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한다.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은 시도 단위로는 대부분 100%를 초과하지

9) 강지원 외(2023b), "영유아·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에서 수행한 학부모 FGI 조사 결과이다.
10) 지역아동센터는 시설 중 유일하게 우선돌봄아동과 일반아동의 정원 기준을 갖고 있다. 즉 신고정원의 50% 이상은 우선돌봄아동이 이용해야 하며, 일반아동은 50% 범위 내에서 등록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23c, p.42). 이는 2021년 선정기준(60% vs 40%)(보건복지부, 2021, p.39)에서 다소 완화된 것이다.
11) 다른 시설들이 '돌봄이 필요한 아동'으로 전체 10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 외에 일반 아동을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는 형평한 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만,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원도 등 산간 지역과 도서 지역에서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 방과후돌봄 이용률 역시 2022년 전국 평균 12% 수준이나, 시군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 이하의 공급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방과후돌봄 이용률의 10분위값이 27%에서 30%에 분포한다는 사실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의 보편적인 공급과 비교할 때 방과후돌봄의 공급이 현저히 낮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단위: %)

방과후돌봄 이용률[1)]



분위별 최솟값과 최댓값,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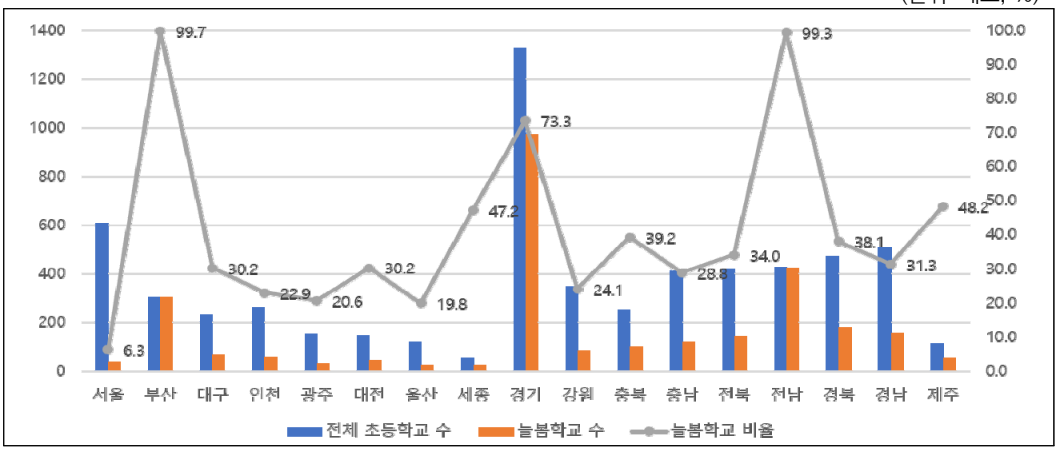
	범례	최솟값	최댓값	평균
하위	1분위	6.13	10.84	9.18
	2분위	11.00	12.34	11.57
	3분위	12.46	14.49	13.40
중위	4분위	14.63	16.44	15.41
	5분위	16.66	19.02	17.86
	6분위	19.05	23.75	21.01
	7분위	23.92	33.03	29.36
고위	8분위	33.59	39.96	36.98
	9분위	40.55	49.89	45.52
	10분위	50.06	74.08	57.25

주: 1) 방과후돌봄 이용률은 시군구 단위로 산출하여 전국 분포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였음
2) 범례는 1분위에서 10분위를 나타내며, 분위별 1분위는 짙은 적색이며, 10분위는 짙은 녹색임
자료: 박윤수 외 (2023). pp. 32~33.

[그림 2-2] 돌봄 이용률

교육부의 늘봄학교 도입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으나, 이미 초등 방과후돌봄의 70% 이상을 학교에서 분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간의 확보가 가능하지 않은 수도권 및 도시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1학기에 전체 초등학교의 약 3분의 1 수준인 2,838개 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었다(교육부, 2024). 교육부는 늘봄학교 운영 한 달을 맞아 충남과 전북, 경북에서는 목표보다 신청이 더 많았다고 밝혔지만(교육부, 2024),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여전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운영 학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 2024a).

(단위: 개교, %)



자료: 공공데이터포털. (2024). 교육부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https://www.data.go.kr/data/15106335/fileData.do# (검색일: 2024.8.27.)

[그림 2-3] 늘봄학교 운영 현황

한편,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의 구축·운영'을 계기로,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요를 파악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공급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게 된 것은 큰 성과이다. 교육부(사회부총리)는 매년 방과후돌봄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방과후돌봄을 수행하는 각 부처와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기관의 총량을 파악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된 '방과후돌봄 현황' 자료는 현재 2021년 기준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이다. 특히 이 자료는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을 분리하지 않은 전체 숫자이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초등학생만 분류한 숫자이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은 정원에 대한 정보가 없고 현원만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은 2022년 기준 자료이지만, 방과후돌봄 전체 공급 자료가 아니며 초등돌봄교실의 현원만 제시되어 있다(공공데이터포털, 2024).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 생산하는 통계 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 시설의 수 및 현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12], 돌봄 전체의 수요-공급을 확인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각 부처의 사업별 전달체계는 동시에 확장되었으며, 지역 단위에서는 수요와 대응하지 않고, 돌봄 사각지대와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13] 즉, 아동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학교 공간을 활용한 늘

12)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는 시설 단위 통계조사를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시도별 개소수 및 이용아동 수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

13) 각 시설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병합한 결과, 특히 도 지역의 군 단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읍지역에 초등학교를 주변으로 다양한 방과후돌봄 시설이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면지역의 설치 비율은 현저히 낮다.

봄학교 설치가 쉽지만, 아동 인구가 많고 학교 공간의 활용이 어려운 도시지역에서 늘봄학교 설치가 어렵다. 이런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학교 내에 설치했던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계약을 종료하고,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하여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서울특별시교육청, 2024).[14] 즉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돌봄이 지역별 편중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부족하고, 초등돌봄교실과 학교 안 다함께돌봄센터가 늘봄학교로 전환함으로써 전체 총량에서의 실질적인 증가에는 한계를 가질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 돌봄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고 부처 간 사업의 총괄적인 조정을 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제기되고 있다(예, 인구부처 신설 등). 학교 돌봄은 시도교육청 사업으로 학교 단위 여건 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다만, 중요한 정보가 학부모에게 공개되고 운영 여부가 투명하게 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저녁 돌봄 신청자가 없어 돌봄교실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에서 실제로 이용자의 신청이 없는지, 학교가 신청 인원이 미달인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부처별로 설치하는 시설의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각의 매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전체 자료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시설 미공급으로 인한 돌봄 공백 지역에 누가 어떻게 돌봄을 공급할지 역할 분담과 책무성이 모호하다. 유사하게, 마을 돌봄의 공급 현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초등 고학년을 대상으로 반을 편성할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반 편성을 확대할지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하는 체계도 미흡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은 '학교(교육)'과 '학교 외(마을)'로 이원화된다. 이러한 병행 체계는 2018년 온종일돌봄체계 구축 운영 사업이 본격화된 이후 교육을 중심으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교육부의 아동 돌봄은 '교육' 분야 현물급여로 한정되어 있어 전체 돌봄 체계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회적 돌봄으로 협소하게 바라본다.

오히려 아동 돌봄 체계는 개인과 가족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시설 돌봄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 돌봄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 돌봄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정 돌봄을 지원하거나 가정으로 방문하는 돌봄서비스가 대체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돌봄의 공간 확보는 마을 돌봄의 협력을 통해 달성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가족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적인 돌봄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사회적 돌봄의 확대와 함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즉 네 가지 서로 다른 돌봄 양태는 배타적이기보다 상호 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는 지점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14) 지난 5년 동안 학교시설 복합화 등을 통해 학교 내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뤄졌으나, 최근 학교 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던 일부 시설의 계약이 종료되었다. 이는 학교 안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과후돌봄(예, 초등돌봄교실, 늘봄교실 등)으로 전환되기도 했지만, 방과후돌봄의 전체 총량이 감소될 가능성도 있다.

2.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과 구성요소

가.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

강지원 외(2021)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사회적 돌봄의 확대를 전망하면서 생애주기별 돌봄안전망 구축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 생애주기(Life cycle hyphothesis)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인 6단계로 구분하지만,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시기는 주로 미성년으로 성인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기와 아동기,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보호자의 보조와 지원이 필요한 노년기가 대표적이다.[15] 이런 이유로, 사회적 돌봄 체계의 구축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중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아동돌봄안전망을 제안하였다.아동돌봄안전망은 “출생 이후부터 아동을 중심으로 가정-사회-국가가 협력하는 돌봄의 사회화를 뜻하며, 이를 위해 구축되는 다층적인 안전망(safety net)을 뜻한다. 즉, 모든 아동은 사회적 돌봄을 받을 필요가 있고, 사회는 모든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돌봄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강지원 외, 2021, p.204).” 이는 모든 아동은 권리로써 사회적 돌봄을 요구할 수 있고, 우리 사회는 아동의 사회적 돌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때 사회적 돌봄이 가정(혹은 부모)과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돌봄의 사회화란,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개입과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워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양방향을 포함한다. 즉 아동을 중심으로 보편적인 욕구에 대한 다양한 자원들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돌봄안전망의 토대 위에 특수한 욕구에 대한 자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공되는(강지원 외, 2021, pp. 204-205)” 아동 중심 돌봄 체계의 구축을 뜻한다.

아동돌봄안전망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우선으로 고려할 층위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근로 환경의 기반 조성이다. 아동돌봄안전망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궁극적인 지향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사회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유급 가족 돌봄 휴가 등에 대한 보장이다.

두 번째로, 일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의 구축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의 구축은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정한 시설의 효율적 공급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적절한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춘 전문가에 의해 돌봄이 이뤄지며, 아동의 신

15) 전 생애에 걸쳐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근로무능력 및 장애는 생애주기별 돌봄에 더해 추가적인 욕구를 가진 것으로 생애주기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급은 지역 단위에서 필수 시설로써 공급에 대한 책임이 명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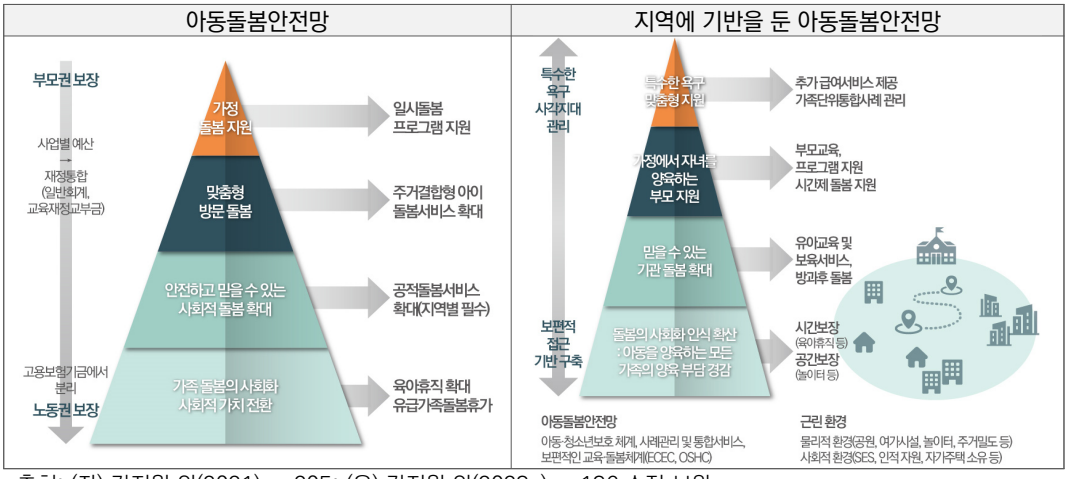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반적으로는 가정 내에서 주 양육자가 돌봄을 제공하지만, 긴급 혹은 정규적인 단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아동 혹은 가족이 시설을 이용한 집단 활동보다 가정 내에서 일대일 활동을 선호할 때는 긴급·일시적인 돌봄에 대응하거나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써 가정 방문형 돌봄이 제공될 필요도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시설 유무와 관계없이 사례를 받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가정 방문형 돌봄을 담당한다고 해도 종사자의 안전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필수적이다. 다만, 이러한 자격 요건으로 인한 진입 장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화된 조건에 따른 구분이 필요하고, 이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와 거주하는 아동에게도 사회적 돌봄 체계는 필요하다. 그러나 시설 이용이나 가정방문형 돌봄을 신청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아동 돌봄 체계를 강요할 수는 없다. 이런 이유로 가정 돌봄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교재교구의 대여와 아동의 발달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안내 등으로 한정할 수 있다.

아동돌봄안전망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다부처 방과후 돌봄 사업의 총괄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육아휴직과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중앙부처 단위의 정책 전환을 환기하는 차원에서는 유효했으나, 지역 단위에서 돌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인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계에 직면하였다. 즉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예, 도서, 산간 지역 등),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아동 인구 밀집 지역과 아동 인구 감소 지역의 현원 부족, 놀이터를 보유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소수의 단독주택 등은 중앙부처의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아동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강지원 외(2023a)는 아동돌봄안전망의 개념에 브롬펜브레네(U.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을 접목하여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수정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예, 가족, 학교, 교회, 병원)와 거시체계(예, 근린 등 물리적 환경, 이웃 등 사회적 환경, 사회서비스 정책, 지방정책)가 지역 단위에서 결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은 기존의 아동돌봄안전망에 근린 환경을 결합하면서 개념을 확장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근린 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환경으로 이원화하였고, 시도-시군구보다 더 작은 단위(unit)으로 '우리 동네'를 기준으로 한다.[16]

16)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에서는 근린 환경에 대한 문항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를 중심으로 응답해달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론, 우리 동네 역시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지만, 이를 통제하지 않았다.



출처: (좌) 강지원 외(2021), p.205; (우) 강지원 외(2023a), p.136 수정·보완

[그림 2-4] 아동돌봄안전망 개념의 변화

나. 아동돌봄안전망의 구성요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돌봄안전망은 4개의 돌봄 형태로 구성된다. 가장 보편적인 기본 층위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양육 시간 지원으로, 부모의 양육유형과 고용 상태, 정책 수혜의 결합에 따라 다양하다. 양부모는 한부모보다 자녀와 직접 돌보는 시간의 확보가 쉽다. 일반적으로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 1인이 소득자이자 양육자의 역할을 모두 해야 하므로 이러한 역할을 두 사람이 분담하는 경우보다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부모 양육 유형별 아동 인구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 인구는 2018년 2백 803만 명에서 2022년 3만 137만 명으로 증가했는데, 이 중 양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은 2018년 94.8%에서 2022년 92.0%로 감소하였다. 같은 시기 한부모가 양육하는 아동은 3.6%에서 6.4%로 증가하였다. 한부모가 부(父)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모(母) 가구가 2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아동은 1.6%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2-3〉 부모 양육 유형별 아동 인구(2018~2022)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양부모 양육		2,657,923	2,925,230	2,945,358	2,912,548	2,885,448
한부모 양육	부	33,141	41,433	49,846	60,183	65,305
	모	68,669	85,869	102,841	122,071	134,934
부모 미양육		43,870	50,506	51,611	51,495	51,395
계		2,803,603	3,103,038	3,149,656	3,143,297	3,137,082

출처: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양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취업 형태별로 아동 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 양부모 가구 중 맞벌이 가구의 아동은 2018년 61.6%에서 2022년 86.7%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했다. 이와 비교할 때 홑벌이 가구의 아동은 2018년 36.4%에서 2022년 27.7%로 상당 수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일하지 않는 가구 내 아동 역시 2018년 1.6%에서 2022년 1.1%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맞벌이 가구의 아동 수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즉, 양부모가구에서 맞벌이가 일상화되면서 아동 돌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아동돌봄안전망에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에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 시간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2020~2021년 코로나 영향으로 가구 소득이 감소하므로, 맞벌이가구의 일시적인 증가를 초래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2-4〉 양부모 가구의 취업 형태별 아동 인구(2018~2022)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맞벌이		1,637,222	1,865,386	1,911,991	1,991,413	2,502,409
홑벌이	모	82,275	87,632	88,192	85,504	83,181
	부	886,430	922,082	898,348	796,992	716,233
일하지 않는 가구		51,996	50,130	46,827	38,639	33,625
계		2,657,923	2,925,230	2,945,358	2,912,548	2,885,448

출처: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다음으로, 부모의 고용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부모 중 1명이 전일제로 일하고 다른 1명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분업화 모델에서 적어도 부모 중 1명은 아동을 양육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그러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모 모두 전일제로 일을 한다고 해도,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 직장에 근무한다면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정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반면에 부모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이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하기 어려운 기업 문화가 있다면, 부모의 부재로 인한 사회적 돌봄이 충분하게 제공되어야 아동의 돌봄 공백을 예방할 수 있다.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모의 경제활동 특성을 조사한 결과, 52.6%의 어머니는 상시 근로(119만 명) 중이며, 자영업은 40만 명(18.0%),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57만 명(25.3%)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아버지는 상시 근로(168만 명, 74.7%)가 매우 높고, 자영업이 38만 명(17.1%), 비경제 활동(10만 명)이 4.5%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경제활동은 상시 근로와 비경제활동에서 약 20% 이상 차이가 있다.

〈표 2-5〉 부모의 경제활동 특성(2022)

(단위: 명)

구분	비경제활동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영업	계
모	575,909	1,196,798	94,469	408,849	2,276,025
부	102,609	1,686,106	82,188	385,854	2,256,757

주: 경북 청송군과 울릉군에서 모(母)의 경제활동에 대한 값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통계청의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부모가 종사하는 기업체 규모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기업에 다니는 부(父)는 16.5%, 모(母)는 9.2%이며, 대부분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나타났다. 다만, 부는 중견·중소기업(40.9%)이 소상공인(25.9%)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모(母)는 중견·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 30%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6〉 부모의 기업체 규모(2022)

(단위: 명)

구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제외	계
모	157,179	534,118	533,372	475,456	1,700,125
부	355,143	881,794	557,509	359,702	2,154,148

주: 경북 청송군과 울릉군에서 기업체 규모에 대한 값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였음
출처: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이러한 근로 상태와 기업체 규모는 육아휴직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2022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출생 연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상시근로자인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9.8%이다. 반면, 상시근로자인 부(父)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9%이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기준으로 2회 이상 사용한 경험은 모(母)가 5.0%, 부(父)가 3.5%이다.

〈표 2-7〉 육아휴직 사용 경험

(단위: 명)

구분	1회	2회 이상	사용 소계	미사용	계
모	111,499	5,870	117,369	1,079,429	1,196,798
부	47,470	1,709	49,179	1,636,927	1,686,106

주: 1) 2012~2019년 출생 아동을 기준으로 작성함
2) 부모 각각 종사상지위가 상시근로일 때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집계함
출처: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모(母)의 첫 번째 육아휴직 사용 당시 기업체 규모는 공무원을 포함한 비영리(57.6%), 중견·중소기업(21.5%), 대기업(14.8%) 순으로 나타났다. 우려와는 다르게 대기업과 공무원 외에도 중견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의 사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8〉 육아휴직 사용 당시 기업체 규모

(단위: 명)

구분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비영리	계
모	17,333	25,201	7,251	67,584	117,369

주: 1) 모(母)를 기준으로 작성함
2) 첫 번째 육아휴직 당시의 기업체 규모임
출처: 통계청(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휴직 사용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까지 대상이 된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 지원의 정책 수혜를 측정하는 변수의 활용은 제한된다. 즉 고용 상태이면서 육아휴직인 상태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막내 자녀가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인 학부모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시간 지원'을 일자리 형태와 출·퇴근 시간을 조사하였다. 일자리 형태는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 고용주/자영업자/프리랜서, 무급가족 종사자로 구분하였다. 출퇴근 시간은 돌봄 공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대별로 측정했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수도권과 도시에 몰려 있어 상당한 인구가 출·퇴근에 하루 평균 72.6분이 소요된다(안태호, 2023).[17] 근로 시간과 출퇴근 시간을 합한 시간이 자녀의 실질적인 근로로 인해 자녀에 대한 돌봄을 가능하지 않은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방과후에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의 대안은 상시적인 돌봄 시설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두 번째 층위는 보편적인 방과후 돌봄 시설의 공급과 이용에 있다. 따라서 두 번째 층위는 방과후 돌봄 시설의 공급과 수요, 이용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먼저, 방과후 돌봄의 시설 공급은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으로 구분된다. 학교 돌봄은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다가 윤석열 정부 이후 늘봄학교로 통합 개편되고 있다. 마을 돌봄은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방과후돌봄 체계가 개편되면서 마을 돌봄 시설은 '학교 밖 늘봄학교'와 충돌되는 지점이 있다. 실제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협업 사례는 적어도 지자체가 설치한 다함께돌봄센터는 학교 밖 늘봄센터로 전환되어 흡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18]

17) 통계청이 에스케이텔레콤과 함께 가명정보를 결합한 '통근 근로자 이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국 직장인 712만 명이 출퇴근을 위해 하루 18.4km를 이동했고, 평균 72.6분(출근 34.7분, 퇴근 37.9분)을 사용했으며, 직장에 머문 시간은 하루 평균 9.3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시간이 가장 긴 지역은 수도권으로 출퇴근에 83.2분 걸렸다.

18)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전면 도입을 압두고 서울시가 보유한 학교 밖 돌봄 인프라인 '구로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를 활용한 '학교 밖 늘봄학교'를 지난 5월 2일부터 운영하였다(김기훈, 2024, 서울시, 전국 첫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시 돌봄-현장 연계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57700004, 검색일: 2024.6.30.).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돌봄 자원과 학교를 직접 연계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최초의 시도이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종류이다.

2004년 이후 지난 20년 동안 방과후돌봄은 여러 부처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2024년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방과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도입되면 가장 보편적인 돌봄 시설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다만, 학교의 설립 목적이 아동에 대한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의 제공에 있으므로, 기본권인 교육권이 침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늘봄학교의 추가 공급이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예, 지역, 학년 등).

모든 학교에 늘봄학교를 설치하는 게 학교 수업을 연장하자는 주장과는 분명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방과후 돌봄을 학교 수업 연장으로 전환하게 되면 모든 학생에게 방과후돌봄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돌봄안전망의 핵심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목표를 두고 아동과 가족의 여건에 맞는 방과후돌봄을 선택할 수 있고 원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방과후돌봄을 필요로 할 때 돌봄을 제공할 의무가 있지만, 방과후돌봄이 필요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는데 방과후돌봄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 무엇보다도 현재 교육 체계는 아동의 성장을 고려한 수업 시수와 아동의 발달에 필요한 교과와 활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성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 시간의 연장은 오히려 아동의 발달을 위협할 수 있다.

이때, 방과후돌봄 기관의 설치와 운영은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돌봄 수요는 아동 수 혹은 초등학생 수를 고려하는데, 아동돌봄안전망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돌봄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부모가 방과후에 자녀를 직접 돌봐 방과후 돌봄 기관을 이용할 필요가 없거나, 방과후 돌봄 기관 대신 민간 학원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자녀의 학년이 올라가면서 돌봄 프로그램이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하거나 부모 외의 돌봄자(예, 조부모, 성인 나이의 형제 자매 등)가 있어서 정기적인 시설 돌봄을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공식적인 방과후돌봄 시설이 모든 지역과 모든 학교,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없으며, 돌봄 수요를 반영하되 돌봄에 대한 이용 희망이 공급에 반영되는 순환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돌봄 수요의 증가가 돌봄 공급의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 수요의 감소는 돌봄 공급의 축소에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전년도 가을에 차년도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를 매년 조사한다. 이러한 수요조사는 돌봄의 욕구를 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과 연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교 건물의 공간 활용과 방과후돌봄을 위한 시설 환경 조성, 돌봄전담사의 채용과 급·간식 운영 등을 준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학교 단위, 시도 단위 정확한 수요를 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관내 아동 수, 초등학교 수, 초등학생 수, 지역 특성과 아동 및 가족 특성, 방과후 돌봄 공급 자원 등을 고려하여 기본 수요를 마련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예측하지 않았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공급은 긴급, 일시, 상시 등으로 구분하여 여러 자원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우선 대응하고, 이 중 상시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차년도 공급계획에 반영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은 시도 단위와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요가 있고 공급이 이뤄진다고 해도 아동이 이용하기에 너무 먼 거리거나 혼자 가기 위험한 위치에 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다. 유사하게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초등학교 저학년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면 단기간 이용을 장려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돌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인 접근성(거리, 이동 수단 등)과 서비스 질(프로그램 내용과 수준 등) 등 실질적인 이용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는 학부모의 이용 의사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학기 중 혹은 방학 중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지, 주당 이용 일수와 일당 이용 시간 등을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주관적이고 일관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19] 이런 이유로,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는 돌봄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식별한다. 예를 들면, 부모의 근로 형태(예, 맞벌이 등)와 근무시간(출·퇴근 시간 포함), 현재 방과후에 이용하는 시설과 서비스, 등·하교 시간 등을 파악하면, 성인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이 혼자 있는 돌봄 공백을 확인하게 되고, 이에 근거하여 돌봄의 필요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방과후돌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나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은, 돌봄 공급의 부족과 서비스 질의 문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돌봄 시설의 이용을 선호하지 않는 아동은 일대일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상시적인 돌봄보다 짧은 시간 혹은 간헐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예, 독감 등), 시설을 공급하기에는 수요가 너무 적거나 시설 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방문형 돌봄을 이용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대표적인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이다. 다만,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 이용은 주로 어린 영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한 전문화된 프로그램과 활동보다는 거주지 내 놀이터 및 인접 놀이시설에서 가벼운 놀이 활동을 하는 동안 보살피는 정도(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4)의 단순 돌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령기 아동에게 적합하지는 않다. 이에 더해 최근에는 기본형 서비스에 가사 업무를 결합한 종합형 서비스가 운영되면서(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4)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와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상시돌봄이 보편적으로 공급되는 반면 가정방문형 돌봄서비스는 보조적 혹은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일반적으로 가정방문형 돌봄은 정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때 신청하면 매칭되는

19) 실제로 많은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봐줄 성인이 있어도 방과후돌봄 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의 퇴근시간을 고려한 최소 수준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만큼(주로, 저녁 식사 직전까지) 이용하기를 희망한다(김영란 외, 2018; 강지원 외, 2020).

방식을 따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정방문형 돌봄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자녀의 질병 및 감염 등의 이유로 학교를 보내지 못해 가정 내에서 돌봐야 할 때나 부모가 출장, 야근, 병원 진료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다.

마지막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는 아동에게도 사회적 돌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기에는 교육을 통한 인지발달도 중요하지만, 또래와의 상호작용이나 규범과 질서에의 적응을 통한 사회·정서적 발달도 중요한 시점이다.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지만, 홈스쿨링을 통해 가정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하거나, 학교는 다니지만 자주 결석하는 아동도 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특수학교 입학이 어려워 가정 내에서 부모가 전적으로 돌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아동돌봄안전망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경우'는 교육과 일반적인 사회 활동에 노출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개입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아동의 신체 발달과 언어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구성되며, 학교 현장에서는 신체검사 등을 통해 아동이 발달단계에 맞는 적정한 성장이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이러한 확인을 통해 개별 아동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추가적인 프로그램의 지원이 연계되기도 한다.

그러나, 가정 내에서 부모와 아동 간 상호작용으로만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발달 연령에 적합한 교재교구의 대여, 공개 프로그램의 참여, 아동 발달에 대한 검사 등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물론 일부 가정에서는 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개입에 거부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아동돌봄안전망의 관점에서는 미래 세대인 아동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생태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모의 선택이 아니라 아동 최우선의 원칙에 근거할 필요가 있다.

3.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가. 아동 발달의 공간 기반으로서 근린 환경의 중요성

아동 성장에 대한 근린 환경의 영향력은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의 출발점이므로, 영향 관계를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아동돌봄안전망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은 일가족양립정책과 아동정책, 가족정책을 대상으로 하며, 교육체계에서 이뤄지는 정책 중에서는 방과후돌봄정책만 포함한다.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은 아동기 초기 신체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의 출생 후 체중 증가와 예방 접종 비율, 영양 상태 등이 개선되고 (Berger et al, 2005), 부모가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아동의 일상적인 건강 관리(예, 균형 잡힌 식사, 규칙적인 신체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 아동의 신체

건강이 개선된다고 지적한다(Grzywacz & Marks, 2000). 이와 유사하게 부모가 유연한 근무 조건을 통해 아동과 질 높은 상호작용 시간을 확보하면, 아동의 애착 형성과 사회적 기술의 발달이 촉진되며(Brooks-Gunn et al, 2010), 부모가 자녀의 학교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지를 제공하면 아동은 더 나은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Hill et al, 2005).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생애 초기에 비교적 이른 시기(출생 직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서 뚜렷한 효과가 발견되었다.

한편, 또래와의 상호작용과 집단의 규범이 적용되는 공식적인 시설 돌봄은 아동의 운동능력과 체력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규칙적인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돌봄 환경이 아동의 대근육과 소근육 운동 발달을 돕기 때문이다(Belsky et al, 2007; Durlak et al, 2010). 무엇보다도 시설 돌봄은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방과후프로그램에 다닌 아동은 사회적 기술, 협력적 행동, 자기조절 능력 등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냈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Vandell et al, 2007).

다음으로, 근린 환경이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이론에 기반을 둔 Brooks-Gunn(1997)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 발달의 두 영역(인지 발달, 사회정서 발달)에 초점을 맞춰 아동의 발달단계를 네 단계(취학전 아동, 학령기 아동, 전기 청소년, 후기 청소년)로 구분하여 근린 효과(Neiborhood effect)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가정이 근린 환경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취학전 아동기와 후기 청소년에게서 근린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강지원 외, 2023a, p.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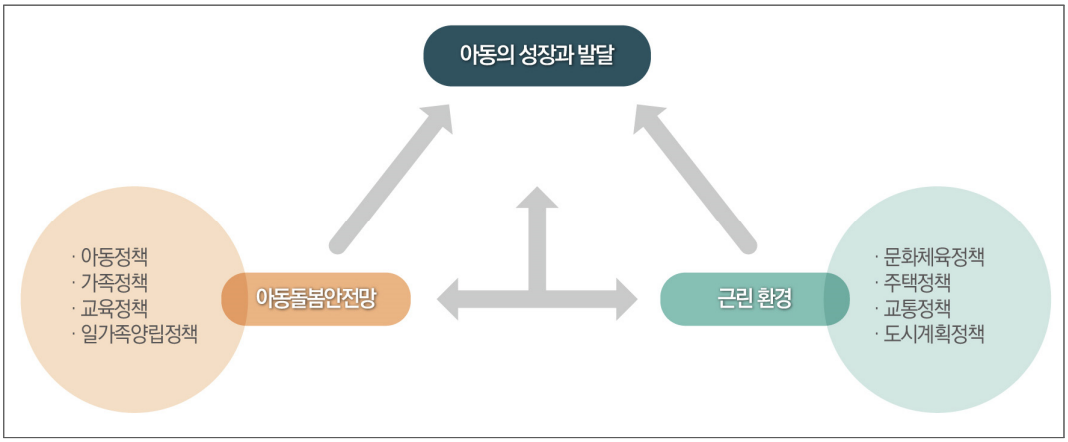
또한, 주거의 질, 자연환경, 학교 및 보육 시설의 상태와 같은 물리적 환경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치며(Evans, 2006),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주거 불안정 역시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O'Connor et al, 2014; Alvarado, 2016; Bullinger & Fong, 2020).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안전망과 근린 환경은 결합하여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Levenhal & Brooks-Gunn(2000)은 근린 환경의 특성이 아동 발달에 조절 효과(Moderating effect)와 매개 효과(Mediating effect)로 작용한다는 점을 실증하였다. 이에 더해 2003년 연구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웰빙에 근린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제도적 자원(Institutional resources)과 관계와 유대(Relationships and ties), 규범과 집단 효능(Norms and collective efficacy)의 세 가지 모델로 제시하였다(강지원 외, 2023a, pp.99-100).[20] 그러나 근린 환경이 아동 발달에 직접적

20) 제도적 자원은 동네의 학습, 놀이, 교육, 건강, 고용 등의 다양한 자원의 수준과 양, 다양성을 포함하며, 관계와 유대는 부모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사회적 관계망, 가정 내 학습 환경과 집의 물리적 환경 등을 포함하며, 규범과 집단효능은 개인이나 커뮤니티 내 공식/비공식 기관들이 수행하는 모니터링을 포함한다(강지원 외, 2023a, pp.99-100).

인 영향을 주는 경우보다 가정 요인과 결합하거나 가정 요인을 매개하는 영향이 더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체계이론에서 아동을 둘러싼 미시체계와 외체계, 거시체계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이는 근린 환경의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지만, 아동과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정적 요인이 근린 환경의 요인과 결합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가정적 요인은 통제하므로, 근린 환경을 페리(C. Perry)의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 개념으로 한정한다.[21)]

이처럼 아동돌봄안전망과 근린 환경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며 결합하여 지원할 수도 있다(그림 2-5).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2-5] 본 연구의 분석 틀

나.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작동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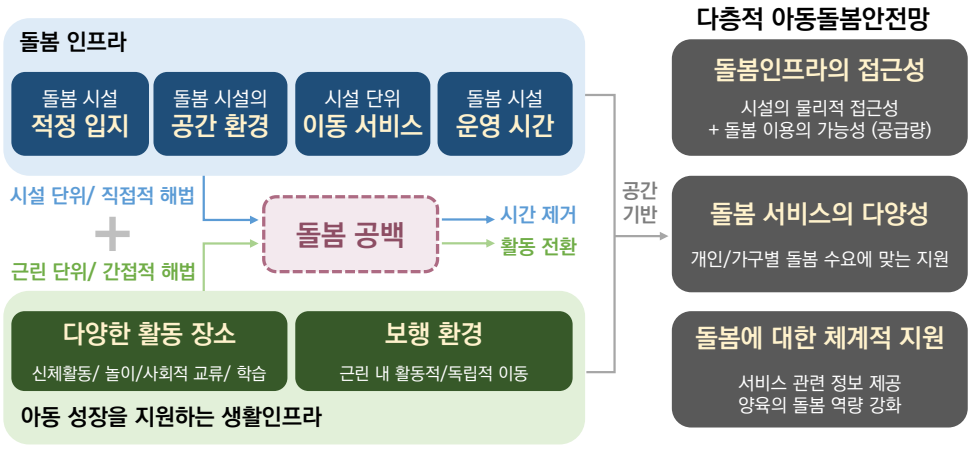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은, ① 근린 환경 특성과 돌봄 수요에 맞춰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공간적 대응인 한편, ② 돌봄 이외의 시간, 즉 돌봄과 돌봄 사이 또는 돌봄과 그 외의 활동 사이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③ 아동이 생활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경험과 도전을 만나도록 돕는 근린의 물리적 환경을 의미한다.

---

21) 근린주구의 개념은 "도시를 소규모의 물리적, 사회적 단위로 나누면서 지역사회의 중요한 특성을 반영하는 계획 단위를 뜻한다. 한 개의 초등학교가 필요한 인구와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물리적 경계가 있고, 내부의 열린 공간과 상업시설은 차량으로부터 적절히 보호된 내부 도로체계에서 보행과 대중교통수단을 통해 서로 연결"된다. 이때, 근린주구의 기본단위는 '어린이가 있는 가족이 거주하는 개별 가호'이며,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빈번한 대면 접촉을 통한 커뮤니티 형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거주를 위한 물리적 요소와 지역사회 구성을 위한 사회적 요소를 결합한 개념'이다(강지원 외, 2023a, p.95; Carmona et al, 2009, p.213).

따라서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은 돌봄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돌봄 인프라(돌봄 시설의 입지 및 공간 환경),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의 생활인프라(아동 활동 장소, 보행환경)를 구성 요소로 포함한다. 이 모델에서 근린 환경은 돌봄 수요자의 여건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돌봄 형태의 선택 가능성을 보장하는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기반인 동시에, 다양한 활동과 자율적 이동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돌봄 공백에 대한 근린 단위의 간접적 해법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돌봄 정책의 주요 과제인 돌봄 공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돌봄시설의 양적 확충이나 운영시간 확대를 통한 직접적인 해법은 높은 비용을 요구하며,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를 맞은 지방소도시나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방식이다. 또한 돌봄 공백의 기계적 해소만을 목표로 하는 접근은 아동의 일상을 구조화된 활동으로 채움으로써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생활을 통한 성장을 가로막고 과도한 학업 또는 단조로운 일상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초등 학령기 아동의 발달 단계에서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돌봄 공백에 대한 대응은 돌봄 유형 선택과 마찬가지로 아동과 양육자의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돌봄과 성장을 연결하는 근린 환경의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근린의 돌봄 수요와 물리적 환경 특성을 반영한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제안하고, 돌봄시설을 포함한 근린환경 요소별 계획 지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아동 성장에 관한 근린 환경 요소의 탐구(2장), 근린 유형에 따른 돌봄 실태와 행태 영향 요인에 대한 양적 조사(3장), 돌봄 공백 대응 방식에 따른 기회비용과 근린 유형별 아동의 시공간 행태 심층 분석(4장), 다양한 근린에 거주하는 아동의 공간 경험 및 인식 차이 조사(5장), 돌봄 공백 및 아동 성장의 공간적 취약 요인 분석(6장)을 거치며 근린 유형에 적합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의 방향성을 구체화해 나간다.



출처: 연구진 작성

[그림 2-6]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의 작동 방식

제2절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 요소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은 개인과 가정,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자극이 많은 환경에 노출되는 것은 신체 발달, 사회적 역량, 정서적 성숙, 언어 및 인지발달 등과 관련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Vaden-Kiernan et al, 2010; Sampson et al, 2002), 아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근린환경의 잠재적 역할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들의 실내생활 및 스크린타임의 증가, 신체활동 부족과 아동 비만, 과열된 학습경쟁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생활시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독려하기 위한 “보행친화적”, “아동친화적” 근린의 요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심화된, 안전한 감시의 눈을 만들어주던 공동체의 붕괴, 좋은 부모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은 아이들의 근린에서의 활동을 한층 더 위축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동네의 잠재된 자원을 활용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전히 근린에서 걷고, 친구들과 바깥에서 뛰어놀며, 집 주변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야외활동이라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본 절에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근린에서 독려되는 대표적인 활동과 행태로서 ①자유로운 바깥놀이(Active-free play, ②보행-자전거 이동(Active transportation), ③이동 독립성(Independent mobility)의 개념과 연구흐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 기존연구와 관찰조사에서 알려진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들 활동을 독려하는 또는 위축시키는 근린환경요인을 검토한다.

선행 연구 검토를 위한 키워드는 아동의 신체활동(MVPA, LPA), 바깥놀이활동(Active-free Play), 야외활동시간(Time spent outdoors), 활동적 이동(Active transpotation), 이동독립성(Independent mobility)과 근린환경(Neighborhood environment, Built environment)이며, 대상자 연령 6-12세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는 연구를 우선적으로 포함시켰다. 해외 계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의미해석을 위해 도움이 되는 질적 연구 또는 국내연구를 보완하여 서술하였다.

1.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근린 기반 활동

가. 자유로운 바깥놀이 (Active-Free Outdoor Play)

아동의 놀이는 '삶의 축소판'이라 불릴 정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그 속에는 사물의 현상과 이해, 신체적 한계의 시험,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기존 사회의 가치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적응 등과 같이 복합적인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활동이 포함되어 있다(강기수·김윤종, 2011). 또한 놀이와 탐험을 통해 다양한 지역환경에서 만나게 되는 도전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가족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고, 인지 및 운동능력을 향상하며, 더 큰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등 아동기의 주요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Burdette & Whitaker, 2005; Prezza & Pacilli, 2007; Rissotto & Tonucci, 2002). 뿐만 아니라 규칙적인 근린활동은 아이들이 독립적 영역의 경계를 계속해서 넓혀갈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고(Gill & Jack, 2007), 지역 장소에 대한 애착을 심어줌으로써 건강한 자아정체성 형성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Jack & Grill, 2010; Ross et al, 2007).

2000년대 이후 북미지역을 중심으로 아동 놀이에 대한 논의가 공중보건의 영역으로 포함되면서, 놀이활동은 아동의 신체활동성을 높이고 비만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이는 아동행태와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하는 상당수의 보건 및 도시계획 관련 연구에서 아동의 놀이활동 시간을 총 신체활동 또는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시간과 구분 없이 계량분석의 결과변수로 삼아왔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Smith et al, 2017; Ding et al, 2011). 물론 아동의 자유로운 놀이가 때로는 구조화된 그룹스포츠 활동에 비해 더 높은 강도의 운동효과를 낼 수 있을지라도(Mackett & Paskins, 2008), 일부 연구자들은 놀이의 사회적, 정서적 역할에 대한 과소평가와 함께 놀이를 단순히 신체활동 증가를 위한 도구로서 보는 시각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관점은 근린의 안전성 이슈와 맞물려 아동의 놀이를 감독, 관리되는 스포츠 형태로 변형, 고착화시킬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아이들이 낯설고 도전적인 환경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험, 즉 놀이의 본질적 유익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Alexander et al, 2014; Smith & Pellegrini, 2004). 실제로 각종 미디어가 아이들의 생활에 깊숙이 침투한 최근의 상황에서, 실외공간을 배경으로 작동하는 스마트폰 게임이나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실내오락 등은 자유놀이의 개념과 경계를 뒤흔들고 있으며, 자녀를 철저히 감독하지 않고 자율적 활동과 이동을 허락하는 부모에 대한 무언의 사회적 압력도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신체적 유익은 감독되고 짜여 지지 않은, 모험적이고 도전과 위험 요소를 포함하는 놀이에 참여할 때 배가된다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Brussoni et al,

2015; Sandseter & Kennair, 2011). 이러한 사실은 아이들에게 신체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노력만큼이나, 자유로운 바깥놀이 활동을 위해 필요한 근린환경여건에 대한 주의 깊은 통찰과 접근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한다.

나. 활동적 이동 (Active Transportation)

걷기-자전거 타기와 같은 능동적 이동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일상적 신체 활동과 사회적 접촉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Heath et al, 2012; Reynolds et al, 2014; Sahlqvist et al, 2012). 특히 학교로의 도보-자전거 통학은 규칙적인 일상과 결합된 신체활동의 누적을 기대할 수 있고, 아동기에 형성되는 활동적인 생활습관은 성인이 되어서의 이동수단 선택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더 중요하다(Telama et al, 2005). 뿐만 아니라 보행-자전거 등으로 학교나 다른 목적지에 도착한 아이들은 해당 장소에서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더 집중력을 발휘하며,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Savolainen et al, 2020; Mackett & Paskins, 2008; Westman et al,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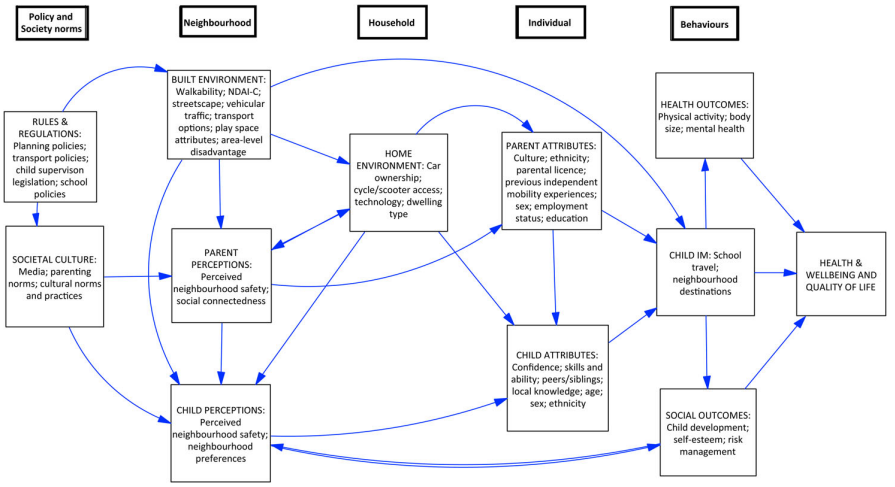
능동적/활동적 이동이 가져다주는 많은 이점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호주, 유럽 국가들에서 수행된 종단연구들은 학교까지의 거리나 부모의 결정 등에 의해 아동의 도보-자전거 통행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Buliung et al, 2009; McDonald, 2007; Van der Ploeg et al, 2008; Chillón et al, 2013). 아동의 도보-자전거 이동에 대한 주된 장벽으로는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불법 활동과의 접촉우려, 자전거 도난과 파손에 대한 걱정, 지역의 난폭한 운전문화 등 주로 지역공동체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비롯된 부모의 낮은 독려와, 아동의 낮은 동기부여 상태가 자주 언급된다(Aranda-Balboa et al, 2020; Buttazzoni et al, 2023; Crawford et al, 2017; Van Hecke et al, 2016). 이러한 사회적 요인들은 많은 부분 건조환경 특성과 연결된다. 지역 인프라가 차량위주로 설계되어 공공시설로의 접근성, 가독성, 매력이 떨어진다면 보행자가 보행-자전거 통행을 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즐거운 경험들(자연과의 접촉에서 오는 상쾌함, 누군가와 같이 걷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속감, 지역상점 등을 통해 갖게 되는 장소감각 등)이 사라지면서 내재적 동기를 얻기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Bourke, 2017). 한국의 초등학교 도보통행 비율이 북미지역보다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통학거리와 도보환경의 차이가 크고 학교 외 다른 장소(학원 등)로의 이동에는 셔틀버스나 자가용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활동적 이동을 촉진하는 사회적-물리적 환경요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 이동독립성 (Independant Mobility) : 근린 내 독립적, 자율적인 이동과 활동

이동 독립성(Independant mobility)은 어린이가 어른 없이 이동하도록 허락된 수준 또는 실제 어른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의 범위로 사용된다. 그간 다수의 연구를 통해 독립적 이동이 아이들에게 주는 다양한 이점이 밝혀져 왔다. 독립적 이동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 및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Schoeppe et al, 2013; Prezza et al, 2001), 집 주변 근린공간을 탐험하는 과정에서 공간적 인지능력, 운동 능력, 분석적 능력, 창의적 지능과 적응력, 문제해결력이 향상될 수 있다. (Davis and Jones, 1996; Rissotto and Giuliani, 2006, Mitchell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에서 아동이 갖는 자율성과 독립성은 현저히 축소되었고(Badland et al, 2016), 이제 과거와는 달리 더 이상 아이들이 거주지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유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자율적 바깥놀이와 마찬가지로, 공중보건 분야에서는 이동독립성 증진의 가치를 신체활동 독려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를 규명하려는 시도가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독립적 이동이 아이들의 신체활동(가벼운, 중강도 이상, 총 신체활동량)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Schoeppe et al, 2014; Mitra et al, 2017). 따라서 아이들의 독립적 이동에 대한 이해와 지원은 신체활동량 증진이나 비만의 감소와 같은 보건적 차원보다는, 독립적 이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독자적인 유익함, 즉 아이들의 웰빙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함께 점점 더 감독되는 활동 위주로 통제되고 있는 아이들의 생활에서, 근린환경에 대한 경험의 축소로 인한 유익한 발달 기회의 감소는 더 이상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기 때문이다(Kyttǎ, 2003; Shaw et al, 2013).

그러나 “아동의 이동독립성”이 실현되는 메커니즘은 단순하지 않다. 아이들의 독립적 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개인과 가구 차원에서 아동 개인의 자신감과 함께 복잡한 사회적, 규범적, 인지적 맥락을 토대로 판단되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아이의 독립적 활동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저에는 국가의 정책 및 규제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규범과 좋은 부모 역할에 대한 압력, 근린환경의 안전에 대한 인지와 믿음, 근린의 물리적 환경, 부모 개인의 성향과 태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거리에 감시의 눈이 작동하고, 범죄가 줄어들며, 길과 공원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으며, 운전자들의 태도가 순화되며, 주민들끼리 서로의 자녀에 대해 잘 알게 되며, 동네 애착이 형성되는 ‘사회적 요인’의 많은 부분이, 동네 공간구조와 같은 물리적 환경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동독립성과 관련된 물리적 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곧 안전한 돌봄의 틀 속에서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해이며, 아동의 유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근린환경 조성에 중요한 정보와 자원이 될 수 있다.



출처: Badland et al(2016), p.94.

[그림 2-7] 아동의 이동독립성 형성의 메커니즘

2. 아동 성장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 요인

아동의 성장은 신체활동량 충족, 건강한 일상적 습관의 형성, 사회적 상호작용과 근린장소에 대한 애착 형성 등 다양한 조건 속에서 견인된다. 이들 여건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근린활동인 1)또래와의 자유로운 바깥놀이, 2)활동적/능동적 이동, 3)이동독립성의 확보와 관련된 근린환경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안전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에게 자율적인 놀이와 탐색, 근린과의 접촉면 형성, 활발한 신체활동을 독려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하였다. 세 가지 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 요인을 탐구한 다수의 해외연구들 중에서,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최근 연구로서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계량연구의 성과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필요시 사회적 요인과 정성적 방법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국내 관찰조사 등을 참고하여 부족한 논의를 보완하였다.

가. 자율적 바깥놀이와 관련된 근린환경요인

1) 계량연구에서 나타난 물리적 환경 요인

근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아동의 자율적 바깥놀이 간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 가운데 참여 아동의 연령이 6-12세 범위이면서, 근린의 물리적 특성이 최종 통계분석모형에서 다뤄진 연구 13편

을 검토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종속변수는 '일주일간 바깥놀이시간' 이며, 놀이에 대한 대체 변수로 '바깥에서 보낸 시간', '공공여가시설/길에서 보내는 신체활동시간', '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등이 사용된 연구가 함께 검토되었다.

종속변수 측정은 아동/부모 대상 설문조사와 함께 가속도계나 GPS를 통한 실증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졌다. 독립변수인 근린의 물리적 환경은 GIS나 기존 관찰 도구를 활용해 계량되거나 아동/부모 설문을 활용하여 인지적으로 측정되었다. 내용분석은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하되, 안전과 위협 이슈에는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였고, 복합지수를 제외한 총 10개 카테고리로 바깥놀이와 관련된 근린환경 요인을 종합하였다.

〈표 2-9〉 아동의 자율적 바깥놀이와 관련된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

근린환경 요인	자율적 바깥놀이와의 관련성			비고
	+	0	−	
밀도		5	1	
인구밀도 ↑		1		
주거밀도 ↑		2		
건물밀도 ↑		1		
용적률 ↑		1		
건폐율 ↑			1[a)]	a) 고밀도시 다카
주택 및 주변 특성	5	3		
정원 있음	2	3		
건물 층수, 거주 층수 ↑				
주택 주변 빈공간의 존재	1			Islam 〉 고밀도시 다카
쿨데삭/막다른 도로에 거주	2			
도시화 수준	2	2		
도시화 수준 ↓	2[b)]	2		b) urban에 비해 rural의 바깥놀이시간 ↑
토지이용 혼합	1	2		
용도혼합 ↑	1	2		
공원녹지(놀이장소) 접근성	4	8	1	
근린내 공원녹지(놀이터) 있음	2	4		
공원녹지까지 거리 ↓		1		
일정 범위 내 공원녹지(놀이터) 개수 ↑		1	1	
공원녹지 면적비율 ↑		1		
공원녹지의 질적 수준 ↑	2			부모의 근린 내 공원에 대한 만족도 (놀기 좋음, 안전함)
특정 공원녹지 유형의 존재	2[c)d)]	1[e)]		c) 물놀이공간 접근성 (4-6세 남)

근린환경 요인		자율적 바깥놀이와의 관련성			비고
		+	0	−	
					d) 이웃집 정원, 500m이상 떨어진 숲/들판 e) 가로수 유무
시설/어메니티 접근성			3		
	시설/어메니티까지 거리↓		3		① 학교 ② 친구집 ③ 상점/공원/버스/도서관/쇼핑센터/체육시설까지의 거리
가로패턴/연결성		2	1	1	
	교차로밀도↑		1	1	
	경로다양성↑	2			
보도/보행로/자전거 도로		1	4		
	보행/자전거 인프라 존재	1[f)]	4		f) 종속변수가 공원에서의 여가활동
안전 : 교통안전/범죄안전		6	2	3	
	교통정온화가로 존재/교통신호/횡단장치	3	2	3	건널목, 주차장, 과속방지턱, 회전교차로, 30km 속도 제한구역, 교통신호 존재
	부모가 근린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지	3			차량 속도 낮음, 근린 전반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인지
위협 : 교통노출/범죄두려움			6	3	
	많은 교통량/차량속도 높음 간선도로 주변 거주 교통 위험에 대한 인지		5	1	
	낯선사람, 괴롭힘 등에 대한 두려움/ 징후 (술병, 낙서, 기물파손 등)		1	2	

출처 : 연구진 작성

□ 밀도

일정 수준 이상의 밀도는 근린상업 기능 다양성과 대중교통 노선 유지를 위한 기본조건으로, 성인의 신체활동, 특히 목적보행 활동과 관련된 핵심적 요인임이 다수의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다. 그러나 명확한 정의와 객관적 측정이 가능한 지표임에도 아동의 신체활동 및 이동과의 관계에서 인구밀도나 주거밀도는 그 영향력이 불확실하게 나타난다. 이는 국가별 고밀-저밀 기준의 격차, 밀도계량을 위한 범위설정이 연구자마다 다르다는 점과 함께, 밀도가 수반하는 다른 환경요인들(상업비율, 가로패턴, 교통량 등)과의 간섭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연관성이 나타난 연구들 속에서도 그 영향력은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바깥놀이와의 관계에서 높은 밀도는 대체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평균적인 밀집도

라는 넓은 범주의 개념으로는 성인에 비해 덜 다양한 목적으로 움직이며 활동 공간 역시 한정적인 아이들 행태의 특수성을 반영해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활발한 신체활동이 대부분 여가와 관련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인구밀도" 보다는 "특정 연령대의 비율" 또는 "특정 구간에 모여 있는 인구집단의 특성"이, 균질하게 높은 "주거밀도" 보다는 "또래와 접촉할 수 있는 집적된 공간 구조"가 중요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아동 활동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에서 유사한 맥락의 인지적 변수로 사용되는 지표인 "동네에 같이 놀 친구가 많다" "동네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다", "동네에서 자전거/도보 통학을 독려하는 친구가 있다" 등이 더 강력하고 일관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Pedroni et al, 2019; Brussoni et al, 2020; Loebach et al, 2022) 미시적 행태와 바로 접목시키기에 너무 거칠게 계량화된 수치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Islam et al(2016)에서 유일하게 아동 놀이활동과의 관계에서 인구밀도나 주거밀도가 아닌 건축면적(건폐율 산정면적)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밀 도시이며, 조성된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한 방글라데시 다카의 상황에서 지상의 규정되지 않은 가용 오픈스페이스 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방편인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 건폐율은 아동의 야외활동과의 연관성을 유의하게 예측했으며, 집에서 반경 150m 구역 내 건축면적(footprint area)이 1,000m^2 감소할 때마다 아이들 놀이시간은 1분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사한 용적률을 가지면서도 극적으로 대조되는 건폐율 차이를 나타내는 한국의 아파트 단지와 저층주거지 내의 환경격차 및 행태 차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유효한 변수가 될 수 있다.

□ 주택 및 주변 특성

거주하는 주택 유형의 특성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요인은 개인정원이 있는지 여부이며, 실제로 정원의 존재는 몇몇 연구에서 아동의 바깥놀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북미나 유럽과 달리 고밀고층주거가 보편화된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수행된 Islam et al(2016)에서는 밖에서 보낸 시간이 거주주택의 층수와는 (-) 관계를, 주택 주변 빈 공터 등의 존재와는 (+)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또한 주택이 쿨데삭이나 막다른 도로에 위치한 경우 바깥놀이시간의 증가와 관련성을 보였는데, 이는 통과교통의 배제가 갖는 놀이기회 증가 효과를 다시금 확인해준다.

□ 도시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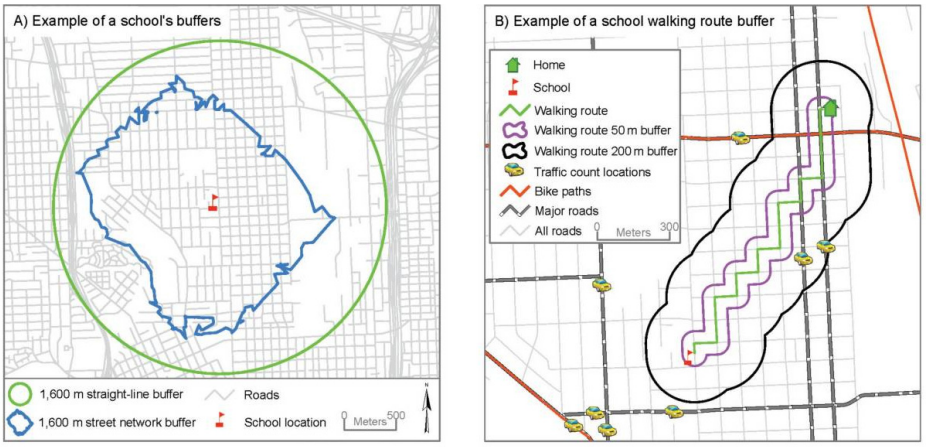
밀도와 주거지 유형의 개념을 일부 포함하는 도시화 수준(Settlement type, Urban-rural) 변수는 바깥놀이와의 관련성 검토에서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다. 바깥놀이 또는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 중 네덜란드와 이스라엘에서 수행된 2건에서는 도시화 수준과의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던 반면(Aarts et al, 2010; Moran et al, 2017), 캐나다의 연구에서는 교외

와 시골 아이들이 도시에 비해 야외에서 더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Delisle Nyström et al, 2019)

도시화 수준 역시 넓은 범주의 지역차원 변수로서 국가 간 정주지 유형을 분류하는 체계의 차이(Urban-suburban-rural, City-town-village-hamlet 등)와 정주지 규모, 주택 유형의 고유성으로 인한 객관적 비교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도시화 수준 변수가 바깥놀이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불확실성은 도시화 수준이 가리키는 근린 명칭 속에 내재된, 각 유형별 장단점을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환경적 조합(밀도와 목적지 접근성, 개발의 규모와 계획방식, 주택 유형 등)이 아이들의 신체활동에 각기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짐작하게 한다.

□ 토지이용 혼합

바깥놀이활동과 용도혼합의 관계는 많은 연구에서 테스트되지 않았지만, 검토된 연구에서 놀이활동과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하였다. D'Haese et al(2015)에서는 길가와 보도에서의 바깥활동이 용도혼합의 증가와 긍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혼합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한 연구 중 Oreskovic et al(2014)의 경우 참여자 집 주변 반경 또는 네트워크 버퍼를 이용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아동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로 주변에 대하여 용도혼합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통학로변 용도혼합과 아동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MVPA)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밝혀졌으나, 활동적 이동과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통학로변에 있는 다양한 기능이 도보-자전거 통학 여부를 결정할 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그 길로 걸어가는 아이들에게 이동과 결합된 활발한 놀이활동을 유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 Oreskovic et al (2014), p.11. Fig.1.

[그림 2-8] 통학로 주변 구역의 용도혼합수준을 측정한 방법론적 시도

□ 공원녹지 접근성

공공 공원녹지는 아이들에게 중요한 근린 여가활동 장소임에 틀림없지만 놀이활동과의 관련성에서는 측정 및 세분화 방식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소 불확실하게 나타났다. 근린지역 내 오픈스페이스의 존재 여부 또는 일정 범위 내 갯수, 녹지면적 비율과 같이 공원녹지 유형을 특정하지 않는 변수들과는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적게 나타난 데 반해(Aarts et al, 2010; Aarts et al, 2012; Bringolf-Isler et al, 2010; Page et al, 2010), '부모가 놀기 좋다고 여기는', '안전한' 등 인지적으로 측정된 질적 수준이 높은 공원녹지 공간이나(Loebach et al, 2021; Qui et al, 2021; Veitch et al, 2010), '수공간', '주거지에서 500m이상 떨어진 숲' 과 같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Aarts et al, 2010; Bringolf-Isler et al, 2010) 바깥놀이와 긍정적인 관련성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바깥놀이가 아닌 신체활동(MVPA)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연구들 중, 특정 기능을 포함하는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연령대-성별 그룹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알려주는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 Mitchell et al(2016)에서는 공원을 기능에 따라 4가지 유형(부속 실내시설 없는 공원, 스포츠 필드가 있는 공원, 놀이터가 있는 공원, 기타 특색 있는 시설이 있는 공원)으로 세분화하여 신체활동과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스포츠 필드가 있는 공원만이 9-14세 아이들의 중강도 이상 신체활동과 관련성을 나타냈다. Bird et al(2016)의 경우 군집분석을 통해 공원 유형을 9가지로 나누고 비만 경계선에 있는 아동의 사용행태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미적으로 아름다운 공원, 스포츠와 수영장 시설이 있는 공원,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설치된 공원 근처에 사는 그룹의 신체활동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특정 공원녹지 유형에 대한 선호는 아동친화적 근린환경 조성을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오픈스페이스 위계와 기능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시설과 어메니티 접근성

학교 외 또는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목적지 접근성을 테스트한 경우 바깥놀이와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 신체활동과의 관련성을 측정하기 위해 선택된 설명변수에는 학교를 비롯하여 도서관, 스포츠 경기장, 체육관, 공원, 음식점, 편의점, 대중교통 정류장 등이 포함되지만, 연구자마다 사용한 항목이 다를 뿐 아니라 지역 상황에 맞게 개발된 복합지수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시설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을 구별해내기는 어렵다(Aarts et al, 2010; Page et al, 2010).

□ 교차로 밀도, 경로다양성

통상 교차로 밀도로 측정되는 가로연결성 항목은 성인의 목적보행 행태에 있어 경로의 직접성과 관련된 핵심적인 긍정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여가활동이 주가 되는 아동의 행태에 있어서 가로연결성은 토지이용 혼합 요인과 마찬가지로 논쟁적이다.

D'Hease et al(2015)에서는 아동의 개별 특정 장소에서의 신체활동과 도시형태 요인을 테스트한 결과, 가로연결성이 낮은 곳에서 아이들의 바깥놀이 활동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가로연결성이 낮다는 것은 쿨데삭이 많으며 교통량이 줄어들어 더 안전한 가로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신체활동을 증진하는 환경 특성에 있어서 성인과 아동에게 긍정적인 요인이 서로 상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

보행자 및 자전거 인프라와 바깥놀이 사이에는 별다른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한 Cain et al(2014)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여가를 위한 신체활동으로, 보행로나 자전거 도로는 공원이나 동네로 놀러 나갈 때 보행이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해당 장소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안전

부모가 인식하는 안전에 대한 우려는 아이들의 활발한 자유 놀이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기존연구에서 교통노출 및 교통안전성,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등 안전 이슈와 관련된 항목을 설명변수에 포함하고 있다. 다수의 사례에서 교통노출 및 범죄두려움이 줄어들면 아이들의 바깥놀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몇몇 연구에서는 특히 교통 분야의 항목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충되는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였다. Nguyen et al(2018)에서는 보행 인프라를 제외하면, 낮은 차량속도나 교통정온화된 가로의 존재가 아이들 놀이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났으며, Aarts et al(2012)에서도 속도제한 30km/h 홈존의 존재가 아이들 놀이와 (-) 관계를 보이는 등 해석이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반면 범죄두려움과 관련된 영향력 검증에서는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안전 관련 요인들 중 가장 일관되게 (+)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측정변수는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혼합되어 형성되는 이미지로서 '부모가 근린을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지하는 것'이다.

〈표 2-10〉 아동의 자율적 바깥놀이와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한 주요 계량연구 결과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Aarts et al. (2010) 네덜란드	4-12세 n=6,470	일주일간 바깥놀이시간 (부모응답)	**가구 차원** A. 주택유형 B. 주택소유 형태 C. 마당의 존재 D. 방에 TV/PC 있음 **근린차원** E. 근린유형 (도심/교외/타운센터/업무지구) F. 근린 내 녹지/수공간 G. 교통위험 (횡단장치, 운전자 태도, 교통량) H.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질적 수준 (존재, 차량과 분리존재, 유지관리) I. 경로다양성 J. 목적지까지 거리(공원, 수공간, 운동장, 놀이터, 체육시설, 수영장, 학교)	근린유형과 S.E.S는 주소기반 통계자료 그 외는 부모설문 응답	**모든그룹** 부모교육수준/놀이에 대한 태도 D. 방에 TV/PC 있음(+) (4-6세 남 제외) **4-6세 (여)** A. 단독주택(-), 아파트(-) C. 정원의 부재(-) **4-6세 (남)** A. 다세대주택(+) B. 자가소유(+) J. 물놀이공간 접근성(+) **7-9세 (여)** C. 정원의 부재(-) I. 경로다양성(+) **10-12세 (남)** A. 아파트(-) I. 경로다양성 (+)
Aarts et al. (2012) 네덜란드	7-9세 n=1,357	하루평균 바깥놀이시간 (부모응답)	A. 건물 - 주거밀도, 토지이용혼합, 공실 유무, 건물 관리상태 B. 놀이장소로 조성된 시설 - 놀이터 개수와 품질, 학교 운동장, 포장된 놀이터, 스케이팅 트랙 등 C. 공공 장소 - 녹지와 수공간의 존재와 품질 D. 가로 인프라 - 보도와 자전거도로의 존재와 품질 E. 교통 안전 - 보행안전장치(회전교차로, 횡단보도와 신호등, 보행섬 등), 교통량과 차량속도, 교차로밀도 F. 사회적 환경과 관련된 근린특성 - 그래피티, 반달리즘, 적절한 조명 - 개를 동반한 보행자의 태도 G.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근린으로 인지됨	관찰 평가툴 NEWS 변형 적용	**바깥놀이시간과의 관계** **남녀 공통** B. 조성된 놀이시설개수(-) E. 회전교차로 존재(+), 교차로 밀도(-) **남학생** E. 신호등없는 횡단보도(+), 보행섬(-), 지상주차장(+), 과속방지턱(+), 30km속도제한 구간(-) **여학생** E.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Bringolf-Isler et al.(2010) 스위스	어린이 6-7세 9-10세 청소년 13-14세 n(아동) =680 n(청소년) =401 n(부모) =1,345	일주일간 바깥놀이시간 (부모응답) 서브그룹 167명은 가속도계 착용	**주관적 인지환경** A. 바깥놀이의 장벽 문제 : 교통, 범죄, 공원 녹지 없음 B. 집 정원, 근린공원, 놀이터, 500m이상 떨어진 들판/숲 등에 정기적으로 놀러감 **객관적 계량환경** C. 가로밀도(street density) : 100/200/500m 버퍼 내에 있는 각 가로유형의 총 길이 D. 인구 밀도/건물 밀도 **집근처 9ha 내 인구/건물 수** E. 녹지면적 비율: 집 근처 25ha내에 있는 녹지면적 비율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A, B GIS 생성 C-F	*** 6-10세 해당 결과** A. 교통위험 관련문제(-) B. 이웃집 정원에 정기적으로 방문(+), 500m 이상 떨어진 숲/들판에 정기적으로 방문(+) C. 근린중심가로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것 ** 높은 인구밀도에서는 유의미한 (-) 영향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Cain et al. (2014) 미국	6-11세 n=758	여가를 위한 신체활동 : 집근처 (집앞 가로, 인도, 쿨데삭 등) 에서의 신체활동 빈도 (바깥놀이대체 변수로 사용) 부모응답(설문)	**A. 목적지와 토지이용** 주거혼합, 레스토랑, 상점들, 공공서비스, 기관서비스, 공공/민간 여가시설, 주차장, 대중교통 정류장 **B. 가로경관** **C. 미적 사회적 측면** **D. 교차로** 교차로 시설, 커브 퀄리티, 신호등, 가로폭, 장애물 **E. 가로 세그먼트** 건물높이 셋백, 위요감, 자전거도로, 버퍼, 보도, 가로수, 건물디자인/미적 요소, 넓은 일방통행도로, 장애물/위해요소, 경사 **F. 쿨데삭** 바닥재, 규모, 경사, 어메니티 (예. 농구 골대 등)	MAPS 관찰툴 사용	**<u>아동의 집 근처 여가 목적의 신체활동</u>** (바깥놀이 대체) **A. 목적지와 토지이용** (-) 주거혼합, 상점들,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정류장 (-) 공공 여가시설(+) **C. 미적 사회적 측면** (+) **D. 교차로** (0) 커브 퀄리티(+), 장애물(-) **E. 가로 세그먼트** (+) 보도 장애물/위해요소(-), 경사(-) **F. 쿨데삭** (+)
Delisle Nyström et al.(2019) 캐나다	초등학교 4-6학년 n=1,699	야외놀이 활동시간 (부모설문)	**물리적 환경** A. 도시화수준(도시, 교외, 농촌) **사회적 환경** B. Area-level SES	행정구역 통계산출	**<u>2시간 이상 바깥놀이 확률</u>** **여학생** 주중: 도시대비 교외(2.1배), 농촌(2.04배) 주말:도시대비 농촌(2.34배) **남학생** 주중/주말 유의하지 않음
D'Haese et al. (2015) 벨기에	9-12세 n=606	-공공여가시설 에서의 신체 활동 -길가 및 보도 에서의 신체 활동 부모응답 (특정 장소에서 자녀노는빈도) 가속도계 착용	**근린환경 평가도구 NEWS-Y 적용** **반경 1km 주변환경에 대한 인지측정** A. 거주밀도 B. 용도혼합 C. 가로연결성 D. 보행 및 자전거 인프라 E. 여가시설 존재 F. 근린의 미적 특성 G. 범죄 및 교통안전성 H. 집에 마당유무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u>공공여가장소에서의 놀이활동</u>** E. 여가시설의 존재 (+) **<u>길가와 보도에서의 놀이활동</u>** B. 용도혼합 (+) C. 가로연결성 (-) G. 범죄안전 (+)
Islam et al. (2016) 방글라데시	9-14세 n=109	밖에서 보낸 시간 (바깥놀이 대체변수로 사용함) (부모설문)	**물리적 환경** A. 건물특성 마당유무에 따른 주거유형, 인접한 빈공간 있음, 건물층수, 거주층수 B. 가로특성 가로유형 : 막다른 골목여부 가로 폭, 가로 위계 C. 가로 용량 보행전용, 버스와 트럭 외 모든 차량 출입 가능, 모든차량 가능 D. 교차로 밀도 E. 가로패턴 그리드, 현대식 가로 F. 밀도 용적률, 건폐율 G. 토지이용 특성 주거/상업용도 용적률/건폐율, 공사중 건물, 혼합용도 **사회적 환경** H. 근린 안전하다고 인지	부모설문 GIS 계량	A. 건물특성 - 인접한 빈공간 있음(+) 건물층수 증가(-) B. 가로특성 막다른 골목(+) F. 밀도 건폐율 (-) H. 부모가 근린을 안전 하다고 인지 (+)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Loebach et al. (2021) 캐나다	10-13세 n=826	일주일간 바깥놀이시간 (아동응답)	A. 아동의 시간적 여유 바쁘다고 느낌 조직화된 스포츠활동, 스크린타임 B. 이동을 위한 허락수준 어른없이 이동하기/집에서 떨어진 곳에서의 바깥놀이/대로 횡단 허락/ 자녀의 휴대폰 소지/부모가 바깥놀이를 장려하는 입장인가/자녀에 대한 감독 수준 C. 놀이를 지원하는 근린환경 놀이공간 존재여부/교통위험/같이 놀 아이들/도로 횡단시 안전감/낮시간 근린안전/놀기좋은 장소들이 있음/아이들이 인지하는 근린범죄불안/근린에 대한 부모의 유대감 D. 부모/아이의 놀이에 대한 태도 부모 태도 : PACOR척도로 측정 아동의 놀이에 대한 유익/두려움 인지 : ATOP 척도로 측정	A, D : 아동설문 B-D : 부모설문	A 스크린타임으로 바쁘게 느낌 조직화된 신체활동 참여일수 B 동네에서 어른없이 이동 허락 집 근처 바깥놀이 허락여부 C 같이 놀 아이들 있음 부모가 근린에 놀기 좋은 장소가 있다고 인지 부모의 동네 유대감 D 실내놀이가 더 재미있음 바깥놀이의 유익함에 대한 아동의 인지 바깥놀이의 위험에 대한 아동의 인지
Moran et al. (2017) 이스라엘	10-12세 n=573	공원녹지, 공공 시설, 집근처 가로에서의 놀이빈도 (아동설문)	**물리적 환경** A. 도시화수준 (도심, 교외) B. 근린환경의 아동친화도 -도보로 갈 곳이 많다 -동네에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다 -공원과 놀이터가 많다 -오후에 밖에서 놀기 좋은 장소가 많다 -동네 길에서 놀면 재미있다 **가구 사회적 특성 (참고)** C. 독립이동 허용수준	행정구역 A 아동설문 B, C	세 종류의 장소에서의 바깥놀이 모두에서 A. 도시화 수준 (0) B. 근린환경 아동친화도 인지 (+) C. 독립이동 허용수준(+)
Nguyen et al. (2018) 캐나다	10-13세 n=458	하루평균 활동적 바깥놀이시간 (가속도계+ GPS)	**물리적 환경 (보행자 안전)** **인지적 측정** A. 교통량 많다 B. 교통속도 느리다(50km/h이하) C. 교통감속장치가 있다 D. 대부분 도로에 보도가 있다 **객관적 측정** E. 교통량 지수(1km당 운행대수) F. 교통속도지수(도로위계) G. 교통진정지수(속도저감장치, 교통신호, 표지판 등) H. 보행자 인프라(보도)수준	부모응답 A-D 통계, GIS생성 E-H	**<u>활동적 바깥놀이시간</u>** B. 교통속도 빠르게 인지(+) E. 교통량지수 높음(+) G. 교통진정수준 낮음에 비해 중간(-), 높음(유의X) H. 보도설치수준 낮음에 비해 중간(-), 높음(유의X) >> 객관-주관요인 함께 검증하면 유의성 사라짐 *모든 예상결과가 반대방향 을 가리킴
Page et al. (2010) 영국(England)	6-11세 n=1,300	바깥놀이 빈도 (아동설문)	A. 이동독립성 허용수준 **물리적 환경** B. 미적 측면 : 담배꽁초, 그래피티, 반달리즘, 개 배설물 C. 교통 안전 : 길 건너기를 위한 안전장치, 교통량, 도로, 공해 D. 놀이장소 : 집 바깥/집 내부에 놀 곳이 많다고 느끼는가 E. 접근성 접근성유형 1 : 지역상점, 공원, 버스정류장, 도서관, 스포츠 & 쇼핑센터 접근성유형 2 : 학교, 친구의 집 F. 학교까지 거리	아동응답 인지된 환경 GIS 생성	**<u>바깥놀이 빈도 관련 요인</u>** **남학생** A. 이동독립성 허용수준(+) G. 동네 우호적 분위기(+) **여학생** A. 이동독립성 허용수준(+) C. 교통 안전(+) G. 동네 우호적 분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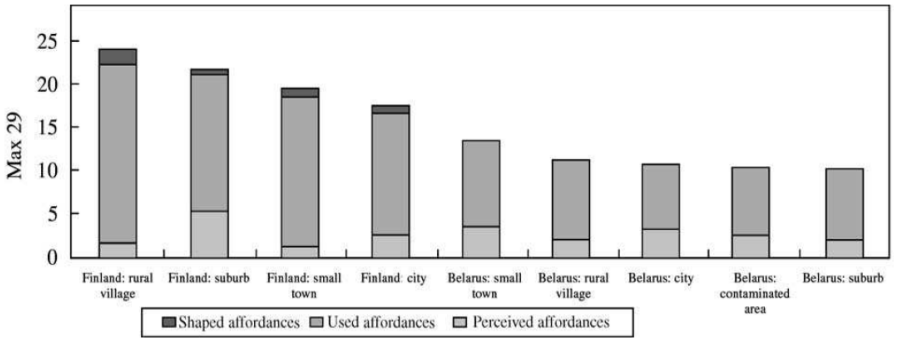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사회적 환경요인 G. 동네 분위기 같이 놀 친구, 거리에 나와있는 아이들, 주변에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들 H. 징후/뉘앙스 범죄, 소음, 동네에서의 괴롭힘 I. 범죄안전 밤시간/낮시간 안전, 낯선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두움 J. Daylight: 오후3시~일몰		
Qiu & Zhu (2021) 미국	초등학교 2-5학년 n=525	자율적 바깥놀이에 대한 부모허락 예측 부모설문응답	**물리적 환경** A. (단독)주택유형X마당유무 B. 집주변 전용차도/전면도로 유무 C. 근린에 학교/운동장/보행트랙/ 자전거 트랙/친구 친척집/ 아파트 공유공간/오픈스페이스 있음 D. 근린주변환경의 질적 수준 E. 보도의 존재와 상태 F. Walk Score G. Transit Score **사회적 환경** H. 사회적 유대감(연결된 느낌) I. 긍정적인 이웃의 영향 J. 낯선사람 범죄위험	부모설문 (NEWS-Y 변형과 추가) Walkscor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수 사용	**<u>자율적 바깥놀이에 대한 부모허락 가능성</u>** C. 친구나 친척집 있음 D. 근린환경의 질적 수준 (p<0.1) I. 긍정적인 또래의 영향 J. 범죄위험
Veitch et al. (2010) 호주	8-9세 n=187	주중/주말 각각 집마당에서 노는 빈도 집앞 가로에서 노는 빈도 공원, 놀이터에서 노는 빈도 (가속도계 착용)	**물리적 환경** A. 집에 마당이 없거나 아주 작다 B. 사는 집이 주요간선이나 복잡한 통과도로에 있다 C. 쿨데삭에 산다 D. 부모가 근린에 있는 공원이나 놀이터의 수준에 만족한다 **사회적 환경** E.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활동할 시간이 있는가 F. 부모가 근린에 범죄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G. 집 밖 가로에서 아이들이 놀기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가 H. 낯선사람에 대한 위험이 걱정되는가 I. 아이가 근린에 많은 친구들을 갖고 있는가 J. 거리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놀거나 거닐고 있는가 K. 가족끼리 적어도 일주일에 한번은 공원에 함께 가는가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u>집 마당에서 노는 빈도</u>** **주중/주말** F. 범죄에 대한 걱정(-) **주말** I. 동네에 친구가 많음(+) **<u>집앞 가로에서 노는 빈도</u>** **주중/주말 공통** B. 간선도로변 거주(-) C. 쿨데삭에 거주(+) G. 집 밖 거리가 놀기에 안전하다고 생각(+) I. 동네에 친구가 많음(+) J. 거리에 아이들 많음(+) **<u>공원/놀이터에서 노는 빈도</u>** **주중** E. 부모가 시간있음(+) K. 주1회 이상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감(+) **주말** D. 부모의 공원 만족도 (+) K. 주1회 이상 가족이 함께 공원에 감(+)

출처: 연구진 작성

2) 정성연구 및 관찰조사를 통해 밝혀진 추가적 정보

□ 아동의 가용자원(Affordance) 활성화 요건 : 도시화 수준, 녹지율, 공원의 입지 및 연계성

아동의 놀이활동에 있어 도시화 수준(도시-시골을 구분하는 근린유형) 변수는 해당 연구가 이루어진 장소의 고유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 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개념이다. 유사한 도시화 수준을 지칭하는 명칭이라도 국가에 따라 도심, 소도시, 교외, 농촌은 모두 다른 개념의 정주환경에 해당할 수 있고,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자원 간 격차 역시 다르게 분포할 가능성이 높다. 핀란드와 벨라루스에서 각각 도시, 교외, 소도시, 시골 정주환경의 놀이활동 가용자원을 비교한 Kyttä(2002)의 연구 결과, 벨라루스 내에서 가장 여건이 나은 소도시의 놀이자원은 핀란드 내에서 가장 자원이 부족한 도심보다 열악하다. 핀란드에서 가장 풍부한 자원을 가진 곳은 시골 마을이고, 다른 근린유형과의 편차도 어느 정도 존재하지만, 벨라루스에서 시골의 놀이자원은 도시나 교외 지역과 별반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출처 : Kyttä(2002), p.116.

[그림 2-9] 핀란드·벨라루스에서 나타난 도시화수준과 아동의 가용자원(Affordance) 차이

□ 가로연결성(교차로 밀도), 쿨데삭과 대단지 아파트, 골목길 범죄불안

해외 계량연구에서의 가로 연결성(교차로 밀도) 증가가 아동의 바깥놀이와 (-) 관계를 보이는 것은 통과도로에서 일어나는 차량과의 접촉이 주요 원인이다. 북미와 유럽 교외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교외주거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막다른 회차공간(cul-de-sac) 형태의 가로패턴은 통과교통이 발생하지 않고 포장된 바닥을 제공하며, 주위를 둘러싼 주택들로부터 감시의 눈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의 놀이와 신체활동 공간으로 적합하게 여겨져 왔다. 반면 교차로 밀도가 높게 측정되는 오래된 격자형 주거지의 경우, 목적지를 향한 우회동선을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인의 보행에는 유리하지만, 어린 아이들의 활동에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이 밝

혀져 왔다(D'Haese et al, 2015; Hochschild, 2013 외 다수).

한국의 경우 쿨데삭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내부거주자들에게만 공유되는 보행가로와 오픈스페이스를 가진 공간은 단지화된 아파트 내부이다. 지상부에 차량이 없거나, 있더라도 교통량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아이들 활동에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갖춘다(강현미 외, 2022).

또한 차량통과가 불가능할 정도로 좁은 폭을 지닌 골목길들과 50m가 넘는 광로가 공존하고 있는 한국의 도시환경에서 교차로 밀도라는 지표로 아동 놀이활동에 적합한 환경을 판단하는 데는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 가로연결성과 관련하여 한국의 도시환경에서는 '조밀하고 반복적인 격자형 골목군집'이 갖는 특성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교차로 밀도는 높지만 방향성을 잃기 쉽고 오픈스페이스가 존재하지 않는 협소한 골목길들이 반복되는 가로패턴은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청결하지 못한 장소, 범죄 위험이 잠재된 장소로 여겨지는 측면이 강하다. 차량 교행의 어려움으로 인해 간혹 어린아이들의 활동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지닌 골목길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회보다는 위협의 요소로 인지되는 경향이 있다(김연금 외, 2018).

□ 학교까지의 거리, 학구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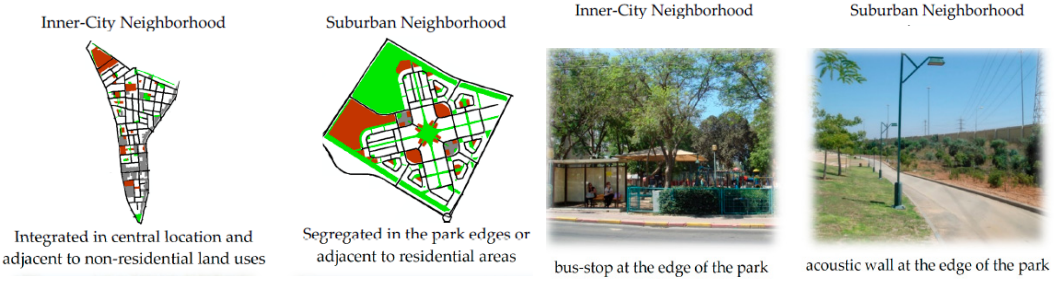
활동적, 독립적 통학을 위한 필수적 조건으로 알려진 '학교까지의 가까운 거리' 변수는 바깥놀이활동과의 연관성을 탐색하는 연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아동은 독립적으로 도보-자전거 통학에 유리할 뿐 아니라, (상당 부분 놀이로 치환될 수 있는) 방과 후 신체활동의 참여기회도 함께 늘어난다는 사실을 밝힌 해외연구들은 다수 존재한다(Page et al, 2010; Oliver et al, 2014; Oliver et al, 2015; McGrath et al, 2016; Fyhri, 2009). 학교에 도보-자전거 등 활동적 수단으로 통학하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동네 활동 범위가 넓어지며, 학교 외 다른 목적지로의 활동적 이동 역시 늘어난다(Loebach & Gilliland, 2016). 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이 아동친화적 환경을 지니고 있으면, 학교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가 파한 직후 가장 많은 신체활동의 이점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Remmers et al, 2016).

국내 아동의 행태조사에서도 이러한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에서 조사된 한 초등학교 1-4학년 아이들의 사례에서, 적어도 평일 하루 1시간 이상 바깥놀이를 하는 아이들의 집은 학교 바로 앞 아파트 단지에 집중 분포되어 있다. 학교에서 400m가량 떨어진 또 다른 아파트와 단지 규모와 환경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단지의 놀이기회 차이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난다. 이는 학교가 파한 직후 아이들이 학원 가기 전, 편의점에서 간식을 먹고, 놀이터에서 놀기 위해 머무르고 대기하는 공간의 역할을 학교 앞 아파트

단지가 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에 따라 발생하는 놀이활동 격차는 학교에서 먼 그룹이 통학 경로에서 거쳐야 하는 물리적 장벽들(간선도로 횡단, 굴다리나 육교, 좁고 어두운 골목 군집 등)로 인해 강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에서 같은 학구도로 묶인 지역일지라도 학교까지의 거리 및 물리적 장벽에 의해 구역별로 미시적인 바깥놀이 기회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학구도의 적절한 설정과 조정이 아이들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바깥놀이와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정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공원의 입지

Moran et al(2017)에서는 맵핑 및 반구조화 인터뷰를 통해, 교외 지역의 녹지 공간이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외의 공원이 아이들에게 잘 사용되지 않는 까닭에 대하여 공간구조적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심 공원이 근린의 중심, 상점, 공공시설에 인접하여 '도시구조에 통합'되어 있는 반면, 교외공원은 도심 가장자리나 주거지에만 인접해 있으며 방음벽이나 간선도로로 둘러싸여 고립된 특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 접근성에 장벽이 존재하는 공원은 방문자가 줄어들며, 이는 공원을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악순환을 일으킨다. 이러한 논의는 물리적 환경의 계량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 관점으로 재편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산지형 공원이나 광역 도시공원이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근린의 주요 공간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평지형 근린공원이 부족한 한국 아이들의 놀이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이유를 일부 설명해준다.



출처 : Moran et al(2017). p.14, Fig2.

[그림 2-10] 교외와 도심 공원의 입지 및 경계부 형태의 차이

□ 아이들 놀이를 유도하는 공원과 놀이터 요소

아동 인터뷰나 공원에서의 아이들 놀이활동 관찰을 통해, 아이들에게 매력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공원환경 요소들이 논의되었다. Veitch et al(2020)의 8-12세 아동 인터뷰를 종합해 보면, 충분한 규모,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모험적 놀이기구와 공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 그리고 자연요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녀 학생 모두 로프, 클라이밍 프레임과 같이 오르기 어려운 도전적인 설치물과 농구 코트, 오벌(타원형 다목적 코트)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놀고 숨고 구를 수 있는 언덕과 큰 나무, 축구를 하고 뛰어놀 수 있는 넓은 공터 등에 대한 언급이 뒤따랐다. 이는 놀이기구와 공터를 함께 제공하기 어려운 어린이공원 규모(1,500m^2)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기존 도시에서 충족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인 한국의 공원녹지체계 속에서 놀이터 내부의 환경개선 노력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사한다.

□ 부모와 아동, 범죄두려움과 객관적 사실 불일치

부모의 범죄안전과 관련된 우려는 아이들의 바깥활동을 제어하는 주된 요소로 알려져 있으나, 종종 이는 객관적인 증거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통계적으로 아이들이 당하는 피해는 낯선 사람보다는 지인에 의해 일어나며, 낯선 사람이 아이를 납치할 수 있다는 부모의 불안은 선정적인 언론보도로 인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Brockman et al, 2011). 또한 부모에 비해 아이들은 성인의 납치나 유괴가 아닌 자신들보다 조금 더 큰 아이들, 십대들의 공원 배회 등에 대한 위협을 더 많이 느낀다고 보고했다(Lee et al, 2015). 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동네 자원의 활용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근린의 사회적 분위기 (동기부여, 함께 할 친구의 존재, 부모의 사회적 압력)

바깥활동에 대한 건강상의 이점을 부모와 아동이 함께 인식하는 것과 실제 경험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아이들의 바깥놀이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아이들은 어른의 통제, 규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을 느끼는 상황과 함께, 바깥놀이를 권유하는 친구나 이웃집 또래의 존재는 빠지지 않고 언급된다(Brockman et al, 2011; Lee et al, 2015).

최근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좋은 양육의 이상(부모상)의 변화는 아이들의 자율적인 바깥놀이활동을 허락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제약이 되고 있다. 안전에 대한 이슈가 강화되면서, 아이를 감독하지 않고 바깥으로 혼자 내보내는 부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사회적 압력이 증가하였고, 이는 보편화된 소셜 미디어의 사용 속에서 더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Pynn et al, 2019; Ross et al, 2020). 이와 같은 현상은 부모가 시간을 함께 보내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가 감

독된 체계 내로 더 많이 편입되는 상황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라도 아이의 실내활동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나. 활동적 이동(Active Transportation)과 관련된 근린환경 요인

1) 계량연구에서 나타난 물리적 환경 요인

2010년 이후 발표된 해외연구 중 근린환경의 물리적 특성과 아동의 도보-자전거 이동 간 관련성을 탐색한 16편의 연구를 검토하였다. 바깥놀이활동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나이가 6-12세 범위(한국의 초등학생에 해당)를 포함하며, 계량 또는 인지적으로 측정된 근린의 물리적 특성이 최종 통계분석모형에 포함된 연구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종속변수로 삼고 있는 내용은 '통학할 때의 도보-자전거 이동', '학교를 포함한 근린 내 다양한 목적지로의 활동적 이동', 목적지와 별개로 산출된 '총 걸음 수' 등이다. 자료 수집은 아동과 부모설문, 가속도계의 사용, 통행일지, 참여형 GIS 소프트웨어를 통한 아동 맵핑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다. 독립변수로서 근린의 물리적 환경은 GIS를 활용하는 방식과 설문을 통한 환경 인지 수준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역시 통합된 지수(보행친화도, 목적지 접근성, 여가시설 어메니티 수준 등)의 사용이 자주 관찰되어 개별 변수의 해석이 어려운 지점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의 물리적 환경 변수들은 복합지수를 제외한 10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전반적인 결과를 종합하였다.

〈표 2-11〉 아동의 활동적 이동(Active Transportation)과 관련된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

근린환경요인		활동적 이동과의 관련성 (숫자는 통계모형 개수)			비고
		+	0	−	
밀도		8	10	3	
	인구밀도↑	3	1		15세 미만 인구밀도 포함
	주거밀도↑	3	7	1	보행에 비해 자전거는 낮은 밀도와 (+)관계
	용적률↑			2	대형건물/교통중심지 인접
	건폐율↑	2	2		보행(+), 자전거(0)
도시화수준			3		
	도시화수준↓		3		
토지이용 혼합			4		
	용도혼합↑		4		
여가시설 접근성		8	12	2	
	가장 가까운 공원녹지까지 거리↓		3		

근린환경요인		활동적 이동과의 관련성 (숫자는 통계모형 개수)			비고
		+	0	−	
	가장 가까운 놀이터까지 거리↓		1		
	일정 범위 내 공원녹지 개수↑	1	2		
	일정 범위 내 놀이터 개수↑	1	1		
	공원녹지 면적비율↑	2	2	2[a)]	a) 통학경로에 공원녹지비율 높아지면 도보통학률 감소
	특정 공원녹지 유형의 존재		1		수공간 존재
	여가시설의 개수↑	2	2		통학/그 외목적 자전거와(+), 보행과(0)
	체육시설 유형다양성↑	1[b)]			b) 9가지 스포츠시설 중 근린설치개수
	여가시설 어메니티 지수	1[c)]			c) 공원, 녹지, 수변공간, 실내외 체육시설
목적지/시설 접근성		10	2	1	
	학교까지의 거리↓	5	1		모두 활동적 통학이 종속변수
	식료품점/음식점/근린상업↑		1	1	편의점, 패스트푸드, 슈퍼마켓
	다양한 목적지 접근성↑	2			공원, 상점, 도서관, 쇼핑센터, 체육센터
	목적지 접근성 통합지수↑	3[d)e)f)]			d)Oliver(2015) e)Cain(2014) f) McGrath(2016)
가로패턴/연결성		2	7	3	
	교차로밀도↑	2[g)]	4	2	g) 자전거타기와 약한(+)연관성
	보행도달 면적비율(PedShed)↑		3	1	보행도달가능면적 클수록 가로연결성 높음
보행/자전거 인프라		7	5	2	
	보도/자전거 도로↑	3	4	2	
	보도/자전거로 질적 관리수준↑	2			
	가로시설물, 보행편의시설↑	2[h)]	1		h) 통학로변 가로수, 가로등(+)
미적/매력적 요소		3	2		
	가로경관, 매력 ↑	3	2		
안전 : 교통안전/범죄안전		9	3	2	
	교통정온화/신호등/횡단장치↑	7	2	2	
	근린에 대한 전반적 안전 인지↑	2	1[i)]		i) 경찰서의 존재
위협 : 교통노출/범죄두려움			4	6	
	교통량/간선 인접/차량속도↑		1	4	
	낯선사람/괴롭힘/징후(술병 등)↑		3	2	

출처: 연구진 작성

□ 밀도

인구밀도, 주거밀도, 용적률, 건폐율 등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밀도 지표는 아동의 보행-자전거 이동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밀도가 높아지면 근린상업이 유지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므로 목적지 다양성이 늘어나며, 감시의 눈으로 인한 안전성이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성인들의 보행에 있어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아동의 활동적 이동에 있어서도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며, 15세 미만 함께 다닐 수 있는 또래들의 인구밀도가 높다면 그 효과가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검토된 숫자 중 절반 이상의 통계모형에서 밀도는 활동적 이동과의 연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구자들은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해 밀도의 증가로 인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교통혼잡과 불특정 다수의 방문자 증가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한다. 실제로 상업이나 업무용도에서 현저히 높은 용적률 지표는 아동의 활동적 이동과 일관된 (-) 관계를 보여주었다.

그 밖에 활동적 이동과 유사한 행태로 여겨지는 '걷기와 자전거 타기'의 경우, 각각의 근본적 속성 차이 때문에 일관된 영향력이 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로 보행과 자전거 이동을 분리하여 각각 종속변수로 모형을 구축한 Moran et al(2016)에서, 높은 건폐율은 보행과 (+)관계를 나타냈으나 주거밀도는 낮은 쪽이 자전거 이동과 (+)관계를 보였다. Vanwolleghem et al(2016)에서도 주거밀도 변수는 보행과 (+) 관계를 나타냈으나 자전거 이동과는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가로변에 연속된 경관이 형성되지 않고 목적지 간 거리가 있더라도 도로에 차량이 많지 않은 저밀도 환경의 경우, 보행보다는 자전거 활성화에 더 적합한 환경임을 짐작할 수 있다.

□ 도시화 수준 (근린 유형)

도시, 교외, 시골(농촌)로 구분되는 도시화 수준별 근린 유형은 아동의 활동적 이동과는 연관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다. Larsen et al(2015)과 Moran et al(2016)은 각각 캐나다와 이스라엘에서 격자형 전통적 도시와 쿨데삭 교외주거지 간 도보-자전거 통학의 차이를 탐색했으나 두 연구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Delisle Nyström et al(2019)의 연구에서 역시 도시, 교외, 농촌 간 하루 평균 걸음수의 차이가 남녀 학생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 토지이용 혼합

용도혼합은 성인 관점에서의 보행친화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종종 사용되는 항목이지만, 용도별 대지면적 비율을 기반으로 산출되는 까닭에 거주자들이 체감하는 근린환경 다양성과는 상당한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검토대상으로 삼았던 모든 연구에서, 토지이용 혼합도는 아동의 활동적 이동과 유의미한 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

□ 여가시설(공원녹지, 놀이터, 체육시설) 접근성

공원, 놀이터, 체육시설은 아동이 방과 후와 휴일에 근린에서 자주 사용하는 핵심적인 장소로서, 여가시설의 양과 접근성은 아동의 신체활동과 비교적 일관성 있는 (+) 관계를 보고해 왔다. 측정 방식에 따라 관련성이 도출되는 양상은 조금 다른데, 유형 구분 없이 가장 가까운 여가시설까

지의 거리를 변수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성이 도출되지 않은 반면, 일정 범위 내 공원녹지/놀이터/체육시설의 개수(밀도)를 측정한 경우에는 (+) 관련성 도출빈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린의 공원녹지율(면적)을 측정한 변수에서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핀란드에서는 활동적 통학과 (+) 관계, 스페인에서는 관련성 없음, 네덜란드에서는 녹지율의 증가가 오히려 통학보행과 (-) 관계가 나타났다. Oreskovic et al(2014)에서는 400m/800m반경이나 보행도달 범위가 아닌 통학경로 주변 50m 버퍼를 기준으로 녹지율을 측정했으며, 그 결과 통학로 주변 녹지율이 증가하면 도보통학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아짐을 밝혔다.

여가시설의 유형을 특정하여 세분화된 변수로 사용한 경우와 여가시설 어메니티를 지수화한 변수의 경우 활동적 이동과의 관련성이 (+) 관계로 나타났다. Ghekiere et al(2016)에서는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9가지 유형의 스포츠(농구, BMX 라이딩, 크리켓, 체조, 넷볼, 수영, 스케이트, 축구, 테니스)를 구분하고, 근린에서 가능한 활동 개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한 결과, 스포츠시설 유형의 다양성 증가가 보행-자전거 이동과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뉴질랜드에서 공원, 녹지, 수변공간, 실내외 체육시설을 포함하여 구성된 여가 어메니티 지수를 독립변수로 삼은 McGrath et al(2016)의 경우, 높은 여가 어메니티 지수가 통학시간의 활발한 보행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유형 구분 없는 가장 가까운 공원녹지까지의 거리'보다 '근린 내 공원녹지/놀이터의 개수'가 더 자주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내며, 여가시설의 세분화된 유형을 적용한 독립변수, 여가시설 전반의 양과 질을 포함한 지수형태의 독립변수가 '아동의 보행-자전거 이동'과의 관계를 더 잘 설명한다는 사실은 '활동 목적에 맞게 존재하는/또는 조성된 오픈스페이스'의 중요성과 함께 근린 내에서의 선택 다양성이 아동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 외에 보행-자전거 타기와 같은 활동적 이동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한 공원녹지의 특성과 관리상태에 따라 통학로에 공원녹지가 위치하는 것이 활동적 이동에 장벽이 될 수도, 촉진요소가 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근린에도 적용 가능한데, 학교 옆 또는 통학로에 산지형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와 학교 근처 조성된 평지형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아동의 도보통학에 있어 어느 쪽이 장벽 또는 촉진요소로 작용할지는 어렵지 않게 예상이 가능하다.

□ 근린목적지/시설 접근성

목적지 다양성 및 접근성은 성인의 보행활동과 일관된 긍정적 관련성을 나타내지만, 아동의 보행-자전거 이동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보고되는 변수들 중 하나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가시설을 제외한 아동의 주요 근린목적지로 학교와 근린상업으로의 접근성이 가장 많이 테스트되었다. 종속변수가 '활동적 통학'으로 한정된 경우, 학교까지의 거리는 가장 일관된 '도보-자전거 통학'의 예측인자였다. 편의점, 식료품점, 패스트푸드점, 음식점 등의 근린상업시설은 독자적인 변수

로 사용되었을 때는 관련성이 없거나 (-) 영향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근린상업의 경우 독자적인 변수로 채택되기보다는 공원이나 여가시설이 포함된 전반적인 목적지 접근성이나 복합지수로 구성되는 사례가 더 많았으며, 이 경우 다양한 목적지로의 접근성은 아동 보행-자전거 이동과 일관성 있는 (+)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여가시설을 제외한 근린목적지들이 주는 독립적인 영향력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 가로연결성

통상 1km^2 내 교차로 개수 또는 실제 보행도달면적 등으로 측정되는 가로연결성은 전통격자형 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조밀한 필지와 혼합용도, 경로선택의 다양성 측면에서 성인의 보행활동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단조로운 경로를 구사하며 가로 안전성에 성인보다 훨씬 더 민감한 아동의 도보-자전거 이동에 있어서, 가로연결성(교차로 밀도)은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연구들 간에 서로 상충하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벨기에, 이스라엘, 스페인 등 다양한 국가에서 교차로 밀도 변수가 사용되었으나 결과는 경향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결과가 양분되어 나타났다.

□ 보행-자전거 인프라

보도와 보행로, 자전거 도로의 존재는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에서 생활목적-여가 이동 양쪽 모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문헌 중에서도 보도 및 자전거 도로의 존재가 이동과 부정적 관계로 나타난 경우는 뉴질랜드의 McGrath et al(2016)이 유일하다(교통정온화된 도로, 보행자 인프라를 융합한 보행자 어메니티 지수와 활발한 이동 간 부정적 관련성 도출). 또한 보도 및 자전거도로의 존재와 함께 인프라의 질적 관리수준과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시설물과 편의시설도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 미적 측면/매력도

가로경관이나 근린의 매력을 변수에 포함시킨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가로경관 관찰평가도구(SPACE. MAPS, NEWS-Y 등)를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인지를 묻는 질문지 등을 통해 동네와 가로의 경관적 아름다움이나 장소적 매력을 측정하고 있다. 아동의 활동적 이동과 미적 측면 간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툴들을 사용한 거의 모든 결과가 일관되게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장소적 매력이 성인이 아닌 아동의 활동적 이동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안전과 위협요소

부모의 근린 안전에 대한 인지는 자녀의 독립적 이동 허용수준을 좌우함으로써 아이들의 도보-자전거 이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 검토결과에서도 교통과 범죄에 대한 안전, 위협 양쪽 모두 아동의 이동행태와 긴밀한 관련성을 드러냈다.

먼저 교통안전을 위한 장치의 경우 대체로 일관된 (+)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교통정온화 장치나 교통신호의 설치여부에 있어서는 일부 상충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또한 근린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 아동의 활동적 이동과는 (+) 관계를 보였으나, 안전에 대한 인지가 '경찰서의 존재'와 같은 계량적 변수로 대체된 경우에는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교통량과 차량 속도에 대한 위협에 있어서 차량속도보다는 '간선도로 인접지역 거주' 등 많은 교통량 노출에 대한 변수가 일관되게 (-) 영향을 나타냈으며, 범죄두려움에 대한 인지, 마약이나 폭력, 괴롭힘 등의 범죄를 접할 가능성에 대한 징후(술병, 담배꽁초, 파손된 기물 등)도 아동의 활동적 이동 위축과 유의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표 2-12〉 아동의 활동적 이동(AT)과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한 주요 계량연구 결과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Broberg et al (2013b) 핀란드	10-12세 n=901	아동에게 의미있는 장소를 향한 독립적/능동적 이동성 측정 SoftGIS 통학경로표시 의미있는 장소 표시 이동수단/동반 건강과웰빙 설문지 응답	의미있는 장소주변 50m버퍼의 환경특성 요인 〉 5개로 압축 A. 밀집된 건조환경 주거지역 인구, 호수밀도, 건폐율 B. 단독주택지 건물, 단독주택/다세대 비율 C. 교통 우위(노출) 도로비율, 교차로밀도, 토지이용 혼합, 녹지율 D. 고립된 장소 가장 가까운 여가시설/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E. 대형건물/교통중심지 용적률, 버스정류장 개수	50m 버퍼 내 GIS 생성	활동적 이동으로 간 장소 A. 밀집된 주거구조 (-) B. 단독주택지 (+) C. 교통 우위(노출) (-) E. 대형건물/교통중심지(-) 단독주택 위주의 주거환경 일수록 AT가능성 높아짐 교통우위, 대형건물 중심의 도심쇼핑장소, 고속도로변 쇼핑몰 등은 AT가능성 ↓
Cain et al (2014) 미국	6-11세 n=758	9개 목적지 유형에 대한 자녀의 보행-자전거 이동빈도 부모응답(설문)	A. 목적지와 토지이용 주거혼합, 레스토랑, 상점들, 공공서비스, 기관서비스, 공공/민간 여가시설, 주차장, 대중교통 정류장 B. 가로경관 C. 미적 사회적 측면 D. 교차로 교차로 시설, 커브 퀄리티, 신호등, 가로폭, 장애물 E. 가로 세그먼트 건물높이 셋백, 위요감, 자전거도로, 버퍼, 보도, 가로수, 건물디자인/미적 요소, 넓은 일방통행도로, 장애물/위해요소, 경사	MAPS 관찰툴 사용	A. 목적지/토지이용 (+) 레스토랑-즐길거리(+), 공공서비스(+), 대중교통 정류장(+) B. 가로경관 카테고리 (+) D. 교차로 카테고리 (+) 커브 퀄리티(+), 넓은 도로 폭(+), 장애물(-) E. 가로 세그먼트 (+) 건물높이 셋백(+), 버퍼(+), 보도(+), 장애물/위해요소(-), 경사(-)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F. 쿨데삭 바닥재, 규모, 경사, 어메니티(예: 농구 골대 등)		
Carver et al (2014) 영국 종단연구	9-10세 n=1,121	학교로의 독립적/ 활동적 이동 부모응답	**물리적 환경** [근린특성] A. 도로비율(길이/면적) B. 간선도로비율 C. 800m버퍼내 보행도달면적 D. 가로연결성(교차로 밀도) E. 토지이용혼합 F. 근린유형(도시/시골) [통학경로] G. 통학로의 가로등 밀도 H. 통학로 중 간선도로 포함 I. 도시영역에 포함되는 도로비율 [학교특성] J. 보행/자전거 독려정책/주도 K. 보행/자전거 접근성지수 [환경인지] L. 커뮤니티 유대감 M. 동네에서 낮에 걷기/놀기좋음 N. 근린보행친화도 지수 O. 자녀 등하교시 교통위험 수준 P. 자녀 등하교시 범죄불안 수준 **사회적 환경** Q. 근린박탈지수 R. 같이 걸을 친구 있음 S. 부모의 보행/자전거통학 독려	아동 집주소 기반 주변환경 GIS 계량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측정시점 1** **[남녀 공통]** D. 가로연결성 (-) S. 부모의 AT 독려(+) M. 동네 낮시간활동 (+) N. 근린보행친화도 지수(+) O. 등하교시 교통위험(-) P. 등하교시 범죄불안(-) **[여학생]** B. 간선도로비율(-) **[남학생]** C. 800m내 보행도달(-) I. 도시영역 포함 통학로(-) L. 커뮤니티 유대감(+) R. 같이 걸을 친구(+) **측정시점 2 (종단효과)** **[여학생]** B. 간선도로비율(-) E. 토지이용혼합(+) M. 동네낮시간 활동 (+) S. 부모의 AT 독려 (+) **[남학생]** 근린환경요인 없음 부모의 허락, 자동차 보유
Delisle Nyström et al(2019) 캐나다	4-6학년 n=1,699	하루평균 걸음 수 pedometer 기반 산출	**물리적 환경** A. 도시화수준(도시, 교외, 농촌) **사회적 환경** B. Area-level SES	행정구역 통계산출	**하루평균 걸음수** 남녀 모두 도시화수준과 유의하지 않음
De Vries et al (2010) 네덜란드	6-11세 n=488	목적별 보행-자전거 트립개수 학교, 학교 외 목적지, 보행- 자전거 트립 구분하여 종속변수 생성 (부모 도움 아동 활동일지 작성)	**환경관찰툴 사용** NEWS 툴 (Neighborhood Environment Walkability Scale) 네덜란드에 맞게 변형 **10개 카테고리 총 54항목** 주거유형, 체육시설, 여가시설, 놀이시설, 흙, 교통안전 상업 대 주거비율, 주거 대 녹지비율, 공실률, 녹지공간의 풍부함, 수공간, 보행/자전거 인프라(보도, 자전거로, 횡단보도, 보행자 건널목, 신호등, 교통섬, 주차장, 평행주차공간, 주차장, 과속방지턱, 30km 속도제한구역, 교통량 적은 구역, 라운드어바웃) 동네의 활동친화도	2명의 연구원이 근린을 걸으며 직접 관찰 내용 기재	**목적보행-자전거 트립개수** 보도의 존재 (+) **목적보행 트립개수** 교통신호의 개수 (-) **목적형 자전거 트립개수** 여가시설의 개수 (+) 횡단보도의 존재 (+) **통학용 보행-자전거 트립** 자전거 트랙의 존재 (+) **통학보행 트립개수** 녹지비율 높아지면 (-) 횡단보도의 존재 (+) **통학 자전거 트립개수** 여가시설의 개수 (+) 횡단보도의 존재 (+)
Ghekiere et al (2016) 호주	10-12세 n=919	주당 총 걷기/자전거 트립 개수 *8유형 목적지에	**아동 주소를 기반으로 한 반경 800m내 물리적 환경 계량화** A. 인구밀도	GIS-생성	**걷기-자전거 이동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요인**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대한 AT 횟수 (친구집, 오벌Oval, 놀이터, 우체국, 대중교통, 상점, 체육관, 자전거 도로, 산책로) 부모응답(설문)	B. 혼잡한 도로(고속, 간선)의 총길이 C. POS (공원녹지) 밀도 D. 9종류의 스포츠에 대한 시설 선택지 개수 (농구, BMX라이딩, 크리켓, 체조, 넷볼, 수영, 스케이트, 축구, 테니스) E. 막다른 골목 수 F. 총 교차로 수 G. 도로와 통합된/분리된 보도/자전거 트랙의 총 길이		A. 인구밀도(+) C. 공원녹지 밀도(+) D. 스포츠시설 유형 수(+) F. 교차로 밀도(+)
Kyttä et al (2012) 핀란드	10-12세 n=946	활동적 통학 아동설문응답 SoftGIS 사용	**[물리적 환경]** A. 녹지율(들판 숲 공원 수공간 비율) B. 주거밀도 (호수/면적ha) C. 15세 미만 인구밀도	집에서 500m 버퍼 기준으로 GIS 측정	**활동적 이동으로 등하교** A. 녹지율(들판 숲 공원 수공간 비율) (+) C. 15세 미만 인구밀도(+)
Larsen et al (2015) 캐나다	6-12세	학교에 걸어가기	**[물리적 환경]** A. 학교까지의 거리(1km 이상) B. 인구밀도 C. 교차로밀도 (km2당 교차로개수) D. 도시구조(60년대 이전 격자형 vs 교외주거지 쿨데삭형) **[조정된 변수]** E. *도시구조와 상호작용된 성별	주소기반 GIS 생성 A-D	**[보행통학]** A. 학교까지의 거리↑ (-) C. 교차로 밀도↑ (-)
McGrath et al (2016) 뉴질랜드	평균 9.3세 n=226	걸음 수: 활발한 보행, 총 걸음수 (시간대별: 통학, 방과후, 휴일)	A. 학교까지의 거리 B. 여가시설 어메니티 지수 (공원녹지,해변, 체육센터) C. 식품구매(food outlet)지수 (편의점, 패스트푸드, 슈퍼마켓) D. Walkability (리테일면적, 교차로밀도, 거주밀도, 용도혼합) E. 보행자 안전 지수 (교차로 횡단보도, 신호등) F. 보행자 어메니티 지수 (보행로, 교통정온화) G. 가로경관 미적 지수 (경관, 위생, 유지관리) H. 지역목적지 지수 (아동이 방문하는 동네 장소들. 학교, 공원, 놀이터 등) ** A-H 3분위로 동네 배정	GIS측정 A-D 가로평가툴 측정 (SPACE) E-H	A. 학교까지의 거리↓ ›› 방과후 활발한 보행 (+) B. 여가시설 어메니티↑ ›› 통학시간 활발한 보행(+) C. 식품/식음시설 ↑ ›› 통학시간, 휴일의 활발한 보행(-) C. 식품/식음시설 ↓ ›› 방과후 활발한 보행(+) D. Walkability ↓ ›› 방과후 활발한 보행(+) E. 보행자 안전 지수↑(-) F.보행자 어메니티지수↑(-) G. 가로경관 미적 수준 ↑ ››통학시, 방과후, 휴일 모두 활발한 보행(+) H. 지역목적지 지수 (중간인 지역) ›› 학교, 방과후, 휴일 모두 전반적으로 AT(+)
Molina-Garcia et al (2021) 스페인	6-12세 n=83	활동적 통학 (도보-자전거)	**250/500/1,000/1,250m 네트워크 버퍼 내** A. 공원면적 B. 공원 수 C. 가장 가까운 공원까지 거리 D. 놀이터 수 E. 가장 가까운 놀이터까지 거리 F. 학교까지의 거리 G. 보행친화성 (교차로 밀도, 순 주거밀도, 토지이용혼합 포함)	GIS-생성	**활동적 통학** 250m와 500m버퍼 내 D. 놀이터 수 (+)
Moran et al (2016)	10-12	학교 도보통학	**물리적 환경** A. 근린유형 (전통형 va 교외형)	D-F : GIS-생성	**학교 도보통학** C. 건폐율 F. 학교거리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이스라엘		학교외 목적지 도보이동 학교외 목적지 자전거 이동 여가를 위한 자전거타기 (아동설문)	B. 주거밀도 C. 건폐율 D. 가로연결성(교차로 수) E. 가까운 상점/공원까지의 거리 F. 다니고 있는 학교까지의 거리 **사회적 환경** G. 이웃 아이들을 알고 있음 H. 많은 아이들이 나와놀고 있음 I. 낮은 범죄불안 J. 아동친화적 근린으로 인식함	G-J : 아동설문	G. 동네 친구있음 **학교 외 도보이동** C. 건폐율 H.많은 아이들이 나와놀고 있음 I. 낮은 범죄불안(동네를 안전하다고 인식) **학교 외 목적지 자전거이동** B. 주거밀도 낮은 지역 거주 **여가를 위한 자전거타기** B. 주거밀도 낮은 지역 거주
Oliver et al (2015) 뉴질랜드	9-13 n=253	도보-자전거 통행 루트의 비율 (갯수 %) 실증자료수집 통행일지+GPS+가속도계	**물리적 환경** A. 가로연결성(교차로 밀도) B. 주거밀도 C. 학교까지 네트워크 거리 D. 목적지 접근성 (NDAI-C) E. 학교주변 속도 빠른 도로 비율 F. 가로환경/경관(NZ-SPACE) **사회적 환경** G. 부모의 근린안전 인지	A-E : GIS 분석 F : 온라인 맵 사용 관찰평가 G: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주중** A.가로연결성 (+) C.학교까지의 거리 (-) *멀어지면 AT감소 D.목적지접근성(+) **주말** A.가로연결성 (+) C.학교까지의 거리 (-) *멀어지면 AT감소
Oluyomi et al (2014) 미국	10-11 4학년 n=830	4학년 자녀는 보통 학교에 어떻게 통학하나요? 〉 보행자/비보행자로 구분 (부모설문)	**1. 교통안전(인지)** [집주변] A.보도 있음 B.보도가 잘 관리됨 C.교차로가 안전함 D.동네에서 보행하는/자전거타는 사람 많음 [통학로] E.전반적 문제 F.교통량 문제 G.보도/보행로문제 H.교차로/ 건널목 문제 [학교주변 환경] I.학교주변 보도 J.보도의 관리 K.학교주변 가로수 L.학교주변 자전거도로 M.자전거도로의 관리 N.자전거보관장치 O.안전한 길 건너기 **2. 범죄불안(인지)** [집주변] P.동네에서 걷기 안전 Q.동네에서 자전거타기 안전 R.동네가 아이들AT에 안전 S.일몰 후 혼자 나가기 무서움 [통학로] T. 동행할 사람필요 U.폭력/범죄 V.유기견/위험한 동물들 W.학교 주변 매력요소(건물, 자연물) X.방치된 또는 빈집들, Y.마약, 성범죄 위험 Z.잘 관리 되는 집들, 공동주택들, 정원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A-Z	**[인지된 교통안전]** **집 주변** A.보도있음(+), B.보도관리 잘됨(+), C.안전한 교차로(+) **통학로** E.문제 적음/없음(+), F.교통량 문제없음(+) G.보도/보행로 문제없음(+) H.교차로건널목 문제없음(+) **학교 주변** I. 보도있음(+), J.보도관리 잘됨(+), K.도로에 가로수(+) L.자전거도로(+), O.안전한 길건너기(+) **[인지된 개인안전_범죄관련]** **집 주변** R.아이의 AT에 안전함(+) **통학로** T.같이 걷기/자전거타기 할 동행인 없는 문제(-) U. 범죄나 폭력문제 (-) V. 유기견/위험한 동물(-) **학교 주변** 요소들 중 유의한 관계 없음
Oreskovic et al (2014) 미국	4학년 평균 9.7세 n=149	1주일간 도보-자전거 통학빈도 (가속도계 측정)	**학교주변환경** 1) 400/800/1,600m버퍼내 환경 2) 통학경로 50m버퍼 환경측정 A. 보도의 존재 B. 토지이용 혼합도	GIS 생성 A-J	**[도보통학 가능성]** 1) 400/800/1,600m버퍼 기준으로 측정한 환경과는 연관성 없었음 2) 통학경로 기준으로 측정 J. 공원면적 비율(-)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C. 가로연결성 (교차로 밀도) D. 교통량 E. 가로연결성 X 교통량 F. 교통신호 G. 경찰서 존재 H. 자전거도로 있음 I. 주요간선도로(major road) J. 공원면적 비율		
Page et al (2010) 미국	10-11세 n=1307	학교에서 집으로 올 때 (하교시) 이동수단 (아동설문)	**물리적 환경** A. 학교까지의 직선거리 B. 접근성 1 : 지역상점, 공원, 버스정류장, 도서관, 스포츠센터, 쇼핑센터 C. 접근성 2 : 학교, 친한 친구의 집 D. 반사회적 흔적 : 담배꽁초, 그래피티, 반달리즘, 개 배설물 등 E. 교통안전 : 도로횡단 안전장치, 교통량 많음, 공해 F. 집 근처에 놀 곳이 많다고 인지 **사회적 환경** G. 범죄, 동네에서의 괴롭힘, 소음 H. 낮-밤시간대 안전, 낯선사람에 대한 두려움, 어두운 장소 I. 같이 놀 친구, 거리에 나와있는 아이들, 걷거나 자전거타는 사람들 J. 자유롭게 집에서 나가지 못함	GIS측정 A 아동응답 인지된 환경 B-J	**하교시 이동수단 선택 영향요인** **남학생** A. 학교까지의 거리 B. 접근성1 (학교 외 지역 어메니티들) C. 접근성2 (학교, 친구집) **여학생** A. 학교까지의 거리 G. 범죄, 동네에서의 괴롭힘, 소음 * 개인-가구특성으로서 이동독립성 수준은 공통해당
Vanwolleghem et al(2016) 벨기에	10-12세 n=126	통행일지 가속도계와 GPS착용 결과로 속도에 따라 이동수단 분류	**[부모의 근린 인지]** A. 주거밀도 (다양한 주택유형 체크) B. 근린서비스 접근성 C. 가로연결성 (교차로, 막다른 길, 대체경로의 존재 등 질문) D. 보행/자전거 인프라(보도, 자전거 도로의 존재 및 유지보수 품질) E. 미적 특성 존재 F. 교통 체감 안전도 G. 범죄 체감 안전도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일부 문항은 NEWS-Y 관찰툴 변형 활용	**[보행 연관요인]** **주중** A. 주거밀도↑ (+) E. 미적 특성 존재 (+) **주말** D. 보도/자전거도로 (+) **[자전거타기 연관요인]** **주중** B. 근린서비스 접근성 (+) C. 가로연결성(약한 연관성)(+) D. 보도/자전거도로 (-) **주말** (연관 요인 없음)

출처: 연구진 작성

2) 정성연구를 통해 밝혀진 추가적 정보

통계분석을 통해 검증된 물리적 환경 변수가 주는 정보들 외에도 물리적 환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작동하는 개인과 가구 특성, 지역사회의 문화와 관행 등 다양한 요인들이 아동·청소년의 활동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몇몇 사례를 통해 아동 청소년의 활동적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검토함으로써 계량연구 중심의 논의에서 다루지 못한 숨겨진 장벽과 촉진 요인에 대해 보완하고자 한다.

□ 부모의 태도와 습관

가구 차원에서 보았을 때, 부모의 태도는 계량 연구에서도 자녀의 도보-자전거 이동을 비롯한 전반적 바깥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져 있다. 질적 연구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접할 수 있는데, 학교까지의 거리가 도보-자전거 통학이 가능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편의와 안전에 대한 염려를 이유로 아이를 출근길에 학교에 데려다주는 행태는 아이의 활동적 이동을 가로막은 장벽으로 언급된다(Race et al, 2017). 반대로, 부모가 '걷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해주며 도보나 자전거를 선택하여 함께 걷거나 도보 통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줄 때, 예를 들면 '중간에서 내려주며 나머지는 알고 있는 길이니 걸어가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녀의 활동적 이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기존 연구에서도 정기적인 도보-자전거 이동을 실천하는 부모의 경우 자녀가 활동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발견된 바 있다(Carlson et al, 2014).

□ 친구의 존재

활동을 함께 할 친구의 존재는 아동의 전반적인 야외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Race et al(2017)에 따르면, 캐나다의 도시 아이들은 학교 가는 길에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는 반면, 교외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친구의 존재가 학교에 가는 데 있어 커다란 동기부여가 될 정도로 도보 통학에 커다란 요인이며, 일부러 친구네 집으로 찾아가서 함께 학교에 가는 행태를 보인다. 또한 Buttazzoni et al(2023)의 리뷰에서도, 다수의 연구에서 '친구와 교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아동 · 청소년에게 도보-자전거 이동을 가치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이 나타났음을 밝히고 있다.

□ 사회자본, 근린의 우호적 지지

근린의 안전 문제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낯선 사람, 불법 활동 접촉에 대한 두려움, 자전거 등 도난사건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환경에 대한 인지 외에도, 지역 사회 구성원들간의 '느슨한 연대감'이 부족한 경우 아동은 근린환경을 별다른 유익이나 흥미가 존재하지 않는 곳으로 관찰하며, 소속감이나 안정감을 얻는 계기도 생기기 어렵다(Ross et al, 2007). 결과적으로 이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근린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적극적인 보행과 자전거 타기를 독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또래의 바깥활동 감소로 이어져 활동적 이동을 위축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Crawford et al, 2017).

□ 차량운전자의 태도, 지역의 운전 문화

불편함을 유발하는 도로주차와 과속차량,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거친 운전 행동과 태도 등은

또 다른 장벽으로 작용한다. 또래의 차량사고나 무모한 운전자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소식은 아동과 부모의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차량이 자신을 보지 못하며 인내심이 없고 도로를 건널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느낌은 아이들의 보행과 자전거 타기에 매우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된다(Muhati-Nyakundi, 2018; Ghekiere et al, 2014).

□ 시야 확보, 아동이 눈에 잘 띌 수 있는 환경

걷거나 자전거를 탈 때, 아동이 반대편 차량을 잘 볼 수 있고, 아동 자신도 운전자들의 눈에 더 잘 보일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자주 언급된다(Ghekiere et al, 2014; Jordi-Sánchez, 2018). 가로수, 코너의 적치물, 복잡하게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키가 작은 아동은 성인에 비해 가시성이 더욱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스스로 운전자들이 자신을 잘 볼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는 아동이 활동적 이동에 자신감을 갖기 어렵다.

한국에서도 보도환경이 일정치 않거나 부족한 가로를 이동하는 아이들에 대하여, 부모들은 유사한 우려를 표명한다. 상가 앞 이중 주차된 차량들이나 택배차량으로 인해 가려지는 시야 등은 오히려 신호등이 제대로 갖춰진 대로횡단보다 종종 더 큰 위험으로 지목된다. 이는 근린상가 주차환경 재설계 또는 중간 크기 도로의 가각부 관리 등이 아동의 보행-자전거 이동에 대한 원활한 지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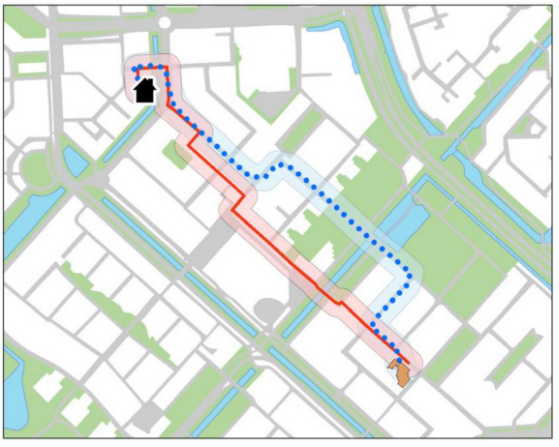
□ 물리적 장벽

아이들은 통학로에 T자 교차로가 많거나 고속도로 진입로가 존재하는 경우 안전한 이동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다(Gautam et al, 2021). 또한 가로변에 장애물 등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 경사가 있는 경우 도보-자전거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건물이 알맞게 후퇴해 있고, 차도로의 직접 노출을 막는 버퍼가 형성된 상태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Cain et al, 2014). 한편 중심상업지의 인접하거나 지상철도와 같은 단절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이들의 활동적 이동에 주요 장벽으로 작용한다(Curtis et al, 2015).

□ 최단거리보다는 안전하고 좋은 길

성인의 목적보행에서 경로의 직접성은 보행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이지만, 아동의 보행-자전거 타기에서는 가장 짧은 경로보다는 안전하고 좋은 길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 Dessing et al(2016)에 따르면, 아동이 실제로 통학을 위해 선택한 경로는 최단거리 경로에 비해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녹지와 수공간이 더 많고 횡단보도를 덜 건너도 되는 길이었다. 자전거 이동에 있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는데, Ghekiere et al(2014)

에서는 '가장 가까운 경로에 비해 3km를 우회해야 하지만, 자전거로 갈 때는 교통으로부터 분리된 그 길을 선호한다'는 부모 인터뷰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는 보행보다 속도가 빠른 이동수단으로서 자전거가 보행과는 미세하게 다른 환경요인에 반응할 수 있으며, 자전거 타기의 관점에서 높은 교차로 밀도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경로선택 다양성과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검토한 계량연구들에서 보행과 자전거 이동에 있어 교차로 밀도의 영향력이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를 일부 설명해준다.



[그림 2-11] 아동의 집에서 학교까지 GIS로 도출 최단경로(붉은색)와 GPS로 측정된 실제경로(파란색 점선) 비교

* 실제 선택된 경로에 녹지와 수공간이 더 많았으며, 횡단보도와 잘 관리되지 않은 보도환경을 회피함
출처: Dessing et al(2016), p.4, Fig1.

다. 아동의 이동독립성과 관련된 근린환경 요인

1) 계량연구에서 나타난 물리적 환경 요인

이동독립성과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한 기존문헌 중, 2010년 이후 발표된 최신 연구로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6-14세)을 대상으로 하며, 물리적 환경변수가 충분히 고려되어 있어 한국의 근린환경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12편의 연구를 선별하여 검토하였다. 검토된 문헌 중에서는 독립이동 대상을 학교로만 국한한 연구가 4편, 학교를 포함한 전반적인 근린목적지 또는 학교 외 목적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8편이다.

기존 문헌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아동의 이동 독립성(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은 다양한 방식으로 정의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는 부모가 아동에게 부여한 '이동 허락 수준'을 이동독립성으로 치환하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다수의 연구에서 실제 아동이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목적지와 활동의 개수를 체크하거나, 독립적으로 이동한 목적지를 기반으로 활동영역을 계

산하는 등 행태를 반영할 수 있는 형태로 이동독립성을 측정하고 있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하여, 부모 또는 아동에 대한 설문 응답에서부터 GPS와 가속도계를 사용한 실측자료 분석, 참여형 GIS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아동 맵핑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밀함을 추구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독립변수의 경우에는 기존 통계의 활용, 아동거주지 주소 기반 GIS를 사용한 근린환경 계량화, 설문응답을 통한 인지적 측정을 통해 물리적, 사회적 변수들을 측정하고, 이들 변수를 목적에 맞게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본 절에서 이루어지는 문헌검토는 이동독립성과 관련된 물리적 환경변수에 대한 통찰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의 이동독립성을 다루는 다수의 연구에서 교통과 범죄 분야를 공통된 안전 이슈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범죄위험 요인은 〈표 2-13〉에 함께 포함시켰다. 아동의 이동독립성과 관련된 근린의 개별 물리적 환경변수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표 2-13〉 아동의 이동독립성(Independent Mobility)과 관련된 근린의 물리적 환경요인

근린환경요인		이동 독립성과의 관련성			비고
		+	0	−	
밀도		4	1	5	
	인구밀도 ↑	3[a)]	1	2	a) (+)영향력 3건 중 1건은 '15세 미만 인구밀도'
	주거밀도 ↑	1		1	
	건물밀도 ↑			2	
도시화 수준 (근린 유형)		1	1	1	
	도시화 수준 ↑	1	1	1	
주택 유형		2	2		
	단독주택	1	2		
	마당 있음, 마당면적 ↑	1			
토지이용 혼합		1	2		
	용도혼합 ↑	1[b)]	2		b) 용도혼합의 (+)영향력은 여학생 그룹에서 나타남
공원녹지 접근성		6	8		
	공원녹지까지 거리 ↓	4	3		
	공원녹지 면적비율 ↑		1		
	일정범위 내 공원녹지 개수 ↑	2[c)]	4		c) 공원녹지에 (학교)운동장 포함
시설/어메니티 접근성		4	3	2	
	학교까지 거리 ↓	2			
	학교밀집도 ↑		2		
	시설/어메니티 개수 ↑	2	1	2	
가로패턴/연결성		1	5	2	
	교차로밀도(보행도달면적) ↑		5	2	

근린환경요인		이동 독립성과의 관련성			비고
		+	0	−	
보도/보행로/자전거 도로		1	4		
	보행/자전거 인프라 구비	1[d)]	4		d) p<0.1의 미약한 관련성으로 나타남
가로환경의 미시적 특성		1			
	미적 특성, 가로의 매력	1			
결합된 지수		3	2		
	보행친화도 점수	3[e)]	1		e) 여학생의 경우 학교 주변, 집주변 보행친화도 모두와 (+)관계를 보임
	자전거 친화도 점수		1		
	대중교통 친화도 점수				
안전 관련 요인 (교통+범죄위험)		1	17	16	
	교통위험↑ - 길 건너기/과속/보행위험		3	4	
	위험노출↑ - 간선도로 비율 - 교통량 많은 도로 인접거주		5	4	
	범죄두려움↑ - 낯선사람, 청소년 괴롭힘		6	1	
	범죄 흔적/징후↑ - 낙서, 술병, 꽁초, 기물파손		2		
	전반적 근린위험	1	1	7	

*총 12편의 연구논문에서, 변수통제 후 최종계량모델 23개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출처: 연구진 작성

□ 밀도

인구밀도, 주거밀도, 건물밀도 등 주거지 밀집도와 관련된 변수들은 아동의 이동독립성(CIM)과 대부분 관련성을 나타냈으나, 일관된 방향을 가리키지 않는다. 인구와 주거밀도의 증가는 지역 내 거주자 증가로 인한 감시의 눈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차량 증가와 넓은 도로폭을 동반할 가능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Kyttä et al(2012)의 연구에서 '15세 미만 인구밀도'가 긍정적인 영향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인구나 주거밀도와는 달리 건물밀도 즉 용적률의 증가는 상업/업무지구의 인접을 의미하며, 이는 아이들의 독립적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roberg et al, 2013a; Broberg et al, 2013b). Broberg et al(2013a; 2013b)은 두 연구에서 아동이 독립이동을 한 '의미 있는 장소'의 특성이 단독주택지가 밀집된 주거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용적률이 높은 지역(대형건물이나 교통시설, 대규모 스포츠시설 등이 위치한)과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일련의 결과들은 지역 차원에서 거칠게 측정되는 밀도라는 요소 자체보다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세부요인들을 구분하여 관찰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도시화 수준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주거지 유형으로서 구분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거칠고, 검토된 연구들 간의 결과는 상충하고 있다. 도시화 수준이나 주거지 유형 자체보다는 해당 유형이 갖고 있는 장단점을 만들어내는 환경적 조합(밀도와 목적지 접근성, 개발의 규모와 계획방식, 주택 유형 등)이 아이들의 독립적 이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와 지역에 따른 정주지 조성 밀도의 통상적 기준이 다르고, 유사한 명칭(도시/도심, 소도시/타운센터, 교외, 시골 등)을 가진 주거지 간에도 환경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결과 해석에 혼란을 배가시킨다. 캐나다와 같은 저밀 국가에서는 교외 환경이 남학생의 독립적 이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Riazi et al , 2019), 아시아 고밀 국가에서는 오히려 도시화 수준이 낮을수록 아이들의 독립적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홍콩의 경우 도시에 비해 교외는 1.72배, 시골은 3.28배 독립이동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Lam & Loo, 2014), 이는 홍콩의 교외 주거지 모습이 오픈스페이스가 갖춰진 고층 아파트 단지로 도심에 비해 쾌적한 한국의 신도시와 유사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도시화 수준 변수의 이 같은 특성 때문에, 하위 변수들과의 간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Riazi et al(2019)에서는 지역차원 변수(도시화 수준, 보행친화도 지수)와 근린차원의 세분화된 환경인지 변수(교통/범죄불안, 감시의 눈 작동, 가로등, 보행인프라 등)를 별도의 분리된 모델로 구축하여 분석하고 있다.

□ 주택 유형

해당 국가의 보편적 주택 형태 및 가로 풍경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은 주택 유형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주택 유형의 마당 유무와 주택입구가 가로와 만나는 고유의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여겨진다. Broberg et al (2013b)에 따르면, 핀란드에서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동네에 목적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 관계가 있다. 이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Bagheri & Zarghami(2022)에서는 주택 형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마당의 면적, 주택에서 보이는 전망(열린 시야)은 이동독립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주택면적의 증가와 주택입구 접근방식(수직이동장치), 고층에 거주하는 것은 부정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토지이용 혼합

또 하나의 지역차원 변수에 해당하는 토지이용 혼합 요인 역시 이동독립성과 관련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직접 경험하는 근린의 영역이 극히 일부이며 가로 중심으로 이동이

이루어짐을 고려해 볼 때, 면적비율로 측정되는 토지이용 혼합 변수 역시 이동독립성을 판단하기에는 거친 계량화 방식일 가능성이 높다. 검토대상 연구들 중 용도혼합 변수는 유일하게 Carver et al(2014)에서 11세 이상 여학생 집단의 독립이동성과 긍정적 관련성이 나타났다.

□ 공원녹지 접근성

공원녹지 접근성 변수는 검토된 연구의 절반 정도에서 이동독립성과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 한편, 절반 정도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공원녹지 유형이 드러나지 않는 녹지율이나 개수보다는 구체적 규모가 명시된 공원녹지까지의 거리에서 긍정적 관계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났다.

Kyttä et al(2012)에서는 들판, 숲, 공원, 수공간을 포함하는 녹지율이 높아지면 아동의 활동적 통학은 증가했으나 독립적 이동과의 관련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Villanueva et al(2012)은 '2acre 미만/이상 녹지의 개수'와 '가장 가까운 녹지까지의 거리'를 동시에 독립변수로 사용했으나 녹지 개수와의 관련성은 도출되지 않았으며, '가장 가까운 녹지까지의 거리'만이 남학생 그룹과 (+) 연관성을 나타냈다. Christian et al(2015)은 '등하교 이동독립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대규모 공원까지의 짧은 거리'가,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독립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서 '대규모와 소규모 공원까지의 짧은 거리' 및 '학교운동장 개수'가 각각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이는 공원녹지의 구체적인 규모(대규모공원 1.5ha 이상, 소규모 공원 0.3ha 이상 0.5ha 이하)에 따른 이동독립성 영향력을 테스트한 최초의 연구이며, 아동의 이동독립성에 유효한 공원녹지 규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근린환경 개선 지점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시설/어메니티 접근성

'학교로의 이동 독립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연구들에서 '학교까지의 가까운 거리'는 국가나 연구자들 간 상충 없이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이동 독립성 지원 요인이다. 검토된 두 편의 연구(Lam & Loo, 2014; Larsen et al, 2015) 외 다수 연구에서도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이들의 전반적인 독립적 이동과 긍정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지역 내 학교의 개수(학교 선택권)를 의미하는 학교밀집도 변수는 학교 통학과 다른 목적지를 향한 이동 독립성 모두에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Christian et al, 2015; Lam & Loo, 2014).

한편, 학교 외 어메니티(식료품점/소매점 등 근린상업, 우체국/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문화체육시설, 커뮤니티 센터 등)와 이동독립성 간에는 일관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아동 성별과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도 영향력의 방향에 차이가 있었다. 호주의 Villanueva et al(2012)의 연구에서 남학생 그룹의 이동독립성은 근린 내 실내체육시설, 근린상점 개수의 증가와 (+) 관계를 나타냈으나, 쇼핑센터와 공공서비스(도서관, 우체국 등)와는 오히려 (-) 관계를 보이고 있다.

반면 근린 어메니티와 여학생 그룹의 이동독립성 간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 가로연결성 (교차로 밀도, 보행도달면적)

가로연결성(Street connectivity)은 근린에서 막힌 도로(cul-de-sac)와 격자형(Grid) 중 어떤 패턴이 우위에 있는지 반영하는 지표로서, 다수의 연구에서 '교차로 밀도(반경 1km^2 이내 3거리 이상의 교차로 개수)'항목으로 측정된다.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변수로서 '보행도달 가능면적(도보생활권, pedestrian shed)'이 있으며, 참여자의 집을 기준으로 '800m 반경 면적 대비 실제 보행도달가능면적의 비율'을 산출하여 사용하며, 비율이 높을수록 가로연결성이 좋다고 판단한다(Curtis et al, 2015; Carver et al, 2014).

가로연결성은 통상적으로 성인의 보행활동에 (+) 요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동의 이동 독립성에서는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거나 상충하는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한 연구에서는 격자형 가로를 가진 전통주거지에서 교외주거지에 비해 이른 나이에 아이들이 이동 독립성을 획득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나(Larsen et al, 2015), 전통주거지의 어떤 세부요소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가로패턴 변수만으로 설명이 부족하다. 같은 연구에서 밝혀진 바로는 활동적 이동과 긍정적 관련성을 보이는 교차로 밀도의 증가가, 더 높은 인구밀도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학교로의 독립적 걷기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으로서 낮은 교통량과 쉬운 길 건너기는 격자형 가로패턴에서 구현되기 어렵고, 반대로 목적지와 경로의 다양성은 쿨데삭 위주의 교외주거지에서 달성되기 어렵다는 양면성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oran et al(2018)에서 아이들이 주로 선택한 경로의 특성으로 지목한 "교차로 수가 적지만 압축적인 기능이 모여 있는 길"은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 보행 및 자전거 인프라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보행트랙, 트레일, 자전거 전용로 등)는 독립이동성과는 별다른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보행/자전거 트랙의 존재가 학교 외 목적지로의 독립이동에 대한 부모의 허락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한 Qiu & Zhu(2021)에서도 유의성은 미약한 수준이다(p value〈0.1). 이는 한국의 일부 신도시에서 넓은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모두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조로운 가로변 환경으로 인해 보행-자전거 이동이 기피되는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 가로환경의 미시적 특성, 보행친화성 지수

가로환경의 미적 측면이나 매력과 같은 요인들은 단독으로 측정되기보다는 결합된 변수로서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보행친화도(Walkability Index, NEWS-Y 등)를 통해 반영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가로의 매력이 단독 변수로 사용된 Mitra et al(201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독립이동성 허락과 긍정적인 연관성을 나타냈다. 보행친화도 지수의 경우 특히 여학생 그룹의 이동독립성과 긍정적인 관계가 자주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방식(400m/1600m 버퍼 사용, 학교 주변 환경, 집 주변 환경 적용)에 변화를 주었을 때에도 대부분 유효했다(Riazi et al, 2019; Villanueva et al, 2012).

□ 교통노출, 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통노출과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의 증가는 일관되게 독립이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교통안전에 대한 우려는 '집 근처 길 건너기 어려운 교차로 1개 이상 존재', '집 앞 가로의 교통 정온화 여부', '운전자의 운전태도와 차량의 과속여부' 등 인지적 측정이 좀 더 자주 사용되지만, 교통노출 수준에 대해서는 '근린 내 간선도로의 비율', '교통량 많은 도로와 거주지 인접' 등을 GIS 로 계량하는 측정방식도 발견된다. 학교로의 독립적 통학, 학교 외 장소로의 이동 모두에 대해서 교통위험은 (-) 관련성을 보였으며, 특히 간선도로와의 인접 또는 근린 내 간선도로의 비율 등 교통량에 대한 노출 요인은 여학생들의 독립적 이동과 (-) 관계가 두드러졌다(Carver et al, 2014; Villanueva et al, 2012).

□ 범죄두려움, 흔적과 징후

차량 위험의 경우 실제로 이동독립성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이 확인되는 데 반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 관련 변수들은 실제 이동독립성과의 연관성이 불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과 범죄불안이 결합된 요소로서 측정된 '근린이 안전하지 않다고 인지함' 응답은 대부분 이동독립성과 부정적 관련성이 나타난 반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단독으로 측정한 경우에는 '학교로의 독립적 통학'과의 관계를 검토한 Carver et al(2014)에서만 부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아동의 놀이, 이동과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범죄나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미디어로 인해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 주택 주변 환경, 아파트 단지

다수의 연구를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최근 서구와 확연한 차이가 있는 중동과 아시아의 도시형태를 배경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발견된다. 이란에서 수행된 Bagheri & Zarghami(2022)에서는 주택환경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모형에 포함시켰으며, 주택면적이 넓어지고 주택가격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거주층수가 높아질수록 아이들의 이동독립성과는 (-) 관계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주택에서 보이는 전망의 개방성이 높아질수록(밖에서 일

어나는 일들이 잘 보일수록) 이동독립성과 긍정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은, 고층아파트가 주된 주거형식으로 자리 잡은 한국의 상황에서 단지계획의 주동배치 방향 등에 대한 계획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Lam & Loo(2014)에서 다룬 홍콩의 교외주거단지는 한국의 신도시 아파트 단지와 매우 유사한데, 전반적으로 밀도가 높고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도시에서 대규모로 단지화된 아파트가 갖춘 차별화된 조건들은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자율적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부모의 태도, 근린의 분위기

아동의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역할과 태도는 이동독립성에 있어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부모의 자율적 이동과 활동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태도'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의 허용수준 및 실제 이동성, 이동범위와 일관되게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좋은 부모상'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여 부모의 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변수로서 '근린에 많은 아이들이 나와 있음', '함께 활동할 수 있는/활동을 독려하는 또래의 존재', '긍정적인 이웃의 영향' 역시 일관되게 유의미한 요인으로 보고된다.

〈표 2-14〉 아동의 이동독립성(IM)과 근린환경의 관계를 탐색한 주요 계량연구 결과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Bagheri & Zarghami (2022) 이란	12-14세	독립적 이동 범위를 볼록다각형 면적으로 산출 PPGIS사용 아동맵핑설문 활동장소유형: 집, 학교, 친구집, 상점, 빵집, 카페, 패스트푸드, 샌드위치 가게, 공원, 도서관, 스포츠 클럽, 녹지/광장, 놀이터, 아스팔트 놀이, 자전거, 스케이트, 전기 자동차 및 모임장소 질문	**주택의 물리적 특성 (PCH)** A. 주택유형(마당유무, 다층/아파트) B. 단지동수, 동별층수, 층별세대수 C. 주택면적 D. 마당면적 E. 현관접근(수평/계단/ELEV./램프) F. 주택연식 G. 주택에서 보이는 전망 (주변에서 일어나는 활동이 보이는가) **주택의 거주성 특성 (RCH)** H. 주택소유현황 I. 자녀의 방 있음 J. 자녀의 거주층 K. 주택가격 L. 단지내 거주 친척/친구 수 M. 실내놀이에 대한 흥미(방, 복도, 거실, 테라스 등) N. 실외놀이에 대한 흥미(옥상, 주차장, 공공마당 등) O. 가로와의 접점이 바람직한가? **주거지의 근린특성 인지 (PNCH)** P. 주택이 면한 도로(막다른vs통과) Q. 주택면한 도로너비 (골목, 중로, 대로, 고속도로) R. 집 앞 보도상태/질적 수준 S. 녹지공간 접근성과 질적 수준 T. 근린 U. 안전 V. 밀도	통계 기존자료 GIS 계량 A-F, V 부모설문응답 E, G, H-U	(+) D. 마당의 면적 F. 주택연식 G. 주택에서 보이는 전망 M. 실내놀이에 대한 흥미 L. 단지내 거주친구 수 U. 주변안전성 S. 녹지공간의 접근성과 질적 수준 T. 근린 (-) B. 층별 세대수↑(활동제약) C. 주택면적↑ E. 주거지 접근방식 I. 자녀의 방 있음 J. 거주 층수↑ K. 주택가격↑ V. 밀도↑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Broberg et al (2013a) 핀란드	10-12세	아동의 어포던스(자원)에 대한 독립적 접근 가능성	A. 어포던스 주변 주택밀도 B. 어포던스 주변 인구밀도 C. 어포던스 주변 용적률 D. 어포던스 주변 공원녹지 비율	GIS-생성 A-D	**어포던스에 대한 독립적 접근 가능성** A. 주변 주택밀도(+) B. 주변 인구밀도 (+) C. 주변 용적률 (-)
Broberg et al (2013b) 핀란드	10-12세	아동에게 의미있는 장소를 향한 독립적/능동적 이동성 측정 SoftGIS 통학경로표시 통학수단/동반 건강과웰빙 설문지 응답	**의미있는 장소주변 50m버퍼의 환경특성 대한 요인분석) 5개변수** A. 밀집된 건조환경 주거지역 인구, 호수밀도, 건폐율 B. 단독주택지 건물, 단독주택/다세대 비율 C. 교통 우위(노출) 도로비율, 교차로밀도, 토지이용 혼합, 녹지율 D. 고립된 장소 가장 가까운 여가시설/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 E. 대형건물/교통중심지 용적률, 버스정류장 개수	50m버퍼 내 GIS 생성 A-E	**어른없이 혼자 간 장소의 주변환경 특성** A. 밀집된 주거구조 (+) B. 단독주택지 (+) D. 고립된 장소 (+) : 대중교통과 스포츠시설에서 먼 거리에 있음을 의미 E. 대형건물/교통허브 (-)
Carver et al (2014) 영국	9-10세 n=1,121	학교로의 독립적/활동적 이동 부모응답	**물리적 환경** [근린특성] A. 도로비율(길이/면적) B. 간선도로비율 C. 800m버퍼 내 보행도달면적(PedShed) D. 가로연결성(교차로 밀도) E. 토지이용혼합 F. 근린유형(도시/시골) [통학경로] G. 통학로의 가로등 밀도 H. 통학로 중 간선도로 포함 I. 도시영역에 포함되는 도로비율 [학교특성] J. 보행/자전거 독려정책/주도 K. 보행/자전거 접근성지수 [환경인지] L. 커뮤니티 유대감 M. 동네에서 낮에 걷기/놀기좋음 N. 근린보행친화도 지수 O. 자녀 등하교시 교통위험 수준 P. 자녀 등하교시 범죄불안 수준 **사회적 환경** Q. 근린박탈지수 R. 같이 걸을 친구 있음	아동 집주소 기반 주변환경 GIS계량 A-I 기존 지수 활용 K, Q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L-P, R	**측정시점 1** **[남녀 공통]** D. 가로연결성 (-) M. 동네 낮시간활동 (+) N. 근린보행친화도 지수(+) O. 등하교시 교통위험(-) P. 등하교시 범죄불안(-) **[여학생]** B. 간선도로비율(-) **[남학생]** C. 800m내 보행도달(-) I. 도시영역 포함 통학로(-) L. 커뮤니티 유대감(+) R. 같이 걸을 친구(+) **측정시점 2 (종단효과)** **[여학생]** B. 간선도로비율(-) E. 토지이용혼합(+) M. 동네낮시간 활동 (+) **[남학생]** 근린환경요인 없음
Christian et al (2015) 호주	9-10세 -T1시점	전체 목적지로의 독립이동성 유형별 목적지를 향한 이동독립성 부모응답 1)학교, 2)친구/친척집, 3)공원/운동장/여가시설, 4)지역상점으로	**물리적 환경** A. 초등학교 개수 B. 중학교 존재 C. 학교운동장 개수 D. 공원 개수 E. 가장 가까운 공원거리(all) F. 가장 가까운 포켓공원 거리 G. 가장 가까운 소공원 거리 H. 가장 가까운 중규모공원 거리 I. 가장 가까운 대규모공원 거리 **포켓≤0.3ha, 0.3≤소공원≤0.5ha 0.5	GIS 생성 참여자 집 기준 1,600m버퍼내 요소측정 A-L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M-V	**[전반적 이동독립성]** T.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음 (-) V. 부모역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규범(-) **[등하교 이동독립성]** I. 가장 가까운 대규모 공원까지의 거리↓(+) T.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음 (-) **[공원/여가시설 이동독립성]**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의 독립이동허용 〉〉 3개 이상 목적지 독립 이동가능 "전반적 독립이동성 있음" 코딩	≤중규모공원≤1.5ha 1.5ha≤대규모 J. 가장가까운 공원 놀이터 유무 K. 일상생활 상점의 존재 L. 교통 노출 (간선도로 비율) **사회적 환경** M. 근린의 유지관리 부실 N. 사회적 무례함 O. 그래피티와 반달리즘 P. 가정 침입범죄 Q. 배회하는 청소년 R. 음주운전 S. 폭력범죄 T. 아이들이 다니기 안전하지X U. 낮은 집단효능감(서로 돌봄 X) V. 낮은 사회적 규범 (자율성 허락하는 부모에 대한 압력)		C. 학교운동장 개수 (+) G. 가장 가까운 소공원 거리↓(+) I.가장 가까운 대규모 공원까지의 거리↓(+) V. 부모역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규범 (-) **[지역상점 이동독립성]** T. 아이들이 다니기에 안전하지 않음 (-) V. 부모역할에 대한 낮은 사회적 규범 (-)
Kyttä et al (2012) 핀란드	10-12세 n=946	활동적 통학 독립이동성 하교/여가/큰길 횡단/밤 외출/대중 교통/자전거 중 허락되는 행동 아동설문응답 SoftGIS 사용	**물리적 환경** A. 녹지율(들판 숲 공원 수공간 비율) B. 주거밀도 (호수/면적ha) C. 15세 미만 인구밀도	집에서 500m 버퍼 기준으로 GIS 측정 A-C	**활동적 이동으로 등하교** A. 녹지율(들판 숲 공원 수공간 비율) (+) C. 15세 미만 인구밀도(+) **이동독립성 수준** B. 주거밀도 (-)
Lam & Loo (2014) 홍콩 도시 3곳, 신도시 포함 교외/농촌지역 3곳	6-12세 n=2,110	아동의 통학 이동 독립성 독립성있는/없는 이분적 변수 (홍콩 통행조사 데이터에서 추출)	**물리적 환경** A. 인구밀도 B. 학교밀집도 C. 학교까지의 거리 D. 동네 안전지표(교통사고 기록) E. 토지이용혼합 F. 가로연결성(네트워크 밀도) G. 근린유형 (도시, 교외신도시, 시골) **사회적 환경** H. 사회적 박탈지수 **가정환경요인_참고** 소득, 가족구성원, 맞벌이 가정(어머니 근무상태),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존재	통계자료 사용 A, B, D, G GIS 생성 C, E, F	**통학 이동독립성** C. 학교까지의 거리↑ (-) G. 근린유형 : 도시(-) 도시에 비해 교외는 1.72배, 도시에 비해 시골은 3.28배 독립적 이동을 할 가능성 높음 ** 교외와 시골에 홍콩은 고밀의 아파트 단지로 신도시 개발. 한국 신도시와 유사한 환경 **[참고사항]** 어머니 근무는 IM가능성(+) 외국인 가사도우미 있으면(-) 조부모 동거가족 (-)
Larsen et al (2015) 캐나다	6-12세	학교에 독립적으로 걸어가기	**물리적 환경** A. 학교까지의 거리 B. 인구밀도 C. 가로밀도 (km2당 가로길이) D. 도시구조(60년대 이전 격자형 vs 교외주거지 쿨데삭형) **조정된 변수** E. *도시구조와 상호작용된 연령 〉〉 60년대 주거지에서 아이들이 더 빨리 독립적으로 이동을 시작하며, 10세가 되는 독립이동이 가파르게 증가	주소기반 GIS 생성 A-D	**[통학 이동독립성]** A. 학교까지의 거리↑ (-) B. 인구밀도↑ (-) E. 도시구조와 상호작용된 연령 (60년대 주거지가 낮음) 1960년대 주거지에 사는 아이들이 더 빨리, 그리고 특정연령대에서 급격하게 이동독립성을 획득함
Mitra et al (2014) 캐나다	초등학교 5-6학년 n=469	얼마나 자주 혼자/친구와 밖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는가	**물리적 환경** A. 보도가 충분하지 않다 B. 길 건너기에 충분한 신호가 없다 C. 근린에서 걷기에 장벽이 존재한다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A-J	**독립적 이동성** H. 낯선사람에 대한 두려움(-) J. 동네가 안전하다고 생각(+) p(0.1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1:never- 4: always) 부모응답	D. 운전자들이 과속한다 E. 교차로간의 간격이 짧다 F. 걸어갈 수 있는 상점들이 많다 G. 아이들 걷기에 길에 매력이 부족 H. 아이가 낯선사람을 만날까 두렵다 I. 동네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 J. 안전한 동네에 산다고 생각한다		G. 가로의 매력 (+) I.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음
Qiu & Zhu (2021) 미국	초등학교 2-5학년 n=525	학교 외 목적지로의 독립이동에 대한 부모허락 예측 자율적 바깥놀이에 대한 부모허락 예측 부모설문응답	**물리적 환경** A. (단독)주택유형X마당유무 B. 집앞 전용차도/전면도로 유무 C. 근린에 학교/운동장/보행트랙/ 자전거 트랙/친구 친척집/ 아파트 공유공간/오픈스페이스 있음 D. 근린주변환경의 질적 수준 E. 보도의 존재와 상태 F. Walk Score G. Transit Score **사회적 환경** H. 사회적 유대감(연결된 느낌) I. 긍정적인 이웃의 영향 J. 낯선사람 범죄위험	부모설문 (NEWS-Y 변형과 추가) A-E, H-J Walkscore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수 사용 F-G	**독립적 이동에 대한 부모허락 가능성** C. 보행/자전거 트랙 있음 (p<0.1), 친구나 친척집 있음 D. 근린환경의 질적 수준 I. 긍정적인 또래의 영향 (p<0.1) J. 범죄위험
Riazi et al (2019) 캐나다	평균 10.2세 n=1,699	독립이동성 6개 행동 중 가능한 숫자로 이동성수준 산출 하교, 큰 길 횡단, 길에서 자전거 타기, 버스타기, 학교외 장소로 이동, 밤 외출 부모응답	**[아동인지 근린안전]** A. 교통불안 B. 길 잃을까봐 C. 괴롭힘 D. 낯선 사람 E. 혼자 다닐 만큼 충분히 자라지 않았음(스스로 확신X) F. 누군가 말을 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름 [부모인지 근린환경] G.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녀도 서로 지켜보고 있다 H. 아이를 자유롭게 놀게 하기에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염려된다 I.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 **[걷고, 자전거 타는 데 장벽요인]** J. 보도/자전거도로 없음 K. 가로등이 부족함 L. 집 주변 교통노출이 너무 많음 M. 위험한 교차로 하나 이상 N. 범죄위험 O. 괴롭힘이나 해를 당할 위험 **[지역차원]** P. 도시화수준 (도시, 교외, 시골) Q. 보행친화성 (400m, 1600m버퍼)	아동응답 불안요소 A-F 부모응답 인지된 환경 G-O GIS 생성 : Q	**[사회적-물리적 환경차원]** **여학생** B. 길 잃을 걱정(-) H. 동네 사람들의 시선(-) I.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 (-) M. 위험한 교차로 하나 이상(-) **남학생** I.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 (-) M. 위험한 교차로 하나 이상(-) N. 범죄위험(-) **[지역환경 차원]** **여학생** Q. 보행친화성 (400m, 1600m버퍼 모두) (+) **남학생** P. 도시화수준 : 교외환경(-)
Villanueva et al (2012) 호주	10-12세 n=977	독립이동성 활동 6종류 목적지 9종류 에 대한 응답결과 합산 독립이동성 점수 0-15점	**[객관적 계량환경 : 반경 800m]** A. 학교주변 근린의 보행친화성 B. 2에이커 미만 녹지개수 C. 2에이커 이상 녹지개수 D. 가장 가까운 녹지까지 거리 E. 작은 식료품점 개수 F. 쇼핑센터 개수 G. 패스트푸드점 개수 H. 종교시설 개수	GIS 생성 A-L 아동응답 부모응답 >> 요인분석	**남학생** D. 가장 가까운 녹지까지 거리↑(-) F. 쇼핑센터 개수↑(-) I. 실내체육시설 개수↑ (+) K. 근린서비스 (도서관, 우체국 등) 개수↑ (-) L. 소매점 개수↑(+) M. 안전하게 길 건널 수 있음(+) N. 동네가 우호적임(+)

주저자(년도) 국가	참여자 수·연령	종속변수 (측정방법)	독립변수 (물리적, 사회적 환경요인)	근린환경 측정방법	주요발견
			I. 실내 여가체육시설 개수 J. 공립 초등학교 개수 K. 근린서비스(도서관, 우체국) 개수 L. 소매점 개수 **[인지된 환경]** M. 안전하게 길 건널 수 있음 N. 동네가 친근하고 우호적임 O. 복잡한 도로변에 집이 위치함 P. 아이는 근린에서 안전하다고 느낌 Q. 아이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공원 에서 노는 것을 안전하다고 느낌 R. 아이는 가장 가까운 공원에 재미있는 할 것이 있다고 인지함 **[사회적 요인]** S. 가장 가까운 상점에 어른없이 갈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 있음 T. 근린 내에 내 또래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다고 생각함		O. 복잡한 도로변에 집이 위치함 (-) R. 아이의 인지_공원에서 재미있게 할 것 있음(+) **여학생** A. 학교주변 근린의 보행친화성↑ (+) O. 복잡한 도로변에 집이 위치함 (-) Q. 아이의 인지_공원이 안전함(+) 남학생의 IM이 목적지 밀도에 훨씬 더 많이 관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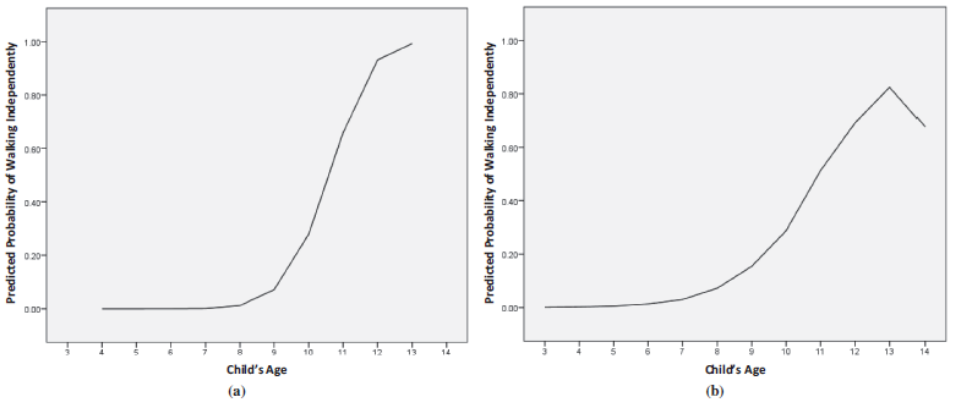
출처: 연구진 작성

2) 기타 자료들을 통해 밝혀진 추가적 정보

□ 도시화 수준(밀도)의 차이가 만드는 근원적 격차

Carver et al(2012)은 평일의 독립통학 및 주말의 독립이동을 테스트한 연구에서, 부모의 이동독립성 허용수준이 증가했을 때 도시의 남녀 학생과 농촌 지역의 남학생은 평일 독립적 통학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농촌 지역 여학생은 그렇지 않았음을 밝혔다. 또한 독립이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수준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주말에는 도시 남학생의 경우에만 실제 독립적 활동가능성이 높아짐을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의 이동독립성 허용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지라도, 아동의 실질적 독립이동은 성별의 차이, 주어진 환경의 밀도와 어메니티 분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Larsen et al(2015)에서는 캐나다의 전통근린(격자형 가로패턴)과 교외근린(쿨데삭 가로패턴)에서 아동의 이동독립성 획득의 추세선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교외 근린보다 1960년대 이전에 조성된 전통 격자형 주거지에서 아동의 이동독립성은 10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13세에는 연구참여자 거의 전원이 독립적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외 거주자들의 경우 독립적 이동의 증가세가 전통 주거지보다 완만하며,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독립성이 오히려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는 단순히 가로패턴의 차이로만 보기는 어려우며, 전통적 근린환경의 형태가 아이들의 지속적인 보행-자전거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와 어메니티를 일정 범위 내에 더 많이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출처: Larsen et al(2015), p.87, Fig.3.

[그림 2-12] 캐나다의 60년대 이전 전통적 근린(좌)과 교외 주거지(우)에서의 독립적 보행통학 추세선

□ 안전한 가로를 통한 동선 통합

신체활동 및 야외놀이가 매우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스웨덴 교외 주거지에서 수행된 질적 분석에서, 해당 대상지에 대한 묘사는 아이들의 자율적, 독립적 이동을 위해 필요한 공간구조의 이상적인 윤곽을 가늠할 수 있게 해준다. "동네 중앙으로 넓은 녹지대가 지나가고 있으며 여기에 연결된 공원, 초등학교, 유치원, 스포츠시설을 갖춘 중학교가 있다. 중앙지역은 차가 거의 다니지 않으며 관리되는 공원녹지, 도보와 자전거 도로, 10개의 놀이터로 구성된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를 구성한다. 또한 이 네트워크는 다른 동네 목적지들과도 잘 연결되어 있다."(Wales et al, 2021, p.186)

다시 말하면, 통행량이 적은 안전한 가로가 동네의 주요 생활기능을 담당하고, 이 가로를 중심으로 부모와 아이들을 위한 목적지들이 별개의 동선이 아닌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합될 수 있을 때 아이들의 독립적이고 안전한 이동과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아이들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해당 근린환경에는 앞서 계량연구에서 놀이활동 촉진요소로서 확인된 '낮은 교통량', '다양한 유형의 공원녹지 존재', '범죄부터의 안전' 등의 요소들이 모두 녹아들어 있을 뿐 아니라, '자연상태로 보존된 녹지대', '스스로 만들어낸 아지트와 놀잇감',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비밀 장소', '하교 후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모이는 장소', '동네에 누가 지나가는지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과 같은 추가적인 다양성들이 연결되어 있다. 풍부한 요소들로 이루어진 네트워크는 더 큰 통합적 환경의 일부로 기능하며 아이들이 성장해 나감에 따라 지속적인 영역의 확장과 지역 환경에 대한 탐색을 멈추지 않도록 독려할 수 있다.

□ 동네 규모와 경계, 목적지들까지의 적당한 거리, 가로연결성

Loebach & Gilliland(2016)은 소규모 샘플에 대한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이동독립성이 높은 아이들의 집 주변 및 동네 환경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립성이 높은 아이들의 거주환경이 갖는 공통점은 첫째, 동네의 크기가 크지만 지형 등으로 인한 경계부는 확실하였으며, 둘째, 집에서 가까운 곳에 여가목적지와 근린 상업시설이 분포해 있으나 거주 주택과 직접적으로 면해 있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목적지들로 가는 길이 안전한 보도로 연결되거나, 교통량이 적은 경로로 쉽게 걸어갈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섬처럼 고립된 주거지(주변에 자원이 거의 없이 주택만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주변에 또래가 많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거나 탐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수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동네에 같이 다닐 친구의 존재', '근린의 우호적 분위기', '운전자의 태도'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 역시, 근린환경의 물리적 자원과 원활한 이동 경로가 뒷받침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출처: Loebach & Gilliland(2016), p.585, Fig.4.

[그림 2-13] 이동독립성이 높은 아동과 낮은 아동의 집 근처 환경 비교 예시

서울에서 관찰 조사된 독립적 이동의 물리적 장벽 요인

① 교통량 많은 간선도로

경사지(행운-청림동), 평지(신정동)에서 나타난 놀이터 방문동선 궤적을 살펴보면, 폭 25m이상 도로를 넘어 놀이터를 단독 방문하는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총 4개 대상지에서의 조사결과 95명의 아이들의 일주일 동선 중 어른 없이 간선도로를 넘는 활동은 단 2회만 관찰된다.



② 지상철도로 인해 발생하는 수직이동장치 (굴다리, 육교, 엘리베이터 등)

이문동의 체육문화센터는 지상철 너머에 있다. 굴다리와 엘리베이터, 육교, 계단 등 다양한 수직 이동장치를 이용해야 하는 환경에서 아이를 혼자 센터에 보내기 어려운 부모들은 어린 동생을 안거나 유아차에 태우고 큰아이와 동행한다.



③ 좁고 어두운 골목 군집

일정한 폭의 가로망이 연속적으로 군집을 이루고 있는 경우 골목은 놀이활동을 위한 자원보다는 독립적 이동을 가로막는 심리적 장벽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비슷한 분위기의 집들이 늘어선 골목 속에서 아이들은 방향감각을 잃기 쉬우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조명이 어두운 좁은 골목에 공터나 어린이공원과 같은 오픈스페이스가 면해 있지 않은 환경이라면 미로같은 느낌은 더욱 강화된다. 골목 군집을 통과해야 학교에 갈 수 있는 경우 부모는 아이가 혼자 갈 수 있는 연령이 되어도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있는 나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닌다. CCTV도 믿지 않는다. 잘못되고 나서 확인한들 무슨 소용이 있나"
- 이문초교 3학년 남, 학부모

"골목에는 개똥이 많고 쓰레기 냄새가 난다고 아이들이 먼저 가지 않으려 한다."
- 이문초교 2학년 여, 학부모

"집들만 빽빽하게 늘어서 있고 길은 복잡하고 어디에서 손이 나와 아이를 데리고 가도 아무도 모를 것만 같은 곳이다."
- 이문초교 1학년 남, 학부모

내용 출처: 김연금 외(2018), pp.34-36 내용을 연구진이 요약하여 작성
도면 및 사진 출처: 김연금 외(2018), p.36(상), 35(중), 34(하)

제3절 아동 돌봄 정책 및 사업 동향

1. 중앙부처

가. 아동 돌봄 관련 기본계획

정부는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1-2025),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0-2024),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여성가족부, 2021-2025) 등을 통해 아동 돌봄 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계획의 주된 방향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 아동의 균형잡힌 발달과 성장 보장,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이다. 먼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아동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사업 강화, 다양한 돌봄 기관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 확대 및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는 저소득, 장애아,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아동의 균형 잡힌 발달과 관련해서는 놀이와 여가를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과제에 담고 있다.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근거 마련, 놀이 사업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놀이권을 보장하고, 아동친화도시를 확산하여 아동친화적인 놀이 및 여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주요한 놀이 장소로서 학교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인데, 영유아-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을 세부 과제로 제시하였다.

한편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정책 추진의 목표이자 실현 수단으로서 제시되는데, 시설과 서비스의 양 측면에서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강조된다. 지자체-학교 간 연계 협력 강화, 지역공동체 기반 일상 돌봄 지원, 가족 ·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 돌봄 관련 계획을 실현하는 단위로서 '지역사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촘촘한 맞춤형 돌봄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공간 단위로서 근린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접근 또는 아동의 행태와 돌봄을 통합하는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표 2-15〉 중앙정부 아동 돌봄 및 활동 관련 기본계획 과제별 세부 추진전략

구분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내용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1-2025) 관계부처 합동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 다양하고 유연한 돌봄서비스 확충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	• 수요자 중심 **온종일 돌봄** 지속 확충
			아동 돌봄 통합적 운영으로 효율성 제고	• 아동 돌봄 통합적 운영 기반 마련
		아동기본권의 보편적 보장	아동의 균형적 발달과 성장 보장	• **아동의 놀이권** 보장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 (2020-2024) 관계부처 합동)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	놀이와 학습이 조화로운 학교와 지역사회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 · 여가 환경 조성	• 아동 문화시설 등 이용 우대 · 할인 확대 •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 확산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 · 여가 지원	•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 영유아-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 · 여가 활동 지원 • 놀이여가 활동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연계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아동중심 공적 보호 · 돌봄 체계 구축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서비스 질 제고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개인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등 형태로 전환
		저소득 가구 등 취약아동 지원 강화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추진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재난 상황에 대응가능한 돌봄체계 마련	긴급돌봄지원체계 구축	• 재난 상황 대비 공공 돌봄 가이드라인 마련 • 지역 협력 기반 긴급 돌봄체계 운영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2021-2025) 여성가족부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	• 자녀돌봄 공간 확충(**초등 온종일 돌봄** 지역사회 인프라) • 초등학생 돌봄 수요를 고려한 지역사회 연계 · 협력 강화
			지역 공동체 기반 일상돌봄 지원	•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확산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가정돌봄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이용자 편의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등
			재난 · 재해 시 돌봄 공백 대응	• 지역 기반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 및 안전기준 강화 • 긴급상황에서 자녀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긴급 돌봄 지원(돌봄서비스, 급식 등)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가족 · 돌봄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기초자치단체 역할 제고 • 지역사회 시설, 서비스 등 돌봄친화적 개선 추진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정비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제도의 실효성 제고 • 지역 단위 가족친화 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0a; 2020b), 여성가족부(202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나. 교육부

1) 초등돌봄교실

학교 안에서의 돌봄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은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등 사회·고용 환경의 변화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4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법적 근거로 시행된 초등돌봄은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로 초등돌봄교실 확대 및 내실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돌봄서비스 활성화,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 강화를 핵심 과제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

2023년 4월 기준 초등돌봄교실은 6,330개 학교에서 운영 중이며, 약 30만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교육부 누리집, 2023). 초등돌봄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2019년 30.2%에서 2023년 49.5%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b, p.4). 2022년 기준 1~2학년의 83.1%가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돌봄 기관으로 초등돌봄교실(81.4%)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교육부, 2023b, p.4).

돌봄 서비스의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학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돌봄 수요 대비 공급 부족으로 인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중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가정을 대상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3학년 이상의 경우 학교 여건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제공하고 있다. 돌봄교실 운영 유형은 크게 아침돌봄, 오후돌봄, 방과후 돌봄, 저녁돌봄, 그리고 방학 중 돌봄으로 나눌 수 있다. 아침돌봄은 수업 전 돌봄을 의미하며, 학부모 수요 및 학교 요건에 따라 초등학교 전학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 후 돌봄은 크게 1~4학년 저학년 중심의 오후돌봄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 고학년 중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1개 이상 참여하면서 오후돌봄 교실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이 운영되고 있다. 오후돌봄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은 방과후부터 17시까지 운영되며,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19시까지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저녁 돌봄은 오후돌봄 교실 및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17시부터 2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방학 중 돌봄은 방학 중에 운영되는 학교돌봄을 의미하며, 운영시간은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을 바탕으로 조정되나 보통 9시에서 17시 사이이다.

〈표 2-16〉 초등돌봄교실 운영 유형 및 개요

구분	오후돌봄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저녁돌봄	방학 중 돌봄
운영 시간	방과후~17시 또는 19시 권장	방과후~17시	17시(또는 19시)~22시	학기 중 운영 시간과 동일
대상	1~2학년 중심 맞벌이·저소득·한부모·담임추천 대상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	오후돌봄교실 참여 대상자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학기 중 참여 학생 및 신규 참여 희망 학생
운영 장소	오후돌봄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	오후돌봄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	오후돌봄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	오후돌봄 전용교실 또는 겸용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학급 편성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 권장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 권장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 권장 (참여 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지역돌봄기관과의 연계 운영 방안 강구)	학급당 20명 내외로 편성 권장
프로그램	1개 이상 (매일 또는 주 5회 이내) 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	봉사·지원 인력을 활용, 방과후학교 활동 및 자율활동 관리	개인 및 단체활동, 자율활동으로 프로그램 구성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연계, 무료프로그램 활용

출처: 교육부(2022), p.9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2-17〉 초등돌봄교실 연도별 운영 현황

항목 \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3.3 기준)	2023 (4.30 기준)
돌봄 교실 수(실)	11,980	12,398	13,910	14,278	14,774	14,970	-	-
이용 인원(명)	245,303	261,287	290,358	256,213	283,818	292,068	300,535	
신청 인원(명)	254,529	276,029	309,828	277,513	300,711	305,218	315,208	315,698
대기 인원(명)	9,225	10,134	13,175	9,622	17,719	15,106	15,340	8,640

출처: 교육부(2023a), p.5, 초등돌봄교실 운영 및 이용 현황(`17~`22); 교육부 누리집(2023,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현황(`23년 4월 기준)을 바탕으로 재작성

돌봄교실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 및 인력 운용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대상에 우선순위를 두어 1~2학년 중심, 맞벌이·저소득층·한부모가정에 신청 제한을 두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2018~2022년 초등돌봄교실 확대 중기계획」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을 지속·확대해왔으나, 대기 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3년 3월 3일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자는 약 1만 5천명으로 이 중 97.9%가 초등학교 1~2학년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b, p.4). 돌봄대기의 45.1%인

약 7천명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반면, 세종은 대기자 0명으로 나타나 초등돌봄수요의 지역별 편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b, p.1).

2)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기존 운영하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개선·통합한 체제로 초등학교 입학 시기 전후 자녀를 둔 여성 경력 단절 현상, 방과후 사교육비 지출 부담 및 의존으로 인한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고 아동의 개별화된 교육과 돌봄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올해 1학기 2,963교 15.3만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였으며,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의 1학년(6,185교, 특수 178교 29.2만명)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2024년 10월 기준). 2026년 돌봄을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에게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에는 늘봄학교 대상이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에 있다(교육부, 2024a).

〈표 2-18〉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과 늘봄학교의 차이점

구분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	▶	늘봄학교
이용대상	방과후 참여율 50.3% 돌봄 참여율 11.5% *'23년 기준, (초1) 방과후 70.8% 돌봄 34.5% (초2) 방과후 66.1% 돌봄 25.9%		**희망하는 초등학생 100%** *('24년) 초1학년 100% ('25년) 초1~2학년 100% ('26년) 초1~6학년 100%
이용시간	오후 1~5시까지 중심 *돌봄은 수요에 따라 오후 7시까지		정규수업 전 **아침**,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 까지 (최장 오후8시)**
비용	프로로그램 비용 학생·학부모 부담 *단, 저소득층 등은 무료수강권 제공		프로그램 비용 **무료** *연중 매일 2시간이내(2개 프로그램) ('24년) 초1 ('25년~) 초1~2
프로그램	학교 인근의 고착화된 공급처 위주		전문기관, 대학, 기업 등 우수공급처 확대 *온라인 프로그램 공급플랫폼, 「늘봄허브」 구축·운영('25년~)
운영공간	학교 내 돌봄교실(돌봄) 일반학급 등(방과후)		학교 **안** 다양한 공간 (돌봄교실, 특별실, 일반교실 등) + 학교 **밖** 지역 교육 공간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운영방식	교사의 행정업무 부담		교사의 **늘봄학교 행정부담 해소** *학교에 늘봄학교 전단조직인 「늘봄지원실」 설치·운영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 구축

출처: 교육부(2024a), p.6.

2024년 2월 교육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적응을 위한 지원 및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사회·정서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4년-2025년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학년들에게는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돌봄을 제공될 예정이다. 2026년부터는 체육, 문화·예술, AI·디지털, 사회·정서, 기초학습, 진로체험 등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육 자원 연계를 통해 초등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초등 방과후·늘봄학교는 출근시간이 빠른 학부모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전 7시부터 진행되는 아침늘봄과 방과 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는 오후늘봄, 그리고 오후늘봄 이후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저녁늘봄으로 나눌 수 있다. 기존 초등 방과후·돌봄의 경우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반해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전 아침 돌봄과 정규수업 후 희망시간 최대 오후 8시까지 돌봄을 공급한다는 특징이 있다. 연계형늘봄은 늘봄(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늘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학기 중 늘봄교실 참여 학생 또는 신규 참여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방학 중 늘봄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 전체 초등학교 6,185개교 및 특수학교 178개교에 늘봄학교 도입
-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초등학교 1학년 약 28만 명 전원 참여 가능

① 늘봄학교에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의 초1 전원이 늘봄학교에 참여한다.

각 학교별로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 결과, 전국의 초1 학생 34.8만 명 중 28만 명(80.0%)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였다. 각 학교별로 필요한 프로그램 및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하였고 희망자 전원이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초1 돌봄 대기는 완전히 해소된다.

*1학기: (3월) 12.8만 명 → (6월) 15.3만 명 → 2학기: (8월) 28.0만 명(초등 278,286명, 특수 1,297명)

② 각 학교에 전담 인력, 공간, 프로그램을 충분히 지원하였다.

(중략) 초1 교실을 학생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으로 개선하고, 프로그램 운영 중 교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교사연구실도 구축 중이다. 8월 9일(금) 기준 교실 6,485실 환경 개선 및 교사연구실 4,453실 구축이 완료되었고, 교육청-지자체 협력 등을 통해 학교 밖 공간도 확보하였다.

※ (서울) 기존의 '꿈담교실' 사업을 통해 학교 공간 전체 개선과 연계한 늘봄 공간 마련
(경기) '공유학교'를 통해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는 거점형 늘봄 운영 (중략)

③ 장애학생의 늘봄학교 참여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2학기부터 특수학교에서도 본격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된다. 장애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예·체능 활동, 감각놀이, 요리, VR 활용 체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 유형과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늘봄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중략)

④ 2025년 늘봄학교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해 늘봄지원실장 배치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별 늘봄학교 전담 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을 2025년부터 지방공무원을 순증하여 배치한다. (중략)

출처: 교육부(2024d), 8월 14일 보도자료.

2025년에는 2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2026년에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늘봄학교는 운영공간 및 운영 인력 확보 등과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늘봄학교의 운영 공간은 기존 방과후·돌봄 교실과 특별실 등을 늘봄교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학급을 활용하여 운영하였던 방과후·돌봄에 추가적으로 일반교실과 특별실을 활용하여 공간을 확충하고 모듈러 교실을 포함한 늘봄교실 신설을 통해 공간을 확충하여 실행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학교 내 공간뿐만 아니라 학교 밖 지역 내 활용 가능한 거점형 늘봄센터, 지역 돌봄기관 등 다양한 돌봄주체와 도서관, 공공기관, 대학 등 지역의 교육 공간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 및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부(2024a)에서 제시한 지역연계 운영 사례는 ① 지역기관 연계형, ② 마을연계형, ③ 대학, 기업 연계형, ④ 거점늘봄센터형, ⑤ 교육공동체 협력을 통한 운영, ⑥ 학교 중심형 등이 있다.

‘지역기관 연계형’은 학교와 지역 내 돌봄기관이 연계하여 프로그램 및 이용 시설과 장소를 연계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공동 운영 및 관리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 연계형’은 학교가 지역주민, 학부모, 마을공동체, 지자체 등 지역 내 활용가능한 돌봄 인력 및 공동체와 협력하여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 기업 연계형’은 지역 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늘봄학교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거점늘봄센터형’은 인접한 학교들 사이에 거점센터를 구축하여 지역 내 가용공간을 활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공동체 협력’은 대학, 기업과 마찬가지로 학교밖 지역사회의 다양한 우수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늘봄학교를 지원하는 방안이며, ‘학교 중심형’은 학교가 중심이 되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즉, 늘봄학교는 기존 학교 내에서만 이루어졌던 방과후·돌봄에서 나아가 학교 안팎의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돌봄 연계망을 구축하고 교육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시에 부족한 늘봄학교 인력과 공간을 지역 내 자원에서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교육부, 2024a).

나.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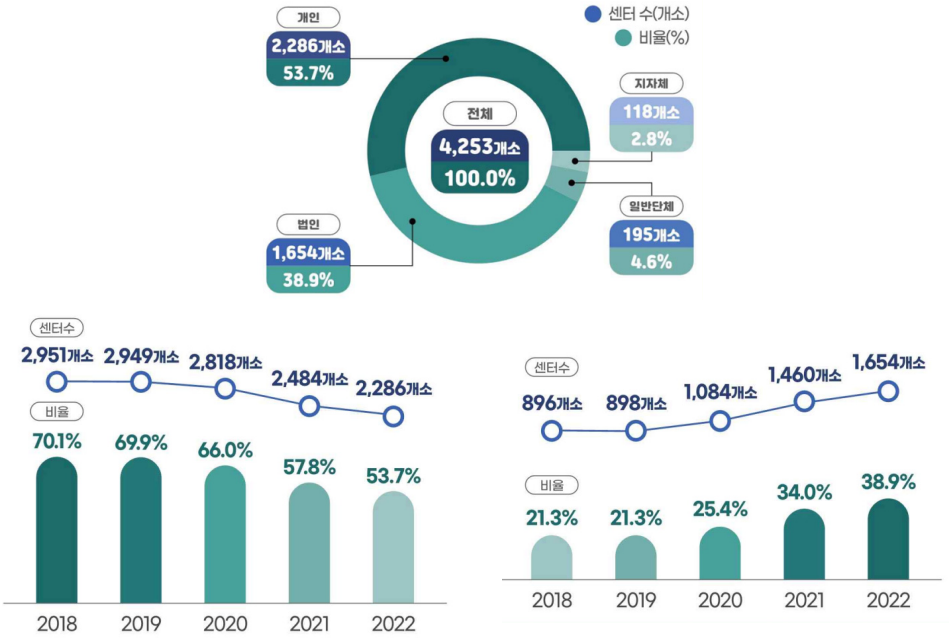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호·교육, 건강한 놀이 및 오락을 제공한다. 특히 단순히 아동을 위한 온종일 돌봄 서비스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980년대 민간에서 시작한 ‘공부방’을 시초로 2004년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을 아동복지시설로 법제화하였다. 사업의 주요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제52

조 제1항 제8호, 제59조 제1항 제1호이다. 2005년 이후 지역아동센터는 양적으로 확대·운영되었으며, 2009년 지역아동센터 평가 및 컨설팅·교육 실시 등 지역아동센터 평가를 통해 질적 향상을 이뤘다. 2013년 이후 꾸준히 지역 내 방과후 돌봄 연계 체계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c).

2020년 지역아동센터 공공성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기존의 개인 시설로 운영되었던 지역아동센터 시설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비영리법인 운영 시설로 지원, 회계 투명성 및 운영 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 주체별로 구분해보면,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2,286개소(53.7%), 법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1,654개소(38.6%), 일반단체가 195개소(4.6%), 지자체 운영이 118개소(2.8%)로 나타났다. 사회적협동조합수는 사업을 시범사업을 시작한 2020년 이후 법인 운영센터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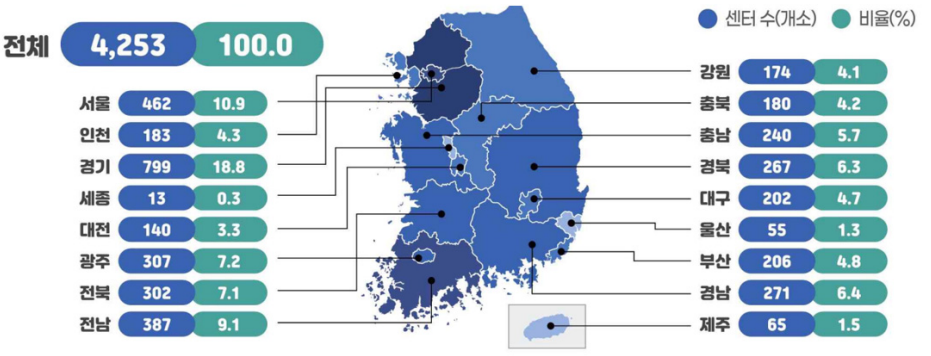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그림 2-14] 운영주체별 지역아동센터 현황(상단) 및 연도별 개인(좌하단)·법인(우하단) 운영 현황

2022년 12월 말 기준 신고·운영 중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 총 4,253개소이다. 시도별 지역아동센터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799개소(18.8%)로 가장 많고, 서울시(432개소, 10.9%), 전남(387개소, 9.1%)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수는 2022년 12월 말 기준 105,210명으로 대

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등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곳(3,219개소, 80.4%)이 많았다. 양부모 가정의 비율이 68.8%로 가장 많았으며, 양부모 가정에서 맞벌이 아동은 52.6%로 나타났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추이 현황과 관련한 특징으로는 다문화가정 아동의 꾸준한 증가를 들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 다문화가정의 아동수는 24,088명으로 베트남(54.1%), 필리핀(13.7%), 중국(조선족)(9.4%)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23b).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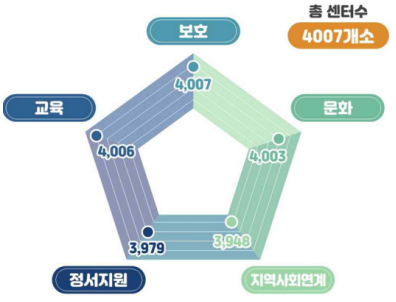
[그림 2-15] 시도별 지역아동센터 현황(`22년 12월 말 기준)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시간은 지역 및 센터마다 차이를 보이나 주 5일 이상 평균 9.6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오전 10시에 시작하여(2,924개소, 73.0%) 19시에 문을 닫는 센터(2,335개소, 58.3%)가 2,155개소(53.8%)로 가장 많았다. 토요일 및 공휴일 및 야간보호 운영 또한 지역 및 센터마다 차이를 보이며, 2022년 말 기준 토요일 운영센터는 738개소(18.4%), 공휴일 운영센터는 11개소(0.3%)로 운영률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매주 또는 격주 토요일 운영센터는 738개소로 이 중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센터는 713개소(96.6%)로 나타났다. 20시간 이후 야간 보호를 운영하는 센터는 811개소(20.2%)이다(보건복지부, 2023b).

지역아동센터의 중점프로그램은 크게 ① 보호, ② 교육, ③ 정서적 지원, ④ 문화서비스제공, ⑤ 지역사회연계로 나눌 수 있다. 기본적으로 방과 후 또는 돌봄 공백동안 아동 권리를 보장·보호하고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을 예방한다. 또한 학습 능력 제고 및 일상생활 지도를 지원하며, 그 외 아동의 심리, 정서, 신체발달 지원을 강화하며, 위기가정의 정서 결핍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 문화체험활동 및 공연 관람을 지원 및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문제 예방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발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학기 및 방학 중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센터의

99.8%인 3,997개소가 학기 중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1개의 개소를 제외한 모든 센터가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방학 중 급식은 전체의 99.5%인 3,984개소가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한 센터당 이용료를 수납하는 평균 이용 아동수는 약 5.7명으로 1인당 월평균 이용료는 50,417원으로 나타났다. 센터 이용료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따라 프로그램비로 사용된다(보건복지부, 2023b).



구분	프로그램
보호	일상생활관리, 위생건강관리, 급식지도, 생활안전지도, 안전귀가지도, 5대안전의무교육
교육	숙제지도, 교과학습지도, 예체능활동, 적성교육, 인성·사회성교육
문화	자치회의 및 동아리활동, 관람·견학, 캠프·여행, 공연, 행사(문화, 체육)
정서지원	연고자상담, 아동상담, 보호자 교육
지역사회연계	행사·모임, 기관홍보, 인적연계, 기관연계

출처: 보건복지부(2023b), 2022년 12월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Ⅰ. 센터현황. & p.31

[그림 2-16] 지역아동센터의 중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지 인근에서 방과후 돌봄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를 목적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 공간 및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의 유연한 돌봄체계를 지향한다. 2017년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공모사업으로 전국 10개 지역(울산 북구, 경기 과천시, 충북 청주시, 충북 단양군, 충남 보령시, 충남 서천군, 전북 익산시, 경남 창군, 경남 함양군)에 '다함께 돌봄사업' 10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하였고,[22] 2023년 10월 기준 전국 985개소 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23]

다함께돌봄센터의 주요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이다. 보건복지부(2023d)의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의 입지조건을 살펴보면, 다함께돌봄 센터 설치 시 지역 내 공적 돌봄서비스 현황 및 각 지원사업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입지하여야하며, 지역내 아동의 학교, 주거지 등 도보로 이동 가능한 동선을 고려하고, 도보 이동이 어려

22) 서한기(2017), "온마을이 아이 돌본다"...전국 10곳서 '다함께 돌봄'사업,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7060400017 (검색일: 2023.10.10.)
23)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2023b), 다함께돌봄센터 센터현황, https://dadol.or.kr/board/center (검색일: 2023.10.14.)

울 경우 차량배치 등 등·하원 방안 마련 등 지역 내 초등돌봄의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우선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모든 초등학생이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다. 센터 및 지역여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며, ① 만 6세이나 입학 전 아동인 경우, ②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 아동인 경우 이용대상 포함가능하다.[24]

2023년 기준 기본 운영시간은 주 5일, 하루 8시간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20시까지며, 단기방학을 포함한 방학중에는 9시부터 18시까지이다. 센터는 3월과 9월 매 학기 시작 전후로 돌봄 필요시간 등 수요 파악을 통해 19시 이후 수요가 없을 경우 지자체 보고 후 센터 운영시간을 19시까지로 조정할 수 있다.

다함께 돌봄센터에는 종일돌봄과 시간제돌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정기돌봄과 학교 휴업 및 학부모의 긴급 수요로 인한 비정기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 급식 및 간식 제공, 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연계·제공, 돌봄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25] 센터 이용 금액은 약 월 10만 원 자부담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학교돌봄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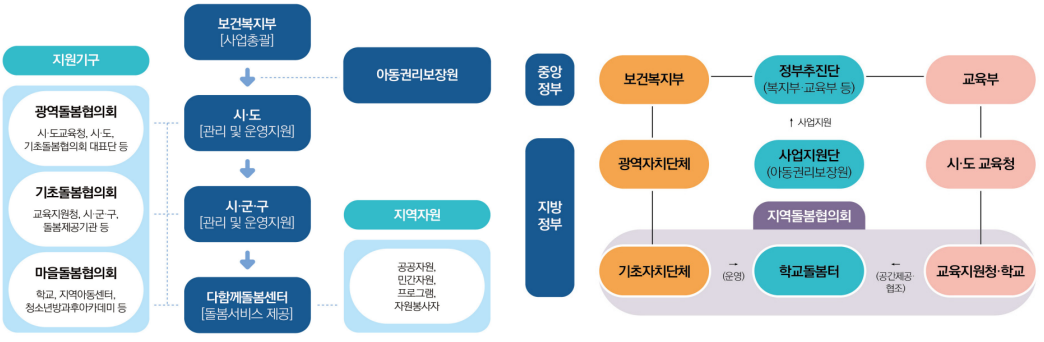
학교돌봄터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한 유형으로 초등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 시설을 의미하나,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설치·운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e).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적 근거 역시 다함께돌봄센터의 근거법인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따르며, 2023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었다. 명칭은 'OO초 학교돌봄터'로 표기된다.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 공급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가 초등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직접 운영 또는 공공·민간 위탁운영을 통한 보완재로 등장하였으며,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공적 돌봄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한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3e).

학교돌봄터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6~12세 미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의 기간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돌봄과 비정기적인 일시돌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14시부터 20시, 단기방학을 포함한 방학 중에는 9시에서 18시로 다함께돌봄센터와 같은 운영시간으로 운

24)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2023a),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안내, https://dadol.or.kr/center/center_info (검색일: 2023. 10.14.)
25)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2023a),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안내, https://dadol.or.kr/center/center_info (검색일: 2023. 10.14.)

영되고 있다. 저학년과 고학년별, 놀이, 돌봄, 학습 등 내용별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저학년의 경우 자유놀이, 생활교육, 안전교육 등 학습지도와 놀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돌봄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영방식 운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공간제공과 협조를 하는 방식으로 되어있으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다(「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2항). 2022년 11월말 기준 누적 78실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교내 유휴공간 중 전용공간을 따로 지정하여 학교돌봄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수행체계〉 〈학교돌봄터 사업 수행체계〉

출처: 대한민국정부(2023), p.253.

[그림 2-17] 다함께돌봄센터(좌)와 학교돌봄터(우)의 사업 수행체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부처 아동돌봄서비스 정책의 주된 방향은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의 양적 확대에 있으며, 그 공간적 범위는 학교를 중심으로 도보 가능한 생활권으로서의 근린이다. 교육부는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모든 초등학생들과 그들의 학부모들에게 아침, 방과후, 저녁, 주말 등 돌봄 공백 해소에 노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학교를 거점으로 근린 단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다. 현재 '늘봄학교'의 경우 1학년을 대상으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이 그 외 학년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있으며, '26년 전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대한 인적·공간적 대안이 미비한 상태이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와의 근린 단위 아동돌봄체계로의 연계는 지자체마다 운영에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표 2-19〉 중앙부처 아동 돌봄서비스 정책 비교

구분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부처		교육부		보건복지부	
주요법령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고시」	「초·중등교육 과정총론 교육부고시」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아동복지법」
지원대상		초등학생	초등학생 (1~4학년 중심)	18세미만	6세~12세 미만 (초등학생)
시행년도		2024년 ('25년 전면 도입 예정)	2004년	2004년	2017년
운영주체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학교장 총괄	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추진체계		단위학교	단위학교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2,741개소	6,330개소 ('23년)	4,311개소 ('22년)	761개소('22년)
이용현황		12.8만명('24.3)	31.5만명('23년)	12.4만명('22년)	1.9만명('22년)
지원내용		늘봄교실 지원, 급·간식 지원 등	돌봄·방과후교실 지원	보호, 교육, 문화, 정서지원, 지역사회 연계, 급·간식 지원 등	방과후돌봄, 프로그램 지원, 급·간식 지원 등
지원형태		무상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소득별 이용료 10만원 이내 부담)	이용료 자부담 (프로그램 참여 등 월 10만원 이내, 간식비는 실비 별도 부담)
운영시간	학기	(오전) 7시부터 (오후) 방과후 ~20시	방과후~19시	보통 10시~19시 (필수 운영시간 14시-20시)	표준 운영시간 14시~20시
	방학	여건에 따라 자율	여건에 따라 자율	필수 운영시간 12~17시	표준 운영시간 09~18시

출처: 교육부(2024a), p.88; 이희현(2019), pp.18-25 및 본 연구의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재구성

2. 지방자치단체

가. 아동 돌봄 관련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돌봄 기본계획은 그간 돌봄정책의 문제점이었던 돌봄시설 간 이용학생의 중복문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지역 수요에 비례하게 설치되지 않은 지역 돌봄기관의 불균등한 분포, 돌봄기관 간의 분절적 운영으로 인한 공급 조정 및 협의 어려움(이혜숙·이영주, 2018) 등의 정책 한계점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본계획의 큰 틀 안에서 수립되지만,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지역 맞춤형 돌봄 모델 개발, 틈새 돌봄 강화, 지역네트워크 구축의 구체적 전략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있다.

〈표 2-20〉 지자체별 아동 돌봄 관련 기본계획 과제별 세부 추진전략

구분	핵심과제	추진전략
서울시 (2019) 온마을 아이돌봄 체계 구축 기본계획	아이돌봄 공적책임 초등범위로 확대	• 초등생 공적돌봄 인프라 지속 확충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프로젝트형 돌봄콘텐츠 개발 • 아동 · 부모 ·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참여형 돌봄체계 구축
	수요별 맞춤지원을 통한 고립육아 해소	• 촘촘한 수요자 맞춤 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충 • 영유아 돌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고립육아 해소 • 시간연장 및 24시간 영유아 보육서비스 내실화
	아이돌봄 연계·협력 전달체계 개선	•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속 및 상생· 협력방안 도출 • 아이돌봄 정보 통합 제공 및 온라인 소통체계 구축 • 마을 아이돌봄 기관·단체 간 협업체계 기반 강화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23~'26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공적돌봄 인프라 확충	•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돌봄터, 아이돌봄사업 지원 • 설치 운영비, 운영주체 양성 등 지원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	• 돌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 돌봄환경 개선 지원(돌봄인력 확충,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 돌봄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및 다양화(아동 놀이프로그램 개발, 놀권리 증진 교육사업, 아동심리상담 등)
	수요자 중심 돌봄체계 구축	• 수요자 욕구 기반 돌봄시설 운영(시간연장 돌봄시설 확대,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지정 거점돌봄시설 등) • 아동 안심이동 지원(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안심픽업 등) • 아동 건강발달 지원(돌봄시설 급간식 지원체계 구축)
	아동돌봄 지역 네트워크 구축	• 시군 거점시설 확대(경기도 아동돌봄센터 확대) • 돌봄시설 광역 지원 기능 강화(아이돌봄 광역거점기관 운영 등) • 돌봄시설 정보접근성 강화(아동돌봄플랫폼 구축)
2023~2026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기본계획	맞춤형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돌봄기관 확충(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 아동특성 맞춤형 돌봄 및 마을돌봄 활성화
	촘촘한 안심돌봄 환경 구축	• 아동 맞춤돌봄 지원 확대(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아동돌봄 안전보호 체계 지원(위험감지체계 마련)
	아동돌봄 질적 수준 제고	• 아동돌봄시설 환경개선 지원(안심돌봄환경 조성, 아동돌봄 이동서비스 운영) • 아동돌봄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 아동돌봄기관 공간 및 프로그램 다양화 지원(아동돌봄기관 공간 다각화, 지역사회 돌봄, 놀이체험공간 조성 지원)
	아동돌봄 전달체계 강화 및종사자 처우개선	• 아동돌봄 관련 개도 개선 및 플랫폼 구축(광역돌봄협의체) • 아동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확대(행정업무 간소화 및 지원 등)
2024-2026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돌봄 인프라 확충으로 든든한 돌봄	•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확충으로 돌봄 체감도 향상 • 지역아동센터 법인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으로 공공성 확보 • 전달 체계 강화로 공적 아동 돌봄 서비스 효과 극대화
	맞춤형 돌봄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	•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등 강화 • 긴급돌봄, 야간돌봄, 주말돌봄 활성화로 틈새 돌봄 지원 • 환아, 장애 등 아동 유형에 따른 특화 돌봄 실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탄탄한 돌봄	• 온종일 아동돌봄 협의회 운영 활성화 • 시 ↔ 교육청 돌봄계획 공유로 장기적 돌봄 수요 파악 • 민간 협력사업 개발로 온마을 돌봄 체계 정착
	돌봄 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돌봄	• 지도점검, 환경개선, 종사자 교육 등으로 돌봄 환경 개선 •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온종일 돌봄 정책 발굴 · 홍보로 똑똑한 돌봄	• 아동, 부모, 마을이 함께 만드는 정책 발굴 • 시민체감형 홍보 콘텐츠 제작 · 홍보

출처: 경기도여성가족재단(2022), 서울특별시(2019), 울산광역시(2023), 인천광역시(2023)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나. 주요 돌봄 모델

1) 학교 중심 돌봄 모델

□ (경상남도교육청)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 구도심 거점형 돌봄 모델

경상남도교육청은 2021년 전국 최초로 교육청이 총괄 운영하는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을 설립하였다. '늘봄'은 늘 따뜻하게 아이들을 돌보겠다는 의미로서, 거점 학교를 중심으로 인근 여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거점형 돌봄 모델이다. 늘봄은 학생 수가 줄어 여유가 생긴 구도심의 학교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공간설계 시 정책 수용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아이들이 학교 내 다양한 시설과 공간에서 쉬고 놀고 배우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의 일반 학교 돌봄과는 달리, 늘봄은 돌봄 대상을 1~4학년으로 확대하여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무료 간식 및 급식(석식)을 제공한다. 돌봄교실의 단체활동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제공되며,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프로그램당 2~4만 원선)으로 운영된다. 또한 안전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도보 이동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통학차량 운행, 입출입 알림 서비스 운영,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하원 시 원활한 학생 인계를 위한 자원봉사자 배치, 안전지킴이 근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26]

늘봄은 2021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서, 2023년 시범 도입된 교육부 늘봄학교의 모태이다. 현재 경상남도 내 3개 늘봄이 설립 · 운영 중인데, 1호 및 2호는 창원시에 위치한 늘봄 명서(2021년 3월 설립)와 늘봄 상남(2022년 9월 설립)이며 3호는 김해시에 위치한 늘봄 김해(2023년 9월 설립)이다. 각 센터별 시설 모습과 운영 현황은 다음 그림 및 표와 같다.[27]



출처: 경상남도교육청(2023,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리플렛)

[그림 2-18] 늘봄 명서 및 늘봄 상남의 시설 모습

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1), 늘 따뜻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입니다, 2021년 12월 27일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417 (검색일: 2024.3.12.)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문단 작성

27) 김명일(2023),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김해' 맞춤형 복지 제공, 2023년 8월 30일 기사.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390 (검색일: 2024.3.12.)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문단 작성

〈표 2-21〉 경남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의 운영 현황(2023년 10월 기준)

구분	늘봄 명서	늘봄 상남	늘봄 김해
이용대상	명서초(거점 학교) 및 인근 10개 학교의 초등 1~4학년 학생	상남초(거점 학교) 및 인근 10개 학교의 초등 1~4학년 학생	삼문초(거점 학교) 및 인근 10개 학교의 초등 1~4학년 학생
운영기관	창원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창원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시간	(평일) 방과후~20:00 (방학중) 08:00~20:00 (토요일) 08:00~13:00 ※ 수시 · 틈새 돌봄 운영	(평일) 방과후~20:00 (방학중) 08:00~20:00 (토요일) 08:00~13:00 ※ 수시 · 틈새 돌봄 운영	(평일) 방과후~20:00 (방학중) 08:00~20:00 (토요일) 08:00~13:00 ※ 수시 · 틈새 돌봄 운영
지원내용	돌봄교실 내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급 · 간식 무상,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돌봄교실 내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급 · 간식 무상,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돌봄교실 내 단체활동 프로그램 및 급 · 간식 무상,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
시설현황	돌봄교실 6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실 8실, 놀이공간 4실, 책놀이터 1실 등	돌봄교실 5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실 8실, 놀이공간 2실 등	돌봄교실 5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실 8실, 놀이공간 1실 등
인력현황	센터장(겸직)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사무행정원 1명, 돌봄전담사 6명, 청소원 1명, 자원봉사자 등	센터장(겸직)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사무행정원 1명, 돌봄전담사 5명, 청소원 1명, 자원봉사자 등	센터장(겸직)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사무행정원 1명, 돌봄전담사 5명, 청소원 1명, 자원봉사자 등

출처: 경상남도교육청(2023), 경상남도교육청(2024), 김명일(2023)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2) 지역사회 중심 돌봄 모델

□ (서울특별시) 우리동네키움센터 : 일반형 / 융합형 / 거점형

서울시는 '우리동네키움센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초등돌봄체계(서울시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자치구 온마을아이돌봄협의회-마을돌봄협의회 전달체계 활성화)를 구축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p.30).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기능과 특성에 따라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으로 세분화된다. '일반형'은 지역의 모든 초등연령 아동에게 생활근거리에서 안전하게 정기·일시·긴급 돌봄을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며, '융합형'은 저녁·주말 돌봄을 보다 강화하고 마을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지원한다. 한편 '거점형'은 지역사회 초등돌봄시설의 공간·인적·물적 자원의 틈새를 보완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p.26).

〈표 2-22〉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별 설치·운영 개요

구분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설치주체	지자체장(구립)	지자체장(구립)	지자체장(시립)
규모	80㎡ 이상(小규모)	210㎡ 이상(中규모)	1,000㎡ 이상(大규모)
정의	초등학생 누구나 집 또는 학교와 도보 10분 거리 이내 생활 근거리에서 안전한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소규모 센터	일반형에 준하는 안전한 방과후 돌봄 제공으로 저녁돌봄(급식제공), 주말돌봄이 강화되고, 마을단위 돌봄 네트워크를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규모 센터	지역사회 초등돌봄시설(우리동네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간·인적·물적 자원의 틈새를 보완하여 아동에게 쉼과 놀이가 있는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통합 돌봄 플랫폼 기능의 대규모 센터
주요특성	• 집·학교 인근 도보 10분 거리 설치	• 저녁(석식),주말(토) 돌봄 제공 • 마을단위 돌봄 네트워크 운영 • 돌봄 사각지대 발굴	• 지역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공간 및 마을돌봄자원 지원 • 돌봄통합지원(돌봄정보안내, 네트워크 지원)
돌봄형태	• 정기돌봄 • 일시돌봄(틈새·긴급)	• 정기돌봄 • 일시돌봄(틈새·긴급)* * 아침, 저녁, 주말(토)돌봄 포함	• 일시돌봄(틈새·긴급) • 연계돌봄*(권역 마을돌봄기관 대상) * 돌봄공간, 콘텐츠, 자원 등 이용
운영시간	(학기중, 월~금) 13~20시 (방학중, 월~금) 09~18시	(학기 중, 월~금) 13~20시 (방학 중, 월~금) 08~20시 ※ 토요일 4시간 이상 필수 운영	(학기 중, 월~금) 13~20시 (방학 중, 월~금) 08~20시 ※ 토요일 10-18시
돌봄 콘텐츠	• 아동중심 '놀이'와 '쉼'지원 • PBL(Project-Based Learning) 자율운영		• 문화·예술·체육 활동 콘텐츠 지원 • 놀이중심 메이커스 기반 활동 지원 • PBL 기반 거점별 특화지원
서비스 대상	만 6~12세, 초등학생 누구나		권역 내 돌봄기관 (키움센터·지역아동센터 등) 등록아동 우선 이용, 지역 주민
이용료 (간식비 포함)	• 정기돌봄: 월 5만원 이내 • 일시돌봄: 일 2,500원 이내 ※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		• 일시돌봄: 일 2,500원 이내 • 연계돌봄: 무료
급식	무료(방학중) ※ 석식제공 필요시 융합형 연계	무료 ※ 조리실 직접 운영	• 일시돌봄: 수익자 부담(방학중 무료) • 연계돌봄: 급식 미제공
종사자 배치	• (19인 이하) 2명 • (20인 이상) 3명	• (29인 이하) 4명(조리사 포함) • (30인 이상) 4~5명(상 동) ※ 센터장은 마을돌봄조정관 역할 수행	• 시설규모에 따라 12명 내외

출처: 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2023, pp.40-41)을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우리아이키움센터는 충분한 인프라 확충(돌봄수요와 접근성을 고려한 설치계획), 차별없는 돌봄 지원(모든 아동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체험형 프로젝트 제공(거점형 문화·예술교육 체험중심 프로그램)을 운영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공성, 보편성, 접근용이성, 유연성의 4가지 운영원리와 아동최우선 원칙(5C - 아동주도, 창의성, 자신감, 협력, 지역사회) 및 지역수요기반 원칙(공적자원+마을 자원의 효율적 활용·연계)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pp.32-35). 특히 우리아이키움센터는 내용 측면에서 아동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주도하

는 '프로젝트 기반 배움(PBL, Project Based Learning)' 방식을 적용하고, 공간 측면에서 방과 후 안전한 돌봄을 위한 실내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 활동을 위한 외부공간 연계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서울특별시·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pp.35-36, 44).

□ (세종특별자치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마을교육프로그램

세종특별자치시는 유치원·초등·중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 2019년 1월 세종시청 교육지원과 소속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였다.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청과 교육청이 협력한 연계 허브기관으로서 세종시청과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및 학교와 연계·협력하며, 주요업무로서 교육사업 분석·평가·연구, 학교와 지역 교육인프라 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아동·청소년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지원, 지역 교육자원 발굴 및 역량 강화 교육, 지역 교육네트워크 구성·운영·홍보 등을 수행하고 있다(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 2024b).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마을교육프로그램 중 초등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마을학교'와 '작은도서관마을방과후', 그리고 시청에서 운영하는 '복컴마을방과후'가 있다. 작은도서관마을방과후(온마을늘봄터)와 복컴마을방과후 사업은 대체로 초등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또는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는 세종시민이 지역의 전문가로서 학교의 교과수업, 체험학습, 자유학기제 수업 등에 교사와 함께 협력하는 '세종마을교사', 학부모 및 시민들이 전래놀이, 밧줄놀이, 바느질 연수를 이수하고 초등 방과후 놀이터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역아동센터 등에 봉사자로 참여하는 '세종교육자원봉사자'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 2024a).

〈표 2-23〉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마을교육프로그램

사업명	주요내용	운영기관
마을학교	• (개념) 마을의 시민들이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돌봄, 독서, 체험, 놀이, 생태, 환경, 문화·예술, 경제, 진로탐색 등)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 • (대상) 유·초·중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목적) 학교와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마을교육공동체 성장 • (장소) 학교 안, 밖	교육청
작은도서관 마을방과후	• (개념)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시간에 학교 밖에서 초·중등학교 학생이 작은도서관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과후 활동 • (대상) 세종시 초·중등 학생	교육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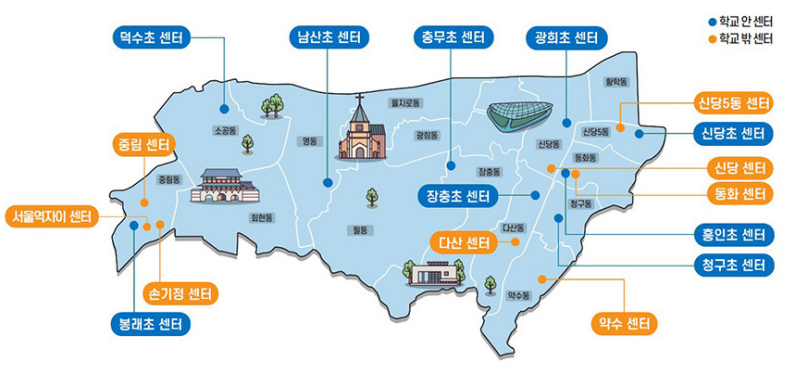
사업명	주요내용	운영기관
	• (목적) 지역 사회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 부담 경감 • (장소) 작은도서관	
복컴 마을방과후	• (개념) 세종의 우수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안전한 마을학습공간으로 활용해, 주민자치와 연계한 돌봄·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대상) 세종시 초·중등 학생 • (목적) 마을의 거점이자 중심 공간인 복컴 마을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대간 공동체 교류 및 유대감 형성을 통한 지역민주시민 육성 • (장소)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청

출처: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2024a, 사업소개,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content/content.motion?mnucd=SJMENU0100046, 검색일: 2024.3.19.)

3) 학교-지자체 협력 운영 돌봄 모델

□ (서울시 중구)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 학교안/학교밖 돌봄센터 직영

서울시 중구는 2019년 3월 흥인초 돌봄교실 직영화를 시작으로 '중구형 초등돌봄센터'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3월 현재 학교안 돌봄센터 9개소, 학교밖 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 8개소를 운영 중이다.



출처: 중구교육보육포털(2024a, 초등돌봄 정보, https://edu.junggu.seoul.kr/eroum/contents.do?key=32 , 검색일: 2024.3.19.)

[그림 2-19] 서울시 중구 돌봄센터 현황

이용 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거나 중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누구나이며, 정원 초과 시 1~3학년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선발한다. 정원은 중구형 초등돌봄센터는 양질의 문·예·체 프로그램(전문강사 프로그램, 돌봄교사 놀이활동 병행)과 안전하고 건강한 급·간식(석식 및 간식, 방학 중에는 중식 포함)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침돌봄(학교안 센터 07:30~09:00)과 저녁

돌봄(학교안/학교밖 센터 방과후~20:00)을 제공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봄(학교안/학교밖 센터 08:00~20:00)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안전하게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전담 보안관을 배치하고 교실마다 1명이었던 돌봄교사를 2명으로 늘려 돌봄 사각을 해소하였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이 돌봄교실을 이용하면서도 자유롭게 학원을 다닐 수 있도록 돌봄교사가 안전하게 학원차량까지 인솔하고 있으며, 돌봄교실 입·출입 시 학부모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돌봄센터에서는 정기돌봄 외에도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일정(출장, 야근 등) 및 부득이한 상황 발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시돌봄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시돌봄 이용일 2주 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며(당일신청도 가능), 1인당 월5회까지 이용 가능하다.[28)]

중구형 초등돌봄센터는 관련 예산의 대부분을 구비로 해결하는 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왔고, 그 결과 2022년 초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돌봄을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99.4%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이성희, 2022). 정원은 학교안 돌봄센터 25명~125명, 학교밖 돌봄센터 20명~81명 수준이며, 2024년 3월 모든 센터에서 신청 접수가 마감된 것으로 확인된다(중구교육보육포털, 2024b).

□ (경상북도)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 굿센스 :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29)] 연계 프로그램

경상북도교육청과 경상북도청은 초등돌봄교실(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마을돌봄)에서 각각 시행해 온 방과후돌봄서비스 간 연계 필요성에 공감하여, 2017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추진해왔다. '굿센스'는 '좋은 아동센터와 학교'를 의미하는 'Good Center-School'의 줄임말로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과 지역아동센터가 연계하여 돌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다. 해당 사업의 예산은 총 3억 원으로(도교육청 2억 원(국고 1억 원 포함) + 도청 1억 원) 선정팀당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참여 학생 수 및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초등돌봄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나 저녁시간, 주말, 방학기간에 학교 운동장, 유휴교실, 아동센터, 마을회관, 도서관 등에서 기본적인 돌봄서비스와 함께 급·간식을 제공받으며, 다양한 체험학습, 마을의 유관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 참여, 마을벽화그리기, 마을탐방활동, 텃밭 가꾸기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30)]

---

28) 중구교육보육포털(2024a, 초등돌봄 정보, https://edu.junggu.seoul.kr/eroum/contents.do?key=32, 검색일: 2024.3.19.), 중구청 공식블로그(2023, 중구 초등돌봄센터 2024학년도 이용아동 모집, https://blog.naver.com/junggu4u/223297034344, 검색일: 2024.3.19.)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문단의 내용 작성

29) 2021년 기점으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센터 등도 참여하기 시작함(하나영 외, 2024, p.60.)

30) 경상북도교육청(2018; 2019)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문단의 내용 작성

굿센스 사업을 통해 2018년 27개팀, 2019년 35개팀, 2020년 28개팀, 2021년 31개팀, 2022년 29개팀, 2023년 35개팀이 참여하였으며,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학교의 돌봄 학생들을 분산 수용하여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의 협력체계 활성화 측면에서 모범 사례이며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이바지한 측면이 있다(하나영 외, 2024, pp.58-59).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를 대상으로 2021년 11월과 2023년 8월에 설문조사를 통해 굿센스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종사자, 보호자, 아동 모두 사업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전반적인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하나영 외, 2024, p.82). 또한 2023년 8~9월에 실시한 초점집단인터뷰에서 참여자들은 지역아동센터-학교-지역사회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성장을 도왔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를 찾았다(하나영 외, 2024, pp.82-83).

〈표 2-24〉 굿센스 관계자 및 이용자의 FGI 분석결과 요약

구분	센터 관계자	학교 관계자	보호자
굿센스 사업의 의미	• 전국 최초 마을밀착형 사업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욕구에 부응하여 진화하는 굿센스 사업 • 서비스 기관의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 작은 학교를 살리는 굿센스 사업 • 굿센스사업의 Key는 교장선생님	• 이용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굿센스 사업 • 또래관계 형성으로 학교적응에 도움이 됨 • 서비스 기관의 이미지 개선 • 다양한 체험을 통한 아동성장
굿센스 사업 운영의 문제점	• 유관기관의 무관심과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연계/협력의 어려움 • 예산 부족 • 과중한 업무부담 • 신규진입의 어려움	• 최소한의 수당은 챙겨주는 굿-센스 필요 • 전담인력 부재	-
개선 방안	• 결속력 있는 네트워크 구축 • 틈새돌봄 이용아동 정원 기준적용에 대한 유연한 대처 • 인지도 제고 위한 홍보전략 • 전담인력 배치 및 종사자 역량 강화 • 지역특화 프로그램 개발	• 소통의 일원화 •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향상	•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홍보전략 • 아동 참여용 프로그램의 다양화 • 충분한 예산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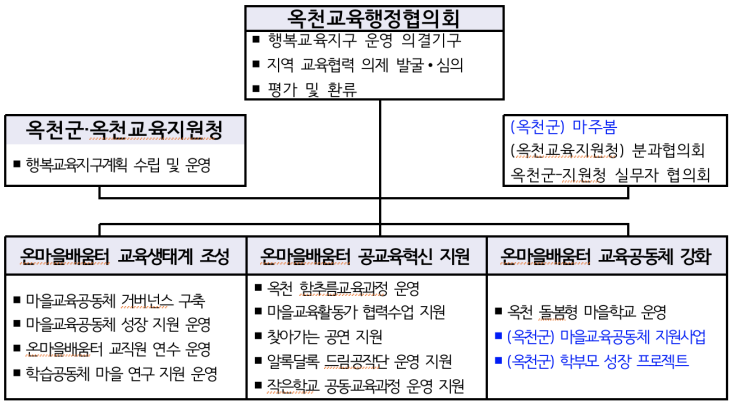
출처: 하나영 외(2024), p.82.

□ 옥천행복교육지구 옥천온마을배움터

옥천행복교육지구 옥천온마을배움터는 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옥천 특성에 맞는 교육 및 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기 위해 2017년부터 시작한 사업이다. 추진 예산은 옥천군 4억, 옥천교육지원청 4억 총 8억으로 운영되며. '꿈과 삶을 키우는 교육마을'이라는 사업비전 아래 2017년 옥천행복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옥천교육행정협의회 및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주요 과제 중 '교육공동체 강화'의

일환으로 '옥천돌봄형 마을학교 운영'을 세부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는 마을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틈새 돌봄사업으로 지역 돌봄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중심의 양육친화적인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공모를 통한 주민 주도 마을돌봄단체를 선정하고 돌봄활동에 필요한 강사수당, 프로그램 운영비, 재료비, 간식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마을 교육돌봄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2024년에는 동이면 행복동이작은도서관, 옥천읍 보따리, 군서면 장령(공동)돌봄 등 총 7개 단체가 돌봄형 마을학교로 선정되어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선정된 돌봄형 마을학교의 돌봄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3시부터 19시까지 운영하여야 하나, 이용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돌봄 수요 요청이 있을 시 '돌봄공동체'가 판단하여 별도로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31)]

〈표 2-25〉 옥천행복교육지구 과제별 운영계획

구분	온마을배움터 교육생태계 조성	온마을배움터 공교육 혁신 지원	온마을배움터 교육공동체 강화
주요 과제	• 마을교육공동체 거버넌스 구축 • 마을교육공동체 성장지원 • 학습공동체 마을연구 지원	• 함추름교육과정 지원 • 마을교육활동가 협력 수업 지원 • 찾아가는 공연지원 • 알록달록 드림공작단 운영 •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지원	• 옥천 돌봄형 마을학교 운영 • (옥천군)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 • (옥천군) 학부모 성장 프로젝트
세부 추진 내용	• 민·관·학 거버넌스 협의체 구축 및 협력 • 옥천군, 교육지원청, 교육행정협의회, 실무추진단, 도란도란 협의회 등 운영	• 마을교육활동과와 교사 간 협력수업 및 역량강화 • 작은학교 대상 공동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문화 및 예술 프로그램 운영	• 공모를 통한 관내 읍면 소재 마을돌봄 단체 발굴 및 지원 강화 •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단체별 운영 역량을 고려한 예산의 합리적 지원
사업 조직도			

출처: 충북온마을배움터 누리집(2024, 옥천온마을배움터);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옥천군(2024)을 참고하여 작성

31) 충북온마을배움터 누리집(2024, 옥천온마을배움터, https://www.cbe.go.kr/hp-oce/cm/cntnts/cntntsView.do?mi=10610&cntntsId=35393, 검색일: 2024.9.30.),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2023),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옥천군(2024)을 참고하여 해당 문단의 내용 작성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2023)이 발생한 '옥천 돌봄 운영 및 집행 매뉴얼'에는 돌봄 공간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 및 조례, 국가기관 지침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운영 및 집행매뉴얼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뉴얼에서 돌봄 공동체별 돌봄 운영 공간은 아동 1인당 전용면적이 3.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시설은 사무실과 대규모 활동실, 소규모 활동실 등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32] 또한 아동이 학교 혹은 집에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권장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해 지하나 반지하, 4층 이상인 곳에는 돌봄 공간 설치를 지양하도록 하고 있다.

4)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돌봄 모델

□ (광주광역시 남구) 숲속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노대동에 위치한 숲속작은도서관은 2019년과 2022년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주최한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주민주도 돌봄공동체 우수사례이다. 노대동은 8단지까지 형성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으로서 돌봄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에 2011년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 여성들이 합심하여 노대동 송화마을휴먼시아2단지아파트 내 빈 공간에 숲속작은도서관을 열게 되었고, 점차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지기 시작하였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페인트칠도 하고 다듬어서 아이들이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이 공간이 점점 발전해 아이들을 위한 책을 대여해주고, 학습지도, 숙제 봐주기, 취미활동지원, 안전지도 제작 등을 시작하게 되었다. 숲속작은도서관의 인력들은 보육교사로 지내거나 아이를 키우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재능 기부를 하면서 마을돌봄 시스템을 형성하였다. 도서관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지역사회에 돌봄 전문공간으로 인정받아, 인근 지역인 효천동, 진월동, 학동에 거주하는 아이들까지 도서관에 와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방학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을 내 자격증을 가진 전문 강사들이 요일별로 영어, 한자, 다문화, 미술, 과학 수업 등을 운영하여 타 지역 주민들까지 참여하고 있다.[33]

숲속작은도서관은 개관 이후 지역사회의 돌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며 돌봄 전문도서관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아동들의 안전한 돌봄공간과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어왔

---

32) 대규모 활동실은 그룹프로그램, 체육활동 등이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며 소규모 활동실은 자율활동, 숙제(학습)지도, 보드게임 등 소규모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한 돌봄 공동체는 사업기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공공시설(주민자치센터, 복지시설, 작은도서관, 경로당) 등 접근성이 개방된 유휴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33) 김다이(2020)를 참고하여 해당 문단의 내용 작성

다. 해당 도서관은 지속적인 돌봄을 위한 마을엄마들의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사업비 지원이 없는 기간에도 중단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4년간의 여성친화마을사업을 통한 '방과후초등돌봄', '유아동 틈새돌봄', '방학돌봄', '방학점심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공동체를 효과적으로 구축하였다.[34]

3. 국외 사례

가. 독일 – 학교 내 시설을 활용한 전일제 학교와 호르트

독일은 비교적 전통적 성역할분리규범이 강한 나라로 여성은 전업주부 또는 보완적 소득자로 여겨지며 아동돌봄은 '여성'이 '가정'에서 돌보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197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사회적 돌봄 체계로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고, 1990년 통일 이후 전국적 초저출산 현상인 합계 출산율 1.3 이하를 기록하였다(정재훈, 2023).

1990년대의 독일의 아동 돌봄정책은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보다는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을 전제로 아동수당과 육아휴직 급여 등 현금급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현금급여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높을 수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효과적이었으나, 대다수 중산층 여성에서 자신의 경력과 바꿀 수 있는 만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못했다. 즉, 대졸 이상 고학력 중산층의 무자녀 경향은 줄어들지 않았고, 지속적 저출산 현상을 경험하였다. 노동운동의 결과로 주5일 노동과 함께 학교 주5일제도 시작되었고, 주중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와 주5일제로 줄어든 교육 시간을 보충하고자 전통적으로 유지하던 반일제(오전수업)는 전일제 양상으로 변화하였다(김대현 외, 2022).

2000년 독일의 OECD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에서 독일 학생들의 낮은 문해력 점수와 계층 간 격차로 인한 학력 수준의 차이는 교육과정 개편으로 이어지고, 이는 전일제학교 도입에 큰 영향을 주었다(권민정, 2022).

독일의 학령기 방과후 돌봄정책은 크게 학교 중심의 '전일제학교'와 민간 중심의 '호르트'로 나눌 수 있다. 전일제 학교는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학교 내의 주중 수업을 오후까지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하며, 호르트는 아동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돌봄시설로 학교 시설 내 또는 가까운 거리의 센터에서 학교 프로그램과 연계된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34)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p.5)를 참고하여 해당 문단의 내용 작성

□ 전일제학교(Gantagsschule, GTS)

전일제학교는 학교의 오후시간대 수업 연장을 통한 학령기 아동 돌봄을 의미한다. 전일제학교는 2003년부터 시행한 “교육과 돌봄의 미래” 투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프로그램 시작 당시 전일제학교 비중은 전체 학교의 20%였으나, 2010년에는 약 50%까지 증가하였다. 2013년 앙겔라 메르켈 수상이 전일제학교를 80%까지 확대한다는 발표와 함께 2018년 20억 유로 규모 투자를 전일제학교 확대에 투입하였다. 이 결과 2020년 기준 전일제학교는 총 1만 9,041개로 전체 학교의 71.5%에 해당한다. 전일제학교를 이용하는 학생 비율은 전체의 약 50% 정도이다(정재훈, 2023).

전일제학교는 크게 의무형(Gebundene Form), 개방형(Offene Form)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형은 학교의 전 과정이 전일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교의 모든 학생이 전일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은 기존의 반일제 즉 오전 수업까지 모든 학생이 참여하지만, 오후 교육 및 돌봄 프로그램은 부모와 학생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개방형 전일제학교는 모든 학부모가 전일제를 선호하지 않거나 학교 및 지역의 재정적 이유로 전체 학급 모두를 전일제 과정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현재 전일제학교는 의무형보다 개방형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이다.

독일의 16개 주정부 교육부장관 회의(KMK: Kultusministerkonferenz)에서 제시한 독일의 전일제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① 아동이 하루 7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날이 1주일에 최소 3일 이상 가능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② 점심을 제공하고, ③ 관리와 운영 주체로서 학교 역할 등이 꼽혔다. 전일제의 시초인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Schule als Leben-sraum)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독일의 방과 후 돌봄은 개인 역량을 강화하는 취미활동, 활동적인 참여 또는 휴식 프로그램 이외 공동체형성 활동, 사교활동, 만남 등 공동체 지향적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진행된다(권민정, 2022).

[독일 전일제학교 지정 조건]

- 지속적이고 구조화된 학교생활이 모든 학생에게 주당 최소 4일, 매일 7시간(여기서 1시간은 60분을 뜻함) 제공된다.
- 학교는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제대로 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 학생의 오전활동과 오후활동이 하나의 통합적인 연관 속에서 진행된다.
- 전일제학교는 대안적인 수업 형태, 예를 들면 프로젝트 수업 등을 요구하며 또 가능하게 한다.
- 통상적인 과제와 교육적 촉진 조치들의 내용과 기능이 전일제학교 구상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이루어진다.
- 공동체를 지향하면서도 개별적인 욕구를 존중하는 여가활동 교육은 전일제 교육 개념에 본질적인 과제에 속한다.
- 전일제학교 활동을 위한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위에서 말한 학교일과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의 조직은 학교 당국의 권한 아래 있는 상시적인 조직에서 담당해야 한다.
- 학생을 보살피는 인원의 연속성이 오전과 오후에 걸쳐 확보되어야 한다. 단, 부가적으로 특별한 영역이나 목적을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들이 투입될 수 있다.

- 전일제학교 도입 및 운영 프로그램 조직은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직들(특수학교에서는 특히 학부모회)의 참여를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

출처: 김대현 외(2022), 온종일 돌봄사회, p.248.

2021년 9월 시행한 「초등연령아동 전일제 촉진을 위한 법률(GaFöG: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에 의해 2026년 이후부터 입학한 독일의 모든 초등학생은 전일제학교를 활용한 방과후 돌봄을 이용할 법적 권리가 보장된다. 2026년 초등학교 입학생인 1학년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전일제학교 이용과 관련한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2029년에는 독일의 모든 초등학생(1~4학년, 독일 초등학교는 4년제)에게 이용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전일제학교는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1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을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방과후 교육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가 있다면 방학기간 내 최대 4주 범위에서 전일제학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35]

□ 호르트(Schulhort 또는 Hort)

호르트는 독일 아동·청소년 지원기관(Kinder- und Jugendhilfe)의 중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자체 청소년 관청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아동 방과후 돌봄 시설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6세 이상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교 정규수업 전·후 보육 서비스 제공한다. 일반적인 독일의 초등학교 정규수업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 또는 2시까지로 독일의 부모들은 호르트를 활용하여 학교 정규수업 종료와 부모 퇴근 후 자녀를 데리러 갈 수 있는 시간 사이의 돌봄 공백의 격차를 메우고 있다(차상철 외, 2013. p.34).

식사는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지만 일부 서비스에 간식 제공이 제공되며, 방과후 4시간 이상 운영해야한다. 부모의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운영하며, 보통 오후 5시정도까지 운영한다. 출근이 이른 학부모를 위해 정규 수업 전 아침 돌봄을 제공하는 곳도 존재하며, 방학기간에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지역별 호르트 시설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나, 학교 정규시간 할 수 없는 예·체능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훈육, 돌봄 등 단순히 보육 뿐만 아니라, 식사예절교육, 학교숙제도움 등 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여가시간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호르트 내 다양한 문화·사회적 경험을 관계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여 학교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 내에 존재하는 호르트의 경우 교사가 방과 후 보육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부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호르트 프로그램 참여비·

35)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초등학교 자녀의 종일 지원에 관한 법률(종일 지원법 – GaFöG).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gesetz-rechtsanspruch-ganztagsbetreuung-grundschulen-178966 (검색일: 2024.2.1.)

재료비·급식비 등을 부담하며, 돌봄 서비스, 시설에 다니는 자녀 수, 이용시간, 식사 포함 여부, 가족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정 등 가정 형편에 따라 담당 지자체 도움을 받아 비용 면제 또는 지원이 가능하다.

호르트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도시에 사는 경우가 많고, 학교 전·후 시간 걸어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 인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용 아동의 부모들이 결혼하지 않았거나, 한부모인 비율이 높으며, 정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를 보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전일제 학교의 확대로 학교 외부 교육 기관인 호르트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일부 호르트는 학교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다(차상철 외. 2013).

독일 초등생 수업 마치면 '전일제 학교' 옮겨가 논다

블록 쌓기, 그림 그리기, 보드 게임…. 2월 6일 오후 3시 독일 본에 있는 뮌스터 초등학교 전일제 교육시설에서 아이들이 각종 놀이에 열중하고 있다. 1층 출입구 옆 커다란 탁구대에선 탁구 남자복식 게임을 하느라 고함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놀이방처럼 꾸며진 2층 교실에는 각종 게임 도구와 장난감들이 곳곳에 놓였다. 아이들 사이에 군데군데 전담 교사와 자원봉사자가 배치돼 학생들을 살피고 있다.

전일제 교육은 학교와 지자체가 오후 3~5시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학교 전교생(216명)이 1명도 빠짐없이 전일제 교육을 이용한다. **초등학교에서 오전 수업을 마치고 오후 1~2시쯤 두 블록 걸어서 전일제 교육시설(본시 소유)로 이동**한다. 시와 위탁계약을 한 보육교사(전일제 전담교사) 12명, 실습·자원봉사자 25명이 오후 수업을 담당한다. 적지 않은 인원이 투입된다.

뮌스터 초교 교사는 오전 수업을 마치면 업무가 끝난다. **오후 수업은 전일제 학교 몫**이다. 총괄교사인 에스터 프뢰퍼는 "학생들이 오후에 이곳으로 오면 전적으로 전일제 학교협회(학부모가 만든 비영리 법인)가 책임지고 돌본다. 안전보험 같은 것도 우리와 주정부가 책임진다"고 말했다.

보통 오후 4시 반까지 아이들을 맡는다. 학부모 사정이 있을 때는 5시 반까지 챙겨 주기도 한다. **4시 반까지는 본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점심 식비는 소득에 따라 차등 부담**한다. 아이들은 점심식사 후 45분은 학교 숙제 등 공부를 한다. 그 후엔 오케스트라·무용·독서 등 미리 신청한 활동을 하면 된다. 그냥 쉬어도 된다.

(중략) **초등학교 1~4학년(독일은 4년제)이 모두 전일제 학교에 참여**한다. (중략) 2005년까지만 해도 오전 수업만 받고 아이들은 낮 12~1시쯤 집으로 향해야 했다. 하지만 대부분 맞벌이인 학부모의 요구가 커지면서 전일제가 도입됐다. 부모들의 만족도도 높다. 이날 4시를 넘어가자 집이나 회사에서 온 학부모들이 하나둘 아이들을 데려갔다. 엄마보다 아빠가 더 많았다. (생략)



독일 본 뮌스터 전일제 학생들이 오후 전일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

내용 및 사진 출처: 정종훈(2018). "독일 초등생 수업 마치면 '전일제 학교' 옮겨가 논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08591#home (검색일: 2024.3.12.)

나. 일본 – 지역 내 연계를 활용한 방과후아동클럽과 아동교실

일본에는 '초1의 벽'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부모의 퇴근 시간보다 이른 하교 시간에 생겨난 돌봄 공백으로 인해 부모 중 한쪽, 주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를 일컫는다(김지영, 2019). 전통적인 주 양육자로 여겨지는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는 일과 육아의 양립을 어렵게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일본의 저출산 현상은 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왔다.

일본의 방과후 아동 대책은 1948년 부모의 퇴근시간보다 일찍 하교한 '열쇠 아동'에 대한 대책으로 시작한 민간 차원의 자발적 주민운동에서 시작되었다(김수동, 2013. p.132). 국가 차원의 정책은 이후 1960년대 후생성의 「아동복지법」 아동관 설치 운영이 법제화됨에 따라 구체화되었는데(상게서, p.132.), 사회적으로 '저출산'이 정책과제로 인식된 것은 1990년 합계출산율이 1.57까지 내려가는 '1.57 쇼크' 이후로, 이를 바탕으로 한 아동 돌봄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1994년 엔젤플랜 수립·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은 저출산 대책으로 취업 여성에 대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확충과 보육 시설 기반 정비 사업의 본격적인 시발점이라 볼 수 있다(자본시장연구원, 2023. pp.2-3).

2001년 이후 일본 내 청소년 범죄와 비행의 급증과 사회·경제·교육 격차가 심화되었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대적인 방과 후 시간 활용방안이 마련되었다. 2002년에는 주 5일제가 확대·실시되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교육 외 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신(新) 아동 플랜」이 추진되었다. 일본의 초등학교 대상 방과후 사업은 크게 문부과학성이 주관하는 방과후 아동 교실 추진 사업(방과후 아동교실)과 후생노동성이 주관하는 방과후 아동 건설 육성 사업(방과후 아동클럽)으로 나눌 수 있다.

□ 문부과학성 방과후 아동 교실 추진 사업 (방과후 아동 교실)

문부과학성의 방과후 아동 교실 추진 사업은 6세에서 12세 사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돌봄 서비스로 정규 수업이 끝난 방과후에 안심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사람들과 함께 학습 및 다양한 예술·문화·체육 활동 등의 교류를 통한 건전한 아동 육성을 도모한다. 주요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6조3의 제2항으로 초등학교 여유 교실이나 아동관을 활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과후 아동 교실 추진 사업의 특징은 아동의 돌봄의 책임은 가정 또는 학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및 관련 관계자들에게도 각각의 역할이 있다고 보고, 지역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상호 연계 및 협력에 노력한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이 각 1/3씩

지원을 부담한다(최진희, 2010).

방과후 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체험의 장, 교류의 장, 학습의 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체험의 장은 지역의 특성이 있는 전통 문화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을 의미하며, 교류의 장은 지역의 성인 또는 다른 연령의 아동과의 교류활동을 의미한다. 학습의 장은 지역의 퇴직교원이나 대학생 등 전문가를 활용한 학습의 장을 의미한다(이성한, 2012).

□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 (방과후 아동클럽)

후생노동성의 방과후 아동 건설 육성 사업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가정 등 부모의 퇴근 전 돌봄 공백 시간동안 방과후 놀이와 생활공간을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이다(이성한, 2012). 아동복지법 제6조3 제2항을 주요 법적 근거로 하며, 2007년 '방과후 아동클럽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국에 표준화된 방과 후 활동 관련 기준을 마련하였고, 2015년부터 '아동·보육지원신제도' 시행으로 기존 1~3학년 대상에서 4학년 이상 고학년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1년 250일 이상, 평일 하루 3시간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보통 18-19시까지 운영한다. 주말과 여름 방학을 포함하는 장기 휴일에는 하루 8시간 운영하며, 운영은 시정촌에서 맡는다(유경호, 2024; 최진희, 2010, pp. 85-87). 학교 내 여유교실을 전용시설 또는 아동관을 활용하여 학습, 놀이, 휴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방과후 아동의 건강 관리, 안전 확보, 정서 안정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놀이 활동을 통한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노력하고 있다. 방과후 활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가정과 긴밀히 연락하고 지역 내의 건전한 아동 육성에 필요한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도쿄(東京)도 고다이라(小平)시 시립 고다이라 제8초등학교(市立小平第八小学校)
일체형 방과후 돌봄프로그램 ('방과 후 아동 교실' + '아동클럽')

도쿄도 고다이라시 시립고다이라제8초등학교의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은 '방과 후 어린이 교실'과 '아동클럽'을 일체형으로 실시하고 있다.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은 2004년부터 시작해 지역 주민과 학부모의 협력을 얻어 24종류의 교육 프로그램을 빈 교실 등을 활용해 제공하고 있으며, 체육관 안에 '아동클럽' 전용 시설이 있어 일체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체형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을 주말과 장기 휴업 시에도 실시하여 개최 일수가 약 250일이나 된다는 것이 특징이며, '아동클럽'의 학생은 '방과 후 어린이 교실'로 이동해 함께 활동한다.

'방과 후 어린이 교실'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로는 학습지원, 영어클럽, 컴퓨터 교실, 로봇 교실, 꽃꽂이, 그림엽서, 도예, 공작 교실, 서예, 차도, 거문고, 꽃 심기 활동, 그림동화 워크숍, 축구, 야구, 정구, 미니농구, 훌라댄스, 요사코이(よさこい, 민요)클럽 등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도 겸임하는 코디네이터가 중심이 되어 '방과 후 어린이 교실'의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지역과 학교의 연계를 하고 있다.

고다이라제8초등학교의 '방과 후 어린이 교실'과 '아동클럽'의 스태프는 서로 학생의 정보 공유를 하여 원활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첫 회에는 참가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활동 내용 등을 설명하는 보호자회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전체 학생의 약 80%가 '방과 후

어린이 교실'에 등록하고 있으며, 복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도 많아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김지영 외, 2019. pp. 3-4.)

〈표 2-26〉 시립 고다이라 제8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 비교

항목	방과후 어린이 교실 (문부과학성)	아동클럽 (후생노동성)
목적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원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맞벌이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적절한 놀이나 생활공간 제공
대상	전 학년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 한정)	1~3학년 (심신장애학생은 6학년까지)
운영 일수	249일	약 300일
운영 시간	평일 방과후와 주말 (방학기간에도 실시)	평일 방과후와 토요일 (방학기간에도 실시)
평균 아동 수	프로그램 당 20명	50명
운영 장소	초등학교 내 전용 교실, 운동장, 체육관 등	초등학교 내 전용시설(체육관 내)

출처: 김지영(2019), p.2, p.4 내용을 바탕으로 재작성

다. 스웨덴 -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s, LETs)

스웨덴은 1983년 출산율이 1.6까지 감소하였으나, 1990년대 초 2.1까지 증가하여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이러한 출산율의 상승이 여성취업률, 동거율, 이혼 및 별거율이 모두 높은 상태에서 반등하였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의 원인을 스웨덴의 공적돌봄제도와 가족지원정책으로 해석되었다(권정윤·한유미, 2005).

스웨덴은 부모의 소득수준, 합법적 결혼 상태 등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육을 제공하는 보편적인 보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권정윤·한유미, 2005). 보육비용의 대부분은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으며, 학령기 아동을 위한 돌봄 서비스로는 레저타임센터(Leisure-time center)가 있다.

레저타임센터는 「교육법(Education Act)」과 교육과정(Lpo 94)에 의해 규제된다. 6세부터 12세까지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 수업시간 외 돌봄 공백을 메꾼다. 레저센터의 목표는 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를 보완하고 레크레이션을 제공하여 아동 발달을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의 활동 및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이에 레저타임센터의 커리큘럼 또한 학교 활동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정규수업 외 아동 돌봄이 학교 활동에 종속되어 발전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Jonsson & Lillvist, 2019). 이러한 이유로 레저타임센터는 학교와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에 독립적인 시설로 운영되는 곳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와 통합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Bostrom et al., 2015).

레저타임센터의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정규 수업시간 외 수업 전 아침, 방과후, 휴일로 연중 운

영되어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며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의 보육시설에 해당하는 프리스쿨에서 종일제 보육을 받던 6세 아동들이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격인 반일제 학급에 다니면서 방과 후 레저타임센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6세 아동 학부모에게 인기가 많다. 돌봄 비용은 가족의 수입과 보육시간에 의해 결정된다(윤자영, 2022).

레저타임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레저타임센터의 그룹 규모, 직원 밀도 및 그룹 구성, 시설 환경 등을 관리한다. 스웨덴 공립보육시설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모두 공무원 신분이며, 레크레이션센터에 일하는 레크레이션 교사(fritidspedagog)는 대학 교육을 받아야 근무가 가능하다. 「교육법(Education Act)」에 의해 레저타임센터의 시설 및 입지는 ① 시설의 크기, 디자인 및 야외 환경이 센터를 이용하는 어린이의 필요와 관심에 기반한 교육 활동 운영에 적합하여야 하며, ② 공간의 크기와 디자인, 공기, 소리, 빛과 같은 환경적 요소, 자재 선택은 여가 센터에서 질 좋은 교육 활동을 운영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권고한다. 또한 ③ 대규모 그룹의 창의적이고 활발한 활동부터 소규모 그룹의 휴식과 온화한 활동까지 다양한 유형의 활동을 위한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며, ④ 여가시간센터는 학교 구내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권고하고 있다.

교육·돌봄 함께 해결한 스웨덴 레저타임센터에서 배우자

스웨덴은 여성 고용률이 높기로 유명하다. 2016년에 스웨덴의 30, 40대 여성 고용률은 90.4%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65.1%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였다. 스웨덴은 아빠들의 양육 참여가 활발하고 공보육 시설도 잘 갖춰져 있기로 유명하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동돌봄은 어떨까? 스웨덴의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엄마들은 어떻게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분명 뭔가 있을 거라는 궁금증에 8년 전쯤 연구과제 수행차 스웨덴의 '레저타임센터'를 방문했다.



레저타임센터는 초등학교와 공간적으로 가까운 곳, 학교 바로 옆 건물에 있었는데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어린이집을 확대시켜 놓은 것처럼 각종 놀이기구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 학교 수업을 끝낸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대로 센터로 온다고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고 다함께 머물며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놀며 배우는 곳이 레저타임센터였다. 무엇보다 남자교사들이 여럿 있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초등학교를 가도 엄마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물리적 공간은 분리되어 있으나 초등학교와 레저타임센터가 협동하여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 전문가이자 엄마로서 부러웠다.

출처: 윤자영(2022, 이런 돌봄, 엄마들 우왕좌왕하지 않아 좋겠네,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57568, 검색일: 24.3.12.)

라. 해외 아동돌봄 정책의 시사점

해외 학령기 아동의 방과후 돌봄의 특징은 '놀이기반 다양한 활동'과 '학교와의 연계, 지역 안에서의 협력'으로 설명할 수 있다. 해외의 방과후 활동은 '놀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성장 발달 프로그램 제공한다. 탁구, 그림그리기, 무용, 독서 등 다양한 예·체능 경험을 통해 신체적 능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도우며, 놀이를 통한 정서안정과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신체·정서·학습 활동이 가능한 전용 시설과 공간을 따로 마련해두었다. 독일의 경우 전일제학교에 필요한 필수 시설과 유지에 관한 기준들을 마련하였고, 학교 내 운영되고 있지 않은 방과후 돌봄인 독일의 일부 호르트와 스웨덴의 레저타임센터는 학교와 도보로 인접하게 설치하여 아동의 이동을 원활하게 돕는다.

또한 학교 외 방과후 돌봄의 활동은 아이들의 학교의 정규수업 및 활동과 연계하여 정규 수업을 보조하거나 정규 수업 외 다양한 경험들을 가능하게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독일의 호르트가 학교 내 또는 학교 주변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고, 스웨덴의 레저타임센터도 학교 도보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 학교 내 전용 시설 사용이 어렵거나 부족할 경우 지역 내 다양한 시설 및 공간들과 연계하여 아동 성장 발달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한다. 이는 단순히 주변의 물적 자원의 활용뿐만 아니라, 지역 내 대학, 연구원, 지역주민 전문가를 활용하여 과학, 예술, 지역 문화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돕는다. 다시 말해 지역 내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도보권 내 학교 외 돌봄센터를 설치하거나, 가까운 기존 공간을 돌봄 활용 공간으로 지정한다.

해외의 방과후 돌봄센터의 역할은 단순히 방과 후부터 부모의 퇴근까지의 돌봄 공백시간을 메꾸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정규수업의 숙제 등 학습지도를 통해 돌봄 공백으로 인한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 내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어른들과 교류하며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부여한다.

해외의 아동 돌봄 체계의 핵심은 방과후 아동 돌봄이 목적이 '부모 대신 아이를 돌봐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아동돌봄체계의 목적은 '아동 돌봄'이 아니라, '일하는 부모'와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이'의 양립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정책 외 교육, 노동, 가족 정책 등 다양한 사회적 합의가 요구된다. 독일의 경우 1955년 주5일제가 시작되었고, 1965년 주 40시간 노동이 도입되었다. 1984년 주 38.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였고, 유연근무도 확대·지속되었다. 정규직이지만 시간제 근무가 가능하며, 탄력적 노동시간 및 장소 선택이 가능하다(김대현 외, 2022). 스웨덴의 아동센터는 보통 수요에 따라 다르지만 오후 5시 정도에 끝나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오후 4시 반쯤 일이 끝나 아이를 찾으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2023년 1월 일본 기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아동의 육아 정책뿐만 아니라 부모의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는 노동정책을 포함하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동성장에는 부모와의 시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아동돌봄체계는 아동정책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공백 동안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통해 부모의 소득, 사회적 지위, 계급과 관계없이 아동 간 교육 격차를 줄여주는 교육정책,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돕는 노동정책, 그리고 건강한 가족이 지속될 수 있는 가족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아동 성장 지원 관점에서 기존 돌봄 정책의 한계

정부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늘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을 통해 학교 안팎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아침, 오후, 저녁, 방학 중 돌봄을 제공하며, 특히 늘봄학교는 2025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별로 경직된 시설 운영 기준으로 인해 지역별 공공 돌봄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대기 인원은 약 1만 5천 명에 달하며,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세종시는 대기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적 불균형은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보다 질 높은 교육과 체험을 제공하는 사교육으로 학부모들을 몰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질적인 수준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사교육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 획일적 프로그램과 제한적인 공간은 아동의 흥미와 창의성을 저해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배우는 경험을 제한하여 아동의 자율적인 활동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그러나 학원 역시 아동의 자율적 활동을 장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데, 이용 시간 및 장소 활용 방식이 경직된 학원 중심 돌봄은 방과 후 아동의 일과를 시공간적으로 분절하고, 바깥놀이 등 양질의 여가를 위축시켜 아동의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 돌봄을 대체할 민간 자원조차도 부족한 지역에서는 방과 후 돌봄에 대한 가정의 부담이 가중된다.

해외의 돌봄 서비스 사례는 단순히 안전한 보호를 넘어 아동의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활용 및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특히 학교에서 장시간 머물게 되는 독일의 전일제 학교는 아동의 다양한 활동 수요를 담기 위한 공간 조성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의 전일제 학교는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오후 시간까지 수업을 연장하고, 블록 쌓기, 그

림 그리기, 보드게임, 탁구, 오케스트라, 무용, 독서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또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주요한 활동(학습, 운동, 모임, 휴식)에 필요한 공간을 분리하여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이 한정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예방하고 있다.

스웨덴의 레저타임센터는 초등학교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며 각종 놀이기구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어, 아이들은 학교 수업을 마치면 레저타임센터로 이동하여 부모가 데리러 올 때까지 자유롭게 놀면서 시간을 보낸다. 일본의 방과후 아동클럽은 프로그램 시작 시 참가 학생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보호자회를 운영하여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늘봄학교 사업은 농촌과 같이 학교 중심의 돌봄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유효한 전략일 수 있으나, 공간 부족 문제를 겪는 도시지역 학교에서는 실행이 어렵고 적절한 공간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아 아동의 경험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 돌봄을 확대하고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기존 정책 방향은 근린 특성에 대한 고려와 더불어 아동의 생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수반해야 한다. 아동을 일방적인 돌봄 대상이 아니라 수요자로서 자율성과 고유한 의사를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다양한 활동에 대한 경험과 돌봄 방식에 대한 선택을 보장해야 한다.

안전한 돌봄 가운데 자율적이고 활발한 아동의 경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공적 돌봄 확대는 근린 단위의 공간 개선 요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설 특성과 지역 여건, 수요를 반영한 공간 개선을 통해 돌봄 확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공적 돌봄 확충 관련 공간 대응 요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동의 생활양식과 근린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체화된 공간 개선 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표 2-27〉 돌봄사업별 공간 활용 및 운영 시간 현황

구분		국내 공공돌봄													국외 사례			
		늘봄학교	초등돌봄교실	국가 + 지자체 특화형									국가 (중앙부처)		독일		일본	스위스
				경남 거점 돌봄 늘봄	세종 행복교육 지원센터 마을교육 프로그램	옥천 온마을 배움터	서울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중구 초등 돌봄센터		경북 마을 밀착형 굿센스	광주 남구 숲속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 센터				
범위	시설		학교안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학교안	학교밖					전일제	호르트	방과후 아동교실+ 아동클럽	레저 타임 센터
단지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	●							●						
학교	교실 (돌봄교실)	●	●	●						●		●				●	●	●	
	운동장 /놀이터																		
	학교 복합화시설																		
	기타																		
생활 인프라	학교 밖 돌봄 제공				●	●	●	●	●		●	●		●	●		●		●
	행정복지센터				●	●	●												
	놀이터/공원						●												
	공공/작은도서관				●	●	●						●						
	문화체육시설				●	●	●												
주말돌봄 여부				●		●		●	●			●							
긴급 · 일시돌봄 (24시간)									●										
병원 동행 서비스									●										
운영 시간	7:00~7:29																		
	7:30~7:59									○									
	8:00~8:29									○									
	8:30~8:59									○									
	9:00~9:29																		
	9:30~9:59																		
	10:00~10:29																		
	10:30~10:59																		
	11:00~11:29																		

구분		국내 공공돌봄													국외 사례			
		늘봄 학교	초등 돌봄 교실	국가 + 지자체 특화형									국가 (중앙부처)		독일		일본	스위스
				경남 거점 돌봄 늘봄	세종 행복교육 지원센터 마을교육 프로그램	옥천 온마을 배움터	서울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중구 초등 돌봄센터		경북 마을 밀착형 굿센스	광주 남구 숲속 작은 도서관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 센터				
범위	시설		학교 안				일반형	융합형	거점형	학교 안	학교 밖					전일제	호르트	방과후 아동교실+ 아동클럽	레저 타임 센터
	11:30~11:59																		
	12:00~12:29									○	○								
	12:30~12:59									○	○								
	13:00~13:29		방과후	방과후			○	○	○	○	○	방과후	○						
	13:30~13:59			○			○	○	○	○	○		○						
	14:00~14:29			○			○	○	○	○	○		○						
	14:30~14:59			○	○		○	○	○	○	○		○						
	15:00~15:29			○	○		○	○	○	○	○		○						
	15:30~15:59			○	○		○	○	○	○	○		○						
	16:00~16:29			○	○		○	○	○	○	○		○						
	16:30~16:59		17시 종료	○	○		○	○	○	○	○		○						
	17:00~17:29			○	○		○	○	○	○	○		○						
	17:30~17:59			○	○		○	○	○	○	○		○						
	18:00~18:29			○	○		○	○	○	○	○		○						
	18:30~18:59		19시 종료 (대부분)	○	○		○	○	○	○	○		○						
	19:00~19:29			○	○			○	○	○	○		○						
	19:30~19:59			○	○			○	○	○	○		○						
	20:00~20:29								○										
	20:30~20:59								○										
	심야 (24시간)		22시 종료																

출처: 연구진 작성

○: 학기중 돌봄 시간

03

아동 돌봄 실태 및 근린 내 행태 영향 요인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 개요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 환경과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방과후 초등 돌봄 정책과 지역 단위 돌봄 환경 조성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부모 3,000명이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제2024-0231호) 받았으며,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웹서베이(Web-survey) 방법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 조사는 학기 중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의 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11일부터 2024년 5월 20일까지 진행하였다.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은 Ⅰ. 돌봄 필요, Ⅱ. 돌봄 실태, Ⅲ.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Ⅳ. 근린 환경과 돌봄 인프라, Ⅴ. 아동 발달, Ⅵ. 응답자김영선 프로필 및 가구 일반 현황 6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3-1〉과 같다. 돌봄 필요 영역의 경우 학기 중이나 방학의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돌봄 실태 영역은 평일 30분 단위의 돌봄 실태와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영역에서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구성요소에 대한 평가 내용을 담고 있다. 근린 환경과 돌봄 인프라에서는 자녀 돌봄 관련 근린 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용 시설, 이용 방법 및 만족도, 동네에 대한 인식 등을 질문하였으며, 아동 발달 관련 문항으로는 키나 몸무게, 음식 섭취와 수면 시간, 긍정적 및 부정적 활동 횟수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돌봄 필요나 돌봄 실태,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영역의 문항은 김영란 외(2018)의 「초등학생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강지원 외(2020)의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 실태 및 수요조사」, 강지원 외(2023b)의 「영유아·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의견조사」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근린환경 및 돌봄 인프라에 대해서는 강현미 외(2022)의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와 김연금 외(2018)의 「놀기 좋은 동네 평가지표 개발」, 잉글랜드 아동친화 정책 관련 비영리단체인 PLAY ENGLAND(2009)가 발행한 놀이환경 실태조사 등의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아동 발달에 대한 문항은 보건복지부(2023a)의 아동종합실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가족부(2023)의 청소년종합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육아

정책연구소(2023)의 한국아동패널조사의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연구진이 관련 설문지를 검토하여 1차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하고 아동 돌봄과 근린환경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받아 2차로 수정한 후, 전문가 3인과 학부모 9인 등 총 12인의 사전 조사(Pilot test)를 거쳐 최종적으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

〈표 3-1〉「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 조사 항목

조사 영역	주요 조사 항목	참조 조사
돌봄 필요	-학기 중, 학기 중 평일 아침 시간, 학기 중 저녁 시간, 방학 중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 필요 시간 등 -자녀의 학교 등교시간과 수업 시간 -월요일~금요일 방과후 이용 기관 등	김영란 외(2018) 강지원 외(2020) 강지원 외(2023b)
돌봄 실태	-평일 8:00~20:59까지 30분 단위의 돌봄 실태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자) 이용 이유, 인지 경로, 운영시간의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돌봄 공백 해소 도움 정도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자) 미이용 사유 -(학원 이용자)돌봄 공백 해소 도움 정도 -긴급·일시돌봄 필요 경험 및 해결 방법 등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구성요소별 중요도(접근성, 프로그램, 인력, 식사·간식, 시설 내 환경, 시설 외 환경)	
근린환경과 돌봄 인프라	-동네의 주거 환경, 도로 경사도 -자녀 학교 통학 -자녀 이용 시설(공공 및 민간, 실내 및 실외, 신체활동 및 학습·문화 등) -자녀 이용 시설 이동수단 및 성인 동행자, 소요시간 -자녀 이용 시설에 대한 평가(거리, 이동성, 안전성 등), 발달에 도움 정도(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 -동네에 대한 평가(보행환경,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기회, 위해환경 등)	강현미 외(2022) 김연금 외(2018) PLAY ENGLAND (2009)
아동 발달	-긍정적 활동 횟수(가족과 대화, 식사, 친구와 야외 놀이, 문화·여가활동 등) -부정적 활동 횟수(친구·형제와 다툼, 부모님과 갈등, 부정적인 말, 결석 등)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시간, 수면 시간 -키, 몸무게 -음식 섭취 횟수(채소와 과일, 육류, 배달음식 등) 및 간식, 식사 장소 등	보건복지부(2023a, 아동종합실태조사) 여성가족부(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육아정책연구소(2023, 한국아동패널조사)
응답자 및 가구 일반 현황	-본인 및 배우자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일 관련 사항(취업형태, 출퇴근시간 등), 동거가구원, 거주 주택 유형, 가구소득 등	김영란 외(2018) 강지원 외(2020)

출처: 연구진 작성

2. 표본 설계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의 목표 모집단은 국내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다.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로 실시되므로 조사 모집단은 조사업체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온라인 패널에 가입한 초등학교 1~4학년의 부모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된 관심 및 조사 내용은 초등학교 1~4학년 학생의 방과후 돌봄 실태와 욕구, 그리고 지역 단위의 돌봄 환경이므로 초등학생 자녀 양육 부모의 특성보다는 교육부의 교육통계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역별, 학년별, 성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모집단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교육통계(2023년 4월 1일 자료)를 기준으로 1학년은 약 40만 명, 2학년은 약 43만 명이며 3학년과 4학년은 각 약 42만 명으로 1~4학년 전체는 약 168만 명 정도이다. 지역별로 1~4학년 학생 수는 중소도시인 '시 지역'이 45.5%로 가장 많고, '대도시'가 37.8%, '읍·면·특수지역'이 16.7% 순으로 나타난다.

〈표 3-2〉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학생 수(2023.4.1. 기준)

(단위: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합계
전국	401,752	427,809	423,154	423,680	1,676,395
대도시(특별/광역시)	152,406	161,900	159,656	159,989	633,951
중소도시(시)	183,163	195,116	192,286	192,165	762,730
읍·면·특수지역	66,183	70,793	71,212	71,526	279,714

주: 1) 대도시(특별/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시)에 포함함
2) 중소도시(시 지역)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을 포함함
3) '읍'과 '면'은 해당 기관 주소의 가장 하부 행정단위로 지역 분류. 예로, OO시 OO읍 → 읍지역, OO광역시 OO면 → 면지역임
4) 특수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3.11.15. 인출

표본크기는 가용 예산과 조사 방법, 조사 소요 기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 여건 및 표본오차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표본크기를 3,000명으로 결정하였다. 3,000명 조사 시 기대되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p이다. 모집단 층화는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모집단 정보 획득의 어려움과 온라인 조사의 특성 상 표본추출틀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지역을 3개로 구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하여 1차 층화변수로 활용하고, 학년 등급을 2개(저학년, 고학년)로 구분하여 2차 층화 변수로, 성별을 3차 층화 변수로 활용하여 전체 층의 수는 총 12개이다.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 학년(저학년, 고학년)별, 성별(남, 여) 학생 수는 〈표 3-3〉과 같고, 각 층에 해당하는 학생의 비율은 〈표 3-4〉와 같다.

〈표 3-3〉 지역규모별, 학년별, 성별 초등학생 수(2023.4.1. 기준)

(단위: 명)

구분	저학년(1~2학년)			고학년(3~4학년)			합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전국	424,453	405,108	829,561	433,392	413,442	846,834	1,676,395
대도시(특별/광역시)	160,810	153,496	314,306	163,791	155,854	319,645	633,951
중소도시(시)	193,015	185,264	378,279	196,155	188,296	384,451	762,730
읍·면·특수지역	70,628	66,348	136,976	73,446	69,292	142,738	279,714

주: 1) 대도시(특별/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시)에 포함함
2) 중소도시(시 지역)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을 포함함
3) '읍'과 '면'은 해당 기관 주소의 가장 하부 행정단위로 지역 분류. 예로, OO시 OO읍 → 읍지역, OO광역시 OO면 → 면지역임
4) 특수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3.11.15. 인출

〈표 3-4〉 지역규모별, 학년별, 성별 초등학생 비율(2023.4.1. 기준)

(단위: %)

구분	저학년(1~2학년)		고학년(3~4학년)		합계
	남	여	남	여	
전국	25.3	24.2	25.9	24.7	100.0
대도시(특별/광역시)	9.6	9.2	9.8	9.3	37.8
중소도시(시)	11.5	11.1	11.7	11.2	45.5
읍·면·특수지역	4.2	4.0	4.4	4.1	16.7

주: 1) 대도시(특별/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시)에 포함함
2) 중소도시(시 지역)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을 포함함
3) '읍'과 '면'은 해당 기관 주소의 가장 하부 행정단위로 지역 분류. 예로, OO시 OO읍 → 읍지역, OO광역시 OO면 → 면지역임
4) 특수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3.11.15. 인출

이를 토대로 표본 3,000명을 비례 배분한 결과는 〈표 3-5〉와 같다. 이에 더하여,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등)를 이용하는 아동이 전체 응답자의 50% 이상이 되도록 할당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방과후돌봄의 필요와 형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기 위한 것이자 2023년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이용률(1학년 70.8%, 2학년 66.1%, 3학년 51.9%, 4학년 47.2% - 교육부 2024b) 등을 토대로 최소한으로 할당한 값이다.[36]

〈표 3-5〉 층별 표본 비례배분 결과

(단위: 명)

구분	저학년(1~2학년)		고학년(3~4학년)		합계
	남	여	남	여	
전국	759	726	775	740	3,000
대도시(특별/광역시)	288	275	293	279	1,135
중소도시(시)	345	332	351	337	1,365
읍·면·특수지역	126	119	131	124	500

주: 1) 대도시(특별/광역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하며,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소도시(시)에 포함함
2) 중소도시(시 지역)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시 지역을 포함함
3) '읍'과 '면'은 해당 기관 주소의 가장 하부 행정단위로 지역 분류. 예로, OO시 OO읍 → 읍지역, OO광역시 OO면 → 면지역임
4) 특수지역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서·벽지 지역임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3).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에서 2023.11.15. 인출

실제 조사는 최종 3,442명으로 완료되었으며, 목표 표본(3,0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한 후 분석하였다. 가중치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춤으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표본설계에서의 가중치는 설계 가중치와 무응답 보정계수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W_{ijkl} = \frac{N_{ijk}}{n'_{ijk}} \times \frac{n'_{ijk}}{n_{ijk}}$$

- i : 지역을 나타내는 첨자 (i = 1(대도시), 2(중소도시), 3(읍·면·특수지역))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 k : 학년을 나타내는 첨자 (j = 1(저학년(1~2학년)), 2(고학년(3~4학년)))
- N_{ijk} : i 지역, j 성별, k 학년의 모집단 크기
- n'_{ijk} : i 지역, j 성별, k 학년의 할당된 표본크기
- n_{ijk} : i 지역, j 성별, k 학년의 실제 조사 완료된 표본크기
- W_{ijkl} : i 지역, j 성별, k 학년 층 내 l 응답자의 가중치

36) 김영란 외(2018)와 강지원 외(2020)에서는 방과후학교를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에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에 포함하여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다. 2024년 도입된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인 늘봄학교가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이 통합된 형태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학교를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표본설계에 있어서 김영란 외(2018)의 연구에서는 표본 추출과 조사 대상에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비율을 고려하지 않았고, 강지원 외(2020)의 조사 대상에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40%)을 할당하였으나 그 비율이 다르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차이가 있다.

3.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3,442명을 목표 표본 수 3,000명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적용 후 분석한 응답자(가구)의 일반적 특성은 〈표 3-6〉과 같다. 총 3,000명 중 맞벌이 가구가 67.9%였고 홑벌이 가구가 27.2%, 배우자가 없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일하지 않은 경우가 4.9%였다. 맞벌이 가구 비율은 대도시가 71.2%로 가장 높았고 읍·면·특수지역이 66.3%, 중소도시가 65.8%로 나타났다. 공적 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이용 비율은 68.3%로 나타났으며 대도시 72.9%, 읍·면·특수지역 66.7%, 중소도시 65.2%로 맞벌이 비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85.7%로 매우 높았으며, 아파트 이외의 주택 유형이 14.3%였다. 아파트 규모에서는 1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27.1%,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아파트 43.7%, 300세대 미만 아파트가 14.8%였다. 지역별로는 특히 중소도시에서 아파트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300세대 이상 아파트 거주 비율도 가장 높다(75.2%). 아파트 이외의 주택 유형은 읍·면·특수지역이 17.9%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4명(47.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명(38.3%), 5명(9.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특수지역의 가구원 수 평균이 3.80명으로, 전체 평균(3.72명)보다 약간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599만 원과 600~799만 원이 각각 31.1%, 31.5%로 많았으며, 대도시의 가구소득이 높은 편이었고 읍·면·특수지역의 가구소득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6〉 응답자(가구)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		전체	
전체		1,135	100.0	1,365	100.0	500	100.0	3,000	100.0
학년[1]	저학년(1~2학년)	563	49.6	677	49.6	245	49.0	1,485	49.5
	고학년(3~4학년)	572	50.4	688	50.4	255	51.0	1,515	50.5
지역	비인구감소지역	1,118	98.5	1,344	98.4	420	84.0	2,881	96.0
	인구감소지역[2]	17	1.5	21	1.6	80	16.0	119	4.0
맞벌이	맞벌이	808	71.2	898	65.8	331	66.3	2,038	67.9
	홑벌이	278	24.5	398	29.2	140	27.9	815	27.2
	그 외(한부모,미취업)	49	4.3	69	5.0	29	5.8	147	4.9
공적 돌봄[3]	이용	827	72.9	889	65.2	333	66.7	2,050	68.3
	미이용	308	27.1	476	34.8	167	33.3	950	31.7
주택 유형	1000세대이상아파트	322	28.4	393	28.8	99	19.7	814	27.1
	300~1000세대미만아파트	454	40.0	633	46.4	224	44.8	1311	43.7
	300세대 미만 아파트	188	16.6	170	12.4	87	17.5	445	14.8
	아파트 외	171	15.0	169	12.4	90	17.9	429	14.3
가구원 수	2명	20	1.8	36	2.6	6	1.1	62	2.1
	3명	444	39.1	515	37.7	190	37.9	1,148	38.3
	4명	535	47.1	678	49.6	217	43.4	1,430	47.7
	5명	106	9.3	113	8.3	74	14.8	293	9.8
	6명 이상	30	2.6	24	1.7	14	2.8	67	2.2
	평균	3.72		3.69		3.80		3.72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 원 미만	113	9.9	171	12.5	103	20.6	387	12.9
	400~599만 원	314	27.7	450	33.0	170	34.0	934	31.1
	600~799만 원	383	33.7	426	31.2	136	27.1	945	31.5
	800~999만 원	182	16.1	195	14.3	68	13.7	446	14.9
	1,000만 원 인상	143	12.6	122	9.0	23	4.7	289	9.6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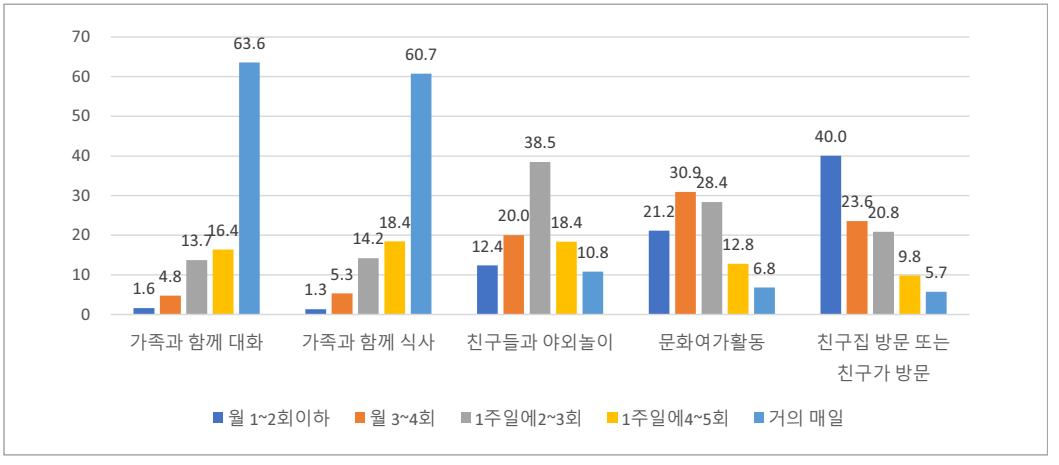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제2절 조사 결과

1. 초등학생 자녀의 활동과 신체 발달

가. 자녀의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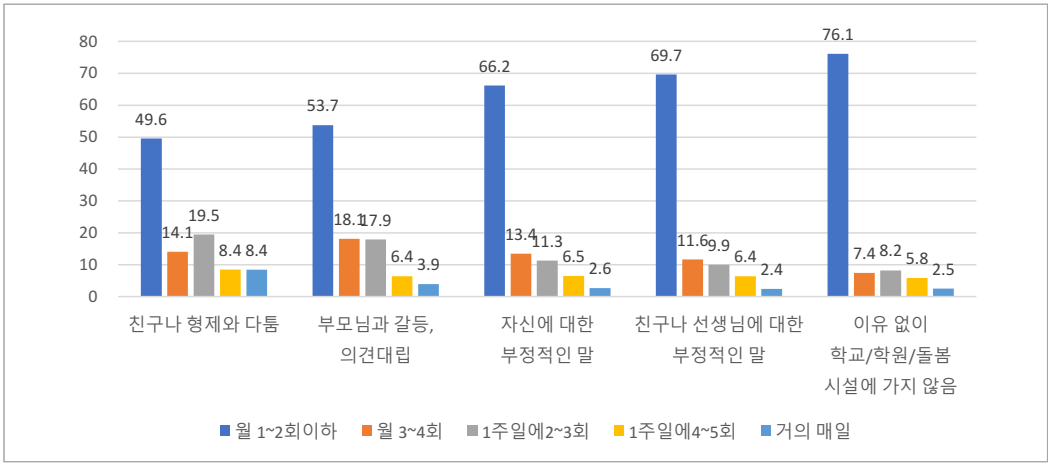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자녀의 활동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족과 함께 대화'나 '가족과 함께 식사'는 거의 매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친구들과 함께 야외 놀이'는 1주일에 2~3회 정도 한다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으며, '문화·여가 활동 참여'는 월 3~4회가 30.9%로 가장 많았다. 친구의 집에 놀러 가거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오는 경우는 월 1~2회 이하가 40%로 가장 낮았다.



주: 사례수는 3,000명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소 긍정적 활동 횟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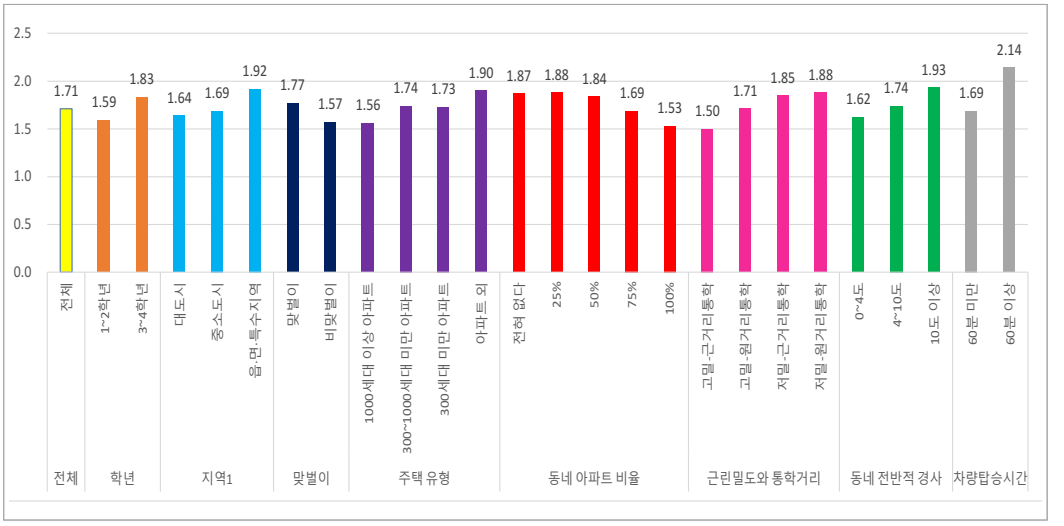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자녀의 부정적인 활동은 모두 월 1~2회 이하의 분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월 1~2회 이하를 기준으로, 친구, 형제와 다툰 적이 있다는 응답은 49.6%, 부모님과 갈등하거나 의견 대립이 있었다는 응답은 53.7%, 자신에 대한 부정적 말을 했다는 응답은 66.2%, 친구나 선생님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한 경우가 69.4%,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나 학원, 방과후 돌봄 시설에 가지 않는 경우가 76.1%로 나타났다.



주: 사례수는 3,000명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소 부정적 활동 횟수 (%)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일 기준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은 1시간 이하인 경우가 41.9%(30분 이하 14.8%, 31~60분 27.1%), 1시간 초과 2시간 미만(61~90분 12.1%, 91~120분 20.6%)이 32.7%, 2시간 초과(121~180분 17.4%, 181분 이상 8.0%)인 경우가 25.4%로 평균 1.71시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은 고학년(3~4학년)인 경우, 읍·면·특수지역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아파트가 아닌 주택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 동네 아파트 비율이 낮은 경우, 동네에 전반적 경사도가 높은 경우, 하루 평균 차량 탑승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 높게 나타났다.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에서는 저밀(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인 지역) 지역이 통학 거리와 상관 없이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이 높았으며 고밀-근거리통학(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통학하는 경우)인 경우 하루 평균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이 1.50시간으로 전체 집단 중 가장 낮았다.



주: 사례수는 3,000명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일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 (단위: 시간)

〈표 3-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평일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

(단위: %, 명,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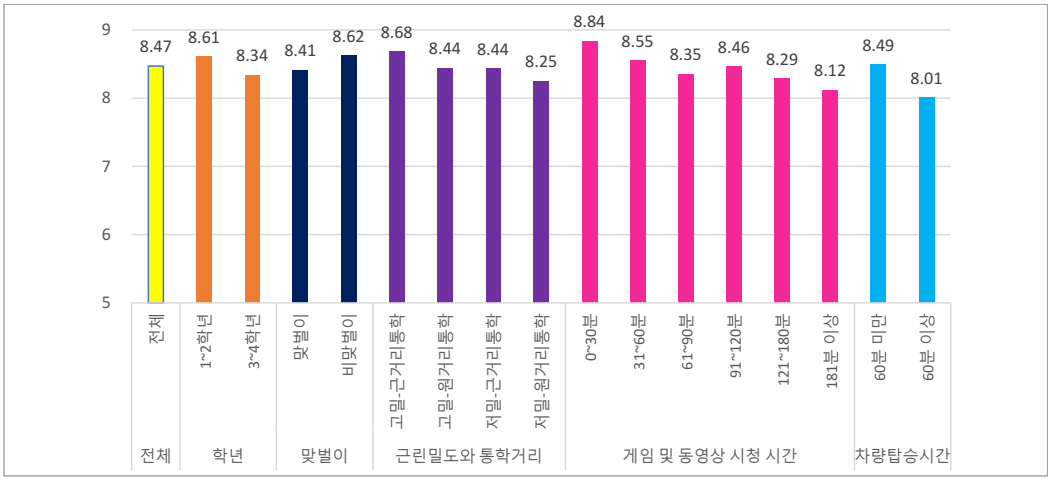
구분		30분 이하	31~60분	61~90분	91~120분	121~180분	181분 이상	계	사례수	평균(시간)
전체		14.8	27.1	12.1	20.6	17.4	8.0	100.0	3,000	1.71
학년[1] (t=-6.06***)	저학년(1~2학년)	17.4	29.5	11.1	19.9	16.0	6.0	100.0	1,485	1.59
	고학년(3~4학년)	12.3	24.6	13.1	21.2	18.8	9.9	100.0	1,515	1.83
지역1 (F=12.34***)	대도시	14.9	29.0	13.8	18.4	16.0	7.9	100.0	1,135	1.64
	중소도시	16.5	26.0	11.4	22.3	16.7	7.2	100.0	1,365	1.69
	읍·면·특수지역	10.1	25.5	10.3	20.9	22.7	10.5	100.0	500	1.92
맞벌이[2] (t=4.69***)	맞벌이	12.6	27.3	12.2	20.5	18.8	8.6	100.0	2,113	1.77
	비맞벌이	20.0	26.5	11.9	20.8	14.1	6.7	100.0	887	1.57
공적돌봄[3] (t=1.41)	이용	12.9	27.9	13.3	19.9	17.7	8.2	100.0	2,095	1.73
	미이용	18.9	25.2	9.5	22.2	16.9	7.5	100.0	905	1.67
주택 유형 (F=10.29***)	1000세대이상아파트	17.5	32.4	11.6	18.2	13.5	6.7	100.0	814	1.56
	300~1000세대미만 아파트	14.5	24.6	12.6	22.0	18.6	7.8	100.0	1,312	1.74
	300세대미만 아파트	14.6	27.4	12.0	21.6	15.9	8.5	100.0	445	1.73
	아파트 외	10.7	24.2	11.6	19.8	22.9	10.7	100.0	429	1.90

구분		30분 이하	31~60분	61~90분	91~120분	121~180분	181분 이상	계	사례수	평균(시간)
동네 아파트 비율 (F=10.01***)	전혀 없다	5.5	17.8	28.6	17.9	21.0	9.3	100.0	86	1.87
	25%	11.3	24.2	11.8	20.4	23.1	9.2	100.0	439	1.88
	50%	11.3	24.7	10.9	22.9	21.0	9.1	100.0	479	1.84
	75%	14.8	28.1	11.9	21.3	15.9	8.0	100.0	1,301	1.69
	100%	20.6	29.7	11.4	18.2	13.7	6.4	100.0	696	1.5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F=16.31***)	고밀-근거리통학	21.8	27.9	12.2	18.9	14.3	5.0	100.0	711	1.50
	고밀-원거리통학	14.0	29.1	11.5	20.9	15.6	8.8	100.0	1,286	1.71
	저밀-근거리통학	10.9	25.3	12.0	22.6	20.1	9.1	100.0	609	1.85
	저밀-원거리통학	10.7	21.7	14.1	19.4	24.8	9.2	100.0	395	1.88
동네 전반적 경사(F=16.49***)	0~4도	17.0	28.6	11.2	20.6	16.9	5.6	100.0	1,474	1.62
	4~10도	13.4	26.9	12.6	20.8	17.6	8.7	100.0	1,044	1.74
	10도 이상	11.0	22.7	13.8	20.0	18.6	13.9	100.0	481	1.93
차량탑승시간[5] (t=-3.86***)	60분 미만	15.0	27.4	12.1	20.8	17.2	7.4	100.0	2,869	1.69
	60분 이상	10.8	19.5	11.4	15.7	21.7	20.9	100.0	131	2.14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임.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차량탑승시간은 통학시간과 월~금요일 이용시설(돌봄시설, 학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6)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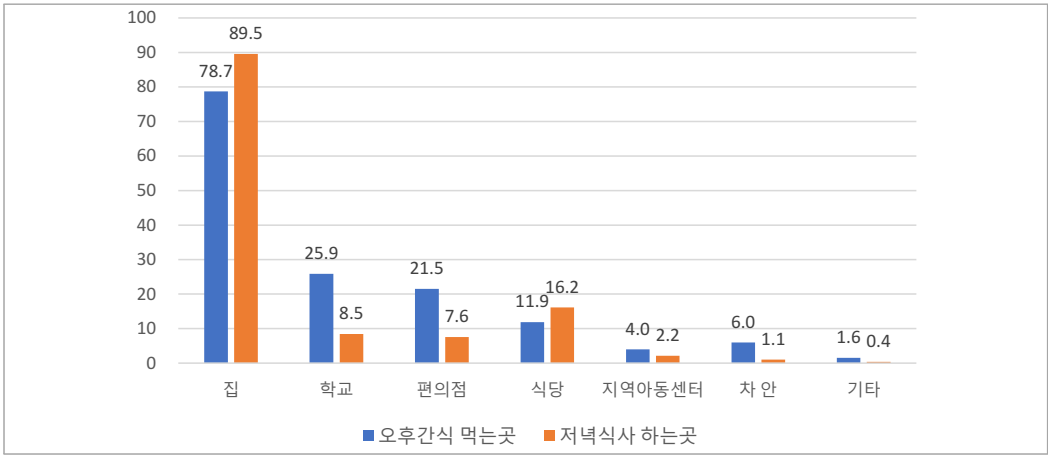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47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3~4학년)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게임 및 동영상 시청 시간이 많은 경우, 하루평균 차량 탑승 시간이 60분 이상인 경우 수면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차량 탑승 시간은 초등학생 자녀의 스크린 타임이나 수면 시간 등과 관련이 있어, 균형적인 생활시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 사례수는 3,000명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 (단위: 시간)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오후 간식을 먹는 곳은 집이 78.7%로 가장 많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곳도 집이 89.5%로 나타났다. 다만, 오후 간식은 집 외에 학교와 편의점이 각각 25.9%, 21.5%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집 외에 저녁 식사를 하는 곳은 식당이 16.2%로 높은 편이었다.



주: 1) 사례수는 오후간식 먹는 곳은 2,998명, 저녁 식사 하는 곳은 3,000명임
2)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오후 간식 및 저녁 식사 장소 (%)

오후 간식을 먹는 장소가 학교라는 응답은 공적 돌봄을 이용하거나 맞벌이가구인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고학년(3~4학년)이거나 맞벌이가구에서는 편의점의 응답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오후 간식을 먹는 장소 중 기타 응답으로는 학원이 가장 많았으며, 놀이터와 같은 야외 장소도 있었다.

〈표 3-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주로 오후간식을 먹는 장소 (최대 2곳 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집	학교	편의점	식당	지역아동센터	차 안	기타	사례수
전체		78.7	25.9	21.5	11.9	4.0	6.0	1.6	2,998
학년[1]	저학년(1~2학년)	77.9	32.5	14.7	11.5	4.2	7.1	1.7	1,484
	고학년(3~4학년)	79.4	19.5	28.1	12.3	3.8	4.9	1.4	1,514
지역	대도시	77.9	29.3	20.5	12.3	4.7	6.7	0.9	1,134
	중소도시	80.4	23.4	21.6	11.9	2.7	6.1	2.1	1,364
	읍·면·특수지역	75.6	24.9	23.3	11.1	6.0	4.1	1.8	500
맞벌이[2]	맞벌이	75.2	30.0	23.9	11.7	4.9	5.9	1.7	2,111
	비맞벌이	86.9	16.2	15.6	12.4	1.7	6.2	1.3	887
공적돌봄[3]	이용	73.9	33.6	22.0	13.0	5.8	5.9	1.1	2,048
	미이용	88.8	9.3	20.3	9.6	0.1	6.2	2.6	950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고밀-근거리통학	87.5	21.7	19.1	10.4	1.8	4.2	2.2	710
	고밀-원거리통학	80.3	25.8	21.1	11.4	3.6	7.5	1.8	1,285
	저밀-근거리통학	75.0	25.8	22.7	12.1	6.5	4.0	0.7	608
	저밀-원거리통학	63.2	34.1	24.9	16.2	5.3	7.3	1.3	395
가족과 함께 식사	월 3~4회 이하	53.2	32.5	34.0	19.8	4.7	6.7	-	199
	1주 2~3회	68.2	34.6	25.3	18.7	5.9	6.1	1.0	427
	1주 4~5회	74.7	27.0	25.3	16.9	5.3	6.4	0.9	553
	거의 매일	85.1	22.8	18.0	8.0	3.1	5.8	2.1	1,819

주: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응답은 제외하고 분석함(n=2,998명)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임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하는 횟수가 적을수록 저녁 식사를 집 외의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가족과 월 3~4회 이하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편의점(26.4%)이나 학교(21.6%)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에도 저녁 식사를 집에서 하는 응답이 적었으며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 중 기타 응답으로는 조부모님댁이 가장 많았다.

〈표 3-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주로 저녁식사를 하는 장소 (최대 2곳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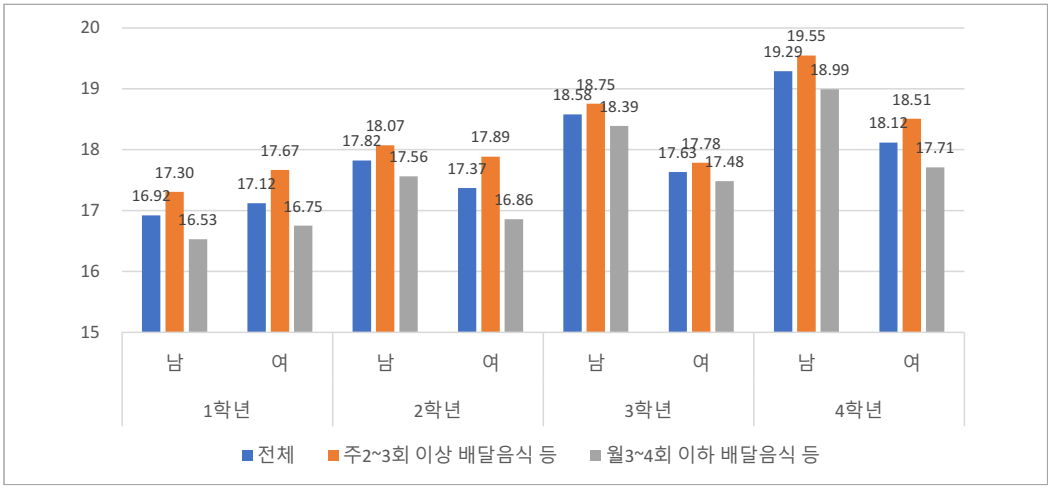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집	학교	편의점	식당	지역아동센터	차 안	기타	사례수
전체		89.5	8.5	7.6	16.2	2.2	1.1	0.4	3,000
학년[1]	저학년(1~2학년)	89.3	9.2	6.9	17.1	2.2	1.5	0.3	1,485
	고학년(3~4학년)	89.6	7.9	8.2	15.4	2.2	0.8	0.5	1,515
지역	대도시	89.9	9.6	7.0	17.3	2.5	0.9	0.5	1,135
	중소도시	90.1	8.0	7.1	16.3	1.6	1.3	0.3	1,365
	읍·면·특수지역	87.0	7.5	10.3	13.4	3.2	1.1	0.5	500
맞벌이[2]	맞벌이	88.8	9.4	8.4	16.0	2.7	1.1	0.5	2,113
	비맞벌이	91.1	6.5	5.5	16.6	1.1	1.3	0.3	887
공적돌봄[3]	이용	86.4	11.3	9.2	17.4	3.1	1.2	0.4	2,095
	미이용	96.1	2.6	4.1	13.7	0.3	1.0	0.4	905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고밀-근거리통학	96.0	5.2	3.6	14.5	0.6	0.5	0.5	711
	고밀-원거리통학	91.7	8.2	6.4	16.5	1.9	0.9	0.4	1,286
	저밀-근거리통학	88.6	7.8	8.3	15.0	3.1	1.1	0.3	609
	저밀-원거리통학	71.7	16.8	17.2	20.2	4.7	3.2	0.6	395
가족과 함께 식사	월 3~4회 이하	57.4	21.6	26.4	22.9	4.7	4.5	-	199
	1주 2~3회	74.1	17.0	18.5	20.8	4.4	2.5	0.4	427
	1주 4~5회	86.3	13.3	9.5	20.1	3.1	1.3	0.2	553
	거의 매일	97.6	3.7	2.4	13.2	1.2	0.4	0.5	1,822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임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중복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나. 자녀의 신체 발달

일반적으로 신체 발달을 측정하는 지표로 체질량지수(BMI)를 측정한다. 체질량지수는 자신의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BMI는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8.5 이하는 '저체중', 18.5 초과 23.0 이하는 '정상', 23.0 초과 25.00 이하는 '과체중', 25.00 초과는 '비만'으로 구분한다.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BMI는 학년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높아졌으며 1학년은 여학생이 BMI가 더 높으나 2학년부터는 남학생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 2~3회 이상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는 경우 BMI가 높게 나타났다.



주: 1) 사례수는 총 3,000명임 2) BMI = 체중(kg)/신장제곱(㎡)
3) '주 2~3회 이상 배달음식 등'은 주 2~3회 이상(1주일에 2~3회, 1주일에 4~5회, 거의 매일) 편의점·패스트푸드, 배달음식을 먹는 경우이며 '월 3~4회 이하 배달음식 등'은 편의점·패스트푸드, 배달음식을 월 1~2회 이하, 월 3~4회 이하 먹는 경우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BMI (%)

2. 초등학생 자녀 돌봄 욕구

초등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돌봄과 교육을 함께 담당하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비해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 오히려 더 빨라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몇 살부터 자녀를 혼자 두어도 되는지(혼자 있을 수 있는지), 혹은 혼자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나 합의된 사회적 인식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초등학생의 방과후 돌봄은 자녀의 학년(연령), 부모의 근로, 근린 환경 등에 따라 자녀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나 혼자 이동할 수 있는지 등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돌봄 필요나 욕구가 달라진다. 이에 초등학생 자녀 돌봄 욕구는 이와 같은 요인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학기 중 돌봄 욕구

학년, 지역, 맞벌이 여부,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른 돌봄 필요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지역은 $p<.05$ 수준에서, 학년과 맞벌이 여부,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74.3%가 학기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25.7%는 공적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특히, 저학년(1~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82.2%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고학년(3~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66.6%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역 유형별로는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이지만, 대도시에서 77.0%로 약간 더 높은 돌봄 필요성을 보이는데, 이는 대도시의 맞벌이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의 경우 82.3%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비맞벌이 가정에서는 55.2%만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맞벌이 가정이 비맞벌이 가정보다 돌봄 필요성이 훨씬 높음을 보여준다.

근린환경으로서 생활인프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 방법 및 소요 시간을 조합하여 활용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돌봄 욕구를 조사한 결과,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학기 중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4%로 가장 적었고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학기 중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2.5%로 가장 많았다.

〈표 3-1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 중 돌봄 필요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사례수
전체		74.3	25.7	100.0	3,000
학년[1] (x^2=95.92***)	저학년(1~2학년)	82.2	17.8	100.0	1,485
	고학년(3~4학년)	66.6	33.4	100.0	1,515
지역 (x^2=8.71*)	대도시	77.0	23.0	100.0	1,135
	중소도시	71.9	28.1	100.0	1,365
	읍·면·특수지역	75.0	25.0	100.0	500
맞벌이[2] (x^2=240.57***)	맞벌이	82.3	17.7	100.0	2,113
	비맞벌이	55.2	44.8	100.0	887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34.69***)	고밀-근거리통학	67.4	32.6	100.0	711
	고밀-원거리통학	74.2	25.8	100.0	1,286
	저밀-근거리통학	77.4	22.6	100.0	609
	저밀-원거리통학	82.5	17.5	100.0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학기 중 돌봄에 대해, 아침과 저녁 돌봄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역시 학년(x^2=39.17, $p<.001$), 지역(x^2=10.05, $p<.01$), 맞벌이 여부(x^2=116.85, $p<.001$)와 근린밀도와 통학거리(x^2=33.20, $p<.001$)에서 교차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년(1~2학년), 대도시, 맞벌이 가정,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맞벌이 여부는 돌봄 필요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아침과 저녁 모두에서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 중 아침 돌봄 필요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사례수
전체		33.8	66.2	100.0	3,000
학년[1] (x^2=39.17***)	저학년(1~2학년)	39.3	60.7	100.0	1,485
	고학년(3~4학년)	28.4	71.6	100.0	1,515
지역 (x^2=10.05**)	대도시	37.2	62.8	100.0	1,135
	중소도시	32.3	67.7	100.0	1,365
	읍·면·특수지역	30.2	69.8	100.0	500
맞벌이[2] (x^2=116.85***)	맞벌이	39.8	60.2	100.0	2,113
	비맞벌이	19.4	80.6	100.0	887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33.20***)	고밀-근거리통학	25.0	75.0	100.0	711
	고밀-원거리통학	36.3	63.7	100.0	1,286
	저밀-근거리통학	35.6	64.4	100.0	609
	저밀-원거리통학	38.9	61.1	100.0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학기 중 아침 돌봄 필요 시간을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시와 8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비율이 각각 32.1%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저학년(1~2학년)과 고학년(3~4학년) 모두 비슷한 패턴을 보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역 유형별로는 대도시에서 비교적 늦은 시간인 8시 이후에 돌봄이 필요한 비율이 높았고, 중소도시와 읍·면·특수지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간인 7시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x^2=22.08, p<.01). 가구 유형별로는 비맞벌이 가정에서는 8시 이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x^2= 9.78, p<.05). 또한,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서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이른 시간인 7시 전부터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x^2=28.63, p<.001).

〈표 3-1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중 아침 돌봄 필요 시작 시간

(단위: %, 명)

구분		7시 이전	7시	7시 이후 8시 이전	8시 이후	계	사례수
전체		12.1	32.1	23.3	32.4	100.0	1,015
학년[1] (x^2=0.69)	저학년(1~2학년)	12.5	32.7	23.1	31.7	100.0	584
	고학년(3~4학년)	11.6	31.1	23.7	33.6	100.0	431
지역 (x^2=22.08**)	대도시	10.2	27.3	23.0	39.6	100.0	422
	중소도시	14.7	34.4	24.0	26.9	100.0	442
	읍·면·특수지역	9.9	39.1	22.5	28.5	100.0	151
맞벌이[2] (x^2=9.78*)	맞벌이	11.6	32.3	25.0	31.1	100.0	843
	비맞벌이	14.5	31.4	15.1	39.0	100.0	172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28.63***)	고밀-근거리통학	8.0	33.5	27.9	30.5	100.0	178
	고밀-원거리통학	9.3	35.0	24.0	31.6	100.0	466
	저밀-근거리통학	15.1	26.3	24.3	34.3	100.0	217
	저밀-원거리통학	21.0	29.7	14.6	34.7	100.0	153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학기 중 저녁 돌봄은 아침 돌봄에 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으며 세부 집단별로는 아침 돌봄과 마찬가지로 학년(x^2=28.91, $p<.001$), 지역(x^2=19.12, $p<.001$), 맞벌이 여부(x^2=169.16,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x^2=34.07,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년(1~2학년), 대도시, 맞벌이 가정인 경우 상대적으로 저녁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비맞벌이이거나 근린 생활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저녁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1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중 저녁 돌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사례수
전체		44.8	55.2	100.0	3,000
학년[1] (x^2=28.91***)	저학년(1~2학년)	49.8	50.2	100.0	1,485
	고학년(3~4학년)	40.0	60.0	100.0	1,515
지역 (x^2=19.12***)	대도시	49.7	50.3	100.0	1,135
	중소도시	42.8	57.2	100.0	1,365
	읍·면·특수지역	39.4	60.6	100.0	500
맞벌이[2] (x^2=169.16***)	맞벌이	52.5	47.5	100.0	2,113
	비맞벌이	26.6	73.4	100.0	887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34.07***)	고밀-근거리통학	35.6	64.4	100.0	711
	고밀-원거리통학	46.6	53.4	100.0	1,286
	저밀-근거리통학	48.2	51.8	100.0	609
	저밀-원거리통학	50.4	49.6	100.0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학기 중 저녁 돌봄 필요 시간 분석에서는 저녁 돌봄 종료 시간을 기준으로 18시 후 19시까지와 19시 이후까지 돌봄이 필요한 비율이 각각 36.6%와 29.7%로 가장 높았다. 저녁 돌봄 필요 시간에 있어서도 학년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19시 이후까지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32.4%로 많았고(x^2=15.80, $p<.05$) 맞벌이 가정의 경우 비맞벌이 가정에 비해 비교적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비율이 높았다(x^2=12.51, $p<.01$).

〈표 3-1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기 중 저녁 돌봄 필요(종료 시간)

(단위: %, 명)

구분		18시 이전	18시	18시 이후 19시	19시 이후	계	사례수
전체		13.1	20.6	36.6	29.7	100.0	1,345
학년[1] (x^2=3.25)	저학년(1~2학년)	11.8	21.2	36.2	30.8	100.0	740
	고학년(3~4학년)	14.7	19.8	37.1	28.4	100.0	606
지역 (x^2=15.80*)	대도시	14.2	18.1	40.1	27.7	100.0	564
	중소도시	13.7	21.9	32.0	32.4	100.0	584
	읍·면·특수지역	8.1	23.4	40.6	27.9	100.0	197
맞벌이[2] (x^2=12.51**)	맞벌이	11.9	19.8	38.1	30.2	100.0	1,109
	비맞벌이	18.6	24.2	30.1	27.1	100.0	236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13.94)	고밀-근거리통학	15.2	25.8	37.8	21.2	100.0	253
	고밀-원거리통학	13.5	19.5	37.0	30.0	100.0	599
	저밀-근거리통학	12.3	19.4	35.1	33.2	100.0	294
	저밀-원거리통학	10.4	19.0	36.1	34.5	100.0	199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나. 방학 중 돌봄 욕구

방학 중 돌봄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63.8%가 돌봄이 필요하며, 36.2%는 돌봄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학년(x^2=15.96, p<.001)과 맞벌이 여부(x^2=290.99,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년(1~2학년)은 67.3%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고학년(3~4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방학 중 돌봄 필요성을 보였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73.5%가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비맞벌이 가정에서는 40.7%만이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방학 중 돌봄 필요는 지역이나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다.

〈표 3-1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사례수
전체		63.8	36.2	100.0	3,000
학년[1] (x^2=15.96***)	저학년(1~2학년)	67.3	32.7	100.0	1,485
	고학년(3~4학년)	60.3	39.7	100.0	1,515
지역 (x^2=1.76)	대도시	64.6	35.4	100.0	1,135
	중소도시	62.6	37.4	100.0	1,365
	읍·면·특수지역	65.4	34.6	100.0	500
맞벌이[2] (x^2=290.99***)	맞벌이	73.5	26.5	100.0	2,113
	비맞벌이	40.7	59.3	100.0	887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0.51)	고밀-근거리통학	62.8	37.2	100.0	711
	고밀-원거리통학	64.2	35.8	100.0	1,286
	저밀-근거리통학	64.3	35.7	100.0	609
	저밀-원거리통학	63.5	36.5	100.0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표 3-16〉과 〈표 3-17〉은 각각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학부모의 돌봄 필요성을 평일과 주말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이다. 방학 중 돌봄 필요성은 평일과 주말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난다.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의 99.5%가 평일에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방학 중 주말에는 5.8%만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는 자녀의 방학에도 부모들은 근로하기 때문에 방학 중 주중에 학교 수업을 대체할 공적 돌봄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방학 중 평일 돌봄 필요 여부는 거의 모든 세부 집단에서 99% 이상의 매우 높은 필요를 보이고 있어 학년이나 지역, 맞벌이 여부,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와 같은 여러 특성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표 3-1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평일 돌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사례수
전체		99.5	0.5	100.0	1,914
학년[1] (x^2=0.24)	저학년(1~2학년)	99.4	0.6	100.0	1,000
	고학년(3~4학년)	99.6	0.4	100.0	914
지역 (x^2=0.70)	대도시	99.3	0.7	100.0	733
	중소도시	99.5	0.5	100.0	854
	읍·면·특수지역	99.7	0.3	100.0	327
맞벌이[2] (x^2=0.82)	맞벌이	99.5	0.5	100.0	1,553
	비맞벌이	99.2	0.8	100.0	36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6.75)	고밀-근거리통학	99.8	0.2	100.0	446
	고밀-원거리통학	99.6	0.4	100.0	826
	저밀-근거리통학	99.6	0.4	100.0	392
	저밀-원거리통학	98.3	1.7	100.0	250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러나 방학 중 주말 돌봄 필요 여부에서는 학년(x^2=7.49, $p<.01$)과 근린밀도와 통학여부(x^2=16.86,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저학년(1~2학년)의 방학 중 주말 돌봄 필요 욕구가 고학년(3~4학년)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근린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방학 중 주말 돌봄 필요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주말 돌봄 필요 여부

(단위: %, 명)

구분		필요	불필요	계	사례수
전체		5.8	94.2	100.0	1,914
학년[1] (x^2=7.49**)	저학년(1~2학년)	7.2	92.8	100.0	1,001
	고학년(3~4학년)	4.3	95.7	100.0	914
지역 (x^2=0.94)	대도시	6.4	93.6	100.0	733
	중소도시	5.3	94.7	100.0	854
	읍·면·특수지역	5.8	94.2	100.0	327
맞벌이[2] (x^2=0.06)	맞벌이	5.9	94.1	100.0	1,553
	비맞벌이	5.5	94.5	100.0	362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16.86***)	고밀-근거리통학	3.8	96.2	100.0	446
	고밀-원거리통학	4.7	95.3	100.0	826
	저밀-근거리통학	7.6	92.4	100.0	392
	저밀-원거리통학	10.2	89.8	100.0	250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부모에게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요일'을 조사한 후 돌봄 필요 일수를 산출한 결과,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76.1%가 방학 중 일주일에 5일 동안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평균 4.56일의 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중 돌봄 일수에 대한 응답 결과는 학년, 지역,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응답이지만, 학년(t=3.73, $p<.001$), 맞벌이 여부(t=2.49, $p<.05$), 근린밀도와 통학거리(F=13.2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평균적으로 저학년(1~2학년), 맞벌이 가정에서는 방학 중 돌봄 필요 일수가 조금 더 많았으며, 근린 생활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방학 중 돌봄 필요 일수가 조금 더 많았다.

〈표 3-1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일수(1주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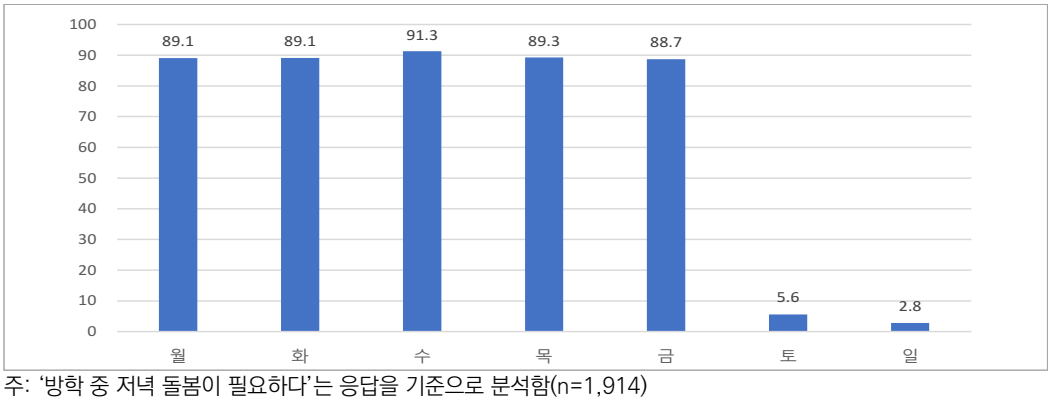
(단위: %, 명, 일)

구분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계	사례수	평균
전체		3.8	6.2	6.6	3.2	76.1	2.3	1.8	100.0	1,914	4.56
학년[1] (t=3.73***)	저학년(1~2학년)	3.4	4.4	6.4	3.0	77.5	2.7	2.6	100.0	1,000	4.65
	고학년(3~4학년)	4.2	8.2	6.8	3.5	74.6	1.9	0.9	100.0	915	4.45
지역 (F=2.04)	대도시	4.0	6.8	8.2	4.2	72.9	1.9	2.0	100.0	733	4.49
	중소도시	4.0	5.8	5.7	2.3	78.1	2.5	1.5	100.0	855	4.58
	읍·면·특수지역	3.1	5.8	5.2	3.1	78.2	2.8	1.8	100.0	326	4.64
맞벌이[2] (t=2.49*)	맞벌이	3.5	5.8	6.2	3.0	77.1	2.4	1.9	100.0	1,554	4.59
	비맞벌이	5.0	7.8	8.0	3.9	72.0	2.2	1.1	100.0	361	4.4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F=13.22***)	고밀-근거리통학	1.8	4.3	4.6	3.6	82.2	0.8	2.6	100.0	446	4.73
	고밀-원거리통학	2.6	6.3	6.5	3.8	77.8	2.2	0.8	100.0	826	4.58
	저밀-근거리통학	4.0	5.5	7.7	2.2	74.7	3.9	1.9	100.0	392	4.58
	저밀-원거리통학	11.0	10.2	8.5	2.1	61.8	2.9	3.5	100.0	250	4.16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돌봄이 필요한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90% 내외로 나타났으며 토요일은 5.6%, 일요일은 2.8%만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주: '방학 중 저녁 돌봄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n=1,914)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요일 (중복응답, %)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 28.8%, 7시간 이상 9시간 이하가 27.0%, 9시간 초과가 23.0%, 4시간 미만이 21.2%로 나타났으며, 방학 중 하루 평균 6시간 38분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방학 중 돌봄 필요 시간은 학년(t=6.00, p<.001)과 맞벌이 여부(t=5.35,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F=7.29,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방학 중 돌봄 필요 시간이 길게 나타났다.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에는 방학 중 돌봄 필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는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경우 적은 시간이라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1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학 중 돌봄 필요 시간

(단위: %, 명, 시간)

구분		4시간 미만	7시간 미만	9시간 이하	9시간 초과	계	사례수	평균시간
전체		21.2	28.8	27.0	23.0	100.0	1,914	6:38
학년[1] (t=6.00***)	저학년(1~2학년)	17.1	26.8	29.1	27.0	100.0	1,000	7:03
	고학년(3~4학년)	25.6	31.1	24.6	18.7	100.0	914	6:11
지역 (F=0.40)	대도시	23.5	25.8	25.9	24.8	100.0	733	6:38
	중소도시	19.1	30.8	27.8	22.4	100.0	854	6:42
	읍·면·특수지역	21.4	30.6	27.2	20.8	100.0	327	6:31
맞벌이[2] (t=5.35***)	맞벌이	19.6	28.2	27.1	25.1	100.0	1,552	6:49
	비맞벌이	27.9	31.8	26.2	14.1	100.0	362	5:52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F=7.29***)	고밀-근거리통학	20.4	30.5	26.8	22.3	100.0	446	6:34
	고밀-원거리통학	17.9	30.8	27.1	24.3	100.0	826	6:49
	저밀-근거리통학	20.9	25.9	26.7	26.5	100.0	392	6:53
	저밀-원거리통학	33.3	24.6	27.2	14.9	100.0	250	5:49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3.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실태

가. 평상시 돌봄 실태

초등학생 자녀가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은 학원이 64.6%로 가장 많았고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도 46.7%로 이용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포함)은 33.6%로, 방과후학교와 함께, 상당히 많은 학생이 학교 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9.0%), 다함께돌봄센터(7.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6.0%), 지자체 돌봄센터(5.2%)와 같은 학교 밖 기관들도 학생들에게 이용되고 있으나, 각각의 비율이 10%에 미치지 못한다(중복 응답 문항임).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나 학원 모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5.6%였다. 늘봄학교는 6.6%가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는 늘봄학교가 2024년 3월 말 기준 전체 초등학교 중 46% 정도만 운영되고 있었고(늘봄·방과후 중앙지원포털 홈페이지, 2024), 도입 단계이므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과 늘봄학교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2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과후 이용 기관

(단위: %, 명)

방과후 이용기관		비율	사례수
학교 안	초등돌봄교실(방과후연계형돌봄교실 포함)	33.6	1,008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46.7	1,401
	늘봄학교	6.6	199
학교 밖	지역아동센터	9.0	269
	다함께돌봄센터	7.7	230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6.0	179
	지자체 돌봄센터	5.2	156
학원		64.6	1,939
미이용		5.6	167

주: 중복 응답으로 합계가 100%를 초과하며, 총 사례수는 3,000명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표 3-21〉은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이용 유형을 보여준다. 각 유형의 이용 비율을 통해 다양한 방과후 돌봄 및 학습 환경을 파악할 수 있다. 약 44.3%의 학생들이 여러 유형(학교 안과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 학교 안 공적 돌봄기관과 학원, 학교 밖 공적 돌봄 기관과 학원, 학교 안과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과 학원)의 기관을 함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교 안에서의 공적 돌봄과 학원 조합이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방과후학교나

초등돌봄교실, 늘봄학교 등 학교 안에서의 공적 돌봄 서비스와 함께 학원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학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26.1%로 높게 나타났고, 학교 안 공적 돌봄만 이용하는 경우도 21.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교 밖 공적 돌봄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방과후 기관 이용 유형은 학년(χ^2=163.20, p<.001)과 지역(χ^2=39.65, p<.001), 맞벌이 여부(χ^2=170.24,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χ^2=228.44,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저학년(1~2학년)인 경우와 맞벌이 가구인 경우 고학년(3~4학년)이나 비맞벌이와 비교하면 학교 안 공적 돌봄만 이용하거나 학교 안 공적 돌봄과 학원을 함께 이용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고 고학년(3~4학년)이거나 비맞벌이인 경우 상대적으로 학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방과후에 이용 기관이 없는 경우도 비맞벌이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서는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공적 돌봄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가장 적었으며 학교 안 공적 돌봄과 학원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와 학원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학교 안 공적 돌봄이나 학교 밖 공적 돌봄만 단독으로 이용하는 경우, 학교 안 공적 돌봄과 학교 밖 공적 돌봄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아 공적 돌봄 이용 비율이 전체 세부집단 중 가장 높았으나 학원만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전체 응답에서 가장 많은 돌봄 유형인 학교 안 공적 돌봄과 학원을 병행하는 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표 3-2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과후 기관 이용 유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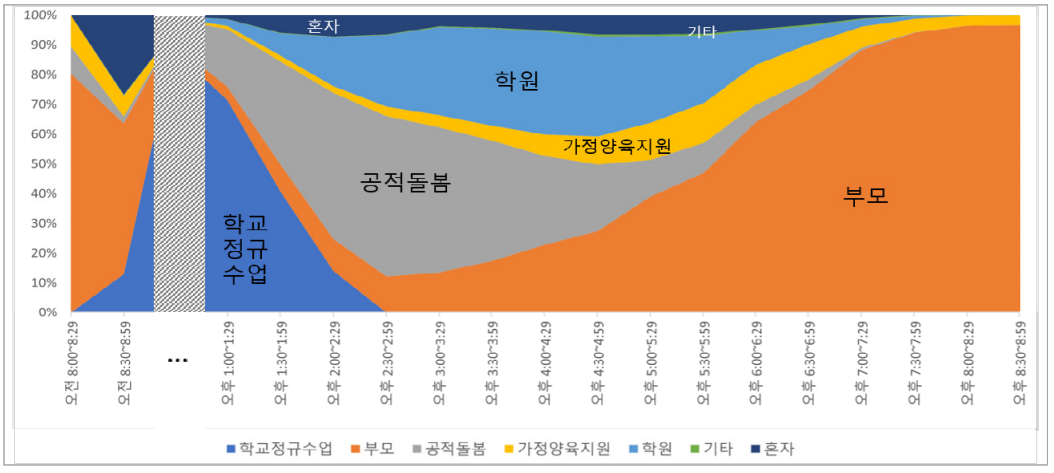
구분		학교 안 공적 돌봄(A)	학교 밖 공적 돌봄(B)	학원(C)	A+C(D)	B+C(E)	A+B(F)	A+B+C(G)	미이용(H)	계	사례수
전체		21.1	2.9	26.1	32.4	1.2	5.8	4.9	5.6	100.0	3,000
학년[1](χ²=153.20***)	저학년(1~2학년)	25.9	2.2	17.4	36.6	1.2	6.4	5.9	4.3	100.0	1,485
	고학년(3~4학년)	16.5	3.6	34.6	28.2	1.2	5.2	4.0	6.8	100.0	1,515
지역(χ²=39.65***)	대도시	22.5	2.8	21.7	33.1	1.1	6.6	6.7	5.4	100.0	1,135
	중소도시	19.8	2.6	29.9	32.5	1.4	5.0	3.9	5.0	100.0	1,365
	읍·면·특수지역	21.7	3.8	25.9	30.4	0.9	6.1	3.7	7.5	100.0	500
맞벌이[2](χ²=170.24***)	맞벌이	22.5	3.0	21.5	35.0	1.5	7.0	5.9	3.6	100.0	2,113
	비맞벌이	17.7	2.5	37.1	26.2	0.6	3.0	2.5	10.4	100.0	887

구분		학교 안 공적 돌봄(A)	학교 밖 공적 돌봄(B)	학원 (C)	A+C (D)	B+C (E)	A+B (F)	A+B+C (G)	미이용 (H)	계	사례수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 228.44***)	고밀-근거리통학	16.9	0.9	35.2	36.8	0.4	2.7	2.3	4.9	100.0	711
	고밀-원거리통학	21.5	1.9	26.0	34.9	1.2	4.7	4.3	5.6	100.0	1,286
	저밀-근거리통학	21.2	3.9	22.3	30.4	2.0	6.8	7.2	6.2	100.0	609
	저밀-원거리통학	27.4	8.3	16.0	19.5	1.3	13.3	8.2	5.9	100.0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을 살펴보면, 등교 전은 주로 부모가 돌보나 혼자 있는 비율도 약간 높은 편이며,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방과후에는 공적 돌봄서비스와 학원의 이용 비율이 높은데 공적 돌봄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학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인다. 오후 늦은 시간이나 저녁 시간으로 갈수록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이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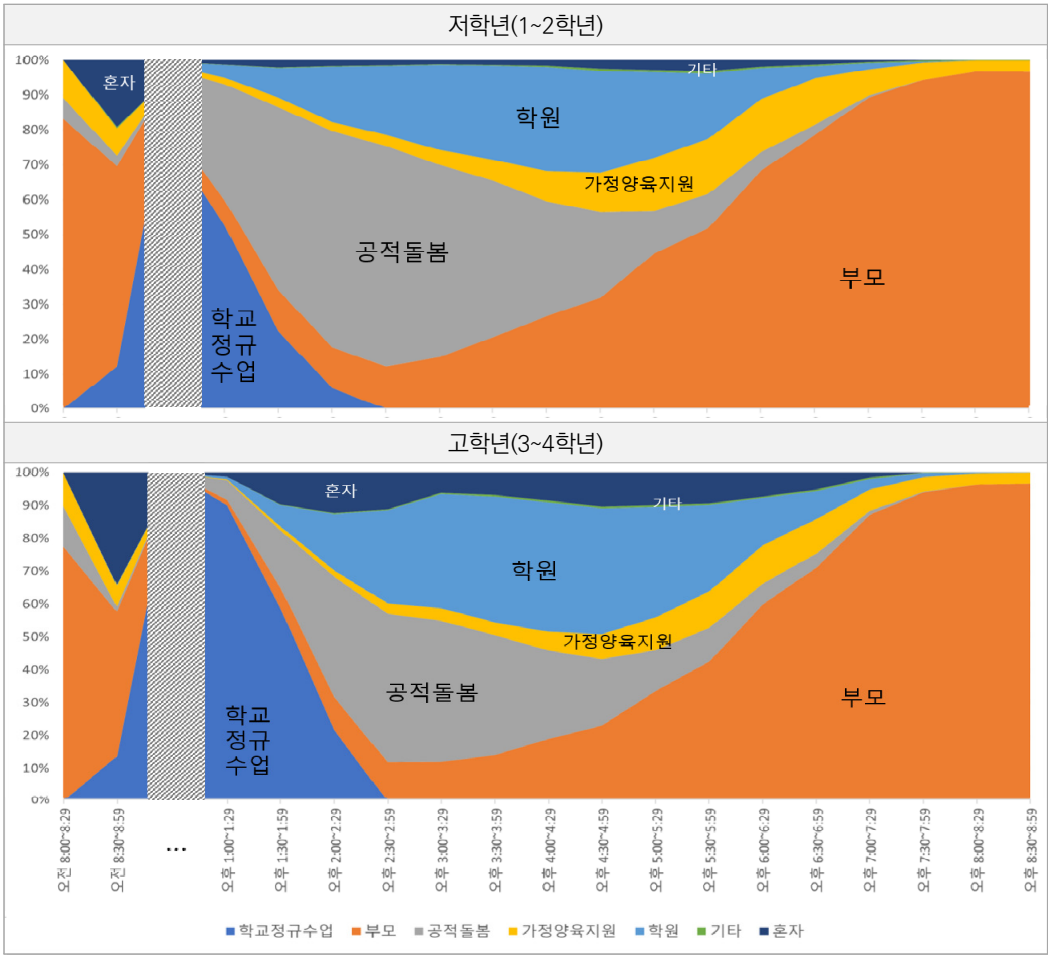


주: 1)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2) 가정양육지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3) 기타: 육아공동체, 방문학습지·방문과외, 기타 포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전체 (%)

이를 저학년(1~2학년)과 고학년(3~4학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1~2학년은 정규수업이 일찍 끝나므로 상당수가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적 돌봄서비스에서 학원으로 옮겨가는 형태를 보였다. 고학년(3~4학년)은 정규수업 시간이 조금 더 길었으며 정규수업 후 공적 돌봄서비스와 학원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하고, 학원을 조금 더 늦은 시간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등교 전이나 정규수업 종료 후에 혼자 있는 비율은 고학년(3~4학년)에서 저학년(1~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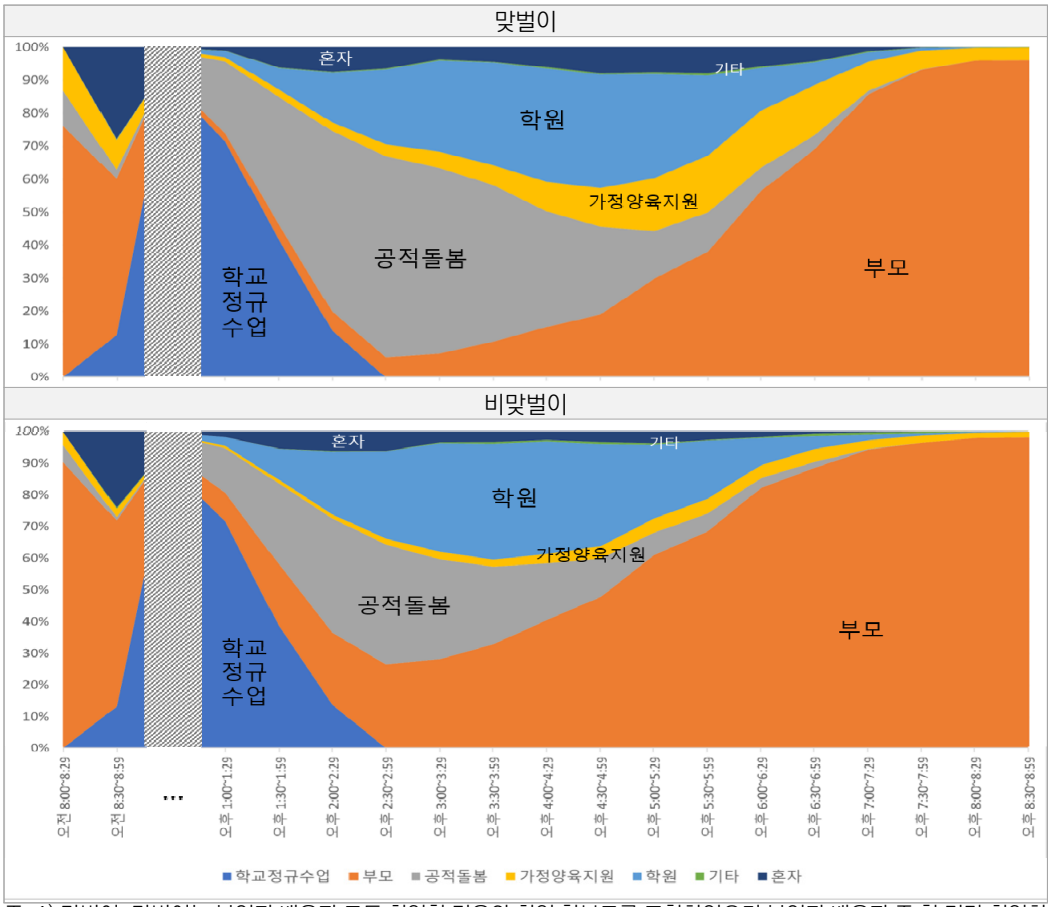


주: 1)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2) 가정양육지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3) 기타: 육아공동체, 방문학습지·방문과외, 기타 포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학년별 (%)

다음으로, 가구 유형별로 시간대별 돌봄 유형을 살펴보았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정규수업 이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이 비맞벌이보다 매우 높으며 공적 돌봄에서 학원과 부모 외 비공식적인 돌봄(조부모, 아이돌보미 등)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인다. 반면 비맞벌이 가정의 아동은 정규수업 이후 공적 돌봄서비스를 상대적으로 적게 이용하고 학원은 맞벌이와 비슷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원 이용 시간대가 맞벌이에 비해 조금 더 이른 시간에 시작하며 고른 시간대로 분포되어 있다. 부모 외의 비공식 돌봄을 이용하는 비율은 매우 적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부모와 함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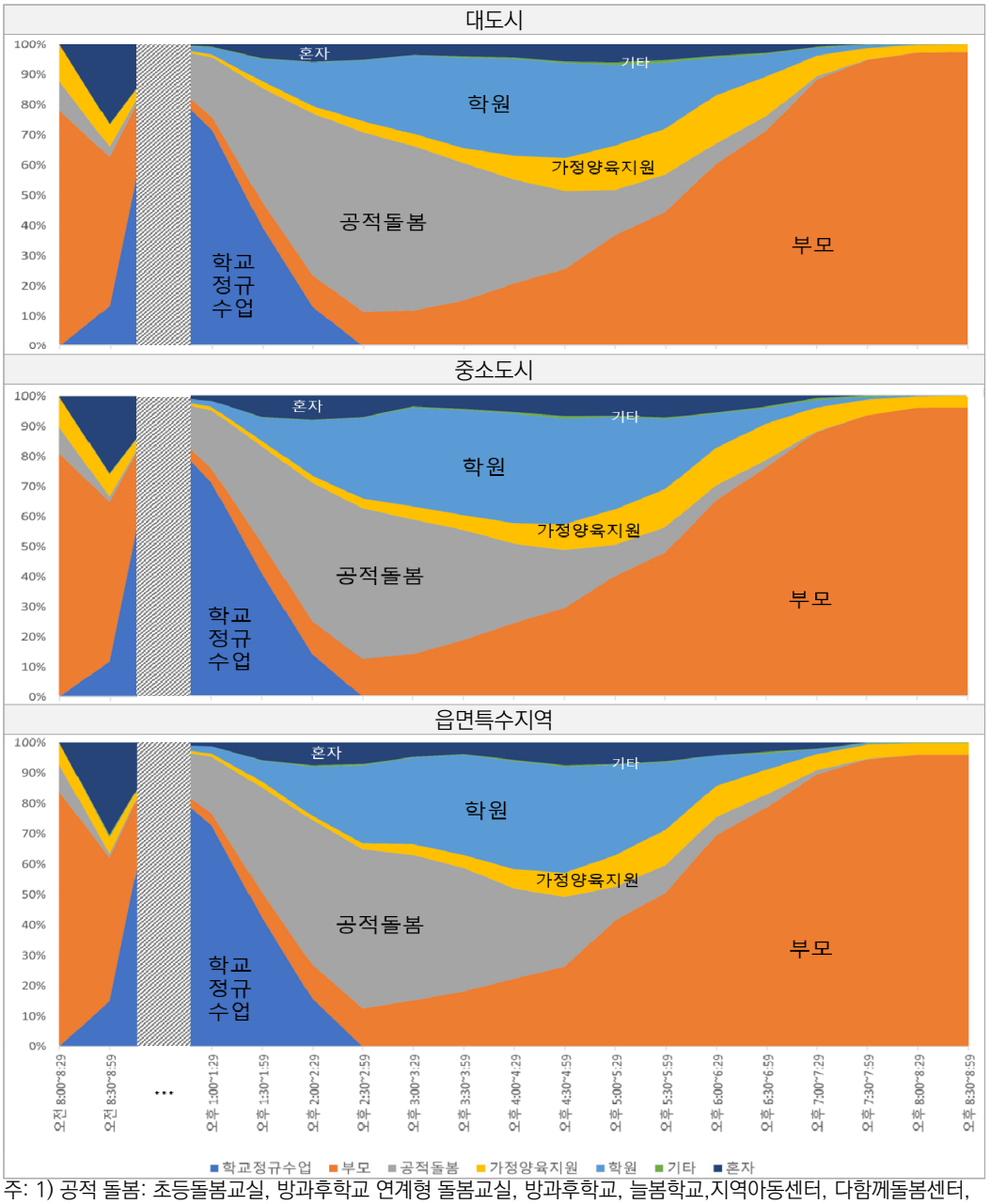


주: 1)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2)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3) 가정양육지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4) 기타: 육아공동체, 방문학습지·방문과외, 기타 포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맞벌이 여부별 (%)

거주 지역별로는 돌봄 시간대 이용에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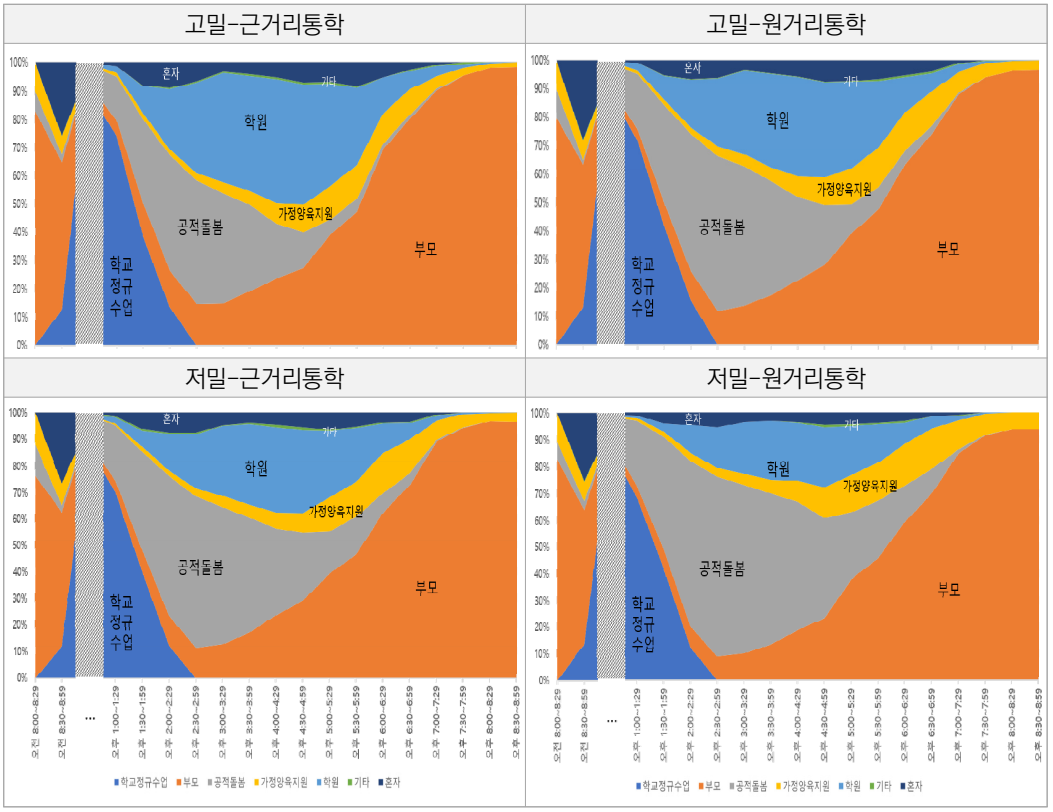


주: 1)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2) 가정양육지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3) 기타: 육아공동체, 방문학습지·방문과외, 기타 포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지역별 (%)

반면 근린환경으로서 생활인프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서는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정규수업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 공적돌봄을 이용하고 학원을 매우 많이 이용하며 혼자 있는 시간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에서는 정규수업 이후 공적 돌봄을 비교적 오랜 시간 많이 이용하며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주: 1)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2) 가정양육지원: 조부모, 기타 친인척,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3) 기타: 육아공동체, 방문학습지·방문과외, 기타 포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간대별 돌봄 유형_근린밀도와 통학거리별 (%)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59분까지의 전체적인 수업과 돌봄 방법 비중을 보면, 정규수업이 35.2%이며 부모가 32.9%,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를 포함한 학교 안 공적 돌봄이 10.6%,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와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를 포함한 학교 밖 공적 돌봄이 2.7%, 학습 관련 학원이 5.5%, 예체능 관련 학원이 4.3%,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4.2%, 혼자 있음 3.9% 등으로 나타났다.

학교 안 공적 돌봄은 저학년(1~2학년)은 13.8%, 고학년(3~4학년)은 7.4%로 학년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는 초등돌봄교실이 기본적으로 저학년(1~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학교 밖 공적 돌봄은 학교 안 공적 돌봄에 비해 매우 적지만 고학년(3~4학년)이 저학년(1~2학년)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조부모나 기타 친인척,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등 가정양육 지원 유형은 저학년(1~2학년)이 고학년(3~4학년)에 비해 많은 편이며 학습 관련 학원과 혼자 있는 경우는 저학년(1~2학년)에 비해 고학년(3~4학년)이 높게 나타났다.

〈표 3-2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년별 돌봄 이용 방법 비중

(단위: %, 명)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저학년 (1~2학년)	고학년 (3~4학년)	전체
정규수업	32.0	33.4	37.2	38.1	32.7	37.7	35.2
부모	35.2	34.7	30.6	31.1	34.9	30.9	32.9
조부모 또는 친인척	5.2	4.3	4.1	3.3	4.7	3.7	4.2
학교 안 공적 돌봄	15.6	12.3	8.7	6.3	13.8	7.4	10.6
학교 밖 공적 돌봄	2.6	2.5	3.0	2.8	2.6	2.9	2.7
학원(학습 관련)	3.7	4.4	6.2	7.5	4.1	6.9	5.5
학원(예체능)	3.6	4.9	4.5	4.1	4.3	4.3	4.3
기타 가정양육 지원	0.7	0.5	0.3	0.3	0.6	0.3	0.4
혼자 있음	1.2	2.8	5.1	6.4	2.0	5.7	3.9
기타	0.2	0.2	0.3	0.2	0.2	0.2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694	791	752	763	1,485	1,515	3,000

주: 1) 학교 안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포함
2) 학교 밖 공적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3) 기타 가정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4) 기타: 육아공동체, 방문학습지·방문과외, 기타 포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부모가 맞벌이인 가구에서 부모의 돌봄 비율은 29.4%로 나타났지만, 비맞벌이 가구에서 부모의 돌봄 비율은 41.2%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즉 맞벌이 가구는 학교 안, 학교 밖 공적 돌봄과 조부모 또는 친인척, 기타 가정양육 지원 등을 활용해 방과후에 자녀를 돌보고 있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서는 이러한 공식적, 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학원 이용은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표 3-2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가구특성별 돌봄 이용 방법 비중

(단위: %, 명)

구분	저학년(1~2학년)		고학년(3~4학년)		맞벌이	비맞벌이	전체
	맞벌이	비맞벌이	맞벌이	비맞벌이			
정규수업	32.7	32.9	37.7	37.5	35.2	35.2	35.2
부모	31.2	43.5	27.6	38.8	29.4	41.2	32.9
조부모 또는 친인척	6.0	1.7	4.6	1.6	5.3	1.7	4.2
학교 안 공적 돌봄	15.7	9.5	8.7	4.4	12.1	7.0	10.6
학교 밖 공적 돌봄	3.0	1.7	3.3	1.9	3.1	1.8	2.7
학원(학습 관련)	3.9	4.4	7.1	6.3	5.5	5.3	5.5
학원(예체능)	4.3	4.3	4.2	4.7	4.2	4.5	4.3
기타 가정양육 지원	0.7	0.3	0.4	0.2	0.5	0.2	0.4
혼자 있음	2.3	1.5	6.3	4.2	4.3	2.9	3.9
기타	0.2	0.2	0.2	0.3	0.2	0.2	0.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사례수	1,038	447	1,075	440	2,113	887	3,000

주: 1)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2) 학교 안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포함
3) 학교 밖 공적 돌봄: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돌봄센터 포함
4) 기타 가정양육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 포함
5) 기타: 육아공동체, 방문학습지·방문과외, 기타 포함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는 68.3%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년(χ^2=134.44, p<.001)이나 지역(χ^2=17.93, p<.001), 맞벌이 여부(χ^2=145.23, p<.001), 부모의 일자리 형태(χ^2=168.57, p<.001), 학기중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χ^2=1116.71,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χ^2=43.90, p<.001)에 따라 이용률에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맞벌이인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실제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특히,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실제로 85%

가 이용하고 있었으며,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이용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는 15%로 나타났다.

〈표 3-2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여부

(단위: %, 명)

구분		이용	미이용	계	사례수
전체		68.3	31.7	100.0	3,000
학년[1] (x^2=134.44***)	저학년(1~2학년)	78.3	21.7	100.0	1,485
	고학년(3~4학년)	58.6	41.4	100.0	1,515
지역 (x^2=17.93***)	대도시	72.9	27.1	100.0	1,135
	중소도시	65.2	34.8	100.0	1,365
	읍·면·특수지역	66.7	33.3	100.0	500
맞벌이[2] (x^2=145.23***)	맞벌이	74.9	25.1	100.0	2,113
	비맞벌이	52.5	47.5	100.0	888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43.90***)	고밀-근거리통학	60.0	40.0	100.0	711
	고밀-원거리통학	68.4	31.6	100.0	1,286
	저밀-근거리통학	71.5	28.5	100.0	609
	저밀-원거리통학	78.1	21.9	100.0	395
학기중 돌봄서비스 필요 여부(x^2=1116.71***)	필요	85.0	15.0	100.0	2,230
	불필요	20.0	80.0	100.0	770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자녀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 이전까지 혼자 있는 시간을 살펴본 결과, 혼자 있는 시간이 없는 경우가 55.2%로 가장 많았고, 30분이나 1시간 혼자 있는 경우가 30.6%, 1시간 30분 이상 혼자 있는 경우가 14.2%로 나타났다. 혼자 있는 시간은 학년(x^2=296.66, p<.001)이나 맞벌이 여부(x^2=31.99, p<.001), 공적 돌봄 이용 여부(x^2=73.22, p<.001)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고학년(3~4학년)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약간 많았다.

〈표 3-2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혼자 있는 시간

(단위: %, 명)

구분		없음	1시간 이하	1시간 초과	계	사례수
전체		55.2	30.6	14.2	100.0	3,000
학년[1] (x^2=296.66***)	저학년(1~2학년)	69.2	25.6	5.2	100.0	1,485
	고학년(3~4학년)	41.4	35.6	23.0	100.0	1,515
지역 (x^2=7.94)	대도시	56.6	31.4	12.0	100.0	1,135
	중소도시	54.9	29.8	15.3	100.0	1,365
	읍·면·특수지역	52.7	31.3	16.0	100.0	500
맞벌이[2] (x^2=31.99***)	맞벌이	53.0	30.6	16.4	100.0	2,113
	비맞벌이	60.4	30.8	8.8	100.0	888
공적돌봄[3] (x^2=73.22***)	이용	59.0	30.3	10.7	100.0	2,230
	미이용	46.8	31.4	21.7	100.0	770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x^2=9.85)	고밀-근거리통학	56.8	28.2	14.9	100.0	711
	고밀-원거리통학	53.2	31.8	15.0	100.0	1,286
	저밀-근거리통학	54.6	31.3	14.2	100.0	609
	저밀-원거리통학	59.4	30.3	10.3	100.0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임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평가

자녀가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 이유는 '다른 곳보다 믿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28.2%로 가장 높았고 '이용료가 적거나 없어서' 16.6%, '아동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4.1%, '학원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12.0%, '급간식을 제공해서' 8.3%,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8.1%, '자녀가 가고 싶어해서' 7.8%, '서비스 질이 좋아서' 3.6%, 기타 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돌봄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이용 이유는 학년(x^2=26.86, p<.01)과 맞벌이 여부(x^2=57.92, p<.001), 이

용하고 있는 공적 돌봄 유형(x^2=54.54, p<.001)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맞벌이인 경우에는 '다른 곳보다 믿을 수 있어서'나 '급간식을 제공해주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돌봄' 목적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비맞벌이인 경우에는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거나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등 돌봄보다는 프로그램이나 내용적인 측면의 이유가 많았다. 이용하고 있는 공적 돌봄 유형별로는 학교 안 공적 돌봄만 이용하는 경우 믿을 수 있어서,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녀가 가고 싶어해서라는 응답이 많았다.

〈표 3-2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이유

(단위: %, 명)

구분		급간식 제공	성장 발달에 도움	이용료 적거나 없음	학원과 중복이 용가능	믿을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이 좋아서	원하는 프로 그램	자녀가 가고 싶어함	기타	계	사례수
전체		8.3	14.1	16.6	12.0	28.2	3.6	8.1	7.8	1.3	100.0	2,050
학년[1] (x^2=26.86**)	저학년(1~2학년)	8.7	14.1	17.9	9.8	29.4	3.9	6.9	7.4	1.8	100.0	1,162
	고학년(3~4학년)	7.8	13.9	14.9	15.0	26.6	3.2	9.7	8.2	0.7	100.0	887
지역 (x^2=12.93)	대도시	8.9	14.6	16.3	11.9	28.8	4.5	7.8	6.1	1.1	100.0	827
	중소도시	7.7	13.5	16.6	12.1	28.2	3.0	8.9	8.6	1.4	100.0	889
	읍·면·특수지역	8.6	14.3	17.3	12.2	26.4	2.8	6.9	9.8	1.7	100.0	333
맞벌이[2] (x^2=57.92***)	맞벌이	9.1	13.1	16.5	12.6	30.4	3.5	6.8	6.4	1.5	100.0	1,584
	비맞벌이	5.6	17.4	16.8	10.0	20.5	3.7	12.7	12.4	0.8	100.0	466
공적돌봄 유형[3] (x^2=54.54***)	학교 안	7.7	13.4	16.0	10.7	29.5	3.0	9.2	9.0	1.5	100.0	1,606
	학교 밖+α	10.4	16.6	18.7	17.0	23.4	5.5	4.4	3.3	0.8	100.0	44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x^2=29.46)	고밀-근거리통학	9.3	13.6	16.5	9.8	27.3	2.4	10.9	8.5	1.6	100.0	426
	고밀-원거리통학	7.4	13.9	16.6	12.0	29.0	3.2	8.9	7.7	1.3	100.0	880
	저밀-근거리통학	7.2	15.7	16.8	13.6	27.6	4.9	6.6	7.1	0.6	100.0	436
	저밀-원거리통학	11.1	12.7	16.6	12.9	27.9	4.4	4.5	8.0	2.0	100.0	308

주: '공적 돌봄을 이용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 (n=2,050명)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공적돌봄 유형: 학교 안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중 하나만 이용하거나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이며 학교 밖+α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돌봄센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됨. 즉,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학교 밖 + α에 포함하였음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공적 돌봄서비스를 알게 된 경로는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보낸 안내문(가정통신문 등)'이 49.3%로 가장 많았고, '또래 자녀의 학부모 모임' 18.4%, '가족, 친구, 이웃 등' 11.6%, '텔레비전 또는 신문에 나온 방송 및 홍보 자료'와 '인터넷' 10.6%,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 전화 또는 방문' 8.9% 등으로 나타났다.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인지 경로는 거주 지역(x^2=29.64, p<.01)과 인구감소지역 여부(x^2=17.36, p<.001), 이용하고 있는 공적 돌봄 유형(x^2=179.62,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x^2=43.77, p<.001)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거주 지역이 읍·면·특수지역이거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가정통신문 등의 안내문으로 알게 된 경우가 많았고 학부모 모임이나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리고 학교 안 공적 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등의 안내문이나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고, 학교 밖 공적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전화나 방문, TV나 신문,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가정통신문 등의 안내문으로 알게 된 경우가 많았으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공공기관의 전화나 방문, TV나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많았다.

〈표 3-2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인지 경로

(단위: %, 명)

구분		학부모 모임	가족, 친구, 이웃 등	공공기관 전화/ 방문	학교 등 안내문	TV,신문, 인터넷[5]	기타[6]	계	사례수
전체		18.4	11.6	8.9	49.3	10.6	1.3	100.0	2,050
학년[1] (x^2=7.69)	저학년(1~2학년)	16.5	12.4	9.3	49.6	10.7	1.4	100.0	1,162
	고학년(3~4학년)	20.9	10.5	8.2	48.8	10.5	1.1	100.0	887
지역1 (x^2=29.64**)	대도시	20.5	12.0	10.1	43.0	12.7	1.7	100.0	827
	중소도시	17.6	11.3	8.0	52.2	10.0	0.8	100.0	889
	읍·면·특수지역	15.2	11.4	8.0	56.9	7.0	1.4	100.0	333
지역2[2] (x^2=17.36**)	비인구감소지역	18.9	11.6	8.8	48.5	10.9	1.2	100.0	1,969
	인구감소지역	5.7	10.9	9.7	68.1	3.3	2.3	100.0	81
공적돌봄 유형[3] (x^2=179.62***)	학교 안	19.2	10.9	6.2	54.9	8.2	0.6	100.0	1,606
	학교 밖+α	15.4	14.1	18.5	28.9	19.4	3.7	100.0	444

구분		학부모 모임	가족, 친구, 이웃 등	공공기관 전화/ 방문	학교 등 안내문	TV,신문, 인터넷[5]	기타[6]	계	사례수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x^2=43.77***)	고밀-근거리통학	17.6	9.2	5.4	59.9	7.1	0.8	100.0	426
	고밀-원거리통학	18.5	12.4	8.2	48.7	10.8	1.3	100.0	880
	저밀-근거리통학	19.7	12.2	11.1	45.4	10.3	1.4	100.0	436
	저밀-원거리통학	17.3	11.8	12.3	41.7	15.2	1.7	100.0	308

주: '공적 돌봄을 이용한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 (n=2,050명)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공적돌봄 유형: 학교 안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중 하나만 이용하거나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이며 학교 밖+α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돌봄센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됨. 즉,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학교 밖 + α에 포함하였음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TV, 신문, 인터넷은 '텔레비전 또는 신문에 나온 방송 및 홍보자료'와 '인터넷(유튜브, 블로그, 맘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합한 것임
6) 기타는 '길거리 또는 아파트, 공공기관에 게시된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등', '통·반장의 안내', '기타'가 포함됨.
7)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운영시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3.02점, 3.04점으로 4점 척도에서 '만족'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에 한해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가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서 3.26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운영시간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는 학년이나 지역, 맞벌이 여부,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공적돌봄 유형에 따라서는 운영시간 만족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t=2.03, $p<.05$) 학교안 공적 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운영시간 만족도가 더 높았다.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분석한 돌봄 공백 해소에의 도움 정도는 학년(t=2.58, $p<.01$)과 맞벌이 여부(t=2.08, $p<.05$), 이용하고 있는 공적 돌봄 유형(t=2.64, $p<.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학교 안 공적 돌봄서비스만 이용하는 경우 돌봄 공백 해소에 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3-2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만족도 및 도움 정도

(단위: 점, 명)

구분		운영시간 만족도	프로그램 만족도	사례수 (공적돌봄이용자)	돌봄 공백 해소 도움 정도	사례수 (공적돌봄이용자 중 돌봄필요자)
전체		3.02	3.04	2,050	3.26	1,896
학년[1]	저학년(1~2학년)	3.03	3.04	1,162	3.28	1,093
	고학년(3~4학년)	3.00	3.04	887	3.22	803
	t	1.25	0.22		2.58**	
지역	대도시	3.03	3.04	827	3.27	776
	중소도시	3.01	3.04	889	3.25	811
	읍·면·특수지역	3.01	3.05	333	3.23	309
	F	0.49	0.06		0.46	
맞벌이[2]	맞벌이	3.02	3.05	1,584	3.27	1,515
	비맞벌이	2.99	3.02	466	3.20	381
	t	1.09	1.28		2.08*	
공적돌봄 유형[3]	학교 안	3.03	3.05	1,606	3.27	1,465
	학교 밖+α	2.97	3.00	444	3.19	431
	t	2.03*	1.91		2.6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고밀-근거리통학	3.04	3.06	426	3.29	387
	고밀-원거리통학	3.01	3.05	880	3.26	814
	저밀-근거리통학	3.01	3.05	436	3.26	404
	저밀-원거리통학	3.01	2.99	308	3.19	291
	F	0.27	1.47		1.92	

주: 운영시간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는 '공적 돌봄을 이용한다'는 응답(n=2,050명)을 기준으로 분석, 공적돌봄 해소 도움 정도는 '공적 돌봄을 이용한다'는 응답 중 '학기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n=1,896명)을 기준으로 분석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공적돌봄 유형: 학교 안은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중 하나만 이용하거나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이며 학교 밖+α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돌봄센터 중 하나 이상을 이용하는 경우는 모두 포함됨. 즉,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학교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 학교 밖 + α에 포함하였음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1점 ~ '매우 만족' 4점이며, 도움 정도는 '전혀 도움이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4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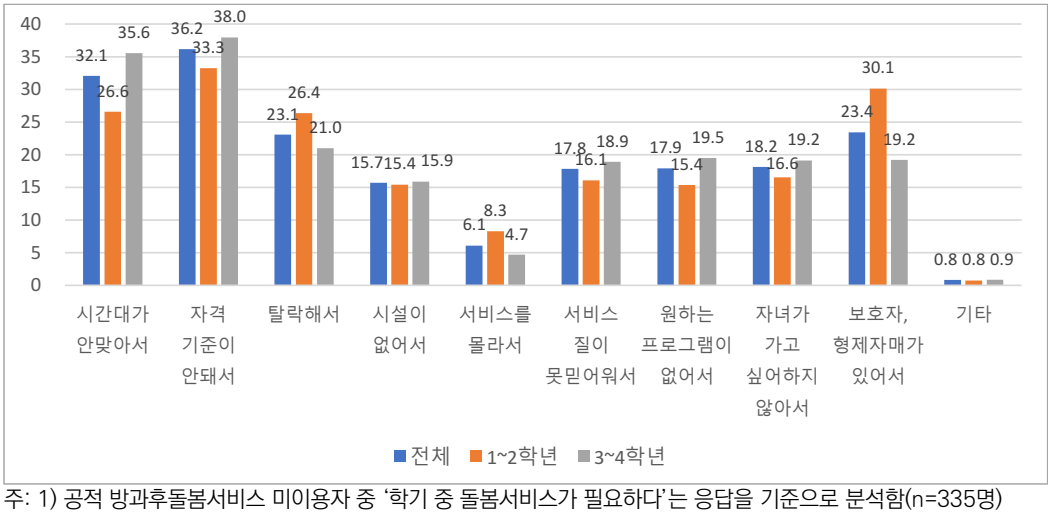
6)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다.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 사유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 중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36.2%,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32.1%,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 친척)가 있어서'나 '방과 후에 집에 형제자매가 같이 있어서' 23.4% '이용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2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학년(1~2학년)은 고학년(3~4학년)에 비해 '방과후에 집에 보호자나 형제자매가 같이 있어서'라는 응답이나 '이용 신청을 했는데 탈락해서',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고학년(3~4학년)은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나 '이용 시간대가 안 맞아서', '서비스 질에 믿음이 가지 않거나,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거나, 자녀가 가고 싶어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 1)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자 중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n=335명)
2)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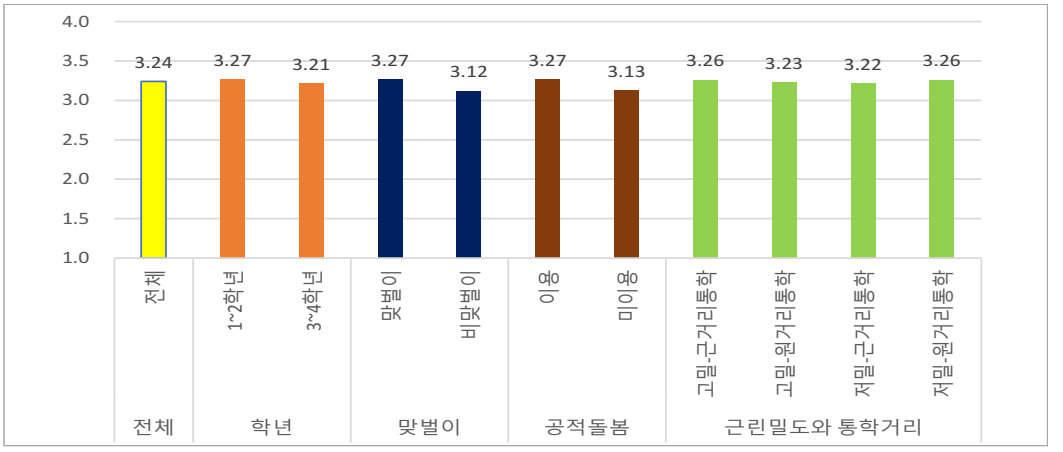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미이용 이유 (%)

라. 학원의 돌봄 공백 해소 도움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자녀가 학습이나 예체능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학원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서 평균 3.24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원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는지는 맞벌이 여부(t=3.74,

p<.001)와 공적 돌봄 이용 여부(t=3.39,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맞벌이인 경우,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학원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 1) 자녀가 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 중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n=1,339명)
2) 평균 점수는 '전혀 도움이 안됨' 1점 ~ '매우 도움됨' 4점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학원 이용이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된 정도 (점)

마. 긴급 및 일시 돌봄 실태

지난 한 달간 자녀의 질병 등의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못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적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있었다'는 응답이 32.8%로 나타났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을 때 긴급하게 자녀를 주로 돌봐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동의 조부모가 44.4%, 아동의 부모가 42.6%, 기타 친인척이나 이웃이 6.3%,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가 5.6%, 기타가 1.1%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은 돌봐준 사람 없이 자녀 혼자 있었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자녀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했던 경험은 자녀의 학년(χ^2=16.00, p<.001)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χ^2=101.81,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χ^2=15.10, p<.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자녀가 저학년(1~2학년)인 경우와 맞벌이가구인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자녀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했던 경험이 더 많았다.

〈표 3-29〉 지난 한 달간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질병 등으로 돌봄 필요 경험과 돌봐준 사람

(단위: %, 명)

구분		질병등 돌봄필요		돌봐준 사람						
		경험 있음	사례수	아동의 부모	아동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이웃	아이돌보미 등[4]	기타	계	사례수
전체		32.8	3,000	42.6	44.4	6.3	5.6	1.1	100.0	983
학년[1] (x^2=16.00***)	저학년(1~2학년)	36.2	1,485	41.1	44.3	5.9	7.9	0.8	100.0	538
	고학년(3~4학년)	29.4	1,515	44.4	44.5	6.8	2.9	1.4	100.0	445
지역 (x^2=4.23)	대도시	34.2	1,135	39.4	48.4	5.4	6.0	0.8	100.0	389
	중소도시	30.8	1,365	44.1	42.3	7.1	5.6	0.8	100.0	421
	읍·면·특수지역	34.6	500	46.2	40.2	6.5	4.9	2.1	100.0	173
맞벌이[2] (x^2=101.81***)	맞벌이	38.3	2,113	40.1	46.6	6.1	6.1	1.2	100.0	810
	비맞벌이	19.4	887	54.7	33.9	7.5	3.4	0.6	100.0	172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15.10**)	고밀-근거리통학	28.7	711	48.4	41.6	4.4	4.1	1.7	100.0	204
	고밀-원거리통학	34.2	1,286	41.6	46.6	5.1	5.3	1.4	100.0	440
	저밀-근거리통학	30.3	609	40.3	43.4	11.6	4.7	-	100.0	185
	저밀-원거리통학	39.0	395	40.5	42.8	6.2	9.9	0.6	100.0	154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아이돌보미 등에는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가 포함됨
5) * p<.05, ** p<.01, *** p<.001 이며, x^2는 돌봄 필요 여부에 대한 값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지난 한 달간 출장이나 야근,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적이 있었는지 조사한 결과, 그러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이 36.2%로 나타났고, 이때 자녀를 돌봐준 사람은 아동의 조부모가 47.8%, 아동의 부모 31.5%, 기타 친인척이나 이웃 12.7%, 아이돌보미나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가 4.5%, 다함께 돌봄센터 1.2%, 기타 2.4%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도 기타 응답은 주로 아이가 혼자 있었다거나 아이의 형제자매와 함께 있었다는 응답이었다.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 필요 경험도 자녀의 학년(x^2=17.42, p<.001)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x^2=132.17,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x^2=19.28,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맞벌이 가구인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더 많았다.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날은 지난 한 달(조사시점에 따라 3월 11일~5월19일 정도) 기준으로 1회가 28.7%, 2회 41.0%, 3회 17.2%, 4회 이상 13.1%로 나타났다.

〈표 3-30〉 지난 한 달간 출장, 야근 등으로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돌봄 필요 경험과 돌봐준 사람

(단위: %, 명)

구분		야근 등 돌봄필요		돌봐준 사람							
		경험 있음	사례수	아동의 부모	아동의 조부모	기타 친인척, 이웃	아이돌보미 등[4]	다함께 돌봄 센터	기타	계	사례수
전체		36.2	3,000	31.5	47.8	12.7	4.5	1.2	2.4	100.0	1,085
학년[1] (x^2=17.42***)	저학년(1~2학년)	39.9	1,485	32.3	47.1	11.4	5.2	1.7	2.4	100.0	592
	고학년(3~4학년)	32.6	1,515	30.6	48.7	14.2	3.6	0.5	2.4	100.0	493
지역 (x^2=0.91)	대도시	36.2	1,135	29.2	52.4	11.1	4.2	1.5	1.6	100.0	411
	중소도시	35.9	1,365	29.9	46.3	15.1	4.8	1.1	2.8	100.0	490
	읍·면·특수지역	36.9	500	40.8	41.7	9.8	4.1	0.5	3.0	100.0	185
맞벌이[2] (x^2=132.17***)	맞벌이	42.7	2,113	30.8	49.5	11.5	4.7	1.4	2.1	100.0	903
	비맞벌이	20.6	887	34.8	39.5	18.4	3.3	-	4.0	100.0	18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19.28***)	고밀-근거리통학	32.5	711	33.3	47.9	12.2	2.1	1.9	2.7	100.0	231
	고밀-원거리통학	37.8	1,286	32.4	49.3	10.5	4.3	0.9	2.6	100.0	486
	저밀-근거리통학	32.1	609	28.2	48.4	15.8	4.6	1.2	1.8	100.0	196
	저밀-원거리통학	43.7	395	30.4	42.8	15.9	7.8	0.9	2.1	100.0	172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아이돌보미 등에는 아이돌보미,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가 포함됨
5) * p<.05, ** p<.01, *** p<.001 이며, x^2는 돌봄 필요 여부에 대한 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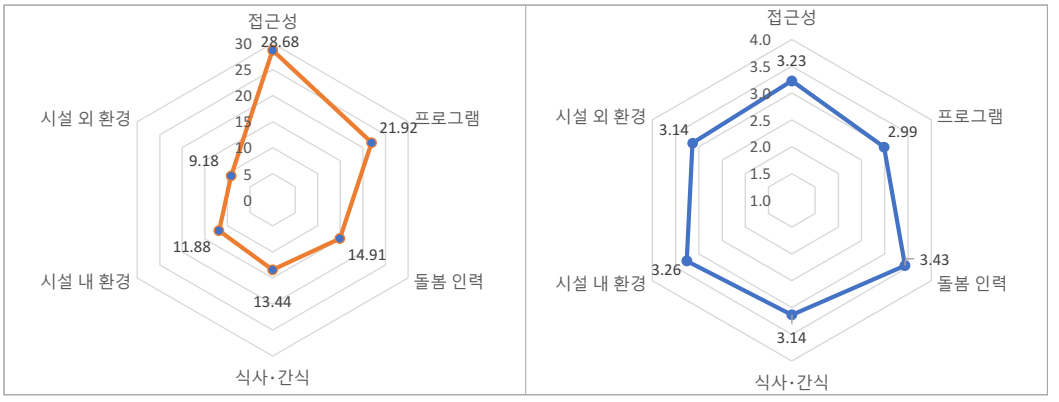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구성 항목인 접근성과 프로그램, 돌봄 제공 인력, 급·간식 제공 여부와 질, 시설 내부 환경, 시설 외부 환경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한 결과, 각 항목의 합을 100%로 하여 배분한 결과는 접근성이 28.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프로그램 21.92%, 돌봄 인력 14.91%,

식사·간식 13.44%, 시설 내 환경 11.88%, 시설 외 환경 9.18%의 순으로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구성 항목별 세부 5개 항목에 대한 4점 척도의 중요도 평균은 돌봄 인력이 3.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설 내 환경 3.26점, 접근성 3.23점으로 나타났으며, 프로그램은 2.9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접근성을 측정하는 세부 항목 중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여부'가 모든 세부 항목에서 중요도가 가장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 1) 사례수는 3,000명임
2) 왼쪽 그래프는 각 항목의 합계를 100%로 하였을 때의 응답이며 오른쪽 그래프는 각 항목 내 5개 문항 응답의 평균 점수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은 1점, '매우 중요함'은 4점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시 항목별 중요도 (%, 점)

6개 항목에 대한 집단별 차이 검증 결과, 맞벌이인 경우 비맞벌이에 비해 접근성(t=5.13, p<.001)과 식사·간식(t=3.83, p<.001)을 더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를 데려다주지 못하고 간식을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t=2.14, p<.05)과 시설 내 환경(t=2.86, p<.01) 및 시설 외 환경에 대하여 자녀가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더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이용자에 비해 접근성(t=2.44, p<.05)과 프로그램(t=4.13, p<.001)의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 한편, 돌봄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더 중요도를 더 높게 평가하였다(t=-3.25, p<.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로 고밀 지역(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인 경우 각 항목별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각 항목별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이는 돌봄서비스를 근린 생활인프라로 대체하기 어려운 환경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3-3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과후 공적 돌봄서비스 이용 시 항목별 중요도

(단위: 점, 명)

구분		접근성	프로그램	돌봄인력	식사·간식	시설 내 환경	시설 외 환경	사례수
전체		3.23	2.99	3.43	3.14	3.26	3.14	3,000
학년[1]	저학년(1~2학년)	3.24	3.01	3.44	3.15	3.28	3.16	1,485
	고학년(3~4학년)	3.21	2.96	3.42	3.12	3.23	3.12	1,515
지역	대도시	3.22	3.00	3.40	3.12	3.24	3.12	1,135
	중소도시	3.24	2.98	3.46	3.15	3.28	3.15	1,365
	읍·면·특수지역	3.22	2.97	3.43	3.12	3.23	3.14	500
맞벌이[2]	맞벌이	3.26	2.99	3.43	3.16	3.26	3.13	2,113
	비맞벌이	3.16	2.97	3.44	3.08	3.26	3.14	887
공적돌봄[3]	이용	3.24	3.01	3.41	3.14	3.25	3.15	2,095
	미이용	3.19	2.92	3.48	3.12	3.26	3.11	905
근린밀도와 통학거리[4]	고밀-근거리통학	3.27	2.98	3.52	3.12	3.31	3.18	711
	고밀-원거리통학	3.26	3.00	3.47	3.18	3.28	3.16	1,286
	저밀-근거리통학	3.20	2.99	3.38	3.13	3.23	3.12	609
	저밀-원거리통학	3.09	2.96	3.24	3.03	3.13	3.01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3)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임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접근성: 주중 이용 가능 시간, 주말·공휴일 이용 가능 여부, 방학 중 이용 가능 시간, 자녀 혼자갈 수 있는지, 거주지·학교 주변에 있는지 여부 5개 항목의 평균점수임
6) 프로그램: 숙제 지도, 교과목 보충학습 지도,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체험활동 프로그램, 쉬는 시간 혹은 노는 시간 5개 항목의 평균점수임
7) 돌봄인력: 자격요건, 아동을 대하는 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과의 의사소통, 1인당 담당하는 아동수 5개 항목의 평균 점수임
8) 식사·간식: 오후 간식, 저녁 식사, 방학 중 점심 식사, 조리 및 제공 관련 위생상태, 식사 및 간식의 질 5개 항목의 평균 점수임
9) 시설 내 환경: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충분한 면적, 교재나 교구 구비, 안전, 안전사고 관련 환경 5개 항목의 평균 점수임
10) 시설 외 환경: 건물 유형, 인접 가게의 업종, 노후 정도, 주변 환경, 실외놀이터 등 실외 환경 5개 항목의 평균 점수임.
11) '전혀 중요하지 않음' 1점 ~ '매우 중요함' 4점임
12)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p<.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임(학년, 맞벌이, 공적돌봄은 t검정, 지역,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4. 근린 환경과 초등학생 자녀 돌봄 인프라

가.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인식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인식을 4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거주 지역과 거주 주택 유형,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비해 읍·면·특수지역인 경우 동네 보행환경이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 기회에 대한 점수가 낮았으며, 위해 환경은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 위해 환경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동네의 보행환경이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 기회를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모두 낮게 평가하였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대단지 아파트일수록 동네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는 동네 아파트 비율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보행환경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 기회에 대해 더 높게 평가하였다. 동네의 전반적 경사도가 낮을수록 보행환경이 좋았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놀이 기회도 좋았고 위해 환경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 고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 저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의 순서대로 거주하는 동네에 대해 4가지 항목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표 3-32〉 거주하는 동네에 대한 평가

(단위: 점, 명)

구분		보행환경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기회	위해환경	사례수
전체		2.89	2.84	2.88	2.33	3,000
지역	대도시	2.89	2.85	2.88	2.39	1,135
	중소도시	2.92	2.86	2.91	2.29	1,365
	읍·면·특수지역	2.81	2.79	2.80	2.27	500
주택 유형	1000세대이상아파트	2.98	2.90	2.97	2.27	814
	300~1000세대미만 아파트	2.95	2.89	2.92	2.33	1312
	300세대미만 아파트	2.78	2.77	2.79	2.38	445
	아파트 외	2.65	2.66	2.65	2.37	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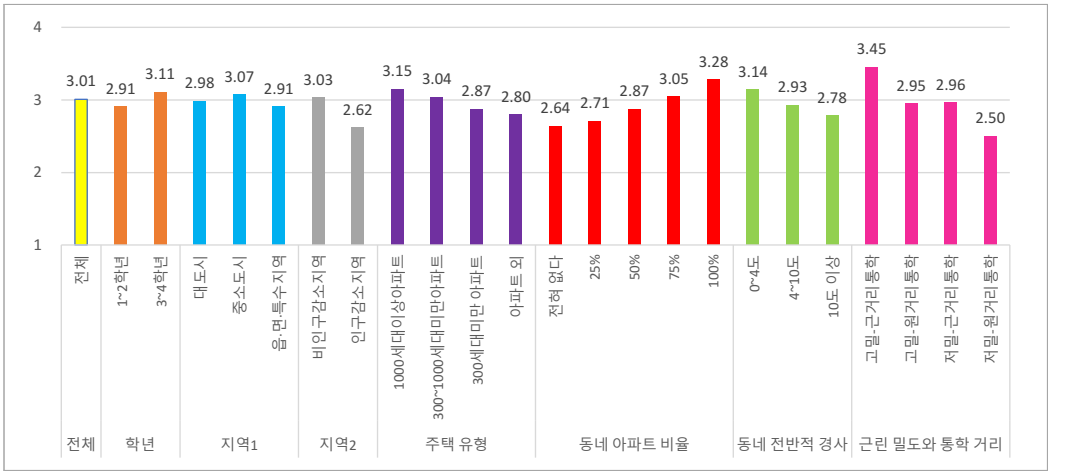
구분		보행환경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기회	위해환경	사례수
동네 아파트 비율	전혀 없다	2.62	2.71	2.68	2.42	86
	25%	2.60	2.63	2.62	2.39	439
	50%	2.80	2.83	2.82	2.45	479
	75%	2.94	2.88	2.92	2.30	1,301
	100%	3.08	2.94	3.02	2.23	696
동네 전반적 경사	0~4도	2.98	2.88	2.93	2.24	1,474
	4~10도	2.83	2.81	2.83	2.39	1,044
	10도 이상	2.74	2.79	2.80	2.44	48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고밀-근거리통학	3.12	2.97	3.06	2.18	711
	고밀-원거리통학	2.91	2.86	2.90	2.33	1286
	저밀-근거리통학	2.74	2.77	2.77	2.39	609
	저밀-원거리통학	2.64	2.69	2.65	2.47	395

주: 1)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임
2) 위해 환경은 점수가 높을수록 위해 환경이 많다는 의미임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 $p<.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나. 학교 통학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에 적당한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혼자 통학하기 적당하다는 응답이 81.5%로 높게 나타났다. 혼자 통학하기 적당한 정도는 자녀의 학년($t=-7.48$, $p<.001$)과 거주 지역($F=10.08$, $p<.001$), 인구감소지역 여부($t=5.98$, $p<.001$), 주택 유형($F=36.52$, $p<.001$)이나 동네 아파트 비율($F=57.98$, $p<.001$),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F=59.09$, $p<.001$), 학교접근성($F=355.14$,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저학년(1~2학년)인 경우, 읍·면·특수지역인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동네에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가 높을수록,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자녀 혼자 통학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부 또는 근처에 학교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 혼자 통학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 1) 사례수는 3,000명임
2)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적당한 정도 (점)

〈표 3-33〉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적당한 정도

(단위: %, 명, 점)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사례수	평균
전체		3.5	15.0	58.4	23.1	100.0	3,000	3.01
학년[1] (t=-7.48***)	저학년(1~2학년)	5.3	17.6	57.8	19.3	100.0	1,485	2.91
	고학년(3~4학년)	1.9	12.4	59.0	26.8	100.0	1,515	3.11
지역1 (F=10.08***)	대도시	1.7	15.5	65.8	17.1	100.0	1,135	2.98
	중소도시	3.5	13.7	55.1	27.7	100.0	1,365	3.07
	읍·면·특수지역	8.0	17.0	50.7	24.3	100.0	500	2.91
지역2[2] (t=5.98***)	비인구감소지역	3.3	14.5	58.4	23.8	100.0	2,881	3.03
	인구감소지역	8.6	26.9	58.6	5.9	100.0	119	2.62
주택 유형 (F=28.18***)	1000세대이상아파트	2.5	11.4	55.2	31.0	100.0	814	3.15
	300~1000세대미만 아파트	3.1	14.5	57.7	24.7	100.0	1,312	3.04
	300세대미만 아파트	4.8	17.0	64.2	14.0	100.0	445	2.87
	아파트 외	5.7	21.0	60.6	12.7	100.0	429	2.80
동네 아파트 비율 (F=57.98***)	전혀 없다	10.7	27.5	49.1	12.6	100.0	86	2.64
	25%	6.9	24.5	59.2	9.4	100.0	439	2.71
	50%	3.4	18.1	67.0	11.5	100.0	479	2.87
	75%	2.9	13.3	59.9	23.9	100.0	1,301	3.05
	100%	1.8	8.3	50.4	39.5	100.0	696	3.28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사례수	평균
동네 전반적 경사 (F=59.09***)	0~4도	2.6	12.0	53.8	31.6	100.0	1,474	3.14
	4~10도	3.5	16.9	62.7	16.8	100.0	1,044	2.93
	10도 이상	6.5	19.7	63.1	10.7	100.0	481	2.78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F=185.93***)	고밀-근거리통학	0.2	4.6	45.4	49.7	100.0	711	3.45
	고밀-원거리통학	3.8	15.4	62.7	18.1	100.0	1286	2.95
	저밀-근거리통학	0.7	17.3	67.0	14.9	100.0	609	2.96
	저밀-원거리통학	13.0	28.5	54.4	4.1	100.0	395	2.50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평균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임
5)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거리가 멀어서(28.4%), 가는 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어서(25.1%), 가는 길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어서(24.4%)가 각각 25% 내외로 많았다.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역(χ^2=37.23, $p<.001$)과 주택 유형(χ^2=29.43, $p<.001$), 동네의 아파트 비율(χ^2=50.64, $p<.001$)과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χ^2=37.39, $p<.001$), 근린밀도와 통학거리(χ^2=82.43, $p<.001$)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거리가 멀어서' 혼자 통학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읍·면·특수지역인 경우,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높은 경우,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가 낮은 경우, 원거리통학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는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는 응답은 고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는 응답은 대도시인 경우, 아파트가 아닌 지역에 사는 경우,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약간 낮은 경우, 저밀-근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인 경우 상대적으로 많았다. 인적이 드물고 으슥한 장소를 지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낮은 지역이나 동네의 경사도가 약간 높은 지역, 저밀-근거리통학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34〉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거리가 멀어 걸어다닐수 없는 거리임	가는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음	가는 길이 차도와 인도 구분이 없음	인적이 드물고으슥한 장소를 지나가야함	큰 공사장 등 위험한 장소가 있음	기타	계	사례수
전체		28.3	25.1	24.4	10.2	7.5	4.5	100.0	555
학년[1] (x^2=1.15)	저학년(1~2학년)	27.7	25.6	24.5	10.4	6.8	5.0	100.0	339
	고학년(3~4학년)	29.3	24.4	24.2	9.8	8.6	3.7	100.0	215
지역1 (x^2=37.23***)	대도시	19.1	26.9	32.8	12.5	5.3	3.4	100.0	195
	중소도시	28.7	26.6	19.9	7.6	10.6	6.6	100.0	235
	읍·면·특수지역	42.1	19.6	19.7	11.3	5.1	2.2	100.0	125
지역2[2] (x^2=7.92)	비인구감소지역	28.0	25.2	24.3	9.6	8.1	4.8	100.0	513
	인구감소지역	32.8	24.2	25.9	17.1	-	-	100.0	42
주택 유형 (x^2=29.53**)	1000세대이상아파트	29.1	26.7	23.4	6.8	11.8	2.3	100.0	113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29.5	28.8	19.0	8.3	7.8	6.5	100.0	231
	300세대미만아파트	29.0	23.7	24.1	13.1	4.6	5.4	100.0	97
	아파트 외	24.6	17.4	36.4	14.8	5.2	1.6	100.0	114
동네 아파트 비율 (x^2=50.64***)	전혀 없다	27.6	13.5	28.0	22.8	8.2	-	100.0	33
	25%	23.5	16.0	36.5	14.7	7.5	1.8	100.0	138
	50%	24.1	24.7	27.2	10.5	9.3	4.2	100.0	103
	75%	32.9	32.2	18.1	5.2	6.0	5.6	100.0	211
	100%	30.8	27.9	13.5	9.9	9.1	8.7	100.0	70
동네의 전반적 경사 (x^2=37.39***)	0~4도	37.1	25.3	18.8	4.9	6.6	7.3	100.0	215
	4~10도	22.1	27.5	29.1	11.0	7.7	2.6	100.0	214
	10도 이상	23.9	20.8	25.9	17.8	8.8	2.8	100.0	126
근린밀도와 통학거리[3] (x^2=82.43***)	고밀-근거리통학	10.3	42.3	29.3	2.4	13.0	2.8	100.0	34
	고밀-원거리통학	35.4	29.6	15.3	7.0	5.9	6.8	100.0	247
	저밀-근거리통학	5.3	24.8	40.5	16.1	10.3	3.0	100.0	110
	저밀-원거리통학	36.9	15.1	26.3	12.7	6.9	2.2	100.0	164

주: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어렵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n=555명)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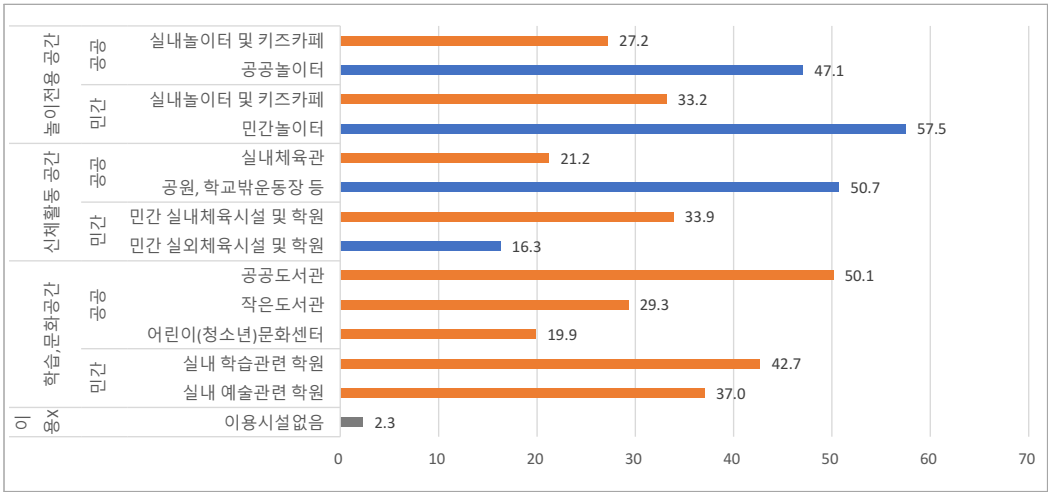
4) * p<.05, ** p<.01, *** p<.00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다. 동네 이용 시설의 종류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아파트 단지 등에 있는 민간 실외놀이터가 57.5%로 가장 많았고 공원이나 학교 밖 운동장 등 실외 공공 신체활동 공간이 50.7%, 공공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 47.1%로 실외 시설 이용 비율이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실내 시설 중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이용 비율이 50.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학습 관련 실내 학원(민간) 42.7%, 실내 예술 관련 학원(민간) 37.0%, 민간 실내 체육시설 및 학원 33.9%의 순으로 학원 이용이 많았다.

공공시설 중 가장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어린이 및 청소년 문화센터였고 민간 시설 중 가장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민간 실외 체육시설 및 학원으로, 두 기관 모두 다른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 1) 파란색은 실외 공간이며 주황색은 실내 공간임
2) 사례수는 3,000명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은 특히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이나 동네의 아파트 비율,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아파트가 아닌 주택에 거주하거나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가장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대체로 모든 시설의 이용률이 낮았다. 특히, 민간 부문의 시설 이용률도 크게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는 민간 시설 자체가 아파트 비율이 낮은 지역 등에는 들어서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가 저학년(1~2학년)인 경우 고학년(3~4학년)에 비해 실내 공공 및 민간 놀이터나 키즈카

페와 같은 놀이 전용 공간 이용률이 높았고 고학년(3~4학년)은 상대적으로 학습 관련 학원 이용률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체로 읍·면·특수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각종 시설 이용률이 낮았으며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는 전반적으로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자녀에 비해 학습 관련 민간 학원과 예술 관련 민간 학원 이용률이 매우 높았고, 민간 놀이터 이용률도 높았다. 공적 돌봄을 이용하는 자녀는 민간 놀이터와 민간 학습 및 예술 관련 학원 이외의 다른 시설에 대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공공 및 민간의 각종 놀이전용 공간이나 신체활동 공간, 학습 및 문화공간 등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는 2.3%로 나타났으나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동네에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이용 시설이 없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표 3-35〉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시설별 이용률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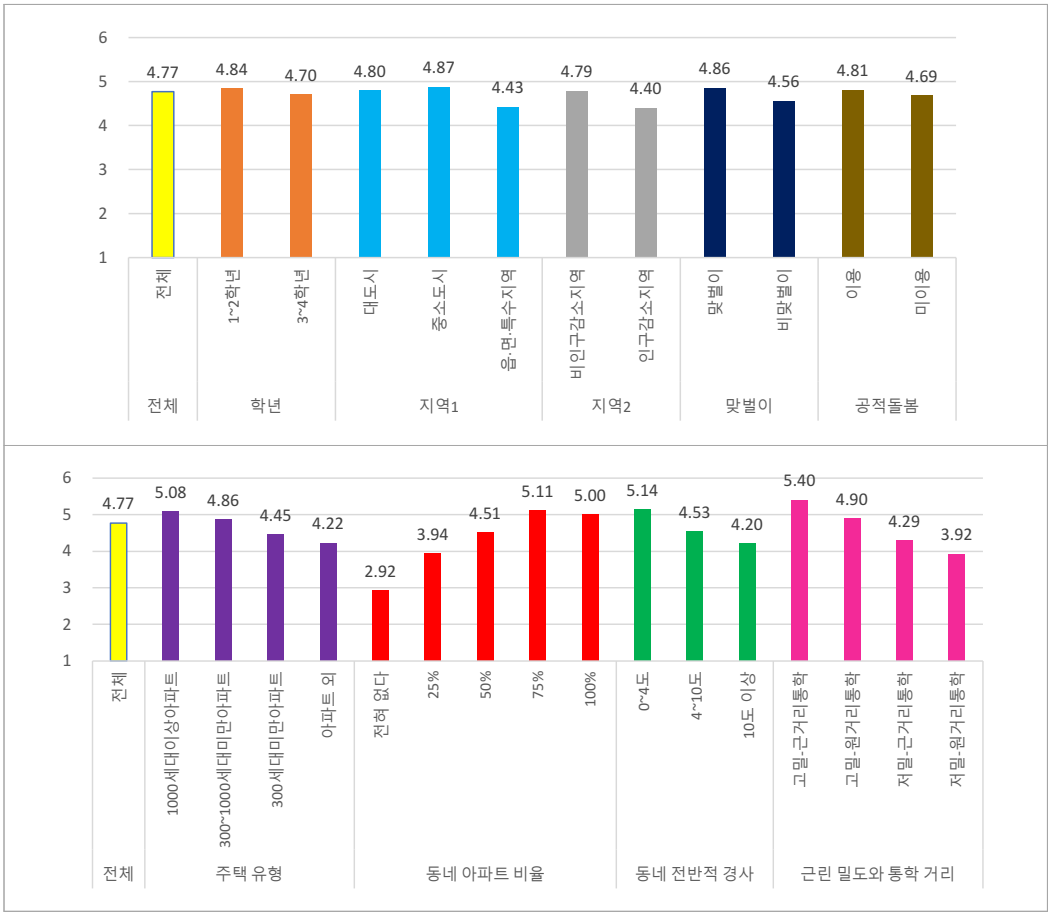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놀이전용 공간				신체활동 공간				학습·문화공간					이용 시설 없음	사례 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실내 놀이터·키즈 카페	공공 놀이터	실내 놀이터·키즈 카페	민간 놀이터	실내 체육관	공원, 학교밖 운동장 등	실내 체육 시설·학원	실외 체육 시설·학원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문화센터	학습 관련 학원	예술 관련 학원		
전체		27.2	47.1	33.2	57.5	21.2	50.7	33.9	16.3	50.1	29.3	19.9	42.7	37.0	2.3	3,000
학년[1]	저학년(1~2학년)	30.9	47.8	38.0	58.7	20.5	50.0	35.5	16.8	49.1	29.7	21.5	35.8	36.5	2.8	1,485
	고학년(3~4학년)	23.6	46.3	28.4	56.3	22.0	51.5	32.4	15.8	51.2	28.9	18.3	49.5	37.6	1.8	1,515
지역1	대도시	28.9	46.3	34.9	54.8	23.8	50.9	32.9	16.5	47.7	30.8	22.0	44.3	35.6	2.2	1,135
	중소도시	26.5	49.1	34.4	60.0	19.7	52.2	36.3	16.4	53.5	28.7	19.1	44.4	39.0	1.6	1,365
	읍·면·특수지역	25.1	43.2	25.8	56.8	19.4	46.2	29.8	15.5	46.5	27.6	17.5	34.4	35.0	4.5	500
지역2[2]	비인구감소지역	27.1	47.3	33.6	57.9	21.2	51.0	34.0	16.3	50.3	29.5	19.8	43.1	37.2	2.2	2,881
	인구감소지역	28.8	42.4	23.4	48.9	21.6	44.0	31.3	15.0	46.9	25.2	22.4	32.7	34.0	5.4	119
주택 유형	1000세대 이상 아파트	28.2	46.0	35.4	66.9	19.7	55.1	35.0	17.8	56.3	31.9	20.1	49.4	41.8	0.8	814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26.8	48.3	34.3	62.2	21.7	50.1	35.9	17.1	50.3	29.6	19.1	44.5	38.7	1.5	1,312
	300세대 미만 아파트	30.0	46.4	31.5	51.8	22.8	46.7	32.2	15.0	48.6	23.6	19.1	37.1	31.0	2.0	445
	아파트 외	23.8	46.2	27.1	31.1	21.0	48.7	27.4	12.4	39.6	29.2	22.9	30.3	29.4	7.8	429

구분		놀이전용 공간				신체활동 공간				학습·문화공간					이용 시설 없음	사례 수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실내 놀이터·키즈 카페	공공 놀이터	실내 놀이터·키즈 카페	민간 놀이터	실내 체육관	공원, 학교밖 운동장 등	실내 체육 시설·학원	실외 체육 시설·학원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문화센터	학습 관련 학원	예술 관련 학원		
동네 아파트 비율	전혀 없다	24.6	30.5	19.6	13.6	17.1	27.5	9.1	8.6	21.3	16.6	14.1	12.6	13.8	21.5	86
	25%	25.7	42.9	28.3	36.2	21.4	44.5	28.0	11.5	39.9	25.3	20.7	26.7	27.1	3.9	439
	50%	29.5	46.5	31.7	49.6	22.0	45.5	30.7	15.0	46.0	31.8	21.4	38.6	29.3	3.0	479
	75%	27.7	50.3	36.5	65.7	22.1	54.2	37.1	18.8	54.9	30.7	20.0	47.4	41.4	0.9	1,301
	100%	25.9	46.2	32.7	66.4	19.4	54.6	36.9	16.5	54.2	29.0	19.0	50.6	43.4	1.2	696
동네의 전반적 경사	0~4도	26.8	49.6	34.3	62.7	20.6	53.3	35.9	16.1	53.7	30.8	19.4	48.9	43.7	3.5	1,474
	4~10도	29.4	46.9	32.6	53.5	21.7	50.5	31.5	15.8	48.1	27.3	20.6	37.6	31.8	1.3	1,044
	10도 이상	23.7	39.6	30.9	50.2	22.2	43.3	32.9	18.0	43.5	29.0	20.0	34.7	28.2	1.0	31
공적 돌봄[3]	이용	31.5	48.7	36.1	55.9	23.8	50.3	34.8	17.7	50.1	31.3	23.3	36.8	32.6	1.7	2,050
	미이용	17.9	43.7	26.9	61.0	15.7	51.6	32.0	13.3	50.1	25.0	12.5	55.4	46.6	3.7	950
근린 밀도와 통학 거리[4]	고밀-근거리통학	25.7	51.2	37.3	71.9	18.7	58.2	38.5	18.4	59.9	31.9	19.8	54.0	48.9	1.0	711
	고밀-원거리통학	27.8	47.6	34.0	62.6	22.6	52.2	36.2	17.8	51.7	29.1	19.5	45.5	38.3	1.0	1,286
	저밀-근거리통학	26.2	49.2	29.6	42.6	20.6	47.4	30.4	11.7	43.6	27.5	22.2	34.9	28.9	3.2	609
	저밀-원거리통학	29.3	34.8	28.4	37.7	22.4	37.6	23.5	14.7	37.5	28.0	17.7	25.5	24.1	7.7	3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공적 돌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임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x^2 검정 결과 $p<.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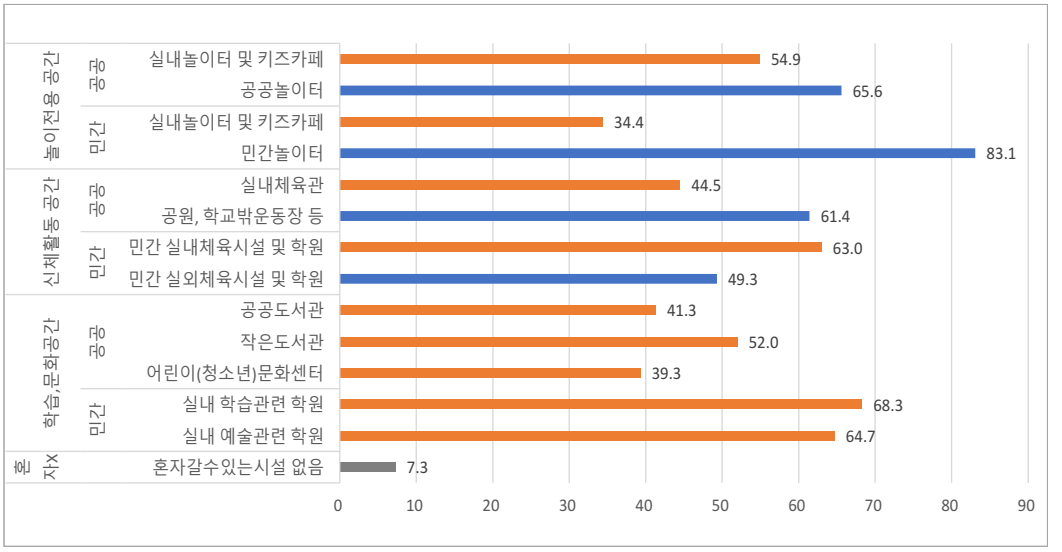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설 종류 개수는 총 13개의 시설 중 평균 4.77개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이용 시설 종류 개수는 대체로 시설 종류별 이용률 분석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가 낮을수록,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될수록 높게 나타났고 읍·면·특수지역이나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이용 시설 개수가 적게 나타났다.



주: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n=2,930명)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종류 수 (개)

한편, 동네에서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은 민간 실외 놀이터가 83.1%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공공놀이터나 민간 학습 관련 학원, 민간 예술 관련 학원, 민간 실내 체육시설 및 학원이 65% 내외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자녀 혼자 갈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시설로는 민간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나 어린이 및 청소년 문화센터, 공공도서관으로 나타났고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이 없다는 응답은 7.3%로 나타났다.



주: 1) 파란색은 실외 공간이며 주황색은 실내 공간임
2) 사례수는 각 시설별 이용자수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1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은 모든 시설에서 학년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여, 고학년(3~4학년)인 경우 저학년(1~2학년)에 비해 시설별로 혼자갈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다. 학년 외에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나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등에 따라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에 일부 차이가 나타나, 동네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혼자갈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저밀-원거리통학인 경우 혼자갈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낮았다.

〈표 3-36〉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비율 (중복응답)

(단위: %)

구분		놀이전용 공간				신체활동 공간				학습·문화공간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없음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실내 놀이터·키즈 카페	공공 놀이터	실내 놀이터·키즈 카페	민간 놀이터	실내 체육관	공원, 학교밖 운동장 등	실내체육시설·학원	실외체육시설·학원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문화센터	학습 관련 학원	예술 관련 학원	
전체		54.9	65.6	34.4	83.1	44.5	61.4	63.0	49.3	41.3	52.0	39.3	68.3	64.7	7.3
학년[1]	저학년(1~2학년)	50.9	57.2	28.5	77.2	39.1	51.2	54.8	43.4	32.3	41.6	35.0	56.0	55.6	11.2
	고학년(3~4학년)	59.9	74.0	42.1	89.0	49.4	71.1	71.9	55.4	49.8	62.5	44.2	77.0	73.4	3.4
지역1	대도시	61.6	64.6	37.5	82.1	46.2	61.0	64.5	51.1	41.6	51.5	41.3	66.9	62.3	7.0
	중소도시	51.5	65.8	32.2	84.0	43.0	61.0	61.0	47.1	42.2	52.6	36.1	69.7	66.6	6.8
	읍·면·특수지역	46.9	67.3	32.7	82.4	43.7	63.6	65.9	51.0	38.0	51.7	42.8	67.6	64.6	9.4
지역2[2]	비인구감소지역	54.6	66.1	34.6	83.2	44.4	61.4	63.3	49.5	41.5	52.3	39.4	68.6	64.9	6.9
	인구감소지역	59.6	52.2	26.2	79.2	47.1	61.3	57.0	42.6	39.0	42.6	35.9	58.5	59.9	16.5
주택 유형	1000세대이상 아파트	57.0	66.2	36.1	84.1	37.5	62.8	66.6	46.4	39.7	57.7	42.8	71.2	66.2	6.3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53.5	65.1	34.6	85.7	44.9	60.2	62.3	55.1	41.2	51.2	37.0	67.5	66.9	5.9
	300세대 미만 아파트	53.3	69.1	32.7	81.2	49.6	61.7	58.3	32.7	39.8	46.5	42.3	64.4	60.1	7.8
	아파트 외	56.6	62.2	31.5	65.7	49.8	62.0	62.9	53.2	48.1	47.4	36.7	68.0	57.0	13.2
동네 아파트 비율	전혀 없다	51.8	48.5	53.0	60.4	42.6	38.9	56.5	36.3	30.9	44.2	23.8	34.2	45.8	28.4
	25	58.4	66.0	36.4	73.3	47.5	59.4	63.2	44.9	40.6	42.0	35.0	65.9	62.2	10.7
	50	61.3	62.6	32.6	77.8	45.2	57.3	65.3	53.4	44.0	52.7	52.3	63.6	58.0	6.3
	75	51.6	65.7	32.9	84.6	43.4	61.3	62.9	50.0	39.6	53.1	37.3	67.2	64.1	5.8
	100	54.5	68.5	36.2	86.9	44.4	66.4	62.0	47.9	43.9	55.5	37.4	74.5	70.7	6.5
동네의 전반적 경사	0~4도	53.1	67.9	34.3	84.6	44.5	63.9	64.2	47.3	41.6	54.4	39.1	70.6	67.3	7.1
	4~10도	58.0	62.4	34.7	82.3	44.3	60.0	63.0	46.2	43.6	50.7	39.9	68.1	62.5	7.3
	10도 이상	52.5	65.0	34.0	78.8	45.0	55.5	59.3	60.7	34.8	47.1	38.5	58.8	57.8	7.7
근린 밀도와 통학 거리[3]	고밀-근거리통학	47.8	66.0	32.7	87.6	39.0	65.9	68.2	47.0	41.4	51.8	37.7	71.3	69.3	5.2
	고밀-원거리통학	54.9	67.0	34.7	84.0	45.9	61.3	59.4	50.7	40.9	55.2	37.2	69.0	64.5	6.5
	저밀-근거리통학	60.7	67.7	36.8	81.2	45.5	61.3	65.0	45.9	44.6	45.4	44.2	69.1	63.1	7.4
	저밀-원거리통학	57.5	53.3	33.1	65.6	46.8	49.3	62.5	53.1	37.2	51.9	40.5	51.5	52.3	13.8

주: 사례수는 각 시설 별 이용자 수임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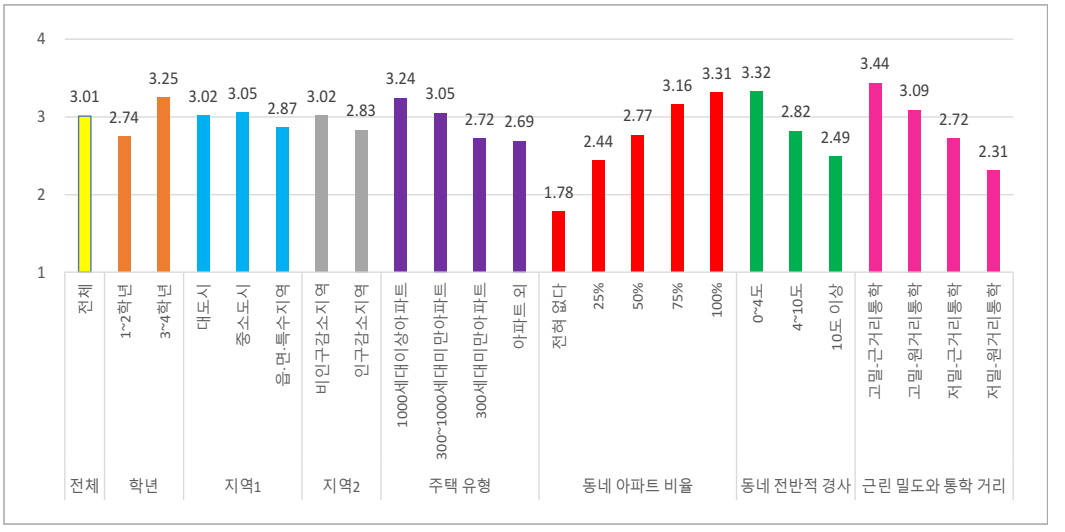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x^2 검정 결과 $p<.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 곳이라도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 평균 3개 정도의 시설에 혼자 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학년(3~4학년)은 3.25개로 저학년(1~2학년) 2.74개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주택 유형과 동네 아파트 비율, 동네 전반적 경사,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수에 차이가 나타나,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는 경우, 동네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동네의 전반적 경사도가 낮을수록,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네에 아파트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수가 1.78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주: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응답을 기준으로 분석함(n=2,710명)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2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종류 수 (개)

라. 이용 시설 간 이동

이용하고 있는 시설 간의 이동은 집과 학교 사이는 걸어서 가는 비율이 79.8%, 자가용 이용 11.4%, 셔틀버스 4.5%, 대중교통 2.7%, 자전거 1.6%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인 동행자 없는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고 부모나 조부모가 동행하는 경우가 43.6%로 나타났다. 평균 소요 시간은 10.29분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학교 밖 공적 돌봄 기관, 학교 밖 공적 돌봄 기관과 집 간의 이동은 다른 이동에 비해 자전거(7.5% 내외)나 대중교통(11~12% 정도), 자가용(13~18% 정도) 비율이 높았으며, 학교와 학원, 학원과 집 사이의 이동은 셔틀버스가 31~32%로 다른 이동에 비해 높아

학원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교와 놀이공간이나 놀이공간과 집 사이의 이동은 도보가 84~85%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성인 동행자는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성인 동행자가 없는 경우가 가장 적어, 부모나 조부모, 그 외 성인과 함께 이동하는 비율이 높았다. 소요 시간은 대부분 10분 내외로 나타났으며, 도보 이동 비율이 높은 놀이공간의 소요 시간이 8~9분 정도로 가장 짧았고 학교에서 학교 밖 공적 돌봄 기관,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에서 집으로의 이동이 약 13분 정도로 소요시간이 가장 길었다.

〈표 3-37〉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이동 방식과 성인 동행자, 소요 시간

(단위: %, 분, 명)

구분	이동수단					성인 동행자			합계	소요 시간 (분)	사례수
	도보 (걸어서)	자전거	대중교통	셔틀버스	자가용	부모 (조부모)	그 외	없음			
집↔학교	79.8	1.6	2.7	4.5	11.4	43.6	5.6	50.8	100.0	10.29	3,000
학교↔학원	58.8	1.4	1.7	31.4	6.7	22.9	25.3	51.8	100.0	10.18	1,939
학교↔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	50.9	7.8	11.0	17.4	12.8	37.2	26.4	36.4	100.0	12.91	441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집	46.5	7.3	12.5	15.9	17.9	41.4	25.9	32.7	100.0	12.82	441
학원↔집	56.2	1.4	1.9	32.0	8.5	26.9	22.4	50.7	100.0	10.41	1,939
학교↔놀이공간	83.8	1.9	1.9	4.3	8.0	38.0	7.2	54.8	100.0	8.74	2,543
놀이공간↔집	84.7	2.1	1.4	3.1	8.8	40.8	5.4	53.9	100.0	8.29	2,543

주: 1)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임
2) 놀이공간: 뛰거나 공놀이할 수 있는 실외놀이터, 공원 등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 간 이동에 대해 이동 수단별 성인 동행자는 전반적으로 이동 수단이 도보인 경우에는 성인 동행자가 없는 비율이 높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부모나 조부모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셔틀버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부모나 조부모 외 성인과 동행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8〉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이동 방식별 성인 동행자

(단위: %)

구분		집 ↔ 학교			학교 ↔ 학원			학교 ↔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 ↔ 집		
		성인동행자			성인동행자			성인동행자			성인동행자		
		(조)부모	그 외	없음	(조)부모	그 외	없음	(조)부모	그 외	없음	(조)부모	그 외	없음
이동 수단	도보	37.3	2.5	60.2	23.6	8.4	68.0	33.3	12.0	54.7	37.6	11.2	51.2
	자전거	40.4	27.7	31.9	48.1	14.8	37.0	40.0	31.4	28.6	24.2	42.4	33.3
	대중교통	40.7	32.1	27.2	36.4	27.3	36.4	22.9	43.8	33.3	25.5	41.8	32.7
	셔틀버스	25.2	41.5	33.3	7.1	58.9	34.0	18.4	67.1	14.5	18.8	66.7	14.5
	자가용	95.6	4.4	-	82.3	17.7	-	89.3	10.7	-	89.7	10.3	-

구분		학원 ↔ 집			학교 ↔ 놀이공간			놀이공간 ↔ 집			합계
		성인동행자			성인동행자			성인동행자			
		(조)부모	그 외	없음	(조)부모	그 외	없음	(조)부모	그 외	없음	
이동 수단	도보	28.3	2.9	68.8	33.5	4.3	62.2	35.9	3.0	61.0	100.0
	자전거	32.1	14.3	53.6	34.7	16.3	49.0	42.6	7.4	50.0	100.0
	대중교통	32.4	29.7	37.8	36.0	34.0	30.0	42.9	34.3	22.9	100.0
	셔틀버스	8.1	58.9	33.0	26.1	45.9	27.9	26.0	45.5	28.6	100.0
	자가용	86.1	13.9	-	92.7	7.3	-	91.5	8.5	-	100.0

주: 1)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임
2) 놀이공간: 뛰거나 공놀이할 수 있는 실외놀이터, 공원 등임
3) 사례수는 각 시설별 이용자 수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자녀의 이용 시설 간 도보 이동 비율과 성인 동행자 없이 이동하는 비율은 저학년(1~2학년)에 비해 고학년(3~4학년)이 모든 시설에서 일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아파트가 적은 지역, 동네의 경사도가 높은 지역,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 등인 경우 이용 시설 간에 걸어서 이동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동시에 이용 시설 간 이동 시 성인 동행자가 없는 경우도 적었다.

〈표 3-39〉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도보 이동 비율과 혼자 이동 비율 (1)

(단위: %)

구분		집↔학교		학교↔학교밖공적돌봄		학교밖공적돌봄↔집	
		도보	성인동행자 없음	도보	성인동행자 없음	도보	성인동행자 없음
전체		79.8	50.8	50.9	36.4	46.5	32.7
학년[1]	저학년(1~2학년)	76.6	36.0	51.3	30.3	46.8	26.4
	고학년(3~4학년)	82.9	65.3	50.5	43.1	46.2	39.6
지역1	대도시	82.8	45.8	55.1	34.3	52.2	32.6
	중소도시	81.4	54.8	46.6	38.3	41.4	34.1
	읍·면·특수지역	68.8	51.3	50.1	37.1	43.6	29.3
지역2[2]	비인구감소지역	81.0	51.6	51.2	36.5	47.2	33.2
	인구감소지역	50.1	31.9	47.0	34.4	34.8	22.5
주택 유형	1000세대이상아파트	88.5	57.7	61.2	38.3	57.8	38.1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79.9	52.1	46.4	35.7	40.5	33.7
	300세대미만아파트	76.8	47.5	55.9	34.1	49.6	31.0
	아파트 외	66.1	37.2	48.2	38.1	47.8	28.0
동네 아파트 비율	전혀 없다	45.4	36.6	43.1	51.7	42.7	46.4
	25%	68.2	39.3	42.6	28.9	38.0	23.1
	50%	74.5	44.2	52.1	35.2	44.7	32.1
	75%	82.2	51.8	56.6	38.6	54.1	36.3
	100%	90.6	62.4	51.9	36.3	46.1	31.7
동네의 전반적 경사	0~4도	84.6	55.2	62.4	40.8	60.4	40.9
	4~10도	80.6	49.9	56.4	40.3	50.1	38.2
	10도 이상	63.5	39.1	31.8	26.2	27.7	16.5
근린 밀도와 통학 거리[3]	고밀-근거리통학	100.0	67.7	87.0	62.6	79.0	62.6
	고밀-원거리통학	76.9	48.8	47.0	31.4	45.0	27.8
	저밀-근거리통학	100.0	54.4	73.0	40.1	67.1	38.4
	저밀-원거리통학	21.8	21.5	21.9	30.0	17.1	22.8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임
5)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x^2 검정 결과 $p<.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임
6) 사례수는 각 시설 별 이용자 수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표 3-40〉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이용 시설 간 도보 이동 비율과 혼자 이동 비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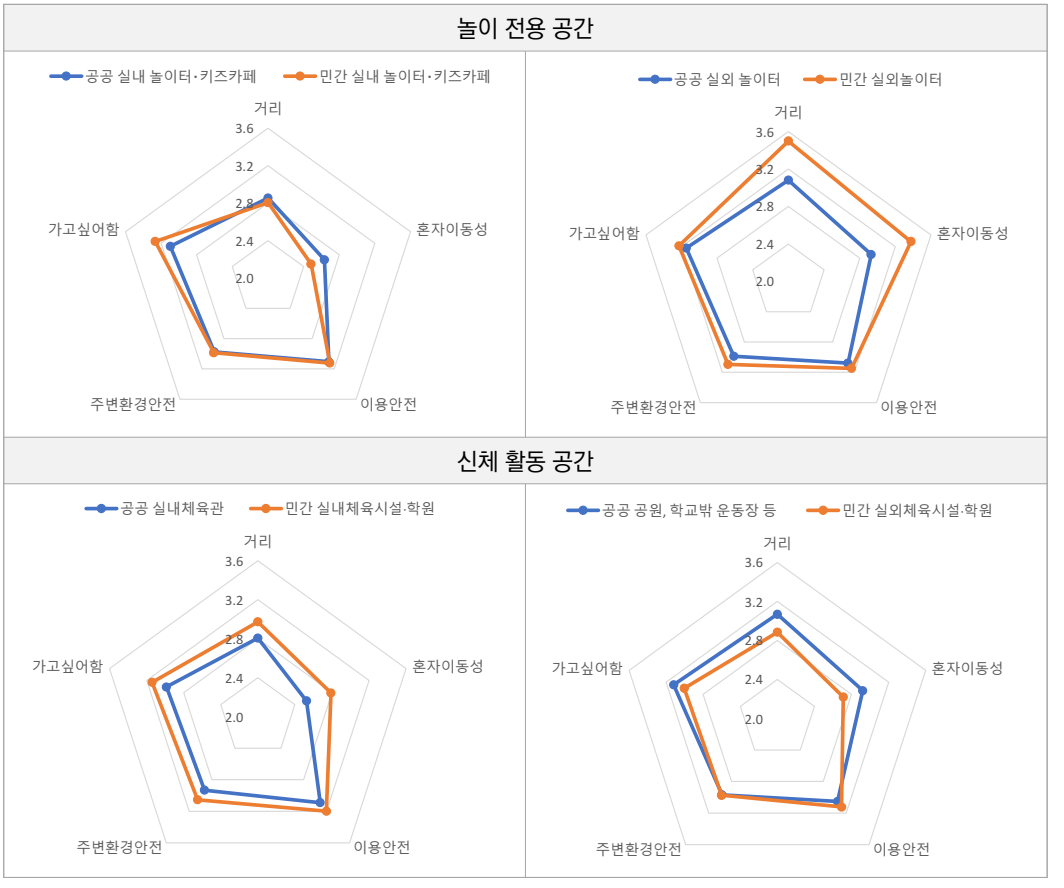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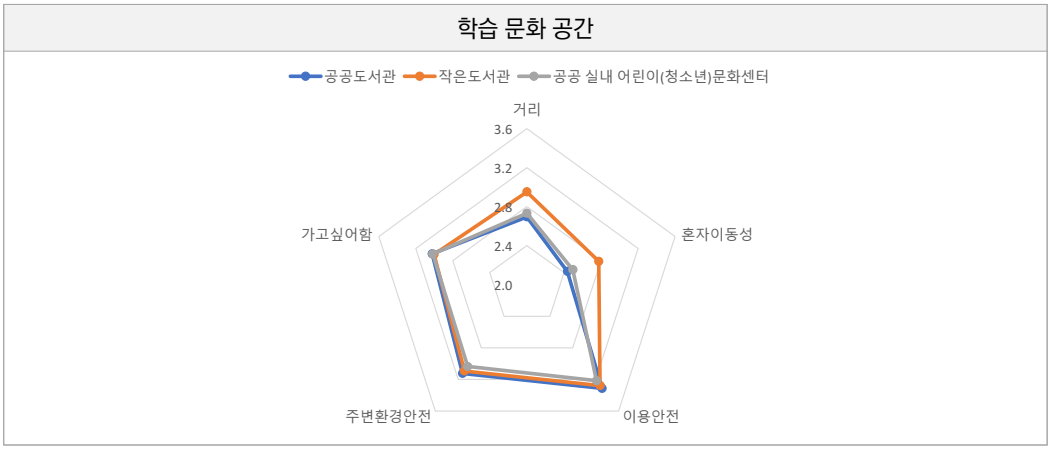
구분		학교↔놀이공간		놀이공간↔집		학교↔학원		학원↔집	
		도보	성인 동행자 없음	도보	성인 동행자 없음	도보	성인 동행자 없음	도보	성인 동행자 없음
전체		83.8	54.8	84.7	53.9	58.8	51.8	56.2	50.7
학년[1]	저학년(1~2학년)	81.5	39.2	82.8	38.6	54.4	35.5	51.8	35.2
	고학년(3~4학년)	85.9	70.0	86.5	68.8	62.7	66.2	60.1	64.4
지역1	대도시	85.1	49.9	85.7	49.3	59.7	48.9	57.6	47.0
	중소도시	84.5	56.8	85.4	55.0	59.9	54.1	57.7	53.0
	읍·면·특수지역	78.5	60.6	79.9	61.4	53.5	51.4	48.3	52.3
지역2[2]	비인구감소지역	84.4	55.3	85.3	54.3	59.6	52.2	56.9	51.2
	인구감소지역	67.0	40.1	66.9	41.9	33.8	37.6	33.2	33.3
주택 유형	1000세대이상아파트	89.6	58.3	90.8	57.8	61.7	53.7	60.8	53.9
	300~1000세대미만 아파트	83.1	57.5	85.0	57.1	58.8	53.1	56.2	52.1
	300세대미만아파트	80.1	52.0	78.9	50.2	57.8	48.8	53.7	48.1
	아파트 외	77.4	40.7	76.1	37.9	52.8	45.4	48.0	40.5
동네 아파트 비율	전혀 없다	65.4	39.1	54.3	36.9	29.2	33.5	26.3	37.0
	25%	73.5	46.8	74.9	43.8	47.2	47.7	46.5	42.9
	50%	78.2	50.5	79.7	47.6	61.3	51.6	54.1	46.7
	75%	85.7	55.9	86.5	56.0	59.6	51.7	58.3	52.3
	100%	90.4	60.9	91.7	60.6	63.0	54.9	59.9	54.5
동네의 전반적 경사	0~4도	88.1	58.1	89.2	57.4	62.4	55.3	59.2	53.0
	4~10도	82.5	54.4	83.2	53.4	57.5	50.6	56.3	50.4
	10도 이상	72.0	44.5	72.7	43.2	49.3	42.3	46.0	43.2
근린 밀도와 통학 거리[3]	고밀-근거리통학	93.6	62.8	93.9	62.8	67.3	58.2	66.3	58.6
	고밀-원거리통학	83.7	54.6	85.0	54.6	56.8	49.5	54.3	49.7
	저밀-근거리통학	89.2	54.1	89.9	50.9	62.5	56.6	60.4	51.9
	저밀-원거리통학	50.8	37.9	51.8	35.3	35.2	33.0	26.4	29.2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4) 놀이공간: 뛰거나 공놀이할 수 있는 실외놀이터, 공원 등임
5)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x^2 검정 결과 $p<.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임
6) 사례수는 각 시설 별 이용자 수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마. 이용 시설에 대한 인식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놀이 전용 공간의 경우 실내 시설에 비해 실외 시설이 거리가 가깝고 자녀가 혼자 이동하기 쉬우며, 주변 환경이 더 안전한 것으로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아파트 단지의 민간 실외놀이터는 놀이 전용 공간 뿐 아니라 신체활동 공간이나 학습·문화공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시설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대체로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었다. 신체활동 공간 중에서는 실내 체육시설은 공공시설에 비해 민간 실내 체육 학원이 5개 항목 모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실외 신체활동 공간에서는 공공시설이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공공 학습·문화 공간 중에서는 작은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나 공공 실내 어린이(청소년) 문화센터에 비해 거리가 더 가깝고 혼자 이동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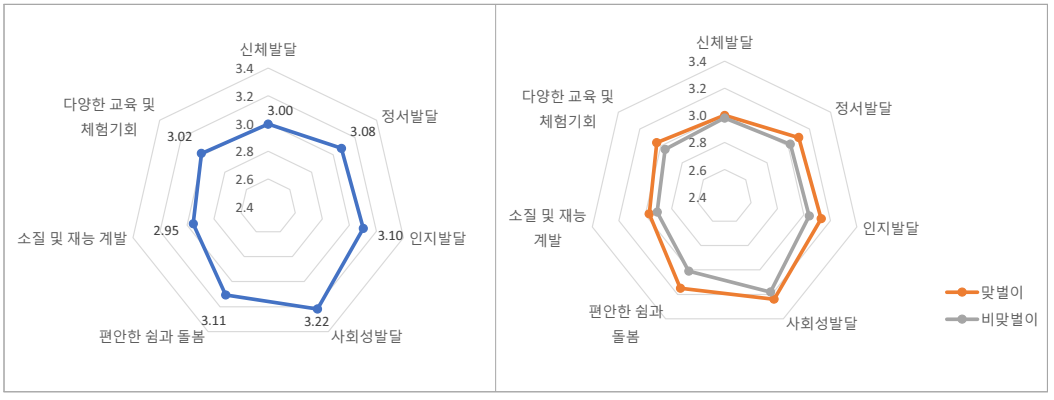




주: 사례수는 각 시설별 이용자 수이며, 점수는 1~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2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 (점)

다음으로,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동네 돌봄 인프라가 자녀의 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4점 척도에서 3점 내외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중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22점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2.95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주: 1) 사례수는 3,000명임
2) 점수는 1점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점이 '매우 도움이 된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3-22]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돌봄 인프라가 자녀 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점)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돌봄 인프라가 자녀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인구감소지역 여부나 맞벌이 여부, 동네 아파트 비율,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맞벌이가 아닌 경우, 아파트 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동네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동네의 전반적 경사가 높을수록,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안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저밀-원거리통학 등)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돌봄 인프라가 자녀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이용하는 시설에서 이러한 집단이 대체로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 시설의 종류가 적어 전반적인 발달에 도움이 되는 정도도 낮게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1〉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돌봄 인프라가 자녀 발달에 도움되는 정도

(단위: 점)

구분		신체 발달	정서 발달	인지 발달	사회성 발달	편안한 쉼과 돌봄 제공	소질 및 재능 계발	다양한 교육·체험 기회 제공
전체		3.00	3.08	3.10	3.22	3.11	2.95	3.02
학년[1]	저학년(1~2학년)	3.00	3.07	3.12	3.24	3.12	2.98	3.03
	고학년(3~4학년)	2.99	3.08	3.09	3.20	3.10	2.93	3.00
지역1	대도시	3.01	3.08	3.11	3.22	3.12	2.96	3.04
	중소도시	3.00	3.08	3.11	3.23	3.10	2.97	3.02
	읍·면·특수지역	2.94	3.04	3.07	3.20	3.08	2.91	2.96
지역2[2]	비인구감소지역	3.00	3.08	3.11	3.22	3.11	2.96	3.03
	인구감소지역	2.84	2.84	2.93	3.12	2.95	2.84	2.78
맞벌이[3]	맞벌이	3.00	3.10	3.13	3.24	3.15	2.97	3.04
	비맞벌이	2.98	3.02	3.04	3.18	3.01	2.91	2.96
주택 유형	1000세대이상아파트	3.05	3.10	3.12	3.22	3.12	2.96	3.02
	300~1000세대미만 아파트	3.01	3.11	3.12	3.23	3.13	2.99	3.03
	300세대미만아파트	2.97	3.06	3.10	3.24	3.08	2.93	3.04
	아파트 외	2.88	2.94	3.03	3.18	3.04	2.87	2.93
동네 아파트 비율	전혀 없다	2.67	2.80	2.87	3.03	2.93	2.87	2.97
	25%	2.81	2.93	2.99	3.11	3.03	2.84	2.92
	50%	2.98	3.08	3.12	3.19	3.11	2.97	2.99
	75%	3.04	3.10	3.13	3.25	3.13	2.97	3.04
	100%	3.09	3.14	3.15	3.27	3.14	3.00	3.05
동네 전반적 경사	0~4도	3.07	3.12	3.12	3.26	3.13	2.97	3.04
	4~10도	2.95	3.06	3.11	3.19	3.11	2.94	3.00
	10도 이상	2.87	2.97	3.06	3.15	3.03	2.93	2.96
근린 밀도와 통학 거리[4]	고밀-근거리통학	3.12	3.20	3.16	3.29	3.17	3.03	3.11
	고밀-원거리통학	3.02	3.07	3.12	3.24	3.11	2.95	3.01
	저밀-근거리통학	2.95	3.05	3.12	3.19	3.11	2.92	2.96
	저밀-원거리통학	2.76	2.90	2.92	3.07	2.97	2.88	2.95

주: 1) 학년: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자녀의 학년임.
2) 인구감소지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임.
3) 맞벌이: 맞벌이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한 경우와 취업 한부모를 포함하였으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명만 취업하였거나 본인과 배우자 모두 취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비취업 한부모는 비맞벌이에 포함하였음.
4)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동네의 아파트 비율과 학교까지의 통학을 기준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고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이상이며 학교까지 도보 1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근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미만으로 통학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은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하는 경우임.
5)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임.
6) 사례수는 3,000명임.
7) 음영으로 표시된 셀은 $p<.05$ 수준에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임(학년, 지역2, 맞벌이는 t검정, 지역1, 주택유형, 동네 아파트 비율, 동네 전반적 경사,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일원배치분산분석 결과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제3절 아동 행태 영향 요인

1. 분석 개요

제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린에서 보행 및 자전거를 이용하여 독립적, 자율적으로 이동하거나 친구들과 바깥에서 자유롭게 놀이하는 활동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이에 본 절에서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주목하여, 개인과 가정, 환경 요인이 이러한 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의 돌봄 공백과 근린의 다양한 환경 요인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행태와 어떠한 영향 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고,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상기의 아동 행태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하여, 〈표 3-42〉와 같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앞서 살펴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공간 요소에 관한 이론적 배경(제2장 제2절)과 설문조사 분석 결과(제3장 제2절)를 참고하여, 아동 및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동네 환경 특성, 지역 특성 관련 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모든 변수들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로서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은 총 응답자 3,422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표 3-42〉 아동 행태 영향 요인 분석 개요

구분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	
분석방법	이항로짓분석		이항로짓분석	
종속변수	독립적 이동		친구와의 놀이 활동	
독립변수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손위 형제자매 유무, 돌봄 공백 시간, 차량 탑승 시간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외동자녀 여부, 돌봄 공백 시간, 방과후 시간 이용
	주택 특성	주택 유형	주택 특성	주택 유형
	동네 환경 특성	혼자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수, 학교 접근성, 경사도 수준, 동네 환경 평가(보행환경, 놀이기회, 위해환경)	동네 환경 특성	동네 이용 시설수(놀이전용공간, 신체활동공간, 학습문화공간), 학교 접근성, 동네 환경 평가(보행환경, 놀이기회)
	지역 특성	도시 유형	지역 특성	도시 유형

출처: 연구진 작성

2.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가. 분석 모형

본 분석에서는 아동이 성인 동행자 없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지 여부로 '독립적 이동' 변수를 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독립변수의 경우, 제2장 제2절에서 검토한 아동 성장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 요인에 관한 이론적 배경과 본 장의 제2절에서 살펴본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 및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동네 환경 특성, 지역 특성 변수를 선정하였다.

아동의 독립적 이동은 아동 개인의 확신과 다양한 맥락을 토대로 판단되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물리적 환경과 안전에 대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관계된다. 특히 독립적 이동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근린의 물리적/사회적 환경 요인은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제2장 제2절의 검토 내용 중에서 아동의 활동적 이동 또는 이동독립성과 근린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대체로 학교까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다양한 목적지까지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교통/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낄수록, 전반적으로 근린에서의 위험이 낮을수록(장애물/위해요소가 적을수록), 경사가 낮을수록 독립적 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가시설(공원, 놀이터, 체육시설 등)의 양과 접근성은 아동의 신체활동과 비교적 일관성 있는 양의 관계를 보였다. 앞서 검토한 선행연구들에서 주택 유형이나 주거지 밀집도, 지역 특성(도시, 농촌 등)은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도시에 비해 농촌에서, 독립적 이동이 더욱 활발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또한, 근린에서 활동을 함께 할 또래나 친구의 존재가 아동의 독립적 이동을 촉진하기도 한다.

한편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적당한 정도는 자녀의 학년, 거주 지역, 주택 유형, 동네의 아파트 비율,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 학교 접근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년(1~2학년), 읍·면·특수지역 거주(대도시와 비교하여), 비아파트 거주,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낮거나 전반적인 경사도가 높은 경우, 학교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자녀 혼자 통학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또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은 고학년인 경우 저학년에 비해 혼자 갈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았으며, 주택 유형, 동네 아파트 비율과 전반적인 경사도에 따라 자녀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개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즉,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는 경우, 동네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동네의 경사도가 낮을수록 혼자 이용 가능

한 시설 개수가 많았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아동의 독립적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아동 및 가구 특성 변수로는 학년, 손위 형제자매 유무, 돌봄 공백 시간, 차량 탑승 시간을 고려하였다.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일수록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여 혼자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함께 이동하며 독립적 이동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돌봄 공백 시간이 길수록 혼자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차량 이용 경험이 적을수록 혼자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돌봄 공백과 차량 탑승 시간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다음으로 주택 특성 변수로서 주택 유형을 고려하였다. 비아파트 주택에 비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여 혼자 이동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아파트 단지 규모가 클수록 단지 내에서의 이동 경험을 통해 독립적 이동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이외 주택, 300세대 미만 아파트,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아파트, 1,0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분석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한 동네 환경 특성 변수에는 학교 접근성, 혼자 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 수, 경사도 수준, 세 가지 측면(보행환경, 놀이기회, 위해환경)에서의 동네 환경 평가 점수를 포함하였다. 학교 또는 다양한 목적지와의 거리가 짧을수록 이동독립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에 기반하여, 학교 접근성과 혼자 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 수를 변수에 포함하였다.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혼자 통학하며 독립적 이동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네에 혼자 이용 가능한 시설이 많을수록 독립적 이동을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경사가 급한 지역은 혼자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동네의 경사도 수준을 변수에 포함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보행환경이 좋을수록, 놀이기회가 많을수록, 위해환경 요소가 적을수록 혼자 이동하기 용이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동네 환경 평가에 대한 세부 항목 점수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평가 점수, 놀이기회 평가 점수, 위해환경 평가 점수를 변수로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 변수로서 도시 유형을 고려하였다. 주거지 밀도, 도시화 수준 등 도시 규모나 특성에 따라 독립적 이동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 거주 여부를 변수에 포함하였다.

〈표 3-43〉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 변수		독립적 이동	대상아동[1]이 성인 동행자 없이 도보나 자전거로 이동하는지 여부 0: 혼자 이동 안함, 1: 혼자 이동함
독립변수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대상아동의 초등학교 학년 0: 1~2학년 (참조), 1: 3~4학년
		손위 형제자매 유무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위 형제자매의 존재 여부 0: 없음 (참조), 1: 있음
		돌봄 공백 시간	13~21시 사이에 대상아동이 보호자나 성인 없이 지내는 시간 0: 1시간 이하 (참조) 1: 1시간 초과~2시간 2: 2시간 초과
		차량 탑승 시간[2](시)	대상아동의 평일 차량 탑승 시간(h)
	주택 특성	주택 유형	거주하는 주택 유형 0: 아파트 이외 주택 (참조) 1: 300세대 미만 아파트 2: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아파트 3: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동네 환경 특성	혼자 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 수(개)[3]	대상아동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놀이전용 공간, 신체활동 공간 또는 학습·문화 공간 중 혼자 갈 수 있는 시설 수
		학교 접근성	대상아동의 10분 이내 도보 통학 여부 0: 기타 (참조) 1: 10분 이내 도보 통학
		경사도 수준	동네의 경사도 수준 0: 경사가 완만한 편 (0-4도, 4-10도) (참조) 1: 경사가 급한 편 (10-30도, 30도 이상)
		보행환경 평가 점수	동네 보행환경 요인점수
		놀이기회 평가 점수	동네 놀이기회 요인점수
		위해환경 평가 점수	동네 위해환경 요인점수
	지역 특성	도시 유형	거주하는 도시 유형 0: 대도시(특별/광역시) (참조) 1: 중소도시 2: 읍·면·특수지역

주: 1) 대상아동은 초등학생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임
2) 차량 탑승 시간은 통학시간과 월~금요일 이용시설(돌봄시설, 학원)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3) 놀이전용 공간 4개 시설(지자체에서 만든 공공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 공공 놀이터, 민간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 아파트 단지 내 실외놀이터), 신체활동 공간 4개 시설(공공 실내체육관, 공원·운동장, 민간 실내체육시설·학원, 민간 실외체육시설·학원), 학습·문화 공간 5개(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문화센터·청소년문화센터, 학습 관련 학원, 예술 관련 학원) 중 이용하는 시설 수

출처: 연구진 작성

동네 환경 평가 변수를 산출하기 위한 요인분석에 사용된 설문조사 항목은 총 22개이다. 구체적으로 보행환경 관련 항목 9개, 놀이기회 관련 항목 8개, 유해환경 관련 항목 5개가 사용되었다.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고유값이 1이상인 3개 요인을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베리맥스(varimax) 방식으로 요인을 회전하여 요인부하량을 산출한 결과, 조사 설계 시 의도했던 대로 동네 환경 평가에 대한 주요 요인이 보행환경, 놀이기회, 위해환경으로 잘 분류되었다.

첫 번째 요인은 보행환경으로서 인도의 안전성과 편리성과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인도 폭이 충분하다',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있다', '스쿨존이 잘 설치되어 있다' 등과 같은 항목들이 이 요인에 속하는데 이러한 항목들은 0.63에서 0.73사이의 높은 요인부하량을 보였으며, 이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은 34.6%로 나타났다. 두 번째 요인은 놀이기회로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와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항목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놀이터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 공간이 있다', '가까운 곳에 아이가 놀 공간이 있다' 등이 이 요인에 속하는데 이러한 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대체로 0.6에서 0.74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 요인이 설명하는 분산은 16.1%이다. 세 번째 요인은 위해환경으로서 아이들이 거주하는 환경의 부정적 측면을 평가한다. 예를 들어, '공사장이 많아 낙하물 사고의 위험이 있다', '유해한 시설이 많다', '소음이 많아 시끄럽다' 등과 같은 항목들이 이 요인에 속하는데 이러한 항목들의 요인부하량은 0.76에서 0.8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요인은 6.4%의 분산을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각 요인을 대표할 수 있는 요인점수를 구하여 '동네 보행환경', '동네 놀이기회', '동네 위해환경' 변수 값으로 도출하였다.

〈표 3-44〉 동네 환경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1) - 고유값 및 분산

요인	고유값	분산(%)	누적분산(%)
1	7.614	34.607	34.607
2	3.547	16.123	50.730
3	1.417	6.442	57.172
4	.974	4.429	61.601
5	.690	3.138	64.739
6	.644	2.928	67.667
7	.634	2.881	70.548
8	.568	2.582	73.129
9	.548	2.492	75.621
10	.542	2.464	78.085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45〉 동네 환경 평가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2) - 요인부하량

항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1	요인2	요인3
보행환경 (9)	아이와 나란히 걸어가기에 인도 폭이 충분하다	2.98	0.73	**.732**	.229	-.035
	인도는 울퉁불퉁하거나 패인 곳 없이 포장되어 있다	2.91	0.73	**.725**	.207	.059
	길을 걸을 때 자동차 · 이륜차로부터 안전하다	2.79	0.77	**.722**	.253	.071
	인도에 기울어짐이나 턱이 적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밀고 다니기 편하다	2.84	0.74	**.721**	.199	.098
	차가 다니는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잘 설치되어 있다	2.99	0.66	**.705**	.250	-.137
	길을 걸을 때 자전거 · 킥보드로부터 안전하다	2.63	0.79	**.639**	.262	.19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잘 설치되어 있다	3.02	0.70	**.636**	.314	-.071
	가로등이 충분히 있어 밤에 걷기 안전하다	2.95	0.71	**.631**	.319	-.022
	길을 건널 때 신호등, 횡단보도가 잘 설치되어 있다	3.07	0.68	**.626**	.305	-.115
놀이기회 (8)	놀이터에서 가면 같이 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2.87	0.69	.197	**.738**	.070
	우리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공간이 있다	2.93	0.68	.265	**.718**	-.030
	학교 바로 근처에 놀기 좋은 장소가 있다	2.88	0.71	.267	**.690**	.070
	아이가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나가도 동네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2.77	0.77	.226	**.682**	.189
	가까운 곳에 아이가 놀 공간이 있다	3.03	0.66	.300	**.660**	-.070
	아이가 놀기 좋은 녹지 · 자연환경이 풍부하다	2.89	0.72	.324	**.613**	-.036
	놀이공간과 주변환경이 안전하다	2.97	0.64	.406	**.602**	-.037
	날씨나 공기가 좋지 않아도 동네에 놀 곳이 있다	2.69	0.78	.257	**.597**	.238
위해환경 (5)	우리 동네는 이상한 냄새가 자주 난다	2.27	0.87	.003	.032	**.849**
	우리 동네는 공사장이 많아 낙하물 사고의 위험이 있다	2.20	0.89	-.003	.088	**.848**
	우리 동네는 아이에게 유해한 시설이 많다	2.19	0.86	-.016	.045	**.843**
	우리 동네는 외부 소음이 많아 시끄럽다	2.46	0.80	.021	.028	**.790**
	우리 동네는 미세먼지, 매연 등 공기가 나쁘다	2.52	0.80	-.003	.026	**.758**

주: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렇다' 4점이며, 사례수는 3,442명임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46〉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의 기술통계(N=3,442)

구분		변수명		평균/빈도	표준편차/비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독립적 이동	독립적 이동 안함	1,324	38.5	-	-
			독립적 이동 함	2,118	61.5	-	-
독립변수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1~2학년	1,722	50.0	-	-
			3~4학년	1,720	50.0	-	-
		손위 형제자매 유무	없음	2,405	69.9	-	-
			있음	1,037	30.1	-	-
		돌봄 공백 시간	1시간 이하	3,113	90.4	-	-
			1시간 초과~2시간	237	6.9	-	-
			2시간 초과	92	2.7	-	-
		차량 탑승 시간(시)		.189	.3089	.0	2.7
	주택 특성	주택 유형	아파트 이외 주택	511	14.8	-	-
			300세대 미만 아파트	1,502	43.6	-	-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936	27.2	-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93	14.3	-	-
	동네 환경 특성	혼자 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 수(개)		2.72	2.188	0	13
		학교 접근성	기타	1,205	35.0	-	-
			10분 이내 도보 통학	2,237	65.0	-	-
		경사도 수준	경사가 완만한 편	2,886	83.8	-	-
			경사가 급한 편	556	16.2	-	-
		보행환경 평가 점수		.000	1.000	-5.061	3.355
		놀이기회 평가 점수		.000	1.000	-4.441	3.557
		위해환경 평가 점수		.000	1.000	-2.216	2.589
	지역 특성	도시 유형	대도시	1,388	40.3	-	-
			중소도시	1,520	44.2	-	-
			읍·면·특수지역	534	15.5	-	-

주: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비율을 표기함
출처: 연구진 작성

나. 분석 결과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 및 가구 특성 요인 중 자녀 학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학년(3~4학년)이 저학년(1~2학년)에 비해 혼자 이동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고, 자율성과 독립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손위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독립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또래의 형제자매와 함께 이동하는 경험을 통해 혼자 이동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이동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돌봄 공백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1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돌봄 공백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혼자서 이동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적절한 수준의 독립적 이동 경험은 아동 발달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으나, 과도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아동이 혼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아동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돌봄 공백과 독립적 이동 간의 관계를 아동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반면 평일 차량 탑승 시간이 길수록 독립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차량 이용 경험이 많은 아동은 혼자 이동할 기회가 적고, 도보나 자전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주택 유형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1,0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에 비해 독립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았다. 이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나 동네에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자녀 혼자 통학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던 설문조사 결과와 다소 상충되는 결과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부모가 혼자 이동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 인근 도로의 폭이 넓고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안전 상의 우려 등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다음으로 동네 환경 요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학교까지 10분 이내 도보 통학이 가능한 경우 독립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혼자서 통학하며 독립적인 이동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혼자 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 수가 많을수록 독립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집 주변에 혼자서 갈 수 있는 시설이 많을수록 성인 보호자 없이 이동할 기회와 필요성이 증가하여 독립적인 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한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낮았는데, 이는 급경사 지역은 혼자 이동하기에 어려움과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아동의 독립적 이동 가능성은 동네 보행환경이 좋을수록 높아지는 반면 위해환경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아동의 독립적 이동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 측면에서는 중소도시나 읍·면·특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독립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대도시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나 읍·면·특수지역은 교통량이 적고, 지역사회 내 사회적 유대감이 높아 혼자 이동하는 것에 대한 안전 우려가 낮기 때문일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통해, 아동의 독립적 이동에는 아동의 연령 수준, 손위 형제자매 유무, 학

교 접근성 및 혼자 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 수, 경사도 수준, 동네 보행환경이나 위해환경에 대한 인식,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돌봄 공백 시간이 길거나 차량 이용 경험이 적은 아동일수록 독립적 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학교 및 시설 접근성 개선이 아동의 독립적 이동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방안 마련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표 3-47〉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 결과(이항로짓분석)

구분	변수명		B	S.E.	Wals	유의확률	Exp(B)
(상수)			-1.033***	.152	46.362	.000	.356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1.153***	.085	184.638	.000	3.167
	손위 형제자매 유무		.206**	.089	5.346	.021	1.229
	돌봄 공백 시간	1시간 이하			26.800	.000	
		1시간 초과~2시간	.730***	.192	14.383	.000	2.075
		2시간 초과	1.434***	.392	13.414	.000	4.196
	차량 탑승 시간(시)		-1.152***	.147	61.108	.000	.316
주택 특성	주택 유형	아파트 이외 주택			12.298	.006	
		300세대 미만 아파트	.120	.119	1.015	.314	1.127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091	.129	.493	.482	1.095
		1,000세대 이상 아파트	-.294**	.144	4.195	.041	.745
동네 환경 특성	혼자 갈 수 있는 동네 이용 시설 수(개)		.209***	.022	87.597	.000	1.232
	학교 접근성		.569***	.091	39.035	.000	1.767
	경사도 수준		-.231**	.107	4.621	.032	.794
	보행환경 평가 점수		.087**	.041	4.375	.036	1.091
	놀이기회 평가 점수		.060	.041	2.097	.148	1.062
	위해환경 평가 점수		-.209***	.041	26.016	.000	.811
지역 특성	도시 유형	대도시			24.368	.000	
		중소도시	.265***	.086	9.408	.002	1.303
		읍·면·특수지역	.576***	.122	22.216	.000	1.779
표본 수			3,422				
-2 Log Likelihood			3770.132				
Pseudo R^2	Cox & Snell		.211				
	Nagelkerke		.287				

주: *** p 〈 0.01, ** p 〈 0.05, * p 〈 0.1
출처: 연구진 작성

3.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가. 분석 모형

본 분석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야외 놀이를 하거나 서로의 집에 놀러가는 빈도의 평균 응답 수준을 기준으로 '친구와의 놀이 활동' 변수를 정의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한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야외 놀이하는 빈도'와 '친구집에 놀러가거나 친구가 놀러오는 빈도'를 각각 1~5점(1점: 월 1~2회 이하, 2점: 월 3~4회, 3점: 1주일에 2~3회, 4점: 1주일에 4~5회, 5점: 거의 매일)으로 측정하여 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점수인 5점(1주일에 1회 수준) 이하와 초과로 구분하였다. 또한, 제2장 제2절의 이론적 검토 내용과 앞선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친구와의 놀이 활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아동 및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동네 환경 특성, 지역 특성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앞서 검토한 자율적 바깥놀이와 근린환경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네에 또래와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집적된 공간구조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동네에 같이 놀 친구가 많거나 집 밖이 놀기에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경우 아동의 바깥놀이는 촉진된다. 또한, 학교에 가까이 거주하거나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많은 아동의 경우, 방과후 또래와의 신체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 특히 근린이 교통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은 아이들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바깥놀이와 신체활동 증진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한편 주택이 쿨데삭이나 막다른 도로에 위치한 경우 바깥놀이 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우리나라 여건에서는 거주자들에게만 공유되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보행가로나 오픈스페이스가 쿨데삭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이상의 검토 내용과 함께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적인 변수를 고려하여 최종 변수를 선정하였다. 먼저 아동 및 가구 특성 변수로는 학년, 외동자녀 여부, 돌봄 공백 시간, 방과후 시간 이용(학교안 공적 돌봄 이용 시간, 학교밖 공적 돌봄 이용 시간, 학원 이용 시간)이 포함되었다. 일반적으로 고학년으로 갈수록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발달하여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므로, 고학년이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동자녀는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클 수 있다는 점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로 친구를 통해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아동이 또래와 상호작용하고 사회적 기술을 배우는 데 있어서 방과후 어디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중요하리라 판단하여, 방과후

시간 이용 변수로 고려하였다. 학교 안팎의 공적 돌봄 이용 시간이 길어지면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많아져 놀이 활동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 놀이 활동 빈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주택 특성 변수로서 주택 유형을 고려하였는데, 아파트 거주 여부 및 아파트 단지 규모에 따라 친구를 사귀고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에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분석에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한 동네 환경 특성 변수에는 학교 접근성, 동네 놀이전용공간 이용 시설 수, 동네 신체활동공간 이용 시설 수, 학습문화공간 이용 시설 수, 두 가지 측면(보행환경, 놀이기회)에서의 동네 환경 평가 점수를 포함하였다. 학교 접근성의 경우, 집에서 학교가 가까울수록 친구들과 함께 등하교하며 또는 학교 주변 시설을 이용하며 놀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 예상하였다. 또한, 동네에서 이용하는 놀이, 신체활동, 학습 및 문화 공간과 같은 다양한 시설들이 많을수록 또래와의 교류 기회가 더 많아질 수 있다. 또한, 동네 보행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할수록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거나 이동하기 쉬워 놀이 활동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가정하였다. 한편 동네 놀이 기회 평가 점수는 놀이터, 공원 등과 같은 놀이 공간의 접근성 및 안전성, 친구를 만날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놀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놀이 활동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 변수의 경우,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시 유형을 고려하였다.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 거주 여부에 따라 놀이 및 여가 시설의 접근성, 동네의 안전 수준, 문화적 환경 등이 달라지므로 도시 유형은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표 3-48〉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 설명

구분		변수명		설명
종속 변수		친구와의 놀이 활동[1]		친구들과 함께 야외 놀이를 하거나 집에 놀러가는 빈도 수준 0: 평균 이하, 1: 평균 초과
독립변수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대상아동[2]의 초등학교 학년 0: 1~2학년 (참조), 1: 3~4학년
		외동자녀 여부		대상아동의 외동자녀 여부 0: 외동자녀 아님 (참조), 1: 외동자녀
		돌봄 공백 시간		13~21시 사이에 대상아동이 보호자나 성인 없이 지내는 시간 0: 1시간 이하 (참조) 1: 1시간 초과~2시간 2: 2시간 초과
		방과후 시간 이용	학교안 공적 돌봄 이용 시간(시)	대상아동이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또는 늘봄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학교밖 공적 돌봄 이용 시간(시)	대상아동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또는 지자체 돌봄센터에서 보내는 시간
			학원 이용 시간(시)	대상아동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
	주택 특성	주택 유형		거주하는 주택 유형 0: 아파트 이외 주택 (참조) 1: 300세대 미만 아파트 2: 300세대 이상~1,000세대 미만 아파트 3: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동네 환경 특성	동네 놀이전용공간 이용 시설 수(개)[3]		대상아동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놀이전용 공간 시설 수
		동네 신체활동공간 이용 시설 수(개)[3]		대상아동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신체활동 공간 시설 수
		동네 학습문화공간 이용 시설 수(개)[3]		대상아동이 동네에서 이용하는 학습·문화 공간 시설 수
		학교 접근성		대상아동의 10분 이내 도보 통학 여부 0: 기타 (참조), 1: 10분 이내 도보 통학
		보행환경 평가 점수		동네 보행환경 요인점수
		놀이기회 평가 점수		동네 놀이기회 요인점수
	지역 특성	도시 유형		거주하는 도시 유형 0: 대도시(특별/광역시) (참조) 1: 중소도시, 2: 읍·면·특수지역

주: 1) 지난 한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야외 놀이하는 빈도'와 '친구집에 놀러가거나 친구가 놀러오는 빈도'를 각각 1~5점(1점: 월 1~2회 이하, 2점: 월 3~4회, 3점: 1주일에 2~3회, 4점: 1주일에 4~5회, 5점: 거의 매일)으로 측정하여 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 점수(5점, 1주일에 1회 수준임) 이하와 초과로 구분함
2) 대상아동은 초등학생 자녀 중 가장 어린 자녀임
3) 놀이전용 공간 4개 시설(지자체에서 만든 공공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 공공 놀이터, 민간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 아파트 단지 내 실외놀이터), 신체활동 공간 4개 시설(공공 실내체육관, 공원·운동장, 민간 실내체육시설·학원, 민간 실외체육시설·학원), 학습·문화 공간 5개(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어린이문화센터·청소년문화센터, 학습 관련 학원, 예술 관련 학원) 중 각각 이용하는 시설 수

출처: 연구진 작성

〈표 3-49〉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에 투입된 최종 변수의 기술통계(N=3,442)

구분		변수명		평균/빈도	표준편차/비율	최솟값	최댓값
종속 변수		친구와의 놀이 활동	평균 이하	2,060	59.8	-	-
			평균 초과	1,382	40.2	-	-
독립변수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1~2학년	1,722	50.0	-	-
			3~4학년	1,720	50.0	-	-
		외동자녀	외동자녀 아님	2,016	58.6	-	-
			외동자녀	1,426	41.4	-	-
		돌봄 공백 시간	1시간 이하	3,113	90.4	-	-
			1시간 초과~2시간	237	6.9	-	-
			2시간 초과	92	2.7	-	-
		방과후 시간 이용	학교안 공적 돌봄 이용 시간(시)	1.394	1.5224	.0	6.5
			학교밖 공적 돌봄 이용 시간(시)	.357	1.1346	.0	7.0
			학원 이용 시간(시)	1.263	1.3172	.0	6.0
	주택 특성	주택 유형	아파트 이외 주택	511	14.8	-	-
			300세대 미만 아파트	1,502	43.6	-	-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936	27.2	-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493	14.3	-	-
	동네 환경 특성	동네 놀이전용공간 이용 시설 수(개)		1.65	1.052	0	4
		동네 신체활동공간 이용 시설 수(개)		1.22	1.023	0	4
		동네 학습문화공간 이용 시설 수(개)		1.79	1.363	0	5
		학교 접근성	기타	1,205	35.0	-	-
			10분 이내 도보 통학	2,237	65.0	-	-
		보행환경 평가 점수		.000	1.000	-5.061	3.355
		놀이기회 평가 점수		.000	1.000	-4.441	3.557
	지역 특성	도시 유형	대도시	1,388	40.3	-	-
			중소도시	1,520	44.2	-	-
			읍·면·특수지역	534	15.5	-	-

주: 연속형 변수는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을 산출하였으며,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 비율을 표기함
출처: 연구진 작성

나. 분석 결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 및 가구 특성 요인 중 자녀 학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고학년(3~4학년)이 저학년(1~2학년)에 비해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또래 관계의 중요성이 커

지고,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거나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외동자녀인 경우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형제자매가 없어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대한 욕구가 더 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주로 친구를 통해서 경험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 돌봄 공백 시간이 1시간 이하인 경우에 비해 1시간 초과 ~ 2시간인 경우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반면,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성인 보호자가 없는 일정 정도의 시간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시간적 여유로 작용할 수 있으나, 과도한 돌봄 공백은 오히려 또래와의 교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방과후 시간 이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안팎의 공적 돌봄 서비스 이용 시간이 길수록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또래 친구들과 만나고 교류할 기회가 많아져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주택 유형은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분석에서 특히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투입한 동네 환경 변수들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한편 동네 신체활동 공간 이용 시설 수가 많을수록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네 학습문화 공간 이용 시설 수가 많을수록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놀이터나 공원과 같은 신체활동 공간은 친구들과 함께 이용하며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도서관이나 학원과 같은 학습문화 공간은 친구와의 놀이보다는 개인적인 활동이나 학습에 더 많이 이용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네 놀이기회가 많을수록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놀이터, 공원 등과 같은 놀이 공간의 접근성 및 안전성, 놀 만한 장소의 다양성 등이 친구들과의 놀이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준다. 학교 접근성과 동네 놀이전용공간 이용 시설 수의 경우,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네 보행환경이 좋을수록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은 아이들이 혼자서 또는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놀거나 이동하기 쉬워 놀이 활동 빈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역 특성 요인을 살펴보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가 평균 이상일 가능성이 낮았으며, 읍·면·특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의 경우 놀이 및 여가시설 접근성이 낮거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 부모가 친구들과 놀러 다니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에는 아동 및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동네 환경 특성, 지역 특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돌봄 공백 시간, 학교 안팎의 공적 돌봄 이용 시간, 동네 신체활동 공간 이용 시설 수, 동네 보행환경 및 놀이기회에 대한 인식 등이 친구와의 놀이 활동 빈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 조성, 다양한 신체활동 공간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표 3-50〉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 결과(이항로짓분석)

구분	변수명		B	S.E.	Wals	유의확률	Exp(B)
(상수)			-.764***	.165	21.346	.000	.466
아동 및 가구 특성	학년		.169**	.079	4.619	.032	1.185
	외동자녀 여부		.231***	.075	9.509	.002	1.260
	돌봄 공백 시간	1시간 이하			6.049	.049	
		1시간 초과~2시간	.350**	.147	5.707	.017	1.419
		2시간 초과	-.090	.242	.138	.711	.914
	방과후 시간 이용	학교안 공적 돌봄 이용 시간	.163***	.030	30.418	.000	1.177
		학교밖 공적 돌봄 이용 시간	.245***	.036	45.723	.000	1.277
		학원 이용 시간	-.051	.035	2.182	.140	.950
주택 특성	주택 유형	아파트 이외 주택			5.139	.162	
		300세대 미만 아파트	.042	.112	.139	.710	1.043
		300~1,000세대 미만 아파트	-.089	.121	.539	.463	.915
		1,000세대 이상 아파트	.187	.138	1.838	.175	1.206
동네 환경 특성	동네 놀이전용공간 이용 시설 수		.030	.042	.529	.467	1.031
	동네 신체활동공간 이용 시설 수		.207***	.042	23.734	.000	1.230
	동네 학습문화공간 이용 시설 수		-.157***	.034	21.479	.000	.855
	학교 접근성		-.130	.081	2.590	.108	.878
	보행환경 평가 점수		.230***	.039	35.458	.000	1.259
	놀이기회 평가 점수		.469***	.040	134.807	.000	1.599
지역 특성	도시 유형	대도시			5.405	.067	
		중소도시	-.185**	.081	5.279	.022	.831
		읍·면·특수지역	-.058	.111	.275	.600	.944
표본 수			3,422				
-2 Log Likelihood			4265.633				
Pseudo R^2	Cox & Snell		.102				
	Nagelkerke		.138				

주: *** p 〈 0.01, ** p 〈 0.05, * p 〈 0.1
출처: 연구진 작성

제4절 소 결

1. 초등학생 자녀 돌봄 실태와 환경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초등학생 자녀 돌봄 환경과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방과후 초등 돌봄 정책과 지역 단위 돌봄 환경 조성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온라인으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 결과를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욕구와 실태, 그리고 근린환경과 돌봄 인프라를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에 대한 돌봄 욕구에서는 학기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74.3%로 가장 많았고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63.8%, 학기 중 저녁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44.8%였으며 학기 중 아침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33.8%로 가장 적었다. 아동의 발달 측면인 학년과 가족 특성인 부모의 맞벌이 여부, 그리고 아동과 가족의 근린 생활인프라를 대변하는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외부 환경인 지역에 따라 자녀의 학기 중 돌봄 필요 여부에 차이가 나타났다.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근린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대도시 거주 시 대체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녀와 가족 외부적인 요인인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나 지역 중에서는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더 유의하게 나타나, 시·군·구 단위의 비교적 넓은 행정구역보다는 근린생활권의 영향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방학 중 돌봄 필요는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나 지역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방학 중에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대부분 주중이었으며, 일주일 중 돌봄 필요 일수는 평균 4.56일, 하루 평균 돌봄 필요 시간은 6.38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방과후 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과후 이용하는 기관을 유형화한 결과, 학교 안 공적 돌봄과 학원을 함께 이용하는 경우가 32.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학원만 이용하는 경우가 26.1%였으며, 학교 안 공적 돌봄만 이용하는 경우가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학교 밖 공적 돌봄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방과후 기관 이용 유형은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학교 안, 학교 밖 공적 돌봄 모두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시간대별 돌봄 유형은, 등교 전에는 주로 부모가 돌보나 혼자 있는 비율도 약간 높은 편이며 방과후에는 공적 돌봄서비스를 먼저 이용하고 학원으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시간대별 돌봄 양상은 자녀의 학년별, 부모의 맞벌이 여부,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은 68.3%였으며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높았다.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에 대한 운영시간과 프로그램 만족도는 대체로 4점 척도에서 3점 정도로 나타났으며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4점 척도에서 3.26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돌봄 공백 해소에 도움 정도는 지역이나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 이용하는 공적 돌봄의 유형에 따라서만 차이가 나타났다. 지난 한 달간 자녀의 질병 등으로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부모의 출장이나 야근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경우는 각각 32.8%, 36.2%였으며 저학년(1~2학년)인 경우, 부모가 맞벌이인 경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긴급·일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았으나 조금 더 큰 지역(대도시 등)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시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 6개 구성 항목의 중요도를 100%로 하여 배분한 결과, 접근성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2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6개 구성 항목별 중요도는 자녀의 학년과 부모의 맞벌이 여부, 공적 돌봄 이용 여부, 지역, 근린밀도와 통학거리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나 차이가 나타난 항목이 달랐다. 이 중 근린밀도와 통학거리는 공적 방과후돌봄서비스의 구성 항목 6개 중 5개 항목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 가장 많은 항목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근린 환경과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인프라에 대해서는, 먼저 거주하는 동네의 보행환경,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기회, 위해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동네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동네의 전반적 경사도가 낮을수록,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을 것으로 예상될수록 보행환경,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기회에 대한 점수가 높았고 위해 환경은 점수가 낮아 거주하는 동네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읍·면·특수지역인 경우 동네 보행환경이나 돌봄에 대한 사회적지지, 놀이기회에 대한 점수가 낮았으며, 대도시에서는 위해환경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동네에 대한 평가는 자녀의 통학이나 자녀가 이용하는 시설, 혼자 이동할 수 있는 시설 등을 통해서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자녀가 집에서 학교까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에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81.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저학년(1~2학년)인 경우, 읍·면·특수지역인 경우,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경우, 동네에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가 높을수록,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녀 혼자 통학하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다.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이나 동네의 아파트 비율,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주택에 거주하거나 동네의 아파트 비율이 낮을수록,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대체로 모든 시설의 이용률이 낮았다.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설 종류는 13개의 시설 중 평균 4.77개를 이용하고 있었고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동네의 전반적인 경사도가 낮을수록, 근린 생활인프라가 좋을수록 이용 시설이 많았으며 읍·면·특수지역이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이용 시설 개수가 적었다. 이용 시설 중 자녀가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은 평균 3개 정도였으며 고학년(3~4학년)인 경우,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사는 경우, 동네 아파트 비율이 높을수록, 동네의 전반적 경사도가 낮을수록,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좋을수록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종류의 개수가 많았다.

집과 학교 사이는 걸어서 가는 경우가 79.8%로 가장 많았고, 성인 동행자 없이 혼자 가는 경우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10.29분이 소요되었다. 자녀의 이용 시설 간 도보 이동 비율과 성인 동행자 없이 이동하는 비율은 저학년(1~2학년)에 비해 고학년(3~4학년)이 높았고 인구감소지역이나 아파트가 적은 지역, 동네의 경사도가 높은 지역, 저밀-원거리통학(동네 아파트 비율이 75% 미만이며 학교까지 도보 20분 이상이나 도보 외의 방법으로 통학)인 경우 등은 도보 이동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동네 돌봄 인프라가 자녀의 발달 주는 도움 정도는 4점 척도에서 3점 내외였으며 사회성 발달에의 도움 정도가 3.22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통하여 초등학교 1~4학년 자녀의 돌봄 필요와 돌봄 실태, 학교 통학이나 이용 시설, 혼자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가족 측면, 그리고 근린 등 외부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녀의 학년은 돌봄 필요와 돌봄 실태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고, 학교에 혼자 통학하거나 동네에서 혼자 갈 수 있는 시설과 같은 독립적인 이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부모의 맞벌이 여부도 자녀의 돌봄 필요와 돌봄 실태 전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린 생활인프라나 지역은 돌봄 필요나 돌봄 실태에 있어서 학년이나 부모의 맞벌이 여부에 비해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으나 보다 넓은 개념의 지역보다는 근린 단위가 돌봄 필요나 돌봄 실태에 조금 더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근린환경과 자녀의 통학, 이용 시설, 독립적 이용 가능 시설 등에 있어서는 주택 유형이나 동네의 아파트 비율, 동네의 전반적 경사,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등과 같은 근린 환경이 모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2. 아동 행태 영향 요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이라는 두 가지 행태에 주목하여, 각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아동 및 가구 특성, 주택 특성, 동네 환경 특성, 지역 특성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해보면, 아동 발달 측면에서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네 환경 특성 요인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의 독립적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이 혼자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해 나가야하며, 특히 학교 및 아동 이용 시설 주변의 안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근린 단위에서 놀이 공간, 도서관, 편의시설 등 아동이 혼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하고, 아동의 연령과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독립적 이동 경험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놀이터, 공원, 체육시설 등 아동이 자유롭게 놀고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친구와의 놀이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일정 정도의 돌봄 공백이 아동의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을 초과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수준의 독립적 이동 경험은 아동의 자립심, 문제 해결 능력, 사회적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성인이 동행하지 않더라도 아동이 혼자서 또는 또래 형제자매나 친구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돌봄 공백으로 인해 아동이 혼자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오히려 또래 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성 발달이 저해될 수 있으며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 초과~2시간 이하 돌봄 공백은 친구와의 놀이 활동을 증가시키는 반면 2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친구와의 놀이 활동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 관계를 가지지 못하였다. 이는 아동이 성인 보호자 없이 보내는 시간이 친구와의 긍정적인 활동에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친구와의 놀이 활동은 협동심,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 등을 배우고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성인 보호자가 함께 있지 않은 돌봄 공백 시간을 순수하게 혼자 보내는 시간과 형제자매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으로 구분하여 질적 측면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과도한 돌봄 공백은 오히려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아동의 연령 수준 등을 고려하여 집과 학교, 돌봄 시설, 동네 이용 시설, 학원 등을 이동할 때 발생하는 돌봄 공백 시간 동안 안전한 환경에서 또래와 함께 양질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을 구축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04

아동 돌봄 이용 현황 및 행태 심층 분석

제1절 조사 설계

1. 조사 목적

양육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일상생활 및 돌봄환경 특성을 조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아동의 일상생활 및 돌봄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공간적 경로를 전체 아동의 일과 속에서 관찰 및 분석함으로써 적재적소에 맞는 맞춤형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다. 방과후 아동의 주요 생활시간 구성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을 관찰하여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관점에서 쟁점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활동 유형들 간 개인 간, 지역 간,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근린 환경에 결핍된 돌봄 관련 자원을 확인하고 이를 확충, 보완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조사 방법

양육자 면담은 핵심 조사 항목을 담은 질문지를 활용한 반구조화(semi-structured)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면담과 함께 아동 활동일지(평일)와 매핑(mapping)을 병행하여 아동의 일과 및 근린 내 생활 방식에 대한 상세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제2024-0239호) 받았다.

1) 면담 질문지 구성

아동과 양육자의 일상생활, 공적 돌봄 이용을 통한 돌봄 공백 대응 현황, 그리고 근린 환경의 돌봄 지원 수준에 관한 질문을 담은 질문지를 면담 대상자에게 사전에 제공하여 응답을 위해 충분히 생각한 이후 면담에 참여하도록 안내하였다. 면담 내용을 도출하기에 앞서 2차례의 면담 시뮬레이션[37]을 통해 질문의 내용 및 방식의 적절성을 검토·보완하여 최종적으로 면담 내용을 확정하였다. 면담의 주요 항목은 〈표 4-1〉과 같다.[38]

37) 건축공간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초등학생 학부모 2인(초등학교 2학년생과 3학년생 학부모 각 1인)을 대상으로 면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38) 면담 질문지 전문은 부록2에 수록하였다.

〈표 4-1〉 양육자 면담의 주요 항목

구분	항 목
A. 일상생활	돌봄 시간과 패턴
	일과 구성 및 공간 특성(Mapping)
B. 공적 돌봄을 통한 돌봄 공백 대응 현황	이용하는 돌봄 시설의 환경 및 아동 활동 특성
	공적 돌봄에 대한 불만족과 개선방안
C. 근린 환경의 돌봄 지원 수준	근린 내 아동 이용 시설
	근린 내 돌봄인프라간 이동 및 독립적 이동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
	놀이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

출처 : 연구진 작성

2) 아동 활동일지

면담 과정에서 아동의 등교 시점에서 취침 전까지의 하루 일과를 평일 5일(월-금)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활동일지에는 활동 장소와 종류를 기록하되, 학교 수업을 마친 후의 돌봄 장소와 학원 등으로의 이동 방식, 소요 시간에 대해서는 상세히 조사하였다. 활동 일지를 작성할 때에는 돌봄 시설 이용, 학원과 같은 정규적인 일정 외에도 일정 사이의 대기 또는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작성하였다.

3) 맵핑(Mapping)

평일 중 자녀의 돌봄에 대해 양육자가 가장 불안함을 느끼는 날의 경로와 장소 등을 지도에 작성하였다. 양육자의 불안감에 특별한 차이가 없을 경우, 평일 중 아이가 가장 힘들다고 양육자에게 이야기하는 요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요일별로 특별한 차이가 없는 경우 방과 후 장소 간의 이동 횟수가 많거나 거리가 멀어서 특징이 두드러지는 날을 선택하여 작성하였다.

맵핑에서는 주말의 동선과 이용 시설도 포함시켰는데, 이는 주말에 평소 아동에게 부족한 활동(신체활동, 여가, 놀이 등)을 보충하기 위한 장소 방문 특성을 확인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4) 면담 시기 및 장소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학기 중 어느 정도 안정된 시점의 돌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4년 4월 18일부터 2024년 6월 26일까지 진행하였다. 면담은 양육자의 자택이나 직장 근처에서 실시하였으며, 면담 대상 양육자 1인과 연구진 2인이 참석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 명의 연구진이 면담을 주관하였다.[39]

3. 면담 대상자 선정

가. 선정 기준

본 연구에서는 면담 대상을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자녀의 주양육자로서 현재 동네에서의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일부는 앞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IRB 제2024-0231호) 응답자 중 심층 면접에 동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되, 시도 단위 아동 돌봄 환경(1단계)와 시군구 단위 방과후 돌봄 수급(2단계)[40]를 기준으로 선정된 지역에서 근린 환경과 공적 돌봄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였다.[41]

〈표 4-2〉 시도 단위 돌봄 환경 유형 구분 (1단계)

구분	소속 시도	중심점	면담 대상 선정
1유형	서울	서울	○
2유형	울산, 세종, 제주	세종	○
3유형	경기	경기	○
4유형	부산, 대구, 인천, 충남, 경북, 경남	경남	
5유형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강원	○ (충북)

주: 클러스터 분석에 포함된 변수는 주민등록연앙인구, 아동 인구 비율, 보호대상 아동 수, 복지급여 수급아동 수, 맞벌이가구 수, 어린이집 현원, 유치원 현원,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 유치원 접근성, 어린이집 접근성, 유치원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인구 비율, 어린이집 서비스 권역 내 영유아 인구 비율, 방과후돌봄 현원,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률, 온종일돌봄 접근성, 온종일돌봄시설 서비스 권역 내 초등학생 인구 비율, 생활권공원 접근성,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국공립도서관 접근성, 공연문화시설 접근성, 토지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수, 중앙부처 예산, 지방자치단체 예산, 시도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 재정자주도임.
출처: 강지원 외(2023a). p.166.

온라인 조사 참여자 중 면담 희망자는 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대상자를 참여시키기 위해 충청북도육아종합지원센터, (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한 면담 대상자 추천 또는 개별 설문조사를 거쳐 면담 조건에 맞는 참여자를 추가적으로 모집하였다.

---

39) 면담은 건축공간연구원 또는 두리공간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진 중 1명이 주관하였다.
40) 시군구 단위의 방과후돌봄 수요 대비 공급률(이용률)을 전국 10개 분위로 할당한 값
41) 면담 대상은 온라인 설문조사 27번 문항(근린환경)에 대해 A.보행환경과 C.놀이기회 중 (1)-(5)번에 해당하는 15개 항목 중 '전혀 그렇지 않다'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3%(5개) 이상인 사람, 그리고 공적 돌봄에 대한 10-12번의 세 문항에 대해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1개 이상이거나 설문조사 13번에 대해 불만 사유를 ①~④중 하나로 응답한 사람의 교집합으로 선정하였다.

나. 선정 결과

심층 면담 참여자는 총 25명으로,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특수지역)과 아동의 성/연령, 주양육자 근로형태, 거주주택 유형 등을 고루 포함하여 다양한 사례를 두루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학교돌봄교실의 수용기간이 평균적으로 2학년 때까지인 점을 감안하여 저학년 비율을 높게 설정하되, 봄 학기임을 감안하여 아직 온전히 학교에 적응했다고 보기 어려운 1학년은 제외하였다. 또한 학교돌봄을 떠나 독립적인 일정관리 형태로 이행하는 시기로서 3학년이 겪는 변화와 어려움의 양상을 함께 포착할 수 있도록 배분하였다.

〈표 4-3〉 심층 면담 대상자 특성

연번	수요대비 돌봄 공급 수준 (시군구별 등급)	세부지역	근로 여부	면담 대상자 성별	조사 대상 아동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동네 거주 기간	공적 돌봄 이용 현황
					학년	성별		
1	경기 – 하위	수원시 영통1동	자영업/ 프리랜서	여	2	여	3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2	서울 – 상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자영업/ 프리랜서	여	2	여	4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3	경기 – 중위	안산시 성포동	전업주부	여	4	남	25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4	서울 – 상위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전일제 근로	여	2	남	11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5	서울 – 상위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전일제 근로	여	2	남	37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거점형키움센터(비정기)
6	경기 – 하위	수원시 망포동	전일제 근로	여	4	남	2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7	경기 – 하위	김포시 통진읍	전일제 근로	여	2	여	15년	초등학교 돌봄교실
8	경기 – 상위	연천군 연천읍	전일제 근로	여	2	여	3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9	세종시	세종시 다정동	파트타임	여	2	여	4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10	경기 – 상위	평택시 고덕면-1	파트타임	여	2	남/여(쌍둥이)	3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11	세종–상위	세종시 소담동	전일제 근로	여	2	남	3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12	서울 – 중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전일제 근로	여	3	여	5년	다함께돌봄센터
13	경기 – 상위	평택시 고덕면-2	자영업/ 프리랜서	여	3	여	35년	지역아동센터
14	충북 – 중위	충주시 호암동	전일제 근로	여	2	남	2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연번	수요대비 돌봄 공급 수준 (시군구별 등급)	세부지역	근로 여부	면담 대상자 성별	조사 대상 아동 (초등학생 자녀 중 막내)		동네 거주 기간	공적 돌봄 이용 현황
					학년	성별		
15	경기 – 상위	양주시 옥정동	전일제 근로	여	2	남	1년	학교꿈터교실(돌봄교실 대기반)
16	충북 – 중위	보은군 보은읍-1	전일제 근로	여	3	남	5년	지역아동센터
17	충북 – 상위	괴산군 소수면	자영업/ 프리랜서	여	2	여	9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18	충북 – 중위	보은군 보은읍-2	전일제 근로	여	2	남	12년	늘봄학교
19	충북 – 중위	충주시 칠금동	전일제 근로	여	3	남	2년	초등학교 돌봄교실
20	충북 – 하위	진천군 덕산읍	전일제 근로	여	2	여	9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
21	경기 – 하위	안산시 일동	전업주부	여	3	여	5년	지역아동센터
22	충북 – 하위	증평군 증평읍	전일제 근로	여	2	여	10년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초등돌봄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23	충북 – 하위	청주시 분평동	3교대 근무	여	2	남	1년	지역아동센터
24	충북 – 하위	옥천군 안남면	프리랜서 /활동가	여	2	여	12년	작은도서관
25	세종 – 상위	세종시 어진동	전일제 근로	여	3	남	3년	지역아동센터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4-4〉 면담 대상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방과후 돌봄 수급 분위

구분	돌봄 수급 현황	시군구 분위	면담 대상자 선정
클러스터1 (서울)	돌봄 이용 상위	1-2 분위	3
	돌봄 이용 중위	4분위	1
	돌봄 이용 하위	(서울시에는 돌봄 이용 하위 지역이 없음)	–
클러스터2 (세종)	돌봄 이용 상위	3분위	2
클러스터3 (경기)	돌봄 이용 상위	1-3 분위	2
	돌봄 이용 중위	5-7분위	4
	돌봄 이용 하위	8-10분위	3
클러스터5 (충북)	돌봄 이용 상위	1분위	1
	돌봄 이용 중위	4-5분위	4
	돌봄 이용 하위	8-10분위	4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자료(강지원 외, 2023a)를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표 4-5〉 면담 참여자 특성

(단위: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특수지역	전체
전체		**9**	**8**	**10**	**25**
학년	저학년(2학년)	5	4	8	17
	고학년(3~4학년)	4	2	2	8
성별	여	4	1	7	12
	남	5	5	3	13
형제자매 수	없음 (외동)	4	5	1	10
	1	1	1	3	5
	2	4	0	4	8
	3	0	0	2	2
주양육자 근로형태	전일제 근무[1)]	4	4	6	14
	단축근무/파트타임	1	1	2	4
	프리랜서/유연근무	2	1	2	5
	전업주부	2	0	0	2
주택 유형	300세대 이상 아파트	4	6	4	14
	300세대 미만 아파트	2	0	2	4
	아파트 외	3	0	4	7

1) 3교대제 근무와 일정 시간 가게 문을 여는 자영업은 전일제 근무에 포함 (각 1건)
2)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돌봄교실 대기반) 1건, 늘봄학교(돌봄교실에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1건 포함

출처 : 연구진 작성

4. 분석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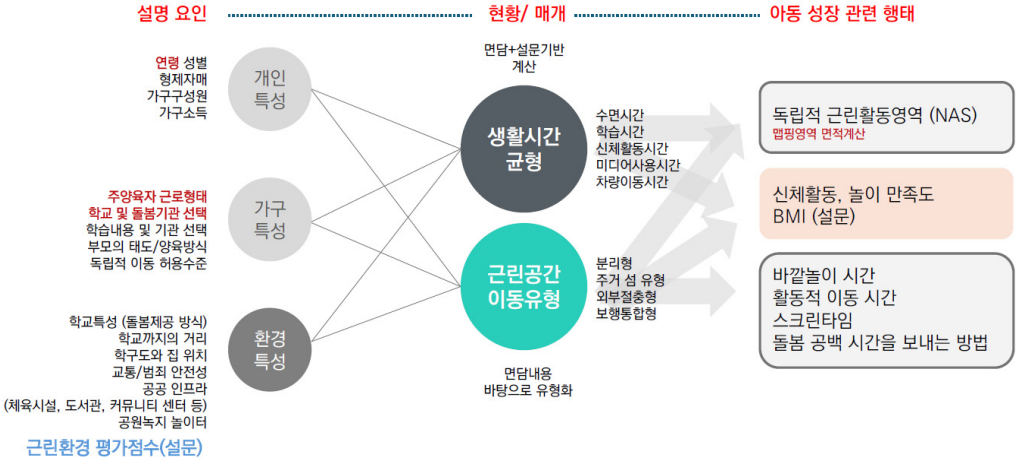
심층면담 결과에 대한 정성적 해석은, 면담에 참여한 25명의 주 양육자가 처해 있는 서로 다른 여건 속에서 택하게 되는 돌봄의 양상과, 그 결과로 나타난 아동의 생활행태를 이해함으로써 근린단위 돌봄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가정-학교와 근린환경 특성이 주양육자의 선택과 아동의 생활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사회생태학적 모델 관점을 참고하였다.

면담결과 분석은 돌봄 공백과 아동의 시-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내용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돌봄 공백 파트에서는 1) 양육자의 돌봄방식 조합 및 선택, 2) 돌봄 공백의 발생지점과 아동이 공백시간을 보내는 방법, 3) 돌봄 공백 발생을 막기 위한 주양육자의 대처 과정에서 지불하게 되는 아동과 양육자의 기회비용을 탐색한다. 돌봄방식의 선택이나 공백의 발생 및 공백시간 활

동내용의 차이 발생을 개인특성-가구특성-학교와 근린특성 차원에서 검토하되, 어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살핌으로써 공공 돌봄의 개선지점을 모색한다.

아동의 시-공간 사용행태 분석 파트에서는, 건강한 성장을 위해 권장되는 균형있는 생활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아이들의 시간과 공간사용 방식이 보여주는 유형을 그룹핑하고 시-공간 유형 간 관계성을 탐색하였다. 1) 시간사용 방식에 대한 유형별 군집을 도출하여 하루의 활동시간의 배분이 그룹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2)근린환경여건과 이동수단을 결합한 개념인 이동패턴 유형(activity-transportation lifestyles)을 분류하여 이들 유형이 근린환경 접촉면(놀이+보행) 또는 근린활동영역(NAS, neighborhood activity space)과 관련되어 있는지 탐색한다. 다음으로 3)시간사용 유형과 공간이동패턴 유형을 매치하여 아동의 균형잡힌 시간활용에 기여하는 공간이동패턴이 드러나는지 확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근린환경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면담참여자 기본정보 및 심층면담 결과물(면담내용 맵핑, 심층면담 질문지 응답 내용, 면담 녹취 전사파일)이며, 인구사회적 특성과 근린환경 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초등돌봄실태조사” 설문 정보를 참고하였다.



[그림 4-1] 주양육자 심층면담 내용 분석의 틀

출처 : 연구진 작성

제2절 돌봄조합 선택 및 돌봄 공백 대응

1. 돌봄조합 선택요인과 양육자의 불만/불안

면담참여자들의 돌봄조합 방식은 방과 후 주요 돌봄기관을 어디로 설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크게는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를 기준으로 학내/학외 돌봄으로 구분되며, 학교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도 ①(방과후)수업 위주, ②학교돌봄교실 중심 ③방과후-돌봄 통합형 학교 선택으로 나눌 수 있다. 돌봄기반이 학교 밖 장소에 있는 경우는 ④지역아동센터 중심 ⑤그 외 학교 밖 돌봄기관 이용 두 가지로 구분된다. 각 돌봄조합 유형에서 개인-가구-근린(+학교)환경 차원 중 결정적으로 작용한 요인들이 있는지 살펴본 후, 이 과정에서 드러난 양육자들의 주요 불만사항을 검토하였다. 돌봄조합 선택에 대한 유형별 요인은 다음과 같다.

가. 유형 A : 돌봄제공기관 미이용, 수업 위주의 일정운영 (7명)

돌봄기관 없이 수업 위주로만 일정을 운영하는 그룹의 대부분은 연령 제한, 비맞벌이 등으로 학교돌봄교실 수용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다(7명 중 6명 해당)[42]. 자기 일정을 스스로 관리하며 친구들과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답한 4학년 아이의 양육자를 제외하면, 나머지 5명은 제한조건으로 인한 일종의 비자발적 돌봄 부재 상태에 처해 있다. 실제 상황과 행정서류상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맞벌이 가정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으로 1학년에게 우선순위를 내주고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 자녀 셋 이상으로 맞벌이만큼 돌봄 지원이 절실하지만 학교 돌봄에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자의 사정은 다양하다.

학교 돌봄교실 지원을 위한 모든 조건에 부합하지만 돌봄보다는 수업 위주의 일정을 선택한 경우는 단 1명에 불과한데, 이는 주양육자의 근로상태(파트타임)가 주는 시간적 여유와 생활권계

42) 신도시나 신시가지의 경우 아파트단지 동시 입주로 인해 과밀학급이 형성되면서 돌봄교실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수용 인원을 초등학교 1학년에 한정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획이 뒷받침된 근린환경의 풍부한 공공인프라(세종시 복컴, 작은도서관 등), 그리고 여기에서 제공되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특수한 결과로 보인다.

이용자격 제한에 의해 돌봄의 테두리 밖으로 나온 아이들의 일정을 살펴보면, 학교 돌봄에 머무르던 시간이 다른 감독된 활동으로 온전히 보충되지 않고 공백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주양육자가 전일제로 일하는 3개 사례 모두에서 어른의 감독없는 시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일제가 아닌 경우 양육자 본인의 일정 조정이나 가족의 도움으로 공백발생에 대처하고 있다.

3학년 이상의 아동에게 발견되는 또 하나의 차이는 자신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호와 의견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기관돌봄이나 활동을 부모의 의지만으로 권유하기 어렵다. 양육자들도 대부분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려 하지만 안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친구들과 재미있게 노는 것은 좋은데, 질 좋은 간식을 주기 어렵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고 싶어하는데, 게임만 하려 해서 걱정이다”, “학원 셔틀 시간을 잊고 나가지 못해 공백시간이 더 길어질 때가 있다” 는 양육자들의 불안은 돌봄 필요과 독립 의지의 경계에 있는 3학년 아이들에게 필요한 과도기적 완충장치를 고민하게 한다. “학교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일단 다 받아 주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공간만이라도 내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양육자의 의견에서, 건강한 생활습관을 지닌 청소년기로의 이행을 위한 반-자율적인 매개장소와 프로그램 등 느슨한 돌봄 테두리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 “제가 불만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간식을 중간에 챙겨 먹지 못하는 게 좀 큰데, 금요일 방과 후 수업이 요리 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요리 과학에서 만든 걸 간식으로 먹고 축구를 가면 아이가 허기진 상태에서 노는 건 아니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밖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6시 정도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픈 상태로 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편의점에서 과자 사 먹거나 이런 건데, 저는 굶는 거 못지않게 과자 사 먹는 게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먹지 말라고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되게 고민이 많은 요일이에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수원시 망포동, 4학년)

> “혼자 걸어와요. 혼자 걸어와서 집에 있다가 5시에 영어학원 차가 와요. 그러면 아파트 정문에서 혼자 타고 가고 6:50에 돌아와요. 저녁 먹고 저녁 먹으면 게임, 유튜브 실컷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엄마, 아빠랑 놀다가 자요. 중간에 집에 혼자 있는 시간도 유튜브만 해요. 게임하고. 2시간을 실컷 놀고 있는데 혼자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는 걸 힘들어해서 지금은 괜찮은데 학기 초에는 끊임없이 전화가 왔어요.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학원을 안가면 안 되냐, 저는 일하는 엄마고, 애가 안타까우니까 정말 애가 아픈 걸까봐 학원을 정말 많이 빠졌어요. ” (충주시 칠금동, 3학년)

〈표 4-6〉 유형 A (수업위주) 일정운영 집단의 특성

면담 대상	돌봄조합	돌봄조합 주요 선택요인			공백 발생 유무	양육자의 불안/불만
		개인	가구	근린환경		
수원시 망포동	학교방과후 3 + 축구학원	**4학년** (초5 누나)	전업(작년) 〉 현재 전일제	**단지내 놀이터, 보행환경 안전**	발생	아이가 친구와 잘 노는 것은 만족 질 좋은 간식 공급이 어려움 (학교방과후 요리교실이 도움)
세종시 어진동	학교방과후 5 + 수영학원 피아노학원	**3학년** (외동)	전일제 근로 가족 등 주변 지원인력 없음	중규모단지 업무지구 인접	발생	학교방과후 수업에 탈락하면 그 시간이 공백으로 이어짐 집에서 혼자 놀다가 일정을 잊고 학원셔틀 못 탄적이 많음 미디어사용, 신체활동 부족 염려
충주시 칠금동	학교방과후3 + 공공수업(택견) 영어학원	**3학년** (외동)	전일제 (4:30 퇴근)	중규모 단지 상업지구 인접	발생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것을 좋아해서 미디어사용 과다염려 이사를 자주 다녀 친구가 없음
충주시 호암동	학교방과후1 + 공공수업(택견) 바둑학원 피아노학원	**2학년 (과밀학급)** (외동)	프리랜서 (강사) 양질교육 관심: 공공프로그램 참여욕구	신규개발지구 아파트	-	과밀학급으로 학교돌봄에서 1학년만 수용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학교방과후2 +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2학년 (외동)	**비맞벌이 실제 프리랜서** (서류상)	소규모 단지 집이 학원가 등 또래들의 생활 반경과 반대편	-	실제로 한부모가정, 맞벌이지만 서류상 인정 어려움
세종시 다정동	학교방과후1 + 마을방과후4 미술학원 피아노학원	2학년 (외동)	**파트타임** (도서관)	**공공인프라 풍부** 복컴, 작은도서관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프로그램	-	-
안산시 성포동	학교방과후3 + 태권도학원	2학년 (남동생 2)	**비맞벌이** (전업주부)	구축 대단지 놀이터와 인접 공원 활용도 낮음	-	다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돌봄 지원조건 미충족 부모의 돌봄부담 분산을 위해 밤시간 학원, 낮시간 집에 머뭄 또래와의 교류 결핍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나. 유형 B: 학교돌봄교실 이용 (+α, 학교방과후, 학원, 공공시설 수업 등) 9명

학교돌봄교실을 방과후 돌봄의 거점으로 이용하고 있는 그룹이며, 학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분위기상 기본적인 자격조건의 충족(아동 학년, 맞벌이)이 자연스럽게 돌봄공간 선택 유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전원 2학년이며, 주양육자는 전일제 근로 비율이 높고 단축근무에서 전일제로 전환한 또는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발견된다. 돌봄교실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양육자의 심리적 대비가 아이들의 일정에 미리 반영되는 경우(학습 학원의 추가, 독립보행 연습 등)도 관찰된다.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9명 중 전적으로 학교 돌봄교실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학교방과후 수업이나 민간 학원, 공공에서 제공하는 수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학교 돌봄 교실은 장시간 머물며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장소라기보다는 간식을 먹고, 이동하기 전 휴식 등을 위한 제2의 집과 같은 장소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돌봄교실을 이용하는 그룹에서도 공백 발생상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돌봄교실에서 학원, 공공수업 등으로 연결되는 이동 일정이 정확히 맞지 않을 때, 또는 일정 종료 후 주양육자가 귀가하기까지 발생하는 비교적 단시간의 공백이 주를 이룬다. 따라서 양육자의 주된 어려움은(불만사항)은 돌봄 교실의 다소 경직된 운영방식과 상대적으로 빈약한 프로그램에 대해 집중되고 있다.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이주한 신도시 지구에서 넘치는 수요로 인한 돌봄 임시대기반 편성(간식 미제공, 3시까지 단축 운영, 프로그램 없이 단순 감독), 갑자기 생긴 일로 퇴근길 30분 이내의 시간연장이 필요할 때 담당 선생님께 부탁하기 어려운 점, 아이가 귀가할 때 반드시 사전에 알린 보호자가 돌봄 교실로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 등 융통성의 부족이 주된 불편함으로 지적되었다. 돌봄교실 자체운영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학교 여건에 따라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은 앉아서 하는 정적인 활동으로, 적극적인 신체활동이 포함된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다. 신체활동을 선호하지 않는 아이의 양육자들은 다같이 참여하는 신체활동 기회에 대해 아쉬움을 표한다. 이 때문에 태권도와 같은 종합적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원이 돌봄교실과 가장 자주 함께 조합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돌봄 교실의 운영방식과는 별개로 양육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또 하나의 사안은, 양질의 저렴한 공공수업 수강(특히 체육관, 수영장 수업, 시에서 제공하는 택견/드럼 강좌 등)에 대한 욕구가 있으나 학교 돌봄에서 해당 장소로의 이동이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양육자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아이의 참여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 중 외출을 활용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으로 아이를 픽업하고, 때로는 어른 없이 아이들끼리 이동하는 장거리 도보가 발생하기도 하여 양육자의 부담과 불안이 존재한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시설이 도보권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못한 까닭에,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은 곧 이동수단 확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게 되고, 이는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공공 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가 둘 다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학원 차량이 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픽업이 되는 과목의 학원은 안 다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미술이랑 피아노를 다니고 싶어 하는데, 학원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시간이 좀 비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돌봄 신청하게 되고, 고민 없이 했던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어서 사실은." (괴산군 소수면, 2학년, 자영업)

"돌봄 교실이 융통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정확하게 6시에 퇴근하는 일이 일주일에 몇 번이나 있을까 싶어요...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늦어질 수 있고, 그런데 돌봄은 융통성이 너무 없으니까 나 늦게 끝나면 어떡하지, 갑자기 오늘 회의합니다 하고 카톡 오면, 나 어떻게 연락하지 순간 철렁해요. 급하게 언니한테 전화한 적도 한두 번 있어요. 언니도 안 된다 그러면 엄마는 뭐라 하시니까 잘 연락을 안 드리는데, 엄마 너무 미안하지만 가줄 수 있어요, 그럼 또 가주시고." (수원시 영통1동, 2학년, 프리랜서)

"혼자서 학원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돌봄교실 규칙이 학원 차가 픽업을 오거나 부모님이 직접 와서 아이를 픽업해서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 혼자 밖으로는 나가지 못하게 돌봄 교실에서 그렇게 정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또 정규수업 끝나고 학교 교실에서는 아이들이 그냥 하교하는데, 돌봄에서만." (괴산군 소수면, 2학년, 자영업)

"월, 수, 금은 수영하러 가는데(맹동혁신 국민체육센터), 월요일에는 할아버지가 데려다 주시고 이제 올라가시고,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웬만하면 혼자 걸어가거나 킥보드 타고 가요. 걸어서 20분 정도 걸려요, 조금 멀어요. 그런데 차를 태워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혼자 타고 가기도 그렇고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걸어가는 편인데, 그날이 제일 불안해요." (진천군 덕산읍, 2학년, 전일제)

"군에서 운영하는 초등학생 수영 수업이에요. 늘봄에서 3시20분에 나오면 이때는 픽업해서 제가 태워다 주고 올때는 형제끼리 걸어와요. 애들끼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놀아요. 공백이 생기는 거죠. 30-40분 정도, 장보고 오면 1시간 정도." (보은군 보은읍-2, 2학년, 전일제)

〈표 4-7〉 유형 B (학교돌봄 기반) 일정운영 집단의 특성

면담 대상	돌봄조합	돌봄조합 주요 선택요인			공백 발생 유무	양육자의 불안/불만
		개인	가구	근린환경		
수원시 영통1동	학교방과후2 + 학교돌봄 + 피아노학원	**2학년** 외동	**프리랜서** 일정변경 잦음	부분적 차량위험 존재 대단지 아파트	-	학교돌봄교실의 경직된 시간운영 신체활동부족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학교방과후2 + 학교돌봄 + 태권도 영어 수학 피아노학원	**2학년** 외동	단축근무중 (10:00-15:00) **전일제 전환예정 교육열**	경사지 학구도 위치상 고립된 주거지	-	학교, 학원이 멀어 태권도차량 의존도 높음
김포시 통진읍	학교돌봄 + 태권도학원	**2학년** 초5, 6세	**전일제** 단축근무 (9:30-16:00)	고립된 주거지	-	주거지 고립으로 태권도 차량과 돌봄기능 의존도 높음
평택시 고덕면-1	학교방과후3 + 학교돌봄 + 영어학원	**2학년** 쌍둥이	파트타임 (1시이전 귀가)	분리된생활권 학교 외 공공인프라 거의 없음	-	지역 내 공공인프라 부족 학교 의존도 높음
세종시 소담동	학교방과후2 + 학교돌봄 + 태권도 피아노학원	**2학년** 6세	**전일제 근로** (9:00-18:00)	학교 인접 대단지 거주 보행안전	발생 (양육자 귀가전)	-
양주시 옥정동	학교방과후 + 학교돌봄 + 태권도 보습학원	**2학년** 외동	**전일제 근로** (9:00-18:00) 작년까지 단축근무	신도시 아파트 단지	발생 (오전)	과밀학급으로 간식 없고, 단축 운영하는 학교돌봄 대기교실 배정 보습학원 일찍 추가됨
괴산군 소수면	학교돌봄 + 미술피아노 학원	**2학년** 6세	**자영업** (9:00-18:00)	고립주거지 주양육자 사업장이 초등학교 주변	-	경직된 돌봄교실 픽업 방식 (혼자 귀가금지, 반드시 보호자 동행)으로 사업장 업무와 자녀 동행시간 중첩시 곤란
보은군 보은읍-2	학교늘봄 + 공공수영 축구학원	**2학년** 초4, 4세	**전일제 근로** (9:00-18:00)	저층주거지 통학로 복잡	발생 (양육자 귀가전)	양질의 **공공수업** 수강 원하지만 **이동방법 불안** 아이들끼리 다소 먼 거리 도보 귀가 후 공백발생
진천군 덕산읍	학교돌봄 + 공공수영 보습학원	**2학년** 2세	**전일제 근로** (9:00-18:00) (화-토)	혁신도시 아파트 단지 보행환경 안전	-	**공공수영** 수강을 위한 **장거리 독립보행 발생** 조부모의 둘째 돌봄 지원으로 공백없이 가능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다. 유형 C : 방과후 통합형 학교돌봄 이용 (+α, 학원, 공공시설 수업 등) 3명

전교생이 학교에 개설된 모든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고, 원하는 저학년 모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방과후 통합형 학교돌봄 형태는 주로 읍면 특수지역의 소규모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었으나,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로 대도시에서도 관외 학생을 수용하여 통합형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다. 맞벌이 양육자 입장에서 사는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아이를 보내게 되는 이유는 입학만으로 학교돌봄과 방과후 수업 참여가 100% 보장된다는 사실이 주효하다. 거주지역 초등돌봄수요가 수용인원을 초과하고, 방과후 수업의 수강신청 경쟁마저 치열하다면, 이는 곧 자녀의 돌봄 공백으로 이어져 전일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방과후 통합형 돌봄형 학교를 다니고 있는 면담사례 3건 중 2건이 거주지 학교 외 다른 원거리 소규모 학교를 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양한 부수적인 설명들(양육자의 직업 특성 등)이 추가로 가능하지만, 주된 요인은 거주지 초등학교의 돌봄 서비스가 양육자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상황과 전일제 근로자로서 학교돌봄의 안정된 보장의 절실함이 결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읍면 단위 소학교의 경우 스쿨버스로 등하교를 하며, 학원이 더 있는 날은 스쿨버스에서 학원차량으로 환승이 이루어진다. 서울 도심의 소규모 학교에서 스쿨버스는 운영되지 않으며, 부모가 오전-저녁으로 나누어 등하교 픽업을 담당한다. 애초에 공백을 막기 위한 돌봄방식 선택이었으므로, 양육자의 불만사항이나 불안 요소는 거의 없는 편이다. 감독없이 지내는 돌봄 공백은 나타나지 않지만, 대신 아이들은 하루 90분에 가까운 시간을 차량이동으로 소진하고 있다. 장거리 차량 탑승으로 인한 피로 누적은 다른 여가활동의 기회를 박탈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로 두 사례에서 아이들은 한번 귀가하면 다시 집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동네에서 학교에 다니는 다른 아이들의 생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동네 아이스크림 가게와 편의점, 공원과 놀이터, 친구들과 모이는 장소 등은 두 사례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어,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지역 외 학교의 선택이 아동의 동네 접촉면 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상황의 누적이 아이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볼 때, 이 두 사례는 “근거리 학교의 만족스러운 돌봄서비스 보장”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케이스로서 의미를 지닌다.

면단위 농촌 지역(옥천 안남면)에서 읍내 방과후 통합형 학교에 다니고 있는 나머지 한 참여자의 경우, 학교와 집 사이는 약 1km 남짓이다. 학교 내 개설된 모든 방과후 프로그램에 전교생이 참여하는 소학교의 시스템은, 아이들의 일차적인 관심 밖에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접해볼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남면 사례의 경우 학교 외에도 마을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조성한 작은도서관에서 추가적인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아이들의 삶이 매우 풍성하다. 학

교와 도서관 사이는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학교돌봄이 종료되면 다 같이 스쿨버스를 타고 도서관으로 이동한다. 도서관에서는 학교와 구별되는 다양한 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를 같이 다니는 아이들이 그대로 도서관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아이들끼리 친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귀가는 마을 자체 순환버스로 이루어지며, 아이들은 순환버스에서 내린 후에도 친구들과 마을 곳곳을 다니며 놀다가 귀가한다. 마을의 거의 모든 어른들은 아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돌봄안전망(감시의 눈)이 작동한다. 돌봄 시간과 내용, 아이들의 마을 경험과 또래와의 교류 등 균형있는 활동과 건강 측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은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다. 학교 뿐 아니라 옥천 지역의 마을자치 활동이 기반이 된 도서관과 마을순환버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일반화된 모델로 바라보기에는 특수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옥천 사례는 도시와 구별되는 농어촌 지역의 고유의 자원이 어떻게 조합되어 이상적인 하나의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기 큰 학교가 두 군데가 있어요. 연천초등학교가 있고, 이쪽에 전곡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런 큰 학교는 방과후 활동이나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작은 소학교는 전원이 다 돌봄이나 방과후가 되니까 저희 아이는 청산에 있는 궁평초등학교라는 소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여기서 차량으로 한 15분 정도... 원래는 학군이 연천 초등학교가 맞는데, 여기는 소학교가 많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의 재량하에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다" (연천군 연천읍, 2학년, 전일제 근무)

"이 학교는 좋은 게 명문학교라고 부르는 프로그램 방학 2주 동안 오전 수업을 따로 해주는 게 있어요. 다른 학교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외부 강사님 오셔서 역사 미술 코딩 같은 수업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도 방과 후, 돌봄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아침에도 돌봄 하고 도시락 저희가 비용을 내고 먹고 오후에 방과후까지 계속 연결돼요." (은평구 갈현동, 2학년, 전일제 근무)

"이제 스쿨버스가 코스별로 다니다 보니 주로 거의 마지막에 내려서 차량을 좀 오래 타는 편인 것 같아요. 계산해 보니 너무 많이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중략)... 할머니 댁에 갔다가 제 차로 집에 오면 6시 반, 그때부터 이제 식사하고, 좀 있다가 씻고 바로 자요." (연천군 연천읍, 2학년, 전일제 근무)

"평일에, 어제도 밖에서 놀다가 왔어요. 막차를 타고 집으로 안 오고 친구들 몇 명과 같이 누구 집에 가보자 해서 갔다가 이 집도 갔다가 그러다가 제가 저녁에 탁구를 하거든요, 거기로 직접 왔더라고요. (밖에서 논다는 것이 친구집 마당이나 주변에 놀만한 곳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애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놀지는 않아요. 그 친구 집에 갔는데 마당에 개가 있으면 개를 데리고 놀거나. 그리고 그 친구 부모님네 하우스, 농사 짓는 비닐 하우스 가서 거기 가서 있기도 하고. 저희 마을에 오면 체험관 근처에서 빙글 빙글 돌다가 체험관

2층에서 쉬다가 그러니까 친구네 집도 내 집이고, 저희 애는 특이해서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보다는 동네 이모네 집에, 자기 집인양 가자! 해서 데려가서 그 집에 가서 똑똑하고 문 열리면 들어가서 놀고 그래요." (옥천군 안남면, 2학년, 유연근무 마을활동)

〈표 4-8〉 유형 C (방과후수업 통합형 학교돌봄 참여) 집단의 특성

(단위: 명)

면담 대상	돌봄조합	돌봄조합 주요 선택요인			공백발생 유무	양육자의 불안/불만
		개인	가구	근린환경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방과후 통합형 학교돌봄 + 영어학원	2학년 외동	**전일제 근로** (8:30-16:30) 높은 교육열	**초등학교 돌봄공급)수요** 대도시 저층주거지	-	-
연천군 연천읍	방과후 통합형 학교돌봄 + 피아노 학원	2학년 4학년 남 7세 여	**전일제 근로** (9:00-18:00)	**초등학교 돌봄공급)수요** 읍면단위 고립주거지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	스쿨버스-학원차량 환승시 불안 긴 차량탑승시간
옥천군 안남면	방과후 통합형 학교돌봄 + 작은 도서관 돌봄	2학년 손위형제 2명	유연근무	**면지역 저밀도** 농촌마을 **마을자치 활성화**	- 감독되지 않는 자유로운 활동이 있으나 공백이라 보기 어려움	-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라. 유형 D : 지역아동센터 중심 (+α, 학교방과후, 학원, 공공시설 수업 등) 4명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4명은 모두 3학년 아동이며, 다자녀 가구(자녀 3이상)라는 공통점을 보인다.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으로, 돌봄지원이 절실하지만 아동의 연령과 맞벌이 여부 등 학교돌봄 입소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양육자들이 실제로 기댈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임을 말해 주고 있다. 학교돌봄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돌봄 외 다양한 학원과 공공수업 일정 등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역아동센터 이용자들은 센터만 이용하거나 학원 1개 정도만 추가된 형태로, 비교적 단순하고 센터 의존도가 높은 일과를 보여준다.

특징적인 점은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일과에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나고 지역아동센터에 가기 전, 약 1시간 가량을 센터 친구들끼리 동네에서 간식을 사먹으며 놀고 거니는 행태가

관찰된다는 점이다(2건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며, 이러한 패턴이 없는 1건은 센터에 머무는 시간이 2시간 이하). 이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높고, 신체 활동보다는 학습 위주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로 이동하기 전에 주어지는 일종의 휴식으로서 부모가 허락한 시간임이 면담을 통해 확인된다. 감독되지 않는 시간이므로 "돌봄 공백"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아이들의 감독에서 벗어나 또래와 갖는 자유시간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픈스페이스와 공공인프라가 부족한 저층주거지에서 사소한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들의 행태는 3학년 이상의 아이들의 의미있는 활동을 위한 근린환경의 공적 공간이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양육자들은 정해진 시간동안 아이를 안전하게 돌보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의 학습과 개인별 특성에도 신경써주며, 부모로서 들여야 하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해주는 센터 역할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크다. 다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연령대가 다른 아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려운 양육자의 고충을 센터는 아이들끼리 가는 여행, 문화공간으로의 외출, 놀이공원 방문 등 또래와 함께 하는 행사들을 통해 해소해 주고 있다.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길게 함께하면서 양육자들과 맺는 각별한 신뢰관계를 면담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첫째, 둘째가 연년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는 게 힘만 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여기 이사 와서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아이들 셋을 어린이집도 안보내고 혼자 그걸 다 했어요. 한 1년 넘게 거의 2년 다 되어갈 정도로. 아는 분이랑 이야기하다 주저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여기를 소개시켜준 거예요. 가서 상담을 했는데 센터장님께서 어머니랑 아이랑 이렇게 계속 지내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일주일만 애들 적응기간이 필요하니 보내봐라 그래서 보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안산시 일동, 3학년, 전업주부)

"센터장님 1명, 공익 근무 선생님 2명, 외주 선생님 1-2명 오시니까 많을 때는 선생님이 7명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애들 딱 끼고, 선생님이 앉고 2명 해서 자기가 문제 풀고 선생님 채점해 주면 이제 모르는 거 알려주고, 센터장님도 항상 상주하면서 한 몫을 하세요. 다 무료예요. 문제집 값만 내면 여기는 문제를 많이 푸니까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시리즈 나간다 하면 그냥 그 정도. 요즘에 학원비가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아이당 50만원은 절약되는 거... 학습을 잘해준다고 해서 갔는데, 공부를 너무 스파르타로 시킬 줄 알았는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애들 연중에 1박 2일 데리고 풀빌라도 가고, 에버랜드 리조트도 가고, 뮤지컬 보러도 가고 활동을 되게 다양하게 해줘요." (평택시 고덕면-2, 3학년, 프리랜서)

"내부 환경은 사실 다 오픈해서 보진 못했어요. 근데 집이랑 같은 조건이라 생각하니까 너무 밀집돼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전기가 맨날 딸린대요. 좀 옛날 아파트이니까 방마다 에어컨이 다 있으니까 4개를 다 켜면. 거기에 냉장고, 캐비넷, 책상도 8개 있으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다 쪼개놓은 거예요. 1, 2학년이 거실에 있는 시간에는 나머지 학년을 방으로 넣고 다시 바꾸고, 그거 끝나면 중학생이 오는 식으로... 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죠." (평택시 고덕면-2, 3학년, 프리랜서)

"여기 중간에서는 아동센터 가기 전에 여기서 조금 놀고요. 학교에서 끝나고서 조금 놀기도 하고....(지아센 가기 전 학교 안에서 노는 건가요?) 거진 학교 안에서 학교 놀이터 있는 데서 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읍내 지역아동센터 가다가 읍내 돌아다니면서." (보은군 보은읍-1, 3학년, 전일제 근로)

"(여기에 실제로 머무는 시간은 5시까지 있다고 하니까 3~5시면 그렇게 길지 않네요. 도보로 가고, 친구들과 가는데 이게 센터 친구들인 거고요). 네 중간에 어디 안들르면 10분도 안걸리는데,.. 편의점, 아이스크림 할인점 들르고, 꿈떡 떡볶이집 들를 때 있고, 다이소 들를 때 있고 한동안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용돈은 1-2주에 한번씩, 하루에 천원 정도로 줘요." (안산시 일동, 3학년, 전업주부)

〈표 4-9〉 유형 D (지역아동센터 돌봄 중심) 집단의 특성

면담 대상	돌봄조합	돌봄조합 주요 선택요인			돌봄 공백 유무	양육자의 불안/불만
		개인	가구	근린환경		
보은군 보은읍-1	지역 아동센터	**3학년** 중2, 초6, 7세	전일제 근로 (8:40-16:30)	읍·면지역 저층주거지 집-읍내중심 1km이상	감독없는 자유시간 허락	-
안산시 일동	지역 아동센터	**3학년** 초4, 6세	전업주부	저층주거지 대학인접	감독없는 자유시간 허락	-
청주시 분평동	학교방과후3 + 지역 아동센터 + 피아노학원	**3학년** 고3, 고1 상담치료 진행중	전일제 3교대 근무 (9:00-18:00)	대단지 구축아파트 근린공원 인접	-	-
평택시 고덕면-2	지역 아동센터 + 미술학원	**3학년** 6세, 5세	프리랜서 (16:00 이전 귀가)	고립생활권 구축대단지 학교 외 공공인프라 거의 없음	-	대체로 만족하지만, 밀집된 공간에 대한 약간의 아쉬움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마. 유형 E : 학교 밖 기타 돌봄시설 이용 (+α, 학교방과후, 학원, 공공시설 수업 등) 2명

학교 밖 돌봄지원 기관의 경우 지역별 공급과 분포의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양육자들의 선택은 결국 거주지 근처, 학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양질의 돌봄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전체 면담참여자 중 2개의 사례만이 학교 밖 기타돌봄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이 언급하는 공통적인 장점은 학교돌봄교실과 같은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3학년 이상이 되어도 계속 다닐 수 있고, 방학 때에도 큰 차이 없이 돌봄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요인으로 증평사례에서는 교실이라는 단일 공간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대한 아이의 비선호(공공지원 민간운영 초등돌봄센터 이용자)가 있다. 반면 서대문구 키움센터의 경우 양육자의 해당 돌봄시설(우리동네 키움센터)에 큰아이를 보낸 경험으로 쌓인 신뢰, 동네 자체에 센터 프로그램에 연계 활용할 수 있는 자연환경, 공공인프라, 인적, 사회적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양육자들이 학교돌봄을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돌봄의 기본 형태로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 장소에 오래 머무는 상황을 우려한다는 사실은 학교 돌봄에 있어 시간 연장만이 능사가 아니며, 공간의 다양성 확보, 지역사회와의 공간적, 프로그램적 연계가 얼마나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적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해준다.

읍면 단위에서 학교 밖 기관 선택에 있어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동수단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증평 사례의 경우 학교에서 돌봄기관까지 아이가 혼자 도보로 가기 어려운 환경이다. 여기에서도 태권도 학원은 품새수련과 생활체육 제공이라는 원래 기능 뿐 아니라 셔틀버스를 통해 아이 학교와 돌봄기관을 연결해 주고, 돌봄기관 운영 시작시간 전까지 추가적으로 아이를 머물게 해주는 등 종합적 돌봄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다른 사례에서도 반복되고 있듯이, 공공에서 지원되는 양질의 서비스를 아동이 이용하기 위한 핵심 조건은 이동수단의 확보이다. 시설까지의 거리가 가까울 경우 근린환경의 안전성이 아동의 독립적 보행접근 가능성을 결정하고, 먼 거리일 경우에는 가족이나 사설 학원 등의 이동지원이 시설 자체의 이용 가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면담자의 사례에서 집-돌봄기관까지의 거리는 공통적으로 7-8분정도이지만, 시장 등 상업구역과 인접한 증평의 구도심에서 양육자는 아이가 혼자 걷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반면, 천변을 따라 덜 복잡한 동선을 구사할 수 있는 연희동 환경에서는 아이가 혼자 학교-돌봄기관-학원에 이르기까지 어른의 도움 없이 걸어다니고 있다.

시설의 입지와 근린 보행환경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기관에 대한 아동 접근성의 차이는, 학교 밖 돌봄기관을 활성화하여 보편적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서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집과 돌봄기관 근처의 자연환경 및 공원녹지의 양적, 질적 수준은 돌봄 기관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및 기관에서 아이가 경험할 수 있는 활동 스펙트럼과 직결되며, 아이의 집 근처 이동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희 둘째가 처음에 여기 개원하자마자 바로 갔거든요. 3월부터 갔는데 뭐 간식도 주시고 방학 때도 케어가 가능하니까 너무 괜찮아서 막내도 꼭 보내야 되겠다 하고 그때 선착순이었는데 밤12시에 1번으로 신청했어요. (그럼 둘째는 학교 돌봄을 안하고 있었나요?) 학교 돌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는 맞벌이 서류가 준비가 안돼서 못 갔는데 신청 기간이 지나고 나서 서류가 돼서 키움으로 가게 된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도 다 돌봐주시고 하니까 수월했고 워낙 프로그램이 되게 다양해가지고 거점형 키움센터랑도 연계가 잘 되어있고." (서대문구 연희동, 3학년, 전일제)

"학교 돌봄도 그때 가봤는데 약간 분위기가 산만하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안 보내고 싶기도 했었어서. 지금 3학년이어서 혼자서도 잘 가거든요. 1,2학년까지는 선생님들이 학교 앞에 계시다가 픽업해 주세요. 픽업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4시까지는 센터에 있고." (서대문구 연희동, 3학년, 전일제)

"...이건 뭐 키움센터의 문제가 아니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애들이 사교육도 하고 끝까지 6학년까지는 이용을 거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남자애들은. 그래서 저희 셋 다 키움센터를 다녔는데 또래 친구들이 없다 보니까 안 가고 싶어하고. 남자애들은 정말 저학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 둘째도 올해 4월부터 그만뒀거든요. 친구들이 없으니까. 저는 방학 때 중식 제공이 되니까 보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해서... (그럼 둘째는 어떻게 지내요?) 친구들하고 밖에서 놀아요. 학교 바로 밑에 여기 문화체육회관 있잖아요 여기 놀이터가 있어요. 아침에도 애들 여기 앉아서 핸드폰 하고 있고. 둘째는 늘 여기서. 체육회관이 놀이터 로비 정도로 사용되는 거죠." (서대문구 연희동, 3학년, 전일제)

"...징검다리에서는 3D 프린팅, 서예, 영어 같은 거 하고, 매주 수요일은 지역에 가서 야채를 캔다든지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내가 협소하죠. 왜냐면 그 안에 방도 2개가 있고. 또 가운데 큰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지내기에는 조금 작다. 그래도 아이는 징검다리를 더 좋아해요. 오랫동안 지내왔던 친구들이라 그렇고, 사실은 저희 담임선생님이 폐쇄적인 분이라 아이들 활동을 굉장히 제한해요. 점심시간에도 못나가게 하고... 물론 지금 사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학교에 더 있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증평군 증평읍, 2학년, 전일제)

"제 아이가 뜨는 시간이 있어요. (월요일 학교수업이 일찍 끝나는데 돌봄 오픈 시간이 3시라서) 태권도 학원에서 3,40분 그냥 있는 거예요. 좀 불안해요. 정확히 말하면 학원에 혼자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증평군 증평읍, 2학년, 전일제)

〈표 4-10〉 유형 E (학교밖 돌봄 중심) 집단의 특성

면담 대상	돌봄조합	돌봄조합 주요 선택요인			돌봄 공백 발생유무	양육자의 불안/불만
		개인	가구	근린환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 다함께돌봄센터 + 특공무술 학원	**3학년** 중2, 초5	**전일제 근로** (8:30-18:00)	저층주거지 **적절한 키움센터 자연환경 풍부 공공인프라 多**	발생 혼자 집에서 준비하고 특공무술 감	6학년까지 갈 수 있으나 3-4학년이 되면 아이들이 대부분 학원으로 전환
증평군 증평읍	학교방과후 + 태권도학원 + 민간초등 돌봄센터	2학년 초6, 초4 2세 **학교공간 비선호**	**전일제 근로** (9:00-18:00)	집근처, 돌봄시설 근처 공원녹지 부족 보행환경 열악	△ 태권도 학원에서 활동 없이 머무름	집주변, 돌봄시설 주변 모두 놀이터가 없음 이동과 돌봄에 대한 태권도 학원 의존도 높음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바. 돌봄조합 선택요인 종합

주요 돌봄기관 및 조합유형을 통해 살펴본 주요돌봄방식의 선택요인을 개인-가구-근린(+학교) 차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대부분의 초등돌봄교실 수용대상에 해당하는 1-2학년과 3학년 이상의 돌봄조합 차이가 두드러진다. 2학년 때까지 다니던 학교의 돌봄교실에 참여하던 아이들은 3학년이 되면 돌봄을 나와 수업수강 위주의 일정으로 변화하며, 학원이나 방과후 수업을 추가하더라도 돌봄교실이 담당하던 시간 중 일부는 공백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선택에는 1-2학년과는 달리 성장한 아이들의 선호와 의견(감독되는 시간보다는 또래와의 독자적이고 자유로운 시간 선호 등)이 반영되지만, 몇몇 3학년 아이들의 양육자들은 미디어 접촉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 집에 방치되는 시간의 증가, 간식 급여의 어려움으로 불안감이 높다. 한편, 3학년 이상이 되더라도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육자의 경우 저학년부터 지역아동센터 또는 기타 학교밖 돌봄기관을 선택하여 돌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가구특성 차원에서 돌봄 기관 주요 선택요인은 맞벌이 여부와 다자녀 가구다. 학교돌봄교실 수용의 우선순위가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 아니지만 돌봄지원의 필요가 높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 지역아동센터를 주로 선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가구특성과 지역(학교)특성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선택 경로도 발견되는데, 일-가정 양립을 위해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일제 근로자가 학교돌봄-방과후 수강 경쟁이 높은 동네에 거주하는 경우, 탈락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학교방과후 통합형 돌봄교실이 보장되는 외부학교를 찾아 나가는 패턴이 발견된다(방과후-돌봄통합 돌봄유형 3건중 2건이 해당).

〈표 4-11〉 돌봄 조합의 선택요인

(단위: 명)

돌봄조합 유형		돌봄조합 주요 선택요인			돌봄 공백 발생 건수[1]	주요 공백발생 요인
		개인특성요인 (해당건수)	가구특성요인 (해당건수)	근린환경요인 (해당건수)		
학교 기반	**A. 수업위주** 학교방과후+ 학원(또는 공공수업)	학교돌봄 수용제외연령 (4)	비맞벌이 (2)	학교밖 양질의 공공인프라 (1)	3	원하는 방과후 수업 추첨탈락 3-4학년, 자율적 활동 선호로 인한 자발적 선택
	B.학교돌봄+수업 학교돌봄+학원[2] (+학교 방과후)	수용연령 해당 (9)	전일제 근로 (7)[2]	-	6	1) 양육자 출근이 등교시간보다 빠른 경우 2) 학교-학원간 연결과정에서 어긋난 시간으로 단시간 발생 3)주양육자 퇴근 후 귀가가 아이의 일정보다 늦는 경우
	C. 학교돌봄 방과후 통합형 (+a)	-	전일제 근로	읍·면지역 (2)	0	발생하지 않음 (돌봄 공백 발생을 절대적으로 피하기 위한 돌봄시설 선택)
학교 외 장소 기반	**D. 지역아동센터 중심** 지역아동센터 + (학교방과후 또는 학원)	학교돌봄 수용제외연령 (4) 맞춤형 지원 필요 (1)	다자녀가구 자녀3 이상 (4)	-	2	성장에 따른 자율적 활동 선호 지역아동센터와 같이 밀도높은 공간에 가기 전 자유시간의 필요
	E.학교 밖 기타돌봄시설 중심 (+학원 또는 학교방과후)	장시간 동일 장소 체류 비선호 (1)	-	학교 외 양질의 공공돌봄시설 (1)	2	학교밖돌봄-학원간 연결 과정 또는 정규수업 일찍 종료한 날 단시간 발생

1) 아이가 어른 없이 혼자 또는 또래와 실내외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 (여기에서는 원래 공백시간이지만 학원 등의 배려로 완화된 상황을 공백건수에 포함하였음)

2) 현재 전일제 근로(8시간) 및 전일제 근로 전환예정(현 6시간 단축근무), 전일제 근로에 준하는 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자영업 등) 포함한 사례 수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돌봄 조합의 선택과는 별개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양육자들이 갖고 있는 양질의 공공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욕구이다. 면담참여자 25명 중 5명은 자녀를 현재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제공되는 수업(택견, 수영 등)에 참여시키고 있으며, 몇몇 참여자들은 이동수단의 확보나 프로그램 운영시간대 문제로 아이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을 언급했다. 공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양육자는 추가적인 이동수단과 동행자 확보 문제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아이 혼자 장거리 보행, 돌봄 공백 발생, 조부모의 지원에 의지 등), 세종시와 같이 도보권 내 복합커뮤니티 센터, 작은도서관 등에서 유익하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돌봄교실 입소조건을 모두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방과후 수업위주로만 일정을 구성하는 경우도 관찰된다. 공공 프로그램의 접근성에 대한 지역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돌봄부담 또는 돌봄경감 현상은 도보권 근린환경 내에서 제공되는 공공인프라의 역할과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동시에, 학교 돌봄기능에 대한 보완, 대체제로서 마을환경 조성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2. 돌봄 공백 발생지점 및 공백시간을 보내는 방법

돌봄 공백을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양육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봄 조합의 과정에는 많은 변수들이 존재한다. 아이와 양육자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시간표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수단 확보, 수업과 수업 사이 남는 시간의 처리, 원하는 수업 배정 실패, 양육자의 귀가보다 이른 시간에 끝나버리는 아이의 일정 등 다양한 지점에서 크고 작은 공백의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

면담참여자 25명 중 9명에게는 어른 없이 혼자 또는 아이들끼리만 지내는 “실질적 공백(감독되지 않는 시간)”이 관찰되었다. 또한, 일과 시간표상 공백이 있지만 학원 등의 배려(미리 가 있거나, 끝나고 조금 더 머무르는 등)를 통해 완충하고 있는 경우는 3명으로 나타났다.

시간표상 공백이 발생하는 지점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살펴보면, 아침 등교 전 발생 1명, 학교에서 다른 장소(학원, 공공시설, 학교 밖 돌봄 등)로 이동 전 6명, 학교 밖 일정과 일정 사이 4명, 최종 일정을 마친 뒤 양육자의 귀가 전까지가 4명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점에 비해 학교에서 나와 다른 일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공백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참여자 아동 중 두 명은 2-3개 지점에서 공백이 중복 발생하고 있었으며, 회당 지속되는 공백 시간도 상당하다.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집 근처 환경이나 아이의 활동 내용보다는 공백의 지속시간과 더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12〉 돌봄 공백 발생지점과 발생빈도

구분		공백 발생(명)	면담 대상_(학년)	공백 빈도	1회당 공백시간	불안수준
돌봄 공백 발생 지점	등교 전	1	양주시 옥정동 (2학년)	5일	30분	낮음
	학교(정규수업, 방과후 수업, 돌봄교실)과 다음 일정 사이	6	수원시 망포동 (4학년)	1일	60분	낮음
			보은군 보은읍-1 (3학년)	5일	60분	낮음 (자유시간 허락)
			안산시 일동 (3학년)	4일	60분	낮음 (자유시간 허락)
			세종시 어진동 (3학년)	3일	30-150분	높음
			충주시 칠금동 (3학년)	3일	120분	높음
			김포시 통진읍 (2학년)	5일	60분	- (태권도)
	학교 밖 일정과 일정 사이 (학원, 학교 외 돌봄기관, 공공수업 등)	4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2학년)	2일	30분	- (태권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학년)	5일	30분	낮음
			증평군 증평읍 (2학년)	1일	60분	- (태권도)
			세종시 어진동 (3학년)	2일	60분	중간
	일정 마친 후 주양육자 귀가 전까지	4	수원시 망포동 (4학년)	3일	150-330분	높음
			세종시 소담동 (2학년)	3일	60분	낮음
			보은군 보은읍-2 (2학년)	2일	60분	높음
			세종시 어진동 (3학년)	4일	30분	낮음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아동 개인과 가정의 여건에 따른 돌봄기관의 선택지와 돌봄 조합 여건에 따라, 돌봄 공백의 발생은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다. 그러나 발생하고 있는 공백시간이 어떤 활동으로 채워지는지에 따라 해당 시간의 누적이 아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공백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인-가구-근린차원의 특성 결합을 살펴보는 것은 당장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힘쓰는 것만큼이나 장기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근린환경에서의 돌봄안전망을 위한 중요한 사전검토사항이다.

먼저 1시간 미만의 짧은 공백인 경우, 다음 일정을 준비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으로 사용된다. 학교와 집이 도보권에 있고, 아이가 걸어다닐 수 있는 동네 환경에서는 공백의 전후 이동이 보행으로 나타난다. 양육자가 먼저 출근한 후 아침에 등교준비를 하고 혼자 학교에 걸어가거나, 돌봄 종료 후 스스로 집에 왔다가 잠시 간식을 먹고 휴식한 후 다시 학원에 걸어가거나 셔틀을 타러 나가는 식이다. 집이 학교와 먼 경우에는 학교에 한번 가면 모든 방과 후 일정을 마친 후에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므로, 공백에 해당하는 시간에는 앞뒤 일정의 학원(주로 태권도)에서 대기하거나 더 일찍 가서 머무는 식으로 그 시간을 보낸다. 어른이 없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될 가능성에 대한 양육자의 우려가 존재한다.

1시간 이상의 비교적 긴 공백시간은, 크게 ①바깥놀이, ②친구들과 배회(hang out), ③집에서 스크린타임의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먼저 공백시간을 바깥놀이/친구집 방문 등 또래와의 교류로 보내는 아이들은 2학년, 4학년 각각 1명씩으로 부모는 모두 전일제 근로자다. 부모는 일정과 일정 사이 또는 마지막 일정 종료 후 밖에서 노는 것을 허락하고 있으며, 신규조성지구의 대단지 지상공원형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면담 중 양육자들은 아이들이 자주 모이는 동네 장소를 명확히 알고 있었으며(망포, 학교 옆 공터 등), 초등학교 옆이기 때문에 동네 친구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단지에 살고 있음을 언급하였다(세종시 소담동).

두 번째로, 동네를 배회하는 아이들은 3학년 두 사례였으며, 학교 후 지역아동센터 가기 전 1시간 정도를 센터 친구들과 함께 돌아다니며 근린상업공간을 방문한다. 부모는 이 시간을 휴식과 놀이 시간으로 인지하며, 센터에서 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15:00경 시작)까지의 시간을 친구들과 자유롭게 쓰도록 허용한다. 다이소,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 편의점, 분식집 등이 이들의 단골 방문 장소다. 주양육자는 전일제 근로자가 1명, 전업주부가 1명이다. 근린환경 차원에서는 공원녹지가 매우 부족하거나, 또는 근린공원 규모의 공원이 있지만 공원 내 욕설과 도난 등 발생으로 사회적 환경이 좋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집에 혼자 머물면서 간식 먹기, 책읽기, 미디어 사용으로 공백시간을 보내는 사례는 3건이다. 3건 중 두 사례는 3학년으로, 하교 후 학원가기 전까지 2시간 이상 발생하는 공백이며, 나머지 하나는 2학년으로 공공 체육관에서 수업을 받은 뒤 형제끼리 집에서 양육자가 퇴근할 때까지 TV시청이나 스마트폰 게임을 하고 있다. 3학년 두 사례는 서로 공통점이 많이 발견되는데, 양육자는 전일제로 일하고 있으며, 형제자매가 없고 동네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며(셔틀 타고 외부로 학원다님, 잦은 이사로 친구사귈 기회 없었음), 지상공원형 중규모 단지로서 살고 있는 단지 내 환경은 좋지만 업무용도 또는 대형마트/버스터미널 등의 인접으로 인해 주거지 생활권 구조로서는 다소 안전성이 떨어지며, 공공 인프라(커뮤니티 시설 등)가 멀다는 단점이 있다. 혼자 있는 상태를 편하게 여기는 아이의 개인적 성향과, 이제 막 돌봄교실의 테두리에서 나온 3학년 시기, 전일제 근로자로서 미디어에 대한 효율적 통제가 어려운 주양육자, 그리고 차량이 주된 이동수단으로서 근린에서의 경험 결핍이 결합되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국 공백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의 문제는 개인-가구특성과 학교-근린 특성이 복합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환경의 사용성과 질적 측면(걷기에 안전하고, 공공인프라가 풍부한)이 충족된 상태에서 집 주변 환경을 평소에 적극적으로 이용해온 아이와 부모의 습관이 공백시간의 활용양상을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공백에 채워지는 내용에 따라 해당 시간은 아동이 자율적이고 감독되지 않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혼자서 스크린

타임으로 소진하는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집과 학교 근처의 근린환경은 이와 같은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돌봄 공백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매개가 된다.

〈표 4-13〉 개인, 가구, 근린 차원의 특성이 복합되어 나타나는 돌봄 공백시간 활용양상

공백 시간	면담 대상	개인특성 (형제자매)	가구특성	근린특성	돌봄 공백 발생 상황과 활용 양상	주요요인
1시간 미만	양주시 옥정동	2학년 외동	전일제 근로 (9:00 -18:00)	대단지 지상공원화 아파트	주양육자 출근 후 등교 전까지 약 30분 <u>아이 혼자 스스로 등교준비</u>	아이의 성장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학년 중2, 초5	전일제 근로 (9:00 -18:00)	저층주거지 인프라 풍부	키움센터-특공무술 학원 사이 약 30분 <u>집에서 혼자 간식먹고 학원준비</u>	집에서 잠시 쉬었다 가는 것을 좋아함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2학년 외동	단축근로중 (10:00 -15:00) 전일제 전환예정 높은 교육열	학구도상 고립주거지 경사지	태권도-영어학원 사이 약 30분 <u>태권도 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조금 더 머무름</u>	집에서 학교까지가 멀어 한번 가면 모든 일정을 마쳐야 귀가
	김포시 통진읍	2학년 초5, 6세	단축근로 (9:30 -16:00)	고립주거지	학교돌봄-태권도 시작 전 약 30분 <u>태권도장에 셔틀로 미리 가서 트램펄린 등을 하며 시간보냄</u>	집에서 학교까지가 멀어 양육자 퇴근전까지는 학교내에 있도록 조정
	증평군 증평읍	2학년 초6, 초4 2세	전일제 (9:00 -18:00)	저층주거지 공원녹지 열악 구도심 상업용도(시장) 인접	태권도학원-돌봄센터 시작 전 30분 <u>태권도학원에 양해를 구하고 학원 안에 더 머무름</u>	동네 보행환경 위험, 집근처, 돌봄센터 주변 모두 놀이터 공원녹지가 없음
1시간 이상	수원시 망포동	4학년 초5	전일제 근로 (9:00 -18:00)	대단지 지상공원화 아파트	학교 방과후 -축구학원 사이 방과후 귀가 전까지 60분-240분 <u>교내/단지 내 친구와 놀이</u>	부모의 자유시간 허락 양호한 공원놀이터 갖춰진 근린환경
	보은군 보은읍-1	3학년 중2, 초6, 7세	전일제 (16:30까지)	고립주거지	하교 후-지역아동센터 가기 전 60분 <u>동네 곳곳을 친구들과 놀며 돌아다님</u>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근린 내 공원녹지 부족
	안산시 일동	3학년 초4, 6세	(전업주부)	저층주거지	하교 후-지역아동센터 가기 전 60분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근린 내 공원 사회적

공백 시간	면담 대상	개인특성 (형제자매)	가구특성	근린특성	돌봄 공백 발생 상황과 활용 양상	주요요인
					동네 곳곳을 친구들과 놀며 돌아다님	분위기 좋지 않음
	세종시 어진동	3학년 외동	전일제 (9:00 -18:00)	중규모 지상공원화 아파트 업무지구인접	하교 후 학원가기 전까지 120-150분 집에 혼자 있음	집을 편하게 여김(성향) 다른 동네 학원으로 셔틀 이동하는 까닭에 동네에서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함
	충주시 칠금동	3학년 외동	전일제 (4:30까지)	중규모 지상공원화 아파트 상업지구인접	학교 방과후 수업-영어학원 전 120분 집에 혼자 있으면서 주로 스마트폰 게임을 함	잦은 이사 반복으로 동네에서 친한 친구를 만들지 못함 주양육자의 시간 부족으로 미디어 통제가 느슨해짐
	세종시 소담동	2학년 6세	전일제 (9:00 -18:00)	대단지 지상공원화 아파트 공공인프라 풍부	마지막 일정 종료 후 60분 친구와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이, 친구집 놀러가기	공원형 APT, 학교 인접단지로 친구들 많이 지나감 안전한 보행환경
	보은군 보은읍-2	2학년 초4, 4세	전일제 (9:00 -18:00)	소규모아파트 주변도 대부분 소단지-단일동 아파트들	공공체육센터의 수영 수업 종료 후 60분 집에서 형제끼리 TV시청	집 주변 공원녹지부족 및 보행환경 위험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3. 돌봄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대처과정에서 생기는 기회비용

돌봄 공백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양육자의 선택들 중 일부는 양육자/보조양육자 또는 자녀 중 누군가에게 일종의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다. 주양육자에게서 가장 많이 관찰되는 기회비용은 자녀의 일정에 대비하기 위해 시간적 융통성을 지닐 수 있는 근로형태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전일제 근로에 대한 도전이나 전환 시점이 지연되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로의 복귀 또는 진입이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 "... 제가 아이가 4학년이라고 커트라인을 잡았고, (동네가 아이 혼자 다닐 수 있는 환경이고, 믿을 만한 시설이 충분하면) 사실 지금도 전일제는 저는 하고 싶어요. 제가 하는 일이 강사인데, 이쪽 파트 타임 말고 전일제로 넣으려 하다가도 이제 마음이 자꾸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나 여기 이력서 넣고 싶은데, 여기 되게 가고 싶었던 곳 중 하나인데, 구인이 올라왔어, 처음에는 넣어봐라고 남편은 말은 해요. 그렇지만 또 다음 날쯤 되면 근데 00이 어떡해, 괜찮을까 걱정을 해요. 저는 100% 전일제로 가고 싶어요." (수원시 영통1동, 2학년, 프리랜서)

이미 전일제 근로 상태인 주양육자의 경우에도, 자녀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위를 위해 종종 일터에서의 양해가 수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량 서비스가 없는 공공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녀를 위해 주양육자가 직접 업무 도중 외출을 통해 픽업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면담 사례 중에도 두 건이 관찰된다. 주양육자가 직접 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부모 등 가족이 대신 이동수단과 동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로한 조부모의 지원행위에 대해서 주양육자의 크고 작은 부채 의식이 존재한다. 그 밖에, 일정과 일정 사이의 단시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태권도 학원의 확장된 역할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학원에서의 추가적인 머무름, 다음 일정으로의 픽업 서비스 등은 주로 학교와 집, 학원간 연결이 도보로 원활하게 되지 않아 중간에 집에 들렀다 가기가 어려운 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 "시에서 하는 무료교육이에요. 양질의 교육을 하고 음악 CD내주고 공연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스스로 픽업을 다녀줘야 되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들에 부담이 많은 것 같아서 엄마들이 참여를 많이 안 해요. 저는 데리고 다니고 있고요. 지금 일을 파트타임으로 이 시간 외에 하고 있어요. 영어랑 미술 강사 쪽으로, 할머니가 와서 중간중간 바쁠 때 봐주시고요. 남편이 주중에 밤에 일할 때는 남편이 봐요. 남편이랑 할머니가 조금씩." (충주시 호암동, 2학년, 파트타임)

"월요일은 정규수업이 12시 50분에 끝나는 거고, 학교돌봄에 2시 10분까지 있다가 태권도 차량 탑승을 해서 2시 30분부터 태권도를 시작해요. 근데 원래는 3시 반에 태권도가 끝나는 게 맞는데, 시간이 떠서 부탁을 드렸더니 한 30분 더 해도 된다고 해서 태권도에 더 있다가 영어학원 차량 시간 맞춰서 4시 조금 넘어 나와서... " (동작구 상도동, 2학년, 전일제 근로)

돌봄 보장을 위해 자녀를 타 지역 학교로 보내고 있는 경우, 주양육자의 근로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아동에게 상당한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장시간 차량이동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이동시간으로 인한 여가시간 박탈, 이동중 발생하는 스크린타임 증가 등이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1차적인 문제라면, 동네에 학교 친구가 없기 때문에 활동의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걷기-자전거 타기 등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생활패턴이 굳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근린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과 경험이 축소되는 것은 여기에서 파생되는 장기적인 문제들이다. 아이들의 과도한 차량 이동이 근린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장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의 평일 일과에 집 근처에서의 야외활동(보행, 놀이, 상점방문 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로서 확인된다.

"(차량에 타고 있는 시간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1시간 40분. (5일 내내 동일하죠? 아이가 힘들어하거나 하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멀미도 많이 하고, 엄마가 데려다 주면 안 돼요..?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좀 익숙해져서 잘 타고 다니는 편입니다." (연천군 연천읍, 2학년, 방과후-돌봄 통합형 학교, 전일제 근로)

"(집에 오면 6시 반 정도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는 어떻게 지내나요?) 6시 반부터 이제 저녁식사하고, 조금 있다 바로 자요. 제가 정상퇴근을 할 때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여유롭지만, 야근이 조금 있는 날에는 진짜 먹고, 씻고, 자기 바쁜 것 같아요. (귀가 전에 할머니 댁에서는 주로 뭘 하고 있어요?) 핸드폰 게임이나 TV 시청, 아니면 간식 먹기 이 정도로." (연천군 연천읍, 2학년, 방과후-돌봄 통합형 학교, 전일제 근로)

"(사실 학교에서 5시 반에 끝나서 집에 가면 7시 정도니까 밖에서 놀고 이런 시간이 적겠어요). 적어요. 제가 만약에 조퇴를 한다 그러면 거의 학교에서 놀거나 아니면 학교 근처 공원에 가는 정도. 평일에는 (집 근처에서) 노는 일이 없어요." (은평구 갈현동, 2학년, 방과후-돌봄 통합형 학교, 전일제 근로)

기타 몇몇 사례들이 보여주는 주양육자의 어려움은, 아이들의 생활이 다른 환경요인보다 주양육자의 역할에 절대적으로 기대고 있는 경우 벌어지는 상황들이다. 이들이 겪는 문제 역시 간접적으로는 근린환경과 연결되어 있는데, 근린의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공원녹지 등이 아이들 활동에 물리적, 사회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주거지가 섬처럼 고립되어 있어 아이들이 학교

주변 환경에 빨리 익숙해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상황이 관찰된다. 자영업을 하는 양육자가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시간에 학교에서 100m남짓 떨어진 미술과 피아노 학원에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서 차량으로 픽업을 하러 온다든지, 아이 셋에게 고루 시간을 할애하고자 하는 양육자가 아이를 밤시간대 학원에 보냄으로써 오히려 또래와의 교류를 막게 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는, 근린환경이 안전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어울려 노는 지역에서는 지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들이기 때문이다.

돌봄 공백의 방지라는 유사한 목적을 위한 양육자들의 다양한 선택은, 양육자와 아이 중 어느 한쪽에게 필연적으로 기회비용을 발생시킨다. 그러나 그 기회비용의 크기는 좋은 근린환경이라는 매개가 있으면 아동과 부모 양쪽 모두에게 경감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근린환경이 아이가 걸어서 생활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부모의 판단은, 아이의 이동을 모두 차량으로 구성함으로써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경험을 넓이와 깊이를 대폭 축소시킨다. 공백 방지의 의미를 상쇄시킬 만큼의 부정적 영향, 즉 장거리 이동이 아이들에게 발생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살고 있는 지역 내에서 돌봄편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에서 제공하는 질 좋은 교육문화 프로그램의 맞벌이가정 진입장벽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으로 보인다.

〈표 4-14〉 돌봄 공백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아동과 주양육자의 기회비용

공백최소화 방법	해당 사례수	지역 (학년)	공백대처 내용	아동기회비용	양육자 기회비용
주양육자 근로시간 조정 (프리랜서, 파트타임 상태 유지)	4	수원시 영통1동 (2학년)	프리랜서 상태유지		전일제 전환시기 연기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2학년)	프리랜서 상태유지		
		세종시 다정동 (2학년)	파트타임 근무중		
		평택시 고덕면-2 (3학년)	프리랜서 상태유지		
돌봄 보장을 위해 타지역 학교 통학	2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2학년)	**외부학교 통학**	**근린접촉면 상실, 차량이동으로 인한 피로, 여가시간 박탈, 스크린타임 증가**	
		연천군 연천읍 (2학년)			
업무 중 픽업을 위한 외출 (또는 사업장 비움)	3	충주시 호암동 (2학년)	공공수업픽업 위한 업무중 외출		직장에 양해필요
		보은군 보은읍-2 (2학년)			
		괴산군 소수면 (2학년)	돌봄교실 픽업을 위한 가게 비움		사업장 공백
다니는 학원의 도움 (대부분 태권도)	3	증평군 증평읍 (2학년)	태권도 학원 시간연장, 픽업	학원 환경에 따라 단순 대기로 시간을 보낼 가능성	
		김포시 통진읍 (2학년)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2학년)			
상시적인 가족의 지원	3	연천군 연천읍 (2학년)	일정이 끝난 세명의 자녀가 부모님 댁에 모여서 귀가 대기		부모님께 느끼는 주양육자의 부담감/죄책감
		충주시 칠금동 (3학년)	공공수업에 조부모 차량이동 지원		
		충주시 호암동 (2학년)	학원갈때 조부모 차량이동 지원		
기타	1	안산시 성포동 (2학년)	학원시간 밤으로 조정	친구들과 비는 시간 맞지 않음 근린접촉면 상실	

출처 : 연구진 작성

제3절 아동의 시공간 사용 행태와 생활 균형

극심한 경쟁사회 속 점점 낮아지고 있는 선행학습 연령, 팬데믹이 남긴 또래와의 관계 위축, 차량 위주의 이동 증가와 실내 생활의 고착화 현상은 한국 아이들의 균형있는 일상을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 아동의 웰빙과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도 국제적 권장기준이 제시된 4개 핵심 생활시간(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을 중심으로 한 아동균형 생활시간 권장기준이 만들어졌고[43], 생활시간 균형의 달성 수준이 아이들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정익중 외, 2022). 그러나 여전히 아동의 일과에 영향을 주고 있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추적하여 그 속에서 생활시간 균형을 깨뜨리는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균형 회복을 위해 공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노력하는 정책은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시공간 사용행태 분석 파트에서는 아동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일상이 개인-가구-근린환경 차원의 요인들에 의해 어떻게 개입, 변주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아동의 시간사용, 공간사용 행태에 대한 면밀한 관찰을 바탕으로 서로 유사성을 지닌 그룹을 도출해낸 후 집단별로 두드러진 특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집단별 특징이 만들어진 요인들을 개인-가구-근린환경 차원에서 유추한다.

마지막으로, 시간사용 유형과 공간이동 패턴을 매치시켜 일상의 균형 달성을 어렵게 하는 물리적, 사회적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아동 생활시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공간과 근린환경 관점에서 모색해 본다.

43)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이란 아동이 하루 동안 경험하는 다양한 시간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 등 국제적인 권장기준이 존재하는 4개 핵심 생활시간(수면, 공부, 운동, 미디어)을 중심으로 미국 국립수면재단(NSF), 세계보건기구(WHO), 호주 보건부의 권장시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한 기준이다(정익중 외, 2016)

1. 아동의 시간 사용

가. 아동의 시간사용 유형분류

1) 아동의 일상적 활동구분 : 7가지 범주

시간사용 유형분류를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먼저 아동의 다양한 일상적 활동 중 주요하게 다뤄져야 하는 항목들을 설정하였다. 한국의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에서는 4가지 융합된 범주(수면, 학습, 운동, 미디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린환경과의 연관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과 더 민감하게 연결된 세분화된 활동 범주들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활동 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로는 캐나다의 24시간 운동지침(Canadian 24-Hour Movement Guidelines for the Children and Youth 5-17 years)에 제시된 4가지 영역과, 아동의 일상적 활동을 실증자료로 수집한 Mitra et al.(2017)의 연구에서 도출된 8가지 카테고리, 그리고 아동이 방과 후 일상을 보내는 장소에 따라 패턴을 분류한 Loebach & Gilliland(2016)의 연구에서 도출된 3가지 '아동 놀이경험 유형(childhood play experience type)'을 참고하였다.

캐나다 24시간 운동지침에는 아동의 활동 내용을 Sweat(MVPA_중강도 이상 신체활동), Step(걷기를 비롯한 가벼운 활동), Sedentary(독서, 스크린 타임 등 정적인 활동), Sleep(수면)의 4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권장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Mitra et al(2017)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일주일 생활을 GPS와 통행일지 형식으로 수집하여 나타난 모든 활동들 중 비일상적 활동을 제외한 후, 자료 특성상 신뢰도가 떨어지는 수면 활동을 뺀 Active Transportation(활동적 이동), Inactive Transpotation(비활동적 이동), Active Unstructured Play(자유놀이활동), Sports(구조화된 운동), Arts(예술활동), Education(교육), Reading(읽기), Screen Time(화면을 이용한 여가시간)를 핵심적인 8가지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다. Loebach & Gilliland(2016)의 연구에서는 실내생활과 차량이동의 증가가 반영된 현대 아동의 실증적 생활패턴을 바탕으로, 아동의 생활패턴을 방과 후 시-공간 사용에 따라 Indoor Children(실내위주 생활패턴), Indoor-backseat Children(실내-차량 뒷좌석 생활패턴), Indoor-outdoor Children(실내-실외 생활패턴)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담설문자료에는 아이들이 보내는 하루 일과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지만, 실제 기기를 사용한 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활동강도에 대한 구분을 하기 어려우며, 근린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어 설계된 까닭에 구체적인 수면시간과 패턴은 질문하지 않았다. 따라서 캐나다 24시간 운동지침과 Mitra et al.(2017)에서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신

체활동과 이동, 학습과 스크린타임을 포함하는 정적인 활동" 이라는 기본적인 활동 요소들을 수용하고, Loebach & Gilliland(2016)에서 생활패턴 분류에 사용된 차량이동시간을 참조하여 아동의 활동영역을 최종 7개 카테고리로 구성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카테고리에 포함된 구체적인 요소들은 [표 4-15]와 같다.

〈표 4-15〉 활동구분 카테고리 및 권장기준 참고자료

아동균형생활시간 권장기준 (초등저학년)	Canadian 24-hour Movement Guidelines (5-12 years)	Mitra et al (2017) 실증자료에서 8개 활동범주 도출
운동 (60분 이상)	Sweat _MVPA (중강도 이상의 신체활동, 60분 이상) Step_Light PA (걷기를 비롯한 가벼운 신체활동)	Active Unstructured Play (자유놀이활동) Sports (구조화된 신체활동) Active Transportation (활동적 이동)
학습(30-120분, 4학년 이상) 미디어 (120분 이하)	Sedentary (독서, 스크린타임_120분 이하, 차량 이동 등)	Inactive Transpotation (비활동적 이동) Arts (예술활동) Education (교육) Reading (읽기)
수면 (9-12시간)	Sleep (수면, 9-11시간)	Screen Time (화면 놀이)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4-16〉 유형분류를 위한 참여자 아동의 7가지 활동구분

활동 카테고리	포함내용	산출근거
1. 학습시간	영어, 수학, 독서, 논술, 과학 등 교과공부, 코딩 등 기술적 학습 포함	면담기반
2. 예술 취미수업	음악, 미술, 요리, 바둑, 체스 등 교과학습 외 예술과 취미수업	면담기반
3. 감독되는 신체활동	축구, 야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등의 스포츠 활동, 줄넘기, 태권도, 택견, 합기도, 특공무술 등 신체활동 교습	면담기반
4. 자율적 바깥놀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기, 스크린타임 외 정적인 놀이, 자전거 타기, 어울려 다니기 등 (순수 이동을 위한 자전거나 킥보드 타기는 5번으로 포함)	면담기반
5. 활동적 이동	보행, 자전거, 킥보드 등 무동력 수단을 사용한 이동	면담기반
6. 스크린타임	TV시청, 컴퓨터, 스마트폰과 태블릿 게임, 유튜브 시청 등 화면을 들여다보는 여가시간	설문(면담참고)
7. 차량이동시간	자가용, 셔틀버스, 스쿨버스, 대중교통 등을 타고 있는 시간	면담기반 계산

출처 : 연구진 작성

2) 군집분석을 통한 시간사용 유형 도출

학습, 예술/취미수업, 감독되는 신체활동, 자율적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 스크린타임, 차량이동시간으로 구성된 7가지 활동시간을 바탕으로 군집분석을 수행한 결과 [표 4-16]과 같이 특성이 비교적 뚜렷한 세 그룹이 형성되었다(SPSS 26, 계층적 군집분석, ward의 방법).

첫 번째 그룹은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으로, 자율적 바깥놀이와 활동적 이동 시간이 가장 적게 나타나며, 차량이동 시간은 가장 많다. 교과학습보다는 예술계열 수업참여 비중이 높고, 다른 그룹에 비해 스크린타임이 확연히 높게 나타난다. 생활시간의 균형을 높이기 위해서 정적인 활동을 다양한 형태의 신체활동으로 전환할 필요가 가장 큰 그룹이다. 25명 중 9명이 해당되며, 이 중 3학년이 4명 포함되어 있다. 1시간 이상 돌봄 공백은 3명에게서 발견된다.

두 번째 그룹은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으로, 교과학습/예술취미/감독된 신체활동 비중이 모두 낮으며 자율적 바깥놀이와 활동적 이동(보행)은 가장 높다. 또한 세 그룹 중 차량이동시간이 가장 낮은 집단이기도 하다. 정적인 활동과 다양한 신체활동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집단이다.

세 번째 그룹은 “감독 · 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으로, 교과중심 학습, 예술계열 학습, 감독된 신체활동 모두가 높게 나타난다. 차량이동 시간도 높은 편이지만, 스크린타임은 세 그룹 중 가장 낮다. 자율적 바깥놀이와 활동적 이동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으로, 거의 모든 활동이 자율적인 선택보다는 짜여진 일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표 4-17〉 7가지 활동시간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그룹별 평균시간. 단위:분/일)

그룹명	해당 인원	지역	학습 (교과목)	학습 (예술/취미)	감독된 신체활동	자율적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	스크린 타임	차량 이동시간
A.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9	구로 개봉동 김포 통진읍 연천 연천읍 평택 고덕면2 보은 보은읍2 괴산 소수면 충주 칠금동 청주 분평동 세종 어진동	27	69	34	**2**	**7**	**135**	34
B.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8	수원 망포동 세종 소담동 서대문구 연희동 진천 덕산읍 안산 일동 옥천 안남면 평택 고덕면1 보은 보은읍1	28	**37**	32	**84**	**26**	78	**12**
C. 감독 · 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	8	수원 영통동 안산 성포동 동작구 상도동 은평구 갈현동 세종 다정동 충주 호암동 양주시 옥정동 증평군 증평읍	**70**	65	**55**	14	19	**50**	32
전체평균	25	-	41	57	40	32	17	89	26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나. 시간사용 유형 그룹과 주요 개인-가정-근린환경특성

시간사용 유형 그룹의 구분이 아동의 주요 개인-가구-근린환경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룹별로 두드러지는 주요 특성을 관찰하였다. 학년, 성별, 형제자매 수에서는 C그룹(감독, 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이 전원 2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동 비율이 높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그룹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주양육자 근로형태의 경우에도 역시 C그룹(감독, 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만이 전일제 근로 비중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8명 중 3명). 따라서 C그룹은 외동자녀 한 명에게 온전히 관심을 집중할 수 있으며, 아이의 교육과 경험에 관심이 많은 양육자들이 아이에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형태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18〉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개인 특성

그룹명		해당 인원	학년			성별		형제자매 수		
			2학년	3학년	4학년	남	여	외동	1명	2명 이상
A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9	5	4	-	4	5	3	1	5
B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8	4	3	1	4	4	-	4	4
C	감독·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	8	**8**	-	-	5	3	**6**	-	2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표 4-19〉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주양육자 근로형태 및 돌봄기관 선택유형

그룹명		해당 인원	주양육자 근로형태				돌봄기관 유형				
			전일제/자영업	단축 근무	프리랜서/파트타임	전업 주부	참여 안함	학교 돌봄	방과후 돌봄 통합형	지역 아동 센터	기타
A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9	6	1	2	0	**3**	3	1	2	-
B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8	5	0	2	1	**1**	3	1	2	1
C	감독·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	8	3	1	3	1	**3**	3	1	-	1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돌봄기관 선택 및 공백발생 분포에 있어 그룹별 차이를 살펴보면, A그룹에서 돌봄 공백은 9명 중 4명에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3명의 돌봄 공백은 일정 부분 스크린타임으로 이어진다(그림4-2). 공백시간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장시간 차량에 탑승해 있는 시간이나 보조양육자(조부모) 집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시간 역시 스마트폰 게임이나 TV시청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실내외 활동을 균형있게 하고 있는 B그룹의 돌봄 공백 빈도와 시간은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몇몇 사례에서 바로 이 공백이 근린의 야외공간에서 또래와의 놀이와 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4-3).

C그룹에는 기관 돌봄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돌봄 공백시간이 없는 사례가 3건으로, 아이의 일정이 온전히 주양육자의 계획과 지원을 통해 움직이고 있으며, 이들의 태도와 선택이 다른 환경요인보다 상위위계에서 아동의 생활시간 균형에 개입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4-20〉 그룹별 돌봄기관 체류시간 및 돌봄 공백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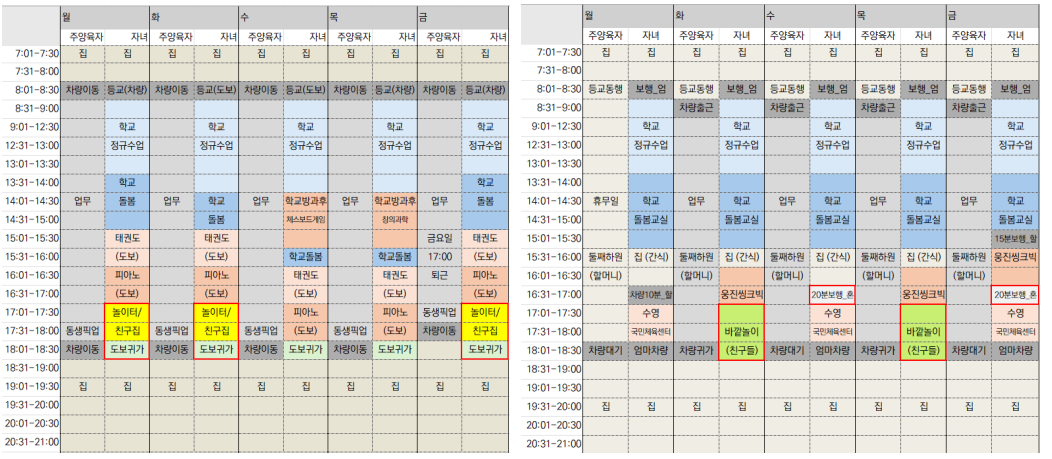
그룹명		해당 인원	돌봄기관 체류시간 (min/day)					돌봄 공백 시간 (min/day)				
			없음	60분 미만	60-120분	120-180분	180분 이상	없음	30분 미만	30-60분	60-90분	90분 이상
A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9	3	-	3	3	-	5	1	1	2	-
B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8	2	-	1	5	-	3	-	4	1	-
C	감독·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	8	3	-	3	2	-	5	2	1	-	-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그림 4-2] 그룹 A에서 돌봄 공백시간이 미디어 접촉으로 이어지는 사례 (좌_충주 칠금, 우_세종 어진)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월		화		수		목		금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7:01-7:3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7:31-8:00										
8:01-8:30	차량이동	등교(차량)	차량이동	등교(도보)	차량이동	등교(도보)	차량이동	등교(차량)	차량이동	등교(차량)
8:31-9:00										
9:01-12:30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12:31-13:0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13:01-13:30										
13:31-14:00		학교								학교
14:01-14:30	업무	돌봄	업무	학교	업무	학교방과후	업무	학교방과후	업무	돌봄
14:31-15:00				돌봄		체스보드게임		창의과학		
15:01-15:30		태권도		태권도					금요일	태권도
15:31-16:00		(도보)		(도보)		학교돌봄		학교돌봄	17:00	(도보)
16:01-16:30		피아노		피아노		태권도		태권도	퇴근	피아노
16:31-17:00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17:01-17:30		놀이터/		놀이터/		피아노		피아노	동생픽업	놀이터/
17:31-18:00	동생픽업	친구집	동생픽업	친구집	동생픽업	(도보)	동생픽업	(도보)	차량이동	친구집
18:01-18:30	차량이동	도보귀가	차량이동	도보귀가	차량이동	도보귀가	차량이동	도보귀가		도보귀가
18:31-19:00										
19:01-19:3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19:31-20:00										
20:01-20:30										
20:31-21:00										

	월		화		수		목		금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7:01-7:3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7:31-8:00										
8:01-8:30	등교동행	보행_엄	등교동행	보행_엄	등교동행	보행_엄	등교동행	보행_엄	등교동행	보행_엄
8:31-9:00			차량출근		차량출근		차량출근		차량출근	
9:01-12:30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12:31-13:0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13:01-13:30										
13:31-14:00										
14:01-14:30	휴무일	학교	업무	학교	업무	학교	업무	학교	업무	학교
14:31-15:00		돌봄교실		돌봄교실		돌봄교실		돌봄교실		돌봄교실
15:01-15:30										15분보행_할
15:31-16:00	돌째하원	집 (간식)	돌째하원	집 (간식)	돌째하원	집 (간식)	돌째하원	집 (간식)	돌째하원	용진씽크빅
16:01-16:30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16:31-17:00		차량10분_할		옹진씽크빅		20분보행_혼		옹진씽크빅		20분보행_혼
17:01-17:30		수영				수영				수영
17:31-18:00		국민체육센터		바깥놀이		국민체육센터		바깥놀이		국민체육센터
18:01-18:30	차량대기	엄마차량	차량귀가	(친구들)	차량대기	엄마차량	차량귀가	(친구들)	차량대기	엄마차량
18:31-19:00										
19:01-19:30										
19:31-20:0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20:01-20:30										
20:31-21:00										

[그림 4-3] 그룹 B에서 돌봄 공백시간이 바깥놀이로 이어지고 있는 사례(좌_세종 소담, 우_덕산 진천)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근린환경 차원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거유형은 뚜렷한 그룹별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근린환경 평가점수에서는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을 하고 있는 B그룹에서 특히 보행환경(차량으로부터의 안전, 밤에 걷기 안전 등의 항목이 포함된)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아이와 양육자가 친구사귀기 좋은 동네인지 여부를 주로 묻는 항목들) 분야의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이 단순히 아파트인지, 저층주택인지 여부 보다는 해당 근린에 또래가 많이 살고 있는지, 아이가 친구를 사귀고, 안전하게 놀고 거닐 수 있는 공간구조를 가진 환경인지가 시간 사용의 양상과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표 4-21〉 3개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주거유형

그룹명		해당 인원	주거유형				
			대단지 신축 (지상공원화)	대단지 구축 (지상주차)	소규모단지/ 단일동 APT	저층주거지	기타
A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9	3	2	2	2	-
B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8	4	-	1	3	-
C	감독 · 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	8	3	2	1	2	-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표 4-22〉 3개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근린환경 평가점수

그룹명		해당 인원	근린환경 평가				
			보행환경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	놀이기회	위해환경 안전 (설문결과 역 산함)	4개분야 평균
A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9	2.5	2.5	2.6	3.1	2.6
B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8	**2.8**	**3.0**	2.6	3.1	2.8
C	감독·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	8	2.4	2.6	2.4	3.0	2.6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다. 시간사용 유형 그룹과 아동의 건강

1) 그룹별 활동권장시간 충족

캐나다 24시간 운동생활지침(5-12세)과 아동균형생활시간에서 권장하고 있는 기준에 아이들의 생활시간이 어느정도 부합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학습(교과)와 학습(예술) 카테고리를 합쳐 6개 활동별로 그룹별 평균치를 비교하였다. 학습과 관련된 사항은 두 지침 모두 초등저학년에 대해 따로 규정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아동균형생활시간'에서만 초등고학년(4학년 이상)의 경우 30-120분을 적정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습시간의 경우 C그룹 평균이 초등고학년 권장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스크린타임 활동에서는 A그룹 평균이 135분으로 하루 2시간 이하인 권장기준을 넘어서고 있다. 신체활동의 경우에는 본 자료에서 MVPA를 따로 산출할 수 없으므로, 모든 신체활동 합산 시간이 하루1시간 이상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B와 C그룹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자율적인 바깥놀이를 합산한 수치가 1시간 이상을 만족시키는 반면, A그룹에서는 감독되는 신체활동, 자율적 바깥놀이, 무동력 이동(걷기와 자전거 등)을 모두 합쳐도 하루 1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밖에도 권장수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정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차량이동시간이 A와 C그룹 모두에서 평균 30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체활동에 비해 정적인 실내활동이 A그룹 평균에서는 약 6배, C그룹 평균에서는 약 2.5배로 나타나고 있어, 아동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서 누적되고 있는 정적인 활동 시간을 동적인 신체활동 시간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이 시급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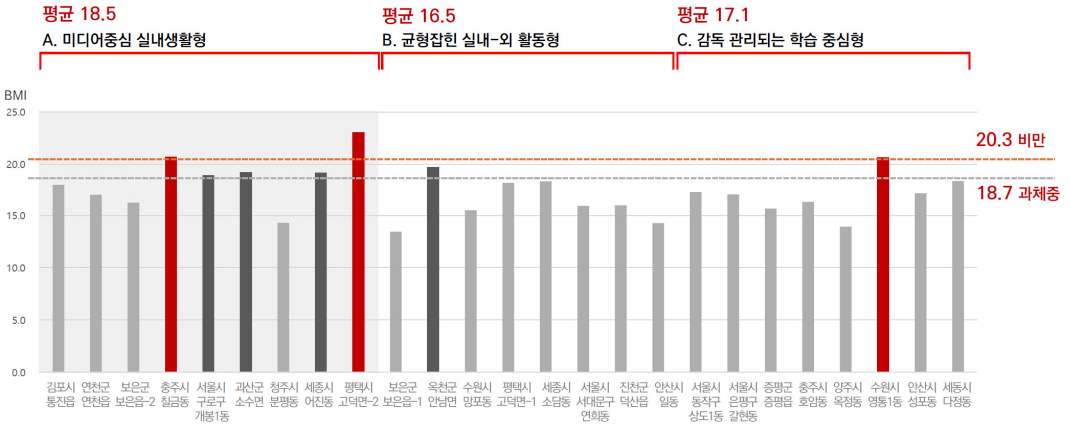
〈표 4-23〉 시간사용 유형 그룹별 활동시간과 권장기준시간 비교 (단위 : 분/일)

활동 유형		A.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B.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C. 감독·관리되는 학습중심 생활형	활동별 권장기준	
					캐나다 24시간 운동생활지침 (5-12세)	아동균형 생활시간*
정적인활동 Sedentary	학습(교과,예술/취미)	96	65	**135**	-	- (초등저학년) 30-120분 (초등고학년)
	스크린타임 (게임, TV, 영상시청 등)	**135**	78	50	120 이하	120 이하
	차량 이동시간	34	12	32	-	-
신체활동 Physical Activity	감독되는 신체활동	**34**	32	55	MVPA 일 60분 이상 LPA 구조화- 비구조화 등 다양한 형태로 몇시간	운동시간 일 60분 이상
	자율적 바깥놀이	**2**	84	14		
	무동력 이동 (보행, 자전거 등)	**7**	26	19		

출처 : 정익중 외(2016)의 기준을 활용,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2) 시간사용 유형 그룹별 BMI분포

그룹별 BMI 분포를 비교해 보면, 신체활동에 비해 정적인 활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A그룹의 BMI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아동도 9명중 5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생활시간의 균형수준이 높은 B그룹과, 주로 감독되는 형태의 운동으로 신체활동량을 보충하고 있는 C그룹에는 BMI가 정상범위인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다만 C그룹 중 과체중에 근접하거나 비만에 해당하는 두 사례에서는, 아이의 일정에 단시간의 바깥놀이만 관찰될 뿐 감독되는 체육활동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공통점이 있다. 시간사용 유형과 BMI의 대조결과는 비록 작은 규모의 샘플이지만 하루일과의 구성이 만들어내는 활동적인 시간의 비율이 아이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현재 공적 돌봄과 민간 돌봄기관을 막론하고 정적인 활동 위주로 제공되고 있는 돌봄 자체 프로그램이 조금 더 적극적인 신체활동을 동반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될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림 4-4] 시간사용 유형그룹과 면담참여아동의 BMI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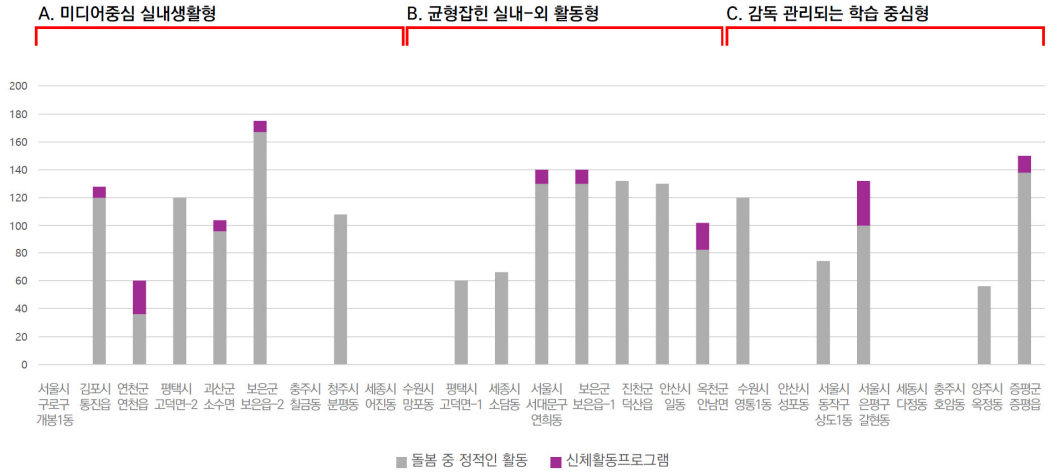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월		화		수		목		금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7:01-7:3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7:31-8:00										
8:01-8:30		도보		도보		도보		도보		도보
8:31-9:00	차량이동		차량이동		차량이동		차량이동		차량이동	
9:01-12:30		학교		학교		학교		학교		학교
12:31-13:00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정규수업
13:01-13:30	업무		업무		업무		업무		업무	
13:31-14:00	유동적		유동적		유동적	학교	유동적	학교	유동적	학교
14:01-14:30		학교		학교		돌봄교실		돌봄교실		돌봄교실
14:31-15:00		돌봄교실		돌봄교실		아이돌 대부분		학교방과후		학교방과후
15:01-15:30	차량귀가	아이돌 대부분	차량귀가		차량귀가	4시이전하교	차량귀가	생명과학	차량귀가	요리
15:31-16:00	도보동행	4시이전하교	도보동행		도보동행		도보동행		도보동행	
16:01-16:30		피아노			업무많은날	피아노				피아노
16:31-17:00		학원	집	집	피아노혼자	학원	집	집	집	학원
17:01-17:30		단지놀이터			가기도	단지놀이터				단지놀이터
17:31-18:00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18:01-18:30		패드수업		패드수업		패드수업		패드수업		패드수업
18:31-19:00										
19:01-19:30										
19:31-20:0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20:01-20:30										
20:31-21:00										
21:01-21:30										

	월		화		수		목		금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주양육자	자녀
7:01-7:3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7:31-8:00										
8:01-8:30		도보(혼자)		도보(혼자)		도보(혼자)		도보(혼자)		도보(혼자)
8:31-9:00										
9:01-12:30	업무	학교	업무	학교	업무	학교	업무	학교		학교
12:31-13:00	9:20-11:20	정규수업	9:20-11:20	정규수업	9:20-11:20	정규수업	9:20-11:20	정규수업		정규수업
13:01-13:30		피아노샤틀								
13:31-14:00		피아노								학교방과후
14:01-14:30		학원		도보(친구)		도보귀가		집(간식)		창의과학
14:31-15:00		엄마와간식		복검수업		집(간식)		복검수업		
15:01-15:30		미술		세계여행				건축		피아노셔틀
15:31-16:00		학원				작은도서관			업무	피아노
16:01-16:30		도보(혼자)		피아노		토탈공예		미술	단지내	학원
16:31-17:00		복검수업		학원		(도보)		학원	작은도서관	피아노셔틀
17:01-17:30		보드게임		단지내		단지내		단지내		작은도서관
17:31-18:00		도보(엄마)		놀이터		놀이터		놀이터		단지놀이터
18:01-18:30										
18:31-19:00		집		집		집		집		집
19:01-19:30										
19:31-20:00		패드수업		패드수업		패드수업		패드수업		패드수업
20:01-20:30										
20:31-21:00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집
21:01-21:30										

[그림 4-5] 그룹C 중 BMI 가 높은 사례의 아동 일정(좌_비만, 우_과체중 경계)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6] 돌봄기관 참여아동이 제공받는 프로그램 중 정적인 활동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비중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센터 프로그램에 따라 좀 만족도가 다른데.... 근데 저희 애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이렇게 앉혀 놓고서 뭐를 시키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가지고 그런 거 할 때는 하기 싫다, 원예 같은 거 할 때는 싫다 하고 바깥에서 뛰어 노는 활동을 할 때는 조금 더 늦게까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3학년, 보은군 보은읍-1, 전일제 근로)

"(혹시 놀이터라든가, 어떤 공간에 가는 일이 아예 없나요?) 거의 없어요. 놀이터 가도 학교 내에 있는 놀이터를 가는데, 그것도 돌봄 교실에서 단체로 나가서 노는 거 외에는 크게 없는 편이에요. (돌봄 교실에서 같이 놀이터 간다고 했을 때 얼마큼 노는지?) 단체로 한 반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30분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대중없는 게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나오시더라고요. 미세먼지 없거나 비가 안 온다거나 해가 너무 세지 않으면 데리고 나와서 놀이터에서 놀이기구 타거나 아니면 간단한 게임 같은 거 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거 같아요..아무래도 학교 안에 있는 놀이기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했던 놀이를 또 한다든지, 게임 같은 경우도 피구나 이런 한정적인 것들, 아이는 재미있어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아무래도 생활 반경이 학교, 학원, 집밖에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긴 해요." (2학년, 괴산군 소수면, 자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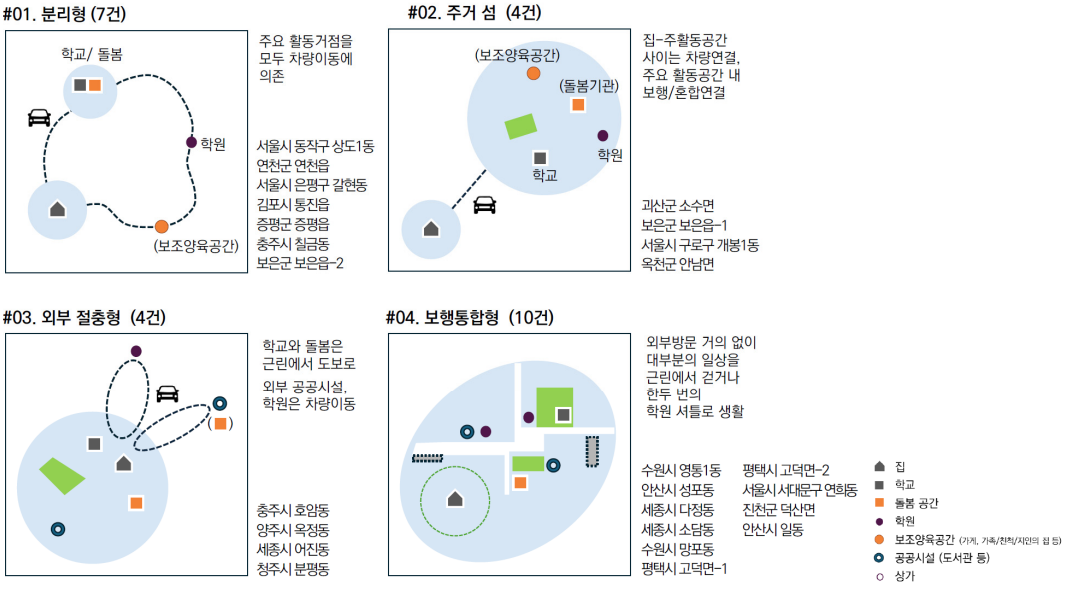
"돌봄 프로그램 중에 동화구연 수업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2학년 때는 지금 체육 수업이 없는 것 같은데, 1학년 커리큘럼에는 체육 선생님이 오셔서 했어요. 그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요일날은 1시간 반 동안 강당에서 진짜 정신 없이 뛰고, 얼굴이 시뻘개져서 하교했는데, 2학년에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딱히 동화구연 말고는... 말씀을 드려 봤는데. 일단 교사를 구하기 어렵고..." (2학년, 수원시 영통동, 프리랜서)

2. 이동패턴 유형분류와 근린 접촉면

가. 이동패턴 유형분류

근린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아이들의 활동과 생활방식을 매개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실제로 초등학교 중·저학년 아이들이 생활패턴은 부모의 선택과 허락, 조율이 강력하게 개입하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아이들의 생활시간 균형 회복과 관련된 중재 및 개선지점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근린환경여건 그 자체보다는 아이들이 환경을 이용하고 있는 패턴, 주요활동공간이 어떻게 배치, 조합되어 있으며 이들 활동공간들을 연결하는 이동방식은 무엇인지 "이동패턴"에 초점을 맞추어 유형화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동패턴 유형 분류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고려되었다. 첫째, 아동의 주요 활동거점들(집-학교-돌봄-추가적 교육장소 등)이 서로 단절되어 있는지 또는 통합된 하나의 도보생활권 내에 있는지, 둘째, 이들 활동 거점들을 잇는 이동수단이 보행과 자전거 같은 활동적 이동인지, 또는 승용차/셔틀버스/대중교통과 같은 동력이동인지 여부이다. 두 요소의 조합을 바탕으로 25명의 아이들의 이동패턴을 분석한 결과, ①분리형, ②주거 섬 유형, ③외부 절충형, ④보행통합형 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프로토타입을 도식화하면 [그림 4-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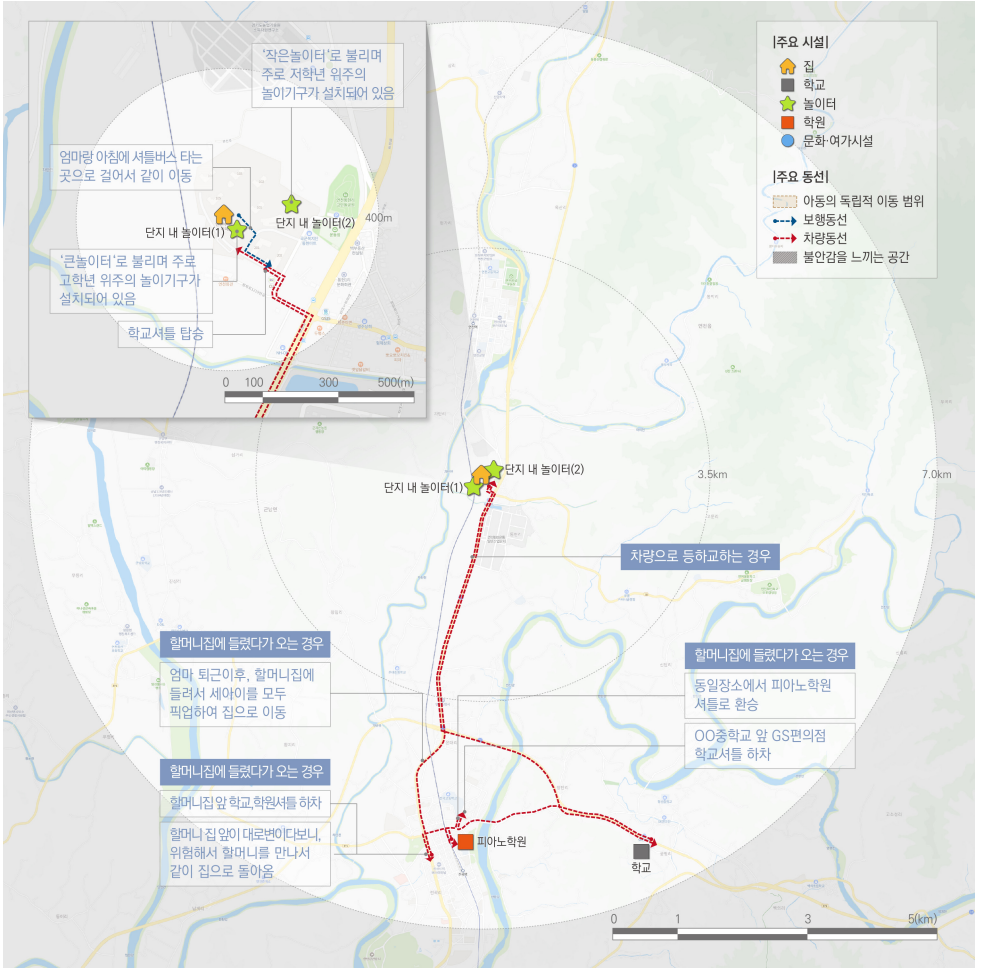


[그림 4-7] 활동거점 분리-통합 및 주요 이동수단을 조합하여 도출한 아동의 4가지 이동패턴 유형

출처: 연구진 작성

1) 분리형

집, 학교(돌봄), 학원이나 보조양육자의 집 등 주요 활동공간들이 모두 분리되어 있어 주요 활동영역간 이동을 모두 차량(자가용, 스쿨버스, 전철, 학원셔틀 등)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다. 주요 활동공간 사이의 절대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 도보로 왕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연천, 은평), 그리고 주요 생활공간끼리 완전히 다른 동네로 분리되는 수준의 거리는 아니지만 근린 내 교통안전성이 열악하거나 학구도상 집 위치가 고립되어 있어 주요 이동수단으로 차량이 사용되어야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면담참여자들 중에는 25명 중 7명이 “분리형” 이동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8] 분리형 사례-1 (연천군 연천읍)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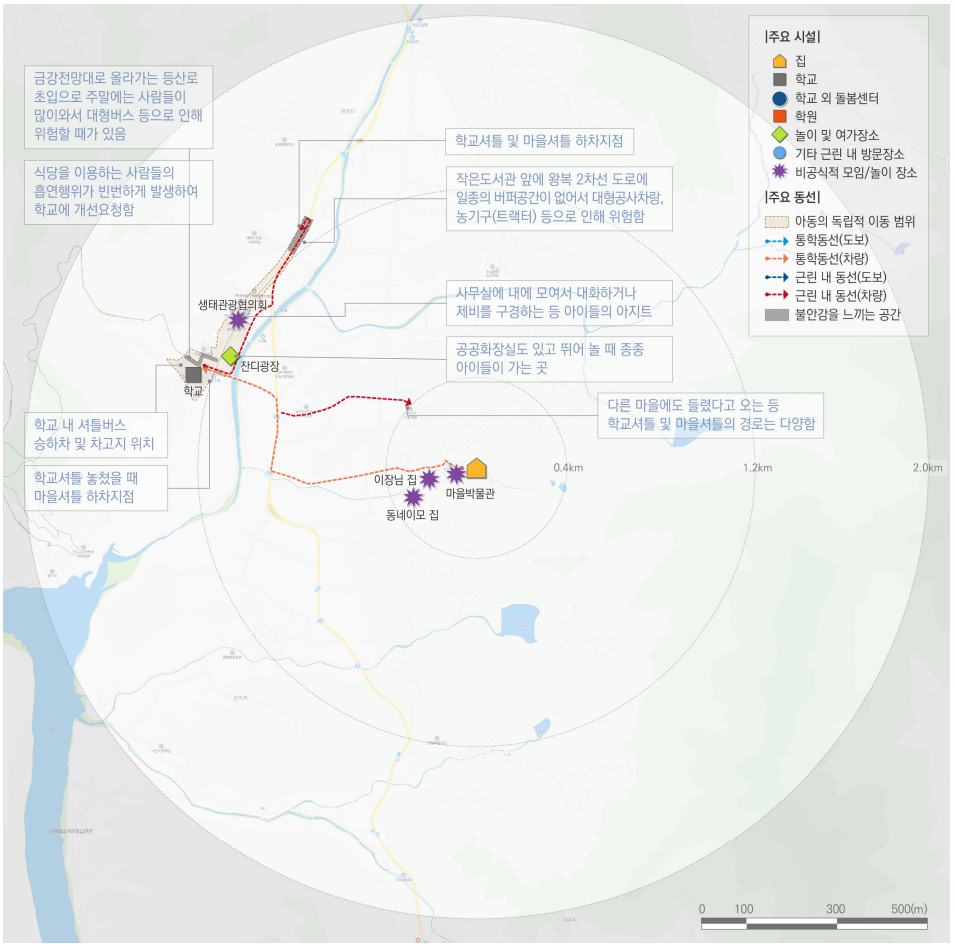


[그림 4-9] 분리형 사례-2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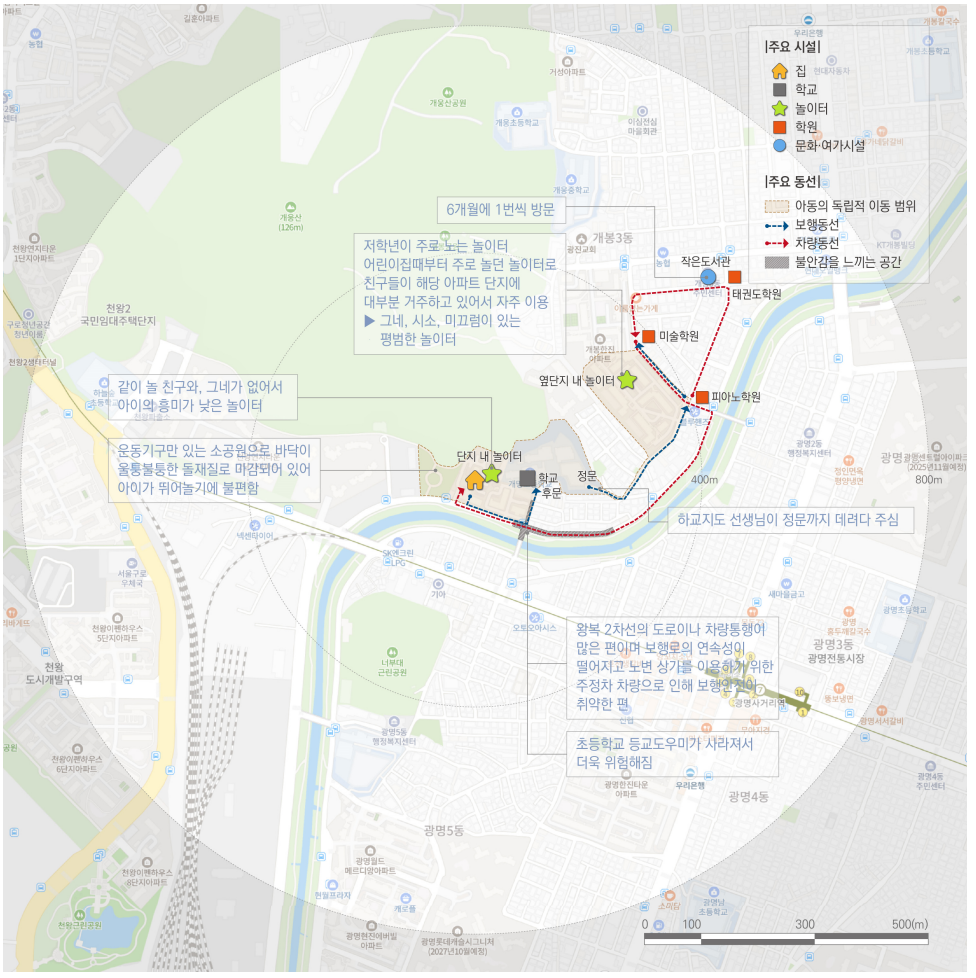
2) 주거 섬 유형

집-주요활동공간(학교/학원 등이 있는 생활권) 사이는 차량으로 이동하지만, 학교나 돌봄시설, 학원 등이 있는 주요거점 주변의 생활권 내의 이동은 보행 또는 보행위주로 혼합된 형태를 보여 주는 유형이다. 읍내 중심으로부터 떨어진 면 단위 마을에 거주하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린공간구조상 또래들이 주로 방과후에 머물고 왕래하는 중심생활권으로부터 고립된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도 이 유형에 포함된다. 공간구조의 특성상 한 번 집에서 나와 중심생활권으로 이동하면 모든 일정이 끝나야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생활패턴을 보여준다.



[그림 4-10] 주거섬 사례-1 (옥천군 안남면)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1] 주거섬 사례-2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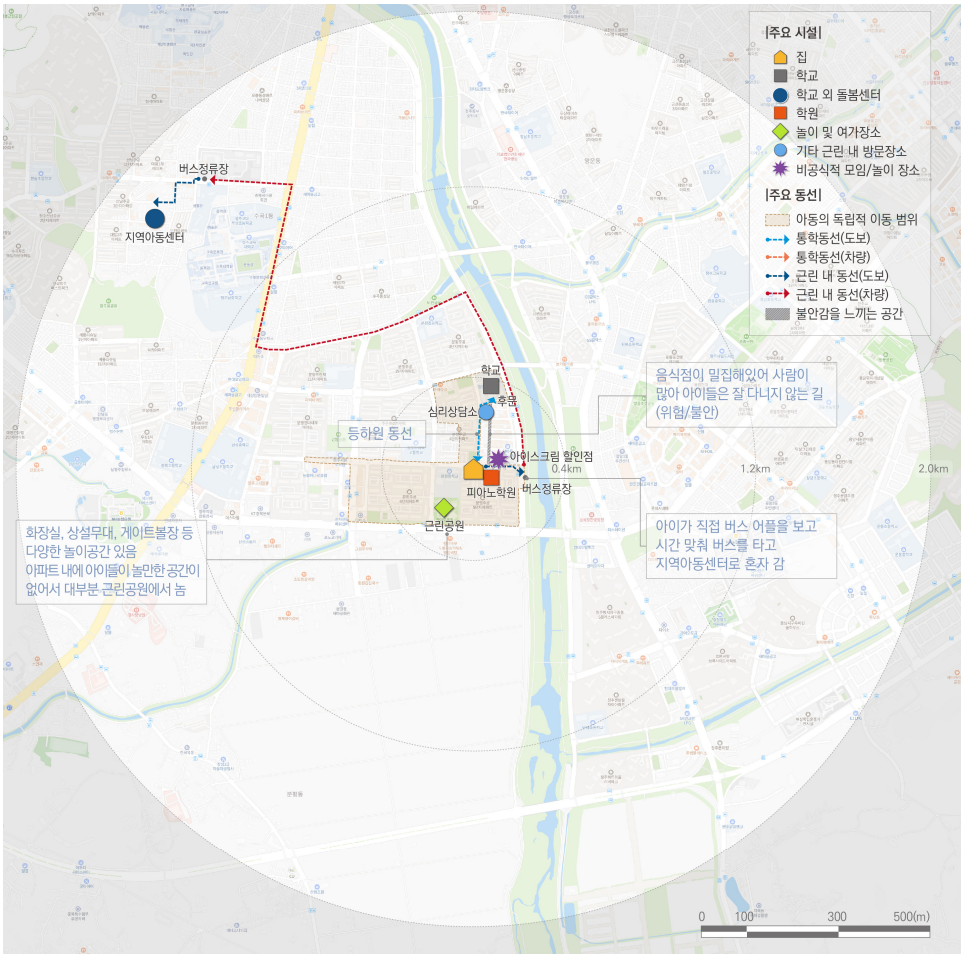
3) 외부절충형

집에서 학교 및 돌봄기관까지는 근린에서 도보로 이동하고, 그 외 추가적인 수업이나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가용이나 학원 셔틀/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외부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경우이다. 외부로 이동하게 되는 이유는, 양질의 저렴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네 학원에 자리가 없어서, 개인적인 상담치료 또는 성향에 맞는 맞춤 돌봄기관을 방문하기 위하여, 집 앞에 내려주는 셔틀버스 서비스가 필요해서 등 다양한 사정이 존재한다. 학교 또는 돌봄기관이 집에서 가까우므로, 한 일정이 끝나고 집에 들렀다가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발견된다. 학교 공간과 학원 공간이 차량이동으로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방과 후 학교 친구들과의 만남이 근린환경을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지속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4-12] 외부절충형 사례-1 (세종시 어진동)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3] 외부절충형 사례-2 (충주시 분평동)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4) 보행통합형

살고 있는 근린 내에서 학교, 돌봄, 학원, 공공시설 등 주요생활공간의 대부분을 보행으로 연결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상적 걷기가 생활화되어 있으며, 한두 번의 학원 셔틀 정도가 병행되는 경우가 있다. 대도시 중 공공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경우, 그리고 신도시 또는 신규 개발지구로서 생활권 계획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에서 이러한 생활패턴이 관찰된다. 학교와 돌봄, 학원과 근린상가, 공원과 놀이터, 공공시설 등을 이용하는 과정이 모두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같은 공간 내에 살고 있는 또래와의 교류가 가장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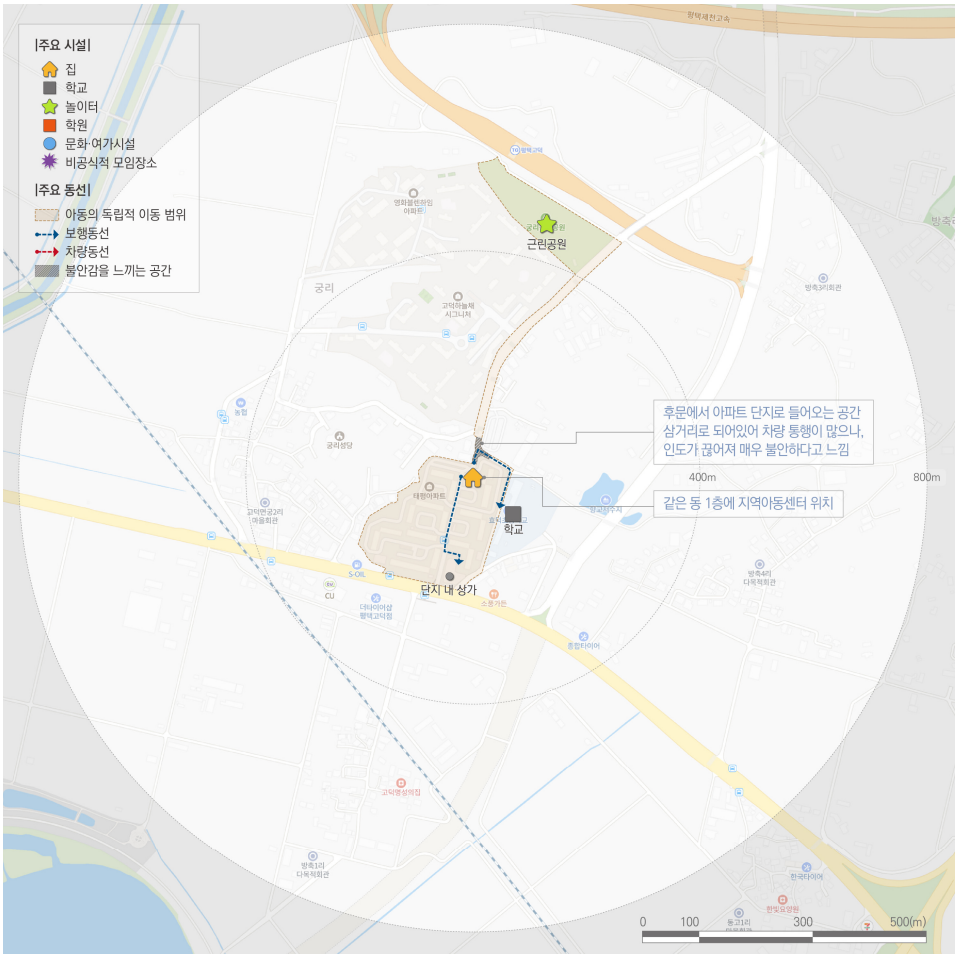
[그림 4-14] 보행통합형 사례-1 (수원시 망포동)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5] 보행통합형 사례-2 (세종시 다정동)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16] 보행통합형 사례-3 (평택시 고덕면-2)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나. 이동패턴 유형과 근린의 경험수준

1) 이동패턴 유형과 근린접촉면 (바깥놀이+보행시간)

생활거점의 분리-통합 여부가 아이들이 근린에서 갖는 경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관찰하기 위해, 이동패턴 유형별 보행시간과 바깥놀이 시간을 비교하였다. 분리형 이동패턴에서는 예상가능하듯이 근린과의 접촉면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놀이와 보행시간을 모두 합쳐도 하루 10분 이내로 상당히 짧다. 주요 생활이 이루어지는 각각의 장소들이 모두 파편화된 상태에서 차량으

로 이들을 연결하는 방식은 공간을 지역환경이 아닌 여러 개의 점이나 캡슐과 같이 인식, 사용되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근린 속에서 경험과 공간을 연결시키며 스스로 영역을 확장해나가는 과정을 삭제해버리고 있다.

> "아침에 아빠 출근하는 길에 학교 앞에 내려주고 가요.... 돌봄 교실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태권도 차를 3시 반에 3시 40분쯤 타거든요. 그때 바로 타고 태권도로 가요. (학원 마치고 태권도학원에서 또 차량 제공해서 집에 오나요?) 네. 학교에서 태권도까지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고요. 태권도 학원에서 집까지는 타고 도착해서 내리면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집에 올 때는 아이들 내리고 해서 돌고 돌아 좀 그렇더라고요....(중략)...둘째는 엄마 목소리 들으면 눈물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카톡은 가끔 오는데, 전화 통화는 안 하려고 해요...엄마 목소리 들으면 괜히 보고 싶어서 그냥 울컥하고 그런 것 같아요. ....혼자 나가도 집 앞에 슈퍼 정도만 가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쪽만 가고 혼자는 거의 멀리 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은 있는데 놀이터가 없어서 그냥 빌라 앞에 그냥 모여서.. 앞에서 서성인다고 해야 되나..." (2학년, 김포시 통진읍, 전일제 단축근로)

거주지가 생활중심지와 떨어져 고립되어 있는 주거섬 유형의 경우 물리적 환경이 비슷하더라도 사례별로 매우 대조적인 근린환경 사용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4개 사례 중 두 곳에서는 하루 80~100분 정도의 근린접촉(보행+바깥놀이)가 나타나는 반면, 나머지 두 곳에서는 15분도 되지 않는 저조한 근린경험이 관찰되고 있다. 양분된 사례들간에 나타나는 간극의 이유는 물리적 환경보다 더 크게 작용하는 사회적 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옥천의 경우 마을 자치활동으로 만들어낸 특별한 마을장소와 분위기,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하루종일 학교에서, 그리고 다시 도서관 돌봄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은 마을순환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가는 길을 자연스럽게 바깥놀이로 연결하고 있으며, 동네 곳곳에는 이런 아이들을 지켜보고 반갑게 인사해주는 어른들이 있다.

충북 보은의 사례에서는 학교가 파한 후, 아이들끼리 동네 곳곳을 거닐며 간식을 사먹고 수다를 떨다가 다 같이 지역아동센터로 향한다. 몇 년간 함께 지낸 친한 친구와 사촌들이 날마다 같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 이동을 놀이활동으로 바꾸어 놓는다.

반면 학교 외에는 친구들과 공유하는 일정이 많지 않고, 동네에 편하게 가 있을 공간도 없다면, 고립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스스로 근린 접촉기회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아이들이 친구와 만나고 놀 기회는 우연히,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거 섬 유형의 이동패턴을 가진 아이가 귀가한 후 갑자기 성사된 친구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양육자가 필요할 때마다 차량지원을 해주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깝다(구로 개봉). 또한 주거 섬 유형의 이동패턴에서는 집 근처 환경과 학교근처 환경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근처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통합된 생활권에서보다 길 수밖에 없고, 이는 양육자의 돌봄동행 부담을 증가시킨다.

[주거섬, 근린접촉면이 낮은 경우]

"아이들끼리 통화를 해요. 지금 나와 몇 동 앞으로 이렇게 하는데 얘만 떨어져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저녁에 저녁 먹을 애매한 시간에 친구가 불러서 애들끼리 다 모였어요. 얘만 못 간 거에요.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친구들은 그냥 집 앞으로 나오면 되는건데. 집 앞에 109동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건데 왜 못 나와요? 그래서 00이 혼자 못 가. 아줌마가 같이 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도 뭘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혼자 가볼래 하니까 혼자 절대 못 간대요. 급한 맘에 차라도 끌고가서 데려다 주고 올까도 했는데... 근데 올 때 또 제가 데리러 가야 되잖아요. 혼자 못 오니까." (2학년,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프리랜서)

"화, 수, 목은 거의 5시에서 5시 반 정도에 끝나서 이제 제가 또 이쪽(가게)으로 픽업해서. 금요일이랑 월요일이랑 동일하고요... 제가 일을 안 하는 상황이면 조금 솔직히 픽업을 다니거나 아이를 이동시켜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일을 하는 상황에서는 이 시간을 계속 봐야 되고, 아이가 끝나는 시간에는 기억하고 가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이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아이가 한 3학년 되어서 학교에서 가게까지 혼자 걸어올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어떠실지?) 너무 좋을 거 같아요. 이게 오히려 짧은 시간이라 좀 더 뭐라고 해야 되지, 긴 거리라면 아예 제가 이 시간을 뺄 텐데, 약간 짧고, 짧아서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 (2학년, 괴산군 소수면, 자영업)

[주거섬, 근린접촉면이 높은 경우]

"얘는 특이하게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집보다는 동네 이모네 집에 가고... 안남이 그래요. 이번 주에 안 그래도 방과 후 수업 공개수업이 있었거든요. 학부모들이 참여해주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에 오신 탁구 수업 강사님이 우리가 1학년 애들한테 누구야 안녕, 누구야 안녕? 오늘 어떠네~ 다들 이러는 걸 보고, 그러니까 여기는 다 학부모고, 다 자녀네요? 하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하다고 놀라워 하셔서... 학교에 학부모 행사, 회의가 있으면 다 가고요. 그리고 웬만한 학부모들은 지역에서 다 역할을 하고." (2학년, 옥천군 안남면, 마을 유연근무)

"(지역아동센터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죠?) 네. 멀지 않은 것 같아요. 누나랑 같이 걸어갈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친구들이랑 놀다가 따로 친척 누나랑 갈 때도 있고요. 친척 누나도 근처에 살아서.... (중략)횡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은 다 안 돼 있어요. 이길로 갈 때 있고 이렇게 읍내 쪽으로 돌아서 갈 때 있고. (두 길이 많이 달라요?)네, 좀 많이 달라요. 여기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문구점 이런 게 있고, 이쪽으로 가면 아직 문 열지 않은 식당들이나 조금 가다 보면 여기 또 센터가 하나 또 있고... 이 길이 조금 더 가까운데 보통은 아마 읍내 쪽으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뭐 사 먹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진짜 빨리 갈 때." (3학년, 보은군 보은읍-1, 전일제 근로)

외부절충형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근린접촉면은 분리형보다는 다소 높지만 크게 다를 바 없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분리형 이동패턴과의 근소한 차이는 학교로의 도보 통학과 집 앞 놀이터에 잠시 나와 산책하는 등 가벼운 활동에서 비롯된다. 외부절충형 이동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4명의 아동은 모두 500세대 이상의 중-대규모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방과 후 대부분의 시간을 근린 외부에서 보내는 까닭에 거주단지 내 갖춰진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의 장점을 크게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주변에는.. 학교에서 나와서 문방구나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학원에 있는 상가에 가야 있는데 이용할 시간도 없는 거죠. 끝나면 빨리 탑승해야 하니까. (대부분이 셔틀로 이동하기 때문에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는 뭘 할 겨를이 없는 거네요). 네." (2학년, 양주시 옥정동, 전일제 근로)

"…. 놀이터는 이제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하고 노는 게 아니라 아는 친구랑 노는데 아는 친구를 만나냐 못 만나냐에 따라서 같은 장소인데 엄청 아이의 만족도가 달라지긴 해요. 동년배 친구들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 근처 사는 부분들은 부모님들은 놀이터라든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부분 차량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좀 적어서 여쭤보면 많이 만족도가 높으세요" (2학년, 충주시 호암동, 파트타임 근로)

"저도 사실 와서 저녁부터 후다닥 밥 해서 먹이고 나면 하루가 그냥 가는데 사실 얘도 계속 빵빵이 도는 시간이 있고, 동네 나가서 혼자 돌아다니는 시간이 없는 애고, 집에 혼자 있거나 어디 가서 돌거나 하니까 제가 요즘 올해 두드러지게 느끼는 게 친구 사귀기 어렵다 이 부분도 큰 고민이거든요. 저도 막 동네 엄마, 동네 친구랑 어울리지 않다 보니까 거의 집에서 혼자 노는 것에 너무 익숙해서 그게 불편하지 않은데 아쉬운 점이라면 그렇고, 오히려 기회를 더 만들고 해야 하는데 딱히 저녁에 갈만한 곳이 있지도 않고" (3학년, 세종시 어진동, 전일제 근로)

마지막으로 주요 생활공간이 모두 하나의 생활권 내에서 도보로 이어지는 보행통합형 이동패턴에서는, 근린접촉면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놀이와 보행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아이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이 많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바깥놀이 활동이 저조한 사례도 몇 곳이 관찰되는데,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지만 이들 세 지역 모두가 지상주차가 있는 구축 대단지 아파트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밖에 교통안전에 취약한 지점이 있거나, 근린공원이 있지만 아이들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조건인 경우, 생활권 자체가 고립되어 있거나 또는 대로로 둘러싸여 있어 인접 생활권으로의 확장에 장벽이 되는 경우, 아이들의 근린접촉면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찰되었다(수원시 영통동, 안산시 성포동, 평택시 고덕면-2).

[보행통합형 이동패턴 유형 중 바깥활동 저조한 사례 면담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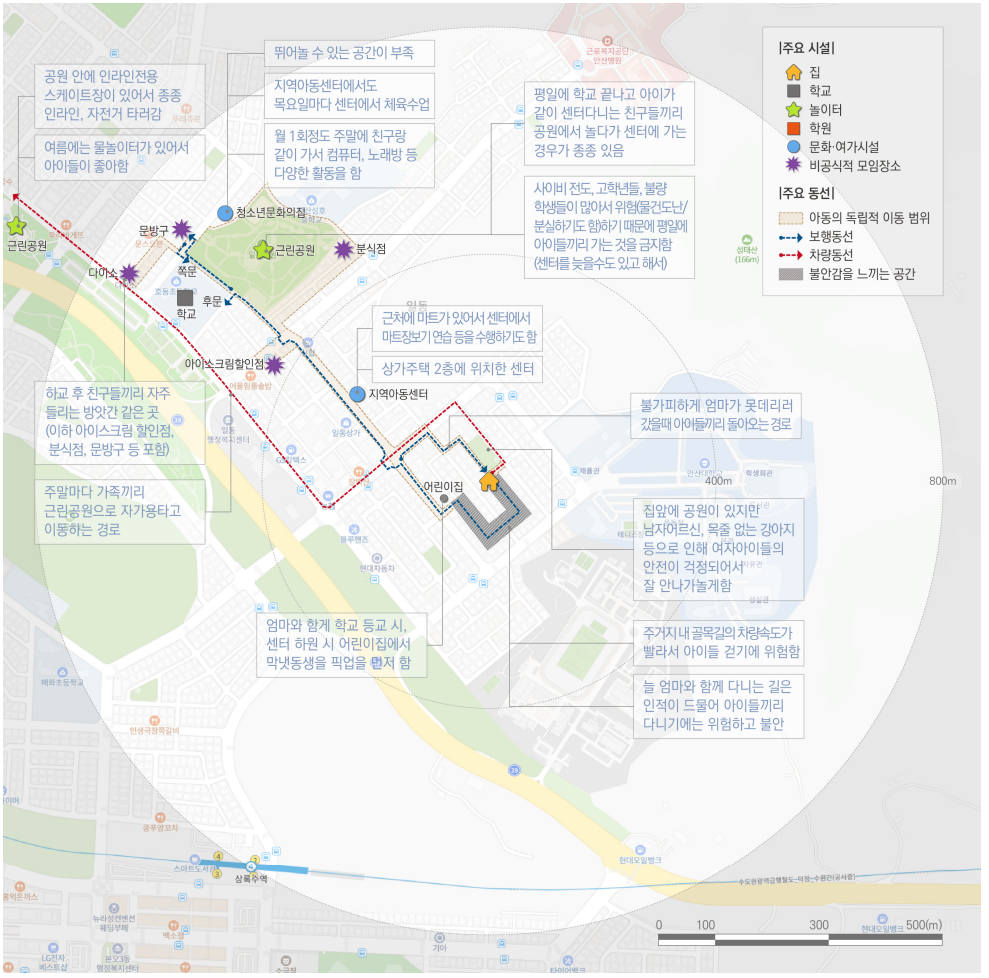
“공원이 근처에 있어요. 그게 되게 협소한 공간이고, 나갔을 때 아이들이 일단 있지 않아요. 아무도 없어요. 텅 비어 있는 공간이라 나가서도 혼자 지내야 하니까 굳이 나가지 않더라고요. ..(중략) 거기 놀이터가 딱 하나 미끄럼틀만 있고, 모래 운동장과 농구코트가 있는데 친구들이 없으면 혼자서 놀기에는 심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 주말에 많이 놀게 해요. 평일은 거의 비어 있고, 좀 큰 중고등학생 형들이 친구들이랑 와서 끼리끼리 농구를 하고...” (2학년, 안산시 성포동, 전업주부)

“여기랑 그다음에 여기 상가 쪽에도 약간 다 지워진 횡단보도가 있어요, 다 지워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차들이 막 주차도 하고. 큰 차들이 다니고, 또 여기도 어떻게 보면 T자 삼거리 같은 느낌. 이쪽에 주차를 하니까 차 많죠, 전동 킥보드 많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건너가는 이 길이. 여기가 가장 좀 애들이.. (아예 그냥 이쪽으로 와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어쨌든 여기서도 한 번은 신호 없이 건너야 되요. 그래서 여기 횡단보도가 제일 그렇고, 여기가 이제 티자로 되어 있는데, 양보해 주는 차들도 있고, 양보 안 해주는 차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약간 그냥 앞만 보고 직진하니까 자기들이 판단 하에 괜찮다면 그냥 막 뛰고 이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면 엄마가 데리러 가세요?) 데리러 가요, 무조건.” (3학년, 평택시 고덕면-2, 프리랜서)

[보행통합형 이동패턴 유형 중 바깥활동 활발한 사례 면담내용]

“(학교에서 끝나면 만나서 같이 이동하나요? 도착하면 아까 3시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 시간이 걸리는게 친구들하고 아이스크림 할인판매점 그런 데에 들렀다 갈 때예요. (도보로 가고, 친구들과 가는데 이게 지아센 친구들인 거죠?) 네. 어디 안들리면 10분도 안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꿈떡 떡볶이집 들를 때 있고, 다이소 들를 때 있고 한동안 그러고 돌아다니더라고요.” (3학년, 안산시 일동, 전업주부)

“학교 앞에서 만나서 이동을 하더라고요. (학원이 끝난 다음에 한 5시쯤에 놀러 가는 거잖아요, 친구들이랑. 어른 없이?) 네. 너나들이 공원에서 만나나 봐요. 여기서 만나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아파트 놀이터 갔다가... 여기 보면 상가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무슨 커뮤니티 센터같이 앞에 약간 공간이 있나봐요. 거기서 노는 거 같아요. 친구들이랑 킥보드 타고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위험할까봐 걱정이 되는데, 저도 이렇게 노는 거 최근에 알았어요. 친구 만나서 그냥 놀고, 놀이터에서 논다고 생각했지. 원래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않을 것 같은데, 엄마들이.” (2학년, 진천군 덕산읍, 전일제 근로)



[그림 4-17] 보행통합형 사례-4 (안산시 일동)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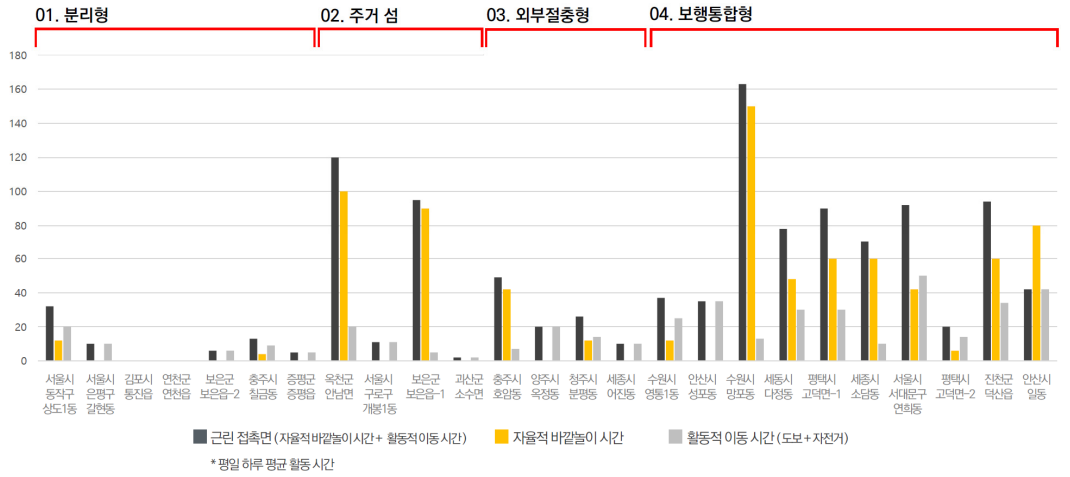
[그림 4-18] 보행통합형 사례-5 (진천군 덕산읍)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4-24〉 이동패턴 유형별 근린접촉면 수준 비교 (그룹별 평균)

그룹명		해당인원	a. 바깥놀이시간 (분/일)	b. 보행시간(분/일)	근린접촉면 (a+b) (분/일)
1	분리형	7	2.3	7.1	9.4
2	주거섬	4	47.5	9.5	57.0
3	외부절충형	4	13.5	12.8	26.3
4	보행통합형	10	54.4	28.3	82.7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그림 4-19] 이동패턴 유형과 근린접촉면(동네 경험)

출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IRB 승인번호 제2024-0231호)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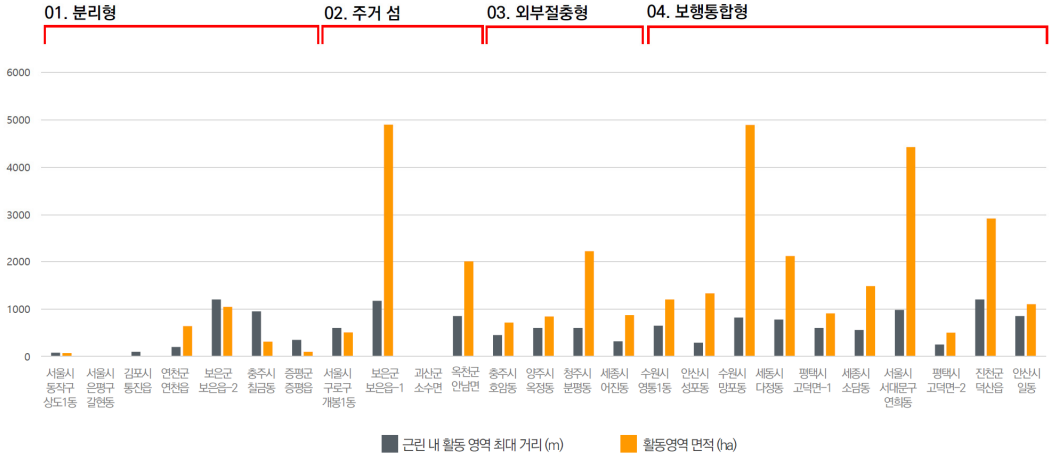
2) 이동패턴 유형과 독립적 이동범위

생활거점의 분리-통합 여부와 아이들의 독립적 이동범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적 이동으로 접근한다고 대답한 최대 근린 목적지까지의 거리와 어른 없이 독립적 이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범위의 면적을 산출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비교 결과는 이동패턴 유형과 근린접촉면의 크기를 대응시켰을 때와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보여, 근린 내 활동이 활발하고 근린에서 자주 걷고 노는 아이들의 독립이동 범위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더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학교에 도보로 통학하는 아이들의 경우 집과 학교까지의 거리가 독립보행 영역의 크기와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도보통학 가능한 거리에 학교가 있으며 실제로 주3회 이상 도보통학을 하고 있는 아이들은 25명 중 18명이었다. 이 중 10명은 독립적으로 가장 멀리까지 간 장소가 학교였으나, 나머지 8명은 학교보다 더 먼 곳에 있는 장소까지 독립적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에 활동적-독립적으로 이동하는 아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근린의 다른 목적지로의 도보-자전거 이동이나 신체활동 역시 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를 뒷받침한다(Loebach & Gilland, 2016; Remmers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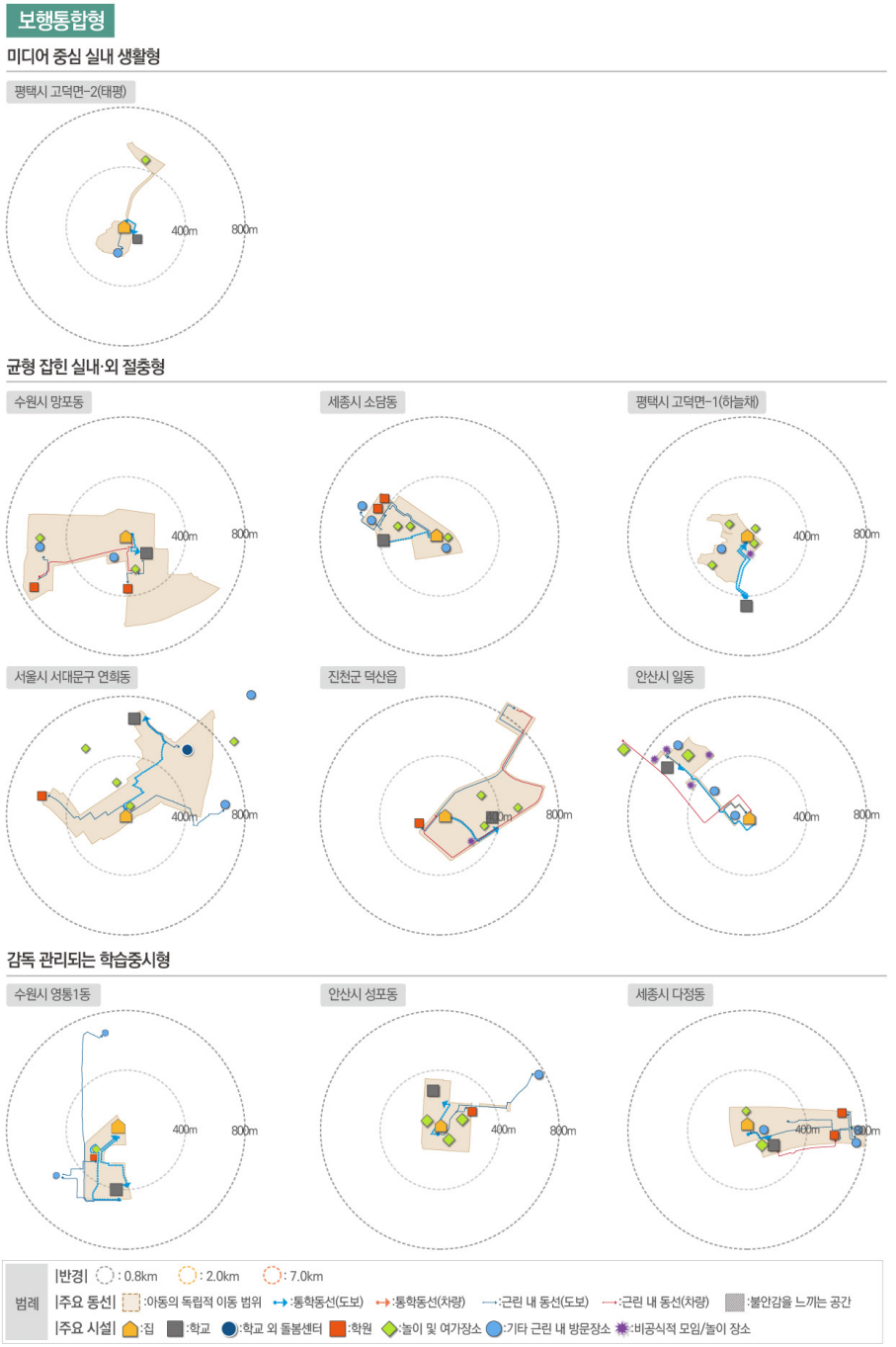
[그림 4-20]의 그래프에서 거리에 비해 면적이 현저히 작게 나타나는 사례 중에는 특정 목적지를 향할 때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장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부모가 데려다 준

장소에서 혼자 집으로 오는 편도 보행이 여기에 해당하며, 분리형 이동패턴에서 일상적 또는 비일상적으로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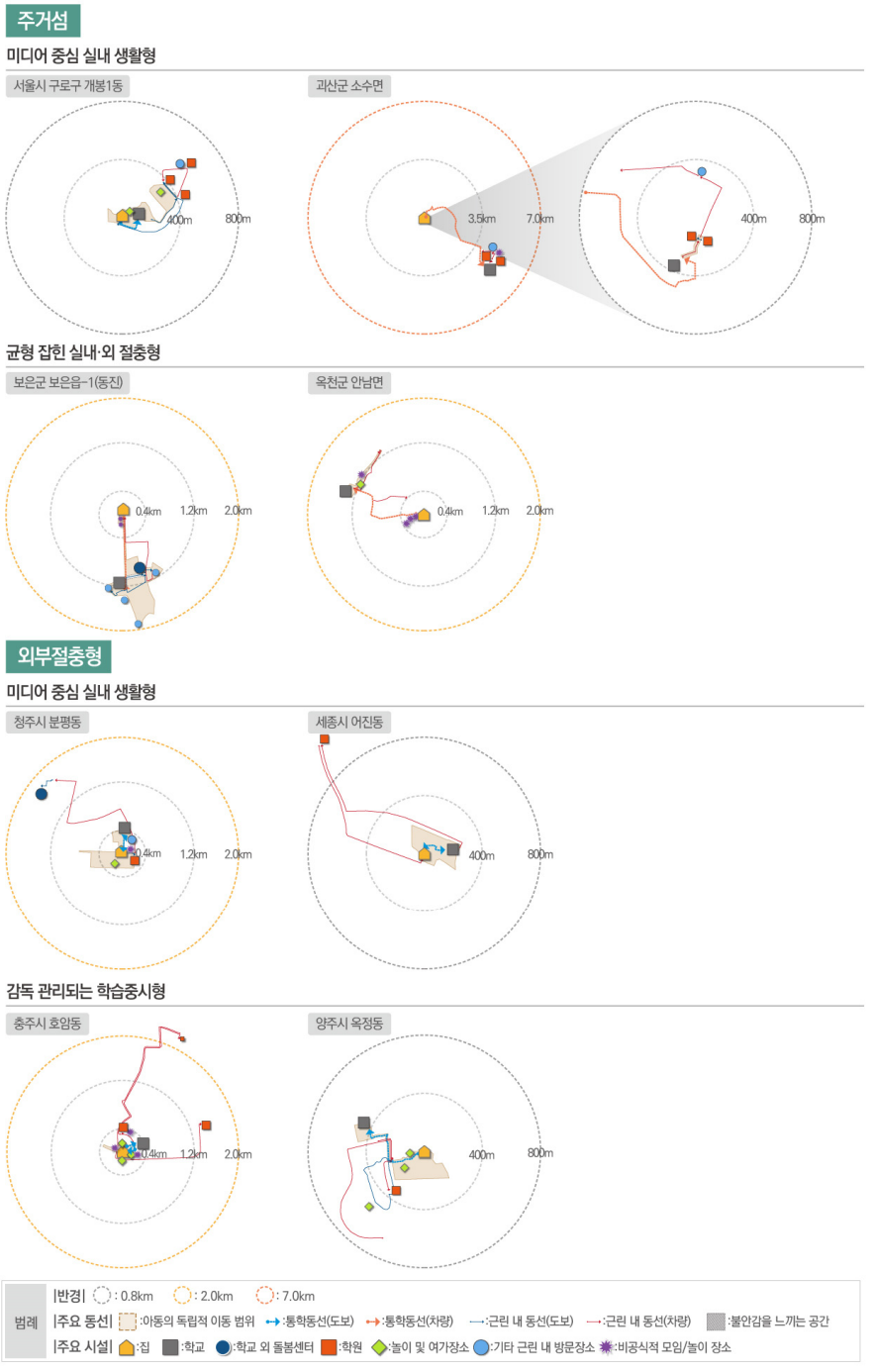
[그림 4-20] 독립이동으로 접근하는 최대 거리와 독립적 이동 영역 면적 (단위: m, ha)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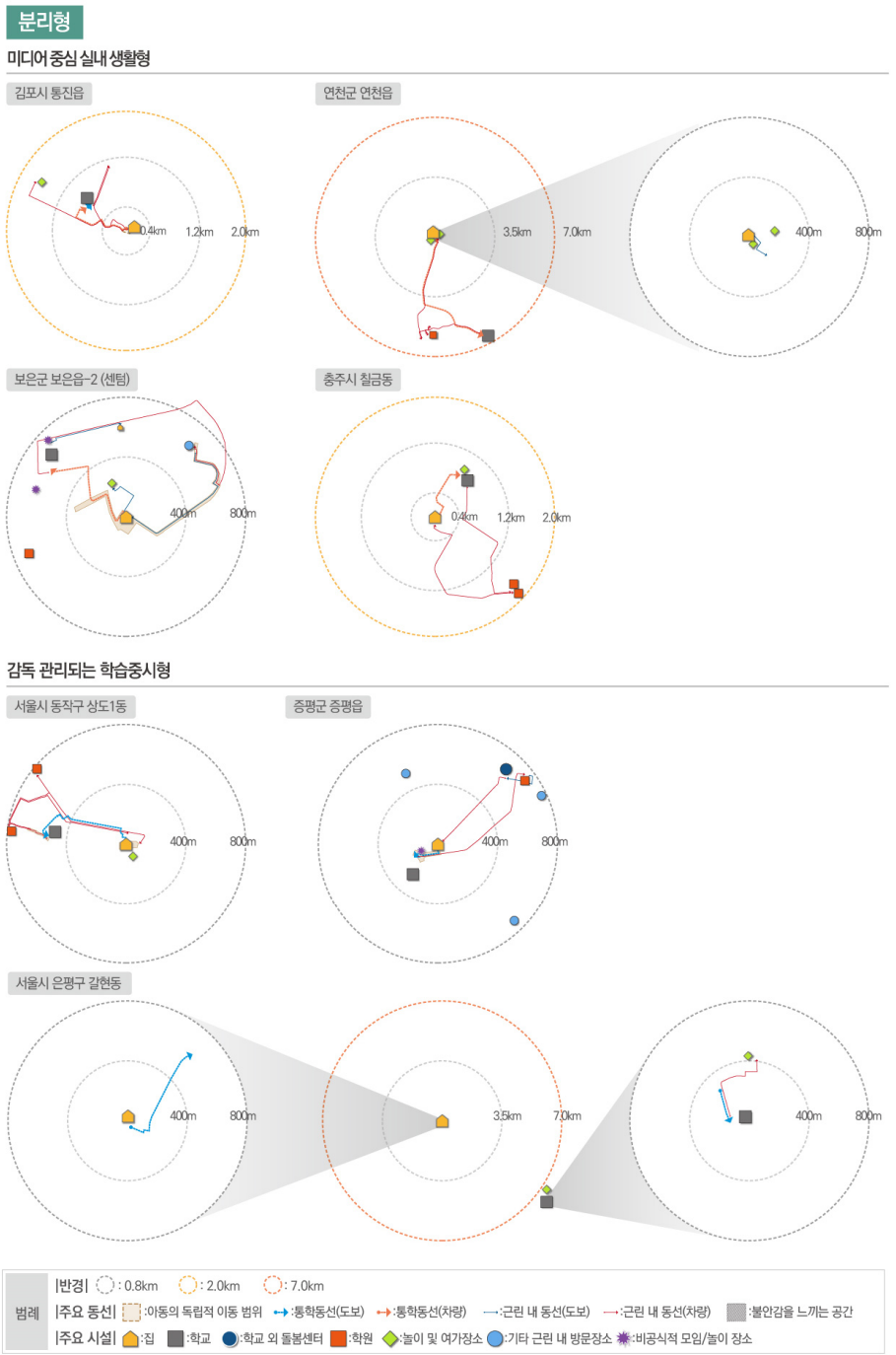
[그림 4-21] 이동 패턴- 시간 사용 유형별 일상생활 동선 (보행통합형)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22] 이동 패턴- 시간 사용 유형별 일상생활 동선 (상: 주거섬, 하: 외부절충형)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그림 4-23] 이동 패턴- 시간 사용 유형별 일상생활 동선 (분리형)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제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3. 생활시간 유형과 이동패턴 유형의 관계

아동의 생활시간 유형과 공간사용 패턴을 매치하여, 각기 다른 환경여건에서 아동의 균형잡힌 생활시간을 위해 필요한 공간적 지원을 모색하였다. 25명의 면담참여자 사례를 3가지 생활시간 유형-4가지 이동패턴 유형 매트릭스로 분류-배치하면 [표 4-24]와 같다.

"분리형" 이동패턴을 가진 아이들 중에는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으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이 가장 많으며,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다. 집-학교-돌봄-학원 등 주요생활공간을 모두 차량으로만 연결하는 생활방식을 취하는 아이들에게는, 주어진 근린환경여건은 단지형 아파트-저층주거지, 경사지-평지, 대도시-읍·면지역 등으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극단적으로 낮은 근린과의 접촉면을 보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분리형 이동패턴" 중 "감독-관리되는 학습 중심형"에 해당하는 사례들은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가, 집 근처 교육환경 및 근린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학원/돌봄기관을 선택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다. 양쪽 모두 아이들은 집이나 학교 주변 근린환경에 대한 경험을 전혀 확장시켜 가지 못하고 있다.

"주거 섬" 이동패턴 유형의 아이들에게는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과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이 양분되어 나타난다. 자신의 주거지와 같은 학교 또래들의 주요 생활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주거 섬" 유형의 경우, 아이의 생활시간 균형 달성은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를 얼마나 밀도있게 이어가며 학교주변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방과 후 지역아동센터 등 익숙한 친구들과 공유하는 목적지가 있거나, 돌봄공간, 도서관 등을 통해 또래들과 친밀감이 두텁게 쌓인 경우에는 주거 섬 유형의 이동패턴을 갖고 있더라도 근린과의 접촉면이 형성된다. 따라서 "주거 섬" 유형의 아이들에게 균형잡힌 생활시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귀가 전 학교주변 환경 내에서 또래와 만날 수 있는 앵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괴산 소수의 꽃집 역할을 공공시설이 대신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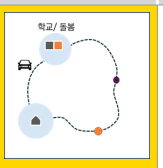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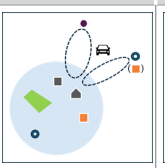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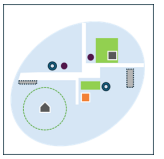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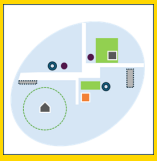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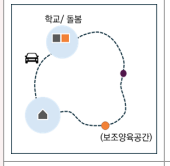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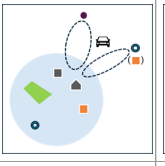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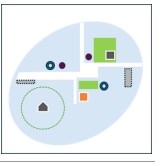
"외부 절충형" 이동패턴을 보이는 아이들 그룹에서는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시간사용 패턴을 지닌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다. 학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방과 후에 또래간 친밀감을 형성할 만한 별도의 활동이 없고, 학원일정은 학교생활권과 단절된 상태로 외부에서 이루어지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 섬" 아이들보다 근린환경 경험 측면에서 더 불리할 가능성이 있다. 상대적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으로, 외부로 멀리 이동하거나 일정 자체가 많은 경우 "감독 · 관리되는 학습 중심형"으로 나타난다. 주어진 근린환경 자체는 대체로 양호하기 때문에, 집 근처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회복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이다. 아이들의 하루 중 마지막 일정을 근린 내에서 종료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도 아이의 생활을 근린환경에 밀착시키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보행통합형” 이동패턴 유형 그룹에는 대부분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아이들이 매치되고 있다. 활동의 균형을 이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주거유형을 살펴보면 대단지 아파트가 4곳, 저층주거지가 2곳이다. 계획시가지에 신축되는 대단지 아파트들일수록 아동에게 필요한 인프라들이 풍부하게 갖춰질 가능성이 높음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러한 흐름은 자연스럽다. 저층주거지 거주자로서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에 해당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은 ① 3학년으로 학교 외 돌봄기관을 이용하고 있으며, ② 해당 돌봄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아이들이 다니기에 적당한 위치에 있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밖 돌봄기관이 아동의 근린접촉기회에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시너지가 다시 한번 확인된다.

생활시간 유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읽을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은 “감독관리되는 학습 중심형” 생활시간 그룹에서 두드러진 이동패턴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미디어중심 실내생활형”에서 보행통합형 이동패턴 사례가 거의 매치되지 않으며,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집단”에서 보행통합형 이동패턴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감독관리되는 학습 중심형” 그룹에서는 주어진 근린환경여건이 여의치 않으면(인프라 부족, 좋은 교육이나 돌봄 프로그램 제공시설 없음 등) 외부의 좋은 환경으로 차량을 연결하여 적극적으로 아이를 참여시키며(은평, 상도, 증평, 호암, 옥정), 근린환경 여건이 양호하면 근린에서 취할 수 있는 감독된 활동 위주로 생활시간을 구성한다(다정, 영통). 주어진 환경여건에 따라 원하는 일정을 만들기 위한 난이도와 기회비용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동패턴 방식의 매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양육자의 교육의지와 태도가 주어진 근린환경 요인보다 더 강력하게 아이들의 생활방식을 좌우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하게 한다.

〈표 4-25〉 생활시간유형 군집별 이동패턴 특성

생활시간 유형	특성	이동패턴 유형			
		분리형	주거 섬	외부절충형	보행통합형
미디어 중심 실내 생활형	학습 적음 **음악, 미술, 취미수업 많음** 차량이동 편차 큼 감독되는 신체활동 편차 큼 **바깥놀이 거의 없음** 동네 도보 가장 적음 **스크린타임 전반적으로 높음**				
		김포시 통진읍, 연천군 연천읍 **보은군 보은읍-2*,** **충주시 칠금동***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과산군 소수면	청주시 분평동 **세종시 어진동***	평택시 고덕면-2
균형 잡힌 실내-외 활동형	학습 적음 음악,미술,취미수업 적음 **차량이동 가장 적음** 감독되는 신체활동 편차 있음 **바깥놀이 가장 활발** 동네 도보 일정 수준 이상 스크린타임 중간				
			보은군 보은읍-1* 옥천 안남면		**수원시 망포동*,** **세종시 소담동*,** 평택시 고덕면-1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진천군 덕산읍 **안산시 일동***
감독 관리되는 학습 중심형	**학습, 음악,미술, 취미수업,** **감독된 신체활동 모두 많음** 차량이동시간 편차 큼 바깥놀이 미미함 동네 도보 가장 많음 **스크린타임 가장 적음**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증평군 증평읍		충주시 호암동 양주시 옥정동	수원시 영통1동 안산시 성포동 세종시 다정동

***1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제4절 공적 돌봄에 대한 양육자 인식

1. 이용하는 돌봄 시설의 환경 및 아동 활동 특성

가. 돌봄시설 내부 환경, 돌봄시설 주변 환경

돌봄시설의 내부와 주변 환경에 대한 부모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는데, 대체로 현재 이용하는 돌봄시설 내부 환경과 주변 환경에 대해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돌봄시설 내부 환경의 경우, 공적 방과후 돌봄을 이용하게 되면 공간의 익숙함과 돌발상황에의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특히 만족함을 나타내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설이 쾌적하고 깔끔하며, 교구 및 집기류들도 적절하고 충분하게 비치되어 있어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칠판 있고요. 컴퓨터에 있고요. 화면 다 볼 수 있고요. 선생님이 컴퓨터로 운영하는 거 다 화면으로 띄워주시고, 깨끗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과밀 학급이 아니라서 공간 넓게 사용하는 것 같고요. 부족한 건 없어 보입니다." (수원시 영통동)

"깔끔하고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 같고, 그렇게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나름 만족하는 편이에요."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불만은 없고 익숙한 공간이라 아이는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산시 성포동)

"거기도 되게 예뻐요. 그 전에는 일반 교실이었는데 지금은 아기자기하고 책상이나 이런 것도 다 새롭게 들어와서. 편백으로 벽을 다 해놔서." (옥천군 안남면)

"깔끔하게 잘 돼 있었어요. 주방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깔끔했어요. 활동하는 교실도 따로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생활하시는 곳이 바로 사무실 바로 옆에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독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었어요. 소독할 수 있는." (보은군 보은읍)

"밑에 장판도 좀 아이들이 안 넘어질 수 있는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래서 그걸로도 바꾸고, 안에 피아노도 있고, TV도 되어 있고, 애들 개인 사물함도 잘 돼 있고요. 냉장고도 따로 두셔가지고, 이제 원래 나오는 간식이 있는데, 돌봄 선생님이 또 따로 또 챙겨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 나눠주기도 하시고. 미술 용품 이런 것도 갖춰져 있는 것 같았고, 교실처럼 이제 자리도 딱 지정석 해가지고 아이들 이름 이렇게 붙여가지고." (괴산군 소수면)

"아담하고, 올해 리모델링을 해서 애들이 앉아서 노는 공간이 많이 생겼거든요. 예전에는 책상 깔아놓고 의자였다면 지금은 한 켠에 턱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말랑말랑한 패드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앉아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서 아지트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공간을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 (보은군 보은읍)

"내부환경 괜찮아요.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고." (안산시 상록구)

"공개수업 같은 것도 한번씩 하고 그래서 뭔가 학교 시설 자체는 크게 불만일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세종시 어진동)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교실이어서 그냥 안전하고. 만약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대처해 주실 수 있는 훈련된 분들이 계신 거잖아요. 중간에 다치면 보건실에 가서 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수원시 망포동)

"교실이라 방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실내화 벗고 들어가서 애들이 신발 벗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방처럼 되어 있어서. 그리고 테이블이 이런 책상도 있고, 낮은 테이블도 있더라고요. 앉아서 보드 게임이나 교구 같은 거 만들 수 있게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돌봄 시설 주변 환경은) 원래 활동하는 곳이니까 낯설지 않고, 다니기 편하고." (김포시 통진읍)

"잘 돼 있는 편이고, 위험한 거 없고, 안전한 편입니다." (연천군 연천읍)

"괜적하죠. 얼마 안 되기도 했고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해 주셔서. 20명 정도인데 그렇게 많은 애들이 있어도 그렇게 작아 보이지는 않던데요. 활동하기에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하지만 공간만 갖췄을 뿐 별다른 장점은 찾지 못하거나 정작 아이들 돌봄을 위한 공간은 작은 경우 등 공간의 협소함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노후화 된 시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는 어른의 관점이고 아이가 만족하니까 불만은 없다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다. 해당 의견을 통해서 부모 관점에서의 만족도 파악도 중요하겠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당사자인 아동의 관점에서도 파악하여 수요파악에 있어서 균형 있는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아이들이 편하게 쉴 공간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이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향후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

"(내부환경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은 있죠." (평택시 고덕면-1)

"사무실이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아이들의 공간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층에는 장난감 도서관이라는 곳이 함께 있는데 그래서 이용객들이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아이들만 오로지 돌볼 수 있는 환경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에요." (증평군 증평읍 엄00)

"조금 작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실은 작은데 애들은 많고." (진천군 덕산읍)

"신발 벗고 있는 교실이에요. 진짜 별거 없어요. 그래서 정말 공간만 갖췄구나 하는 느낌. (아이는) 좋아해요. 아무런 터치없이 자유롭게 노니까." (양주시 옥정동)

(실내환경)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씩 몸이 아프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기가 여기서는 쉴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파도 쉴 데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종시 소담동)

"애들 입장에서는 되게 갑갑할 것 같기는 해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학교가 오래돼가지고 시설이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제가 내부시설을 직접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 말에 의하면 쾌적하지 않다고 들었어요. 학교가 오래됐으니까. 그래도 공공 교육기관이니까 믿고 보내는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다. 정말 낙후되지 않았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충주시 칠금동)

돌봄시설 주변 환경의 경우, 이동 동선이 짧은 측면, 학교 시설의 경우 지속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으므로 안심하게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현재의 이동 반경 내에 대해서는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주변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이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들이 다소 소란하게 뛰어놀더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시설 주변 환경이 아이들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밀하게 들여다 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까지는 교문이 오픈돼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아이 조퇴시키려고 갔는데, 정문이 조금 열려 있고, 경비 지킴이 분이 다 수기로 알림 작성하고, 이제 목걸이를 채워주시더라고요. 학교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저 잠깐 조퇴시키면 되는데 그랬더니 쓰고 가시라고, 쓰고 목걸이 차고 나올 때도 딱 쓰고, 그러면서 더 이렇게 더 확실하게 하시는구나. 예전에는 진짜 누가 들어가도 모르겠다, 너무 오픈돼 있으니까. 근데 더 강화된 것 같아요." (세종시 다정동)

"바깥에 이동하지 않고 바로바로 갈 수 있으니까 가까워서 너무 좋고, 어쨌든 교내에 안전하게 있고 이동동선이 길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만족합니다." (세종시 소담동)

"괜찮아요. 바로 밑에는 국수집이 있고,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는 밥집이 또 있고, 그런 식이에요. 아이들 가끔씩 센터에서 국수집 맞은 편에 마트가 있는데 거기 데려가서 장보기를 연습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안산시 일동)

"이 활동범위 내에서는 특별히 위험하다거나 위해할만한 요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커가면 여기를 벗어나서 이동을 할 텐데 아직까지는 이 안에서 학교 주변, 최근 환경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시 어진동)

"네, 단층이어서. 3층 건물인데 1층은 그냥 빈 상가고, 단층이에요. 옛날 건물이죠. 말 그대로. (센터가) 2층. 그리고 1층은 가게더라고요. 그리고 주위에 다세대주택이어서 애들이 뛰어놀고 소리 질러도 뭐라고 하는 곳이 아니더라고요. 아파트면 쫓겨나죠. (내부에서) 농구도 하고 하더라고요." (청주시 분평동)

하지만 이동이 다소 있는 경우 골목에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 안되는 점, 인도가 있더라도 보행로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걷기가 편하지 않은 점, 학교 계단 이용의 불편함, 엘리베이터 사용에 있어서 아이들만 이용하게 되면 다소 안전이 우려되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골목이고, 인도로 따로 구분되어 있는 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애들이 걷기에는 조금 단조로운 길이라 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인도는 다 있는데 이제 여기 읍내 들어와서부터는 그 길 때문에 좀 꺼진 데도 있고. 주변 환경은 거기 주변에 차가 많아요. 차가 많아서 그렇게 애들이 막 다닐 만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4층이랑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올라간다든지 하는데 애기들이 그러니까 장난을 치잖아요. 그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길이 바로 옆으로 있어요." (보은군 보은읍)

"일단은 학교에 계단이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계단은 없는데, 학교 이제 들어서서 교실까지 일단 등교를 보면 계단이 저한테는 조금 아이들한테는 위험하지 않나." (괴산군 소수면)

또한 운동장의 경우 지역주민들도 사용가능한 경우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음을 지적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주택가인 경우 상권이 같이 발달해 있어서 식당 이용자 등 주민들의 흡연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육아친화, 돌봄친화적인 지역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라 하겠다.

"중학교 아이들이 있어서 놀 때는 좋은데 간혹 짓궂은 아이들이 와서 작년에 둘째가 1학년 때 어떤 형아가 와서 볼을 꼬집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도 교문 들어갈 때 열체크하고 마스크 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4:30 이후에 들어갈 때는 인터폰 누르고 들어가긴 해요. 내적으로 운동장에는 어르신들도 걷고 있고, 중학교 애들도 공 차고 있고, 어떤 애들은 킥보드도 타고 있고, 남녀노소 다 어울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보은군 보은읍)

"학교 주변은 여기는 주택가고, 왼쪽 여기는 주민들이 사는 곳이고, 여기는 식당이 하나 있고, 면사무소고. 안전하고, 몇 년 전에 00식당은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 식당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학교 차원에서 저희가 학부모들이 건의를 했죠. 담배 흡연자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학교에 거기에 그러시면 안됩니다. 학교 반경 몇 m 안에는 금연입니다 안내해드리고." (옥천군 안남면)

나.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 + 아동의 신체활동에 만족하는가

활동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안전함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는 부모님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체활동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부모님들이 많았고, 동시에 양적으로는 충분하지만 질적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족스러운 신

체활동을 하기에는 체육시설이 부족한 것 같다는 의견이 있는데, 특히 날씨, 미세먼지 등 변화된 환경 하에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신체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신체활동에 대해서는 활용가능한 적합한 공간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쳐온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다쳐 온 적은 없었고, 그다음에 일단은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라 움직여서 안전한 것 같고." (평택시 고덕면-1)

"00초등학교 돌봄교실 바로 계단 위에 실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우리한테는 상상마루인데 안전매트도 깔려 있고 애들이 기어오를 수 있는 고층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거든요. 그쪽에서 자유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놀고 운동장도 바로 가까워서 아이들이 선생님 시야에서 노는 것이 보이고, 그 공간이." (보은군 보은읍 정00)

"안전하긴 한 것 같아요, 학교 안이니까." (진천군 덕산읍)

"항상 재미있어 해요." (안산시 상록구)

"(활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도 좋고, 이것도 이제 매주 뭘 만들지에 대한 커리큘럼 주셔서 너무 좋아요. 신체활동은 저도 아이도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원시 영통1동)

"네,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매우 충분하다, 땀 흘려 오니까." (평택시 고덕면)

"양적으로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한 정도이고, 질적으로는 질적으로 아이가 만족하는 거는 매우 만족하죠."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매우 충분하다. (학교와 공공돌봄은) 보통이다. 매주 무슨 요일마다 가서 강당이나 이런 데서 활동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야외는 체육대회 이 정도 그럴 때만 하는 것 같고. 맞벌이에게는 진짜 태권도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신체 활동도 해주고 시간도 채워주고." (세종시 소담동)

"학교가 괜찮아요. 체육 시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체육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은 거의 그냥 계속 신체활동이더라고요. 애들 점심시간이나 이럴 때는 먹고 쉬지 않고 논다고 하더라고요." (평택시 고덕면 지아센)

"학교에서는 그냥 보통인 거 같아요."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보통인 것 같아요. 왜냐면 체육 활동도 있긴 하니까." (연천군 연천읍)

"민화 그리기나 이런 활동도 좀 하시고, 날이 좋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몸도 움직이고 이렇게 나가서 같이 선생님도 나가서 이렇게 해주시고,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기는 했었어요." (괴산군 소수면)

"(만족이) 안되죠. 주1회 20분은 적다고 봐요. 사실상 줄넘기 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1회 10-15분 밖에 없

고, 작년도 1학기에는 운동장에 나가는 일이 아예 없었거든요.” (안산시 성포동)

“크게 못 채워주는 것 같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하는 체육 활동 이런 거는 조금씩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매우 아쉽다. 학교에 수영장 있는 학교들은 그냥 아이들이 시간 맞춰서 가서 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런 체육시설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양적으로 매우 충분하다. 질적으로는 2번. 질적으로 일단 제가 정확하게 다 모든 걸 알지는 않아 가지고 얘가 계속해서 뛰어 노는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여지를 살짝.” (수원시 망포동)

“학교랑 돌봄 활동에서 신체활동은 보통 조금 미만이라고 생각해요, 정해져 있는 체육 시간 말고는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해도 땀이 날 정도로 활동을 한 적은 거의 없다고 해요. 지금 나머지 활동을 태권도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오고 하니까.” (김포시 통진읍)

“매우 아쉬워요.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학교 방과후에 방송 댄스라든지, 음악 줄넘기라든지 그런 게 있어도 할 수가 없고, 이게 끝나고는 집 주변에 없잖아, 학원이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고. 그리고 놀이터를 가자니 추운 날도 많고, 미세먼지도 많고, 실외 활동 사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저기되는 게 많잖아요.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태권도 1시간 하는 게 유일하거든요. 원래 더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긴 해요. 좀 아쉽다. 아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교랑 공공돌봄에서는) 별로 안 채워준다고 생각해요. 체육활동도 일주일에 1회밖에 없는데 매일같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양주시 옥정동)

“일단 교실 안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애들 민화 그리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끔은 이제 영상 같은 거 틀어주시고 앉아서 그걸 본다든지, 그런 활동을 위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적인 걸 하지만 않으면 아이들이 뛰어다니지만 않으면 크게. 보통은 재미있어 해요.” (괴산군 소수면)

다. 돌봄시설 공간의 장점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에 대한 인식

시설에 대한 만족이 충분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은 대단히 만족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선 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고, 집에서는 해 줄 수 없는 경험들을 할 수 있고, 학습적인 부분도 포함하여 아이들에게 여러 측면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점을 언급하였다. 공간적인 장점으로는 이동이 편하다는 점을 언급한 사례가 있다.

“월요일 되게 만족스러운데요. 화요일은 아까 이제 주기적으로 비정기적으로 받는 수업이 화요일은 괜찮아요. 오전 수업을 많이 주셔서 이때는 한 6 정도 되고요. 목요일은 오후 수업을 많이 주셔서 목요일 날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 일이 또 많아요. 이거 한 3 정도, 목요일에 3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수원시 영통1동)

“시설보다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학교를 안 나가고 다른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안산시 성포동)

“돌봄은 진짜 그냥 말 그대로 돌봄이에요. 뭐냐면 이제 방과후 가기 전에 시간이 비잖아요. 사실 돌봄하는 친구는 돌봄이 그런 점은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누가 뭐 어디 갔고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중간에 간식도 좀 먹여 주시고, 만약에 내려왔을 때 아이가 힘들어하면 자기도 하고,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럿이 있으면 선생님 보드 게임 해도 돼 그럼 보드 게임 애들하고 하고 책도 읽고 그런 거.”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일주일 동안 이제 다 다르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제 오늘은 뭐 한다 뭐 한다, 이제 좀 기대감도 있고 재미있어 해요. ... 컴퓨터를 할 줄 몰랐는데 돌봄 교실에서 이제 컴퓨터 이제 마우스 만지는 법 이렇게 컴퓨터실에 가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주말 프로그램도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김포시 통진읍)

“왜 불만이 없냐면요. 여기 수업 있잖아요.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댄스나 다른 저희 언니 서울에 있는데, 거기는 댄스도 돈을 내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고 싶다고 해서 다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 근데 저희는 돌봄 안에 수업이 좀 제가 보니까 좋더라고요. ... 그 수업을 전래동화 또 수업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또 남자애는 엄청 싫어하는데, 또 우리 여자애는 진짜 좋아해요, 그거를 전래동화 수업을. 막 몸 움직이면서 하는 건데, 자기는 너무 좋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수업 하나하나가 애들한테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좀 나름대로 좋아하는 편인 것 같아요.” (평택시 고덕면)

“프로그램도 너무 다양하고, 저는 처음에 1학년 딱 입학해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다양하고 괜찮아 가지고.” (세종시 소담동)

“(프로그램보다는) 선생님이 부드럽게 아이들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이가 학습적인 것을 힘들어하다가도 동기부여 주시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이도 최근에 집 앞에 있는 곳으로 옮길까? 차 타는 게 힘들어도. 근데 안 옮긴대요. 선생님이 좋아서 안 옮긴대요” (양주시 옥정동)

“저는 거기 가가지고 막 공부나 이런 거를 막 시켜 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애들이 그 시간에 제가 퇴근하기 전까지 안전하게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감사해서 별로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이 있을 수 없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좋아서 그냥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보은군 보은읍)

“이건 제가 따로 주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체험이 아니라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할 수 있는 체험이 많아요. 매직, 손 장난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모래아트 프로그램도 매번 있는 건 아니지만 1년에 한두 번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에서 해줄 수 없는 프로그램이 또래 집단에서 형성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보은군 보은읍)

“공간적 장점 이동이 편하다,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 그래도 예체능을 다양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케스트라반도 하고, 무료수업도 해주고 운동도 다른 학교도 없는 무료수업도 해주고 그런 건 만족스러워요. 선택의 폭이 넓다.” (충주시 칠금동)

2. 공적 돌봄에 대한 불만족과 개선 방안

가.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

수업내용이 변하기는 하지만 수업과목과 시간표가 상당기간 동안 동일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수업내용에 있어서도 교사에 따라 그 수준이나 질이 크게 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또한 과밀 공간에 대한 불만의 의견이 있었고, 비용에 대한 부담이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인데도 프로그램이 좋더라도 집과의 거리가 멀어 이동에의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을 못한다는 의견이 있어 이동에 대한 문제가 도시지역이라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간표가 늘 거의 몇 년째 같은, 변화의 여지가 없어요." (수원시 영통1동)

"다른 돌봄 친구들 하는 친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막 불신 이 정도는 아닌데 아이들을 좀 방치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큰 애들은 괜찮은데 알아서 노는데 1학년은 뭘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하기가 힘들어서 시간 보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돌봄교실은 특수한 조건에서만 해당이 돼서 그런 점이 아쉽고 방과 후 활동은 3개월에 한번씩 신청하다 보니까 비용도 한 번에 3개월치를 내야 하는 건데 싸지만 저렴하지만 부담이 되더라고요." (안산시 성포동)

"시간적으로도 사실은 애들이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끝나고 가서 어딘가를 데리고 어떤 시설을 간다든가 하려면 다 끝나 있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뭔가를 이용을 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그런 활동들을 하기가 여건상 어려운 거는 알고 있어요. 학교의 여건상. 여건상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힘든 건 알고 있지만 아이들이 조금 많이 지루하고 힘들어해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사실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한 프로그램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아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요일만 그나마 이제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수업을 들으면 그 시간에 돌봄이 해결이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요일에는 이제 돌봄을 신청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방과후 선생님이 간식을 챙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막 들쑥날쑥하고 그래서 애들이 굶주리지 않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시 망포동)

"수업 내용은 바뀔 수 있는데, 수업 과목이 계속 똑같더라고요." (세종시 다정동)

"저희 학교가 좀 과밀이라서 이제 강좌가 좀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 정도는 있지만 딱히 큰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세종시 소담동)

"방과후 얘기를 했었는데요. 방학 때도 방과 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교사에 따라 이게 수업의 방향과 질이 확 달라져서 그 부분이 조금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만들고 싶어서 그걸 봤는데 자꾸 맨날 영상 보래. 그래서 영상을 20분 보고 그 다음에 만들기로 했어 이랬는데 … 대부분은 안 그렇지만 교사의 어떤

역량에 대해 100%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는 이게 선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추첨이 좋아하는 것들을 클래스 늘려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충주시 호암동)

"아무래도 돌봄은 수업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자유로운 반면에 이제 좀 장난이 심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행동 자체가 큰 아이들 있잖아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아이들을 선생님 한 분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활동이 큰 애들은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치기도 하고, 의도적인 건 아니어도 그런 것도 있고, 맞는 아이는 울고 있고, 근데 선생님 혼자 지도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울 때는 있어요. 아무래도 활동 자체가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괴산군 소수면)

"늘봄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돌봄 아이들 이외에 더 많은 아이들을 수용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정해져 있는데 애들이 너무 왁자지껄 복작복작." (보은군 보은읍)

"나는 1시간 30분의 시간을 벌었어야 하고 학원을 돌리면 애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아버지 도움을 받긴 했는데 무조건 아이가 학교에 3:10까지 있게 했거든요. 방과 후를 돌려서 그래서 그런 게 아쉬웠어요. 한 과목당 비용이 쌀 수 있지만 이건 주5일을 돌리면 학원 하나의 값이 나왔고, 그것도 사실 비용적으로는 부담스러웠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괜찮은 수업은 너무 괜찮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야 하나? 하는 수업도 있었어요. 방과 후는 저에게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중간 사이의 시간을 때우는 개념. 하지만 이것도 일하는 엄마에게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있어서 돌아가고, 이게 실제로 7월 초면 다 끝나요. 여름방학 전에 다 끝나고 여름 방학 끝나고 두 달 텀이 있거든요. 이때는 시간표를 또 다시 짜야해요. 선생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만날 기회도 없고, 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전달받을 수가 없고." (진천군 덕산읍)

"프로그램 선택권이 조금 없는 거고. 선생님 근무 시간은 물론 6시 반까지라고 얘기 들었는데, 일단 4시, 4시 반이면 다 간대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무조건 6시 반까지 있는 게 아니라 애가 감으로써 선생님 퇴근 때 일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방학 중에도 돌봄을 하는데. 그 선생님 돌봄하는 선생님이 근무 시간이 정해진 사람이래요. 하루에 4시간인가, 6시간이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2시 반 이후에 애가 남아있으면 선생님이 근무시간을 초과하게 된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설득해가지고 2시 반에 데리고 왔어요." (진천군 덕산읍)

"방과 후 아카데미는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적인 인력이 없습니다. 일반인이 누구나 봉사 개념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학습을 제가 저는 놀이만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학습적인 거를 좀 욕심을 낸다면 그런 것도 좀 부족할 것 같아요." (증평군 증평읍)

나. 긴급 돌봄 해결 방법, 학원의 돌봄 공백 해결 도움 여부

학원이 돌봄 공백에 도움이 되지만 아이의 이동 문제로 돌봄 대응에는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언급한 응답이 있었고, 이동 수단(셔틀버스)를 제공하는 태권도학원이 다른 학원으로의 연계를 잘 해 주기 때문에 이용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반면 학원에서의 활동 자체를 목적으로 보내며 돌봄의 기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상당히 나타나, 양육자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학원이 도움이) 많이 돼요. 학교에 부탁하는 것보다 학원 선생님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훨씬 더 잘해주세요.” (수원시 영통1동)

“일단 안전하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다 봐주고 계시니까 좀 아이의 안전을 제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하고 있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시니까 공간과 선생님들이 다 저는 만족.”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도움되는 것 같아요.” (수원시 망포동)

“학원 아니면 이제 집에 오는 거리를 이제 엄마가 없으면 이제 혼자 걸어와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제 걸어오는 길이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해 줄 수 있을까. 미리 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갈 때까지 이제 봐주시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김포시 통진읍)

“(돌봄 공백 해결) 어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학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또 아이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무슨 학원 가볼래,... (학원 한계) 어쨌든 수업이 끝나면 이 아이는 가야 되니까 이제 머물면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곳이기 때문에.” (괴산군 소수면)

“지금은 사실은 돌봄이 더 도움이 되죠. 네, 사실은 학원은 지금 가고 싶다고 .... 근데 여기는 없잖아요. 보내고 싶어도 근데 차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보통이 아니니까 그거는 못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피아노 같은 경우도 굳이 돌봄을 안 보내면서까지 보낼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거를 다 하고, 나중에 돌봄을 못할 시에 그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그때 보내자 해서 지금.” (평택시 고덕면)

“보육 공백의 서비스가 가장 좋은 것은 태권도 같아요. 그게 가성비가 좋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태권도를 끼고 태권도에서 그 다음 학원으로 옮겨줘요.” (양주시 옥정동)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돌봄 공백이 아니라 학원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어려서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피아노하고 태권도가 있는데 자기는 태권도 싫대요. 자기는 피아노가 너무 좋다고 해서.” (청주시 분평동)

“저는 학교에 돌봄이 있다고 하면 학원 안 보낼 것 같아요. 체력증진, 그것 때문에 체육만 보내고 있어요.” (보은군 보은읍)

“아이가 공부를 안 하니까 학원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정 학습이 잘 안 되고 저도 그래서. 1시간, 1시간 반은 거기 안에 있으니까.” (진천군 덕산읍)

“굉장히 많이 특히 이런 시골에 있을 때는 대중교통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으로 대중교통 때문에 아이들 픽업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이용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시고, 저희 센터에서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렇게 학원을 통해서 왔다 갔다 집을 가거나 이렇게 해요.” (증평군 증평읍)

“(학원이) 없죠. 현재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도 없고.” (옥천군 안남면)

긴급 돌봄은 여전히 조부모, 특히 할머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대부분 본인이 해결하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아이 혼자 지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에 할머니 집에 거진, 할머니 집에 가가지고 있던지. 네, 아침에 (외할머니 댁에) 데려다 주고 가고 저녁 때 (센터로) 데리러 가고." (보은군 보은읍)

"(긴급 돌봄) 보통은 할머니 댁에." (괴산군 소수면)

"저는 무조건 저희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았고요. 전적으로 엄마, 아빠께 도움을 청했어요. (어머님 편찮으신 경우) 저희가 조퇴 쓰고 두 부부가 엄마, 아빠가 조퇴, 연가, 가족 돌봄 휴가 다 썼고요." (충주시 칠금동)

"저는 제가 다 해요. (어디 가셔야 한다거나) 못가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정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 것도 다른 날로 미루고." (안산시 일동)

"(남편분은 농사를 하시니까 남편분께서 많이 좀 해주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증평군 증평읍)

"진짜 대책이 없었죠. 그때는 그래도 학교 돌봄도 있었던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늦게 끝난다거나 하면 아빠가 반차를 쓰고 집에 와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게 급하게 조율이 안되면. 그래서 둘 다 바쁠 때는 일주일씩 시댁에서 올라와 계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돌봄 생각하기에 저희 집의 취약점은 일단 배후가 없다는 거여서 출퇴근을 하고 제가 거의 긴급대응을 다 하는데 ... 친인척이나 할 데가 없이 거의 독박은 아닌데 혼자 본다는 상황이어서 ... 큰 불안요인이었어요. 아니면 제가 휴가를 쓰거나 대체 가능한 상황이었거나 미리 얘기를 해서 조부모님이 와 계실 수 있는 상황들로 버티고 돌려 막고 했는데 혼자 키우는 상황이 제일 힘들었고." (세종시 어진동)

"주변에 같은 학부모들한테 부탁을 하죠. 아까 동네 이모,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 막내 애 태어났을 때부터 다 봐준 이모라." (옥천군 안남면)

"있었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걔 혼자 있으라고 했어요. 출근할 때 아팠는데 봐줄 사람이 없어서 누나 조금 있으면 오니까 자고 있어라. 그리고 먹을 걸 챙겨놓고 챙겨먹고 있어라, 조금 있으면 누나 온다. 문제 있으면 전화해라. 왜냐하면 출근은 해야했으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많이 그랬죠." (청주시 분평동)

"학교를 갔다가 집에 혼자 있어요. 아니면 제가 일찍 퇴근하거나 조퇴하든지." (진천군 덕산읍)

다. 공적 돌봄의 방향 제안

수요자 입장에서의 안내와 홍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이용시간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의견과 시간을 앞뒤로 확대하여 공적 돌봄 제공 시간의 유연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이용대상을 3학년으로 확대하거나 전학년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물리적인 공간의 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는 작은 돌봄시설들의 개소 수를 확대도 필요하지만 자칫 분포의 불균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거점시설을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는 게 팜플랫에서는 자격이라든지 이런 조금 너무 오피셜한 내용만 적혀지니까 제가 이거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이런 게 뭔가 케이스에 대한 설명이 안 돼서 조금 힘들었거든요. 자격 같은 것도 좀 완화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뭔가 안 맞다 보니까 막상 받을만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학교 돌봄 말고는 솔직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있어도 이용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을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도 몰라서. 김포시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돌봄, 돌봄 이렇게 있긴 한데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전화해야 설명을 받을 수 있어서 굳이 전화까지 하지 않고.” (김포시 통진읍)

“돌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랑 그리고 공공 돌봄을 할 수 있는 학교 공간 말고 나머지 외에 공공 돌봄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안산시 성포동)

“저는 일단 학교 교내 돌봄이 확대됐으면 좋겠고, 적어도 한 3학년까지는 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3학년까지는 교내 돌봄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어요.” (세종시 소담동)

“전학년으로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전학년으로. 소규모 학교는 전학년을 해주는 학교도 있지만 여기 학교는 1,2학년만 되고 있거든요. 이게 전학년으로 확대가 되어서 굳이 학원이 필요하면 엄마들이 학원을 돌리겠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6학년까지 맡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안전하기도 하고.” (보은군 보은읍)

“시설보다는 환경 선생님들 프로그램이 조금 질적으로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자격들이 조금 더 좋아져야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우선이겠죠. 눈치 안 보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하는 엄마들이.”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돌봄이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그냥 거점으로 하나 있고, 그러니까 학교가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몇 개 단위로 묶어서 셔틀을 운행한다든가 조금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들이 편하게, 그러니까 그 공백이 생기지 않고 죽 이용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게 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공적 돌봄이 좀 안정적인 시간을 제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저처럼 세 자녀 아니면 안 돼 이런 인식이 없게 우리는 충분한 인원을 확보하고 있고, 교사들도 충분한 인원이 있다라는 이런 환경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환경이면 저는 이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간식 같은 것도 아이들이 일정 시간을 항상 있으면 간식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원시 망포동)

“접근성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연천군은 거의 여의도 면적만큼 큰 지역인데, 이제 애들이 이제 외곽 지역에 사는 친구들이 주로 많은데, 이런 공적 돌봄은 다 함께 돌봄 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외에는 연천군에는 없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대기가 많으면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서 접근성이 좋은 공적 돌봄 시설이 있으면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연천군 연천읍)

“(키움센터 같은 게) 서울시에만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직장 동료들만 봐도 아침 돌봄 하는 데가 경기도는 없으니까 학교는 마찬가지고 학교 돌봄이 가기 싫고 그래서 이렇게 그런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 엄마들이 좀 덜 걱정하지 않을까? 정말 저학년들한테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막 혼자 울고 있고 그랬거든

요. 저는 출근하고 1학년 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일단 이용자가 있든 없든 항상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항상 일을 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입학과 동시에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 친해진 엄마는 최근에 갑자기 일자리를 구한 거예요. 갑자기 구해서 갑자기 돌봄반을 알아보려니 끝난 거죠. 이 꿈터까지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군다나 꿈터 자리를 들어가려면 방과 후를 해야 하는데 방과 후 신청 기간도 설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이 있든 없든 자리가 여유있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 꿈터를 할 때 방과 후가 필수면 이걸 선택 우선권을 줬으면 좋겠다.” (양주시 옥정동)

“이거 방학 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좀 일찍 시간을 앞뒤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돌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보은군 보은읍)

“적어도 저는 그래도 자유로운 일, 일 자체가 자유로운 편인데 농사에 거의 매진하는 그런 집들은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돌봄에서 플러스 저녁 돌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거예요. 인력문제죠. 사실. 그 분들에게는 아마 엄마들이 부모님들이 농사일 다 끝나고 들어오기 전에 사실 집에 아이들이 1-2시간은 혼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니면 엄마 아빠가 일하는 하우스 가서 ..... 아이들 어떨 때는 도서관에서 끝나고 집에 안 가고 하우스로 가더라고요. 거기서 저녁을 먹고 숙제하고 집으로 가기도 하고.” (옥천군 안남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이동, 연결에 대한 우려가 많으므로 라이드 서비스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요청하면 이동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를 원했다. 또한 이용자격 기준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여 돌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픽업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픽업서비스여서 비용을 더 지불해서라도 저는 다른 거 필요없거든요. 데려다 주고 끝날 시간에 데려다 주는 픽업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어요.” (충주시 칠금동)

“학교 돌봄은 맞벌이 부부만이에요. 맞벌이부부만 돌봄을 맡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이들과 엄마가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변해가면서. 그런 분들도 많이 받아 주시고, 다자녀도 보내주시고 하니까 좋은 거죠.” (안산시 상록구)

“공적 돌봄은 사실 매년 뭐가 바뀌고 빨리 빨리 좋아지고 있다고는 느끼는데 사실 정부에서 다 해주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보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고마웠는데 왜냐하면 그게 안돼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도시괴담들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를 잘 보낼 수 있는 것이 다행이었다는 생각으로 다녔었고, 사실은 돌봄 다니면서 문제 상황이 있었을 때도 선생님이랑 잘 대응이 됐던 것 같아요.” (세종시 어진동)

제5절 소 결

1. 돌봄조합 선택 및 공백 대응 분석의 시사점

다양한 돌봄조합 속에서 자녀를 안전하게 돌보고자 하는 양육자들의 노력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고 있는 돌봄 공백의 양상 및 돌봄 공백 방지로 인한 기회비용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를 통해 주목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돌봄시기가 막 종료된 3학년들이 겪고 있는 공백의 크기와 그들이 공백시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3학년의 경우 성장에 따른 활동 선호와 의사가 분명해지지만 스스로의 일정을 건강한 방향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아직 어른의 도움이 필요하다. 돌봄교실이 담당하던 시간들의 일부가 감독되지 않는 공백시간으로 대체되면서, 새로 생긴 공백들은 아이의 성향이나 양육자의 태도, 근린환경여건에 따라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근린환경 인프라와 질적 수준이 높은 경우 아이들이 공백시간을 자율적인 또래와의 놀이와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하게 보내는 경우도 있겠으나, 이 때에도 역시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거나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느슨한 돌봄안전망은 필요하다.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 센터 또는 서대문구 연희동의 놀이터나 공터와 함께 있는 문화체육회관 등 공공시설의 1층이 아이들에게 사용되는 방식은 반-자율적인 공간의 제공방식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둘째, 양질의 공공수업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적극적 수단의 일부로 인식하고 맞벌이 가구의 진입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양육자들은 시나 구 차원에서 제공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 공공체육시설의 수영강습 등에 아이를 참여시키기를 원하고 있으며, 회사에 양해를 구하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무료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기에 양육자들의 관심이 높지만, 프로그램 제공 시간대와 이동수단 확보의 어려움으로 맞벌이 가구 아동의 참여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다. 도보권 내 공공시설과 프로그램 확충으로 지역간 격차를 없애는 방법이 근본적인 접근이겠으나, 고밀-저밀,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상황 차이를 고려해볼 때, 이동 수단의 확보를 통해 진입장벽 해소를 모색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아동의 지역 외 통학은 장거리 차량 탑승으로 인한 피로의 누적, 미디어 접촉의 증가

외에도 거주지 근린환경에서의 자연스럽고 건강한 경험 즉 또래간 교류와 신체활동 및 놀이 등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시간 사용은 실제 면담 사례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역의 돌봄수요 초과분은 학교-지역 연계를 통해 지역 내에서 해결함으로써, 학교돌봄에 대한 입소경쟁으로 인한 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밖에, 학교환경을 포함한 근린환경 인프라의 격차가 돌봄부담의 강화 또는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다수의 면담자의 언급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근린환경은 유사한 개인-가구특성을 가진 사례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아동이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되는지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아이들이 또래와 함께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린의 공간구조와 오픈스페이스 체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2. 아동 시공간 사용 행태 분석의 시사점

돌봄 공백의 해소와 근린단위 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근린을 배경으로 균형있고 건강한 삶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접근이다.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발생과 시-공간 사용유형, 근린환경에서의 경험 수준, 건강과 행복감 등이 맺고 있는 긴밀하고 복합적인 양상은 근린단위 돌봄안전망 구축이라는 과제가 아이들이 처한 다양한 여건을 지금보다 훨씬 더 세분화된 체계로서 검토해야 하는 작업임을 알려준다. 아동의 시-공간 활용유형 분류와 유형간 상호관련성 탐구를 통해 다음 몇 가지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아이들의 시간활용 유형 중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 아이들의 생활방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하다. 이 그룹의 스크린타임은 135분으로 하루 권장량 120분을 넘어서고 있으며, 걷기-바깥놀이-구조화된 신체활동을 모두 합산해도 하루 평균 1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돌봄 공백 발생빈도와 시간이 높은 아이들이 이 그룹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의 공백 시간은 스크린타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BMI 계산 결과에서도 이 그룹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과 비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두 그룹과는 구별되는 특성을 보였다. 아이들의 장시간 미디어 접촉, 신체활동 부족이 만들어내는 생활시간의 불균형은 직접적으로 아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공적 돌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에 역부족이다. 이 그룹의 아이들이 정적인 활동을 즐기는 성향이라면 태권도 학원이나 축구교실 등 팀스포츠나 격렬한 신체활동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놀이 차원에서 자연스럽게 신체활동을 유도해 낼 수 있는 공간의 제공이 더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돌봄 공백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 시간사용 균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간사용 유형 중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아이들에게서 주목할 점은 생활시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룹에서 돌봄 파트에서는 공백으로 정의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또래와의 바깥놀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속적으로 성장, 독립해 나갈 아이들에게 어떤 자율적 시간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한 정책과 대립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간사용 유형을 기준으로 보면, 분리형과 주거 섬 유형, 외부절충형 이동패턴을 보이고 있는 아이들 각 그룹을 위한 세분화된 해법이 필요하다. 먼저 분리형의 경우 적어도 집이나 학교 생활권 중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아이에게 고립되지 않은 생활터전, 즉 점적인 공간이 아닌 최소한의 활동공간으로서 근린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 측면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지역 사회와의 관계와 그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을 송두리째 박탈하는 것은 돌봄 공백의 해소를 위해 아이가 너무 큰 유익을 희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 섬 유형의 경우에는, 고립된 환경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잡힌 실-내외 활동형 시간사용 유형에 속한 아이들의 행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들을 균형있는 활동으로 이끄는 가장 큰 유인은 친밀감이 깊은 또래의 존재로서, 마을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돌봄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주변 공간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학교 주변에 학원 말고는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집으로 귀가하면 친구들과 단절되어 버리는 주거 섬 유형의 아이들에게는, 학교 주변에 날씨와 관계없이 가서 대기하고, 숙제도 하면서 친구도 만날 수 있는 일종의 앵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공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연희동의 서대문 문화체육회관과 건물 앞 놀이터의 이용 행태 등은 이런 유형의 개입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외부절충형 그룹 아이들의 경우에는 살고 있는 거주환경이 제공하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학원차량 승하차 지점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걷기활동을 연장한다거나, 마지막 일정을 근린 내 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일상 루틴을 야외활동으로 전환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단지 내 텃밭가꾸기 활동 등은 당장 같이할 수 있는 친구가 없더라도 매일 근린과의 접촉을 늘려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세분화된 접근의 필요성 속에서도 드러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근린환경의 접촉면을 늘리고 미디어 매몰을 막기 위해서는 아이들 일상에서 차량이동시간의 감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다. 근린 내에서의 돌봄 보장과 공공인프라 확대를 통해 학습, 신체활동, 놀이, 보행이 통합된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필요성은 돌봄 공백의 해소와 생활시간의 균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이다. 유사한 활동으로 아이의 생활을 구성했을 때, 풍부한 인프라를 갖춘 근린환경에 있는 양육자의 돌봄부담은 그렇지 못한 지역의 양육자에 비해 극적으로 경감될 수 있으며, 아이의 기회비용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

3.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 분석의 시사점

공적 돌봄에 대한 양육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일부 돌봄시설에 대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돌봄시설의 내부 환경과 주변 환경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일부 부모들은 공간의 협소함과 시설의 낙후에 대해 불만을 표한다. 특히 공적 방과후 돌봄시설의 경우, 익숙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지만,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을 원하는 요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부모들은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거나, 오래된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우려한다. 아이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내부 공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의 관점뿐 아니라, 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균형 잡힌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아동의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면담 대상 부모 가운데 상당수가 돌봄시설에서 아동의 신체활동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특히 실내 활동이 주를 이루는 돌봄시설의 특성상 아이들이 신체적으로 활동할 기회가 적다는 의견이 많다. 일부 부모는 아이들이 체육관과 같은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해 신체활동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하다고 느끼며, 이는 아이들의 건강과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체육활동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고, 특히 미세먼지나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면담에 응한 양육자들은 돌봄시설의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 방식이 질적 수준이 아이의 선호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부모는 수업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교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 아이들이 활동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한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반복되거나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따라서 아동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내고 아동 발달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긴급 돌봄 및 이동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 뜻밖의 상황에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위험

이 발생할 경우 맞벌이 가정에서는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 중 한 명이 조퇴나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긴급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가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이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서비스 도입이 요구된다. 일부 양육자는 돌봄센터와 집, 혹은 학원 간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으면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더라도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하였다.

한편 양육자들은 공적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는 과밀 학급 문제와 더불어, 교사의 질적 차이로 인한 프로그램의 일관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이용 시간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해,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기 어려운 시간대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공적 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하고, 이용 대상을 확대해 3학년 이상 아이들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인 공간 확충이 필요하며, 돌봄센터의 수를 늘리는 것 외에도 주요 거점에 시설을 배치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5

아동의 일상 경험과 공간 인식

제1절 조사 설계

앞서 3장에서는 부모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아동 방과후 근린 단위 돌봄에 대해 다루고, 4장에서는 아동 양육자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의 방과 후 생활을 결정하는 보호자인 부모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동 중심적인 관점에서 돌봄의 대상이 되는 주체의 인식과 의견을 고려하는 것 역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근린 단위의 돌봄 상황이 상이한 지역의 초등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실제 돌봄의 수요자인 아동의 방과후 상황과 근린 환경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아동 중심의 돌봄안전망 공간화 전략 도출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조사 내용 및 방법은 육아정책연구소 생명윤리위원회(IRB)로부터 승인(KICCEIRB-2024-제01호) 받았다.

1. 조사 대상

본 연구 아동 심층면담의 대상자 선정을 위해 고려하는 기준은 아동의 연령과 아동의 거주 지역이다. 아동 연령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1~2학년 아동 16명, 3~4학년 아동 16명, 총 32명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지역과 연령을 모두 고려할 때에는 총 4개 지역(2개 지자체의 각기 2개 주거지: 아파트 vs. 주택)에 거주하는 1~4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별로 초등학생 8인(초등 1~2학년 4인과 초등 3~4학년 4인으로 구성)을 표집한다.

가. 아동의 연령: 총 2집단(1~2학년, 3~4학년)

아동 심층면담의 대상은 본 연구 설문조사의 대상과 동일하게 1~2학년과 3~4학년으로 연령 구분하였고, 이는 초등 공적 돌봄 서비스(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의 이용 비율을 근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돌봄교실의 학년별 이용률을 살펴보면, 1~2학년의 돌봄 참여비율은 83.1%인 반면에, 3~6학년의 이용 비율은 16.9%로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교육부, 2023a, p.5). 또한, 초등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1~2학년의 경우 60%대에 이르는 반면, 3~4학년은 40%대로 낮아져(교육부, 2023a, p.6), 초등돌봄교실과 초등 방과후학교 모두 3학년을 기점으로 이용 비율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 거주 지역: 총 4개 지역(2개 지자체 x 2개 거주지)

아동 심층면담 대상지는 강지원 외(2023a) 연구에서 구축한 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수준 및 돌봄 욕구 대비 공급 수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44] 먼저 돌봄서비스의 수요 대비 공급률이 전국 평균 수준이면서, 돌봄 욕구 대비 돌봄서비스 공급률이 낮은 지자체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공주시를 선정하고, 이 가운데 인구밀도와 주택 유형 및 근린 형태의 차이가 뚜렷한 근린을 각 두 곳씩 선정하였다. 서울시 서대문구와 공주시는 돌봄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률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약 11%)에 가깝고, 돌봄 욕구 대비 공급률은 35% 수준으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5분위(하위 20%)에 해당하는 공통점이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는 아파트 밀집 주거지(남가좌1동, 남가좌2동)와 경사지 저층주거지(홍은2동, 연희동)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공주시는 구도심지역, 아파트 단지가 집중된 신시가지(신관동), 그 외 농촌지역 특징을 보이는 면 지역 저층주거지(반포면)으로 구분되어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상이한 주거지 특성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구분되는 2개 주거지와 공주시 내에서 구분되는 두 곳의 근린을 지정하여 면담대상 아동을 표집하였다. 2개 지자체(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주시) 내의 근린 2곳 (아파트, 저층주거지)과 연령별 2개 집단을 고려한 심층면담 대상자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1〉 아동 심층면담 대상자 거주 지역, 아동 연령 종합

거주 지역			아동 연령		총계
지역 구분		주거지 유형	1~2학년	3~4학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 1, 2동 가재울뉴타운	아파트	4인	4인	8인
	홍은2동 주택가	주택	2인	1인	8인
	연희동 주택가		2인	3인	
공주시	신관동 신시가지	아파트	4인	4인	8인
	반포면 농촌지역	주택	4인	4인	8인
총계			16인	16인	32인

출처 : 연구진 작성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남가좌1, 2동, 홍은2동, 연희동) 지역 특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 1동은 면적이 0.51km^2이며, 전체 인구수는 13,183명, 0~14세 유소년 인구수가 3,104명으로 해당 지역 전체 인구의 11.0%를 차지하고 있다. 남가좌2동의 경우 면적이 0.77km^2 이고, 전체 인구수는 22,176명, 0~14세 유소년 인구수는 3,529명으로 전체의 12.5%로 구성되어 있다.[45] 남가좌2동은 2020년 가재울뉴타운 일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 입주

44) 대상지 선정에 활용한 데이터는 강지원 외(2023a)의 분석 과정에서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 자료로, 기초자치단체의 행정구 단위까지 구분한 250개의 기초자치단체의 돌봄 수요 대비 공급률 및 돌봄 서비스 욕구 대비 공급률을 백분율로 표시한 값이다.

가 이루어져 인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남가좌1동과 2동은 서울시 전체와 비교해볼 때 아동인구 비중이 월등히 높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5~9세 인구, 서울시=3.2%, 남가좌1동=9.7%, 남가좌2동=8.7%).[46] 초등학교의 규모를 비교해보아도, 남가좌1동은 학급당 학생수가 23.6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서대문구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접근성 역시 높았다.[4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은 면적이 2.07km^{2}로 남가좌1동과 2동보다 넓으나 인구수 17,690명, 유소년 인구수가 2,472명(인구의 8.8%)으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48]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주변 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나,[49] 남가좌1,2동 대비 홍은2동의 초등학교 접근성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50] 또한 홍은2동은 아파트 비율이 낮고 연립, 다세대 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보인다.[51] 연희동은 면적이 3.05km^{2}로 인구수 33,990명이고 유소년 인구수 2,203명으로 인구의 6.48%를 차지한다.[52]

□ 충청남도 공주시(신관동, 반포면) 지역 특성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의 면적은 9.09km^{2}이고, 총 인구수는 19,534명이다.[53] 신관동의 유소년 인구수는 1,912명인데, 이는 공주시 유소년 인구의 23.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령기 아동이 이 지역에 많이 주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54] 신관동은 공주종합터미널, 공주대학교가 위치하는 지역으로 공주시에서 가장 번화한 곳으로 꼽힌다. 특히 이 지역은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중층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연립, 다세대 비율은 1.4%로 현저히 낮은 것이 특징이다.[55] 신관동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3.9명으로

45) 통계청(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24).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유소년인구 비율 분석 결과 활용. 검색일: 2024년 3월 23일.
46)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2023).검색일: 2024년 3월 23일.
47)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 결과 활용. 검색일: 2024년 3월 23일.
48) 통계청(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24).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유소년인구 비율 분석 결과 활용. 검색일: 2024년 3월 23일.
49)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 결과 활용. 검색일: 2024년 3월 23일.
50)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 국토통계지도 초등학교 접근성 격자(250m×250m) 분석결과 활용. 검색일: 2024년 5월 3일.
51)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연립, 다세대주택 비율 분석 결과 활용. 2024년 3월 23일.
52) 통계청(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24) - 2023년 12월 기준. 검색일: 2024년 3월 23일.
53) 통계청(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24) - 2023년 12월 기준. 검색일: 2024년 3월 23일.
54)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2023). 검색일: 2024년 3월 23일.
55)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연립, 다세대주택 비율 분석 결과 활용.

공주시 내 가장 많은 학급당 학생 수를 보고하고 있으며,[56] 신관초등학교의 경우 일대 아파트 단지 주변의 접근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57]

공주시 반포면의 면적은 60.07㎢이고, 총 인구수는 4,096명이다.[58] 이 지역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14세 이하) 비율은 4.9%로 충청남도 12.2%, 공주시 8.1%와 비교해볼 때 현저히 낮다.[59]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7.3명으로 충청남도 18.5명, 공주시 17.6명보다 그 수가 절반 이하로 적다. 계룡산 국립공원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자연친화적인 읍·면지역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공주시 반포면의 단독주택 비율은 90.8%이며,[60] 연립, 다세대 비율은 3.2%,[61] 아파트 비율은 1.7%로 위의 다른 지역과는 눈에 띄게 구분되는 특성을 지녔다.[62]



출처: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p?c=14.42,0,0,1,dh. 접속일: 2024. 2. 17.)

[그림 5-1] 심층면담 대상지(서대문구, 공주시) 근린 현황

56)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분석 결과 활용.
57) 국토정보맵(https://map.ngii.go.kr/) 국토통계지도 초등학교 접근성 격자(250m×250m) 분석결과 활용.
58) 공주시 홈페이지(https://www.gongju.go.kr/stat/index.do) 2021년 토지현황, 2024년 2월말 인구현황.
59)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유소년인구 비율 분석 결과 활용.
60)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단독주택 비율 분석 결과 활용.
61)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율 분석결과 활용.
62) 살고싶은 우리동네(https://sgis.kostat.go.kr/) 지표지도 읍면동 단위 아파트 비율 분석 결과 활용.

2. 조사 방법

가. 조사 방식 및 항목

1) 연구대상자 모집 과정

심층면담의 대상 근린의 환경 특성과 돌봄 여건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연구 대상자 모집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남가좌1,2동의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 1~4년에 재학 중인 부모의 협조를 통해 아파트에 거주하는 연구 대상 아동을 섭외하였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과 연희동의 경우, 서대문구 키움센터 2호점과 4호점을 이용하는 주택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공주시의 경우, 신관동과 반포면에 있는 주요 초등학교(신관초등학교, 반포초등학교)의 교장, 교감, 담임교사의 협조를 통해 연구 대상 아동을 섭외하였다.

부모, 키움센터, 초등학교를 통해 연구대상자 섭외 시에 심층면담 참여자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을 설명하였고, 사전에 연구설명서, 심층면담 일시, 장소, 부모동의서 등 관련 자료를 섭외자 혹은 대상자들에게 발송하였다. 부모동의서는 아동 대면면담 이전에 받았으며, 아동 동의서는 심층면담 시작 전에 연구자가 아동에게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았다.

2) 심층면담 방식

4개 지역(2개 지자체의 각기 2개 주거지)별 초등학생 8인씩(초등 1~2학년 4인 + 초등 3~4학년 4인), 총 32인의 아동을 대상으로 1~2인 단위로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다. 아동별로 약 30~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동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 이용 중인 센터 혹은 거주지 인근 회의실 등 아동이 편한 장소에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표 5-2〉 심층면담 실시 일자 및 장소

연번	일자	장소	면담 참여 아동
1	2024. 4. 15.	서대문구 연희동 우리동네키움센터 상담실	2인 (초등 3학년, 4학년)
2			2인 (초등 2학년)
3			1인 (초등 3학년)
4	2024. 4. 19.	서대문구 가재울청소년센터 회의실	2인 (초등 2학년)
5			2인 (초등 2학년)
6			2인 (초등 4학년)
7			2인 (초등 4학년)
8	2024. 4. 23.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상담실	1인 (초등 4학년)
9			1인 (초등 2학년)
10			1인 (초등 2학년)

연번	일자	장소	면담 참여 아동
11	2024. 5. 21.	공주시 반포초등학교 교실	2인 (초등 1학년)
12			2인 (초등 2학년)
13			2인 (초등 3학년)
14			2인 (초등 4학년)
15	2024. 5. 28.	공주시 신관초등학교 교실	2인 (초등 1학년)
16			2인 (초등 2학년)
17			2인 (초등 3학년)
18			2인 (초등 4학년)

출처 : 연구진 작성

3) 심층면담 조사 항목

심층면담에서는 크게 기본정보, 지역사회 돌봄 공간에 대한 인식, 지역사회 돌봄 공간 이용 방해요인과 개선 의견을 조사하였다. 돌봄안전망 관련 지표에 대한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아동의 돌봄 경험과 공간에 대한 인식 등 돌봄의 공간 측면을 반영하는 질문을 포함하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구두로만 동네 환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동이 직접 그림 지도를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을 포함하였다. '그리기1'은 통학로 내 아이들의 랜드마크, 이동 방법, 접근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함하였다. '그리기2'는 아동이 생활하기에 이상적인 공간과 근린 외부 환경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계획되었다. 자신의 생각을 담아 상상하여 그려야 하는'그리기2'활동 중 아동이 그리기를 어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구두로 의견을 물었다.

〈표 5-3〉 아동 심층면담 조사 내용 개요

구분		조사 내용
기본 정보		1) 연령, 학년 2) 거주 유형: 아파트 vs. 주택 3) 함께 거주하는 사람 4)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5) 스마트폰 유무, 사용 상황
지역사회 돌봄 공간에 대한 인식	주택단지 내	1) 혼자 쓰는 방 유무 2) 동네 놀이터 유무 및 이용 상황 3) 놀이터 외 놀이 공간 유무 및 이용 상황 4) 동네 차 위협 정도
	통학로	그리기1: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1) 그림 설명하기 2) 통학로 선택 이유 및 관련 경험
	돌봄시설/학교	1) 점심시간(쉬는 시간) 운동장 사용 여부 및 이용 상황 2)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프로그램 경험 및 공간 상황
	생활인프라	1) 학교(학교 내 돌봄 포함) 끝나고 가는 곳, 가는 방법

구분		조사 내용
		2) 친구들과 들르는 장소 3) 간식 먹는 장소 4) 차 이동 여부와 관련 경험 5) 보호자 없이 혼자 대중교통 이용 경험
	학교 외 돌봄	공부방, 쉼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키움센터 등 이용 여부 및 관련 경험, 공간 상황
	일과 후 돌아가는 길	일정 후 돌아갈 시점 길, 놀이터 등 아이들 존재 여부
지역사회 돌봄 공간 이용 방해요인 + 개선 의견		1) 학교 끝나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각 + 개선 의견 2) 학교 끝나고 이동 시 불편한 점 + 개선 의견 그리기2: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3) 그림 설명하기, 동네에 더 있으면 좋은 것

출처 : 연구진 작성

〈표 5-4〉 심층면담 질문지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아동 심층면담 질문지

연구목적 설명
00이가 사는 동네는 어떤 곳인지, 어디서 노는지, 학교 끝나고 어떻게 지내는지, 안전하게 지내는 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동네가 어떻게 더 좋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00이의 생각을 물어볼 거야. 함께 그림 그리고 이야기 나누어보자.

Ⅰ. 기본정보
1. 몇 살, 몇 학년이야?
2. 아파트에 살아? 주택에 살아?
3. 집에 누구와 같이 살아?
4. 집에서 주로 누구와 시간을 보내?
5.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 스마트폰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

Ⅱ. 지역사회 돌봄 공간에 대한 인식
1. 주택단지 내
1) 00이 혼자 쓰는 방이 있어?
2) (아파트 단지/집 근처)에 놀이터가 있어? (있는 경우) 가까워? 자주가? 누구랑 가?
3) (아파트 단지/집 근처)에 놀이터 말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있는 경우) 거기가 어디인지 누구랑 어떻게 노는지 설명해줄래? (가까워? 자주가? 누구랑 가? 재미있어? +이유)
4) (아파트 단지/집 근처)에서 차가 빨리 달려서 위험하다고 느낀 적 있어?

2. 통학로
그림그리기1: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을 지도처럼 그려보고 같이 이야기 나누어보자. (5분)
1) 00이가 그린 그림을 설명해줄래?
1-1) 집에서 학교까지는 가까워? 어떻게 가? 누구랑 가?
1-2) 학교 가는 길에 친구들 만나? 친구랑 만나서 가기로 약속하는 장소도 있어?
2) (그림 보면서) 왜 이 길로 가?
2-1) 이 길로 가는 중에 재미있는 곳이 있으면 이야기해줄래? (+이유)
2-2) 이 길로 가다가 넘어진 적 있어? (있는 경우 상황 묻기)
2-3) 이 길로 (혼자) 갈 때 무섭다고 느낀 적 있어? (있는 경우 상황 묻기)

3. 돌봄시설/학교

1) 점심시간(혹은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놀 수 있어?
  1-1) (나갈 수 있는 경우) 00이는 운동장에 나가는 편이야?
  1-2) (나갈 수 있는 경우) 주로 운동장 어느 쪽에서, 뭐하고 놀아?
    (예: 놀이터 있는 쪽, 구령대/스탠드, 화단/모래밭, 운동장 전체_축구 등 공놀이)
2) 00이는 학교 초등돌봄교실이나 방과후프로그램에 참여해?
  2-1) (돌봄교실/방과후 이용 경험 있는 경우) 몇 시까지 학교에 있어?
  2-2) (돌봄교실/방과후 이용 경험 있는 경우) 학교에서 돌봄교실/방과후 하는 공간은 어때?
    (넓어/커? 뛰어다닐 수 있어? 너희들만의 비밀 공간이 있어?)
  2-3) (돌봄교실 이용 경험 있는 경우) 돌봄교실 시간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 수 있어?
    (놀 수 있는 경우) 그럼 운동장/놀이터에서 돌봄교실 친구들끼리만 놀아?

4. 학교 또는 학교 안 돌봄시설을 나와서 가는 곳(생활인프라)

1) 학교 끝나고 어디가? (요일마다 다른 경우 자세히 물어보기)
  1-1) 다음 장소(집, 학원, 학교 외 돌봄시설 등)에 어떻게 가?
  1-2) 아침에 학교 올 때랑 같은 길로 가?
2) 학교 끝나고 다음 장소(집, 학원, 학교 외 돌봄시설 등)에 가는 길에 친구들과 들르는 곳 있어?
  (예: 놀이터, 편의점 등)
3) 학교 끝나고 간식은 주로 어디서 먹어? 뭐 먹어? 누구랑 먹어?
4) 학교 끝나고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어?
  4-1) (차로 이용하는 경우) 부모님 차, 셔틀버스, 대중교통 버스 중 어떤 차를 타고 가?
  4-2) (차로 이동하는 경우) 차 안에서는 주로 뭐 해?
5) 어른 없이 혼자 대중교통(예: 버스, 지하철) 타본 적 있어?
  5-1) (경험 있는 경우) 어른 없이 혼자 다닐 때 느낌이 어땠어? (예: 걱정됨, 무서움, 뿌듯함 등)

5. 학교 외 돌봄시설

1) 공부방, 쉼터 같은 (지역아동/다함께돌봄/키움)센터에 가본 적 있어?
  1-1)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센터에서 숙제 봐주고 공부 도와주는 것이 도움이 돼?
  1-2)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센터에서 공부 외에 하는 놀이나 활동이 있어?
  1-3)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센터 공간은 어때? (넓어? 뛰어놀기에 좋아? 편안해?)
  1-4)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센터에 있을 때, 놀이터 같은 바깥공간에 나가기도 해?
    (가는 경우) 놀이터까지 어떻게 가? 가는 길은 어때? 너희끼리 갈 수 있어?
  1-5)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센터 주변에 빈집이나 공사장같이 무서운 곳이 있어?

6. 일과 후 돌아가는 길

1) 일정 다 끝나고 집에 갈 때, 길이나 놀이터에 아이들이 얼마나 있어?

Ⅲ. 지역사회 돌봄 공간 이용 방해요인 + 개선 의견

1. 동네에서 학교 끝나고 이용하는 시설(예: 학교 돌봄/방과후 공간, 학원, 놀이터, 센터 등)이 마음에 들어? (+이유)
  아니면 별로야? (+이유)
  (별로인 경우)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2. 동네에서 걸어 다니거나 차타고 이동할 때, 불편한 점이 뭐야?
  (예: 길에 돌이 많음. 길을 많이 건너야 함.)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림그리기2: 00이가 생각하는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동네를 그려줘. (5분)

3. 00이 같은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동네는 어떤 동네일까? 00이가 그린 그림을 설명해줘.
  동네에 뭐가 있으면 더 좋아질까?

4)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 내용을 바탕으로 질적분석(주제 분석, 경향성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아동이 그린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림과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동네 그림에 대해 아동 설명을 덧붙여 정리하고 아동의 인식과 의견을 정리하였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단답형으로 응답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 아동이 자신의 그림을 직접 설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분석 가능한 수준의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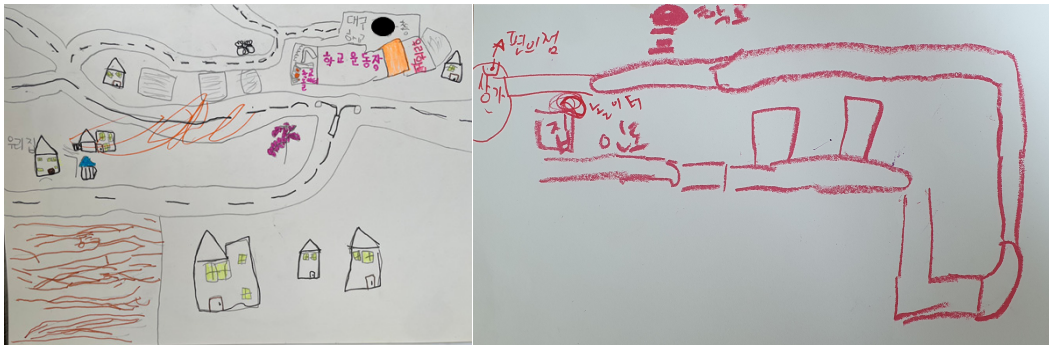
나. 예비조사

초등학교 1~4학년 수준에 맞는 질문지를 완성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 사이 연령의 아동 4인(초등학교 1학년 1인, 초등학교 3학년 3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부모에게 아동 질문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다. 예비조사의 결과는 본조사 때 반영하지 않았으며, 심층면담 진행 방식과 질문지 수정을 목적으로 하였다.

예비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4명중 1명은 남아(초등학교 3학년), 3명은 여아(초등학교 3학년 2인, 초등학교 1학년 1인)이며, 3인은 수도권 아파트 거주, 1인은 지방 읍·면지역 주택 거주 중이다. 4명의 아동은 공통적으로 등교 시 도보로 부모, 가족과 함께 이동하였고, 요일별로 이용하는 돌봄 서비스의 종류가 상이하여 학교 정규수업시간과 학교 돌봄 시간 이후에는 부모님 차나 학원셔틀을 타고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자 없이 동네를 이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홀로 대중교통을 타거나 친구들끼리 약속을 하여 만나는 경험이 많지 않았다. 아이들의 생활반경은 부모의 돌봄안전망의 개념과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데, 예비조사에 참여한 부모들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홀로 다니게 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고, 아이들도 이에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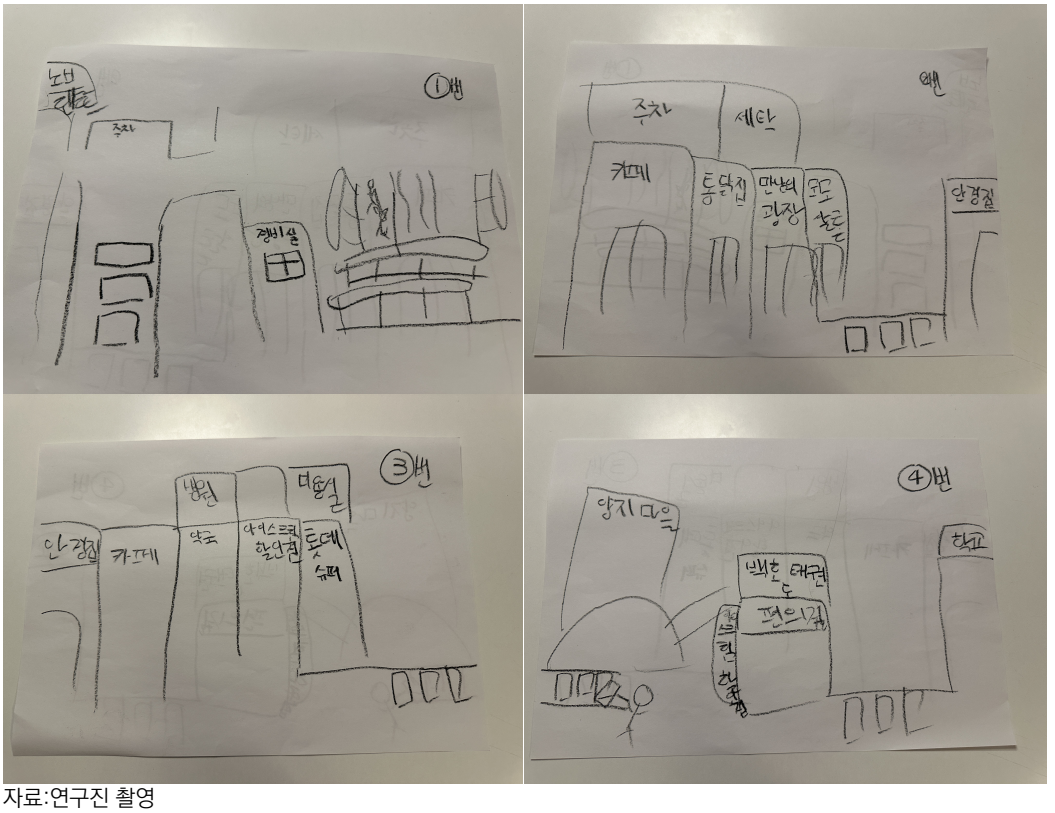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을 그린 그림은 아래와 같다(그림 5-2, 그림 5-3 참조). 아동의 연령과 성별, 그리기를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 그림의 수준이 상이하였으나, 등굣길을 진지하게 그리고 가는 길을 자세히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63] 아파트에 사는 아동과 읍·면지역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 그 특징이 그림에서도 구분되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들마다 학교 가는 길에 찻길을 몇 번 건너는지, 내리막인지 언덕길인지, 가면서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카페, 학원 등을 지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여, 동네의 근린을 바라보는 시선이 성인의 시선과 다르다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63) 그림 활동(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동네 그리기)에서는 대부분 놀이 공간(놀이터, 상가 구성 등)에 대한 아동의 희망사항을 반영된 그림을 그렸다(그림4~6 참조). 일부 그림 그리기를 거부하는 아동도 발생하여, 희망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구두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였다.



자료:연구진 촬영

[그림 5-2]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예시1 (초등학교 1학년 여아)



자료:연구진 촬영

[그림 5-3]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예시2 (초등학교 3학년 여아)

제2절 아동의 공간 경험과 개선 의견

1. 면담 아동 기본 정보

면담을 시행한 4개 지역의 아동 기본정보를 〈표 5-5〉에 종합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아동은 지역과 상관없이 대체로 부모, 형제, 자매와 사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 중 형제, 자매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자 시간을 보내는 아동은 대부분 4학년으로, 연령 증가에 따라 성인 돌봄자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공주 저층주거지를 제외한 3곳에서 면담에 참여한 절반 이상의 아동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스마트폰을 소유하고 있는 아동 모두 부모님의 보호, 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만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지역별 면담 아동 기본정보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연령	-2학년 4명 -4학년 4명	-2학년 4명 -3학년 2명 -4학년 2명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2명	-1학년 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4학년 2명
같이 사는 사람	-부모: 1명 -부모+형제/자매: 7명	-부모: 2명 -부모+형제/자매: 5명 ·부모+형제/자매+조부모: 1명	-부모: 3명 -부모+형제/자매: 4명 -부모+조부모: 1명	-부모: 1명 -부모+형제/자매: 5명 -부모+형제/자매+조부 -모: 1명 -부모+형제/자매+친인척: 1명
주로 시간 보내는 사람	-엄마: 4명 -아빠: 2명 -형제/자매: 6명 -할머니: 3명	-엄마: 3명 -아빠: 3명 -형제/자매: 3명 -할머니: 1명 -혼자: 2명	-엄마: 4명 -아빠: 2명 -할머니: 1명 -혼자: 1명	-엄마: 2명 -아빠: 1명 -형제/자매: 2명 -할머니: 1명 -혼자: 2명
스마트폰 보유	-있음: 7명 -이용시간 제한 있음: 6명	-있음: 5명 -이용시간 제한 있음: 5명	-있음: 8명 -이용시간 제한 있음:6명	-있음: 2명 -이용시간 제한 있음: 2명

출처 : 연구진 작성

2. 일상 경험과 공간에 대한 아동 인식

가. 주택 환경

아동의 주택 환경에 대한 면담 내용을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요약하면 〈표 5-6〉과 같다. 본 면담에 참여한 서대문구와 공주 지역의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아동은 단독으로 개인 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고, 저층주거지 거주 아동은 개인 방을 가진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표 5-6〉 근린별 면담 아동의 주택 환경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개인 방	-단독 개인방 있음: 5명 -형제/자매 공유: 2명 -없음: 1명	-단독 개인방 있음: 3명 -없음: 5명	-단독 개인방 있음: 5명 -형제/자매 공유: 2명 -없음: 1명	-단독 개인방 있음: 2명 -형제/자매 공유: 5명 -없음: 1명
놀이터	-면담 아동 모두가 단지 내에 놀이터가 가깝고 많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거의 매일) 이용함	-아동 응답의 편차가 있음. 주거지 주변의 놀이터 접근성에 차이가 있어서 절반 정도의 아동만이 놀이터를 주기적으로 이용함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아동이 놀이터가 집 주변에 1~4개까지 있다 응답하였고, 가족 또는 친구와 가끔 이용함	-면담 대상 아동 모두가 집 주변에 놀이터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 집 마당에서 놀이함
놀이터 외 놀이 공간	-있음: 6명 -공원, 커뮤니티센터 내 체육시설(수영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등), 커뮤니티센터 앞 공간, 청소년센터 -가족, 친구와 이용	-있음: 4명 -뒷산, 공터, 골목 -가족, 친구와 놀고 킥보드 타기, 운동하기, 춤추기 등의 활동	-있음: 4명 -지역 공용 공간, 키즈카페 -자전거, 킥보드 타기	-있음: 5명 -집 마당, 돌계단, 하천, 친구 집, 자기 방 -자전거 타기, 돌 갖고 놀기, 물놀이 활동
차량 위험	-없음: 7명 -있음: 1명	-없음: 5명 -있음: 3명	-없음: 2명 -있음: 6명	-없음: 7명 -있음: 1명

출처 : 연구진 작성

동네의 놀이터와 놀이터 외 놀이공간에 대한 경험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경우보다는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들의 놀이터 접근성이 좋았다. 특히, 아동은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가 다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재미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응답은 다음과 같다.

"단지 안에 있어요. 곰돌이 놀이터요. 완전 가깝죠." (서대문구 아파트 A)

"놀이터 있어요. 가깝고 자주 가요." (서대문구 아파트 C, D)

"(놀이터) 완전 많아요. 20개는 훌쩍 넘고 (중략) 완전 가까워요. 뛰어가면 10초에요. 완전 자주 가요." (서대문구 아파트 H)

"(놀이터가)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가깝고 하나는 좀 멀리 있어요." (공주 아파트 B)

"놀이터가 바로 앞에 있어요." (공주 아파트 C)

"(놀이터가) 4개나 있어요. 집 뒤에 있는 놀이터가 가장 좋아요." (공주 아파트 F)

놀이터 외에 놀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다양한 응답이 보고되었다.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은 커뮤니티 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어 그 안에서 놀이하는 것이 일상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렇듯 아동이 집 근처에서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은 아동의 신체발달뿐 아니라 사회 정서 발달도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커뮤니티 센터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청소년센터도 있어요. (커뮤니티 센터에) 카페도 있고, 키즈짐이라고 복싱하는 데도 있고, 음악 줄넘기도 배우는 데 있어요." (서대문구 아파트 E)

"저는 가족끼리 가요. 커뮤니티 수영장에요." (서대문구 아파트 F)

"(커뮤니티 센터에) 밖에서 노는 자리도 있어서 친구들이랑 놀아요." (서대문구 아파트 G)

"(커뮤니티 센터의) 테라스 카페에서 건너가는 곳도 있어서 안 위험해서 거기서 놀아요."(서대문구 아파트 H)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지역과 공주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놀이터 접근성이 확연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지역의 아동은 뒷산, 골목에서 놀거나 대부분 놀 곳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공주 저층주거지 지역은 조성된 아동 놀이터는 찾기 어렵고, 집 마당이나 학교 운동장, 인근 산이나 하천을 놀이터 대신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응답한 아동들은 집 근처에 조성된 놀이터가 없다는 불만이나 불편함을 표현하기보다는 마당이나 자연 환경 등 현재의 놀이 환경에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희 집 뒤에 산이 있어서 거기에 가끔씩 가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A)

"노는 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B)

"그냥 뭔가 콘크리트 같은 걸로 되어있는 데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거기서 요즘 유행하는 거 춤 막 연습하고, 킥보드 타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C)

"그냥 골목에서 친구랑 놀거나 그래요. 킥보드 타고 그래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놀이터는 없고 마당만 있어요." (공주 저층주거지 A)

"마당에 놀이터 지어놨어요. 우리 집에만 있어요." (공주 저층주거지 B)

"그냥 제 마당에서 놀아요." (공주 저층주거지 D)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하천. 하천에서는 그냥 돌갖고 놀아요. 그리고 산책로도 있는데 자전거 타고. 친구들이랑 만나가지고..."(공주 저층주거지 E)

도보환경의 안전성을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가 세게 달려서 위협적으로 느낀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흥미롭게도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과 공주 저층주거지 지역에서 그런 경우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동들은 현재 경험하는 도보환경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위험하기보다는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였다.

"(아파트)단지 내에는 차가 안다녀요."(서대문구 아파트 H)

"도로쪽에 아파트가 있는 게 아니라서. 멀리 떨어져있어서 그런 적은 없어요. (지상에 차 안다니는구나.) 네." (서대문구 아파트 E)

"네. 잘 모르겠어요. 집근처는 많이 빨리는 아니에요. 골목 내려갈 때 살짝 빨리 달릴 때가 있어요. 애기 때는 살짝 무서웠는데 이제는 계속 반복되니까 괜찮아졌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차가 쌩쌩 안달리고 천천히 가요."(공주 저층주거지 E)

"(길이) 꾸불꾸불한데라서."(공주 저층주거지 G)

"저희 집 앞은 산이어서 차가 엄청 천천히 달려요."(공주 저층주거지 G)

한편 차에 대한 위험도를 더 많이 보고한 지역은 공주 아파트 지역으로 이 지역은 학교가 시내 큰 도로에 인접해 있고 대도시인 서대문구보다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환경이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이용자의 수도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서대문구에 비해 많지 않아 차량 운행으로부터 안전성이 떨어지는 지역이었다. 특히 아동들은 오토바이의 빠른 통행에 불안감을 표시하였는데, 이는 추후 정책 제안 시 차량과 더불어 이륜차, 전동퀵보드 등의 안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해야 함을 보여준다.

"줄넘기 학원 끝나고 집 앞에서 내렸는데 횡단보도 건너야 하는데 신호등이 없어서 차들이 달려 깜짝 놀라서 못 갔어요." (공주 아파트 C)

"제가 학원에서 집에 가려고 할 때 파란불이어서 보고 건너려고 하는데 마지막 부분에 차가 막 달려와서 놀라서 뛰어갔어요." (공주 아파트 D)

"몇 번 있어요. 집 앞에 아파트 나오면 거기 놀이터가 있거든요. 거기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공주 아파트 G)

"제가 검도 학원에 가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 반대편에 차가 있어서 조금 위험했어요. 오토바이가 빨리 지나갈 때가 있고..." (공주 아파트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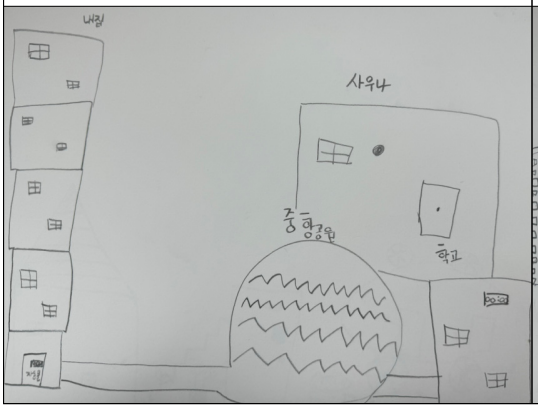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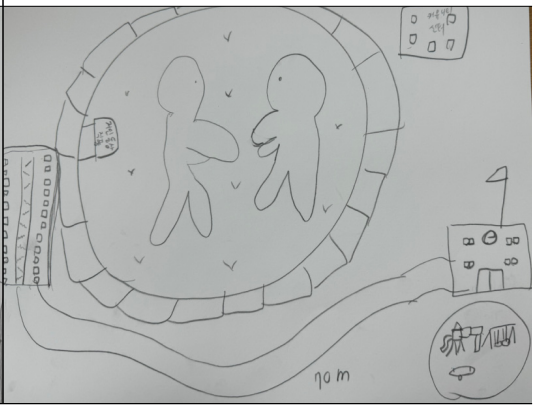
나. 통학로

아동들이 통학로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면담에 참여한 아동들에게 학교에서 집에 돌아가는 길을 떠올리며 그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아동의 통학 경험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학교와 집과의 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지, 함께 등하원 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현재 이용하는 통학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등굣길에 재미있다고 생각되는 곳은 어디인지, 넘어진 경험이나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 평상 시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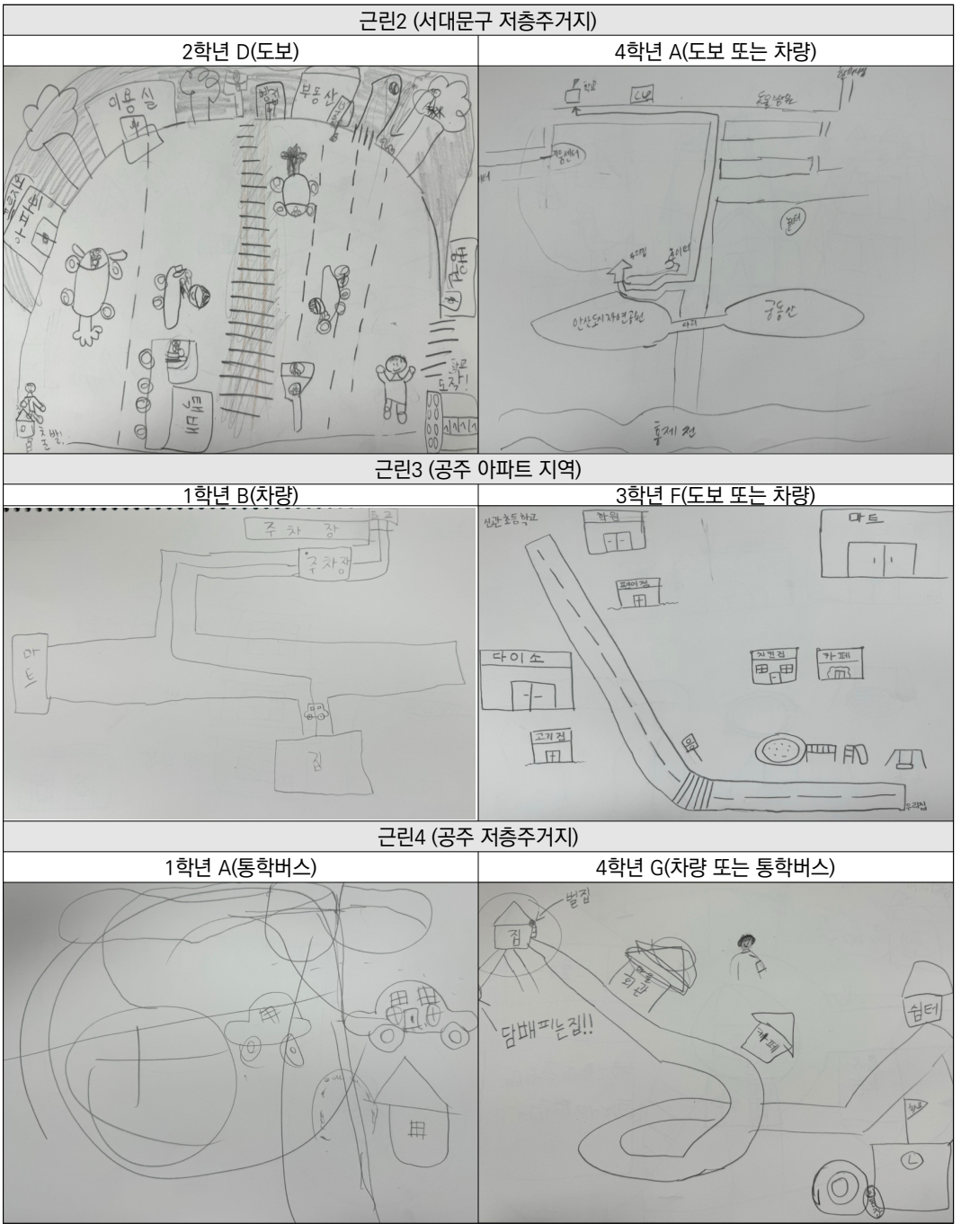
아동들의 통학 방법과 함께 그림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도보로 통학하는 아동들의 경우가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들보다 통학로 환경을 상세하게 묘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차량을 타고 움직이는 것 보다는 걸어가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아동들이 통학로를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어려움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도보로 통학하는 아동들의 경우에 등하굣길에 만나는 위험 요소(공사 중인 공사장, 담배 피는 장소)에 대한 인지나 재미있는 장소, 길에서 만나는 친구들에 대한 표현이 차량을 이용하는 아동들에 비해 훨씬 풍부하게 나타났다.

통학로를 그리면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아동 발달에 따라 공간 파악의 범위가 확장되고 구체성이 더해진다는 점이다. 저학년 아동의 그림보다 고학년 아동의 그림이 더 큰 범위를 표현하고 있음도 특징적이다.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횡단보도가 위험하다고 답하며 그렸고, 공사 중인 공사장, 담배 피우는 장소, 수퍼마켓 앞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table>
<tr><th colspan="2">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th></tr>
<tr><th>2학년 D(도보)</th><th>4학년 E(도보)</th></tr>
<tr><td></td><td></td></tr>
</table>

자료: 연구진 촬영

[그림 5-4]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근린1_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자료: 연구진 촬영

[그림 5-5] 집에서 학교 가는 길 그리기 (근린 2,3,4)

아동의 통학로 환경에 대한 면담 내용을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요약하면 〈표 5-7〉과 같다.

〈표 5-7〉 근린별 면담 아동의 통학로 환경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근접성	· 가깝다고 인식: 6명 · 모두 도보 이동	· 차, 버스: 6명 · 도보: 5명 –상황에 따라 주로 차, 버스로 다니거나 도보로 다니는 등 등교 방식이 혼재되어 있음	· 차: 6명 · 도보: 2명 –차로는 5~10분 범위 –도보는 10~30분 범위	· 차: 4명 · 스쿨버스: 5명 · 도보, 자전거: 1명 –대부분 차로 평균적으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
친구 동반 여부	· 모두 친구들을 등굣길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편임 · 친구와 약속하여 등교 함께하는 경우: 5명	· 등굣길에 자연스럽게 만남: 5명 · 친구와 약속하여 등교 함께하는 경우: 2명 · 만나서 안감: 1명	· 등굣길에 자연스럽게 만남: 3명 · 친구와 약속하여 등교 함께하는 경우: 3명 · 만나서 안감: 2명	· 대부분의 아동이 스쿨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스쿨버스 이용 아동은 매일 함께 등원하는 상황임.
통학길 선택 이유	· 이유 없음: 1명 · 다른 길이 없음: 1명 · 가장 가까움, 빠름: 5명 · 안전함: 1명 · 기타: 벚꽃이 예뻐서	· 다른 길이 없음: 2명 · 가장 가까움, 빠름: 5명 · 안전함: 2명	· 가까움: 2명	–
등굣길 재미있는 곳	· 놀이터: 4명 · 없음: 3명 · 기타: 나무 위	· 놀이터, 체육관: 3명 · 없음: 3명 · 편의점: 1명 · 기타: 세탁소 강아지	· 없음: 5명 · 놀이터, 운동기구 있는 공용 공간: 2인 · 키즈카페: 1명	· 차 미끄럼틀: 3명(스쿨버스에서 경사 내려올 때 재미를 느낌.) · 없음: 3명
넘어진 경험	· 없음: 7명 · 간판이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걸려 넘어질 뻔한 경험이 있음. 흥에 겨워 춤을 추다 혼자 넘어진 적 있음	· 없음: 3명 · 있음: 5명 · 비 오는 날 미끄러워서 넘어진 경우, 인도/횡단보도/길에서 걸려 넘어짐	· 없음: 4명 · 있음: 2명 · 길 가다가 발에 무언가 걸려서 넘어짐. 구멍 뚫려있는 곳을 못 봐서 넘어진 적 있음	· 없음: 2명
무서움 여부	모두 무서웠던 경험 없음	· 없음: 5명 · 있음: 3명 · 경사진 산길, 사람이 없음, 오토바이가 쌩 지나감, 어른 없이 다니려니 겁남	· 없음: 5명 · 있음: 2명 · 편의점에서 어른들이 싸움. 편의점 갈 때 비행 청소년을 만남	· 없음: 1명 · 없음: 3명 · 어두운 지하통로, 지름길 담배 냄새, 벌이 무섭거나 싫음

출처 : 연구진 작성

□ 근접성

응답한 아동들은 학교까지의 통학 시간이 5분~20분 정도로 다양하였지만 10분 정도라는 응답

이 가장 많았다. 인구의 밀집 정도에 따라 초등학교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들의 통학거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서대문구는 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위치하지만 아동인구의 밀도가 높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통학거리가 확대되어 도보권이라기 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은 모두 아동들이 '도보'로 이동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4개 지역 비교 시 가장 안전한 도보 이동 환경을 지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공주 저층주거지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두 개의 학교가 하나로 통합된 상황으로 학생 등하원 시 통학버스를 운영함이 특징이다. 또 많은 경우 부모님이 등하원을 차량으로 지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까워요. 한 10분 정도 걸어서 가요. 아빠랑 가거나 엄마랑 가요."(서대문구 아파트 C)

"걸어가요. 8분 정도 걸려요. 보통 언니는 중학교 가기 전에는 둘이 같이 갔는데 이제는 친구랑 만나서 같이 가요."(서대문구 아파트 F)

"네. 맨날 걸어서 다녀요. 엄마랑요. 엄마가 육교 앞까지만 데려다주고 저는 이제 혼자 가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C)

"좀 가까워요. 차로 1분. 자전거를 타면 좀 느려서 5분 정도 걸려요. (주로 어떻게 다녀요?) 스쿨 버스 타고 다녀요. (그럼 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타고 다니나요?) 아니요. 저는 1호차여서 저 혼자 타요."(공주 저층주거지 H)

"차 타고 가는데 한번은 걸어서 갈 때가 있는데 약간 여기에서 가는 길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래서 차 타는 경우가 많았어요. (차 타고 집에서 학교까지 간다고 했지? 누구 차 타고 가는거야?) 엄마차. (얼마나 걸려?) 3분에서 5분? 차가 막힐 때는 8분까지도 걸려요."(공주 아파트 H)

□ 현재 통학로 선택 이유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로는 반복적으로 빈번하게 이용하는 도로로 아동들에게 습관적인 이용이 이루어지기 쉽다. 아동들은 현재의 통학로를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이용하였기 때문에 여러 도로 중 그 길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한번 더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동들의 응답은 가까워서,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많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이쪽으로 가야지 더 빨라서 이렇게 가요."(서대문구 아파트 B)

"다른 데는 차도가 좀 많아가지고 엄마, 아빠도 걱정되고 그래가지고 이 방향이 더 인도가 많아가지고 이쪽으로 가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이쪽으로 가야지 조금 더 빨라요. (다른 길도 있는데?) 네 원래 이쪽으로 이렇게 가도 되기로 하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도 여기로 가고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여기에서는 신호가 좀 오래 걸리고 횡단보도도 건너야 되고 좀 그러니까 그래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B)

□ 친구 동반 여부

등하굣길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와 아동의 거주지 환경에 따라 이 상호작용의 양상도 차이를 보였다.

무엇보다 통학버스로 모두 함께 이동하는 공주 저층주거지가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주 저층주거지는 학교 규모가 작고, 두 군데 초등학교가 통합된 상황이라 재학하는 아동들의 거주 범위가 넓어 학교 통학버스를 운행하였다. 따라서 전교생이 두 대의 차량으로 함께 등교하는 분위기로 친구와 특별히 약속을 잡아서 이동하지 않아도 통학버스에서 만나게 된다.

다른 지역에서도 등교 시간에 약속을 해서 함께 가기보다는 등굣길에 자연스럽게 만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또 다른 특징은 친구보다는 부모님과의 동행이 많았다. 최근에는 초등학생에게도 스마트폰의 이용이 빈번하여 친구를 만나는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약속을 한다고도 하였다.

"저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요. (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려? 차로?) 5분 걸려요. (학교 버스 타고 5분이면 가?) 모르겠어요. 그거는"(공주 저층주거지 D)

"저는 학교 갈 때 친구랑 걸어가요. (얼마나 걸려?) 5분에서 10분?"(공주 아파트 G)

"엄마랑 옛날에는 갔었는데, 친구랑 집이 가까워서 같이 가요. (매일?) 오늘은 아빠가 있어가지고 차로 갔어요. (그럼 친구랑갈 때는 주로 걸어가고, 아빠가 차로 태워다주실 때가 있구나?) 네.(그럼 친구 한 명이랑 맨날 약속 하는거야?) 네.(스마트폰으로 약속하는거야?) 네."(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 등굣길에 재미있는 곳

등굣길에 재미있는 곳에 대해 일반적으로 '놀이터'와 같은 놀이공간을 이야기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놀이를 좋아하는 아동의 일반적인 성향이 나타난 것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두드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보로 이동하는 아동의 경우 재미있는 곳에 대한 응답이 훨씬 구체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공주 저층주거지의 경우 버스가 내리막길을 갈 때 재미있다는 응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 흥미로웠다.

"서대문 문화체육회관라고 여기쯤 있는데 여기에 안에 조금 노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식당도 있고 그래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H)

"뭐 재미있는 것은. 가는 길 말고 내려올 때 키움에서 이렇게 놀이터, 문화체육회에 가는데 바로 있는데 거기에서 놀기도 하고 거기가 재밌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G)

"여기 놀이터요. 거기가 재밌어요. 미끄럼틀이 재밌고 물놀이터가 옆에 있는데 여름에 물도 있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서대문구 아파트 E)

"가는 길에 후문 바로 옆에 놀이터 있어요. 거기도 재밌고 가는 길 바로 옆에 테라스가 있어요." (서대문구 아파트 H)

"차미끄럼틀이 재밌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경사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슝~" (공주 저층주거지 A)

"여기에 운동기구들이 있어요. 저희들 게임할 때 여기서 같이 놀면서 게임할 때도 있어요"(공주 아파트 H)

□ 넘어진 경험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넘어진 경험이 거의 없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이 아동의 등굣길 중심 도보 환경이 가장 안전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타 지역에서 넘어진, 혹은 넘어질 뻔한 상황은 길 자체가 울퉁불퉁하거나 미끄러운 길, 횡단보도가 없는 길 때문으로 나타났다. 공주 아파트 지역의 경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 있기도 하였지만 아동들은 그에 대한 경험을 보고하지는 않았다.

"넘어진 적 많아요. 길에 가다가 이쪽에서 막 뛰어가다가 발에 뭐 걸려가지고 넘어졌어요." (공주 아파트 D)

"네. 저번에 할머니랑 가다가 버스 탈 때 거기 도로 횡단보도 없는 데서 건너다가 많이 넘어졌어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G)

"네. 비올 때 여기쯤에서 어떤 미끄러운 데가 있는데 거기서 넘어졌어요. 학교 바깥에 학교 가는 길에. 약하게 넘어졌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H)

□ 동네 걸어가면서 무섭거나 위험했던 경험

아동에게 두려움도 학습되는 경험이다. 아동들은 평소 생활하면서 직접 경험한 일 뿐 아니라 성인이 안내하는 위험요소들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위험하게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담배 냄새가 아동에게 위험으로 인지됨은 흡연을 부정적 요소로 강조한 교육의 효과로 보인다.

넘어진 경험에 대한 응답과 마찬가지로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아동은 동네를 걸어가며 무섭거나 위험하다 느끼는 경험이 없었으나, 그 외 근린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사람이 너무 없는 길, 어른들이 싸우는 곳, 담배 냄새나는 곳 등에 대한 두려운 경험을 보고하였다.

"없어요. 혼자 있는 것도 좋아해요. 자유로워요."(서대문구 아파트 E)

"네. 저녁때 오빠랑 심부름 갈 때. 편의점이요. 갈 때 일진들도 만난 적 있어요. 오빠가 빨리 도망치래요." (공주 아파트 E)

"편의점 갔을 때 어른들이 싸웠을 때요." (공주 아파트 F)

"냄새나는 쓰레기? 여기 골목이 있거든요. 어떤 아저씨가 담배펴서 냄새가 이상해요. 저희집 지름길이거든요."(공주 저층주거지 G)

"네. 도로가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쌩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바로 뒤로 지나갔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D)

다. 돌봄시설/학교

아동의 통학로 환경에 대한 면담 내용을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요약하면 〈표 5-8〉과 같다.

〈표 5-8〉 근린별 면담 아동의 돌봄시설 및 학교 환경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점심시간/쉬는 시간 운동장 이용 가능 여부	· 이용 불가: 6인 · 각 반별로 다른 경향 있음. 선생님과 함께인 경우 이용 가능: 2명 (병설 유치원 놀이터, 텃밭)	· 전원이 이용 불가하다고 보고	· 이용 가능: 5명 · 나가서 이용할 수 있으나 아동 개인 성향에 따라 이용 빈도 차이 있음 · 자주 이용함: 2명 · 술래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얼음땡, 미끄럼틀 타기, 구름사다리, 철봉, 경찰관 놀이함	· 모두 쉬는 시간에는 나갈 수 없으나, 점심시간은 운동장에서 놀 수 있음. · 개인 성향에 따라 이용 빈도 차이 있음. · 구름사다리, 정글짐 모래밭, 축구, 미끄럼틀 놀이 함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3명(방송댄스, 과학탐구, 1, 3, 5시경) · 이전에 방과후 프로그램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3명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경험 없음: 2명	·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5명(스포츠, 바둑, 클레이, 창의미술, 컴퓨터 등, 주로 3시경) · 1학년 때 초등돌봄교실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2명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경험없음: 2명	· 현재 초등돌봄교실 이용: 4명 ·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1명(창의수학, 창의과학) · 이전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경험 있으나, 현재는 하지 않음: 3명	· 모두 초등돌봄교실 혹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있음 · 놀이영어, 탁구, 코딩, 외발자전거, 피아노, 건강체육, 바이올린, 창의미술, 로봇과학, 배드민턴, 우크렐레, 코딩
돌봄 공간에 대한 인식	· 방과후 프로그램 별로 공간 인식 차이 있음 · 방송댄스 공간 넓고, 그 외는 일반 교실과 동일	· 방과후 프로그램별로 공간 인식 차이 있음 · 체육관, 실험실, 컴퓨터실 등	· 작다, 크다는 의견이 섞여 있음 · 뛰는 것 불가능 · 비밀 공간 없음	· 돌봄교실 공간에 대한 만족도 높음 · 장난감에 대한 만족도, 쉴 공간에 대한 만족도 · 뛰는 것은 불가능
돌봄 시 운동장 이용 여부	불가	불가	불가	· 방과후 프로그램 후에 스쿨버스 타기 전까지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놀이 가능

출처 : 연구진 작성

□ 점심시간/쉬는 시간 운동장 이용 가능 여부

아동들이 학교에서 수업시간이 아닌 때 운동장 등에서 바깥놀이가 가능한 상황인지 살펴보았다. 점심시간/쉬는 시간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대문구 아동들은 대체로 어렵다 보고하지만, 공주 아동들은 서대문구에 비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에서도 이전에는 점심시간에 운동장 이용이 가능했으나, 과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서 이용을 금지하기 시작하였

다는 보고가 있었다. 또한 안전을 위해 바깥놀이를 할 때는 교사와 동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에 때로는 아동들의 놀이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 "아니요. 선생님은 못 가게 해요. 근데 쉬는 시간마다 밖으로 가가지고 여기 올챙이 키우는 게 있는데 거기서 거기 보러 가는 건 되요. 학교 밖은 아니고 안에 있는 데에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H)

> "아니요. 원래는 됐는데 어떤 애가 얼마전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고정문에 부딪혀서 이가 부러져서 선생님이 금지시켰어요. 다 한번씩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 금지됐어요."(서대문구 아파트 E)

> "급식 먹고 끝나고 나갈 수 있어요. 운동장 놀이터로 나가요 선생님이랑 가요."(서대문구 아파트 C)

> "쉬는 시간에는 못 나가죠. 점심시간에는 운동장에 와르르 나가가지고 구름사다리를 엄청 재밌잖아. 오늘도 구름사다리 연습했는데."(공주 저층주거지 B)

> "쉬는시간에는 조금이라 가까운 데에서 놀기는 편해요. 점심시간은 많아서 운동장에서 놀기가 편해요"(공주 아파트 E)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본 과제에서는 아동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봄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점을 찾고자 한다. 면담을 통해 정규 수업의 종료 후 학교에서 제공되는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한 아동들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았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에의 참여에 대해 질문한 결과 초등돌봄교실은 2학년까지 이용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이 줄어드는 경향 보였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며 학교 밖 학원의 이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역 내 초등학생이 이용 가능한 인프라의 조성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양상에 차이를 보였다. 지역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 학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에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의 경우 학원을 포함하는 문화 체육 시설 등 이용 가능한 시설들이 많아서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초등돌봄서비스나 방과후 프로그램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 서대문구 저층주거지의 아동은 키움센터를 거점으로 학교에서 키움센터에 들렀다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가기도 하였고, 키움센터 이용 후에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키움센터가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었다.

지역 내 아동을 위한 인프라가 풍부하지 못한 지역에서 아동들은 학교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사실상 정규 수업 종료 후 거의 대부분의 아동들이 학교에서 이어지는 돌봄 프로그

램에 참여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공주 저층주거지 근린의 경우 면담에 참여한 아동 전부가 초등돌봄교실 혹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저는 둘다 안해요."(서대문구 아파트 B)

"옛날에 방과후했는데 이제 안해요."(서대문구 아파트 G, H)

"월요일에 방송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잠깐 있다가 방송댄스 가요. 수요일은 친구랑 교실 앞에서 만나서 같이 과학탐구 가기로 했어요."(서대문구 아파트 A)

"네. 컴퓨터 월요일 금요일 해가지고 오늘도 갔다 왔어요.(그러면 학교 끝나고 방과후 하고 키움에 오는거야?) 네."(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1학년 때는 했었는데 1학년 때 키움 왔을 때 전까지는 돌봄이랑 방과후 둘 다 했었는데 키움 오고 나서 엄마가 방과후는 끊었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G)

"네. 월요일에는 놀이영어랑 탁구, 화요일에는 코딩, 수요일에는 외발자전거, 피아노, 목요일은 동생은 건강체육, 저는 바이올린, 이것만 달라요. 금요일에는 로봇과학이요." (공주 저층주거지 A)

"월요일에는 영어하고 탁구를 하구요. 화요일에는 코딩, 우크렐레, 수요일에는 외발자전거, 피아노, 목요일은 건강체육 하나밖에 안해요. 거의 배드민턴 위주로 해요. 저는 금요일에는 창의미술이랑 로봇과학. 로봇만들어서."(공주 저층주거지 F)

"돌봄교실 해요. 돌봄교실1(돌봄교실에서 주로 뭐해?) 놀기도 하고 수업하기도 해요. (돌봄교실 재밌어?) 네." (공주 아파트 A)

□ 돌봄 공간에 대한 인식

공간은 자연스럽게 체감되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경험들과 연계되어 기억된다. 학교 내 돌봄 공간에 대한 질문에 아동들은 공간에서 경험되는 다양한 요소 가운데 공간의 규모, 크기에 초점을 두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마다 공간에 대한 인식이 다양하였다. 방송댄스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은 그 공간을 넓고 뛸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하였으나, 일반 교실, 혹은 과학실, 컴퓨터실과 같이 도구나 설비가 많은 공간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조심스러워하는 아동들도 있었다. 공주 저층주거지의 아동은 초등돌봄교실 공간에 대한 만족도를 대체로 높게 보고한 특성을 보인다.

"방송댄스가 더 넓고요. 과학탐구는 딱 적당해요."(서대문구 아파트 A)

"컴퓨터실은 처음 왔을 때는 어색했는데 계속 하다보니까 아는 친구도 있고 이게 좀 익숙해져서 재밌어요. (넓어?)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좀 좁긴 한데 다닐 수가 있어서요.(뛰어다닐 공간은 안돼?)네."(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이 교실만해요. 더 넓어요."(공주 저층주거지 A)

"책상만 없으면 뛰어다닐 수 있어요. 돌봐주는 교실이에요. 놀기만 해요.(거기에는 뭐뭐 있어?) 장난감이랑 간식."(공주 저층주거지 B)

□ 학교 돌봄에서 운동장 이용 여부

안전을 이유로 아동들의 운동장 이용은 자유롭지 못했다.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공주 아파트 지역은 공통적으로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 시 학교 운동장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분의 재학생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공주 저층주거지의 경우 방과후 프로그램이 끝나고 버스를 타기 전까지 아동들이 운동장에서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는 환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돌봄교실은 도서관이에요. 가까운 데만 가야하는데 운동장은 너무 멀어서 안돼요."(서대문구 아파트 A)

"네. 저는 놀이터에서만 놀아요. (돌봄선생님도 같이 나가? 아니면 친구들끼리만 나가?) 돌봄선생님."(공주 아파트 A)

"(방과후 프로그램 한 다음에 돌봄교실이 있어?) 네. (너희는 그럼 스쿨버스 타기 전에 운동장에 있는 거야?) 네. 20분 정도."(공주 저층주거지 E)

라. 방과 후 학교를 나와서 가는 장소

방과후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아동들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떤 경험을 하는지 또 그 안에 어려움이나 개선해야 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방과 후 아이들이 학교를 나와서 가는 곳에 대한 면담 내용을 근린별로 요약하면 〈표 5-9〉와 같다.

〈표 5-9〉 근린별 면담 아동의 방과후 공간 경험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학교 끝나고 가는 곳	· 모두 학원 감. 매일 1~2개 학원을 가며, 영어, 수학 등 교과학원과 예체능이 섞여 있음 · 학원 종류 예: 영어, 수학, 수영, 플롯, 주산, 미술, 피아노, 학습지, 줄넘기, 신문, 세계사 수업, 합창	· 키움센터 방문 전후로 모두 학원 감. 매일 1~2개 학원을 감. 교과학원보다 예체능을 더 많이 수강하는 경향 보임 · 학원 종류 예: 탁구, 배드민턴, 공부방, 태권도, 영어, 바둑, 수영, 학습지, 피아노, 미술	· 모두 학원 감. 매일 1~2개의 학원을 가며, 교과학원과 예체능이 섞여 있음 · 학원 종류 예: 학습지, 미술, 피아노, 태권도, 영어, 수학, 줄넘기, 국어, 발레, 검도	·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음: 5명 · 집에 주로 있으나, 학원을 가는 날이 있음: 6명 · 학원 이용일이 상대적으로 적음: 일주일에 1~2일 정도 · 학원 종류 예: 리듬체조, 승마, 보드게임, 피아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노, 과학, 수학, 학습지, 영어, 미술, 음악, 공예
이동 방법	·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 거리임 · 일부 학원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차량 이용: 3명	· 학원 셔틀 이용: 6명 · 도보: 1명 · 조부모와 대중교통: 1명	· 도보: 4명 · 학원 셔틀 이용: 4명 · 요일별 학원별로 도보 혹은 학원 셔틀 이용 등 다양함	· 대부분 셔틀버스 타고 귀가 · 학원 이용하는 경우 부모 픽업
이동 중 친구들과 들르는 곳	· 편의점: 3명 · 문구점: 3명 · 놀이터: 2명 · 없음: 2명	· 없음: 6명(키움센터에 바로 오기 때문) · 편의점: 1명 · 놀이터: 1명	· 없음: 4명 · 문구점: 2명 · 분식점: 2명 · 놀이터: 1명 · 기타 공간(체육관 옆): 1명	· 없음: 2명 · 슈퍼: 1명
간식 먹는 곳	· 놀이터: 4명 · 학원: 2명 · 편의점 앞, 문구점 앞: 2명	· 모두 키움센터에서 간식 먹음. 만족도 높음	· 돌봄교실: 4명(1~2학년) · 분식집: 2명 · 문구점: 2명 · 집: 1명	· 돌봄교실: 4명(1~2학년) · 집: 3명 · 카페: 1명
학교 끝나고 차로 이동하는 경험	· 있음: 3명 · 차 안에서 하는 일: 간식 먹기, 핸드폰 하기, 대화하기	· 모두 있음. · 부모님 차: 2명 · 학원 셔틀: 7명 · 대중교통: 2명 · 차 안에서 하는 일: 그냥 있음(5명), 핸드폰, 주변 구경, 바람쐬기, 노래 듣기	· 있음: 7명 · 부모님 차: 4명 · 학원 셔틀: 4명 · 차 안에서 하는 일: 가만히 있음(2명), 대화하기(2명), 핸드폰(카톡, 게임 등)(2명), 간식 먹기, 쉬기	· 모두 셔틀버스 하루 1회 이상 이용, 학원 이용 시 부모 차 이용 · 차 안에서 하는 일: 대화하기(3명), 영어 공부, 아무 것도 안함, 노래 듣기, 쉬기
어른 없이 혼자 대중교통을 타본 경험	· 있음: 1명 · 대중교통을 친구와 처음 타서 재미 느낌	· 있음: 2명 · 없음: 6명 · 혼자 탔을 때 별 느낌 없었음	· 모두 없음	· 모두 없음

출처 : 연구진 작성

□ 학교 끝나고 가는 곳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공주 아파트 지역은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면담 참여 아동이 학원을 매일 이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은 학업 등의 본래 목적뿐 아니라 돌봄의 공백을 메우는 기능도 담당한다.

저학년일수록 예체능 과목을 수강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영어, 수학 등 학습 위주의 학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주 저층주거지에서는 아동이 학교 끝나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이 다른 근린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태권도랑 영어. 태권도는 월수금이고 영어학원은 화목이에요. 수요일은 근데 저 바둑이 있어서 여기 키움센터에 20분만 있어요. 근데 안 올 때도 있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B 저학년)

"월요일 피아노, 수학, 수영, 주산, 화요일은 영어학원, 수요일은 수학, 피아노, 줄넘기, 목요일은 영어학원, 금요일은 줄넘기랑 영어학원. 주말에는 신문 세계사 수업, 미술해요."(서대문구 아파트 G 고학년)

"저는 눈높이 갔다가 피아노 할아버지가 차 타고 오고, 미술학원 선생님은 정문앞까지 오셔요. (학교에서 걸어서 눈높이 가고 끝나면 피아노차가 와서 피아노학원 가?) 네.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이렇게만 미술학원 가는 거에요. 피아노는 맨날 가요."(공주 아파트 A 저학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은데 화요일만 조금 달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매일 엄마가 2천원을 줘서 사먹을 거 사고 장난감 사고 놀이터 앞에서 게임하는 경우가 많고, 화요일은 시간이 없어서 먹을 거 사고 게임 한판 하고 바로 학원으로 가거든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영어학원, 검도" (공주 아파트 H 고학년)

"저는 학교 갔다가 집에서 그냥 있어요. (주로 영어도 듣고 그래요?) 영어도 듣고 공부도 하고 씻고 양치하고 게임해요."(공주 저층주거지 H 고학년)

□ 학교 끝나고 다음 장소로 이동 방법

하원 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경우 이동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또한 인구 밀집 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인구의 밀집도가 높은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과 공주 아파트 지역은 도보로 학원까지 접근 가능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이에 반해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아동은 셔틀버스, 학원버스, 부모 자차로 이동하는 사례가 더 많이 발견되었다.

"(학교에서 영어학원 갈 때 어떻게 가?) 걸어서 유치원 있는 데까지 가서 도착해서 엘리베이터 타요. (영어학원에서 검도학원까지는 어떻게 가?) 차 기다려요. (검도학원 차가 오는거야?) 네. 조금 먼 걸로 알아요. (집에 가면?) 저는 6시. 공부까지 합하면 8시나 7시반."(공주 아파트 H)

"학원갈 때 친구들이랑 걸어서 가요. 학교에서 5분 정도 걸려요."(서대문구 아파트 C)

"(태권도 갈 때는 어떻게 가?) 관장님이 데리러 와요.(셔틀타고?) 네. (태권도 끝나고 여기는 또 어떻게 와?) 관장님이 셔틀로 태워다주셔요. (청소년 센터 갈 때는 어떻게 해?) 버스 타고 아이스크림 파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려가지고. 엄마랑 같이. 2학기 되면 저 혼자 갈거에요. 거기서 수영도 배우고 드럼도 배울 거에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D)

"(카페이랑까지는 어떻게 가요?) 스쿨버스. (카페이랑 끝나고는 집까지 어떻게 가요?) 엄마, 아빠가 데릴러 와요."(공주 저층주거지 G)

□ 이동 중 친구들과 들르는 곳

아동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이동성이 증가하고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며 다양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하교 후 아동의 행동 양상에도 나타나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친구와 이동 중에 들르

는 곳이 없었고, 연령이 높을수록 편의점, 문구점, 놀이터를 들르는 경우가 많았다.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에서는 특히 학교가 끝난 후 아동들은 키움센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중 들르는 곳이 없는 사례가 더 많았다. 면담을 통해 키움센터가 아동 동선의 거점과 같은 기능을 하며 간식이 제공되고, 학업지도도 이루어지며, 또래 간 놀이를 통한 사회적 교류가 활발하여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친구들이랑 거의 저는 바로 키움을 와야 해서 어디 들를 수는 없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저는 안들르고 바로 학원가요."(공주 아파트 F)

"놀이터에 가끔 들려요."(서대문구 아파트 C)

"가끔 문구점가요. 가끔 편의점도 들르고."(서대문구 아파트 H)

□ 간식 먹는 곳

하교 후 집에 가기 전 간식을 먹는 장소에 대해 질문하였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에서 슈퍼나 분식집 등에서 간식을 사먹는 경우가 증가하였다. 공주 지역의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1~2학년의 경우는 학교의 돌봄교실에서 간식을 주로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저층주거지의 아동은 키움센터에서 간식을 먹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공주 아파트 지역에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놀이터, 편의점, 문구점에서 간식을 사먹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끔씩 좀 붕어빵도 먹고 편의점에서도 간식 같은 거 사먹고 그래요.(누구랑 같이 가?) 혼자 갈 때도 있고 친구랑 갈 때도 있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A)

"여기 키움센터에서요. 다양한 거 먹어요. 소보로빵. 오자마자 책상 위에 앉아서 먹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B)

"돌봄교실이요."(공주 저층주거지 C)

"네. ○○슈퍼요. (○○슈퍼에서 뭐 사요?) 가격도 싸구요, 간식이 맛있어요." (공주 저층주거지 G)

"□□분식이 닫혀있으면 △△문구점 가요. □□분식이 열려있으면 거기서 떡볶이나 그런거 사먹어요."(공주 아파트 H)

□ 학교 끝나고 차로 이동하는 경험

도보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하원시 차량을 이용하여 주로 이동하였다. 하원하는 차 안에서 아동들은 무엇을 하며 이동하는지 살펴보았다. 아동들

은 차 안에서 가만히 밖을 보면서 있거나, 친구와 대화하기, 주변 구경하기, 휴대폰 보기, 게임하기, 노래 듣기, 간식 먹기, 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서대문구와 공주의 지역간 차이가 없었다.

"핸드폰 봐요. 게임해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뭐 다른 게임도 해요. 바깥 구경도 하고."(서대문구 저층주거지 B)

"엄마한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던지 사랑고백을 하던지, 가족 얘기해요."(서대문구 아파트 H)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자기도 해요."(공주 저층주거지 F)

"노래 들으면서 가죠."(공주 저층주거지 D)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엄마차에서 언니는 혼나고 저는 엄마랑 얘기해요."(공주 아파트 A)

□ 어른 없이 혼자 대중교통 타본 경험

초등학생들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지 살펴보았다. 초등 1~2학년은 어른 없이 대중교통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었다. 특히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공주지역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면담 참여 아동이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 혼자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일부 아동의 경우는 혼자 이용하는 것 정도는 큰일이 아니었다는 듯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버스는 타본 적 있어요. 딱 한 번 타봤는데, 가까운 000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친구랑 처음 타서 재밌었어요." (서대문구 아파트 E)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A)

"별 느낌 없어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F)

마. 학교 외 돌봄 시설

학교의 돌봄 지원 이외에 하교 후 지역사회 내 돌봄을 이용하는 양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학교 외 돌봄시설(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키움센터 등) 이용 경험을 근린별, 주택 유형별로 요약하면 〈표 5-10〉과 같다.

〈표 5-10〉 근린별 면담 아동 학교 외 공적돌봄시설 이용 환경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공부방, 쉼터 (지역아동/다함께 돌봄/키움센터) 이용 경험 여부	· 없음: 5명 · 청소년센터 이용경험: 1명 · 잘 모름: 1명	· 모두 키움센터 경험 있음	· 지역 돌봄센터: 1명 · 공부방: 1명	모두 없음
센터의 공부 지원 도움 여부	-	· 도움됨: 6명 · 방학 때만 공부 지원함. 특히 수학 문제 풀이가 도움이 됨	· 도움됨: 2명 · 공부방에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덧셈뺄셈, 받아올림, 받아내림 등을 학습함	-
센터에서 하는 놀이	-	· 보드게임, 쇼핑놀이, 색칠하기, 그림그리기, 소꿉놀이, 요리활동, 가족놀이, 블록놀이, 미술놀이 · 한달에 1~2번 키움센터 주관 활동이 있으며, 아동들의 만족도 높음	· 줄넘기, 놀이터, 할로윈 활동	-
센터 공간 인식	-	· 넓음: 5명 · 편안함: 5명 · 쉬는 공간 만족: 2명	· 지역 돌봄센터: 넓고 편안함. 뛸 수 없음 · 공부방: 좁음	-
센터 근처 놀이터 이용 여부	-	· 이용: 6명 · 센터마다 상이하였는데, 상시 이용은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가는 경우 있음 · 놀이터 가는 길은 가까운 편이고, 파출소, 주택 등이 많음	· 지역 돌봄 센터: 이용 · 공부방: 이용 불가	-
센터 주변 무서운 곳 존재 여부	-	· 있음: 3명 · 없음: 5명 · 공사하는 곳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임	· 없음: 2명	-

출처 : 연구진 작성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과 공주 저층주거지의 경우 학교 외 돌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대상자가 면담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대문구 저층주거지의 아동은 모두 키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을 대상자로 하였기 때문에 키움센터 이용에 대한 아동의 인식을 조사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키움센터에서는 방학 때에 아동의 학습을 지원해주는데 특히 수학 풀이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센터에서는 아동들이 자유롭게 보드게임, 미술놀이, 소꿉놀이, 블록놀이 등을 하고, 키움센터에서 주관하는 요리 활동 등이 한 달 혹은 분기별로 마련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아동들은 공간이 넓고 편안하다고 보고하였고, 센터마다 상이하였지만 근처 놀이터나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사 인솔 하에 이동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센터 주변에 무서운 곳에 대해 물었을 때 근처 공사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언급이 대부분이 있었다.

"때로는 안하지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도움이 될까?) 어려운데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면 더 쉽다고 설명해 줄 때. 받아올림도 해서."(서대문구 저층주거지 D)

"제가 옛날에 살짝 수학을 못했긴 했었는데 키움 선생님이 계속 도와줘서 숙제 문제풀이도 했고 이제 잘하게 됐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공간은 넓어요. 저기도 있고 저기 뒤에 방에서 추는 것도 있고, 2층에 가면은 노는 곳도 있고 소꿉놀이도 있고 가끔씩은 거기서 맨 아래 보면 신발장이고 다음 왼쪽 아래에는 보드게임도 있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D)

"네. 방학 때는 산책가기도 해요. (산책 갈 때 가는 길은 어때?) 홍제천을 가요. 선생님이랑 친구들이랑 가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H)

"저기 학교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거의 끝나긴 했었는데 옛날에 공사했을 때 천장에 뭘 해놨는데 이게 떨어질까 봐 무섭긴 했었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공주 아파트 지역에서는 지역 돌봄센터와 공부방 이용 경험자가 1명씩 있었다. 두 아동 모두 돌봄센터와 공부방에서 하는 활동 위주의 보고를 하였고, 공간에 대해서는 지역 돌봄센터 이용 아동은 넓고 편안하다고 보고한 반면, 개별 공부방을 이용한 아동은 공간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었다.

"방학 때 주공4차에서 돌봄센터에서 다녔어요. 공간은 좀 넓어요. (뛰어 놀기도 좋아요?) 네. 근데 선생님이 뛰지 말라고 해요."(공주 아파트 C)

"공부방은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어떤 공부방 다녔어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덧셈뺄셈, 받아올림, 받아내림. (공부방은 마음에 들었어요?) 조금 마음에 안들었어요. 선생님이 너무 화내요. (공간은 어땠어?) 조금 좁았어요."(공주 아파트 E)

바. 일과 후 돌아가는 길

아동의 일상을 고려하여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 일과 후 집으로 돌아갈 때에 길이나 놀이터에 아동들이 친구들을 얼마나 만나게 되는지 질문하였다.

그 결과,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내 놀이터 등, 실외 환경에서 다수 아동이 저녁 시간에도 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비해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공주 아파트 지역, 공주 저층주거지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과 실외에서 놀고 있는 아동이 거의 없다고 답한 경우가 많았다.

〈표 5-11〉 근린별 일과 후 돌아가는 상황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일과 후 귀가 시 길과 놀이터 아이들 존재 여부	· 있음: 6명 · 없음+잘 모름: 2명	· 있음: 3명 · 없음+잘 모름: 5명	· 있음: 3명 · 없음+잘 모름: 5명	· 동네 전반에 아이가 많이 없는 특성 반영 ·동네에 아이가 자기 혼자인 경우도 있음

출처 : 연구진 작성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의 아동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놀고 있는 아이들이)많이 있어요." (서대문구 아파트 B, H)

"있어요. 저녁이라 아이들 많이 나와서 학원 끝나고 놀 때니까, 13명 정도 있거든요. 다 나와서 놀고 있어요." (서대문구 아파트 E)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아동이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사람이 많고 적음에 대한 아동의 주관적 인식이 반영되어 유사한 상황임에도 사람이 꽤 있다 혹은 적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눈에 띈다. 특히, 공주 저층주거지 거주 아동의 경우 해당 동네에 자신이 유일한 아동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같은 동네에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이 3명 있는 경우 아이들이 많다고 인식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 구분되는 특징이었다.

"저희 집 놀이터는 워낙 산 쪽에 있는 놀이터여서 아무도 없고, 00동 집 많이 있는 놀이터에는 사람이 꽤 있어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A)

"별로 없어요. 여기는.. 다른데는 많은데, 거기는 혼자 가지 않아요. 좀 복잡해서 가는 길이."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C)

"언니들이나 아기들 가끔씩 있어요. 아기들은 두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언니도 두 명 같아요." (공주 아파트 B)

"저는 엄마차 타고 와서...지하 주차장 쪽으로 가가지고 (잘 몰라요)." (공주 아파트 G)

"저는 학원차 타가지고 못 본 것 같아요." (공주 아파트 H)

"저희 동네에는 아이가 저 한 명이에요." (공주 저층주거지 E)

"저희 동네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반에 3명이 같은 동네에요." (공주 저층주거지 F)

3.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아동 의견

아동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사회를 안전한 돌봄환경으로 인식하는지, 또한 동네 안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부분이나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면과 개선되기 바라는 부분을 아동들에게 질의하였다. 아동이 인식하는 근린 환경 특성과 개선 의견을 근린별, 주택 유형별로 요약하면 〈표 5-12〉와 같다.

〈표 5-12〉 근린별 아동의 환경 인식과 개선 의견

구분	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동네에서 학교 끝나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각	· 모두 만족함 · 놀이터: 재미있음. 사람 많음. 모래 놀이터, 숲속 놀이터, 중심 잡는 기구, 암벽 타는 기구 좋음 · 학원: 재미있음. 과목별 만족도 차이 있음. 일부 영어 만족도 높으나, 수영 힘들다는 인식 있음 · 놀이터 시설 확충 요구: 그네, 짚라인, 롤러코스터, 바이킹	· 만족: 5명 · 시설별로 다름: 2명 · 일부 학원은 불만족, 키움센터에 대해서는 만족	· 만족: 3명 · 시설별로 다름: 1명 · 놀이터: 사람 많이 만나서 좋음 · 학원: 태권도, 학습지, 피아노, 검도 학원에 만족하는 반면, 미술, 수학학원에 선호도 낮음	· 만족: 4명 · 방과후 프로그램: 뛰어놀 수 있음 · 학원: 재미있음. 선물도 줘서 좋음
동네에서 걸어 다니거나 차 타고 이동할 때 불편한 점	· 없음: 7명 · 있음: 1명 · 길 좁은 곳에 다 같이 걷기 불편함. 횡단보도 기다리는 것 불편함	· 없음: 3명 · 있음: 4명 · (이동 거리가 멀어서) 다리가 아픔. 오르막길 돌이 많고, 돌이 빠져서 미끄러움. 길 색이 마음에 들지 않음. 차가 막힘. 주차 환경이 위험함	· 없음: 5명 · 있음: 3명 · 내리막길 울퉁불퉁함. 길이 너무 멀어서 걸어가기 힘듦. 인도와 도로가 구분 안됨. 신호등이 꺼져있음. 차가 빨리 달림	· 없음: 4명 · 있음: 4명 · 다리가 아픔. 멀어서 걷는 것이 불편함. 자갈밭에 경사가 심함. 하천 공사 중이어서 못 놀음
아이들이 생활하기에 좋은 동네에 대한 생각	·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음: 4명 · 평지, 착하고 친절한 마을 사람들, 깨끗하고 깔끔한 동네, 밝은 가로등, 경비아저씨 가까이 근무, 학원과 학교 가깝고, 편의시설 인프라 좋은 곳, 많은 놀이터, 커뮤니티 시설, 놀이공원, 게임장, 워터파크, 10시 이후 조용한 마을, 쓰레기 투기 없고, 축구공 날라 오지 않는 곳 희망	·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음: 1명 · 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이 많은 곳(수영장, 마당, 게임장, 트램펄린 등), 담배 안 피우고, 주차 잘하는 마을, 차가 천천히 다니는 마을, 꽃으로 가득하고 음식물 쓰레기 먹는 로봇이 있는 곳, 편안하고 포근한 벤치가 있는 곳, 깨끗한 곳, 많은 놀이터, 축제가 많은 곳, 조용한 곳 희망	· 주택 놀이터, 편의시설(영화관, 대형마트, 수영장, 인형뽑기), 놀이터, 바다, 파라솔, 공원, 공중 화장실 희망 · 신호등이 다 켜져 있는 곳, 밤에 빛을 많이 쓰지 않는 마을 희망	· 놀이터, 철봉, 놀이동산 마을, 아파트, 스케이트장, 축구장, 마트, 놀이공원(대관람차, 바이킹, 자이로드롭 등), 소방서, 편의점, 경찰서, 대형 마트, 짚라인, 비밀공간, 수영장/워터파크, 곡식 키우는 곳 희망

출처 : 연구진 작성

가. 동네에서 학교 끝나고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생각

전반적으로 아동은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동들은 자신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안에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이루어지는 활동의 흥미 등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그래서 공간에 대해 질문하면 비로소 공간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보면서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놀이터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 만족하는 부분을 이야기한 반면, 학원의 경우에는 과목,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를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는 공간도 좋고 거기 술래잡기 하고 그리고 숨바꼭질하고 무궁화 꽃도 할 수 있고, 큰 공간이라서 좋아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G)

"놀이터가 재미있고 모래놀이터도 있어서요."(서대문구 아파트 A)

"놀이터 마음에 들어요. 집 앞에 숲속놀이터라고 있는데, 중심 잡고 올라가는 기구가 재밌어요. 학원도 맘에 들어요. 영어학원은 쓰는게 도움이 되어서 재미 있는 것 같아요. 수영은 너무 힘들어서 별로예요."(서대문구 아파트 D)

"전 피아노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방과후 하는 공간도 마음에 들어?) 네. 너무 좋아요."(공주 저층주거지 C)

"저는 할머니집 놀이터가 마음에 들어요. (왜 마음에 들어?) 그쪽에는 모래가 있는데 그네도 있고, 시소도 있고, 매달리는 거 철봉도 있구요. 그네는 없어요. 태권도는 재밌는 걸 하구요, 눈높이는 공부를 잘 가르쳐줘서요."(공주 아파트 B)

"학교는 친구들이 많아서 좋고, 키움은 자주 다니니까 재미있고, 다른 학원들은 많이 다녀서 태권도는 품띠도 따고 그래서 좋아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나. 동네에서 걸어 다니거나 차량 이동할 때 불편한 점

아동들이 체감하는 근린 내 도보 환경에서 불편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응답은 근린별로 편차를 보였다.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은 보도나 횡단보도의 이용 시 불편함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동의 관점에서 이동 시 근린 환경이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저층주거지와 공주 저층주거지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동 거리가 멀어서 다리가 아프다는 보고를 하였다. 또한 걸어다니기에 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공주 아파트 지역, 공주 저층주거지에서 모두 언급되었으며,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음에 대해 위험요소로 인지하기도 하였다.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내 보행환경 조성에는 차도와 구분된 인도의 설치가 우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저 다리가 엄청 아파요. (걷기 불편하거나 길에 돌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 오르막길에는 그 돌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멘트 흙을 잡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다 빠져가지고 내려갈 때 미끄럽기도 하고. 길 색이 마음에 안 들어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B)

"없어요. 신호등이 많지만 불편한 점은 없어요"(서대문구 아파트 D)

"길이 좁은 곳이 있어가지고 다 같이 걷기가 좀 불편해요. 횡단보도 기다려야하는 건 불편해요."(서대문구 아파트 G)

"자갈밭이에요 거의. 그래서 자갈이 있어서 겨울에 눈 왔을 때 쭈루루 미끄러져서 얼굴에 피났어요. 경사가 엄청나요. 밟고 넘어져서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동네가 더 좋아질 거 같아?) 아스팔트를 깔았으면 좋겠어요. 포장이요."(공주 저층주거지 E)

"내리막길이 있는데 그쪽에서 조금 울퉁불퉁하거든요. 내려가다가 너무 멀어가지고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리막길이 어떻게 되면 좋을 거 같애?) 사람들이 걷는데를 좀 더 넓혔으면 좋겠어요." (공주 아파트 B)

"조금은 위험해요. (어디가 위험했어?) 집 근처요. 차가 다닐 수도 있는 데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데여서 인도랑 도로가 없어가지고. (인도랑 도로가 구분이 안 되어 있구나?) 네."(공주 아파트 E)

다.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동네에 대한 생각

아동들은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어떻게 평가하며 또 어떤 부분을 강조하여 기억하고 있는지 그림으로 표현하며 설명을 요청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아동들은 대체로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들이 생활하기 좋은 동네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이야기 나눈 내용을 살펴보면 사람(친절한 이웃)과 형성된 긍정적 관계, 이용이 편리한 인프라(아이들이 좋아하는 시설, 편의시설), 전반적인 환경(깨끗하고, 조용하고, 담배 없는, 안전한, 환경 친화적)에 대한 부분들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냥 저희 동네가 좋아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B)

"저는요 그냥 우리 동네가 좋아요. 착한 사람이 많고 킥보드를 많이 탈 수 있는 평지가 있어서 좋아요."(서대문구 아파트 A)

"지금은 안 살기 좋은데 나중에 미래. 꽃으로 가득하고 음식물 쓰레기 먹어주는 로봇. 편안한 포근한 벤치도. 깨끗한 동네도 있어요. 놀이터도 많아야 돼요."(서대문구 저층주거지 F)

"사람들이 담배도 안 피고 주차도 잘 하는 마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빠도 차를 빨리 달리다가 신호 없는 줄 알고 신호를 놓쳤거든요. 다음부터는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E)

"깨끗하고 깔끔한 동네요. 어른들도 아이들도 친절한 동네면 좋겠어요. 지금은 70프로 정도인 것 같아요."(서대문구 아파트 E)

"밤이 되도 가로등이 있고, 안전하게 경비아저씨가 가까이에 있으면 좋겠어요. 어두워지면 길가에 불켜지는 거 있잖아요. 더 밝아지면 좋겠어요. 너무 어두우면 뭘 밟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요. 어디는 가로등이 아예 없어요."(서대문구 아파트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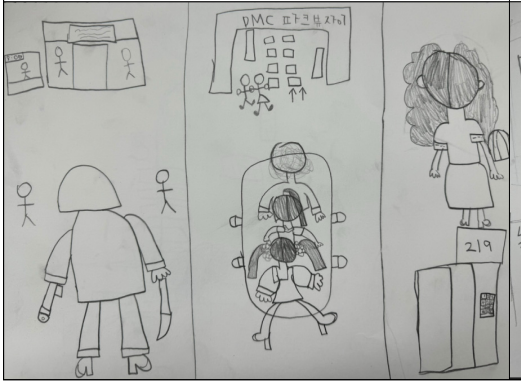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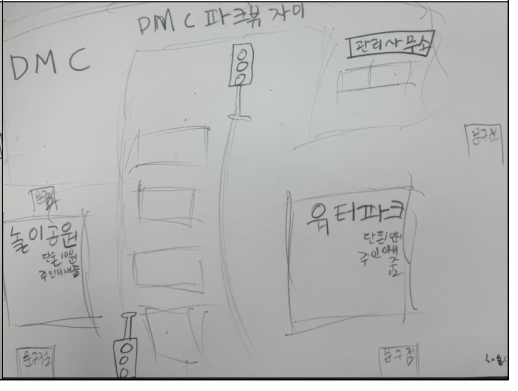
"우리동네. 안전해요. 놀이터도 많고요. 커뮤니티 시설도 많고. [그림 그린 후] 워터파크랑 놀이공원이 같이 있어요. 아파트가 쫙 여기까지 있고, 문구점은 이 정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있어요."(서대문구 아파트 H)

"지금도 짱 좋은데.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거야. 저는 여기 안에 원래 오빠랑 언니랑 저랑 나무가 있어서 올라가서 많이 놀았어요. 진짜 좋았는데. 숲속. 밭밭밭. (뭐 키우고 싶어?) 당근. 옥수수. 엄청 큰 수영장 워터파크. 미끄럼틀."(공주 저층주거지 H)

"저도 지금도 좋기는 하는데. 여기는 짱 큰 만물슈퍼. 저도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어야지. 게임방. 여기서 부터 여기까지 짚라인. 나 짚라인 너무 타고 싶어."(공주 저층주거지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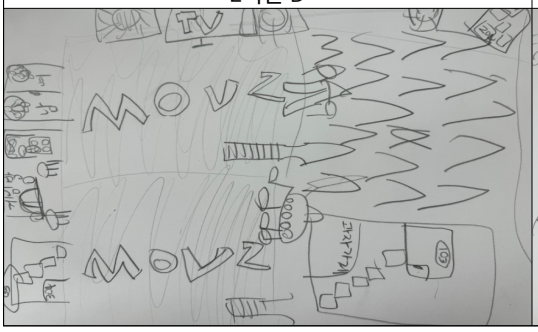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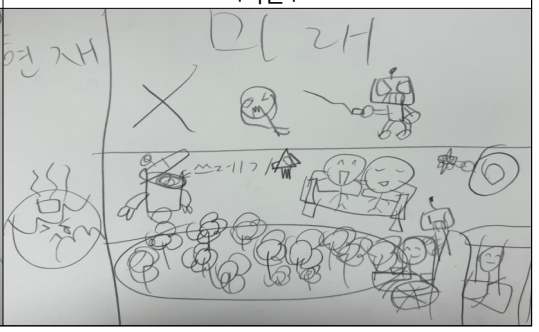
"저층주거지. 놀이터요. (00이는 저층주거지가 좋구나?) 넓어서. (00이가 살고 싶은 동네는 넓은 저층주거지가 있고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렸어.) 집 옆에 마라탕 집이 있으면 좋겠고, 놀이터가 넓으면 좋겠어요."(공주 아파트 C)

"신호등이 짧은게 많기도 하지만 긴 신호등이 있거든요. 신호등이 짧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공원 같은게 생기면. 산책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또 뭐 필요한 거 없을까?) 아파트 주변에도 문구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쓰레기통도 생겼으면 좋겠어요."(공주 아파트 G)

<table>
<tr><th colspan="2">근린1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th></tr>
<tr><th>2학년 A</th><th>4학년 G</th></tr>
<tr><td>
</td><td>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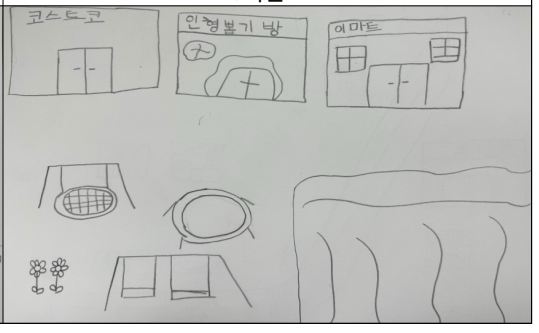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촬영

[그림 5-6]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서대문구 아파트 지역)

근린2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2학년 D	4학년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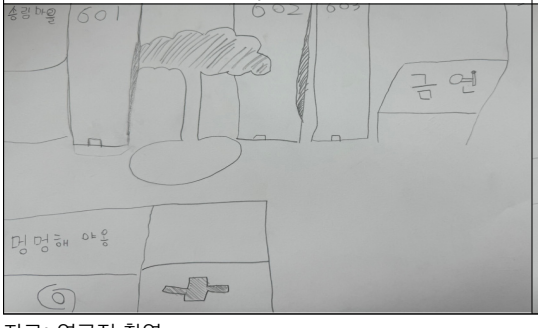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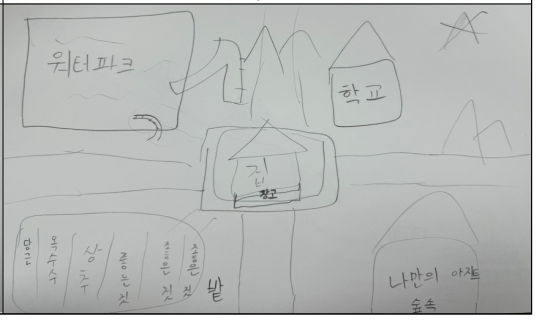
자료: 연구진 촬영

[그림 5-7]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근린3 (공주 아파트 지역)	
2학년 C	3학년 F
	

자료: 연구진 촬영

[그림 5-8]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공주 아파트 지역)

근린4 (공주 저층주거지)	
2학년 C	4학년 H
	

자료: 연구진 촬영

[그림 5-9] 아이들이 생각하기 좋은 동네 그리기 (공주 저층주거지)

4. 소 결

서대문구와 공주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32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내용을 토대로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구성을 위한 다음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가. 지역간 비교 (서대문구-공주)

첫째,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조성 시 지역 내 인구의 이동 추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아동수의 감소는 전국적인 추이이기는 하나, 서대문구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이고 공주시의 경우에는 특히 자녀가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세종시와 대전으로의 인구 유출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공주시는 2개의 초등학교가 하나로 병합되기도 하고 심지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병합으로 초중학교가 운영되는 상황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서대문구에 비해 월등히 적은 수준이다. 이는 돌봄 상황에도 영향을 미쳐 서대문구 지역은 학교에서 돌봄지원(방과후 학교, 돌봄교실)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사회 내 돌봄이 병행되어야 하는 필요가 높다. 이에 비해 공주시의 경우는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충분한 돌봄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인구 밀집 지역의 경우 학교 돌봄을 보완하는 지역 내 돌봄 수요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대응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서대문구 저층주거지에서 특히 저학년의 경우 학교돌봄의 빈 자리를 지역사회 내 돌봄센터(키움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채우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아동들은 지역사회 내 돌봄센터에서 간식을 지원받고, 학습에의 도움을 얻고, 또한 센터를 거점으로 학원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현 정부에서 학교 돌봄으로 늘봄학교 정책을 확대하려는 노력은 있으나 여전히 돌봄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학교 돌봄과 지역사회 내 돌봄센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돌봄안전망 조성이 요구된다.

셋째,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통학거리의 차이를 가져오고 이는 아동의 통학 방법, 방과후 활동에도 영향을 미친다. 서대문구는 아동 밀집 지역으로 학교와 집 사이 아동의 통학거리가 공주시에 비해 짧은 특징을 보인다. 이 경우 대부분 도보나 부모의 차량을 이용하며. 방과후 학교 외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비해 아동들의 통학거리가 평균적으로 긴 공주시의 경우는 도보 등하교보다는 학교의 통학버스나 부모 차량, 학원 차량의 이용이 많은 특징을 보이며, 학교 이외 공간에서의 방과후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나. 주택 유형에 따른 근린간 비교 (아파트-단독·다세대주택 저층주거지)

서대문구와 공주시에서 참여 아동의 거주 근린을 아파트 지역과 저층주거지로 구분하고 대상

을 선정하여 그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음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단독·다세대 주택이 주를 이루는 저층주거지에서는 아동을 위한 놀이 및 활동 인프라가 아파트 지역에 비해 부족하여 이에 대한 보완을 요한다. 아파트 지역은 계획 단계에서 놀이터 및 아동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 단지 내 놀이터가 있고 놀이터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있어서 아동들은 이러한 공간을 재미있게 경험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저층주거지는 놀이터까지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근린 내 이용 가능한 아동의 신체활동 공간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저층주거지 아동들은 학교운동장, 집 마당, 뒷산 등의 공간을 놀이 장소로 많이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장소는 임시적인 방식으로 활용되며, 또래와의 지속적 만남과 놀이를 이어갈 수 있는 놀이 전용 공간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둘째, 아동들은 객관적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학교와 지역 환경에 대해 안전하고 좋다고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평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아파트 지역은 저층주거지에 비해 아동을 위한 안전 및 놀이 환경, 도로 여건 등이 객관적으로 양호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저층주거지 아동들 또한 환경 내 위험요소를 언급하기보다는 대체로 만족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아동의 환경 인지는 객관적 진단 방법론에 기반한 근린 환경 진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 학년 간 차이 (1~2학년 및 3~4학년 비교)

첫째, 아동들의 통학로 그림과 살고 싶은 공간에 대한 그림을 살펴보면 저학년에 비해 고학년의 경우 공간 범위를 보다 광범위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학년은 자신이 관심을 두는 장소와 공간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지만 고학년의 경우 전반적인 공간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년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다는 의미보다는 공간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둘째,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교 외에서 학원 등의 이용이 증가하며, 학원의 이용에의 양상도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초등학교 내 방과후 과정과 돌봄 교실의 이용은 공주시 저층주거지(전교생이 46명으로 대부분 학교 내에서 다양한 돌봄 프로그램을 이용함)을 제외하고는 저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학교 외 학원 등의 이용은 고학년에서 일반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학원은 모든 학년에서 이용이 활발하고, 저학년은 줄넘기, 미술, 피아노 등 예체능을 중심으로, 고학년에서는 교과목 학습 위주의 학원 이용이 보편적이었다.

셋째, 고학년 아동의 하교 후 활동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조성의 범위 역시 확대되어야한다. 저학년의 경우 친구들과 학교 놀이터, 집 인근 놀이터에서 놀이한다는 응답이 많은 데 비해, 고학년 아동들은 집에 가기 전 친구와 함께 근린 내 여러 공간을 방문하며 편의점, 문구점 등을 이용하며 간식을 사 먹기도 한다는 응답이 많아 저학년과 차이를 보였다.

06

근린 유형별 돌봄 환경 취약 요인

제1절 돌봄 관련 공간 자원 접근성 격차

1. 분석 방법

가. 대상지 선정

면담에 참여한 25명의 응답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단위 인구밀도와 근린 특성을 고려, 서울시 구로구와 안산시, 충주시와 옥천군을 돌봄 관련 공간 자원 접근성 현황 분석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특히 중밀 유형은 서울, 경기도, 세종시(일부 동), 충북 도시들에서도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특성이 있어,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이 유형 중 인구밀도가 높은 안산시, 인구밀도가 낮은 충주시를 선정하였다. 안산시의 경우, 두 명의 면담 대상자(양육자)가 각각 거주하는 성포동과 일동의 인구 밀도 차이가 상당하여 근린 유형이 각각 '고밀'과 '중밀'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다. 면담 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 유형 특성을 참고하되,'저밀-근거리 통학' 유형은 옥천군의 읍 소재지에서, '저밀-원거리 통학'유형은 충주시의 면 지역에서도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최종적으로 4개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표 6-1〉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분석 대상지 선정

면담참여자 거주 근린 유형	지역-돌봄수급수준	세부지역	읍면동_아동인구	읍면동_전체인구	읍면동_총인구 중 아동 비율	행정구역 면적(㎢)	읍면동_아동인구밀도 (명/㎢)	읍면동_인구밀도 (명/㎢)
고밀	서울 상위	구로구 개봉1동	3,854	33,131	11.6%	1.31	2,942.0	25,290.8
	경기 하위	안산시 성포동	3,148	25,096	12.5%	1.09	2,888.1	23,023.9
중밀	경기 하위	안산시 일동	3,138	23,444	13.4%	2.74	1,145.3	8,556.2
	충북 상위	충주시 칠금동	2,121	13,962	15.2%	5.8	365.7	2,407.2
	충북 상위	충주시 호암동	4,665	22,180	21.0%	14.4	324.0	1,540.3
저밀 -원거리 통학	충북 하위	옥천군 안남면	76	1,355	5.6%	37.8	2.0	35.8

출처: 연구진 작성

나. 분석 방법

1) 돌봄 관련 자원 범위

근린 내 돌봄 관련 주요 자원을 돌봄자원(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와 돌봄보조자원(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야외여가공간(공원 및 놀이터), 학원으로 구분하였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자체마다 차이는 있지만 최소한 오후 6시까지 연속된 돌봄을 제공하는 주요 돌봄 시설로, 학교나 주거지 가까이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시설임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다.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은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니지만, 양육자 면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관리자가 상주하는 공공 생활인프라에서 아이들이 관리자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머물기 기대하는 양육자의 관점을 반영하여 이 시설들을 '돌봄보조자원'으로 분류하였다.

〈표 6-2〉 돌봄자원 접근성 산출 대상 시설

산출 대상 시설 (최근접 시설과의 직선거리)			돌봄과의 연관성
(출발 기준점) 아동의 주요 생활공간	(목적시설) 돌봄관련 자원 및 근린 내 아동 활동 공간		
집 (인구격자 중심점)	① 학교		돌봄자원
	② 학교 밖 돌봄 시설	②-1.지역아동센터	
		②-2.다함께돌봄센터	
	③ 학습 문화시설	③-1 공공도서관	돌봄보조자원
		③-2 작은도서관	
	④ 공공체육시설		
	⑤ 공원+놀이시설		여가자원
	⑥ 학원		
초등학교 (학교 건물 중심점)	① (인근에 위치한 다른) 학교		돌봄자원
	② 학교 밖 돌봄 시설	②-1.지역아동센터	
		②-2.다함께돌봄센터	
	③ 학습 문화시설	③-1 공공도서관	돌봄보조자원
		③-2 작은도서관	
	④ 공공체육시설		
	⑤ 공원+놀이시설		여가자원
	⑥ 학원		

출처: 연구진 작성

공원과 놀이시설은 상주하는 관리자가 없다는 점에서 '돌봄보조자원'으로 분류하기는 어렵지만, 이곳에 동행한 양육자 또는 이 장소에 머물거나 지나가는 지역 주민의 감시(자연 감시 포함)를 통해 아이들이 일정 수준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 보고 돌봄 관련 자원에 포함하였다.

2) 접근성 산출 방식

아동 인구가 1명 이상 거주하는 100mx100m 격자의 중심점과 초등학교 건물의 중심점을 각각 기준점으로 설정한 후 돌봄 유형의 자원 가운데 각 유형별 자원 중 가장 가까운 시설로의 직선거리를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학교 밖 돌봄시설'의 경우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를 한 범주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이 두 종류의 시설 가운데서 학교 중심점 및 인구격자 중심점에서 가장 가까운 한 시설과의 최단거리를 각각 산출하는 방식이다.

3) 접근성 등급 구분 및 시각화 방식

인구격자별 돌봄관련 자원 접근성 등급을 구분하고, 각 인구격자의 속성(주거지에서 돌봄시설로의 접근성 등급, 초등학교에서 학교 밖 돌봄 자원으로의 접근성 등급)에 색상을 부여하였다. 접근성 분석 결과를 등급화하는 기준값은 아동의 10분 내 보행 거리를 고려하여 400m를 기준으로 하고, 200m와 800m로 세분하여 등급을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해당 인구격자의 중심에서 반경 400m이내에서 학교 외 돌봄시설이 1개 이상 있고, 돌봄보조자원(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이 전혀 없으면 이 인구 격자는 〈인구 격자-돌봄자원 접근성〉에서 2등급에 해당한다. 또 이 인구 격자가 배정된 초등학교 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밖 돌봄 자원(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까지의 거리가 600m 거리라고 가정하면,[64] 이 인구 격자의 〈초등학교-학교 밖 돌봄 자원 접근성〉은 400-800m사이에 있으므로 3등급에 해당한다(표 6-3).

돌봄자원 접근성 등급을 격자 단위로 시각화한 도면에서, 인구격자의 색이 '온색에 가까울수록(붉은 색에 가까울수록)' 학교에서 학교 밖 돌봄 자원으로의 접근성이 나쁜 학구에 위치하며, '색이 진할수록' 집 주변에 돌봄 자원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64) 학교 밖 돌봄 자원인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둘 중 학교 건물 중심점에서 더 가까운 시설까지의 직선거리로 계산하였다.

4) 돌봄자원 접근성 등급 및 취약 유형 설정

본 연구는 아동의 독립적인 이동과 근린 내 다양한 목적 시설 이용은 아동이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시간의 돌봄 공백을 보다 건강한 활동으로 채울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돌봄 관련 자원의 접근성 가운데 돌봄 자원으로의 근접성(거리)와 돌봄 관련 자원들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인구 격자 단위의 돌봄 부족 유형을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먼저 '돌봄자원 접근성 취약' 유형은 '인구 격자-돌봄접근성'이 3, 4등급인 동시에 '초등학교-학교 밖 돌봄 자원 접근성'이 3, 4등급에 해당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이 그룹은 학교 반경 400m 내에 온종일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자원이 없어서, 이 곳에 거주하는 아동의 양육자가 방과 후의 양육을 전담할 수 없고 학교가 전일제 돌봄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돌봄 시설로의 장거리 이동, 또는 다종 시설의 결합 이용으로 인한 시설간 이동이 불가피한 곳이다. 400m 이상의 이동이 어려운 저학년의 경우 이동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며, 고학년이라도 보행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동이 어려울 수 있다.

〈표 6-3〉 격자 단위 돌봄 자원 접근성 등급 및 취약 유형 설정

				〈초등학교-학교 밖 돌봄 자원 접근성〉			
				200m 이내 있음	200-400m 사이에 있음	400-800m 사이에 있음	800m 밖에 있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인구 격자- 돌봄자원 접근성〉							
격자 중심 반경 400m 이내 자원 유무	〈학교 밖 돌봄자원〉 없음	돌봄보조자원 없음	4등급				
		돌봄보조자원 1개 이상 있음	3등급				
	〈학교 밖 돌봄자원〉 1개 이상 있음	돌봄보조자원 없음	2등급				
		돌봄보조자원 1개 이상 있음	1등급				

돌봄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 / 돌봄보조자원 부족 격자 / 돌봄 자원 이중 취약 격자

* 학교밖 돌봄 자원: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 돌봄보조자원: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출처: 연구진 작성

두 번째로 '돌봄보조자원 다양성 부족' 유형은 인구 격자 중심으로부터 반경 400m 이내에 돌봄보조자원(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인구격자- 돌봄자원 접근성'이 2등급인 경우와 4등급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집 주변 400m 이내에 독립적 이동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공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은, 학교 돌봄이 종료된 시간 이후의 돌봄이 구조화된 활동(학원 등)으로 채워지거나 장거리의 이동을 요구하는 외부 시설 이용, 또는 양육자의 돌봄으로 채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돌봄자원 이중 취약' 유형은 이상의 두 유형에 중복 해당하는 유형으로, 학교와 집 주변의 돌봄 자원, 집 주변의 돌봄 자원 및 보조 자원이 모두 부족한 격자를 의미한다.

5) 자료 출처

접근성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공공데이터로 공개된 최신 자료를 활용하였다. 100m격자 단위의 아동 인구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통계지도 중 100m격자 단위 무손실 자료[65]를 별도 구득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6-4〉 접근성 분석 활용 자료 출처

구 분		출 처
초등학생 아동 인구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인구) 무손실자료 (2023년 10월 기준)
시설	학교	학구도 안내서비스 (https://schoolzone.emac.kr/publicData/dataInfo.do)
	돌봄센터	보건복지부_이역아동센터 현황 다함께돌봄사업 정부21/돌봄시설등위치찾기(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https://www.gov.kr/portal/mapGis)
	도서관	우리동네키움포털/서울시
	학원	전국학원및교습소표준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96277/standard.do)
	공공체육시설	공공데이터포털: 서울시공공체육시설현황 경기도_안산시_공공체육시설정보 충청북도_공공체육시설현황
	공원	전국도시공원정보표준데이터 서울시주요공원형황/열린데이터광장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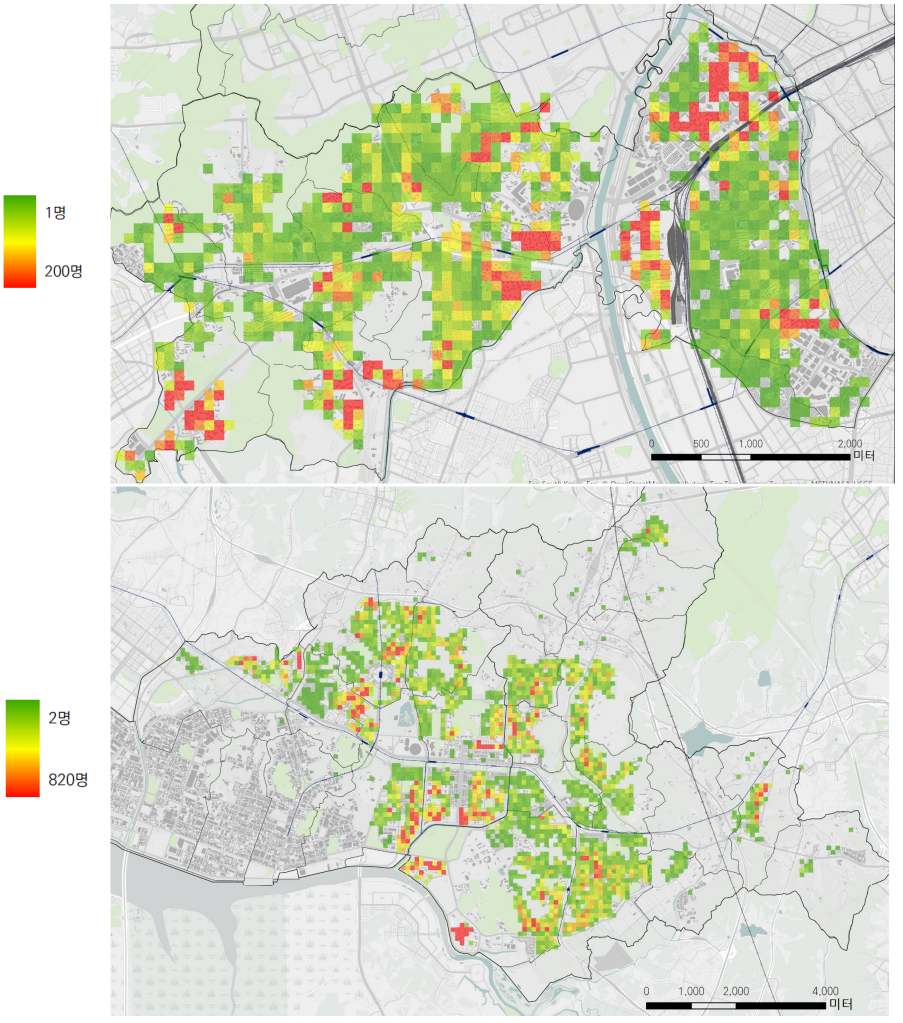
65) 현재 공공에 개방된 국토통계지도 공공데이터의 인구 격자는 5인 이하 인구가 거주하는 격자 정보를 삭제한 자료임

2. 접근성 현황 분석 결과

가. 지자체 단위 현황

1) 초등학생 인구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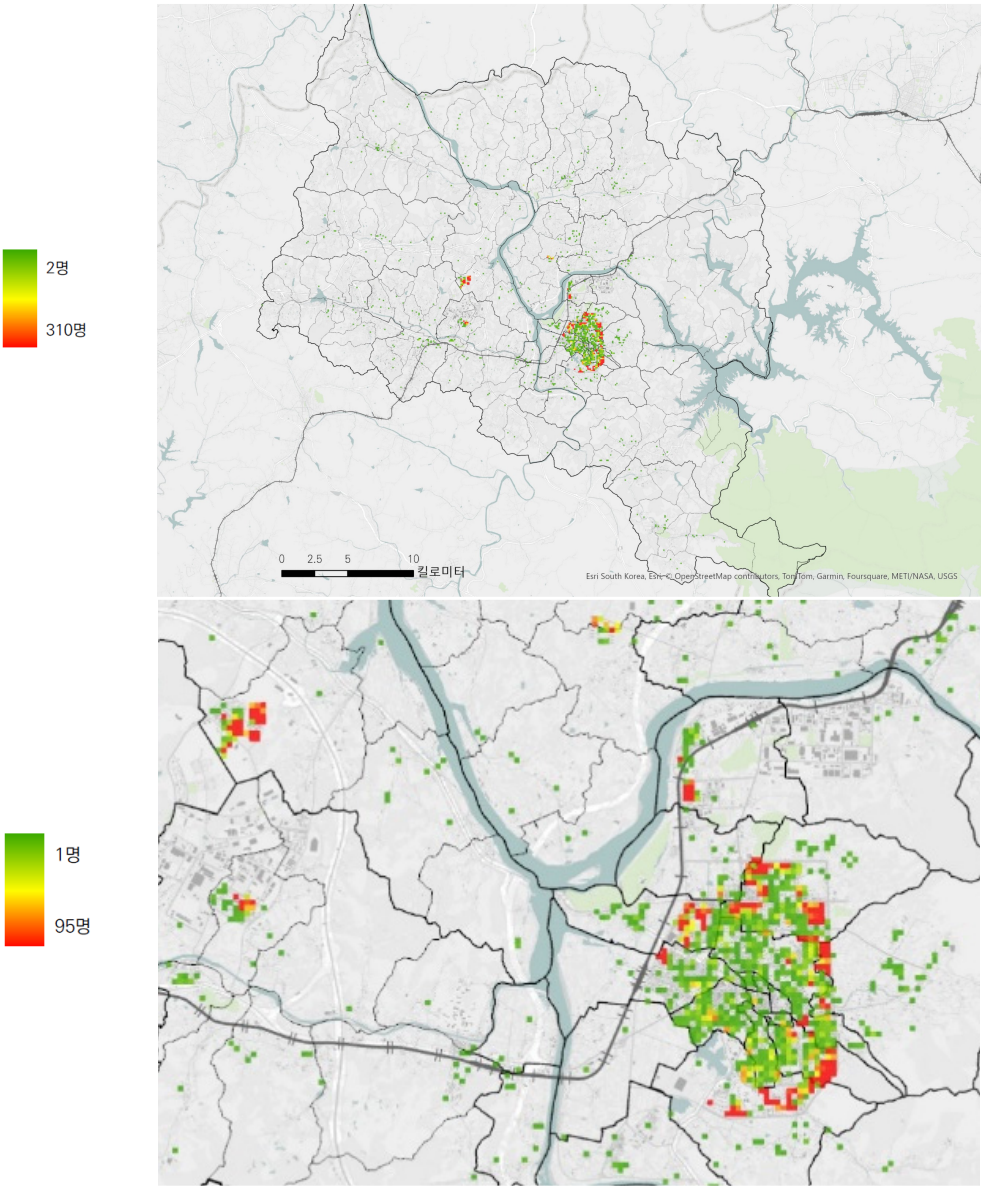
서울시 구로구와 안산시는 행정구역 중 구릉지와 공단지역을 제외한 영역 전체에 인구 격자가 분포하는 가운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초등학생 인구가 밀집된 격자가 관찰된다.[66]



[그림 6-1] 구로구(상)와 안산시(하)의 아동 인구 분포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66) 안산시 행정구역 중 대부도 등 도서지역을 제외하고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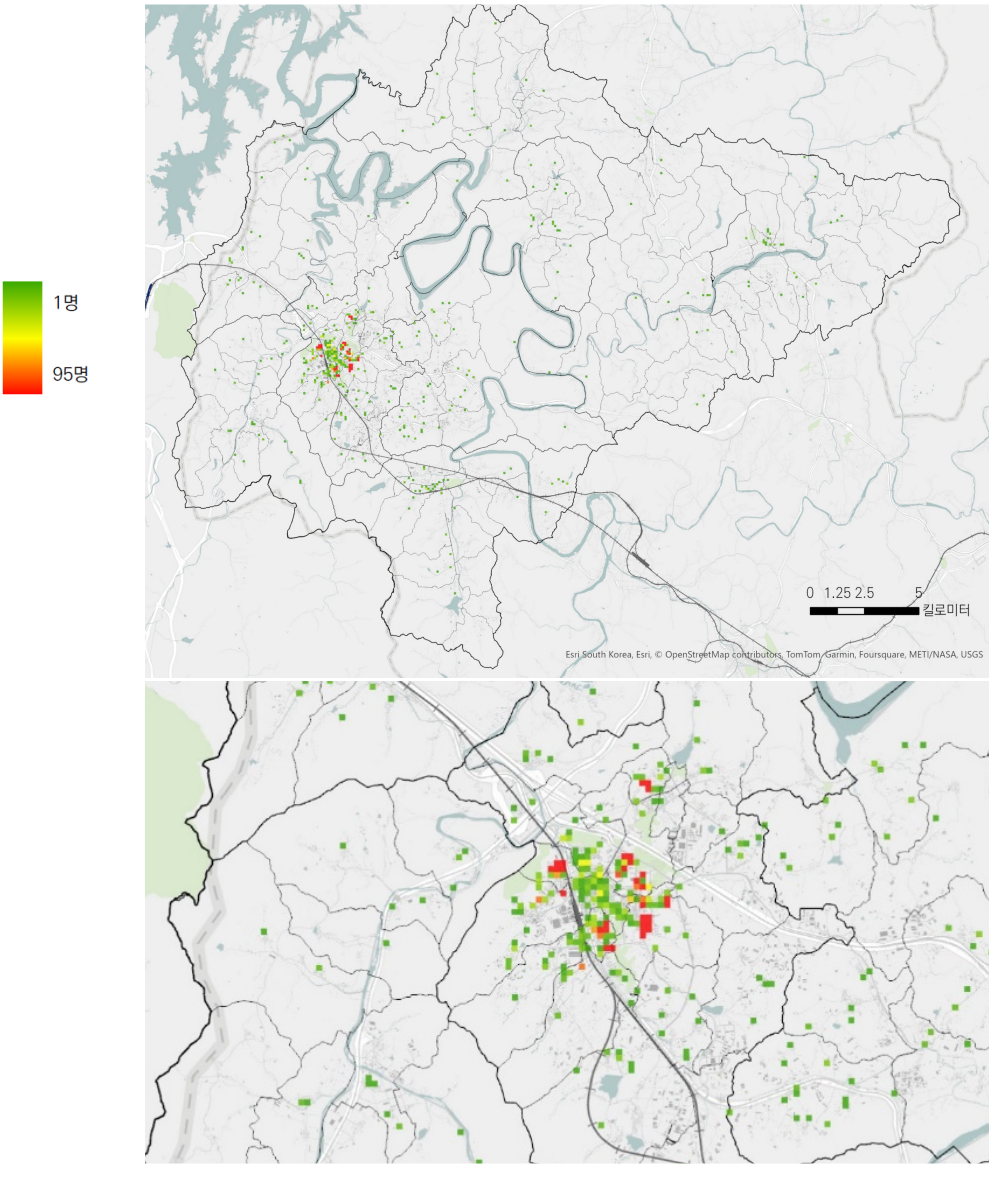
충주시는 중심의 동 지역에 아동 인구 격자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밀도가 높은 반면, 읍·면 지역에는 아동 인구 격자가 산재하고 밀도도 낮아 동 지역과 대조되며,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보인다. 기존의 저층주거지가 주를 이루는 구도심 시가지보다 2000년대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외곽지역 및 서충주신도시에서 아동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2] 충주시의 아동 인구 분포 (상: 전체 행정구역, 하: 동 지역 확대 자료)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옥천군은 군청이 소재한 옥천읍 일대를 중심으로 아동 인구가 집중 분포하며, 면 지역에서는 인구 격자가 분산된 형태로 입지한다. 충주시 동 지역과 마찬가지로 옥천읍에서도 아파트 단지에서 아동 인구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아동 인구가 밀집한 공간적 범위와 수 자체가 충주시보다 훨씬 적어 두 지역의 인구 규모 차이를 보여준다.



[그림 6-3] 옥천군의 아동 인구 분포 (상: 전체 행정구역, 하: 읍 지역 확대 자료)

출처: 국토지리정보원 국토통계지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2)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아동 인구 격자의 중심점으로부터 보행권 기준에 해당하는 400m·800m[67]반경 이내에 위치한 돌봄 관련 자원이 입지하는 격자의 비율을 기초지차체 단위 및 읍면동 단위로 산출하였다(표 6-5). 돌봄 관련 자원을 포함하는 각종 시설 가운데 인구 격자 보행권에 입지하는 비율이 높은 시설은 학교, 공원 및 놀이터, 학원이다. 다만 학원의 경우 도시지역(구로구, 안산시, 충주시 동 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입지 비율이 매우 크다. 학교는 구로구에서 400m이내 입지하는 비율이 54%이며 안산시와 충주시 동 지역에서 20%대에 이르나 충주시의 읍·면 지역 및 옥천군 읍·면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현저히 떨어져 4.2~8.2% 범위의 비율을 보인다.

보행권 기준을 800m로 확장하여 시설의 값을 산출할 경우, 반경 내 시설이 입지하는 격자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지만 여전히 충주시와 옥천군의 면 지역에서는 88% 이상의 격자가 학교에 가려면 800m 이상을 걸어가야 하는 여건이다.[68]

〈표 6-5〉 인구격자 보행권에 시설이 1개 이상 입지하는 격자의 비율

단위: %

	구분		학교	돌봄 자원		돌봄보조자원			공원 및 놀이터	학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공 체육시설		
400m 반경	구로구		**53.5**	42.1	40.5	25.0	**72.9**	34.4	**96.5**	**85.8**
	안산시		29.2	9.3	3.9	7.8	27.8	16.7	45.6	37.2
	충주시		9.1	1.3	7.7	2.0	5.7	3.3	13.4	9.3
		동	26.1	6.1	27.3	6.6	21.0	9.9	41.8	37.8
		읍	5.0	0.0	7.0	2.4	4.7	5.1	12.2	0.1
		면	4.2	0.0	1.7	0.5	1.0	1.0	4.6	1.3
	옥천군		5.1	0.9	0.6	1.1	2.8	2.0	3.9	3.3
		읍	8.3	4.2	2.2	5.3	4.0	7.6	14.7	15.9
		면	4.2	0.0	0.2	0.0	2.4	0.6	1.0	0.0
800m 반경	구로구		**93.9**	**92.5**	**75.7**	**65.0**	**99.7**	79.8	**100.0**	**99.4**
	안산시		**57.2**	26.9	13.2	28.7	49.8	48.6	**60.0**	**56.1**
	충주시		22.3	5.0	16.7	6.6	14.2	10.9	22.5	14.2
		동	**54.0**	22.5	**54.7**	20.9	**51.2**	31.7	**60.0**	**55.8**
		읍	16.4	0.0	13.6	9.9	13.9	14.9	25.9	0.1
		면	12.9	0.0	5.1	1.7	2.7	3.9	10.4	2.6
	옥천군		16.3	4.1	3.6	3.2	10.9	5.4	10.1	5.6
		읍	30.4	19.3	9.9	15.3	21.8	20.7	35.4	26.8
		면	12.6	0.0	2.0	0.0	7.9	1.3	3.4	0.0

출처: 시설 위치데이터의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한 결과값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67) 400m는 초등학생의 5-10분 범위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하였다. 성인의 경우 1km 이상 보행 거리를 동네에서의 일상적 목적 보행 범위를 벗어나는 '확장 보행'으로 간주하는데(최이명, 2013. p.22), 본 연구는 아동의 보행 능력을 고려하여 일상적 목적 보행의 최대 범위를 800m로 설정하였다.

68) 인구격자 중심에서 산출한 직선거리이므로 격자 가장자리에 거주하는 아동은 실제 학교까지의 직선거리에 차이가 나지만, 실제 경로(네트워크 거리)는 통상 1.2~1.5배까지 증가하므로 최소거리 800m기준을 적용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학교에서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거리 평균값을 산출하였다(표6-6). 구로구는 대부분의 시설이 800m 전후 범위 내에서 1개 이상 입지하며, 작은도서관과 공원 및 놀이터, 학원은 학교에서 400m 이내에 입지하는 시설이 있다. 안산시의 학교들은 구로구보다 학교 주변 시설 접근성(최단 시설 거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도시 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공공체육시설, 공원 및 놀이터, 학원 등이 800m 범위에 있다. 충주시와 옥천군에서는 충주시 동 지역의 일부 시설들(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공원 및 놀이터, 학원), 옥천군 읍 지역의 공원 및 놀이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800m 이내에 입지하는 시설이 없어 돌봄 자원을 포함한 각종 생활인프라로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옥천군 면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작은도서관까지의 최단거리 평균값이 2.2km로, 다른 시설들에 비해 상당히 가까이에 위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표 6-6〉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시설까지의 거리 평균

(단위: m)

구분		인근 학교	돌봄 자원		돌봄보조자원			공원 및 놀이터	학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	공공 도서관	작은 도서관	공공 체육시설		
구로구		**573**	**365**	**525**	833	**248**	**497**	**176**	**165**
안산시		**767**	1,029	3,531	812	1,290	**676**	**557**	**276**
충주시		2,359	6,626	2,031	3,789	3,031	2,581	1,397	3,363
	동	989	1,298	**564**	1,416	**682**	955	**349**	**579**
	읍	1,977	12,090	1,526	1,472	1,526	1,526	1,635	3,907
	면	3,695	11,051	3,473	6,288	5,416	4,234	2,361	5,931
옥천군		3,703	7,433	7,020	7,738	1,947	7,083	5,598	7,295
	읍	1,479	1,167	1,256	1,288	1,205	979	**725**	828
	면	4,593	9,940	9,325	10,318	2,244	9,524	7,547	9,881

출처: 시설 위치데이터의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한 결과값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표 6-7〉은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등급별로 대상지의 초등학생 인구 수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구로구(7.0%), 안산시(6.3%), 옥천군 읍 지역(7.2%), 충주시 동 지역(4.7%) 순으로 높고, 충주시의 읍·면 지역과 옥천군 면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0.1% 수준으로 매우 낮다.

돌봄보조자원 부족 격자(표 6-7의 굵은 숫자 표시)는 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는데, 구로구의 경우 75% 이상, 안산시의 경우 68% 정도가 돌봄보조자원 부족 격자에 거주하고 있다. 농촌에 해당하는 충주시와 옥천군의 읍·면 가운데 옥천군 읍 지역은 돌봄부족자원 격자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40%를 상회하여 충주시 동 지역(45%)을 이어 상당한 비율을 보인다. 전체 지역에서 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4등급인 격자[69]에 거주하는 아동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9) 학교 반경 800m 내에 '학교 밖 돌봄자원'인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지역아동센터가 한 곳도 없는 격자를 의미한다.

한편 돌봄 관련 접근성이 취약한 격자의 공간적 분포와 인구밀도를 살펴본 결과(표 6-8), 평균 통학거리가 대체로 800m 이내 범위로 나타나 도보 통학이 가능한 범위에서도 돌봄 관련 자원의 접근성은 부족한 여건임을 보여준다.

〈표 6-7〉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등급별 초등학생 인구 및 비율

학교 주변 돌봄자원 접근성 등급 / 인구격자 중심 접근성 등급			초등학생 인구 (명)					초등학생 인구 비율(%)				
			4	3	2	1	전체	4	3	2	1	전체
구로구		4	-	1,077	4,441	3,832	9,350	-	6.69	27.60	23.82	58.11
		3	-	48	886	174	1,108	-	0.30	5.51	1.08	6.89
		2	-	678	2,444	1,268	4,390	-	4.21	15.19	7.88	27.29
		1	-	4	634	603	1,241	-	0.02	3.94	3.75	7.71
		총합	-	1,807	8,405	5,877	16,089	-	11.23	52.24	36.53	100.00
안산시		4	59	1,447	2,481	958	4,945	0.21	5.09	8.72	3.37	17.39
		3	11	329	468	415	1,223	0.04	1.16	1.65	1.46	4.30
		2	6,740	4,802	2,384	460	14,386	23.70	16.88	8.38	1.62	50.58
		1	4,650	1,756	1,232	249	7,887	16.35	6.17	4.33	0.88	27.73
		총합	11,460	8,334	6,565	2,082	28,441	40.29	29.30	23.08	7.32	100.00
충주시	동	4	1	311	1,950	908	3,170	0.01	3.20	20.07	9.34	32.62
		3	-	143	790	684	1,617	-	1.47	8.13	7.04	16.64
		2	2	207	784	234	1,227	0.02	2.13	8.07	2.41	12.63
		1	61	238	1,040	228	1,567	0.63	2.45	10.70	2.35	16.13
		소계	64	899	4,564	2,054	7,581	0.66	9.25	46.97	21.14	78.02
	읍	4	-	6	-	-	6		0.06	-	-	0.06
		3	-	7	-	-	7		0.07	-	-	0.07
		2	-	2	-	-	2		0.02	-	-	0.02
		1	19	42	-	-	61	0.20	0.43	-	-	0.63
		소계	19	57	-	-	76	0.20	0.59	-	-	0.78
	면	4	-	6	-	9	15		0.06	-	0.09	0.15
		3	-	4	-	11	15		0.04	-	0.11	0.15
		2	360	-	-	3	363	3.70		-	0.03	3.74
		1	1,452	42	5	168	1,667	14.94	0.43	0.05	1.73	17.16
		소계	1,812	52	5	191	2,060	18.65	0.54	0.05	1.97	21.20
	총합		1,895	1,008	4,569	2,245	9,717	19.50	10.37	47.02	23.10	100.00
옥천군	읍	4	-	114	191	-	305	-	6.93	11.60	-	18.53
		3	-	21	2	-	23	-	1.28	0.12	-	1.40
		2	130	109	130	-	369	7.90	6.62	7.90	-	22.42
		1	196	422	40	-	658	11.91	25.64	2.43	-	39.98
		소계	326	666	363	-	1,355	19.81	40.46	22.05	-	82.32
	면	4	-	1	-	-	1	-	0.06	-	-	0.06
		3	-	-	-	-	-	-	-	-	-	0.00
		2	6	5	-	-	11	0.36	0.30	-	-	0.67
		1	226	53	-	-	279	13.73	3.22	-	-	16.95
		소계	232	59	-	-	291	14.09	3.58	-	-	17.68
	총합		558	725	363	-	1,646	33.90	44.05	22.05	-	100.00

돌봄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 | **BOLD** 돌봄보조자원 부족 격자 | **BOLD** 돌봄 자원 이중 취약 격자

출처: 시설 위치데이터의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한 결과값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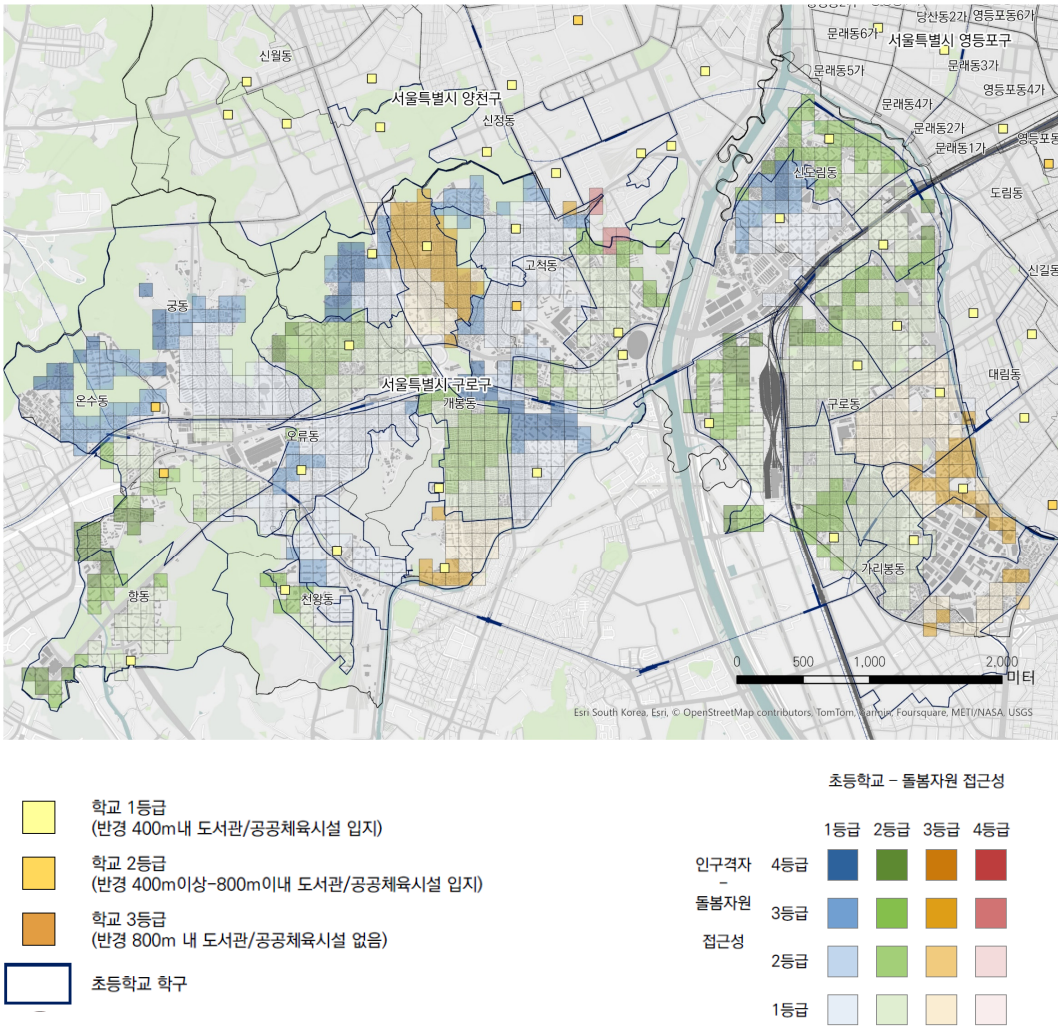
〈표 6-8〉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등급별 평균 아동 수 및 학교까지의 거리

인구격자 중심 접근성 등급			인구격자 수 (개)					인구격자별 평균 아동 수 (명)					학교까지의 거리 평균 (m)				
학교 주변 돌봄자원 접근성 등급			4	3	2	1	전체	4	3	2	1	전체	4	3	2	1	전체
구로구		4	-	**96**	**314**	**226**	**636**	-	**11.2**	**14.1**	**17.0**	**14.7**	-	**264.4**	**371.5**	**364.7**	**352.9**
		3	-	3	67	12	82	-	16.0	13.2	14.5	13.5	-	333.1	479.1	291.7	446.3
		2	-	**63**	**110**	**95**	**268**	-	**10.8**	**22.2**	**13.3**	**16.4**	-	**290.4**	**444.4**	**573.4**	**453.9**
		1	-	1	36	45	82	-	4.0	17.6	13.4	15.1	-	149.8	659.1	652.2	649.1
	총합		-	163	527	378	1,068	-	11.1	15.9	15.5	15.1	-	275.0	420.0	449.0	408.2
안산시		4	**3**	**113**	**197**	**79**	**392**	**19.7**	**12.8**	**12.6**	**12.1**	**12.6**	**286.1**	**346.2**	**321.2**	**281.1**	**320.1**
		3	2	35	34	45	116	5.5	9.4	13.8	9.2	10.5	454.6	513.4	378.9	355.6	411.7
		2	**529**	**344**	**194**	**55**	**1,122**	**12.7**	**14.0**	**12.3**	**8.4**	**12.8**	**419.6**	**341.9**	**423.3**	**451.6**	**398.0**
		1	284	124	125	64	597	16.4	14.2	9.9	3.9	13.2	715.7	513.9	633.7	1,863.0	779.6
	총합		818	616	550	243	2,227	14.0	13.5	11.9	8.6	12.8	522.0	387.1	431.8	750.1	487.3
충주시	동	4	**1**	**67**	**141**	**69**	**278**	**1.0**	**4.6**	**13.8**	**13.2**	**11.4**	**967.7**	**382.5**	**365.8**	**416.9**	**384.7**
		3	-	10	62	86	158	-	14.3	12.7	8.0	10.2	-	294.4	348.8	345.9	343.7
		2	**2**	**43**	**102**	**35**	**182**	**1.0**	**4.8**	**7.7**	**6.7**	**6.7**	**1,123.4**	**416.5**	**615.5**	**660.5**	**582.7**
		1	39	22	70	69	200	1.6	10.8	14.9	3.3	7.8	920.7	529.5	698.9	1,211.9	900.5
		소계	42	142	375	259	818	1.5	6.3	12.2	7.9	9.3	931.4	409.4	493.1	638.0	547.0
	읍	4	-	**5**	-	-	**5**	-	**1.2**	-	-	**1.2**	-	**772.9**	-	-	**772.9**
		3	-	4	-	-	4	-	1.8	-	-	1.8	-	1,317.5	-	-	1,317.5
		2	-	**1**	-	-	**1**	-	**2.0**	-	-	**2.0**	-	**278.9**	-	-	**278.9**
		1	15	24	-	-	39	1.3	1.8	-	-	1.6	1,301.6	1,316.8	-	-	1,310.9
		소계	15	34	-	-	49	1.3	1.7	-	-	1.6	1,301.6	1,206.3	-	-	1,235.5
	면	4	-	**2**	-	**5**	**7**	-	**3.0**	-	**1.8**	**2.1**	-	**798.0**	-	**187.1**	**361.7**
		3	-	3	-	8	11	-	1.3	-	1.4	1.4	-	538.9	-	340.6	394.6
		2	**20**	-	-	**3**	**23**	**18.0**	-	-	**1.0**	**15.8**	**1,283.5**	-	-	**612.7**	**1,196.0**
		1	239	34	-	108	383	6.1	1.2	2.5	1.6	4.4	1,608.9	1,981.2	2,171.0	2,511.3	1,899.4
		소계	259	39	2	124	424	7.0	1.3	2.5	1.5	4.9	1,583.8	1,809.5	2,171.0	2,231.6	1,796.8
	총합		316	215	377	383	1,291	6.0	4.7	12.1	5.9	7.5	1,483.7	789.4	502.0	1,154.0	983.6
옥천군	읍	4	-	**9**	**11**	-	**20**	-	**12.7**	**17.4**	-	**15.3**	-	**623.7**	**401.0**	-	**501.2**
		3	-	6	1	-	7	-	3.5	2.0	-	3.3	-	437.2	271.7	-	413.6
		2	**11**	**19**	**15**	-	**45**	**11.8**	**5.7**	**8.7**	-	**8.2**	**837.8**	**459.0**	**745.4**	-	**647.1**
		1	47	92	9	-	148	4.2	4.6	4.4	-	4.4	1,098.0	1,137.7	1,121.5	-	1,124.1
		소계	58	126	36	-	220	5.6	5.3	10.1	-	6.2	1,048.6	965.2	721.0	-	947.3
	면	4	-	**1**	-	-	**1**	-	**1.0**	-	-	**1.0**	-	**564.7**	-	-	**564.7**
		3	-	-	-	-	-	-	-	-	-	-	-	-	-	-	-
		2	**5**	**3**	-	-	**8**	**1.2**	**1.7**	-	-	**1.4**	**703.5**	**246.7**	-	-	**532.2**
		1	163	35	-	-	198	1.4	1.5	-	-	1.4	2,004.2	1,957.9	-	-	1,996.0
		소계	168	39	-	-	207	1.4	1.5	-	-	1.4	1,965.5	1,790.6	-	-	1,932.5
	총합		226	165	36	-	427	2.5	4.4	10.1	-	3.9	1,730.2	1,160.3	721.0	-	1,424.9

돌봄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 | **BOLD** 돌봄보조자원 부족 격자 | **BOLD** 돌봄 자원 이중 취약 격자

출처: 시설 위치데이터의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한 결과값을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구로구에서는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4등급인 지역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저층주거지보다는 아파트가 건설된 지역에서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높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초등학교 반경 400m내에 도서관(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또는 공공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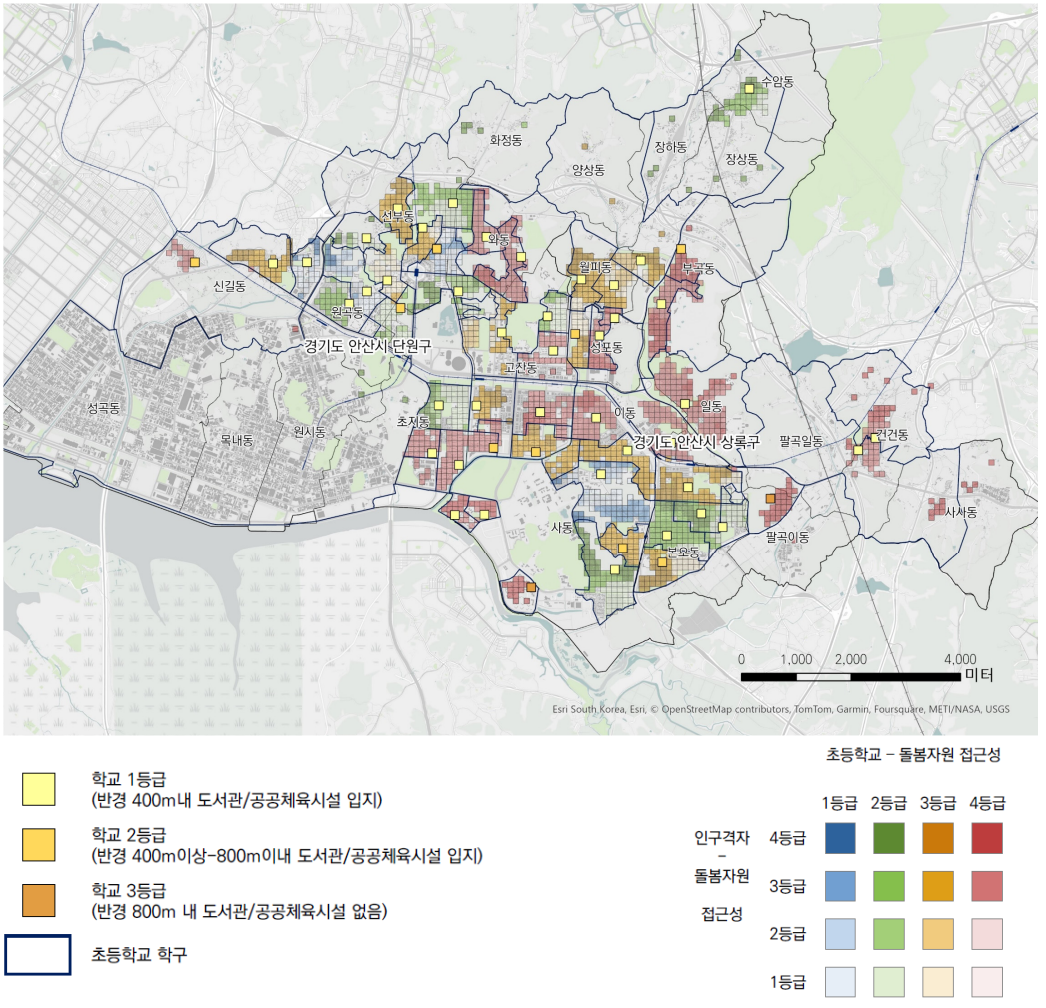


[그림 6-4] 구로구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안산시는 대상지 지자체 4곳 가운데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낮은 4등급(그림6-5의 붉은색 계열) 격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즉 초등학교에서 가까이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 밖 돌봄자원(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이 적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지역 중 대부분은 집-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이 2등급 이상인(1- 2등급) 격자로 양호하며, 집-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이 3-4등급에 해당하는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 5개, 거주하는 아동은 70명 정도이다.

안산시의 초등학교들도 구로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반경 400m 내에 도서관이나 공공체육시설이 입지하고 있어, 학교에서 돌봄보조자원으로의 접근성이 나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림 6-5] 안산시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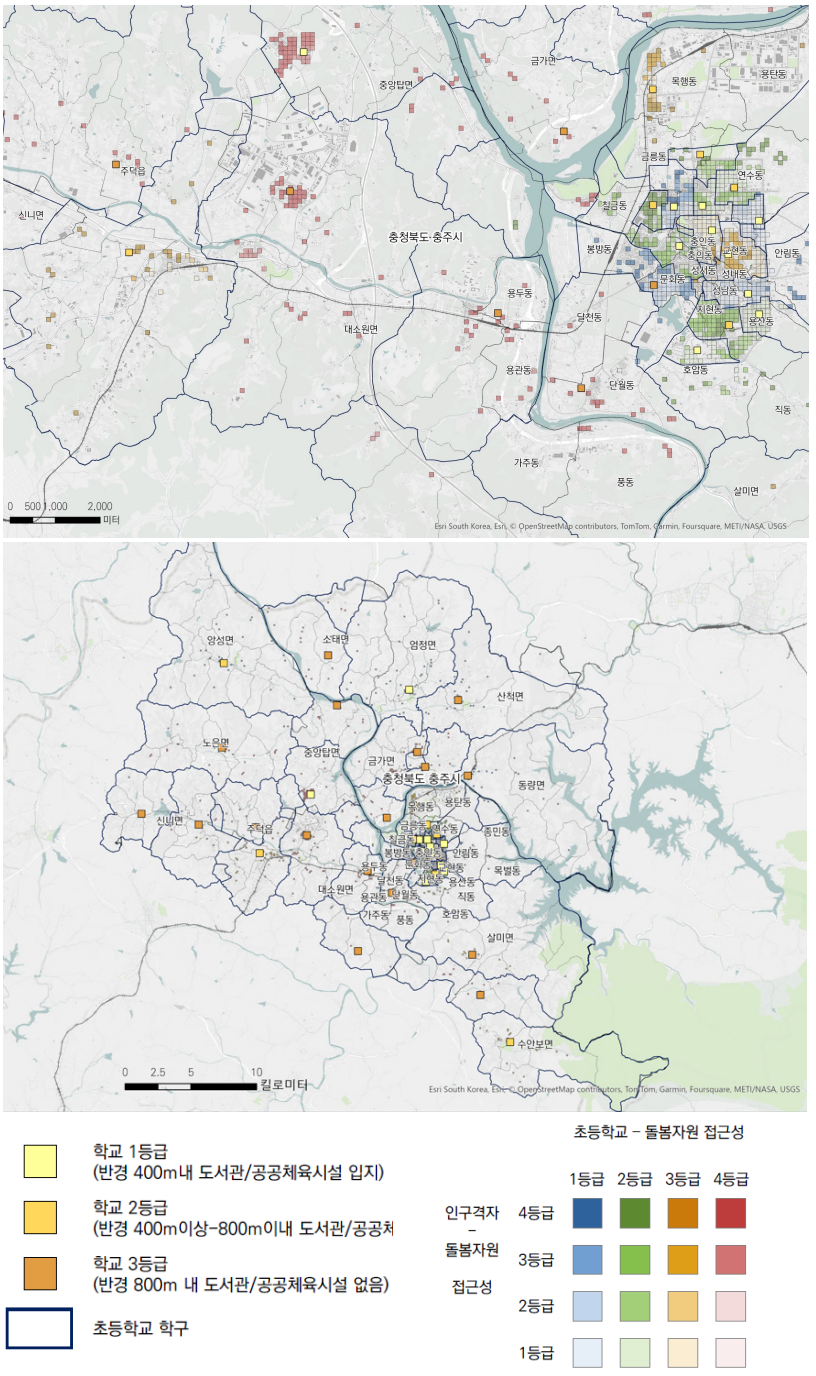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충주시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돌봄 자원 접근성에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동 지역 대상지 가운데서는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높은 1, 2등급(그림 6-6의 초록색, 푸른색 계열) 격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하교 후 400m 이내로 걸어서 갈 수 있는 학교 밖 돌봄자원(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이 있는 학교가 많음을 보여준다. 또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은 아파트 단지가 건설된 충주시 동 지역의 외곽에서 더 높은 등급으로 나타나, 구시가지와 신규 조성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 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반면 충주시 읍 지역과 면 지역은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4등급 격자(붉은색 계열)가 관찰된다. 또한 충주시 읍·면 지역에서는 학교 주변 800m 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나 공공체육시설이 없는 초등학교가 여러 곳 보여 학교에서 돌봄보조자원으로의 접근성이 동 지역에 비해 열악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충주시 동 지역 외곽에 위치하며 아파트가 조성된 지역은, 학교 주변의 돌봄 자원 접근성이 우수한 반면 학교에서 400m 내에 걸어갈 수 있는 돌봄보조자원이 없는 학교도 관찰된다. 이는 아동 인구 밀도는 높으나 돌봄 외의 공공 생활인프라(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의 밀도는 낮은 신규 개발 아파트 밀집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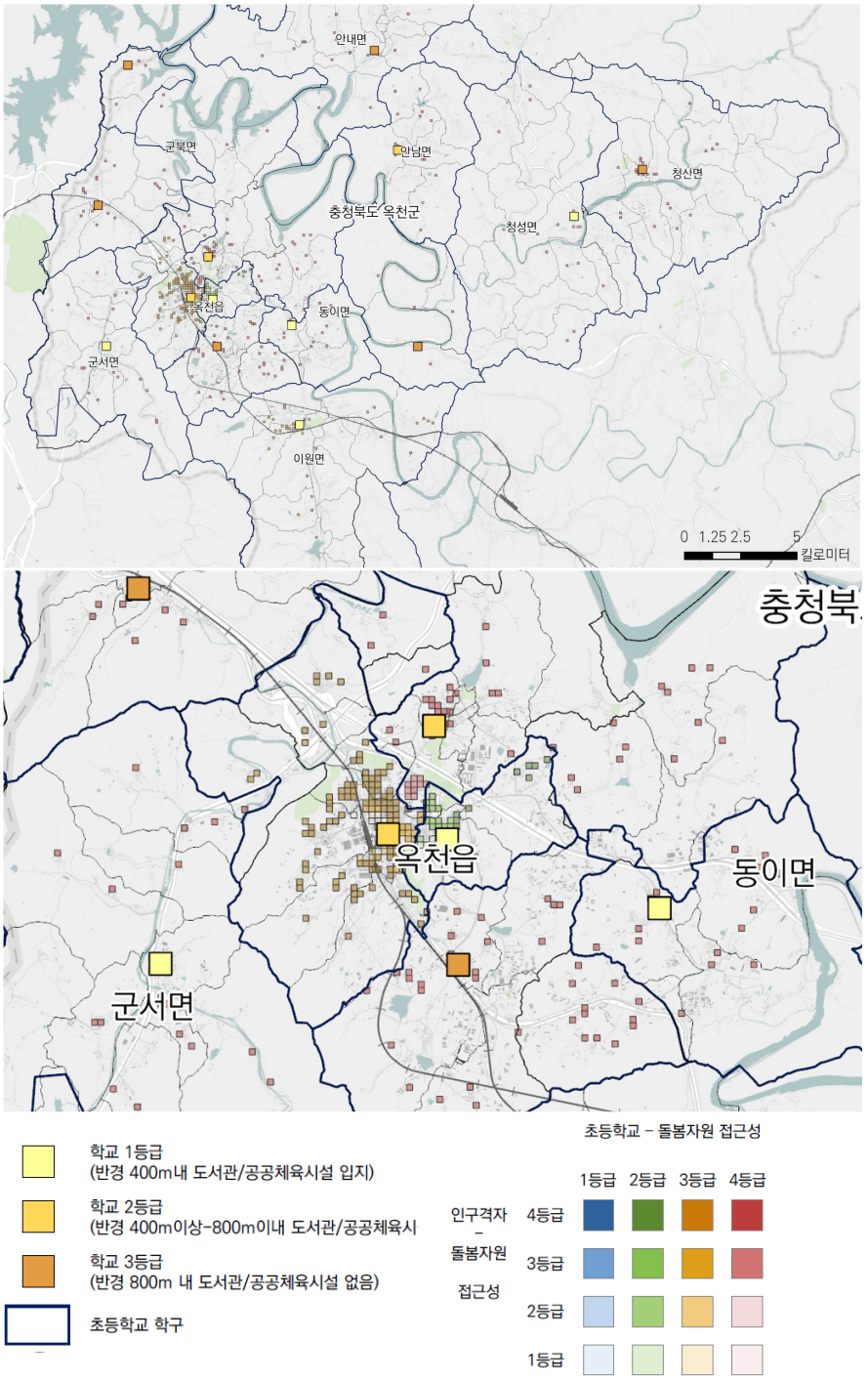
옥천군도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중심에 해당하는 읍 지역의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음을 알 수 있다(그림 6-7). 옥천군의 특징으로, 면 지역 중 일부(동이면, 군서면, 이원면, 청성면 등)은 반경 400m 이내에 도서관이나 공공체육시설이 위치한 초등학교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초등학교의 학구 내 인구 격자들은 모두 집 주변의 돌봄 시설이 부족한 주거지에 해당하여, 집보다는 학교에서 생활인프라에 접근하고 이용하는 것이 보다 원활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면 지역의 아동 인구 격자가 먼 거리에 서로 떨어져 분산되어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주거지보다는 학교를 중심으로 한 방과 후 일과를 구성하고 생활 영역을 형성하는 것은 아동과 또래 집단의 접촉 기회를 늘리고 일상적 활동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보다 유리한 여건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4곳 지자체의 돌봄 관련 자원의 접근성 특성을 살펴보았다. 아동 인구 밀도와 생활인프라 밀도가 가장 높아,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여건의 구로구,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 접근이 가능한 돌봄시설이 부족한 안산시, 도농복합도시로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편차가 매우 큰 충주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편 면 지역의 낮은 생활인프라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학교 주변에 생활인프라가 입지한 비율이 높은 옥천군의 사례는 근린의 인구-생활인프라 밀도와 초등학교 통학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방식, 그리고 아동의 일상 생활을 건강한 활동으로 채워주기 위한 전략이 차별적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그림 6-6] 충주시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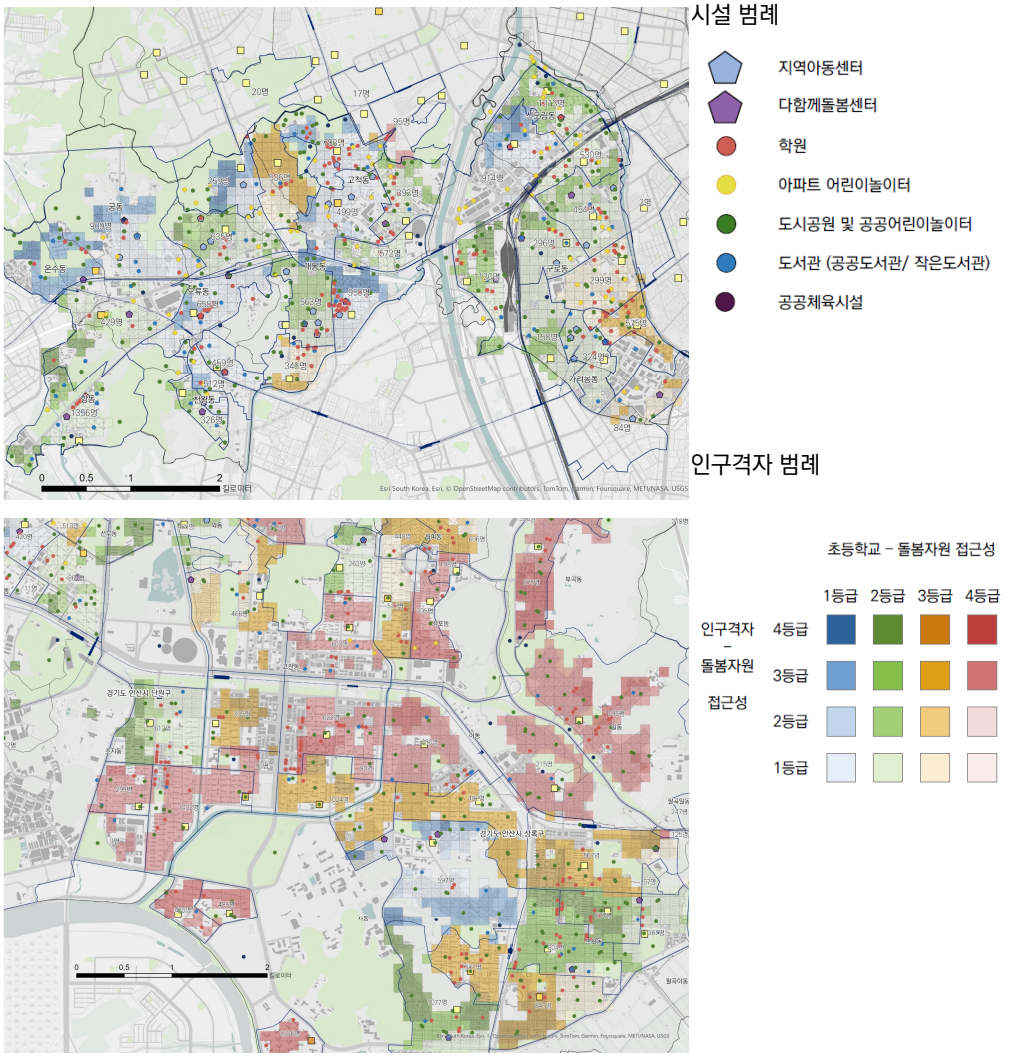


[그림 6-7] 옥천군 초등학교-돌봄시설 접근성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3) 생활인프라 접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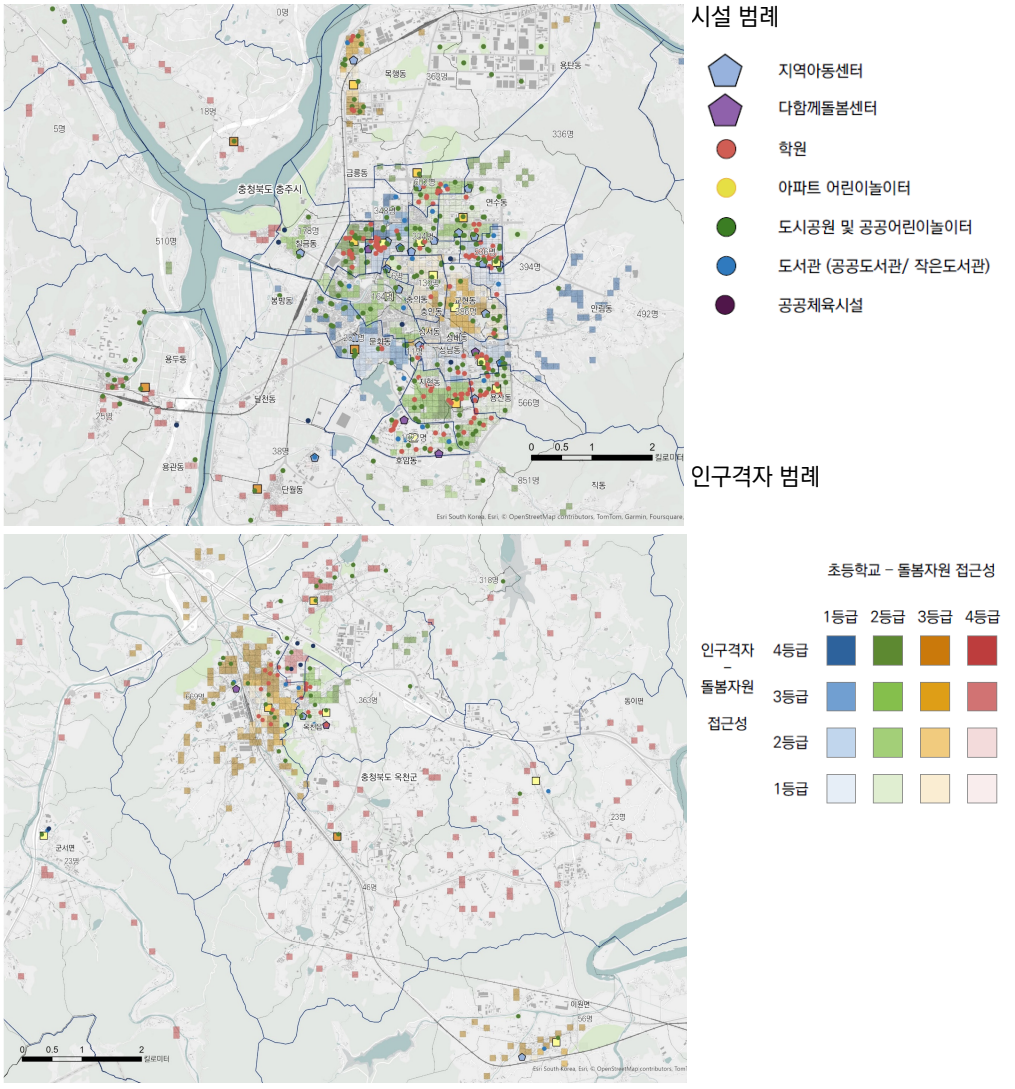
앞서 분석한 돌봄 시설 외에 공공 생활인프라, 학원의 위치를 추가하여 대상지의 생활인프라 현황을 시각화하였다(그림 6-8, 6-9). 동일한 축적에서 비교할 때 구로구의 돌봄시설 및 각종 생활인프라의 밀도가 안산시에 비해 훨씬 조밀하게 입지함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원이나 공공도서관, 체육관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반면 도시공원 및 공공 어린이놀이터, 아파트 어린이놀이터는 주거지 곳곳에 보다 고르게 분포하는 것도 특징이다.



[그림 6-8] 구로구(상)와 안산시(하)의 생활인프라 현황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충주시와 옥천군의 돌봄시설 및 생활인프라 역시 각각 동 지역, 읍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충주시 동 지역에서는 신규 개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외곽 지역에 학원이 밀집하고, 동 지역 내부(구시가지, 저층주거지)에는 학원이 적게 관찰된다. 반면 공공체육시설은 외곽 주거지에는 설치되지 않고, 구시가지에 주로 위치한다. 옥천군은 읍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가 조성되어 있고, 면 지역의 경우 전반적으로 낮은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조성된 초등학교가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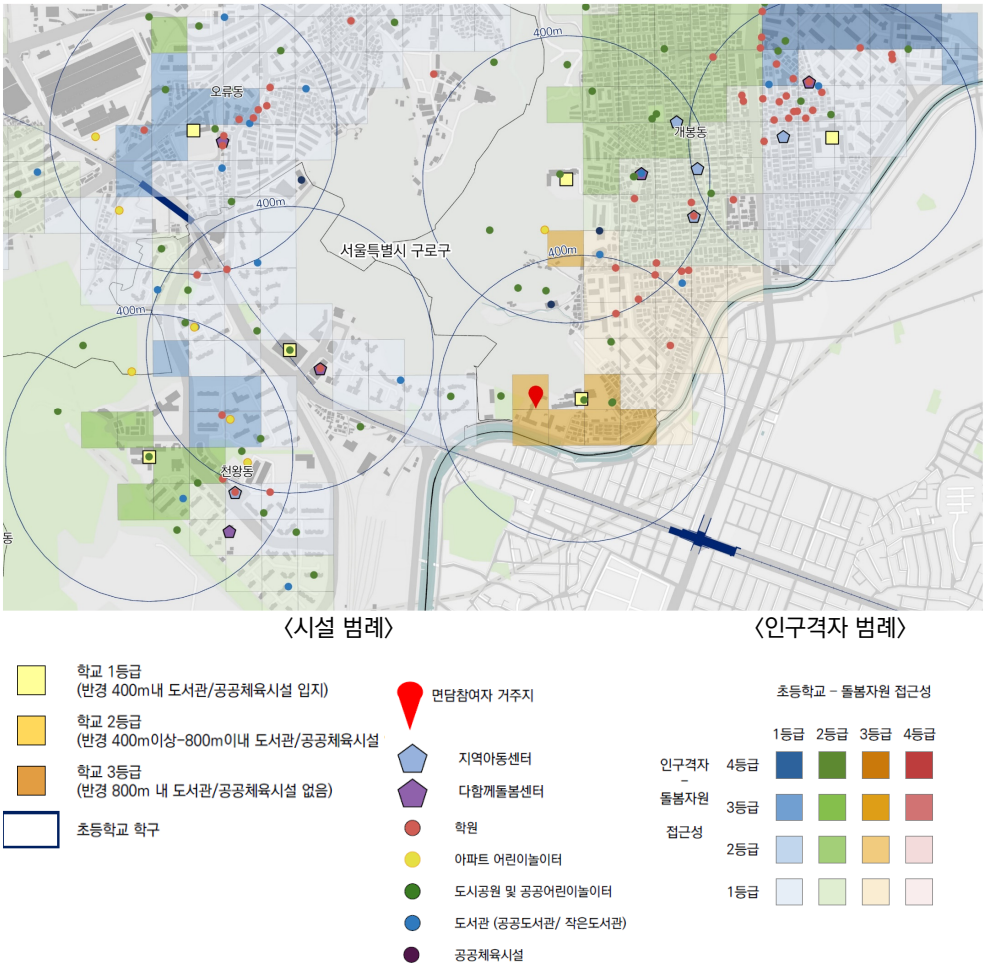
[그림 6-9] 충주시(상)와 옥천군(하)의 생활인프라 현황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나. 면담 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 특성

□ 구로구 개봉1동 (고밀-주거섬)

면담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은 구로구의 경계부 및 소하천으로 단절된 위치에 있고, 인근의 아파트 주거지에 비해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부족한 편이다. 또 주거지에서 학교까지는 도보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있으나, 학교 반경 400m 내에서 학원과 놀이터, 공공생활인프라는 통학로 반대편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근린 주민들의 활동 중심이 면담대상자 아동의 통학로에서 벗어나 있으며 이러한 근린 형태는 아이의 이동 패턴을 주거섬으로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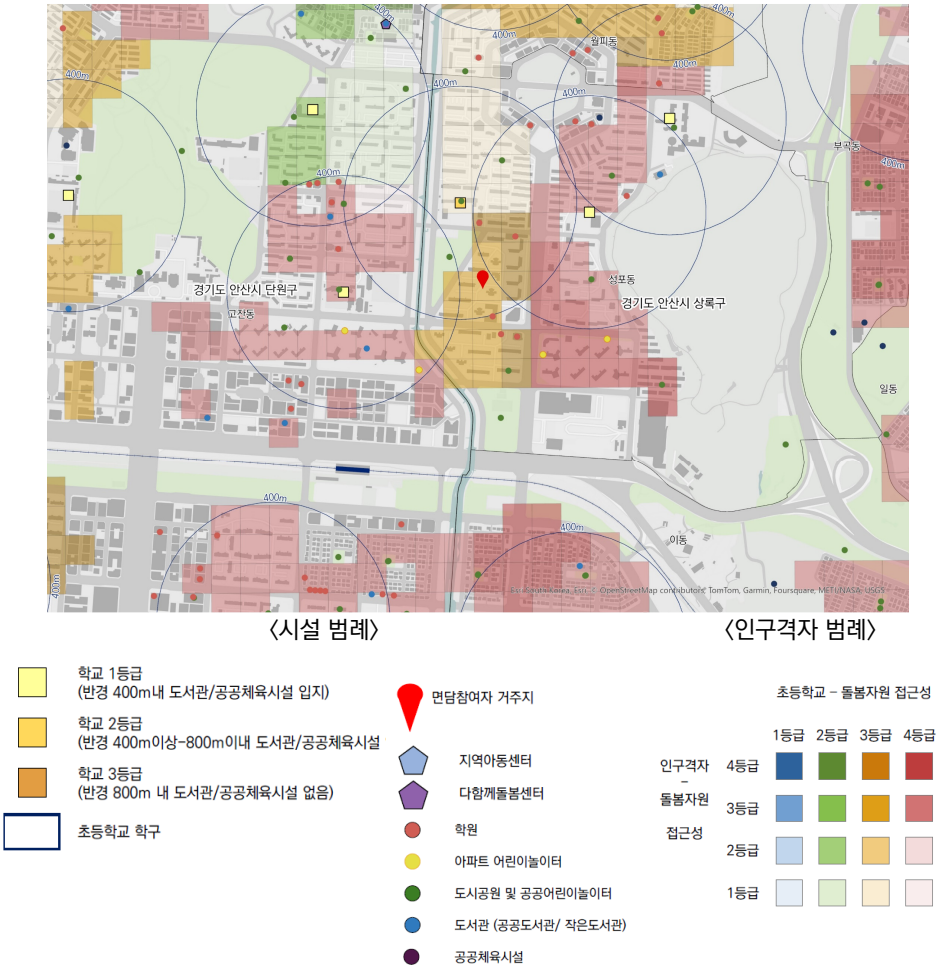


[그림 6-10] 구로구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고밀-주거섬)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 안산시 성포동 (고밀-보행통합형)

면담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은 성포동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부족한 편이지만 보행 범위 내에 생활인프라와 학원이 적절히 위치하고 있다. 주거지에서 학교까지 도보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있으며, 학교 반경 400m 내에도 도보 접근 가능한 도서관과 체육 시설이 입지한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당 아동은 학교와 학원, 놀이터 등을 도보로 이용하여 방과 후의 시간을 보내는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을 보였으며, 형제가 많은 집에서 아동의 개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저녁시간대에 예체능학원에 오래 머무는 특수한 일과 구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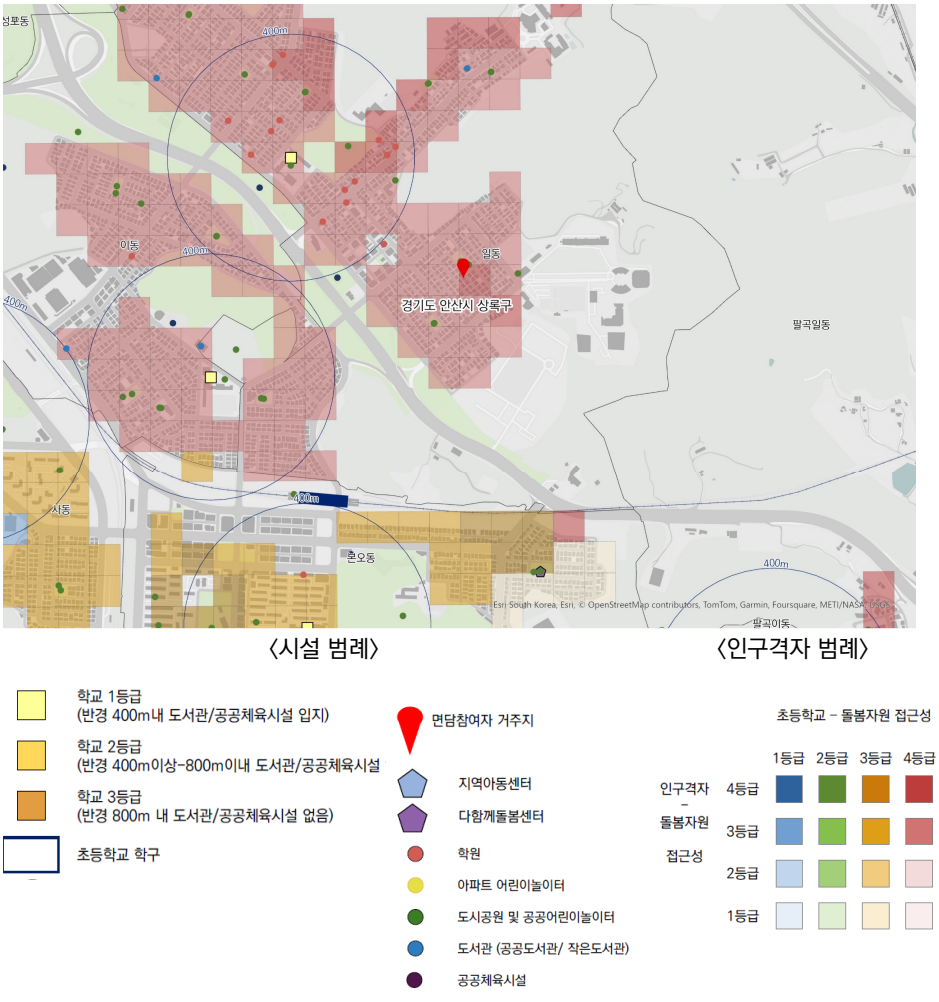


[그림 6-11] 안산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성포동, 고밀-보행통합형)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 안산시 일동 (중밀-외부절충형)

면담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은 단지화된 아파트가 없는 저층 주거지로,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부족한 편이나 학교에서 400m 반경 내에 학원과 공공 놀이터, 공공체육시설을 찾아볼 수 있다. 주거지에서 학교까지 도보 가능한 가까운 거리지만, 주거지 주변에는 소규모의 공공 놀이터를 제외하고 돌봄시설이나 도서관·체육시설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당 아동은 주거지 보행권과 외부의 시설을 혼합하여 이용하는 외부절충형 이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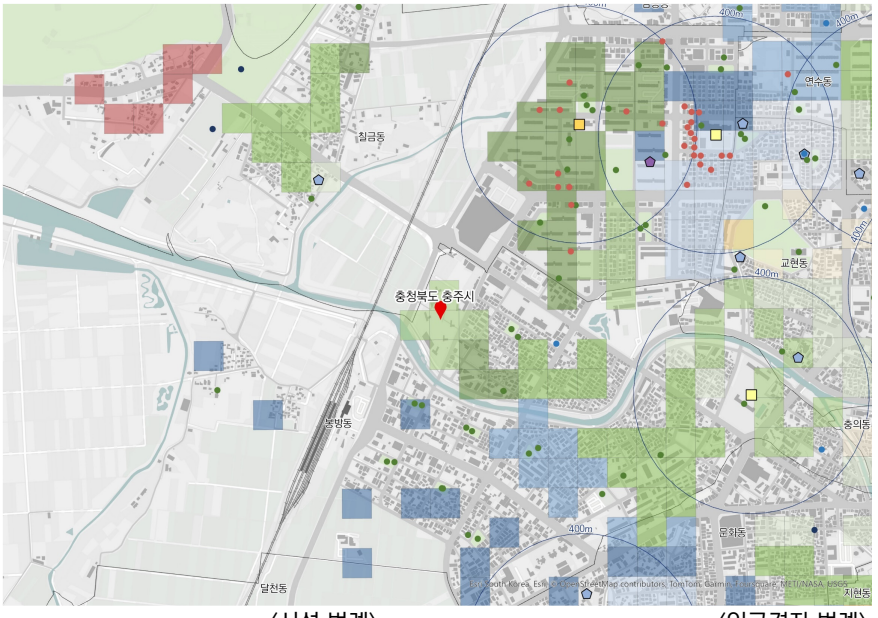


[그림 6-12] 안산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일동, 중밀-외부절충형)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 충주시 칠금동 (중밀-분리형)

면담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은 구시가지에 가까이 건설된 아파트 단지로,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나 학교까지의 거리가 800m에 이르고 집에서 400m 이내에 놀이터를 제외하면 공공 생활인프라와 학원이 거의 없는 여건이다.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저층주거지와 대규모 기반시설(고속버스터미널)이 입지해,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 통상 나타나는 생활인프라와 보행환경의 장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통학로 주변에도 놀이터와 학원 외의 시설이 없어, 아이가 시간을 보낼만한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해당 아동은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차량으로 이동하여 원거리의 공공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리형 이동 패턴을 보인다.



〈시설 범례〉 〈인구격자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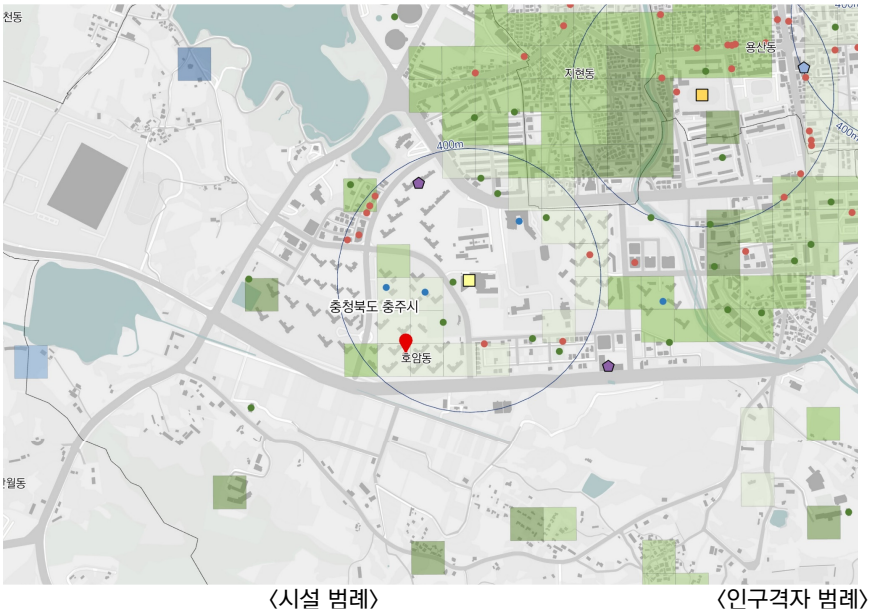


[그림 6-13] 충주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칠금동, 중밀-분리형)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 충주시 호암동 (중밀-외부절충형)

면담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은 구시가지의 외곽에 밀집한 대규모의 신축 아파트 단지 중 하나로,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양호한 편이며 학교까지의 거리 역시 400m 이내로 가까워 도보 통학에 유리하다. 아동 인구 밀도가 높은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으로 과밀학급이라는 특성이 있고,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이 위치하는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로 확인되었다. 이 지역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부재하며, 단지 남단에는 농지가 인접해 아이가 시간을 보낼만한 생활인프라가 부족하다. 이러한 여건에서 아이는 도보거리 내 동네 학원에 다니는 한편 부모의 차량으로 원거리의 공공체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부절충형 이동패턴을 보인다.



〈시설 범례〉

학교 1등급
(반경 400m내 도서관/공공체육시설 입지)
학교 2등급
(반경 400m이상-800m이내 도서관/공공체육시설
학교 3등급
(반경 800m 내 도서관/공공체육시설 없음)
초등학교 학구
면담참여자 거주지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원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및 공공어린이놀이터
도서관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

〈인구격자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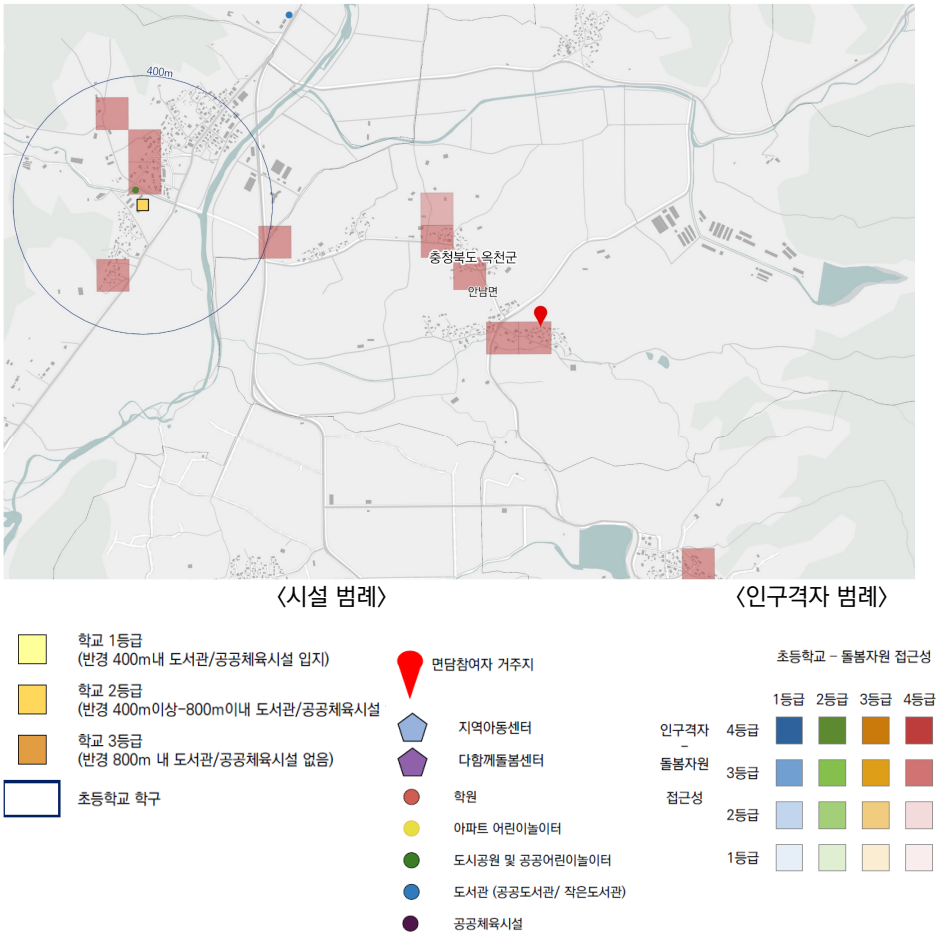
초등학교 – 돌봄자원 접근성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인구격자 – 돌봄자원 접근성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그림 6-14] 충주시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호암동, 중밀-외부절충형)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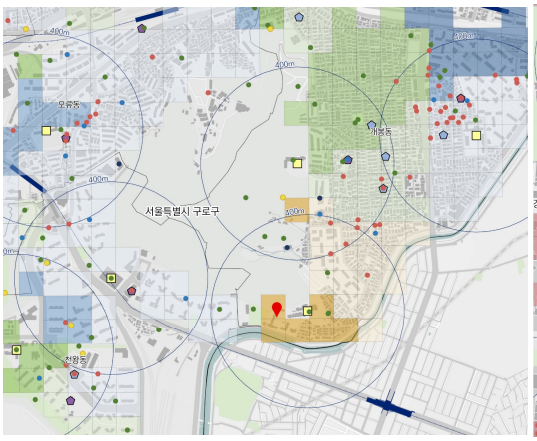
□ 옥천군 안남면 (저밀-원거리 통학, 주거섬)

면담참여자가 거주하는 근린은 면 지역의 농촌 마을로 낮은 밀도를 보이며, 초등학교는 직선거리 1km 이상 떨어져 있고 보행로가 마련되지 않아 도보 통학이 어려운 근린이다. 초등학교 근처에 학교 밖 돌봄 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없기 때문에 '초등학교-돌봄자원 접근성'이 낮으나, 학교에서 720m 정도 떨어진 작은도서관에서 방과후 마을 돌봄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반경 400m 도보권은 물론 1km 이내 범위까지 놀이터나 공공생활 인프라, 학원을 포함한 어떤 생활인프라를 찾아볼 수 없다. 이에 아동의 평일 방과 후 일과는 학교 돌봄을 마친 후 작은도서관에 차량으로 이동하여 오후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차량으로 귀가하는 주거섬의 이동 패턴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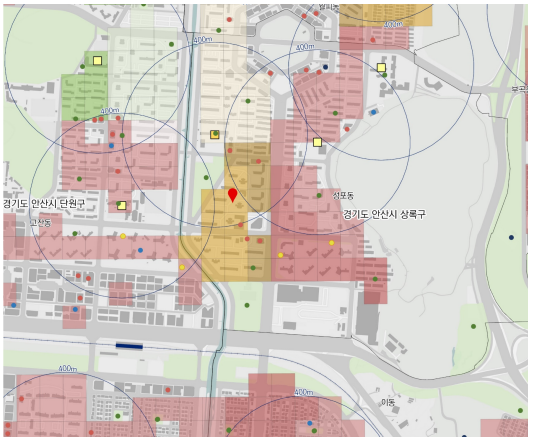


[그림 6-15] 옥천군 면담대상자 거주지의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안남면, 저밀-주거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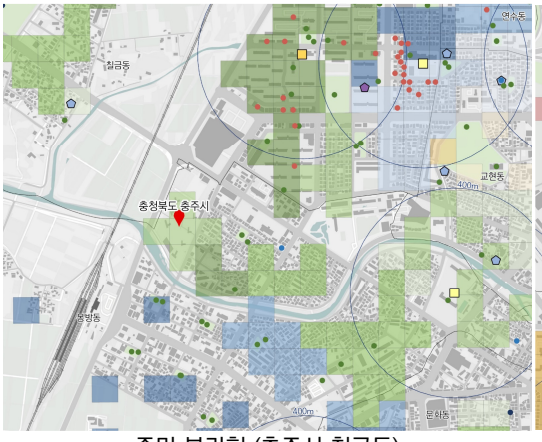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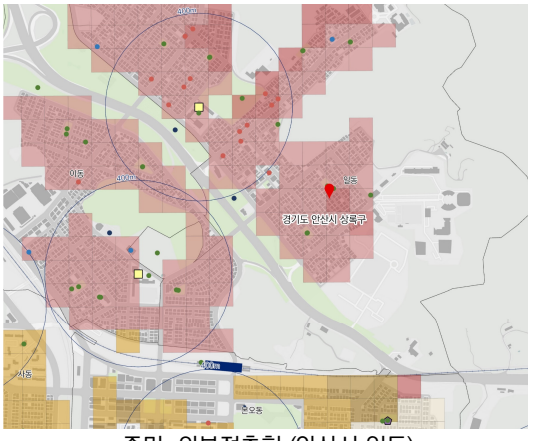
고밀·주거섬 (구로구 개봉1동)



고밀·보행통합형 (안산시 성포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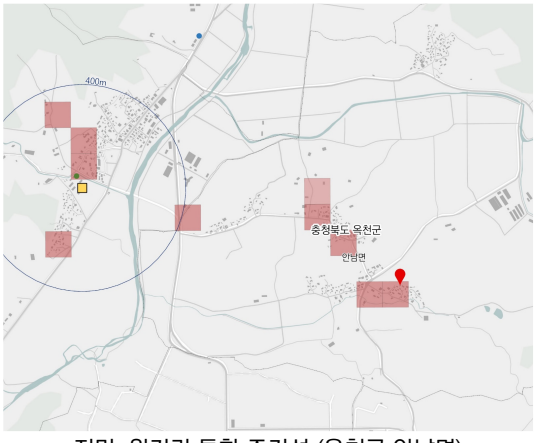
중밀·분리형 (충주시 칠금동)



중밀· 외부절충형 (안산시 일동)



중밀·외부절충형 (충주시 호암동)



저밀-원거리 통학·주거섬 (옥천군 안남면)

[그림 6-16] 면담대상자 거주 근린 특성과 돌봄자원 접근성 현황 종합

출처: 시설 접근성을 ArcGIS로 분석하여 연구진 작성

3. 분석의 시사점

본 절은 인구 밀도와 생활인프라 수준에 차이가 나는 4개 지자체 (서울 구로구, 경기 안산시, 충북 충주시, 충북 옥천군)를 대상으로 돌봄 관련 자원의 접근성 격차를 분석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의 거주 근린 유형은 고밀, 중밀, 저밀로 분류되며, 학교와 집으로부터 돌봄 관련 시설까지의 접근성을 최단 시설까지의 거리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주변에 돌봄 시설과 생활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반면, 농촌 지역은 학교와 집에서 돌봄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서울시 구로구는 아동 인구 밀도와 생활인프라 밀도 역시 높으며, 초등학교-돌봄 자원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시설까지의 거리보다도, 공적 돌봄 이용에 있어 경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돌봄 시설의 이용 인원이 충분한지가 더욱 중요하며, 신청자 가구의 자격에 따라 이용의 우선순위가 주어지는 여건에서 공적 돌봄 이용에 탈락한 아동이 어떠한 대안을 갖는지, 또 이 과정에서 근린 환경 특성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안산시는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 접근이 가능한 공적 돌봄시설(다함께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가 부족하여, 분석 대상인 4개 지자체 중 초등학교-돌봄 자원 접근성이 가장 낮다. 그러나 집에서 걸어갈 수 있는 돌봄 관련 자원(공공 생활인프라)은 상대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공적 돌봄이 부족한 여건에서 공공 생활인프라를 활용하여 아동의 방과 후 활동 장소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충주시의 경우,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돌봄 자원 접근성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읍·면 지역에서는 학교 주변 800m 내에 도서관이나 공공 체육시설이 없는 초등학교가 많아 돌봄 자원을 포함한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반면 동 지역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초등학교-돌봄 자원 접근성이 높게 나타난다. 즉 하교 후 400m 이내에 걸어갈 수 있는 학교 밖 공적 돌봄 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이 있는 학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아파트가 조성된 외곽지역에서 학교 주변의 돌봄 자원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학교에서 걸어갈만한 돌봄 보조 자원(공공 생활인프라)이 없는 현상에 주목할 만 하다. 즉 도시 노후 주거지보다 자녀 양육에 적합한 환경으로 선호되는 신규 개발 지역에서 과밀 학급과 학교 돌봄 이용의 경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공 문화체육시설을 고려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확인하였다.

농촌 지역인 옥천군은 전반적으로 돌봄 자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으로, 읍 지역 일부를 제외하면 학교에서 800m내 위치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 하지만 충주시의 읍·면 지역과 비교할 때 옥천

군 면 지역은 학교 주변에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이 특징이다. 면 지역의 아동 인구 격자가 분산되어 있는 농촌 여건에서, 주변에 돌봄 시설이나 생활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학교를 중심으로 돌봄과 방과 후 활동을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만 이 때, 집과 학교 간의 거리가 도보 이동하기에 멀고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주거 섬' 유형의 이동 패턴이 갖는 취약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생활 시간 균형을 맞추고 또래와의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공간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 전체적으로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대상지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로구(7.0%), 안산시(6.3%), 옥천군 읍 지역(7.2%), 충주시 동 지역(4.7%) 순으로 높고, 충주시의 읍·면 지역과 옥천군 면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0.1% 수준으로 낮아 도시 규모와 행정 단위별 인구 밀도의 차이를 반영한다. 읍·면 지역은 아동 인구 밀도가 낮고 거주 형태 역시 개별 주택이 산재하는 공간 구조임을 고려하여 돌봄 관련 자원으로의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은 근린의 인구-생활인프라 밀도와 초등학교 통학 특성에 맞는 아동 돌봄 방식, 그리고 아동의 일상생활을 건강한 활동으로 채워주기 위한 전략이 지역의 공간적 접근성 차이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제2절 돌봄 및 아동 성장의 공간적 취약 요인

1. 공간 취약 요인에 대한 양육자 인지

가. 면담 참여자의 근린 유형 구분

설문조사 분석과 양육자 심층 면담 결과는 근린의 인구 밀도와 이를 반영하여 입지하는 공공·민간의 생활인프라 특성, 그리고 아동의 통학 거리에 따른 생활 시간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양육자 면담 대상 근린의 유형을 인구 밀도와 통학 특성을 조합한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은 고밀(면담 참여자 중 8명), 중밀(8명), 저밀-근거리 통학(5명), 저밀-원거리 통학(4명)으로 구성된다. 각 소집단별 아동 인구 밀도와 읍면동 평균 면적은 뚜렷한 차이가 있다. 대상지 중 고밀 지역과 중밀 지역은 읍면동 총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의 평균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같은 읍 지역도 중밀, 저밀-근거리 통학, 저밀-원거리 통학 유형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개별 근린의 특성을 단순한 행정구역 단위로만 한정하여 표현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표 6-9〉 면담 대상자 거주 근린의 구분

구분	읍면동 아동 인구 밀도 평균 (명/㎢)	읍면동 총인구 대비 아동 인구 비율 평균	읍면동 평균 면적(㎢)	지역 특성	비고
고밀 (8명)	3,761.7	17.5%	1.4	서울시(일부), 수원시, 안산시(일부), 세종시(일부)	
중밀 (8명)	669.4	18.1%	10.4	서울시(일부), 세종시(일부), 양주시, 청주시, 충주시, 진천군 덕산읍	
저밀-근거리 통학 (5명)*	68.3	13.9%	46.6	증평군·보은군의 읍 지역, 평택시 면 지역	평택시는 면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저밀-원거리 통학 (4명)	42.6	9.4%	50.3	김포시·연천군의 읍 지역, 괴산군 및 옥천군의 면 지역	

주) 보은군 보은읍 2명, 평택시 고덕면 2명으로 지자체 자체는 3곳으로 집계
출처: 연구진 작성

〈표 6-10〉 유형별 대상지 특성

근린 유형	지역 구분	세부지역	읍면동 아동인구 (명)	읍면동 총 인구 (명)	읍면동 총 인구 중 아동 비율(%)	시·군·구 전체인구	읍면동 면적(㎢)	읍면동 아동인구밀도 (명/㎢)	읍면동 인구밀도 (명/㎢)
고밀	세종시	세종시 소담동	5,770	21,923	26.3%	386,525	1.17	4,931.6	18,737.6
	세종시	세종시 다정동	8,084	28,675	28.2%	386,525	1.7	4,755.3	16,867.6
	경기 하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664	31,684	21.0%	363,028	1.44	4,627.8	22,002.8
	경기 하위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6,231	33,195	18.8%	363,028	1.69	3,687.0	19,642.0
	서울 상위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55	27,441	11.1%	466,770	0.96	3,182.3	28,584.4
	서울 상위	서울시 동작구 상도1동	4,650	44,194	10.5%	378,769	1.51	3,079.5	29,267.5
	서울 상위	서울시 구로구 개봉1동	3,854	33,131	11.6%	392,405	1.31	2,942.0	25,290.8
	경기 하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3,148	25,096	12.5%	334,867	1.09	2,888.1	23,023.9
중밀	경기 하위	안산시 상록구 일동	3,138	23,444	13.4%	334,867	2.74	1,145.3	8,556.2
	세종시	세종시 어진동	2,739	11,212	24.4%	386,525	2.65	1,033.6	4,230.9
	서울 상위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3,069	33,990	9.0%	306,231	3.05	1,006.2	11,144.3
	충북 하위	청주시 분평동	4,916	28,819	17.1%	186,302	5.94	827.6	4,851.7
	경기 상위	양주시 옥정동	5,999	29,472	20.4%	268,026	13.5	444.4	2,183.1
	충북 상위	충주시 칠금동	2,121	13,962	15.2%	207,778	5.8	365.7	2,407.2
	충북 상위	충주시 호암동	4,665	22,180	21.0%	207,778	14.4	324.0	1,540.3
	충북 하위	진천군 덕산읍	7,327	30,079	24.4%	86,254	35.1	208.7	857.0
저밀-근거리 통학	경기 상위	평택시 고덕면 (2명)	1,615	12,764	12.7%	591,022	22.18	72.8	575.5
	충북 하위	증평군 증평읍	5,630	35,766	15.7%	37,484	55.38	101.7	645.8
	충북 상위	보은군 보은읍 (2명)	1,897	14,356	13.2%	31,010	62.27	30.5	230.5

근린 유형	지역 구분	세부지역	읍면동 아동인구 (명)	읍면동 총 인구 (명)	읍면동 총 인구 중 아동 비율(%)	시·군·구 전체인구	읍면동 면적(㎢)	읍면동 아동인구밀도 (명/㎢)	읍면동 인구밀도 (명/㎢)
저밀-원거리 통학	경기 하위	김포시 통진읍	4,541	34,589	13.1%	486,172	29.49	154.0	1,172.9
	경기 상위	연천군 연천읍	1,007	7,827	12.9%	41,584	87.95	11.4	89.0
	충북 상위	괴산군 소수면	129	2,141	6.0%	36,590	45.93	2.8	46.6
	충북 하위	옥천군 안남면	76	1,355	5.6%	48,891	37.8	2.0	35.8

출처: 국가통계포털, 2023년 인구총조사자료의 읍면동 연령 및 성별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접속일: 2024년 8월 2일)

나. 주택 및 근린 환경에 대한 양육자의 공간 인지

본 연구에서 만난 양육자들은 동네에서 자녀의 일상적인 활동 특성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를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자 면담 결과에 나타난 공간 특성과 그로 인한 행태, 학교 접근성, 주택 입지 및 주변 환경, 생활인프라, 보행환경, 개발 특성, 기타 요소 등 다양한 물리적 환경 요소로 구분하고, 해당 환경요소가 안전한 돌봄 또는 근린 내에서의 건강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부록3), 그 결과를 활용하여 근린 유형과 주택 유형, 이동 패턴별로 근린 환경의 물리적 요소가 아동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1) 근린 유형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고밀' 유형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생활인프라(놀이터, 공원 등), 부정적인 요소는 보행환경(차량 통행, 안전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아동의 활동에 필요한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안전하게 걷고 놀 수 있는 보행환경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중밀' 유형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는 생활인프라이며, 부정적인 요소는 보행환경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고밀' 근린 유형과 유사하지만 '고밀' 근린에 비해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의 비율이 높았다.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 유형은 인구 밀도가 낮은 읍·면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지한 경우(평택시 고덕면) 또는 아파트 비중이 높지 않은 농촌 읍 지역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통학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저밀-원거리 통학'은 인구 밀도가 가장 낮고 초등학교 학구가 넓은 농촌의 면 지역에 주로 해당하며, 도보로는 통학이 불가능한 거리에 학구가 배정된 경우를 뜻한다. 저밀에 해당하는 두 유형의 근린은 생활인프라에 대한 부정적 언급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공통적이나, '저밀-원거리'의 경우 학교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 나타나는 반면 보행환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보행을 통한 집 주변 및 학교 주변 환경과의 접촉이 부족한 이동 패턴을 반영한다.

〈표 6-11〉 근린 유형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구분	긍정적	복합적	부정적	합 계
고밀	**18**	**3**	**30**	**51**
개발특성			1	1
보행환경	1		14	15
생활인프라	11		8	19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1	1	3	5
학교	3	1	4	8
학원		1		1
기타	1			1
중밀	**18**	**9**	**19**	**46**
개발특성		1		1
돌봄시설	1	1	1	3
보행환경	2	3	10	15
생활인프라	9	2	2	13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1	1
학교	5		1	6
학원		1	3	4
기타		1	1	2
저밀-근거리 통학	**4**	**2**	**11**	**17**
돌봄시설			1	1
보행환경		1	3	4
생활인프라	2	1	5	8
학교	1		1	2
학원			1	1
기타	1			1
저밀-원거리 통학	**5**	**5**	**7**	**17**
돌봄시설	1			1
생활인프라	1	1	3	5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2	2
학교		3	2	5
기타	2	1		3
합 계	**45**	**19**	**67**	**131**

출처: 연구진 작성

2) 주택유형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주택 가운데 3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소규모 단지, 300세대 이상에서 1,000세대 미만 아파트를 중규모 단지, 1,0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규모 단지로 구분하고 그 외 주택을 다세대/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으로 구분하였다.

먼저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생활인프라(단지 내 놀이터, 공원 등)이며, 부정

적인 요소는 보행환경(차량 통행, 안전 문제 등)이다. 단지 내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외부 환경과의 연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중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생활인프라이며, 부정적인 요소는 보행환경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긍정-부정의 비율을 살펴볼 때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비해 긍정의 비율이 높다.

소규모 아파트 단지/다세대/다가구 주택/단독주택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특별히 두드러지지 않으며, 부정적인 요소의 비중이 세 유형 가운데 두드러지게 높고 생활인프라(놀이 공간, 편의시설 부족)와 보행환경(안전 문제 등)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찾아볼 수 있다.

〈표 6-12〉 주택유형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구분	긍정적	복합적	부정적	합 계
대규모 아파트 단지	**13**	**10**	**16**	**39**
개발특성		1		1
돌봄시설		1	1	2
보행환경	1	2	9	12
생활인프라	7	1	3	11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2	2
학교	4	2		6
학원		1	1	2
기타		2		2
중규모 아파트 단지	**20**	**2**	**13**	**35**
개발특성			1	1
보행환경	2		8	10
생활인프라	11			11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1			1
학교	4	1	1	6
학원		1	2	3
기타	1		1	2
소규모 아파트 단지	**3**	**2**	**17**	**22**
돌봄시설			1	1
보행환경		1	6	7
생활인프라	2		8	10
주택 입지		1		1
학교			2	2
기타	1			1
다세대/다가구 주택	**4**	**2**	**11**	**17**
돌봄시설	1			1
보행환경		1	3	4
생활인프라	3	1	2	6
주택 입지			3	3
학교			3	3

구분	긍정적	복합적	부정적	합 계
단독주택	**5**	**3**	**10**	**18**
돌봄시설	1			1
보행환경			1	1
생활인프라		2	5	7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1	1
학교	1	1	2	4
학원			1	1
기타	2			2
합 계	45	19	67	131

출처: 연구진 작성

3) 이동패턴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보행통합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생활인프라(접근성, 다양성)이며, 부정적인 요소는 보행환경(안전 문제 등)이다. 즉,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차량 위험 등의 문제로 인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외부 절충형에서 긍정적인 요소는 뚜렷하지 않으며, 부정적인 요소는 보행환경이다. 분리형 유형과 주거 섬 유형 역시 긍정적인 요소는 두드러지지 않으며, 부정적인 요소는 생활인프라(놀이공간, 편의시설 부족)와 보행환경(안전 문제 등)이다.

이상의 유형 분류는 이동 패턴과 근린환경 요소 간의 관계를 보여주며, 근린 특성에 적합한 돌봄안전망 공간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도시 지역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루고, 농촌 지역에서는 생활인프라 확충 및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크다. 또한, 아파트 단지 유형에 따라서는 대규모 단지의 경우 단지 외부 근린 환경과의 연계를 통한 근린 접촉면 강화,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아동을 위한 놀이 공간 등 생활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

〈표 6-13〉 아동 이동패턴별 물리적 환경 요소의 아동 행태 영향

구분	긍정적	복합적	부정적	합 계
보행통합형	**29**	**6**	**24**	**59**
개발특성			1	1
돌봄시설	1	1		2
보행환경	2	2	16	20
생활인프라	17	1	4	22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1		1	2
학교	6	1		7
학원		1	2	3
기타	1			1

구분	긍정적	복합적	부정적	합 계
외부절충형	**5**	**5**	**4**	**14**
개발특성		1		1
돌봄시설			1	1
보행환경		1	3	4
생활인프라	2	1		3
주택 유형	1			1
학교	2			2
학원		1		1
기타		1		1
분리형	**6**	**4**	**25**	**35**
보행환경	1		6	7
생활인프라	4	1	7	12
주택 입지			4	4
학교	1	2	5	8
학원			2	2
기타		1	1	2
주거 섬	**5**	**4**	**14**	**23**
돌봄시설	1		1	2
보행환경		1	2	3
생활인프라		1	7	8
주택 유형	1			1
주택 입지		1	1	2
학교		1	3	4
기타	3			3
합 계	**45**	**19**	**67**	**131**

출처: 연구진 작성

2.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

가. 돌봄 공백 발생 여건과 대응 특성

1) 고밀 근린

고밀 근린은 상주 인구가 밀집한 지역으로 학구 범위가 작아 통학 거리가 짧고 도보 접근이 가능한 범위인 근린을 의미한다. 인구 밀도에 수반되는 생활인프라 밀도와 보행환경 수준(보차 분리 등) 역시 높다는 특성이 있다. 고밀 근린은 도시 지역에 위치할 확률이 높으나, 개발 여건에 따라 중소도시나 농촌에도 위치할 수 있다.

□ 돌봄 공백 발생 여건

고밀 근린에서는 학교 돌봄과 학원 시간 사이의 짧은 시간의 공백, 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

는 저녁 시간 공백이 주요 유형이다. 한편 대도시에 위치한 고밀 근린은 맞벌이 비중이 높고, 저밀 근린에 비해 같은 지역 내에 조부모 등 친인척이 거주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긴급 돌봄에 대한 수요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고밀 근린은 생활인프라를 포함한 시설의 다양성으로 인해 돌봄 공백 해소 방식에 있어 유리한 여건이다. 또한 돌봄 시설이나 학원과 같은 정규적인 일정이 아니라도, 집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놀이터 등의 생활인프라가 가까이 있고, 집에 들러 필요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방과 후 시간을 보내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아동이 홀로 보내는 시간을 집에서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양육자의 경우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작은도서관 등의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하는 방식도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가 설치된 경우, 돌봄 여건은 더욱 좋아질 수 있다.

한편 고밀 근린이라고 해도, 근린 내 모든 아동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인프라와 보행환경 수준에는 차이가 나기 마련이다. 실제로 아파트 지역과 단독·다세대 주택이 혼합된 지역에서는 아파트 단지로 인해 차량 통행이 많으나 보도의 연속성이 떨어져 아파트 단지 외부의 보행환경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이라도 아동 거주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단독·다세대 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생활인프라의 밀도가 낮아지고, 통학과 다른 목적 시설이 근린 내에서 긴밀하게 연결되기 어렵다. 여기에 저층주거지의 취약한 보행환경이 더해질 경우 지역 인구나 학구도 기준으로 '고밀-근거리 통학'으로 보이는 근린이 실제 생활인프라 측면에서는 '중밀-원거리(차량) 통학'으로 밀도는 낮아지고 장소 간 이동은 차량 중심으로 이루어져, '주거섬' 또는 '분리형' 이동 패턴이 될 수도 있다.[70]

이처럼 단순한 통학 거리 뿐만 아니라 생활인프라 이용 수준과 보행환경 특성에 따라 돌봄 수요 및 돌봄 공백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앞선 설문 조사 분석과 양육자 면담 결과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고밀 근린을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과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으로 구분하여 돌봄 공백 취약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돌봄 공백 특성

주로 대도시의 아파트 단지 밀집 지역에 해당하며, 아이들이 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이다. 주요 돌봄 공백 유형은 학교 돌봄과 학원 시간 사이의 짧은 시간 공백, 부모의 퇴근 전까지 발생하는 저녁 시간 공백이다.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아 돌봄 수요가 많지만, 공공 돌봄 시설의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

70) 양육자 면담 사례 중 '구로구 개봉1동'의 저층주거지 거주자 아동이 이에 해당한다(주거섬).

근린 환경 특성상 학교 주변에 학원, 문화시설, 체육 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어, 돌봄 공백 발생이 예상될 때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계획하고 돕는 것 역시 양육자의 역할이기 때문에, 근린 내 생활인프라 및 학원 시설의 풍부함이 돌봄 공백 부담 경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근린 내 시설을 활용하기도 한다.

신규 개발된 아파트 단지에서는 놀이터, 공원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잘 갖춰져 있지만, 차량 통행량이 많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적 돌봄 이용의 경쟁률이 높아 학원 등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돌봄 이용 특성상 발생하는 이동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즉 단순한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보행 안전으로 인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 선택에 있어 안전한 이동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고려가 앞서게 된다.

□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의 돌봄 공백 특성

인구 밀도가 높은 근린에서도 초등학교 공급 현황이나 학구 배정 특성으로 인해 도보 접근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는 거리상으로는 걸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차량만을 이용하는 경우 역시 '원거리 통학'과 유사한 이동 패턴을 보일 수 있다.[71] '고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대도시 외곽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혹은 주변 지역과 단절된 형태로 위치한 아파트 단지에 주로 해당한다. 학교까지의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고, 학교 외부 돌봄 시설 이용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 유형의 근린에서는 학교 돌봄 종료 후 집까지의 이동 시간 동안 돌봄 공백이 발생하며, 차량 이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아이들이 근린 환경과 접촉할 기회가 제한적이다. 아이들은 차량 탑승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으로 또래들과 멀어지게 되며 집에 돌아온 이후에는 또래와의 접촉이 적은 상태에서 집 안에서 시간을 보내기 쉽다.

'고밀- 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의 아이들은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 등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 있을 수 있지만, 단지 외부 환경과 단절되어 보행으로 동선이 연결되어 이용되는 빈도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아이들이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가 적은 여건에서 가족 구성원과 함께 여가 시간을 보내거나, 적절한 실내외 여가 공간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어,[72]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신체 활동과 또래와의 놀이 활동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

71)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걸어가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례로, 등굣길에 보도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되었라도 연속성이 부족해 보차 분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량이나 각종 상업시설 등으로 인해 혼잡하여 자녀의 도보 이동을 부모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경사가 심한 경우 등이 있다.

72) Loebach & Gilliland, 2016.

2) 저밀 근린

인구밀도가 낮고 학구 면적이 넓어 통학 거리가 긴 근린이다. 저밀 근린은 인구 밀도가 낮은 농촌 지역에서 발견되기 쉬우나, 도시 지역의 개발되지 않은 외곽이나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 돌봄 공백 발생 여건

저밀 근린은 고밀 근린에 비해 생활인프라의 밀도가 낮고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방과 후의 일정을 촘촘하게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고밀 지역에 비해 길고 지속적인 공백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학교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간 외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우며, 학년이 올라가면서 기존의 돌봄 서비스를 벗어나게 될 경우 돌봄 공백을 채울 선택의 폭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저밀 지역 가운데 도보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통학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이동 수단을 놓쳐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한편 농촌 지역의 경우 맞벌이 가정의 비율이 낮고, 맞벌이 가정인 경우에도 양육자의 근무 형태나 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특성,[73] 양육자가 농업에 종사하거나 한시적으로 농사일을 돕게 되는 여건에서 농번기에 아침과 저녁 시간대의 돌봄 공백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통학 거리에 따른 돌봄 공백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돌봄 공백 특성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도시의 외곽 지역의 미개발지나 저밀 주거지에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경우이다.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와 인접하여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경우이나, 근린 전체의 밀도가 낮고 보행연결성이 낮기 때문에 통학로의 보행환경이 고밀 지역의 아파트 중심 주거지처럼 연속적인 보도를 갖추기는 어렵다. 또 차량 통행량이 적은 대신 차량의 속도가 높거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도로가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을 벗어난 경우 거리는 가깝더라도 학교에 걸어가기 어려운 환경으로 인식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도시외곽지역의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에서 생활인프라의 종류와 밀도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단지 규모가 크지 않으면 공공 생활인프라(도서관, 공공체육시설)이 도보권 내 입지하기 어려우며 학원과 상업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방과 후의 일정을 구성하기 위한 선택의 범위가 더욱 좁아진다. 이러한 여건에서, 방과 후의 돌봄을 근린 내(학교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아동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

73) 농촌에서는 주양육자가 한시적으로 가족, 친인척 또는 이웃의 농사일을 돕거나 사업장에 나가 근무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 경우에도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경우가 다수 있으므로 돌봄 공백의 발생 시기가 불규칙하고 방학 시기로만 한정되지 않아 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가 발생한다(00군 마을 마을 돌봄기관 관계자 면담 결과).

는 원거리의 학원을 다니게 된다. 이에 도시 외곽 지역에서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공동시설은 아동 돌봄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며, 주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파트 단지 내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방과 후 돌봄을 해결하는 양육자 면담 사례(평택 고덕면)는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에서의 돌봄 공백 상황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을 보여준다.

한편 농촌의 읍 지역은 인구 2만 명 이상 또는 군청 소재지로,[74] 지자체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동 인구가 밀집하고 면 지역에서 접근하기에 좋은 중심지의 성격을 갖는다. 농촌 지역에서도 초등학교 접근성이 좋고, 면 지역 수요까지 고려한 거점 생활인프라(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가 입지할 경우 생활의 질은 더욱 좋아진다. 다만 읍 지역이라고 해도 인구 규모상 아파트가 대규모로 들어서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에 민감한 학원의 입지가 제한되며, 학원을 통해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농촌 지역의 아동 가구는 같은 지역 내에 조부모나 친인척이 거주하는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높고, 이들의 생활거점(집, 가게 등)이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에 있는 경우 이러한 시설을 방문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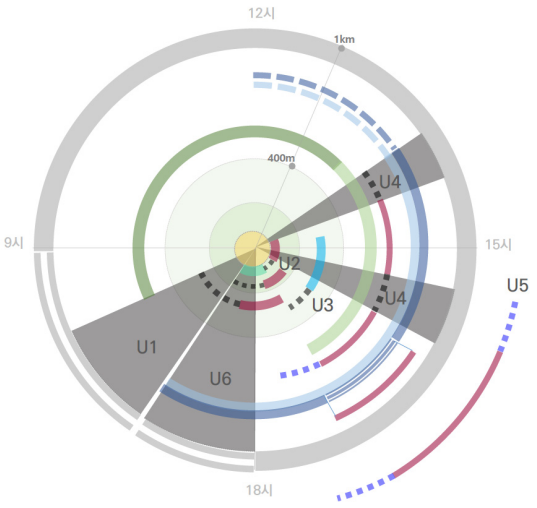
□ 저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의 돌봄 공백 특성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농촌이나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이 대부분이나, 읍 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읍 지역 초등학교는 낮은 아동 인구 밀도 특성상 학구 범위가 고밀 근린에 비해 넓기 때문에, 걸어가기에 애매한 거리[75]부터는 도보와 차량 이용을 병행하거나 차량 이동으로만 통학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학교 돌봄과 초등학교 인근의 생활인프라, 학원을 이용할 경우 방과 후 아동의 돌봄 공백은 저밀-근거리 지역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하교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또래를 만나기 어려운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므로, 돌봄 공백 시간을 건강한 신체활동과 또래와의 놀이, 사회적 교류로 이어가기 어렵다.

농촌의 면 지역에서 나타나는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도보 통학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에서 멀리 거주하는 아동들의 등교를 돕기 위해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하교 이후의 시간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사례이다. 이 경우, 농촌의 촌락으로 대표되는 환경, 즉 차량 통행이 적고 근린 환경과 이웃이 친숙하다는 점은 집 밖에서도 양육자의 돌봄 없이 시간을 보내는 아동에게 안전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단조로운 농촌의 환경은 아동의 독립적 이동이나 놀이 탐색에 부정적으로 작동하며, 같은 동네에서 교류할 또래가 없는 경우 돌봄 공백은 건강한 활동으로 전환되기에 어려운 여건이다.

---

74) 지방자치법 제10조 (시·읍의 설치 기준)
75) 양육자 면담 사례에서는 아동이 2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거리에서 차량-도보 혼합 통학이 관찰되었다.



[고밀·중밀 근린의 돌봄 공백]

U1: 집에서/ 양육자의 출근시간 이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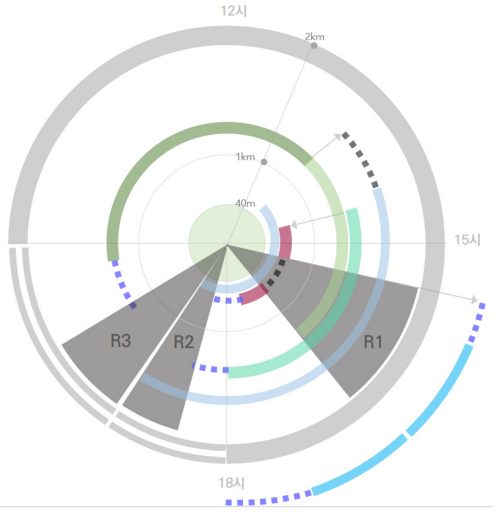
U2: 집에서 매우 가까운 독립적 이동 가능 범위 내, 방과 후 일정 사이에 발생

U3: 집에서 멀지 않지만, 저학년은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일정 사이에 발생

U4: 학원과 학원 사이에 비는 시간

U5: 근린 밖으로 나가야 하는 학원이나 돌봄장소로의 차량 이동 시간

U6: 집이나 외부 활동장소에서/ 양육자의 늦은 퇴근으로 인해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며 발생하는 공백



[저밀 근린의 돌봄 공백]

R1: 집에서 보행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일정과 일정 사이에 발생

R2: 아동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난 후 양육자의 퇴근을 기다리는 시간에 발생

R3: 돌봄시설 운영시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



[그림 6-17] 근린 유형별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발생 여건

출처: 양육자 면담 및 돌봄기관 관계자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진 작성

나. 아동 행태와 근린 환경 요소 간 관계

앞서 수행한 선행연구 분석과 설문조사, 양육자 및 아동 면담 결과는 공통적으로 도시화 수준이나 주거지 유형 자체보다는 해당 유형에 내포된 장단점을 만들어내는 미시적인 환경적 조합(밀도와 목적지 접근성, 개발의 규모와 계획방식, 주택유형 등)이 아이들의 신체활동이나 이동방식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아동의 일상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 요인이 아니라 개인·가구적 요인이 결합되어 작용하나, 돌봄을 포함하여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활동의 수준을 결정하는 매개 요인이 방과 후 이동 패턴임을 발견하였다.

안전한 돌봄과 균형을 이루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자율적이고 풍부한 근린 내 경험을 유도하는 근린 환경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물리적 환경 요인'과 '일상 생활의 구조(이동 패턴)' 및 '행태(아동 성장과 관련된 긍정적 활동 및 부정적 활동의 수준)'간의 복합적인 관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생활 방식을 결정짓는 '이동 패턴'의 유형을 중심으로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인과 특성의 관계를 탐색하고, 이동 패턴에 따른 건강한 성장 관련 행태의 차이를 살핌으로써 근린 환경의 차이가 아동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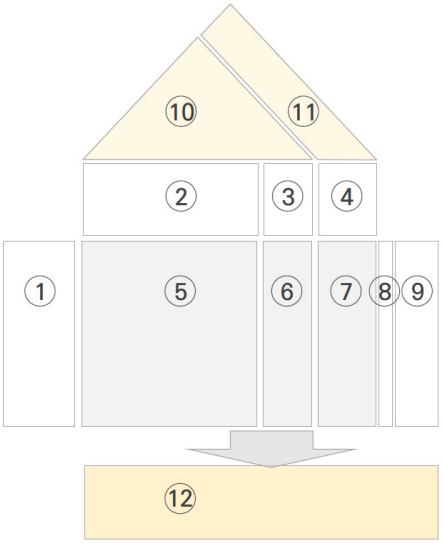
1) 진단의 틀

제품 디자인 도구로 널리 활용되는 HOQ(House of Quality) 진단 체계를 응용하여 양육자 면담(25명)에 나타난 근린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아동의 행태, 건강 관련 활동의 수준을 살펴보았다. HOQ는 정성적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량적인 매개변수로 변환하여 특성과 중요성을 식별하고, 요구와 관련된 기능의 상호 연관성을 살핀 후 상관관계를 검증하여 디자인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할당하는 진단 도구로,[76]본 연구에서는 다차원의 근린 환경 요소와 아동 행태 간의 관계를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아동의 이동 패턴별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이 도구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HOQ진단 체계에서는, 본 연구에서 발견한 아동 행태의 격차를 낳는 매개 요인으로서 아동의 이동 패턴을 좌측에 배치하고(①), 상단에 면담대상자의 ②물리적 환경 요소, ③방과 후 활동 특성, ④성장 관련 행태를 배치하였다. 아동별로 환경-행태 진단 결과(⑤-⑦), 아동의 평일 돌봄 공백 수준(⑧)과 이들이 거주하는 근린의 특성(⑨)이 교차하는 매트릭스에 표시된다.이어 물리적 환경 요소와 행태 간의 연관성을 서로 대응하여 살펴보는 한편 (⑩-⑪), 최종적으로는 이동 패턴 유

76) 고객의 요구사항을 제품의 엔지니어링 특성으로 변환하기 위해 1966년부터 일본에서 개발된 방법으로, 제품 설계, 제조, 생산, 엔지니어링, 연구 개발(R&D), 정보 기술(IT), 지원, 마케팅, 판매, 서비스 등 고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한 측에는 고객 요구사항이 나열되고, 다른 차원에서는 고객 요구와 상관 관계가 있는 비기능적 요구 사항이 나열되는 매트릭스로 상단에는 요인간 상관관계가 설정되고, 각자의 교차표(행렬)에는 고객 요구사항과 기술적 구성요소의 대응 관계가 표시된다 (Akao & Mizuno, 1994; 성은영 외 2023, p.137 재인용)

형별로 나타난 물리적 환경-행태의 빈도를 추출하면서 근린 유형과의 관계를 나타낸다(⑫).



① 아동의 이동 패턴 유형별 양육자 면담 사례
② 물리적 환경 요소 (주택, 생활인프라, 보행환경 등)
③ 방과 후 활동 특성 (공적 돌봄 이용 방식 등)
④ 성장 관련 행태 (생활 시간 균형, 시간 사용 유형)
⑤ 이동 패턴 유형별 물리적 환경 특성
⑥ 이동 패턴 유형별 방과 후 활동 특성
⑦ 이동 패턴 유형별 성장 관련 행태
⑧ 돌봄 공백 시간
⑨ 근린 특성 (밀도와 통학 거리)
⑩ 물리적 환경 요소 및 행태 요소 간 관계
⑪ 성장 관련 행태와 환경-행태 요소 간 관계
⑫ 이동패턴 유형별 물리적 환경 특성-행태 빈도 종합

[그림 6-18] HOQ 진단 도구 적용 방식
출처: 연구진 작성

면담 대상자의 환경 및 행태 진단 기준 항목은 설문조사와 양육자 면담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의 돌봄과 일상 생활의 건강한 활동(신체활동, 놀이, 이동독립성)에 관련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의미 있는 면담자가 거주하는 물리적 환경 특성을 크게 주택 유형, 생활인프라, 보행환경, 놀이터로 구분하였다(표 6-14). 놀이터는 생활인프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나, 일상에서 상시 접근이 가능한 아동 전용 공간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물리적 환경 특성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기준을 활용하여 진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보행환경의 '목적 시설로의 안전한 접근'과 같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근린 환경 특성과 면담 내용을 종합하여 연구자의 정성적인 판단을 적용하였다.

한편 '통학 방식'은 속성상 행태에 해당하나, 물리적 환경에 크게 좌우되는 측면, 그리고 보행환경과 생활인프라 여건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물리적 특성'에 배치하였다. 도보 10분 이내, 도보-차량 혼합, 원거리 차량 통학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는 앞서 설문조사와 면담에서 관찰된 근린 유형별 통학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물리적 환경에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지 여부, 아파트 단지의 규모와 그에 따른 생활인프라 밀도, 지상공원화 계획을 적용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보차분리 영역이 보행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였고, 아파트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을 반영하여 300세대 이하, 300세대 이상과 1,000세대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표 6-14〉 면담 대상자의 환경 및 행태 진단 기준

요소		기준		비고
물리적 환경	주택유형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구분[77]
		아파트	300세대 미만	
			300세대 이상-1,0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생활 인프라	다음의 조건 중 3개 해당(상), 2개 해당(중). 1개 해당(하)	1) 공공체육센터(실내)가 집에서 1km 이내에 위치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참고하여 도보 10-15분 범위로 설정 * 이용빈도가 잦은 근린공원은 놀이터와 동일하게 400m로 설정
			2) 공공도서관/어린이도서관이 집에서 1km 이내에 위치 (*작은도서관 제외)	
			3) 면적 1ha 이상의 근린공원이 집에서 400m 이내에 위치	
	보행 환경	2개 해당(상), 1개 해당(중). 해당 없음(하)	1) 600세대 이상의 지상공원화 단지	2)는 면담 내용을 근거로 판단
			2) 집 주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놀이터	1) 집에서 반경 400m 내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지		2)는 동선 맵핑 자료와 면담 내용을 근거로 판단
		2) 아동의 일상적인 동선 가까이에 놀이터가 있는지		
	통학 방식	도보 10분 이내	대부분 도보로 통학하며 10분 이내 거리	
		도보-차량 혼합	도보와 차량 이동이 선택적으로 혼합	
		원거리 차량 통학	도보 불가능한 거리, 항상 차량 통학	
행태	공적 돌봄 이용	학교 돌봄 및 방과 후 수업	학교 돌봄이나 방과후교실을 선택적으로 이용	돌봄 장소와 참여 방식(전교생 참여 또는 개인 선택)을 고려하여 구분 * 특수한 2개 면담 사례는 제외하고 분류
		전교생 대상 방과후 돌봄	학교에서 전교생에게 제공하는 방과후 돌봄 (학교밖 돌봄장소 이동수단 포함)	
		학교 밖 공적 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차량탑승	방과 후 차량(셔틀버스 포함)을 이용해 이동하는지 여부		면담 결과를 중심으로 산출
	긍정적 활동 시간 충족	감독되는 신체활동	평일 하루 30분 이상	
		야외 놀이		
		근린 내 보행		
	부정적 활동 시간 초과	차량 탑승	평일 하루 30분 이상	
		미디어 사용	평일 하루 2시간 이상	
돌봄 공백		평일 5일 중 돌봄 공백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있는 경우 (시간은 전체 합산이 아닌 개별 돌봄 공백 시간)		설문조사 응답과 면담 결과를 종합하여 산출
근린 특성		고밀/중밀/저밀-근거리 통학/ 저밀-원거리 통학		읍면동 아동인구밀도+통학방식

출처: 연구진 작성

7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제 55조의 2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을 설치, 500세대 이상은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공적 돌봄 이용은 학교 돌봄 및 방과 후 수업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와, 전교생에게 공통적인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 학교 밖의 공적 돌봄시설(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이용하는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돌봄을 실시하는 장소와 참여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개별적인 일과로 흩어지는 시점과 장소의 차이를 보여준다.

차량 탑승 시간은 방과 후 시간 중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긍정적 활동 시간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야외 놀이, 근린 내 보행의 세 가지로, 각각의 활동 시간이 평일 하루 30분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다. 부정적 활동 시간은 차량 탑승과 미디어 사용으로 구분하며, 차량 탑승은 하루 30분 이상, 미디어 사용은 2시간 이상인 경우를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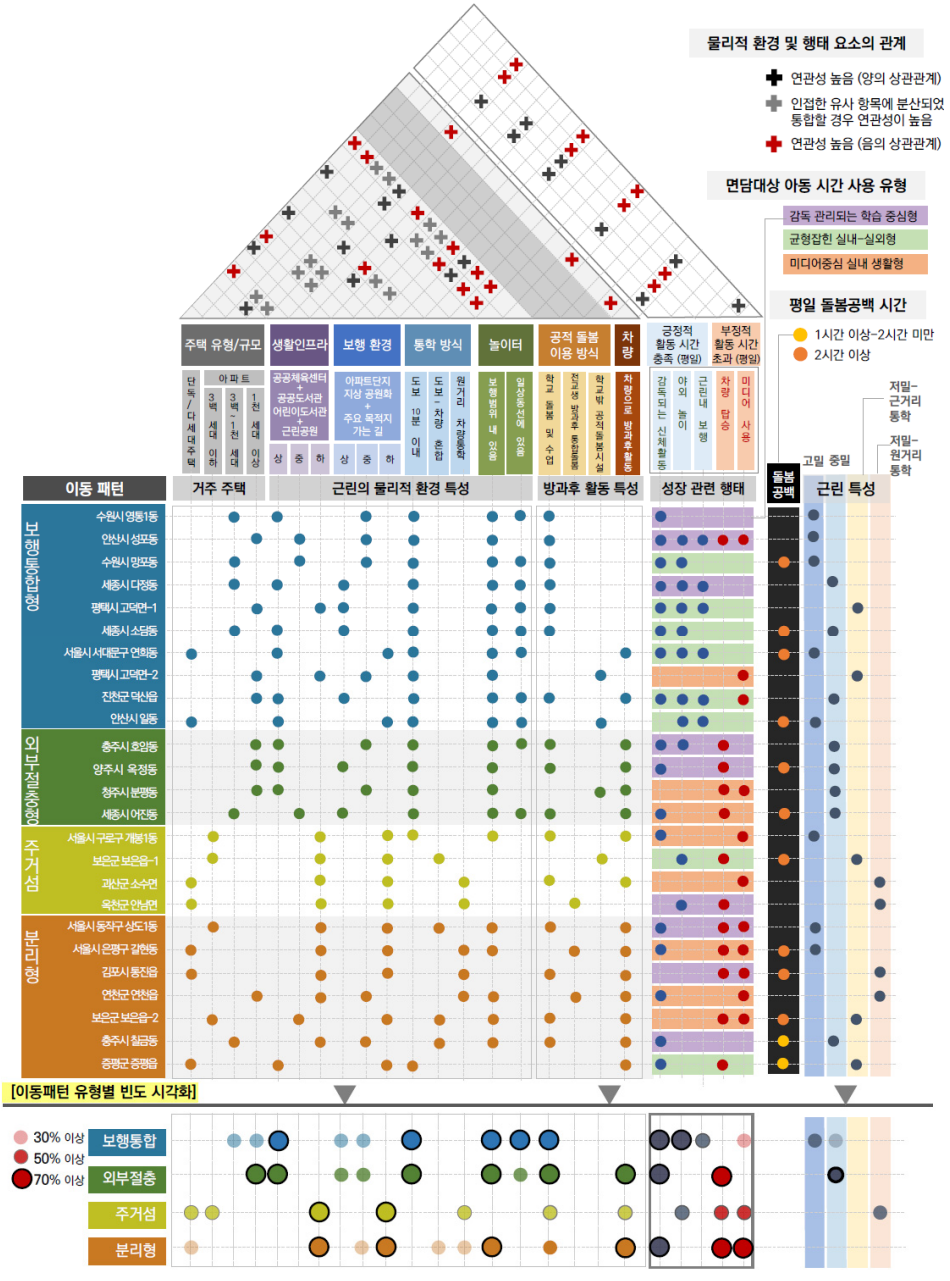
돌봄 공백은 평일 중 1시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인 경우와 2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를 표시하되, 시간은 모든 돌봄 공백의 총합이 아니라 개별적인 돌봄 공백의 시간을 의미한다. 이는 양육자 면담에서 1시간 이내의 짧은 돌봄 공백이 이동이나 대기 시간 혹은 집에 머무는 활동으로 집계되면서 명확히 산출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한 기준이다. '근린 특성'은 각각의 이동 패턴이 대응하는 근린으로 고밀, 중밀, 저밀-근거리 통학, 저밀-원거리 통학을 구분하였다. 고밀 지역에서 '근거리'와 '원거리'를 구분하지 않은 것은, 아동 인구 밀도에 따라 구분한 고밀-중밀 근린에서 차량을 이용하는 원거리 이용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 두 유형 간 행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도보권 통학을 전제로 하는 근거리 통학 근린에서 인구 밀도에 따른 생활인프라의 차이를 보다 명확히 드러내고자 밀도 구분을 '고밀-중밀-저밀'로 세분하는 대안을 택하였다.

2) 진단 결과

면담 양육자가 거주하는 근린의 물리적 특성과 아동 행태에 HOQ 도구를 적용하여 진단한 결과는 [그림 6-19]와 같다. 하단의 빈도 분석 결과는 각 유형별 집단 가운데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사례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상-50% 미만인 경우, 50% 이상-70% 미만, 70% 이상인 경우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시각화한 것으로, 보행통합형, 외부절충형, 주거섬 및 분리형의 네 가지 이동 패턴 유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환경 요소-행태 항목이 무엇인지, 또 각 이동 패턴별 사례가 집중되는 근린 유형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가장 우측의 '근린 특성'은 아동 이동 패턴의 유형이 대응하는 근린의 비중을 보여준다. 상단의 물리적 환경-행태 요소 간 대응 매트릭스는 연관성이 높은 요소 간의 관계를 표시하되, 교차하는 두 요소 중 한 요소에 해당하는 사례의 66% 이상이 다른 요소에 해당할 때 두 요소의 관계를 '연관성 높음(양의 상관관계)'으로 진단하였다. 이 때 한 요소의 분포가 다른 요소와 반대로 분포하는 경우는 '연관성 높음(음의 상관관계)'로 진단하며, 양의 방향의 상관 관계가 동일 범주의 인접한 기준(예: 보행환경 상-중)에 나뉘어 있지만 이 두 항목을 통합했을 때 명확히 상관 관계가 보이는 경우를 별도로 표시하였다.

HOQ 도구를 활용한 진단 결과는 개별 영역별로 해석이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이동 패턴을 중심으로 서로 대응하는 요소 간의 관계와 의미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림 6-19] HOQ 도구를 적용한 근린 환경-아동 행태 진단 결과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 이동 패턴 - 환경 요인의 관계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 주거섬과 분리형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이동 패턴으로, 각 유형별 사례가 보여주는 물리적 환경 특성과 행태 특성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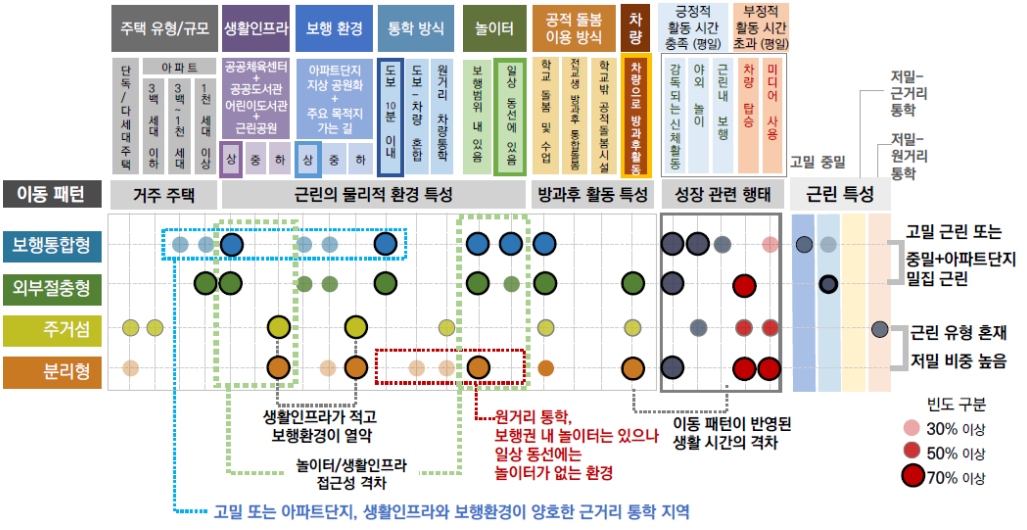
특히 물리적 환경 특성에서는 '보행통합형'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생활인프라로의 접근성이 우수하며(상) 보행환경이 양호하여(상 또는 중), 통학 방식이 도보 10분 이내인 비중이 높다. 특히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도보 10분 이내 통학이 매우 두드러지는 특성이다.

외부절충형은 보행통합형과 유사하지만, 보행통합형에 비해 놀이터의 접근성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보행범위(400m)이내에 놀이터가 있으나, 일상 동선에는 놀이터가 적다.

주거섬과 분리형은 위의 두 유형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속성을 보이는데,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낮고 보행환경이 나쁘다는 공통점이 있다. 도보 10분 내 통학의 비율이 매우 낮고, 차량-도보 혼합이나 차량만을 이용한 통학을 찾아볼 수 있다. 분리형의 경우 보행범위 내 놀이터가 있는 사례가 많지만, 일상 동선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주거섬은 놀이터 접근성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외부절충형과 분리형에서는 차량을 이용해 방과 후 일정을 구성하는 비율이 높은데, 이는 이어 살펴볼 생활 시간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놀이터 접근성에 대해서는 보행범위 내 있는 경우는 면담 대상 양육자 25명 중 20명에 이르지만, 실제로 주거섬과 분리형에서는 놀이터가 일상 동선에 없는 경우가 많아, 근린 환경 및 이동 패턴에 따른 놀이 기회의 접근성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림 6-20] 이동 패턴별 근린 환경-아동 행태 특성의 빈도

출처: 연구진 작성

□ 이동 패턴 – 성장 관련 아동 행태의 관계

이동 패턴은 특히 외부절충형과 분리형은 양육자가 아동의 일상에 구조화된 활동을 늘리고 학습 중심으로 구성하며 근린 외부로의 차량 이동이 다수 발생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근린의 특성으로 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행통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야외 놀이가 모두 하루 30분 이상을 충족하는 비율이 높고, 미디어 사용 시간이 하루 2시간을 초과하는 비율은 가장 낮다. 반면 외부절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차량 탑승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나는데, 차량을 이용해 근린 외부의 시설을 찾아 신체 활동(운동, 수영 등)을 하거나 돌봄 시설을 이용하는 외부절충형 이동 패턴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다.

주거섬 이동패턴은 차량 탑승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도 높은 비율로 표시되었지만, 야외 놀이 시간도 보이는데 이는 귀가 후 가족들과 야외에서 노는 사례(보은읍1), 방과 후 마을 돌봄 시설에서 노는 사례(안남면)에 해당한다.

분리형의 특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차량 탑승 시간(평일 30분 이상), 미디어 사용 시간(평일 2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비중이 모두 높게 관찰되는 모습인데, 특정한 근린 환경 요인을 한정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분리형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 사례의 이동 패턴별로 시간 사용 유형(학습형, 균형잡힌 실내-실외형, 미디어 중심 실내형)를 구분한 결과 보행통합형에서는 10건 중 1건에 불과한 '미디어 중심 실내형'이 그 외의 유형에서는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15건 중 7건).

□ 이동 패턴 – 근린 유형의 관계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이 해당하는 근린은 주로 고밀 근린과 중밀 근린이며, 일부는 저밀 근거리 근린에도 해당하나 빈도에서는 20% 정도였다. 즉 보행통합형 이동패턴은 학교, 학원, 생활인프라 등의 시설들이 도보권 내에 집중되어 있어 도보로 연결되는 여건에서 우세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외부절충형 이동 패턴은 사례가 적어(4건) 빈도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모두 중밀 근린 유형에 해당하여, 고밀 근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생활인프라가 적은 여건에서 외부로의 장거리 이동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교까지의 거리가 멀거나, 아동 관련 시설들이 도보권 밖에 위치한 경우, 부모의 차량 또는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고밀-원거리 통학' 유형이 행태 측면에서는 근린 내 인프라의 불충분함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도시 주거지 가운데서도 지방 대도시나 중소도시 등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주거지('중밀' 근린 유형)와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거섬 이동 패턴 역시 적은 사례 수(4건)이나, 이들 중 2건이 '저밀-원거리' 근린, 1건이 '저밀

-근거리 통학' 유형이다. 근린에서 나타난 주거섬은, 아파트와 저층주거지가 혼재하는 주거지의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사례로 아동이 학교에 도보 통학하기는 하지만 실제 아동이 거주하는 위치 자체는 생활인프라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주거섬 이동 패턴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사례는 주거섬 이동 패턴이 저밀 근린 뿐 아니라 고밀 근린에서도 주거 유형 및 생활인프라 분포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리형 이동 패턴은 양육자 면담 사례에서 7건으로 한정되었는데, 고밀과 중밀, 저밀-근거리 통학, 저밀-원거리 통학에서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고밀과 중밀 근린에서는 구시가지의 열악한 보행환경으로 활동이 단절되는 사례들이 눈에 띄며, 읍 지역들은 대체로 학교를 비롯한 필수 목적시설로의 거리가 멀뿐더러 방과 후에 학교 주변에 머무르지 않고 근린 내와 외부의 여러 시설들을 이용하는 일정으로 인해 분리형 이동 패턴이 발생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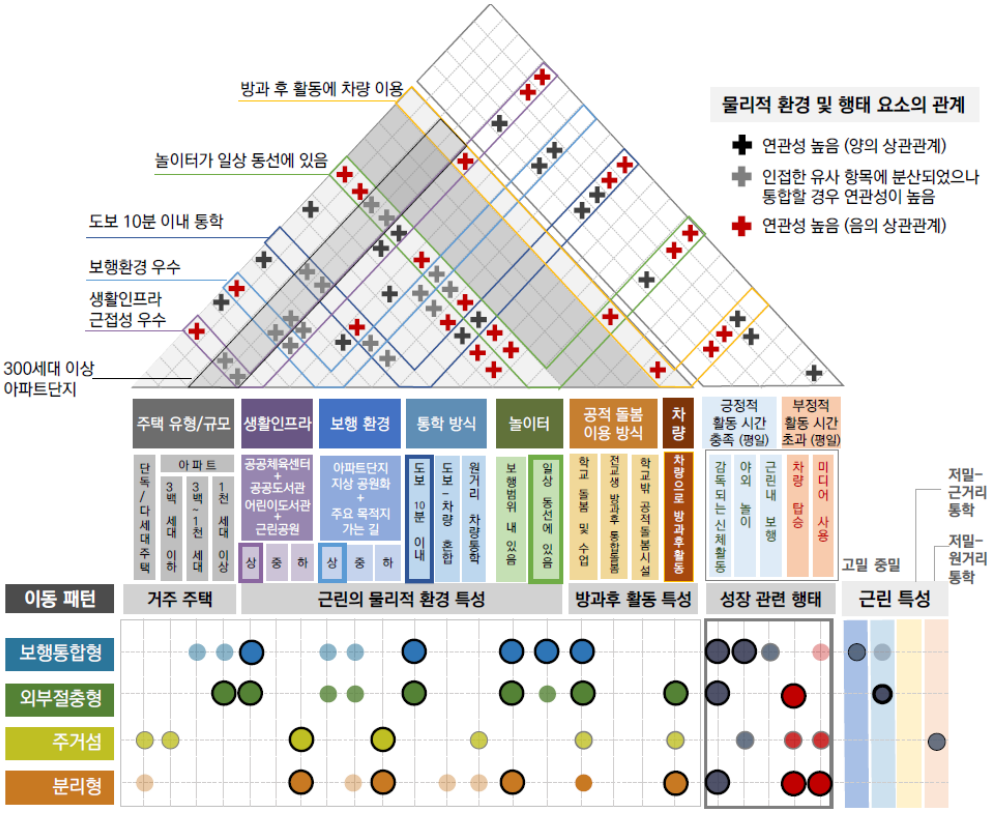
저밀 근린은, 도농복합도시의 면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사례 2건을 제외하면 모두 주거섬 또는 분리형에 해당하여, 인구 밀도와 생활인프라 밀도가 낮은 주거지에서 일상의 목적시설을 도보로만 채우는 것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고밀 지역에서도 양육자의 교육열이 높고, 집 근처 교육 환경에 대한 불만족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학교나 학원을 선택하는 경우, 집-학교-학원으로 이어지는 '분리형' 이동 패턴이 나타날 수 있다. 즉, '분리형'이동패턴의 이유가 필수 목적시설(초등학교)인지 선택적 목적시설(문화체육시설, 학원 등)인지에 따른 차이는 고밀 근린과 저밀 근린의 근본적인 차이이다.

아동의 이동 패턴은 근린 유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학교까지의 거리, 아동 관련 시설의 접근성, 보행환경, 그리고 주거 유형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다만 이상의 내용은 한정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농촌 지역 등 저밀 근린의 사례 모집이 부족한 면담 조사의 한계를 감안하여 해석해야 한다. 또한 이동 패턴에 대한 근린 환경의 영향은 개별 아동의 특성, 가족의 양육 방식, 지역-근린-학교의 특수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행태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환경 요소

근린환경 요소 간에 동반하여 나타나는 요소가 무엇인지, 또한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가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두어 근린환경 요소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면담 참여자들 중 아동의 긍정적인 활동(감독되는 신체활동, 야외 놀이, 근린 내 보행) 시간은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우수한 곳, 도보 10분 이내 통학, 놀이터가 일상 동선에 있는 사례와의 연관성이 높았다. 반면 이러한 요건이 갖춰진 근린 거주자에게서는 부정적인 활동 시간(차량 탑승 시간, 미디어 사용 시간)이 적게 나타난다.

근린환경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활인프라가 좋은 곳은 놀이터 접근성이 좋고, 도보 10분 이내 통학 방식은 보행환경이 우수한 곳, 놀이터 접근성이 좋은 곳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규모는 생활인프라와 보행환경, 놀이터 접근성, 통학 방식과 고루 연관되어 있다.[78]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는 도시 지역, 고밀 근린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린 전체의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가 결합하여 형성하는 고밀의 주거 환경이 갖는 특성을 보여주며, 이와 반대로 저밀 근린, 저층주거지와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를 남긴다.



[그림 6-21] 근린환경 요소간 관계 및 행태 특성과의 관계

출처: 연구진 작성

78) HOQ 진단도구 적용시 보행환경 진단 기준에 '600세대 이상 지상공원화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 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인 경우 보행환경이 우수하다는 항목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단지 외부 이동 경로를 포함한 목적지까지의 접근이 안전하다는 기준에 대해서도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우수한 측면이 있어 보행환경이 '상'으로 진단된 비율이 높았다.

다. 근린유형과 돌봄환경 격차

□ 돌봄공간과 프로그램, 긴급돌봄 이용 측면

돌봄공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함에 있어 도시 거주자들은 더 다양한 선택의 폭을 지니고 있다. 도시에서 돌봄방식의 선택은 부모의 출퇴근 시간과 조부모의 양육지원 가능성, 가족과 아이의 여건과 선호에 따라 다양한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수업과 학교 돌봄교실,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사설 학원들과 공부방 등이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여건에 맞게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된다. 아이들의 방과 후 행태는 어떤 공간을 어떤 시간대까지 이용하는지, 해당 근린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이 얼마나 아동의 활동에 적절하고 우호적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이동 독립성 수준 역시 아이들의 연령대와 부모의 양육태도에 의해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반면 읍·면 단위 저밀 근린에서의 아동행태는 학교까지의 거리, 거주 위치가 동네 중심인지 여부를 통해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 학교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고 거주지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진 읍내라면 독립적 이동과 자율적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읍면 단위에서는 학교까지 도보 통학 가능한 거리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79]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아동의 행태는 스스로의 의지보다는 학교에서 제공되는 스쿨버스 또는 민간 이동지원 차량의 시간표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돌봄 내용의 구성 역시 소규모 학교의 특성상 개별 아동의 여건에 맞추기보다는 학교에 마련된 방과 후 수업과목들을 연령혼합 방식의 통합된 형태로 제공받게 된다. 소규모 커뮤니티만이 가진 장점과 아동의 자율적 선택이 제한되는 단점이 공존할 것이라는 짐작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 접한 양육자 사례 가운데서는, 거주 지역을 막론하고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이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부모 중 한 명이 직장에 양해를 구하거나 조부모 등 가족, 지인의 도움을 얻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았다.

□ 돌봄서비스의 이용가능성과 다양성

도시 지역은 학교 돌봄, 지역아동센터 등의 공적 돌봄과, 공공시설 수업 등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지만, 수요가 많아 이용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쟁이 치열한 경우가 많다. 안정적인 공간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학교 돌봄교실은 입소 조건이 까다롭고, 인기

79)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9)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 80%이상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걸어가는 것과는 달리, 읍·면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의 경우 40% 남짓만이 학교에 도보로 통학하고 있다.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추첨으로 배정되어 이용 기회가 제한적이다. 이러한 경쟁 상황은, 학교 돌봄이나 근린 내에서의 서비스를 구하지 못하고 근린을 벗어나 멀리 있는 시설을 이용하며 그로 인한 이동의 부담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다.

저밀 근린은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 수가 적고,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부족하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적 자원의 부족 문제도 지적된다. 이러한 여건에서, 농촌 지역 학교에서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거나, 마을 공동체가 작은 도서관 등을 통해 돌봄을 지원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 장소간 이동 문제로 인한 돌봄 공백 대응과 아동 발달의 상충 관계

일정 수준 이상의 밀도를 충족하는 한국의 도시환경은 읍면 단위에 비해서 아동이 안전하고 활동적으로 이동하기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한다. 아동의 독립적/활동적 이동이 주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유익을 근거로 하여, 도시에서는 아동이 근린에서 어른 없이 도보와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과 함께, 그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신체활동과 경험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표와 관심을 둔다. 미시적 환경에 따른 신체활동과 놀이, 이동성의 차이는 매일의 생활습관을 매개하여, 성인기의 건강한 생활로 이행되는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 농어촌의 저밀도 환경에서는 거리라는 불가항력 변수로 인해 활동적 이동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읍면 단위 여건에서는, 학교를 비롯한 목적지로의 접근 방법 자체가 이슈가 된다. 노선부족과 긴 배차간격은 대중교통 이용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 스쿨버스가 제공되는 학교라면 스쿨버스 탑승으로 일정을 시작한 후 학교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가하는 스쿨버스에서 하차하는 것으로 하루가 마무리된다. 하교 후 다른 학원일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쿨버스 차량에서 다시 학원차량으로 인계되어 연결된다. 이 경우 근린환경보다는 학교와 운동장 등 학교 부속시설과 프로그램의 질적 측면이 아동이 보낸 하루 시간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며, 차량에서 차량으로 연결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 공백과 대기공간의 부재, 장시간 차량이동 가운데 앉아서 보내는 스크린 타임의 증가 역시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요인이 된다.

07

결 론

제1절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1. 돌봄환경 개선의 방향

가. 개선의 기본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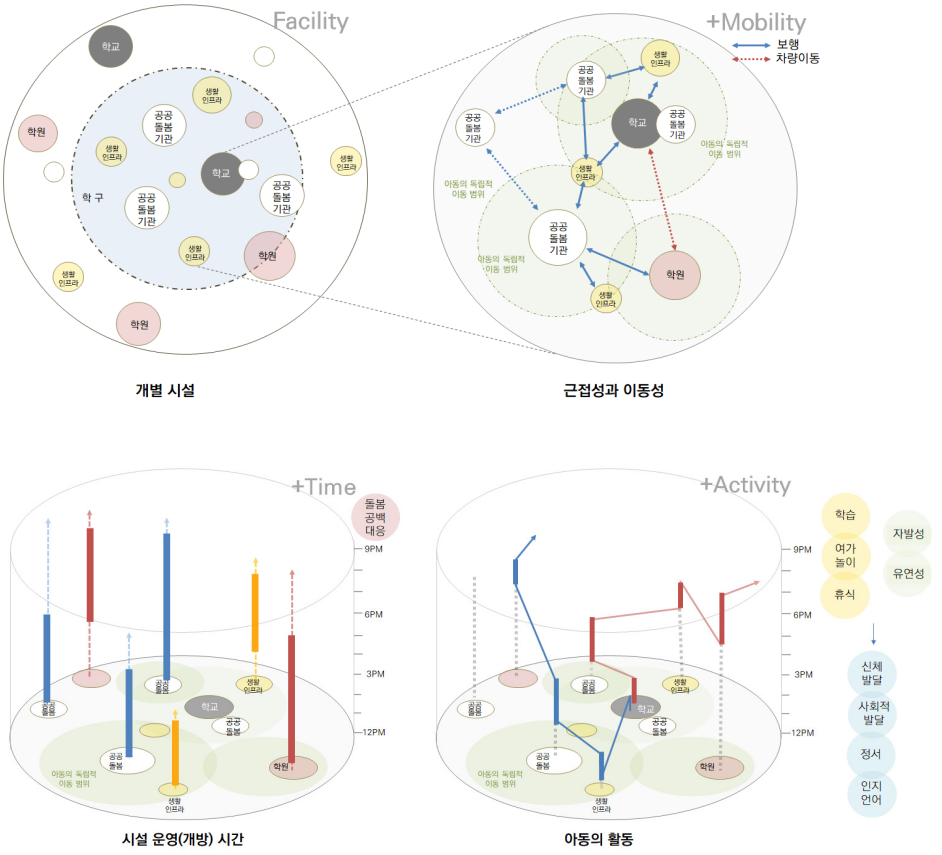
□ 돌봄 안전과 아동성장의 통합 지향

아동 돌봄에 있어 양육자의 가장 큰 불안요소인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돌봄 연속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면서 모든 일과를 감독되는 활동만으로 배치할 경우 아동 생활 시간의 균형과 자발적인 활동을 통한 아동의 성장이 방해받게 된다. 아동이 일상 생활 가운데 자율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역량을 키워가는 경험, 그리고 자연스러운 만남과 자유로운 놀이를 통해 또래와 교류하고 사회성을 길러가는 경험이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보행 능력이 떨어지고 동네를 혼자 걷기 어려운 저학년의 돌봄과, 경험의 폭을 확대해 나가며 자율성을 길러야 할 고학년의 돌봄 방식 역시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 아동의 근린 경험을 질적으로 높이고 건강한 삶의 방식을 익혀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로 돌봄을 통합한다면, 기존의 시설 중심의 관점에서 탈피해 연속된 시-공간의 단위로 근린 환경의 돌봄 지원 역량, 즉 안전과 자율성이 균형잡힌 아동 생활을 뒷받침하는 공간적 기반으로서의 가치에 주목해야 한다.

먼저 시설 단위의 돌봄, 특히 한 장소에서 장시간의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아이들의 건강한 생활 방식과 생활시간 균형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실내에서 정적인 활동을 위주로 하는 돌봄시설의 경우 아이가 해당 시설에서 지루함을 느끼지만, 돌봄시설에 근접한 공공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변 보행시설이 열악해 놀이와 운동 등의 활발한 활동을 할 기회를 갖기 힘들다.

시설 간의 이동에 대해서도 돌봄 환경에 포함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각 시설에서의 활동과 다음 장소로의 이동이 신체활동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로 아동의 균형 잡힌 성장과 이어지기 위해서는 근린의 돌봄 환경을 아동의 안전-성장의 균형 관점에서 진단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공간 관리 단위를 설정해야 한다. 돌봄 관련 공간의 단위 역시 시설 규모(인원), 운영 기준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시설 단위에서,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근린의 보행생활권 단위로 재설

정하고 아동의 이동 능력을 고려한 독립적 이동 범위 내에 다양한 활동이 채워지도록 시설의 운영 시간과 활동 종류, 운영 관리 방식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그림 7-1).



[그림 7-1] 아동의 이동독립성과 다양한 활동을 연계한 돌봄 환경 재구성

출처: 연구진 작성

□ 단시간 돌봄 공백의 건강한 전환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의 돌봄 공백은 대부분 30분~1시간 이내로 발생하였고 고학년(3~4학년)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약간 많았다. 특히 맞벌이, 공적 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여건에서 아동의 방과 후 활동은 학교 밖의 여러 장소에 나누어 일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단시간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쉽다. 그러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간이 반드시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근린 여건과 아동

의 역량, 부모의 허용 범위에 따라 활동의 질적 특성이 크게 다르다. 본 연구에서 관찰한 사례는 근린환경이 잘 정비된 지역, 즉 안전한 보행로와 공원, 복합화된 공공시설(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공공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아동들이 짧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 시간을 또래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이하거나, 공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보다 자율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반면, 공공 생활인프라가 부족하거나 근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동들이 돌봄 공백 시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을 하기 어려웠다.[80]

돌봄 공백 문제를 특정 돌봄시설의 확충만으로 해결하려는 관점을 벗어나, 근린 환경과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단시간의 돌봄 공백을 기존의 돌봄 시설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은 아동 생활시간의 균형 측면에서도 효용이 낮은데, 근린 내 입지가 한정된 돌봄 시설까지의 접근성 문제로 시설에 오가는 시간이 상당할뿐더러 학원이나 공공수업, 장거리 이동과 같이 구조화된 활동으로 피로가 축적된 상황에서 이러한 이동 자체는 아동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30분-1시간 이내의 돌봄 공백은 아동의 일상 생활 동선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을 활용해 휴식과 여가 및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생활 시간의 균형을 맞추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함께 아동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고 돌봄을 위한 보조 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공공 생활인프라 확충을 병행함으로써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돌봄 공백을 건강한 활동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접근

단시간 돌봄 공백 해소를 포함하여 근린 내에서 아동의 경험을 다양하고 풍부하게 이끌어 내는 것은 근린환경 여건과 이동 패턴 특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동 패턴에서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근린의 아동 인구 밀도로, 인구 밀도에 따라 통학 거리와 통학 방식이 어느 정도 결정되는 한편 방과 후의 일과 구성에서도 아동 인구 밀도에 수반되는 생활인프라의 밀도, 그리고 보행환경 특성이 독립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돌봄시설은 물론 생활인프라, 학원 역시 아동 인구 밀도에 따라 배치되기 때문에 근린 밀도에 따라 시설로의 근접성(거리)과 이동성(보행친화도), 선택의 폭 역시 고밀 근린에서 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단, 높은 근린 밀도가 아동의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한정된 영역에 인구가 밀집된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지 주변이 대로에 둘러싸이고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여 상업시설의 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량과 보행량이 증가하여 아동의 독립적 이동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80) 이러한 지역에서는 아동들이 동네 상업 공간을 배회하거나 집에 머물며 미디어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특히, 보행환경이 안전하지 않고 녹지 공간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부모들이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돌봄 공백 시간 동안 아이들의 활동을 관리하기 어려웠다

근린 밀도가 아동 생활이 미치는 영향은 생활인프라의 유형과 접근성을 통해 가장 명확하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에서 생활인프라 밀도의 대리지표로 거주자의 동네 주택 유형(75% 이상이 아파트)을 사용하였고, 양육자 면담 결과 분석에서는 읍면동 단위 인구 밀도를 사용하였으나 실제 아동 행태 분석 결과에서 읍면동 단위 인구밀도 역시 거주하는 근린의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하였다.[81)]

따라서 아동 돌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을 지원하는 공간 기반 관점에서의 근린 밀도는 단순한 '(아동)인구 밀도'가 아닌, 주택 유형과 근린 형태 특성이 결합된 속성으로서 보행환경과 이동 패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생활인프라의 밀도'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근린 유형별 공간 개선 방향

앞서 생활인프라 밀도와 통학 거리를 중심으로 구분한 근린 유형의 취약 요인은, 고밀 근린의 최우선 과제가 주거유형에 따른 격차 개선인 반면, 저밀 근린에서는 적은 차량이동시간으로 많은 선택지를 향유해야 함을 보여준다. 근린의 보행친화도 수준과 단위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수요를 고려해 근린 유형별 아동 돌봄 환경의 개선 전략을 도출하였다.

□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 근린 내 활동의 질 향상

가까운 거리 내에 필수 목적시설이 위치해 일상적 활동 범위가 넓지 않은 고밀도-근거리 근린에서는 보행환경에 따라 이동패턴이 달라지는데, 보행환경이 좋은 곳에서는 일상이 보행통합형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으나, 그렇지 않은 근린은 부분적으로 차량을 이용하면서 외부절충형 또는 분리형의 이동 패턴이 늘게 된다(그림 7-2).

또한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의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아이가 집 밖의 장소를 오가며 구조화된 활동으로 일상을 채우기 쉽기 때문에, 근린 내부에서 아동 활동적인 이동(걷기, 자전거 등)을 장려하면서 근린 내부에서 아동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생활 시간의 균형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구조화된 활동 장소나 프로그램을 새롭게 확충하는 것보다 느슨한 자연감시의 수준에서 안전감을 느끼며 편히 머무르고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실내외의 공공공간을 찾고 이를 일상 동선과 연계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

81) 이러한 문제는 인구 집계 단위(집계구 또는 읍면동 등 행정구역)가 학구를 포함하는 도보권 생활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게 기인하며, 연구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근린 특성의 차이, 또한 근린 특성과 주거 유형의 불일치 상황(예: 면 지역 저밀 근린에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인한 근린 밀도 해석의 한계가 나타났다.

□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 확대

근린 전체적인 생활인프라 밀도는 높으나 집 주변, 그리고 집에서 학교까지의 통학 동선에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이동 패턴이 보행통합형보다 분리형이나 주거섬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다. 보행환경이 열악한 근린의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필수 목적 시설에도 보행환경의 문제로 인해 차량을 의존하게 되고, 차량의 이동의 비중이 높아지기 쉽다. 보행환경 개선, 교통정온화 기법을 통한 차량속도 저감, 장소 간 이동 과정에서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보행 안전을 제고하고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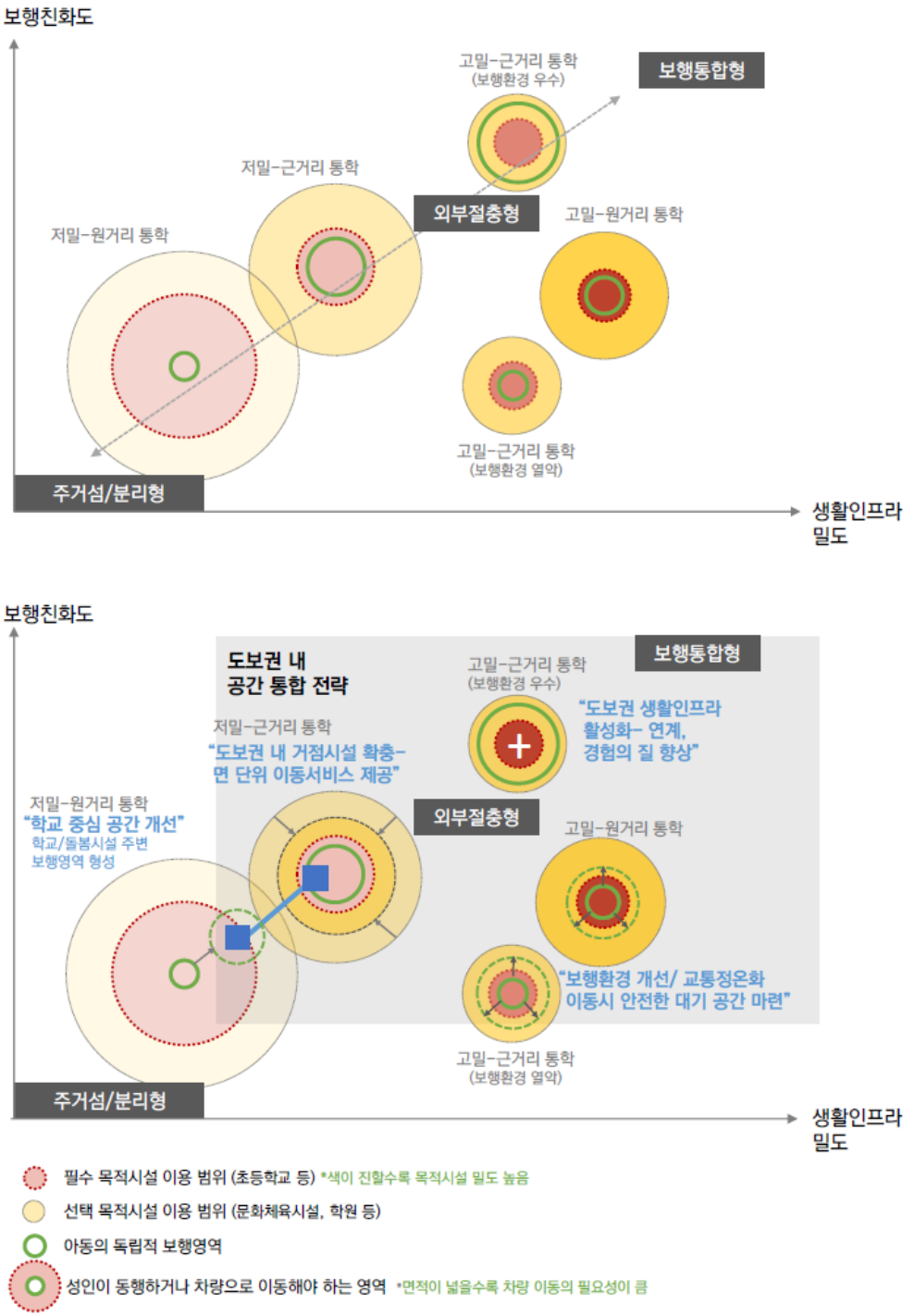
□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 도보권 내 공공 거점시설 확충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필수적인 목적 시설(학교)이 근거리에 위치하지만, 그 외 시설의 밀도는 고밀 근린에 비해 낮기 때문에 선택적인 활동을 위한 이동 범위가 넓게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교 돌봄 외의 돌봄 시설, 학원 등이 학교의 도보권에서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보행통합형으로 일상을 구성하기 어렵고 분리형이나 주거섬 유형이 나타날 수 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돌봄을 벗어나 학교 밖의 학습이나 문화·체육 활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지는데, 차량 의존도가 높고 대중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운 저밀 근린 여건상 독립적 이동에 한계가 있다. 또한 저밀 근린에서는 근거리 도보 통학이 가능한 지역이라도 아이들이 함께 모여 놀만한 놀이터를 찾기 어렵다. 학교나 거점 시설, 통학로에 인접하여 아동 문화체육 거점 시설을 확충하거나 기 조성 시설의 운영 효율을 높임으로써,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돌봄 기능을 보조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 학교 중심 공간 개선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아동 인구 밀도와 생활인프라 밀도가 가장 낮은 유형이다. 학교 돌봄의 경쟁률은 낮지만, 고학년이 될수록 학년을 통합하는 방식의 학교 돌봄에 대해 아동과 양육자의 만족도가 낮아지기 쉽다. 그러나 아동의 거주지 주변은 생활인프라 밀도가 낮기 때문에, 학교 중심의 공간 개선을 통해 학교에서 도보권으로 접근할 수 있는 활동을 늘리는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돌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운동장이나 인근 오픈스페이스를 활용해 자유 놀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특히 느슨한 감독 또는 자연 감시가 이루어지는 반(半) 개방적 형태의 생활인프라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 저밀-원거리 근린에 기 설치된 생활인프라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여 돌봄 기능을 확충하거나,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인근 중심지로 연결되는 이동 서비스를 통해 시설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림 7-2] 근린 유형별 속성(상)과 돌봄 환경 개선 과제(하)

출처: 연구진 작성

〈표 7-1〉 근린 유형별 취약 요인을 고려한 공간-활동 지원 방향

근린 유형		장점 및 취약 요인	아동돌봄안전망 구축 방향
고밀 · 중밀	근거리 도보 통학	■ **돌봄 측면** – **(장점)** 학교와 마을 돌봄 시설이 근거리에 있어 방과 후 자율적인 이동이 가능하며, 방과 후 일정 가운데 집에 들러 아동의 필요를 채우기 편리함 (휴식, 간식 섭취 등) – **(취약점)** 맞벌이 비중이 높아 돌봄 수요가 많은 도시지역 근린일 가능성이 높은데, 아동 인구 밀도가 높은 학구는 학교 돌봄 제공 기간이 짧음(예: 1학년만 해당). 한정된 돌봄 교실에 많은 수의 아동이 머물며 피로 가중 이에 독립적 이동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 밖 돌봄 시설을 알아보거나 돌봄 공백 해소를 목적으로 학원에 등록할 경우, 수업 시간과 공간 이용이 경직적인 학원 특성상 일정 사이에 돌봄 공백 발생 가능성 높음 ■ **건강한 성장 지원 측면** – **(장점)** 인도 설치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보행환경이 좋은 여건에서는 독립적 이동을 통해 근린 내 활동 및 또래와의 사회적 접촉 빈도가 높아지고 생활 시간 균형을 맞추기 유리 – **(취약점)** 학원 이용으로 치우칠 경우 구조화된 활동 비중이 높아져 생활시간 균형 저하, 돌봄 시설이나 학원 수업 사이 시간을 건강한 방식으로 활용하기 어려움	근린 내 목적시설이 풍부하여 방과후활동의 다양성을 높여주지만,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경우, 또는 근린 내에 돌봄이 해결되지 않거나 돌봄 수요에 부응하지 않을 경우 외부통합형 또는 분리형으로 치우칠 가능성 **▶ 근린 내 활동의 질 향상**
	원거리 또는 차량 통학	■ **돌봄 측면** – **(취약점)**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도보 등하교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아동의 자율적 이동을 고려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결합 이용(예: 학교 돌봄+학원 이용)이 어려움, 학원 셔틀 등 이동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을 찾게 됨 ■ **생활시간 균형 측면** – **(취약점)** 집 주변과 학교가 분리되거나 자율적 이동이 어려워 근린 접촉면이 낮음 ①집 주변에 돌봄시설, 생활인프라나 학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차량을 이용하여 외부 공간으로 이동하여 방과후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고 차량 이용으로 인한 시간 소요 및 피로 문제 발생 ②하교 후 근린에서 학교 친구를 만나 놀기 어려움 ③학교 주변에서 오후 시간을 보낼 경우 집에 오가기 어려우며 아동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양육자 부담 증가 – **(신시가지)** 아동 인구밀도는 높으나 학교 신축 계획이나 개교 일정의 문제로 원거리에 차량 통학하는 신규 개발 주거지의 경우, 공공 생활인프라 접근성이 낮아 아파트 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이나 학원에 대한 수요가 커짐	생활인프라 밀도는 중상 범위지만 보행환경 특성상 저학년의 경우 분리형 또는 외부절충형이 발생하기 쉬움 **▶ 보행환경 개선을 통한 독립적 이동 영역 확대**

근린 유형		장점 및 취약 요인	아동돌봄안전망 구축 방향
저밀*	근거리 도보 통학	■ **돌봄 측면** – **(장점)** ① 학교 돌봄 이용에 대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음 ② 활동 영역이 좁고 주민 간 사회적 관계가 높은 경우 동네의 사회적 감시 가운데 이동의 안전성이 높아짐 – **(취약점)** 농촌 읍 지역의 근린인 경우 외부 지역(도시, 광역교통망)에서의 접근성이 낮아 방과후교실이나 공적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충하기 어려움 ■ **생활시간 균형 측면** – **(장점)** 저밀 지역으로 차량 통행량이 적고 혼잡도가 낮기 때문에 인도 설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근린 내 자율적 이동이 가능함 – **(취약점) ①** 인도 설치 비율이 낮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경우 자율적 이동에 제약이 있음 ② 근린 내 아동이 이용할 생활인프라와 학원의 밀도가 낮아 다양한 활동/공간 경험이 부족함 ③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은 하교 이후 귀가하고 나면 친구를 만나서 놀기 어려움	학교는 도보통학이 가능하나, 방과 후에는 근린 내 시설간 거리가 멀어 주거섬이나 분리형으로 치우칠 우려 **▶ 도보권 내 공공 거점시설 확충**
	원거리 또는 차량 통학	■ **돌봄 측면** – **(장점)** ①학교 돌봄 이용에 대한 경쟁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교생이 함께 방과 후 돌봄을 제공받는 경우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형성 가능 ② 돌봄시설이 위치한 장소(학교나 마을 돌봄시설, 생활인프라 등)의 공간이 넓고 주변의 혼잡도가 적어 자유놀이, 바깥놀이 등 확장된 여가 활동 가능 – **(취약점)** 방과 후 활동의 프로그램 제한으로 인해 학년이 높아짐에 따른 활동 폭 확대에 한계, 개인 성향을 고려한 돌봄 이용의 선택이 어려운 여건에서 돌봄 그룹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아동의 스트레스 가중* ■ **생활시간 균형 측면** – **(장점)** 돌봄시설이 위치한 장소(학교나 마을 돌봄시설, 생활인프라 등) 주변의 혼잡도가 적어 마을 돌봄시설이나 통행량이 적고 혼잡도가 낮아 근린 내 자율적 이동이 가능함 – **(취약점)** ① 근린 내 아동이 이용할 생활인프라와 학원의 밀도가 낮아 다양한 활동 및 공간 경험이 부족함 ②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가 없다면, 하교 이후 귀가하고 나면 친구를 만나서 놀기 어려움	통학을 위한 차량 이동이 필수적인 지역으로, 주거지 밀도가 낮아 주거섬으로 치우치기 쉽고 또래와의 접촉과 동네에서의 활동에 제약 **▶ 학교 중심 공간 개선**

* 면담 대상 중 '저밀' 근린에 해당하는 유형 참여자가 적어 특성을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의 마을 돌봄 시설(2곳) 및 지역아동센터(2곳) 관계자 면담 결과를 추가적으로 참고하여 작성

출처 : 연구진 작성

아동의 안전한 돌봄과 성장의 균형을 갖추면서 양육자의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공하기에는 고밀도의 생활인프라와 안전한 보행환경의 결합이 이상적이나, 이러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다수의 지역에서는 근린 특성에 맞게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각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별 시설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린 단위의 공간 활용 및 사회적 연계를 통한 접근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에서는 아동이 거주하는 집이 아니라 방과 후 돌봄 장소를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보장하고, 워킹 셔틀버스나 주민자치 사업을 통한 마을버스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이동을 돕는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근린환경 및 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돌봄서비스 사례

[사례1] 중밀-근거리통학/보행환경이 열악한 근린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

□ 근린 특성

서대문구 우리동네키움센터 4호점이 위치한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는 대도시에 위치한 중밀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홍제천변과 백련산, 안산 등 자연 어메니티가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키움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홍연초등학교가 백련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어 가파른 경사의 등굣길로 인해 아동이 보행하기에 어렵고 위험한 측면이 있다. 또한 주변에 차량이동이 많고 초등학교와 센터 사이에 왕복 5차선 도로가 위치해 학교가 끝난 뒤 아이들이 반드시 도로를 건너야 하는 위험요인이 있다.

□ 하교 후 아동 픽업 서비스

홍연초등학교는 교문 앞 공간이 협소하고 가파른 경사의 등굣길로 인해 1, 2학년의 저학년 학생들을 담임선생님이 등굣길 중간에 위치한 서대문구 문화체육회관까지 직접 하교지도를 한다. 학부모와 학원 차량 등도 이곳에서 아이들을 기다리고 픽업하고 있다. 키움센터도 학교와 센터 사이의 이동을 돕고자 센터 선생님이 문화체육회관에서 아이들을 픽업하여 직접 센터까지 데려다주는 '안심 안전 등하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 인근 자원 연계 활용

키움센터는 홍은2동 주민자치센터 4층에 위치하여 주민자치센터 내 다양한 공간(소강당, 시청각실 등)을 사용함에 있어 비교적 협조가 수월한 편이다. 또한 서대문구 권역의 융합형, 거점형 키움센터와 연계하여 일반형 키움센터에서는 여건상 운영하기 어려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또한 센터 주변에 위치한 자연사 박물관, 홍제천, 안산 등 풍부한 도시 어메니티를 통해 다양한 경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서대문구 돌봄지도

□ 돌봄시간 동안에도 시설 출입이 가능한 관리 시스템

키움센터는 아동 출입시 카드태깅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교 이후 학원가기 전에 공백, 학원 끝난 이후의 공백을 메워주는 일종의 스테이션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센터 출입기록은 부모에게 메시지로 전달되며 아이들의 학원 및 이동 스케줄을 센터 선생님이 파악하여 일정을 관리해주고 있다.

[사례2] 저밀-원거리통학 근린 (옥천군 작은도서관 돌봄)

□ 근린 특성

안남배바우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은 농촌 면 지역의 저밀 근린유형으로 농촌지역 특성상 농기구 및 중장비 차량 이동이 잦고 보행로 연결성이 미흡하여 보행 및 교통안전이 미흡한 편이다. 더불어 학교와 주거지(마을)와의 거리가 멀어 차량기반 통학이 필수적인 지역이다. 전교생이 작은도서관 돌봄을 이용하고 있어 학교 방과후 및 돌봄시간이 끝나면 다같이 학교 셔틀을 타고 1km 거리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으로 함께 이동한다. 한편 면소재지와 마을 곳곳에 아이들의 비공식적 모임 장소(관광협의회 센터, 친구 집 마당, 이장님 집 등)가 위치하고 있다.

□ 학교 및 도서관 셔틀버스 기반 근린 이동

안남면 아이들의 등하교는 대부분 학교 셔틀버스와 작은도서관 셔틀버스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과거 안남면은 면소재지까지만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어, 배후마을과 면소재지를 이어주는 대중교통 수단이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옥천군 거점사립도서관사업', '금강수계기금 대단위 주민지원 사업비'의 일부를 활용하여 마을과 면소재지를 연결하는 '마을순환버스' 사업을 추진하였다. 마을버스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9회 운영하며, 계획 당시 민간단체 주도로는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는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으나 문화예술 사업과 연계한 공익 목적의 순환버스는 운영 가능하다는 예외조항에 근거하여 운행되고 있다.





배바우 작은도서관 내부(상) 셔틀버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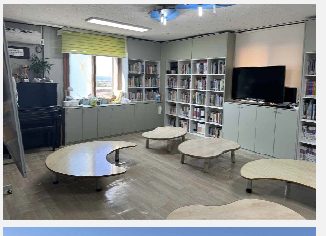
[사례3] 저밀- 원거리통학 근린 (서귀포시 우도지역아동센터)

□ 근린 특성

우도지역아동센터는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우도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어촌이자 관광지인 면지역에 위치한 저밀 근린 유형이다. 주거지와 학교와의 거리가 멀지만 학교 셔틀버스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섬지역 특성상 대중교통이 전무하여 개인차량 위주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우도는 자연친화적 근린환경과 고립된 섬 지역만의 특성으로 양육자들이 도시에 비해 안전한 공간으로 인식하는 특성이 있다.

□ 시간차를 활용한 공간밀도 조정

우도지역아동센터는 교회 부설 노인복지관을 개조하여 건립한 단층구조의 건축물로서 사무실, 교실, 거실 겸 조리공간으로 구성되어있는 비교적 협소한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적 한계를 저학년과 고학년의 학교 방과후교실 및 돌봄교실이 마치는 시간이 상이함을 활용하여 극복하고 있다. 3시에 15명 내외의 저학년이 먼저 센터에 오면 1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후 5시에 고학년이 오면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저학년은 하원하고 고학년들끼리 2부 프로그램 진행하는 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적정 공간밀도를 조절하고자 하였다. 교회에 딸린 오픈스페이스와 인근의 근린 공원은 자체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되는 한편 아이들의 자유로운 놀이 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우도지역아동센터(상), 인근근린공원(하)

□ 지역 기반 돌봄프로그램 운영

도서지역 특성상 청소년 문화센터, 문화복지시설 등 아동을 위한 공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 및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로서 학교가 유일하다. 그러나 육지 및 제주도에서의 접근성이 부족하여 외부 강사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라, 대부분의 돌봄 프로그램은 학교 선생님과 '우도 마을선생님'이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도 마을선생님' 제도란 우도 주민을 프로그램 강사로 위촉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미술, 수예, 기타, 축구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용 출처: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사진 출처: 연구진 촬영

2.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

선행연구 고찰과 설문조사 및 양육자 면담을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아동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활동과 관련된 근린환경 요소인 생활인프라, 보행환경, 놀이터의 입지 그리고 이동 패턴의 핵심 요인으로 근린환경 특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행태인 통학 방식, 마지막으로 근린 환경 요소와 양육자의 선호가 함께 작용하는 '방과 후 활동에 차량 이용' 행태를 중심 요소로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을 구성하였다.

고밀 근린의 경우 주거 유형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다핵 중심형 모델'을,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와 이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학교 중심형 모델'을 지향한다.

가. 고밀 근린: 다핵 중심형 모델

1) 고밀-근거리 통학 유형

□ 목표

차량 이동 의존, 근린 경험 및 또래와의 교류 부족, 학원 중심 생활로 인한 신체활동 부족 및 스트레스 증가를 해소하는 공간적 지원이 필요하다.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을 확대하기 위해, 높은 인구 밀도가 야기하는 차량과 근린생활시설 밀집지의 혼잡으로 인한 안전 문제, 경쟁적인 학교 돌봄서비스 이용 문제, 분절적인 일과 구성으로 인한 놀이와 여가 부족 문제 개선을 중심으로 공간 모델을 제안한다.

□ 공간 모델: 다핵 중심형 모델 – 시설 분산 배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하며, 균형 잡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 놀이 공간 확충, 학교 시설 활용 등에 중점을 둔다. 학교를 중심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공원, 놀이터, 학원 등 다양한 돌봄 및 활동 시설을 근린 내에 분산 배치하여 아이들이 도보 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하며 다양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돌봄서비스 신청에 탈락하여 학교 외부의 돌봄시설 또는 보조적인 시설을 찾아야 하는 아동들을 위해 공공 문화·체육시설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한다.

□ 세부 계획 지침

① 돌봄시설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 중 맞벌이 가정 비율이 높은 도시 지역은 늘봄학교 등 학교에서의 장시간 돌봄에 대해 학습, 놀이, 휴식 등 여러 활동에 적합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야외에는 자유로운 놀이나 자연과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환경을 정비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돌봄시설 역시 분산된 시설 간의 활동을 연결하기 좋은 위치에 조성하며, 놀이터 등 야외활동 장소가 가까운 곳에 두어 장시간 돌봄 가운데 활동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한다.

② 생활인프라

학교 운동장, 도서관, 강당 등을 개방하여 아이들이 방과 후에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특히 도서관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학습과 신체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년이 되는 아동에게는 보다 높은 위계의 문화 공간이 필요하므로, 청소년에 특화된 프로그램과 공간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을 공공 생활인프라에 조성하고, 고학년 아동부터 출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③ 보행환경

등교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차량 혼잡으로 인한 위험이 높은 학교 주변의 보행로를 확장하고, 옐로카펫, 과속방지턱을 포함한 교통정온화 기법으로 아동 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통학로는 일과 중 모든 시간대에 아동이 안전하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성한다.

④ 놀이터

학교와 주거지 인근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 시설과 녹지 공간을 확보한다. 고밀 근린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파트 단지 내의 놀이터에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흥미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과 안전시설을 확충하며, 놀이터가 부족한 근린이라면 아파트 단지 외에 거주하는 아이들이 함께 이용하는 방식을 유도한다.

⑤ 통학 방식 및 이동서비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기간 내 개선이 어려울 경우 일정 구간에 대해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는 등 도보 통학을 권장한다. 킥보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동 수단으로 활

동적인 이동을 격려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노면이 고르지 않거나 보도폭이 좁은 경우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혼잡한 시간대에 킥보드를 탈 수 없는 공간을 지정하여 안내할 필요가 있다.

도보 통학이 많은 학교는 방과 후 차량 이동의 비율이 적으나, 학교 주변과 통학로의 보행환경이 열악한 경우, 그리고 고밀 근린 지역 특성상 이동서비스(셔틀)을 제공하는 학원의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는 차량으로 인해 학교 주변이 혼잡할 수 있다. 하교 차량이나 학원 셔틀의 경우 학교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주정차 공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혼잡도가 높은 경우 운동장 일부를 학원 셔틀 대기 장소로 제공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인 동시에 출발을 기다리며 쉬고 놀 수 있는 성격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안전 관리 인력의 배치도 필요하다.

2) 고밀(중밀)-원거리 통학 유형

□ 목표

학교까지 차량이나 대중교통으로 통학해야 하는 고밀도 주거 지역으로 차량 의존도가 높아 보행통합형보다는 분리형이나 주거섬 유형에 치우치기 쉬운 여건이므로 통학 시간을 포함해 차량 이동으로 인한 돌봄 공백 발생, 교통안전 문제, 거주지와의 단절로 인한 학교시설 활용 및 또래와의 활동 제한을 해소하는 공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간 모델: 다핵 중심형 – 통학로의 중심성 강화

학교와 주거지 각각에서 독립적 이동 범위를 넓히되, 학교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범위에 돌봄 시설을 배치한다. 특히 통학로를 중심으로 등하교 시에 근린 접촉이 강화되도록 하되, 집에서 거리가 있는 아이들에게 '주거섬' 이동 패턴의 피로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학교 내 휴식·여가공간을 제공한다.

□ 세부 계획 지침

① 돌봄시설

근린 유형 가운데서도 아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부족해지기 쉬운 곳이므로 돌봄 시설에서는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와 집 사이에 거리가 있는 근린이면서 학교 주변에 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근린 내 활동을 연결하는 가운데 학교가 중간 지점이 될 수 있도록 교문 주변이나 운동장에 쌈지공원과 같은 휴식 공간을 두면 이동 중의 시간에 아이들이 머물고 친구를 만날 수 있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돌봄시설은 통학로에서 가까운 거리에 조성하여 보행 접근을 유도하며, 놀이터 등 야외활동 장소가 가까운 곳에 두어 장시간 돌봄 가운데 활동의 전환이 일어나도록 한다.

② 생활인프라

고밀 근린으로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지역이나, 도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이용이 저하된다. 우선적으로는 방과 후에도 학교 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학교 밖 돌봄 시설과 연계하여 아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보행환경

고밀 근린의 원거리 통학 패턴은 등교 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차량 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높이므로, 학교 주변의 보행 안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통학로에서 활동적 이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거나, 통학로 중간부에 하차 지점을 조성하면 학교 주변의 혼잡도를 줄이고 학교 등교 전 일부 구간이라도 걸어서 등교하여 아동의 신체활동 및 근린 접촉 수준을 높일 수 있다.

④ 놀이터

또래와의 활동이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학교나 통학로 근처에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여 놀 수 있는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를 마련하되, 자연 감시에 의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시야가 확보된 위치에 설치한다. 통학로 주변에 적절한 놀이 공간이 없는 경우, 학교 공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 공간을 조성한다. 학교의 유휴 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 운동장을 개방적으로 운영한다.

⑤ 통학 방식 및 이동서비스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환경과 정보안내 체계를 정비한다. 고학년을 대상으로 등하교를 포함한 원거리 통행에서 활동적 이동의 비중을 높인다. 안전한 자전거도로가 확보된 경우, 자전거를 이용해 등하교하기 쉽도록 자전거 보관장소가 학교와 근린 곳곳에 마련되어야 한다.

원거리 통학 근린에서 아동의 보행량을 늘리고 근린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곳에 하교 차량이나 학원 셔틀 주정차 공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혼잡도가 높은 경우 운동장 일부를 학원 셔틀 대기 장소로 제공하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인 동시에 출발을 기다리며 쉬고 놀 수 있는 성격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3) 고밀 근린 공통: 주택 유형별 고려사항

고밀 근린은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높지만, 이 가운데 부분적으로 단독·다세대 주택이 섞여 있을 경우에는 보차분리가 되지 않은 골목길에서 차량 혼잡으로 인한 위험을 겪는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이 모인 구역에 보도 설치, 안전시설 설치, 일방통행 도로로 전환 등을 고려한다. 아파트 단지 비율이 높은 학구 내에서 저층주거지가 학교에서 더욱 먼 거리에 위치한 경우, 이 저층주거지는 '분리형' 이동패턴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고밀-원거리 통학 근린'의 공간 모델에 따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편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계부 도로의 차량 위험으로 인해 아동의 근린 경험이 오히려 제한되고 차량 의존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가로 계획 및 근린과의 접속 방식이 필요하다.

나. 저밀 근린 : 학교 중심형 모델

1) 저밀-근거리 통학 유형

□ 목표

학교까지 도보로 통학 가능하여 아동의 이동 부담이 적고, 학교 중심의 돌봄 환경 조성이 용이한 반면, 집 근처에는 돌봄 시설 및 편의 시설, 학원 등이 부족한 저밀도 지역으로 주거섬이나 분리형으로 치우칠 수 있다. 돌봄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또래와의 교류 기회 제한, 학교 시설 및 운영의 경직성, 학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불만족, 연령대에 맞는 놀이공간 부족을 해소하는 공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간 모델 : 학교 중심형 모델 – 거점 생활인프라 연계

저밀-근거리 통학 유형의 근린에서는 학교가 돌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학교 돌봄 종료 이후에 아동의 다양한 활동을 한 장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점 생활인프라를 학교 가까이에 구축하고 학교와의 물리적 접근성 및 프로그램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모델이다.

□ 세부 계획 지침

① 돌봄시설

아이들이 방과 후 근린 내 활동으로 흩어지기 전에 학교 내에서 집중적인 놀이와 교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 돌봄 공간과 외부 공간을 정비한다. 학교 주변에 학원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근린 내 활동을 연결하는 가운데 학교가 중간 휴식 지점이 될 수 있도록 교문이나 운동장에 쌈지공원과 같은 휴식 공간을 둔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돌봄시설은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고 근린의 각종 생활인프라(공공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과도 가까운 위치에 조성한다. 신규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생활인프라 복합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② 생활인프라

거점 생활인프라는 돌봄시설, 문화체육시설, 놀이터를 복합시설로 설치하거나, 서로 가까운 거리에 조성한 후 도보로 연결하여 통합적인 이용을 유도한다. 특히 고학년 아동은 학년 통합 돌봄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이들의 수요에 적합한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과 공간을 지원하는 거점 공간을 공공 생활인프라에 조성한다. 신규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시설을 활용하거나 학교시설을 정비·개방하고,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하여 이용을 활성화한다.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 아동 친화적인 공간, 아동이 휴식을 취하고 간식을 먹을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시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③ 보행환경

저밀 근린은 차량 혼잡도가 적은 대신 보행로의 설치 연속성이 떨어진다. 한편 학교가 읍 중심지 또는 상업시설 밀집 지역에 가까울수록 보차분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마주해야 하는 위험이 따른다. 끊어진 보행로를 연결하고, 폭이 좁은 보행로를 확장한다.

④ 놀이터

저밀 근린은 자연 환경이 풍부하고 비공식적 놀이장소로 활용가능한 오픈스페이스도 찾아볼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이 아동의 놀이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고밀 근린에 비해 더욱 어렵다. 학교와 거점 생활인프라에 아동 연령대에 특화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를 정비하여 마을 놀이터로 전환하는 것도 주거지에서의 놀이시간과 또래 접촉을 늘린다.

⑤ 통학 방식 및 이동서비스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워킹 스쿨버스를 운영하여 도보 통학을 권장한다. 등굣길의 단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걸을 수 있는 통학로를 정비한다. 저밀 근린은 목적 시설이 근린 내에서도 걸어가기 어려운 위치에 있을 수 있으므로, 자전거 접근이 가능한 최소한의 경로를 확보한다.

근거리 통학이 대부분인 학교는 스쿨버스를 운영하지 않으나, 방과 후 학교 밖의 목적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차량 이동 수요가 큰 곳이다. 하교한 아동들이 활동 거점(돌봄시설, 거점 문화체육생활인프라 등)으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 지원이 필요하다. 정기적인 이동 수요가 있는

돌봄 시설로의 이동에 비해 선택적 활동을 위한 이동은 시간대와 수요가 불규칙하여 학교 단위의 정규 교통 수단 지원이 어렵다. 학교에서 거점 문화체육시설로 이어지는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100원 택시 운영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2) 저밀-원거리 통학 유형

□ 목표

학교까지 차량이나 통학 버스로 이동해야 하며, 주거지는 물론 학교 주변에도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저밀도 지역이며, 주거섬이나 분리형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학교 돌봄의 공급은 충분하나 돌봄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연령대별 특화 프로그램 부족, 연령대에 맞는 놀이공간 부족, 문화체육활동 경험의 제한이 우려된다. 학년 통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학교 돌봄외에 근린에서의 또래 접촉이 어려우므로, 돌봄 서비스에서의 프로그램과 공간 경험을 최대한 높이는 공간적 지원이 필요하다.

□ 공간 모델 : 학교 중심형 모델 – 지역 내 소규모 자원 연계

저밀-원거리 통학 유형의 근린에서는 학교가 돌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장시간의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학교 또는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델이다. 생활인프라 복합화를 통한 활동의 구심점 형성은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유리한 전략이지만 거점 위계의 생활인프라를 조성할 경우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우려되고 운영관리에 큰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강현미·김준래, 2023),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저밀-원거리통학 유형에서 아동의 차량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전제로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소규모 복합화시설이 적합하다.

□ 세부 계획 지침

① 돌봄시설

방과 후 학교 또는 마을에서의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곳이므로 돌봄 공간과 외부 공간을 정비한다. 특히 돌봄 시설 주변에서 걸어서 접근 가능한 활동 공간이 부족한 지역이므로, 돌봄 공간에는 학습, 여가, 놀이, 휴식 등의 활동 유형에 따라 구별된 공간을 확보한다. 특히 학년 통합 돌봄의 경우 연령에 맞는 활동을 하기 어렵고 돌봄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넓은 공간에서 학년별 활동을 구분하면서 고학년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이나 강당 환경을 정비한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마을돌봄시설은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고 근린의 각종 생

활인프라(공공 문화체육시설, 공원 등)과도 가까운 위치에 조성한다. 신규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생활인프라 복합화를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② 생활인프라

학교 인근에 장시간 체류를 지원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의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소로 작은도서관, 공공체육시설 등에서 아동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학교 돌봄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농번기에는 저녁 시간까지 운영하여 아이들이 돌봄 공백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

③ 보행환경

도보 통학이 어렵기 때문에 학교 주변의 보행환경이 정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학교 주변에서 안전하게 걸어서 갈 수 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끄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최소한의 보행 영역을 확보한다. 원거리 통학 근린에서 아동의 보행량을 늘리고 근린과의 접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등교 시에는 스쿨버스에서 승하차 지점을 학교에서 적정 거리에 두어 일정 공간을 또래들과 함께 걷도록 유도해야 하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④ 놀이터

재학생 수가 적고 학교 주변의 인구 밀도도 낮기 때문에 방과 후에 돌봄 프로그램이 없이 학교 공간에 놀이장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돌봄 인력이나 시설 관리 인구가 상주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놀이공간을 확충한다. 다만 소규모 실내공간이나, 외부 오픈스페이스로만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실내공간과 실외 놀이장소가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

⑤ 통학 방식 및 이동서비스

원거리 통학이 대부분인 저밀 근린의 초등학교는 통상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활용하여 근린 외부를 포함한 영역에서 경험의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유형 근린은 도보 거리에서 고학년 아동을 위한 거점 생활인프라를 찾기 어려우므로, 스쿨버스를 이용해 인근 읍 지역 등 중심부 거점 시설로의 이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스쿨버스 하교 동선에 거점 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스쿨버스 운영시간 이후에는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100원 택시 등의 이동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3) 저밀 근린 공통: 주택 유형별 고려사항

저밀 근린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주택 수요의 한계로 인해 소규모 단지가 대부분이다. 이는 고밀 근린에서 도시정비사업이나 외곽 개발을 통해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

다.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공동주택 규모별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에 대한 기준에 있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저밀 근린에서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근린 내 흩어져 거주하는 아동들이 상대적으로 모여 살고 함께 놀 수 있는 기회이나,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이 부족한 경우에는 또래와의 교류조차 쉽지 않다.

저밀 근린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과 주민공동시설에 대해 특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 아동에게 제공하여 근린 단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 7-2〉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계획 지침

구분	요소	계획 지침
고밀 근린		
근거리 통학 보행환경이 좋은 곳 ▼ **〈다핵 중심형〉 +시설 분산 배치**	돌봄시설	□ 맞벌이 가정 아동의 장시간 돌봄에 적합한 돌봄공간 조성 (야외활동공간 포함) □ 마을돌봄시설은 분산된 시설 간의 활동을 연결하는 위치에 조성
	생활인프라	□ 도서관과 체육시설 확충으로 학습 및 신체활동 지원 □ (고학년) 거점 생활인프라에 청소년 특화 프로그램 운영
	보행환경	□ 차량 혼잡도가 높은 학교 주변 보행로를 확장하고 교통정온화 기법 적용
	놀이터	□ 학교와 주거지 주변에 다양한 놀이시설과 녹지 공간 확보
	통학방식/ 이동서비스	□ 학교에서 도보 가능한 거리에 하교 차량이나 학원 셔틀 주정차 공간 마련 □ 하교시간대 차량이 혼잡한 학교는 도보 거리 내에 하교차량 승하차 장소를 별도 제공하거나, 운동장 일부를 학원 셔틀 대기장소로 마련하고 안전인력 배치
원거리 통학 보행환경이 좋지 않은 곳 ▼ **〈다핵 중심형〉 통학로 중심 보행공간 개선**	돌봄시설	□ 돌봄시설에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 확보 □ 주거지보다 학교 주변에 생활인프라 밀도가 높은 경우 교문이나 운동장에 휴식공간을 조성 □ 마을돌봄시설은 통학로에서 가까운 거리에 조성하고 야외활동공간과 연계
	생활인프라	□ 방과 후에도 학교 공간의 다목적 이용을 확대
	보행환경	□ 학교 주변 보행안전시설을 확충하고 통학로의 중간 기점에 차량 하차 지점을 마련해 일부 구간을 걸어서 등하교하는 구간으로 조성
	놀이터	□ 학교나 통학로 근처에 소규모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자연감시 확보 □ 학교 주변에 놀이터가 부족한 경우 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학교 공간을 개방적으로 운영
	통학방식/ 이동서비스	□ 학교 가까이에 대중교통을 확충하고 대중교통 접근성과 정보 제공 향상 □ (고학년) 자전거 등하교를 위한 통학로 정비 및 자전거 보관장소 제공 □ 하교시간대 차량이 혼잡한 학교는 도보 거리 내에 하교차량 승하차 장소를 별도 제공하거나, 운동장 일부를 학원 셔틀 대기장소로 마련하고 안전인력 배치
고밀 근린 공통 사항		□ 고밀 근린 내 저층주거지는 주거지와 학교 주변에서의 활동이 분리되는 '분리형'또는 '주거섬'의 이동패턴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므로 '고밀-원거리

구분	요소	계획 지침
		통학 근린'의 지침을 기준으로 관리 ☐ 1,00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단지 경계부의 가로 설계를 통해 근린과의 접촉면 형성
저밀 근린		
근거리 통학 학교에 보행 접근 가능한 중심부 ▼ **〈학교 중심형〉 + 거점 시설 연계**	돌봄시설	☐ 학교는 방과후돌봄에서 집중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학교 주변에 생활인프라가 밀집한 경우 교문이나 운동장에 휴식 공간 조성
	생활인프라	☐ 시설복합화 또는 도보 연계 방식으로 거점 생활인프라를 조성하고 고학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거점인프라 신규 조성이 어려운 경우 학교시설을 아동의 활동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방과 후에도 개방
	보행환경	☐ 근린 내 보행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폭이 좁은 보행로를 확장
	놀이터	☐ 학교와 거점 생활인프라에 아동 연령대별로 특화된 놀이 공간 조성 ☐ 아파트 단지 놀이터를 정비하여 마을 놀이터로 전환
	통학방식/이동서비스	☐ 아동들이 방과후 활동 거점(돌봄시설, 거점 문화체육 생활인프라 등)로 함께 이동할 수 있는 교통 수단 지원 ☐ 학교와 방과후 생활거점 간 이동에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100원 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
원거리 통학 학교에 차량 통행하는 주변부 ▼ **〈학교 중심형〉 + 소규모 자원 연계**	돌봄시설	☐ 장시간 돌봄에 적합하도록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시설을 정비하고 활동 유형에 따라 구별된 공간 확보 ☐ (고학년) 학년 통합 돌봄에서 연령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강당 등 넓은 공간을 정비하여 돌봄 장소로 활용
	생활인프라	☐ 학교 인근에 아동이 장시간 체류 가능한 공공 생활인프라 마련 ☐ 농번기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에는 생활인프라 연장 운영
	보행환경	☐ 학교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로 아동의 흥미를 끄는 활동 거점에 이르기까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마련하여 보행 영역을 확보 ☐ 등교시에는 스쿨버스에서 승하차 지점을 학교에서 적정 거리에 두어 일정 공간을 또래들과 함께 걷도록 유도
	놀이터	☐ 돌봄 인력이나 시설 관리 인구가 상주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놀이공간
	통학방식/이동서비스	☐ 기 운행하는 스쿨버스를 활용해 근린 내부와 외부에서 경험의 다양성을 높이는 장소간 이동 연계 ☐ (고학년) 방과 후 학교에서 중심부의 거점 생활인프라로의 이동 지원 ☐ 스쿨버스 운영시간 이후에는 대중교통이나 셔틀버스, 100원 택시 등의 이동지원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
저밀 근린 공통 사항		☐ 저밀 근린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의 외부공간과 주민공동시설을 특화하여 지역 아동이 이용 가능한 생활인프라로 조성

출처 : 연구진 작성

3. 정책 제안

가.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 계획 수립과 보장

제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공간 단위에서 결합해서 보기 위해서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근린 단위 방과후 돌봄 공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다양한 부처에서 방과후 돌봄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계 정부를 모두 포함한 돌봄 공급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초등학생 자녀의 사회적 돌봄에 관한 법정 계획은 없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사회보장기본법,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법정 근거에 일부 포함되어 있다.

먼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추진 전략에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a, p.4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하나로, '아동의 균등한 초등돌봄 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초등교육 혁신을 통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 온종일돌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아동 돌봄의 통합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a, pp. 74-76).

다음으로,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 제7조에 근거하여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추진하는 전략으로써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라는 정책 영역에서 '아동중심 공적 보호·돌봄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0b, p.24).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학교-지자체 협업을 강화하는 지역사회 맞춤형 초등돌봄 체계를 구축하며,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20b, pp. 68-69).

이 두 개의 법정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것으로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서로 다른 부처에서 운영하는 방과후돌봄의 격차가 발생하므로 이를 균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고, 학교 돌봄 중심의 공급 체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없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추가 설치하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또한, 두 법정 계획 모두 교육체계와 복지체계 혹은 학교와 지자체의 거버넌스와 협업 체계를 강조하지만,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두 개의 법정 계획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두 계획 간 유사성과 일관성은 매우 높으나, 학교 돌봄과의 관계, 교육과 돌봄의 연계, 중앙-지방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수립된 법정 계획이라는 점에서 앞의 두 계획과 차이가 있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도 '방과후돌봄'을 포함하고 있으나, "맞춤형 교육과 다양한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 중심의 단계적 돌봄 체계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p.19). 또한, "사회보장사업 간 유사·중복성, 누락·부족 제도 발굴을 통해 패키지화 및 투자 확대 등 체계적 정비"의 예시로, 늘봄학교 중심의 아동·청소년 교육·돌봄 연계를 제시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p.30).

여전히 초등 방과후돌봄 체계는 교육(교육부)과 복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부는 늘봄학교 중심의 단계적 돌봄 체계 정비의 의중을 밝혔다. 이에 더해 저출산 영향으로 향후 5~6년간 초등학생 수는 급격히 감소할 전망이다(통계청, 2024b). 즉, 단기적으로 본다면, 아동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체계를 정비하여 늘봄학교 중심으로 단일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90%를 초과하는데, 초등 방과후돌봄의 이용률이 20%(2학년)~30%(1학년)에 불과하므로 여전히 확대할 필요가 있고, 최근 깜짝 반등한 출산율(통계청, 2024c. 2024년 7월 인구 동향)을 고려하면, 2030년 이후 아동 인구의 증가가 전망된다(통계청, 2024b). 즉, 장기적으로는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돌봄 공급의 부족이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변동과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교육부 주도의 초등 돌봄 공급 계획[82]은 명시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부총리 주관의 '사회관계장관회의[83]'를 통해 초등 돌봄 공급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법정 계획에 포함하여 지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강지원 외(2016)는 〈지역 아동 돌봄 계획 수립 지원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부처에서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등 아동 돌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아동 돌봄의 제공을 위하여 지역별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역 단위에서 종합적인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아동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 방과후돌봄의 수요를 바탕으로 공급량을 결정하고,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82) 서울과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방과후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는 법제화된 계획은 아니다.

83)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 규정」 제2조에 근거하여 "주요 교육, 사회 및 문화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추진하고,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과 관련하여 정부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한 현안사항 및 주요 정책 또는 관련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분야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조에서는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 및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2024년 10월 기준 현재, 사회관계 장관회의는 총 8차례 이루어졌다(사회정책대표누리집, http://www.socialpolicy.go.kr/boardCustomList.do. 접속일: 2024년 10월 2일)

의 분담을 결정하며, 이러한 분담에 따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강지원 외(2021)는 부처 통합보다는 지역 단위 통합적 운영에 초점을 두었다. 즉,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에 대한 재정지원은 동일해야 하며, 지역 단위 돌봄의 분담을 고려하여 운영비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A기관이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B기관에서 연계하여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이용한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동일해야 하며, 오후 간식과 저녁 급식은 B기관에 추가 지원되어야 한다. 또한 A기관과 B기관을 연계하여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A기관이 B기관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연계해야 한다. 즉, 이동에 대한 책무는 A기관이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강지원 외(2016)는 초등 방과후돌봄의 공급 계획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기준으로 한 로드맵을 제안하였다. 이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지역 내 맞벌이 가족의 비율과 다문화가족 비중, 지역 특화 산업의 특성(예, 농촌, 3교대 등) 등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돌봄 수요는 매년 학교에서 조사하는 초등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기준으로 공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요약하면, 초등 돌봄 공급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1) 지역 단위의 수요에 대한 추정, 2) 지역 단위의 공급량 결정, 3) 지역 단위의 공급 체계의 역할 분담, 4) 공급량과 역할 분담을 고려한 중앙부처의 지원 체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지역 단위 아동 돌봄 공급 계획은 중앙 단위에서 가족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다양성을 고려하고, 지역의 산업 구조와 근린 환경, 돌봄 인프라 등의 특성을 접목하고, 지역 단위에서 공급량(목표)을 결정하고, 역할 분담을 결정한 후, 중앙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는 재정지원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방과후돌봄 공급 계획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양적 조사에서 방과후돌봄의 이용과 희망에 관한 학부모 인식의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지역 조사와 학부모 조사 등의 질적 조사에서는 지역 간 특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구의 설계 단계에서 양적 조사에서는 보편성을, 질적 조사에서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으며, 특히 질적 조사에서는 지역 간 격차를 조사하는 데 목적을 둔 이유가 크다. 그러나, 중앙부처 단위의 공급 계획이 기본적인 지침을 제공한다면, 시도와 시군구 단위에서의 공급 계획은 '우리 동네' 혹은 '근린'을 중심으로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방과후돌봄 시설의 공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과후돌봄의 보장기관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에서 무분별한 학교의 설치와 방과후돌봄 시설의 확대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것처럼 아동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에서 학교와 돌봄 시설의 공백에 대해서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처별로 이원화된 사업은 보장기관 역시 시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로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공급 계획의

협의 조정과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공급 계획의 수립 방식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인 복지체계에서 중앙부처는 지역(시도, 시군구)의 수요(공급 계획)를 파악한 후 이를 합산하여 공급 계획과 예산을 마련한다. 이는 다수의 복지 사업이 지방자치단체 보조의 방식을 쓰기 때문이다. 즉, 이때 보장기관은 시도지사 혹은 시군구청장이며, 중앙정부는 국고를 보조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국고 보조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지불해야 한다. 반면에 교육부가 주관하는 늘봄학교는 시도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따라서 방과후 돌봄에 대한 공급 계획은 결국 방과후 돌봄에 대한 보장 의무를 누가 지는가와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고밀-근거리 통학 유형과 저밀-원거리 통학 유형 간에는 돌봄 시설의 운영과 생활인프라의 활용, 통학 및 이동서비스 등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크다. 이런 특성이 공급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기 위해서는 상향식 공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방과후돌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를 측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에 대한 법정 조사는 없다. 2018년 이후 교육부가 초등학교를 기반으로 '범부처 초등 돌봄 수요 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수조사에서 표본조사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는 상당히 단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84]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방과후돌봄 수요 조사는 김영란 외(2018)와 강지원 외(2020)의 조사 문항을 일부 수용하되,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 환경과 사회적 돌봄 인프라를 추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지역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의 구축에 초점을 맞춰 돌봄 기관 이용과 가정 방문형 이용, 가정에서 직접 자녀를 돌보는 다양한 방식까지 포괄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방과후돌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방과후돌봄의 수요와 관련한 조사가 매우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다만, 이러한 조사가 표본의 설계나 조사 문항의 객관성, 결과 해석의 과학성과 중립성 등에서 일부 치우치는 결과를 양산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늘봄학교가 확대되기를 지지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이나, '돌봄서비스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받기를 원하십니까?'와 같은 문항은 응답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어떤 정책이든지 학부모가 지원을 적게 받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표본의 크기가 적정한지, 무응답을 어떻게 보정했는지, 표본에 대한 가중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 등이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방과후 돌봄 공급 계획의 기본이 되는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를

84) 초등 돌봄을 이용할 의사(비율)와 방과후 돌봄 기관에 대한 이용 의사와 만족도 등이 교육부 발표자료에 활용되는 정도이다.

정례화하고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는 공급량을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아동을 둘러싼 1) 가족의 돌봄 여건(맞벌이, 근무 형태 및 근무시간, 다문화 등 특별한 욕구 등)과 2) 아동의 상황(나이, 출생 순위, 등하교 방식 등) 등을 고려하고, 3) 방과후돌봄의 필요 여부, 4) 방과후돌봄의 필요 시간(요일, 오전, 저녁, 방학 등), 5) 방과후돌봄 이용 희망(학교 돌봄, 마을 돌봄 등), 6) 학원 등 연계 기관 등이 포괄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 단위 돌봄안전망의 현황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근린 단위 돌봄 환경에 대한 조사가 추가될 필요가 있다. 1) 방과후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또래 관계 등)를 형성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공공체육시설, 공원, 놀이터 등), 2) 아동의 안전한 이동과 돌봄 공백에 간접적 관련이 있는 보행환경과 통합 방식, 이동 시간과 접근성 등이 포괄적으로 측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조사 자료는 일정한 수준의 검토를 거쳐 다양한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 승인 통계로 전환하여 누가 조사하든지 조사의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관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표본의 설계와 조사 문항의 작성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조사 결과의 해석에서도 오용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는 노인실태조사와 같이 부처에서 수행한 통계 원자료를 조사 수행 기관에서 공개하는 방안도 활용할 수 있다.

한편,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85] 수요 조사 결과는 방과후돌봄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와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에서는 주거지와 학교 간 거리가 상당히 짧지만, 농어촌이나 산간 지역에서는 주거지와 학교 간 거리가 상당히 멀어 방과후돌봄의 이용은 '이동 지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유사하게, 3교대 근무 사업장이 많은 지역이라면, 아침 돌봄에 대한 희망 비율이 높다. 이런 경우 아침 돌봄을 누가, 어떻게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다른 예로, 돌봄이 필요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학생이 많다면, 돌봄의 주관기관인 늘봄학교에서 몇 시까지 돌봄을 제공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학교 돌봄이 저녁 8시까지 직접 제공할 것인지, 마을 돌봄과 연계해서 제공할 것인지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수요 조사를 계속 유지한다면, 수요 조사의 결과는 학교 단위로 공개되어야 한다. 개별 학교의 늘봄 학교 운영 여부와 늘봄 교실 운영 방식 등이 학부모의 돌봄 수요와 대응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학교 단위에서 학부모의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면, 마을 돌봄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공유와 역할 분담에 따른 재정지원이다.

---

85) 현재 초등 방과후돌봄에 대한 수요 조사는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된다.

다. 돌봄 권역의 설정

우리나라에서 '지역 중심의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나라와 달리, 지방 교육행정과 일반 지방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각각의 방과후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보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통합적으로 운영되므로, 사업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조정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역할 분담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다. 그러나, 교육체계와 사회복지 체계는 이러한 협의·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다.

2004년 노무현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2006년 제도화되면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의 돌봄 체계는 줄곧 분절적이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과 맞벌이로 대상을 구분하였고, 보건복지부 주관 협의체를 운영했던 시기도 있고, 교육부 주관 협의체를 운영하는 시기도 있다. 거의 20년에 걸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과후돌봄 체계 운영을 위한 정책 수단을 모색했으나, 여전히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에서 늘봄학교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돌봄 내실화 방안은 주관부처와 주관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하게 된다.

다만, 고질적인 지방행정의 이원화된 체계로 인한 칸막이를 제거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육-사회복지 전달체계 간 실질적인 협력 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수의 법정 계획에서 '학교-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했고, 실질적으로 거버넌스의 구축 여부와 운영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형식 논리에서 다수의 성과를 냈지만, 실제적인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 교육행정과 일반 지방행정이 결합하는 지리적 환경 설정으로 돌봄 권역을 제안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마을 돌봄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장기관이다. 이런 이유로, 사회복지 체계의 돌봄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시도와 시군구 단위로 관리되었으나, 교육부의 학교 돌봄은 시도교육감이 보장기관으로 시도교육청의 운영에 따르기 때문에 교육체계의 돌봄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관리되지만 실제로는 단위학교가 관리 대상이었다. 이런 이유로, 다수의 법정 계획에서는 학교-지자체 간 협력체계를 제안할 수밖에 없었으나, 같은 시군구에서도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예, 아파트 단지, 주거 섬 등)에 따라 돌봄의 수요와 공급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한 '초등학교의 학군'을 기준으로 초등 돌봄의 권역을 설정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은 시도와 시군구, 읍면동을 기준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역의 설정보다 교육행정에서 활용하는 학군(school district)이 근린주구에 더 가깝다. 이런 이유로, 초등 방과후돌봄의 설치 기준 역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기준이 아니라 학군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적정하다. 다만, 학군도 인위적인 구분이므로 실제 생활권과 무관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활권과 학군을 적정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86]

이와 비교할 때 초등 방과후돌봄은 이미 교육행정에서 활용하고 있는 학생 배정의 권역 설정을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과도한 부담 없이 손쉽게 권역을 설정할 수 있으며, 방과후돌봄이 주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쉽다. 다만, 학군의 설정은 지방행정과 공유하고, 학교 돌봄 외에 마을 돌봄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관되게 관리될 수 있는 지역코드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러한 권역 설정은 강지원 외(2023a)의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 보듯이 원도심과 구도심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공간의 조정과 마을 공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 방과후돌봄의 성과 측정

2022년 기준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의 이용률은 약 12% 수준이다.[87] 이 중 약 70%는 초등학교에서 제공한다(박윤수 외, 2023). 한편, 2023년 기준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은 11.5%이며, 학년별로는 1학년 34.5%, 2학년 25.9%, 3학년 6.1%, 4학년 3.0%, 5학년 1.5%, 6학년 1.2% 이다(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 2024b). 한편, 교육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했으며,[88] 늘봄학교의 주요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학교 돌봄의 공급은 확대된 것으로 예상된다.[89] 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전국적인 공급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과 대구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늘봄학교 도입에 따른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의 공급이 증가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문제는 이러한 경향의 지속성과 적절성에 있다. 즉 전체적인 총량에서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의 공급 확대도 바람직하지만,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증가했는지, 늘봄학교의 운영이 지속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 인구가 계속 증가하거나 유지되는 서울의 도심지에서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반면에, 아동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한 전남 지역에서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의 공급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이유로, 공급의 총량이 아니라 지역별 공급 수준의 적절성이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

86) 일본과 덴마크는 중학교 학군을 노인 돌봄 권역 설정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례를 참조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 노인돌봄권역을 설정한 적이 있다. 그러나, 권역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중앙부처의 권역 설정에 의존했으며, 결국은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다시 회귀하였다.

87) 2023년 기준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 이용률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88) 2023년 4월 기준 늘봄학교 운영 현황은, 서울(6.3%)에서 부산, 전남(100%)까지 격차가 있으나, 전국 평균 46%다(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 2024a. 검색일: 2024.8.5).

89) 2022년에는 초등돌봄교실 292,068명, 학교돌봄터 1,535명, 다함께돌봄센터 20,013명, 지역아동센터 81,939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7,892명 등 총 403,447명으로 나타났다(박윤수 외, 2023, p.36). 따라서, 기존의 초등돌봄교실과 학교돌봄터가 늘봄교실로 전부 전환했다고 해도 실질적인 공급이 약 7,000여 명 증가한 것이다.

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늘봄학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교육(지원)청에 「늘봄지원센터」를 구축하였다. 이는 기존에 학교에서 운영 중이던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하여 늘봄학교로 개선한다는 것을 뜻한다. 물론, 2024년에는 과도기 단계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로 구분되며, 늘봄학교를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여전히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이유로, 늘봄학교를 도입한 학교는 전체 초등학교의 46%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원하는 초등학생 모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2024년에는 초등 1학년부터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교육부, 2024b). 그러나, 여전히 늘봄학교 도입률이 46%에 불과한 상태이고, 늘봄학교가 도입된 학교에서 늘봄교실이 얼마나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중 얼마나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즉 정부의 발표는 있으나, 2024년 2학기 기준 늘봄학교 도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생산되지 않았다. 이는 초등학교 1학년 중 일부는 돌봄이 필요해도 돌봄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특히 정확한 통계의 산출과 발표가 없으므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기 어렵고, 자녀의 방과후 생활에 대한 돌봄 계획을 수립하기도 어렵다.

또한, 교육부(2024b)는 "초등학교 1~2학년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1~3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 선택형 프로그램과 저녁 돌봄을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늘봄학교 도입 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초1 맞춤형 프로그램의 이용 역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유로, 네 자녀를 양육하는 동아일보 이미지 기자(2024)는 "연중 매일 2시간 무료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데 사실상 학교 의무교육이 2시간 연장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8년 정부와 교육 관련 기구에 초등 학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늘리는 내용의 안건을 제출하기도 했다... 새로운 돌봄을 계속 구상하는 대신 현 공교육 안에서 해결해보는 방안"으로, "늘봄 대신 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하기도 하였다(이미지, 2024).

2024년 2학기 늘봄학교 도입과 운영은 2025년 정책의 바로미터에 해당한다. 현재 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에서 공개된 통계는 학교를 기준으로 한 늘봄학교 도입 현황이며, 늘봄안내지도는 방과후돌봄기관과 지역을 선택하면 해당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90] 그러나, 학부모에게 중요한 정보는 개별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용 인원(정원)이 몇 명이고, 현재 몇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현원), 몇 명이 대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가 있어야 2025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의 실질적인 돌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

90) 예를 들어, 세종특별자치시를 선택하면 전체 돌봄 기관은 99건이며, 늘봄학교는 22건, 초등돌봄교실은 52건, 그 외 마을 돌봄 기관은 22건이 있다.

마.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필요

최근 우리나라의 방과후 돌봄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돌봄 공백에 대하여 합의된 정의는 없으며, 주로 '나홀로 아동' 또는 '방과후 성인보호자 없이 일정 시간 이상을 보내는 상태' 등으로 정의하였다(김주리 외, 2021). 영유아는 대체로 성인 보호자가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나, 생애주기에서 아동기는 유아기를 벗어난 초등학생 저학년부터 청소년기에 포함되는 고학년까지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유아기와 청소년기 사이에서 '성인 보호자 없이 낮에 아동이 혼자 있을 수 있는지 혹은 혼자 있어도 되는지', 또는 '혼자 있는 경우 어느 정도의 시간까지 혼자 있을 수 있는지 혹은 혼자 있어도 되는지'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도 초등학교 1~4학년 아동이 혼자 또는 성인 보호자 없이 형제자매와 보내는 시간을 돌봄 공백으로 측정했지만,[91] 한편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성인 보호자가 없더라도 또래와 독립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예, 놀이 등)도 필요하다.

성인 보호자 없이 아동이 혼자 있을 수 있는지는 아동의 나이나 형제 순위, 아동과 부모의 기질적 특성, 또래 관계나 주변 근린 환경 요소 등에 따라 매우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기에 앞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침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이 있어야 아동의 보호자도 아동의 돌봄 공백에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으며 방과후 돌봄에 대응할 수 있다. 이는 비단 아동의 보호자에만 해당하지 않으며, 방과후 돌봄에 대한 정책을 설계할 때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아동이 '혼자서 식사를 챙겨서 먹을 수 있는 시기'까지 논의가 확대될 수 있다. 즉, 돌봄 공백은 아동이 언제부터 혼자 있을 수 있는지를 넘어서, 혼자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을 설계하기에 앞서 이러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돌봄 공백은 대부분 30분 이내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모든 가용한 공식적·비공식적 자원을 활용했을 때 측정한 응답이다. 맞벌이 가구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적 돌봄과 학원, 비공식적 자원(예, 조부모, 이웃 등) 등을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돌봄 공백으로 측정되는 시간이 30분 미만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고 해서 돌봄 공백이 중요하지 않다고 간과할 수는 없다. 다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고려할 때 하교 후 또래 놀이에 대해서 얼마나 허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전일제 학교를 통해 방과후돌봄을 제공하는 독일에서도, 학교를 통한 방과후돌봄이

91) 본 연구에서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를 기준으로 돌봄 공백을 측정한 결과, 아동이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미만 75.8%, 1시간 초과 24.2%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은 1시간 미만에 불과하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은 고학년, 맞벌이, 공적 돌봄 미이용, 학원만 이용에서 1시간 초과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90%를 초과하는 덴마크에서도 방과후돌봄의 제공 시간은 오후 4시경이었으며, 학교에서 집까지 또래 친구들과 도보로 이동하거나 집 근처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며, 오후 4시 이후 퇴근하는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를 만나 공원에서 더 놀거나 가정으로 돌아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일상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즉 늘봄학교가 정부 발표대로 순차적으로 확대되고,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이 병행하는 상태에서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된다면, 하교 후 낮에 30분~1시간 미만으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또래 놀이를 통해 해소할 수도 있으며, 저녁 식사와 저녁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로의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이미 육아기 근무시간 탄력 운영 등을 포함한 유연근무제가 도입되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은 단순히 공백을 해소하는 재정 투입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에 대한 신뢰감과 사회적 규범의 체득, 건강한 식습관에 기반을 둔 신체 발달 등에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사회적 돌봄을 확대한다고 해도, 아동이 태어나 가장 먼저 접하는 가족이라는 생태 체계에 대한 신뢰감이 없다면 더 넓고 확장된 생태 체계로의 전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아동이 하교 후 낮에 또래와 독립적인 놀이를 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실내·외 놀이터와 공공 스포츠 시설, 산책과 신체활동이 가능한 공원 등이 근린 환경에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아이들이 이러한 시설에서 또래끼리 놀고 있을 때 지역사회 공동체 모두가 관찰자이자 중재자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낯선 어른들로부터의 접근을 경계하고, 놀이터가 아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며, 놀이터의 안전과 보건 위생은 공공서비스로 관리되어야 한다.

바.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 마련

본 연구에서는 공적 돌봄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한 지역, 또는 돌봄 외의 학습이나 문화체육활동 등에 대한 양육자의 요구가 근린에서 채워지지 않는 경우 아동의 일과 시간과 활동 공간이 분산되어 아동의 생활시간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근린 내에서도 주택 유형과 단지 규모에 따라 아동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근린 내에서도 주택 유형과 밀도 차이로 인한 돌봄 특성 및 성장 관련 활동 수준의 격차를 고려해 아동돌봄안전망 확충전략을 세우고, 이에 맞춰 생활인프라의 접근성과 서비스 수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생활인프라의 접근성 개선은 크게 근접성(거리) 측면과 이동성 측면으로 구분된다. 먼저 근접성은 시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데, 공적 돌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고밀 지역에서 생활인프라 공급 또는 기존시설의 재배치 및 기능 확충을 통해 공적 돌봄에서 벗어난 아동들이 방과 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체육시설, 또는 공공청사 내 일부 공간을 아동 돌봄에 개방하

고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이 때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의 운영 역시 아동의 돌봄, 교육, 체험에 보다 적합한 방식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이동성 측면에서는 아동의 생활 거점인 집 또는 학교에서 보행이나 자전거로 안전하게 연결되도록 이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인프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운영 관리 효율화가 필요하다. 특히 인구밀도가 낮은 면 지역 생활인프라는 접근성이 떨어지고 이용 시간이 한정되며 주민 참여를 통한 운영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92] 단순한 시설 확충만이 아니라 운영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공적 돌봄과 통합하여 생활인프라를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돌봄 관점에서 생활인프라 서비스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돌봄 실태, 돌봄 공백 시간에 아동이 시간을 보내는 방식과 그로 인한 생활 시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근린의 생활인프라가 기여하는 방식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나아가, 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평가는 사업 단위 돌봄영향평가로 발전할 수 있다. 주거지 개발·정비 사업, 생활인프라 확충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 환경 변화가 예정된 경우, 해당 사업이 아동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돌봄영향평가체계가 필요하다.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에 운영 관련 정보(시간,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 정보를 결합하여 돌봄 관점의 서비스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기존의 시설 또는 향후 공급될 시설에 적용하여 변화를 예측함으로써 근린 여건에 적합한 시설 및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92) '20-'22년에 추진된 '생활SOC 3개년 계획'을 통해 생활인프라가 대폭 확충되었고, 인구감소지역 등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지자체나 면 지역에도 생활SOC복합화시설이 다수 조성되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신규 생활SOC복합화시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영 관리 인력과 예산의 부족, 낮은 접근성으로 인한 이용 수요 부족, 양질의 프로그램 확충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강현미·김준래. 2023).

제2절 연구의 성과 및 한계

1. 연구의 성과 요약

본 연구는 아동의 일상 생활과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의 물리적 환경 요소와 아동의 이동패턴 및 생활 시간에 대한 행태학적 접근에 기반하여 근린 특성에 맞게 안전한 돌봄과 건강한 생활 방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정을 통해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 모델을 근린 유형별로 제안하였다.

가.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화 모델의 필요성 제시

아동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돌봄이 가정 안과 밖, 가정 밖은 다시 학교와 학교 외로 이원화되면서 아동 돌봄을 둘러싼 부처간 경쟁과 대립, 반목 관계가 형성되고 개별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기존의 아동 돌봄 관련 정책에 있어 아동 돌봄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인 시설 돌봄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가 경쟁하듯 확산하는 동안 다양한 유형의 돌봄 방식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아동 돌봄 체계는 개인과 가족 여건에 따라 다양한 선택이 가능해야 하며, 시설 돌봄으로 한정하지 않고 아동 돌봄 전반을 포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시설 돌봄과 가정 내 돌봄, 가정 방문 서비스 및 방과 후 돌봄(학교 돌봄, 마을 돌봄)이 배타적이기보다는 유기적이고 상호보완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때 아동돌봄안전망에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층위는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근로 환경의 기반 조성, 일하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인프라의 구축, 긴급한 필요나 양육자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형 가정 방문형 돌봄, 가정돌봄지원이다.

아동돌봄안전망 구축의 목적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있으므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근린 환경은 서로 연계되는 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체계 이론 및 아동의 성장에 있어 근린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밝혀낸 선행 연구의 결과에 근거하여, 아동돌봄안전망과 근린환경 요인의 결합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의 공간화 모델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방과후돌봄 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근린 단위 시설 공급시도 단위, 학

교 단위에서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기존의 시도 단위 또는 학교 단위의 정확한 수요를 고려한 일률적 공급이 아니라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주구(neighborhood unit)에 근거하여 산정하고, 돌봄 수요 및 아동의 실질적인 이동가능성을 고려해서 공급하는 순환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나. 국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환경 요인 도출

해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관련된 근린 기반 활동으로 자유로운 바깥놀이, 활동적 이동, 이동독립성을 선정하고, 각 활동을 지원하는 근린환경의 물리적 요소를 검토하였다.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안전하고 놀이에 적합한 형태의 공원녹지, 낮은 건폐율, 안전한 가로환경, 높은 밀도와 함께 놀 친구의 존재는 자유로운 바깥놀이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 교통량이 많고 차량속도가 빠른 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 과도한 학업 경쟁 및 스마트폰과 컴퓨터게임 시간은 자유로운 바깥놀이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활동적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요인은 학교까지의 가까운 거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및 자전거 인프라, 매력적인 가로경관, 다양한 목적지로의 접근성, 교통정온화 기법이 적용된 환경이다. 이동독립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위의 활동적 이동 요인과 유사하며, 활동적 이동 및 이동독립성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 속도가 빠른 도로, 낯선 사람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과도한 염려가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고찰은 지역의 도시화 수준이나 주거지 유형 자체보다는 해당 유형에 내포된 장단점을 만들어내는 근린 단위의 미시적 환경 조합이 아이들의 신체활동이나 이동 방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에 있어 오늘날 한국의 아이들에게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신체활동과 자율적 놀이 활동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근린환경을 향상시키는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 초등학생 학부모 설문조사를 통한 돌봄 실태 분석 및 개선 과제 도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와 양육자 면담, 아동 면담을 통해 초등학생 돌봄 현황과 아동의 행태 및 공간 경험에 대해 다차원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부모 3,000명을 대상으로 한 돌봄 실태 및 돌봄환경 조사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돌봄 필요와 돌봄 실태, 학교 통학이나 이용 시설, 혼자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이 아동의 발달적 측면과 가족 측면, 근린 등의 외부 환경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였다. 먼저 자녀의 학년은 돌봄 필요 및 실태 전반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통학과 근린 내 시설의 이용, 독립적 이동에서도 중요한 요인이다. 부모 맞벌이 여부 역시 자녀의 돌봄 필요와 돌봄 실태 전반에 중요한 요인이다. 반면 근린 생활인프라는 학년이나 부모의 맞벌이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넓은 의미의 지역 개념보다는 근린 단위가 돌봄 필요나 실태에 보다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었다. 설문조사 분석 근린의 생활인프라 밀도를 가져오는 아

파트 단지의 비중, 통학 방식의 두 요소를 결합하여 근린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근린 유형별로 돌봄 실태 및 환경 특성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학기 중 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고, 학교 안과 밖의 공적 돌봄을 모두 많이 활용하며 동네 시설 이용률 및 도보 통학 비율은 가장 낮은 근린으로 나타났다. 근린 환경과 자녀의 통학, 이용 시설, 독립적 이용 가능 시설 등에 있어서는 주택 유형이나 동네의 아파트 비율, 동네의 전반적 경사, 근린밀도와 통학거리 등과 같은 근린 환경이 모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의 두 가지 행태를 중심으로 아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요소로 근린의 놀이 환경과 보행환경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일정 정도의 돌봄 공백이 독립적 이동과 친구와의 놀이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흥미로운데, 독립적 이동 영향 요인 분석에서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을 초과하여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독립적 이동 가능성을 증가시키며, 친구와의 놀이 활동 영향 요인에서도 1시간 이하 돌봄 공백에 비해 1시간 초과-2시간 이하의 돌봄 공백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설문조사에서도 돌봄 공백 시간은 30분이나 1시간 이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양상과 함께 해석할 때, 기본적으로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되 일정 시간 이상의 돌봄 공백에 대해서는 이를 또래와 함께 하는 양질의 활동을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하여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초등학생 학부모·아동 면담을 통한 돌봄 실태 및 근린 내 아동 행태 분석

초등학교 학부모 면담을 통해 다양한 돌봄이용 방식 가운데 발생하는 돌봄 공백 양상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양육자들의 기회비용, 아동 시공간 사용 행태 특성, 공적 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학교돌봄시기가 막 종료된 초등학교 3학년이 겪는 돌봄 공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 있어 양질의 공공수업이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학교 밖에서 진행되는 공공 수업에 대해 맞벌이 가정 아동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이동 수단 확보의 필요성을 발견하였다. 또 아동의 근린 외 통학은 장거리 차량 탑승의 피로 누적, 미디어 접촉 증가 외에도 근린 내 활동에 기반한 또래간 교류와 신체활동 및 놀이를 위축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나, 지역의 돌봄수요 초과분을 학교-지역 내 연계를 통해 해결할 필요성을 거듭 보여준다. 학교를 비롯한 근린환경의 생활인프라 격차가 돌봄부담의 강화 또는 경감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다수 사례에서 나타났다.

아동의 시공간 활용 유형 분류와 유형간 상호관련성을 탐구한 결과 아이들의 시간활용 유형 중 '미디어 중심 실내생활형'에 대한 생활방식 개선의 필요성을 발견하였고, 돌봄 공백을 다루는 방

식에서 시간사용 균형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 사용 유형 기준에서 보행통합형 아이들은 생활시간의 균형을 갖춘 비율이 높았으나, 분리형과 주거섬 유형, 외부절충형 이동패턴을 보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해법이 필요하다. 분리형의 경우 고립되지 않은 생활터전을 제공하고, 주거섬 유형은 학교 등 생활거점 주변에 장시간 편안히 머물 수 있는 앵커 역할의 공공공간 설치가 필요하다. 외부절충형 이동패턴 아동은 현재 거주환경에서 보행 등 신체활동을 비롯해 근린 내 접촉을 늘리는 공간적 개입이 필요하다. 각 유형에 공통적으로, 근린환경 접촉을 늘리고 미디어 매몰을 막기 위한 차량 이동시간의 감소가 중요하다. 근린 내 돌봄 보장, 그리고 공공생활인프라를 통한 통합된 활동 장소 제공은 돌봄 공백의 해소와 생활시간 균형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준점이다.

한편 공적 돌봄에 대해 양육자들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돌봄시설에 대한 내부 공간 재구성 등 개선이 필요하며 신체활동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수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긴급 돌봄 및 이동서비스를 확충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다양한 여건에 놓인 아이들의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공적 돌봄서비스 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고, 초등학교 3학년 이상 아동들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아동 면담을 통해서는 학교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서울 지역과, 충분한 돌봄이 제공되는 공주 지역의 아동의 차이를 찾아볼 수 있었다. 인구 밀집 정도에 따라 초등학생의 통학거리가 나타나고 통학 방법과 방과 후 활동, 근린 내 경험의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거듭 확인하였다. 한편 주택 유형에 따라 아동의 놀이 행태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저밀 근린, 저층주거지 아동들이 겪는 생활인프라의 부족과 그로 인한 활동의 제약이 나타났다. 고학년 아동은 저학년에 비해 근린 내 활동 범위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고려한 안전한 근린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마. 근린 유형별 건강한 성장 지원의 취약 요인 분석

구로구와 안산시, 충주시와 옥천군의 세생활권 단위로 돌봄 관련 자원(학교, 학교 밖 돌봄시설, 돌봄보조자원으로 활용가능한 공공 생활인프라)의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학교 주변에 돌봄 시설과 생활인프라가 풍부한 반면, 농촌 지역은 학교와 집에서 돌봄 시설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같은 지역 내에서도 돌봄자원 접근성 편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도농복합도시인 충주시는 동 지역과 면 지역의 돌봄 관련 자원 접근성 편차가 크고, 옥천군 역시 읍 지역과 면 지역 간의 접근성 편차가 크다. 지역 전체적으로 돌봄 자원 접근성 취약 격자에 거주하는 아동의 비율은 높지 않으나, 대상지 간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로구(7.0%), 안산시(6.3%), 옥천군 읍 지역(7.2%), 충주시 동 지역(4.7%) 순으로 높고, 충주시의 읍·면 지역과 옥천

군 면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0.1% 수준으로 낮아, 근린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확충에 있어 돌봄 자원 접근성의 격차를 고려한 차별적인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학부모 면담 내용에서도 근린 유형과 주택 유형, 이동패턴에 따른 생활인프라와 보행환경에 대한 인식은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특히 이동 패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보행통합형 이동패턴에서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한편, 분리형과 주거섬 유형에서는 생활인프라와 보행환경을 모두 부정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중규모 이상 아파트 단지는 생활인프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보행환경과 주택 입지, 학교 등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어 아동의 행태와 양육자의 환경 인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근린의 밀도(생활인프라 밀도와 아동 인구밀도)와 통학 방식을 조합하여 고밀-근거리통학, 고밀-원거리통학, 저밀-근거리통학, 저밀-원거리통학의 네 가지 근린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돌봄 공백 발생 특성을 고찰한 후 아동 행태와 근린 환경 특성간의 관계를 HOQ 진단 도구를 활용해 시각화한 후, 이동패턴과 네 가지 근린 유형 간의 대응 관계를 탐색하였다. 진단 결과,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 주거섬과 분리형은 서로 명확히 구분되는 이동 패턴으로, 각 유형별 사례가 보여주는 물리적 환경 특성과 행태 특성에서도 명확한 차이가 나타난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비율이 높고 생활인프라 접근성과 보행환경이 우수한 근린에서 보행통합형 이동 패턴이 높게 나타나는데 비해, 주거섬과 분리형 이동패턴 아동이 거주하는 근린 환경은 이와 정반대의 특성을 보이는 한편, 놀이터로의 접근성이 취약하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생활시간 균형 면에서 보행통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야외놀이 등 긍정적 활동의 비율이 높은 반면, 외부절충형은 감독되는 신체활동과 차량 탑승 시간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주거섬과 분리형은 차량 탑승 시간과 미디어 이용 시간이 모두 높게 관찰된다. 특히 아동의 시간 사용 특성에 있어 보행통합형에서는 비율이 낮은 '미디어 중심 실내형' 유형이 그 외 유형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빈도로 나타나는 현상은, 근린 특성이 이동 패턴을 매개로 건강한 성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거듭 강조한다. 아동 이동패턴별로 근린 유형을 대응한 결과, 보행통합형과 외부절충형은 고밀이나 중밀 근린의 비율이 높은 반면, 주거섬은 저밀-원거리 근린의 비율이 높고 분리형은 다양한 유형의 근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한편 HOQ 진단 도구는 근린환경 요소 간의 상호 연관성도 보여주는데, 근린 전체의 밀도와 대단지 아파트가 결합하는 고밀 주거 환경이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다양한 근린 경험에 대해 갖는 이점을 보여주며, 이와 반대로 저밀 근린, 저층 주거지와의 격차 해소에 대한 과제를 남긴다.

바.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제안 및 정책 제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돌봄 환경의 개선 방향을 돌봄 안전과 아동성장의 통합지

향, 단시간 돌봄 공백의 건강한 전환, 생활인프라 밀도를 고려한 근린 유형별 접근으로 설정하고 근린 유형별 공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밀-근거리통학 근린은 근린 내 활동의 질을 향상하고, 고밀-원거리·차량 통학 근린에서는 아동의 독립적 이동 범위를 확대한다. 저밀-근거리통학 근린에서는 도보권 내 공공거점시설(앵커시설) 확충을 통해 근린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높이며, 저밀-원거리통학 근린은 학교 중심 공간 개선으로 아동 활동의 구심점을 확보한다.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모델로서, 고밀 근린의 경우 주거 유형 간의 격차를 해소하면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는 '다핵 중심형 모델'을,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의 돌봄 기능 강화와 이동 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하는 '학교 중심형 모델'을 지향한다. 고밀-근거리 통학 근린은 다핵 중심형 모델로서 시설 분산 배치를 주된 전략으로 하며, 고밀(중밀)-원거리통학 유형은 다핵 중심형 모델의 변형으로서 통학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고밀 근린에서는 공통적으로 아파트 단지와 저층주거지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제가 있으며,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으로 인해 아동의 보행활동이 가로막히는 문제가 있으므로 단지 경계부의 가로 계획에 대한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저밀 근린은 학교 중심형 모델을 기본으로 하되, 저밀-근거리 통학 근린의 경우 거점 생활인프라와 연계를 통해 도보거리 내 활동의 통합성과 지속성을 향상하고, 저밀-원거리 통학 근린은 지역 내 소규모 자원을 연계하면서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이되 방과후 돌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돌봄의 연속성과 활동 다양성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한편 저밀 근린에서는 대중교통체계의 한계로 도보거리 외에는 차량 이동이 발생하기 쉬운데, 이러한 여건에서는 차량 이동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존에 갖춰진 이동 서비스를 활용해 근린 간 연계, 지역 내 중심부와 주변부의 연계를 통해 지역 전체적으로 거점 생활인프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근린 유형별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 지원사항으로 본 연구는 1) 방과후 돌봄에 관한 공급 계획 수립과 보장, 2) 방과후 돌봄 수요 조사의 정례화와 체계화, 3) 돌봄 권역의 설정, 4) 방과후돌봄의 성과 측정, 5) 돌봄 공백에 대한 신중한 논의, 6) 아동돌봄 관점의 생활인프라 효용 평가체계 마련을 제안한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근린 특성을 고려한 아동돌봄안전망 공간 모델을 제안하기 위한 과제로서 아동 돌봄 실태 및 아동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와 이에 관련된 근린 환경 요소에 대해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개념 정립 – 아동 성장 행태 관련 근린환경 요소 검토- 정책 현황 분석- 돌봄실태 및 돌봄환경 관련 설문조사 – 양육자 및 아동 면담조사- 사례지역의 돌봄 환경 접근성 분석 등 연구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돌봄과 근린 환경의 관계에 대한 제한적인 접근, 즉 다양한 돌봄 방식과 근린 환경 가운데서 아이들의 근린 경험, 그리고 일상생활 중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부정적인 활동 시간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단년도 과제 특성상 학기중 돌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된 가운데 양적 조사(설문)와 질적 조사(면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면담 조사의 제한된 사례에서 도출한 근린 환경과 아동 행태(이동 패턴, 생활 시간) 간의 영향 관계를 양적 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한 채, 동시에 수행된 조사 결과에 대한 병렬적인 해석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의 결과를 참고하면서 환경과 행태의 관계를 다루는 데 머무를 수 밖에 없었다. 세부적으로는, 아동 돌봄 관점의 근린 특성을 '생활인프라 밀도'와 '통학 거리'라는 두 지표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양적·질적 조사에서 근린 단위의 생활인프라 밀도에 대한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생활인프라 밀도를 주택 유형(아파트의 비중) 또는 아동 인구 밀도로 치환하여 구분했다는 점은 후속 연구에서 보완이 필요한 점이다.

한편 본 연구가 근린의 돌봄 접근성 간 격차를 파악하기 위한 사례지역 공간 분석을 포함하고 있지만, 돌봄시설의 규모, 즉 돌봄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 역시 연구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근린 단위에서 돌봄 시설의 공급 수준이 근린 환경 특성과 돌봄 수요자의 요구를 만나 빚어내는 영향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늘봄학교 확대 등 공적 돌봄의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면밀한 진단 결과를 근린의 돌봄 수요 및 환경 특성과 연계하여 해석하는 접근은 향후 정부와 지자체가 근린 특성을 고려하여 공적 돌봄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기수, 김윤종. (2011). “어린이 실외놀이의 교육인간학적 의의”. 교육철학, 43, 1~35.

강지원, 최혜진, 임완섭, 황안나, 안영, 조동훈, 김우성. (2020). 사회보장 분야 사각지대 축소와 부적정 지출 관리 방안 연구-방과후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최혜진, 김성아, 이지혜, 노현주, 조동훈, 유해미, 이길재, 이희현. (2021). 보육·돌봄 체계 중장기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정홍원, 강예은, 강창희. (2022). 사회복지 분야 예산 심사·평가제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2023). 아동·청소년 통합적 돌봄 체계 구축 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2023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강지원, 이상정, 정희선, 강현미, 최민지, 임지영. (2023a).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 협력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조성은, 함영진, 신영구, 임지영, 김지영, 이길재, 추병주. (2023b). 영유아·초등 돌봄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연구. 교육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지원, 정홍원, 임완섭, 민진아, 이세미, 김성아. (2016). 지역 아동 돌봄 계획 수립 지원 연구.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현미, 성은영, 박석환, 박유나. (2022).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형 놀이자원망 구축 방안 연구. 건축공간연구원.

강현미, 김준래. (2023), 생활인프라 복합화시설의 운영실태 진단: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2). 2023~2026 경기도 제1차 아동돌봄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경상남도교육청. (2023).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리플렛. https://www.gne.go.kr/viewer/skin/doc.html?fn=169717048103214.pdf&rs=/viewer/result/202403/ (검색일: 2024.3.12.)

경상남도교육청. (2024).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https://www.gne.go.kr/nbgne (검색일: 2024.3.12.)

경상북도교육청. (2018). 전국 최초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돌봄, 마을밀착형 지역특화 공모사업 ‘굿센스’ 성황리 종료. 11월 23일 보도자료.

경상북도교육청. (2019). 우리는 마을에서 놀아요, ‘굿센스’ Good~. 4월 18일 보도자료.
관계부처 합동. (2019).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
관계부처 합동. (2020a). 제4차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0b).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4).
관계부처 합동. (2024).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4~’28).
교육부. (2022).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개정판 2022).
교육부. (2023a).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늘봄학교 추진 방안(안).
교육부. (2023b). 초등돌봄교실 대기 수요 해소 및 2학기 늘봄정책 운영방향. 5월 17일 보도자료.
교육부. (2024a). 2024 늘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 (2024b). 2024 늘봄학교 추진방안(안). 2월 5일 보도자료.
교육부. (2024c). 늘봄학교 한 달, 참여학교·학생 크게 늘었다!. 4월 3일 보도자료.
교육부. (2024d). 2024년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도입. 8월 14일 보도자료.
교육부 누리집. (2023). 2023학년도 초등돌봄교실 현황(‘23년 4월 기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16&boardSeq=9643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2&opType=N (검색일: 2024.4.5.)
권정윤, 한유미. (2005). 스웨덴 보육의 배경과 현황. 아동학회지, 26(2), 175-191.
김대현, 김용, 배정훈, 김민희, 김선미, 이숙정, 이희현, 정재훈, 황선준, 김수정, 김은지. (2022). 온종일 돌봄 사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김수동. (2013). 일본의 방과후 아동교실 운영에서 지역교육력 활용 사례의 특징 및 시사점. 열린교육연구, 21(2), 131~153.
김연금, 최이명, 강현미, 민혜경. (2018). 동네놀이환경 진단도구 개발 연구. C program.
김영란, 조선주, 선보영, 배호중, 김진석, 정영모. (2018). 초등학생 돌봄 실태 파악 및 수요 분석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주리, 최혜진, 강지원. (2021). 초등 방과후돌봄서비스 이용 유형이 돌봄 공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 41(2), 178-197.
김지영. (2019). 일본의 정규수업 전·후 초등학생 돌봄 현황. 메일진 해외교육동향 350호. 4월 24일 기사.
대한민국정부. (2023).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 1권.
박윤수, 강지원, 손연정, 한성민. (2023). 아동 돌봄 친화적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교육부.
보건복지부. (2021). 2021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a). 아동종합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3b). 2022년 12월 말 기준 전국 지역아동센터 통계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2023c). 2023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d). 2023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23e). 2023 학교돌봄터 사업안내.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20513호.
서울특별시. (2019). 온마을 아이돌봄체계 구축 기본계획.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 2024년 2학기부터 늘봄학교 운영 대상 초1학년 전체 확대. 8월 28일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23). 2023 일반·융합형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성은영, 강현미, 고영호, 민혜경. (2021). 생활SOC3개년계획 성과평가 및 정책발전 방안 연구. 국무조정실.
성은영, 서수정, 강현미, 박석환, 변은주, 박유나.(2023).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거생활공간의 진단과제. 건축공간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1714호.
아동복지법. 법률 제20218호.
양성욱, 노연희. (2012).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1-57.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 마을 주민이 함께 자녀 돌보는 "공동체 돌봄" 확대된다. 11월 14일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여성가족부. (2023).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염철호, 강현미, 박유나. (2022). 아동친화 주거공간 조성·운영을 위한 사업모델 및 지원방안 연구 - 소규모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
울산광역시. (2023). 2024-2026 울산광역시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안).
유니세프한국위원회.(2022). 아동친화도시 공간환경사업내역 분석. 유니세프한국위원회내부자료.
육아정책연구소. (2023). 한국아동패널조사.
이성한. (2012). 일본 방과후 정책에 관한 고찰: 방과후 아동교실, 방과후 아동클럽, 방과후 아동플랜을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6(2), 1-20.
이소영, 장인수, 이철희, 최은영, 홍석철, 최영, 김가희, 김근진, 문승현. (2019). 2019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아동돌봄사업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시효. (2020). 코로나 19 이후 거주환경의 차이가 초등학생의 학습, 게임, 놀이 시간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천시 소사구 세 학교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74, 172-207.
이혜숙, 이영주. (2018). 서울시 방과후돌봄 지역사회 협력방안. 서울연구원.

이희현, 201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과제: 우수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인천광역시. (2023). 2023~2026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기본계획.

자본시장연구원. (2023). 일본 저출산 정책의 변화 과정과 시사점. 자본시장 포커스 2023-14호.

정옥분(2019). 아동발달의 이해. 학지사.

정익중, 이수진, 정수정, 유다영. (2022). 코로나 19 시기, 아동의 일상균형과 빈곤가구 여부에 따른 행복감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 42(1), 299-315.

조복희, 도현심, 유가효, 박혜원, 김영주(2020). 인간발달. 교문사.

차상철, 김두선, 오소원, 양미혜. (2013). 지역 거점 방과후 돌봄 교실의 효율화 방안 모색.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최이명. (2013). 근린지역 내 동네형태특성과 보행생활권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진희. (2010). 일본의 방과후 아동대책. 국제 보건복지정책동향 2.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2023). 2023. 옥천 돌봄 운영 및 집행 매뉴얼.

충청북도옥천교육지원청, 옥천군. (2024). 2024. 옥천행복교육지구 운영 계획.

통계청. (2024a). 아동가구통계등록부(주문형분석서비스 이용). (요청일: 2024.2.26.)

통계청. (2024b).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1세별, 5세별) / 전국. 장래인구추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PA001&conn_path=I2 (검색일: 2024.4.13.)

통계청. (2024c). 2024년 7월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검색일: 2024.9.26.)

하나영, 김하은, 이영주, 정송화. (2024). 마을밀착형 지역특화공모사업 '굿센스' 성과연구: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방과후학교연구, 11(1), 57-86.

한성민. (2019). 초등학교 돌봄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적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국외문헌]

Aarts, M. J., Wendel-Vos, W., van Oers, H. A., Van de Goor, I. A. and Schuit, A. J. (2010). Environmental determinants of outdoor play in children: a large-scale cross-sectional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9(3), 212-219.

Aarts, M. J., de Vries, S. I., Van Oers, H. A. and Schuit, A. J. (2012). Outdoor play among children in relation to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a cross-sectional neighborhood observatio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9, 1-11.

Akao. Y, and Mizuno. S (1994). QFD (Quality Function Deployment): The customer-driven Approach to quality planning and deployment. *Asian Productivitty Organization.*

Alexander, S. A., Frohlich, K. L. and Fusco, C. (2014). Playing for health? Revisiting health promotion to examine the emerging public health position on children's play. *Health promotion international*, 29(1), 155-164.

Alvarado, S. (2016). Delayed Disadvantage: Neighborhood Context and Child Development. *Social Forces*, 94, 1847–1877.

Aranda-Balboa, M. J., Huertas-Delgado, F. J., Herrador-Colmenero, M., Cardon, G. and Chillón, P. (2020). Parental barriers to active transport to school: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health*, 65, 87-98.

Badland, H., Kearns, R., Carroll, P., Oliver, M., Mavoa, S., Donovan, P., Parker, K., Chaudgury, M., Lin E. J. and Witten, K. (2016). Development of a systems model to visualise the complexity of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Children's Geographies*, 14(1), 91-100.

Bagheri, H. and Zarghami, E. (2022).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housing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by PPGIS method. *Journal of Housing and the Built Environment*, 37(4), 1883-1899.

Belsky, J., Vandell, D. L., Burchinal, M., Clarke-Stewart, K. A., McCartney, K., Owen, M. T. and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7). Are there long-term effects of early child care?. *Child development*, 78(2), 681-701.

Berger, L. M., Hill, J. and Waldfogel, J. (2005). Maternity leave, early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health and development in the US. *The Economic Journal*, 115(501), F29-F47.

Bird, M., Datta, G. D., van Hulst, A., Cloutier, M. S., Henderson, M., & Barnett, T. A. (2016). A park typology in the QUALITY cohort: Implications for physical activity and truncal fat among youth at risk of obesity. *Preventive medicine*, 90, 133-138.

Bourke, J. (2017). Children's experiences of their everyday walks through a complex urban landscape of belonging. *Children's geographies*, 15(1), 93-106.

Bringolf-Isler, B., Grize, L., Mäder, U., Ruch, N., Sennhauser, F. H. and Braun-Fahrländer, C. (2010). Built environment, parents' perception, and children's vigorous outdoor play. *Preventive medicine*, 50(5-6), 251-256.

Broberg, A., Kyttä, M. and Fagerholm, N. (2013a). Child-friendly urban structures: Bullerby revisited.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35, 110-120.

Broberg, A., Salminen, S. and Kyttä, M. (2013b). Phys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promoting independent and active transport to children's meaningful places. *Applied Geography*, 38, 43-52.

Brockman, R., Jago, R. and Fox, K. R. (2011). Children's active play: self-reported motivators, barriers and facilitators. *BMC public health*, 11, 1-7.

Brooks-Gunn, J. (1997). Neighborhood poverty: Context and consequences for children (Vol. 1). *Russell Sage Foundation.*

Brooks-Gunn, J., Han, W. J. and Waldfogel, J. (2010). First-year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first 7 year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75(2), 7-9.

Brussoni, M., Gibbons, R., Gray, C., Ishikawa, T., Sandseter, E. B. H., Bienenstock, A., Chabot, G., Fuselli, P., Herrington, S., Janssen, I., Pickett, W., Power, M., Stanger, N., Sampson, M. and Tremblay, M. S. (2015).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y outdoor play and health in children?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2(6), 6423-6454.

Brussoni, M., Lin, Y., Han, C., Janssen, I., Schuurman, N., Boyes, R., Swanlund, D. and Mâsse, L. C. (2020). A qualitative investigation of unsupervised outdoor activities for 10-to 13-year-old children: "I like adventuring but I don't like adventuring without being careful".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70, 101460.

Buliung, R. N., Mitra, R. and Faulkner, G. (2009). Active school transportation in the Greater Toronto Area, Canada: an exploration of trends in space and time (1986–2006). *Preventive medicine*, 48(6), 507-512.

Bullinger, L. and Fong, K. (2020). Evictions and Neighborhood Child Maltreatment Reports. *Housing Policy Debate*, 1-26.

Burdette, H. L. and Whitaker, R. C. (2005). Resurrecting free play in young children: looking beyond fitness and fatness to attention, affiliation, and affect.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9(1), 46-50.

Buttazzoni, A., Ferguson, K. N. and Gilliland, J. (2023). Barriers to and facilitators of active travel from the youth perspective: A qualitative meta-synthesis. *SSM-Population Health*, 22, 1-17.

Cain, K. L., Millstein, R. A., Sallis, J. F., Conway, T. L., Gavand, K. A., Frank, L. D., Saelens, B. E., Geremia, C. M., Chapman, J., Adams, M. A., Glanz, K. and King, A. C. (2014). Contribution of streetscape audits to explanation of physical activity in four age groups based on the Microscale Audit of Pedestrian Streetscapes (MAPS). *Social science & medicine*, 116, 82-92.

Carlson, J. A., Sallis, J. F., Kerr, J., Conway, T. L., Cain, K., Frank, L. D. and Saelens, B. E. (2014). Built environment characteristics and parent active transportation are associated with active travel to school in youth age 12–15. *British journal of sports medicine*, 48(22), 1634-1639.

Carmona, M., Heath, T., Tiesdell, S., & Oc, T. (2009). 도시설계:장소 만들기의 여섯 차원, 강홍빈·김광중·김기호·김도년·양승우·이석정·정재용 역, 서울:대가.

Carver, A., Timperio, A. F. and Crawford, D. A. (2012). Young and free? A study of independent mobility among urban and rural dwelling Australian children.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15(6), 505-510.

Carver, A., Panter, J. R., Jones, A. P. and van Sluijs, E. M. (2014). Independent mobility on the

journey to school: A joint cross-sectional and prospective exploration of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influences. *Journal of transport & health*, 1(1), 25-32.

Chillón, P., Martínez-Gómez, D., Ortega, F. B., Pérez-López, I. J., Díaz, L. E., Veses, A. M., Veiga, O. L., Marcos, A. and Delgado-Fernández, M. (2013). Six-year trend in active commuting to school in Spanish adolescents: The AVENA and AFINOS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20, 529-537.

Christian, H. E., Klinker, C. D., Villanueva, K., Knuiman, M. W., Foster, S. A., Zubrick, S. R., Divitini, M., Wood, L. and Giles-Corti, B. (2015). The effect of the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 on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to neighborhood destinations. *Journal of physical activity and health*, 12(s1), S84-S93.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WA. (2011). *Building spaces and place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Crawford, S. B., Bennetts, S. K., Hackworth, N. J., Green, J., Graesser, H., Cooklin, A. R., Matthews, J., Strazdins, L., Zubrick, S. R., D'Esposito, F. and Nicholson, J. M. (2017). Worries,'weirdos', neighborhoods and knowing people: a qualitative study with children and parents regarding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Health & place*, 45, 131-139.

Curtis, C., Babb, C. and Olaru, D. (2015). Built environment and children's travel to school. *Transport policy*, 42, 21-33.

Daly, M. and Lewis, J. (2000). The concept of social care and the analysis of contemporary welfare stat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1(2), 281-298.

Davis, A. and Jones, L. J. (1996). Children in the urban environment: an issue for the new public health agenda. *Health & Place*, 2(2), 107-113.

Delisle Nyström, C., Barnes, J. D., Blanchette, S., Faulkner, G., Leduc, G., Riazi, N. A., Tremblay, F. T. and Larouche, R. (2019). Relationships between area-level socioeconomic status and urbanization with active transportation, independent mobility, outdoor time, and physical activity among Canadian children. *BMC public health*, 19, 1-12.

De Vries, S. I., Hopman-Rock, M., Bakker, I., Hirasing, R. A. and Van Mechelen, W. (2010). Built environmental correlates of walking and cycling in Dutch urban children: results from the SPAC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7(5), 2309-2324.

Dessing, D., de Vries, S. I., Hegeman, G., Verhagen, E., Van Mechelen, W. and Pierik, F. H. (2016). Children's route choice during active transportation to school: difference between shortest and actual rout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3, 1-11.

D'Haese, S., Van Dyck, D., De Bourdeaudhuij, I., Deforche, B. and Cardon, G. (2015). The association between the parental perception of the physical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children's location-specific physical activity. *BMC public health*, 15, 1-9.

Ding, D., Sallis, J. F., Kerr, J., Lee, S. and Rosenberg, D. E. (2011).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physical activity among youth: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1(4), 442-455.

Durlak, J. A., Weissberg, R. P. and Pachan, M. (2010). A meta-analysis of after-school programs that seek to promote personal and social skill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 294-309.

Evans, G. (2006). Child development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7, 423-451.

Evans, G. W. (2004). The environment of childhood poverty. *American psychologist*, 59(2), 77-92.

Fyhri, A., & Hjorthol, R. (2009).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to school, friends and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17(5), 377-384.

Gautam, P., Mytton, J. A., Joshi, S. K. and Pilkington, P. (2021). Adolescent's perception of road risk on their routes to school in Makwanpur, Nepal;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transport & health*, 20, 1-11.

Ghekiere, A., Van Cauwenberg, J., de Geus, B., Clarys, P., Cardon, G., Salmon, J., Bourdeaudhuij, I. D. and Deforche, B. (2014). Critical environmental factors for transportation cycling in children: a qualitative study using bike-along interviews. *PloS one*, 9(9), 1-10.

Ghekiere, A., Carver, A., Veitch, J., Salmon, J., Deforche, B. and Timperio, A. (2016). Does parental accompaniment when walking or cycling moderate the association between physical neighbourhood environment and active transport among 10–12 year olds?.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19(2), 149-153.

Gill, O. and Jack, G. (2007). *The Child and Family in Context: Developing Ecological Practice in Disadvantaged Communities*. Russell House Publishing.

Grzywacz, J. G. and Marks, N. F. (2000). Reconceptualizing the work–family interface: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correlates of positive and negative spillover between work and family.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psychology*, 5(1), 111-126.

Heath, G. W., Parra, D. C., Sarmiento, O. L., Andersen, L. B., Owen, N., Goenka, S., Montes, F. and Brownson, R. C. (2012). Evidence-based intervention in physical activity: lessons from around the world. The lancet, 380(9838), 272-281.

Hill, J. L. Waldfogel, J. Brooks-Gunn, J. and Han, W. J. (2005). Maternal employment and child development: a fresh look using newer methods. *Developmental psychology*, 41(6), 833-850.

Hochschild Jr, T. R. (2013). Cul-de-sac kids. *Childhood*, 20(2), 229-243.

Islam, M. Z., Moore, R. and Cosco, N. (2016). Child-friendly, active, healthy neighborhoods: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n's time outdoors. *Environment and Behavior*, 48(5), 711-736.

Jack, G. and Gill, O. (2010). The role of communities in safeguarding children and young people. *Child Abuse Review*, 19(2), 82-96.

Jonsson, K. and Lillvist, A. (2019). Promoting social learning in the Swedish leisure time centre. *Education Inquiry*, 10(3), 243-257.

Jordi-Sánchez, M. (2018). Social perceptions of the promotion of cycling as a mode of transport for children in Andalusia (Spain).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72, 86-93.

Kyttä, M. (2002). Affordances of children's environments in the context of cities, small towns, suburbs and rural villages in Finland and Belarus.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1-2), 109-123.

Kyttä, M. (2003). *Children in Outdoor Contexts: Affordances and Independent Mobility in the Assessment of Environmental Child Friendliness.* Espoo: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Kyttä, A. M., Broberg, A. K. and Kahila, M. H. (2012). Urban environment and children's active lifestyle: SoftGIS revealing children's behavioral patterns and meaningful places. *American journal of health promotion*, 26(5), e137-e148.

Lam, W. W. and Loo, B. P. (2014). Determinants of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in Hong Kong. *Asian transport studies*, 3(2), 250-268.

Larsen, K., Buliung, R. N. and Faulkner, G. E. (2015). School travel: how the built and social environment relate to children's walking and independent mobility in the Greater Toronto and Hamilton Area, Ontario, Canada. *Transportation research record*, 2513, 80-89.

Laura E. Berk(2020). 생애발달 I - 영·유아기에서 아동기까지. 시그마프레스.

Lee, H., Tamminen, K. A., Clark, A. M., Slater, L., Spence, J. C., & Holt, N. L. (2015). A meta-study of qualitative research examining determinants of children's independent active free pla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2, 1-12.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 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ological bulletin,* 126(2), 309.

Loebach, J. and Gilliland, J. (2016). Neighbourhood play on the endangered list: examining patterns in children's local activity and mobility using GPS monitoring and qualitative GIS. *Children's geographies*, 14(5), 573-589.

Loebach, J., Sanches, M., Jaffe, J. and Elton-Marshall, T. (2021). Paving the way for outdoor play: examining socio-environmental barriers to community-based outdoor pla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3617.

Loebach, J., & Gilliland, J. (2022). Examining the social and built environment factors influencing Children's independent use of their neighborhoods and the experience of local settings as child-friendly. *Journal of planning education and research*, 42(4), 539-553.

Macintyre, S., Maciver, S. and Sooman, A. (1993). Area, class and health: should we be focusing on places or people?. *Journal of social policy*, 22(2), 213-234.

Mackett, R. L. and Paskins, J. (2008). Children's physical activity: The contribution of playing and walking. *Children & Society*, 22(5), 345-357.

McDonald, N. C. (2007). Active transportation to school: trends among US schoolchildren, 1969–2001.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32(6), 509-516.

McGrath, L. J., Hinckson, E. A., Hopkins, W. G., Mavoa, S., Witten, K. and Schofield, G. (2016). Associations between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moderate-to-vigorous walking in New Zealand children: findings from the URBAN study. *Sports medicine*, 46, 1003-1017.

Mitchell, H., Kearns, R. A. and Collins, D. C. (2007). Nuances of neighbourhood: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space between home and school in Auckland, New Zealand. *Geoforum*, 38(4), 614-627.

Mitchell, C. A., Clark, A. F. and Gilliland, J. A. (2016). Built environment influences of children's physical activity: Examining differences by neighbourhood size and sex.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3, 1-14.

Mitra, R., Cantello, I. D., Buliung, R. N. and Faulkner, G. E. (2017). Children's activity-transportation lifestyles, physical activity levels and social-ecological correlates in Toronto, Canada. *Journal of Transport & Health*, 6, 289-298.

Mitra, R., Faulkner, G. E., Buliung, R. N. and Stone, M. R. (2014). Do parental perceptions of the neighbourhood environment influence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Evidence from Toronto, Canada. *Urban Studies*, 51(16), 3401-3419.

Molina-García, J., Menescardi, C., Estevan, I. and Queralt, A. (2021). Associations between park and playground availability and proximity and children's physical activity and body mass index: the BEACH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 250.

Moran, M. R., Plaut, P. and Epel, O. B. (2016). Do children walk where they bike? Exploring built environment correlates of children's walking and bicycling. *Journal of Transport and Land Use*. Article in Press, 9(2), 1–23.

Moran, M. R., Plaut, P. and Merom, D. (2017). Is the grass always greener in suburban neighborhoods? Outdoors play in suburban and inner-city neighborhood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4(7), 759.

Moran, M. R., Rodríguez, D. A. and Corburn, J. (2018). Examining the role of trip destination and neighborhood attributes in shaping environmental influences on children's route

choice. *Transportation Research Part D: Transport and Environment*, 65, 63-81.

Muhati-Nyakundi, L. I. (2018). Agency on journeys to school through urban slum terrains: experiences of preschool OVC. *Vulnerable Children and Youth Studies*, 14(1), 76-90.

Nguyen, A., Borghese, M. M. and Janssen, I. (2018). Pedestrian traffic safety and outdoor active play among 10–13 year olds living in a mid-sized city. *Preventive medicine reports*, 10, 304-309.

O'Connor, T. G., Monk, C. and Fitelson, E. M. (2014). Practitioner review: maternal mood in pregnancy and child development—implications for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5(2), 99-111.

Oliver, M., Badland, H., Mavoa, S., Witten, K., Kearns, R., Ellaway, A., Hinckson, E., Mackay, L. and Schluter, P. J. (2014). Environmental and socio-demographic associates of children's active transport to school: a cross-sectional investigation from the URBAN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1, 1-12.

Oliver, M., Mavoa, S., Badland, H., Parker, K., Donovan, P., Kearns, R. A., Lin, E. and Witten, K. (2015). Associations between the neighbourhood built environment and out of school physical activity and active travel: an examination from the Kids in the City study. *Health & Place*, 36, 57-64.

Oluyomi, A. O., Lee, C., Nehme, E., Dowdy, D., Ory, M. G. and Hoelscher, D. M. (2014). Parental safety concerns and active school commute: correlates across multiple domains in the home-to-school journe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1, 1-14.

Oreskovic, N. M., Blossom, J., Robinson, A. I., Chen, M. L., Uscanga, D. K. and Mendoza, J. A. (2014). The influence of the built environment on outcomes from a "walking school bus study": a cross-sectional analysis using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s. *Geospatial health*, 9(1), 37-44.

Page, A. S., Cooper, A. R., Griew, P. and Jago, R. (2010). Independent mobility, perceptions of the built environment and children's participation in play, active travel and structured exercise and sport: the PEACH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7, 1-10.

Pedroni, C., Dujeu, M., Moreau, N., Lebacq, T., Méroc, E., Godin, I. and Castetbon, K. (2019). Environmental correlates of physical activity among children 10 to 13 years old in Wallonia (Belgium). *BMC public health*, 19, 1-12.

Play England. (2009). Tools for evaluating local play provision: A technical guide to Play England local play indicators.

Prezza, M., Pilloni, S., Morabito, C., Sersante, C., Alparone, F. R. and Giuliani, M. V. (2001). The influence of psychosoci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nd relationship to peer frequentation.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11(6), 435-450.

Prezza, M., and Pacilli, M. G. (2007). Current fear of crime, sense of community, and loneliness in Italian adolescents: The role of autonomous mobility and play during childhood.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5(2), 151-170.

Pynn, S. R., Neely, K. C., Ingstrup, M. S., Spence, J. C., Carson, V., Robinson, Z. and Holt, N. L. (2019). An intergenerational qualitative study of the good parenting ideal and active free play during middle childhood. *Children's Geographies*, 17(3), 266-277.

Qiu, L. and Zhu, X. (2021). Housing and community environments vs. Independent mobility: Roles in promoting children's independent travel and unsupervised outdoor pla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4), 2132.

Race, D. L., Sims-Gould, J., Lee, N. C., Frazer, A. D., Voss, C., Naylor, P. J. and McKay, H. A. (2017). Urban and suburban children's experiences with school travel–a case study. J. *Transport Health*, 4, 305–315.

Remmers, T., Van Kann, D., Thijs, C., de Vries, S. and Kremers, S. (2016). Playability of school-environments and after-school physical activity among 8–11 year-old children: specificity of time and pla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3, 1-10.

Reynolds, R., McKenzie, S., Allender, S., Brown, K. and Foulkes, C. (2014). Systematic review of incidental physical activity community interventions. *Preventive medicine*, 67, 46-64.

Riazi, N. A., Blanchette, S., Trudeau, F., Larouche, R., Tremblay, M. S. and Faulkner, G. (2019). Correlates of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in Canada: a multi-sit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6(16), 2862.

Riazi, N. A., Wunderlich, K., Yun, L., Paterson, D. C. and Faulkner, G. (2022). Social-ecological correlates of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3), 1604.

Rissotto, A. and Tonucci, F. (2002). Freedom of movement and environmental knowledge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environmental Psychology*, 22(1-2), 65-77.

Rissotto, A. and Giuliani, M. V. (2006). Learning Neighborhood Environments: The Loss of Experience in a Modern World. In C. Spencer and M. Blades (Eds.), *Children and Their Environments: Learning, Using and Designing Spac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75-90.

Ross, N. A., Tremblay, S., Khan, S., Crouse, D., Tremblay, M. and Berthelot, J. M. (2007). Body mass index in urban Canada: neighborhood and metropolitan area effect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7(3), 500-508.

Ross, A., Wood, L. and Searle, M. (2020). The indirect influence of child play on the association between parent perceptions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and sense of community. *Health & Place*, 65, 102422.

Sahlqvist, S., Song, Y. and Ogilvie, D. (2012). Is active travel associated with greater physical activity? The contribution of commuting and non-commuting active travel to total

physical activity in adults. *Preventive medicine*, 55(3), 206-211.

Sampson, R. J., Morenoff, J. D. and Gannon-Rowley, T. (2002). Assessing "neighborhood effects": Social processes and new directions in research. *Annual review of sociology*, 28(1), 443-478.

Sandseter, E. B. H. and Kennair, L. E. O. (2011). Children's risky play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The anti-phobic effects of thrilling experiences. *Evolutionary psychology*, 9(2), 257-284.

Savolainen, E., Rutberg, S., Backman, Y. and Lindqvist, A. K. (2020). Long-term perspectives of a school-based intervention to promote active school transport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 1-13.

Schoeppe, S., Duncan, M. J., Badland, H., Oliver, M. and Curtis, C. (2013). Associations of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nd active travel with physical activity, sedentary behaviour and weight status: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cience and medicine in sport*, 16(4), 312-319.

Schoeppe, S., Duncan, M. J., Badland, H. M., Oliver, M. and Browne, M. (2014). Associations between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nd physical activity. *BMC Public Health*, 14, 1-9.

Shaw, B., Watson, B., Frauendienst, B., Redecker, A., Jones, T. and Hillman, M. (2013). *Children's Independent Mobility: A Comparative Study in England and Germany (1971-2010)*. London: Policy Studies Institute.

Boström, L., Hörnell, A., & Frykland, M. (2015). Learning environments at leisure-time centres in Sweden: A comprehensive survey of staff perceptions. *IJREE-International Journal for Research on Extended Education*, 3(1), 5-6.

Smith, M., Hosking, J., Woodward, A., Witten, K., MacMillan, A., Field, A. Baas, P. and Mackie, H. (2017).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built environment effects on physical activity and active transport–an update and new findings on health equit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14(1), 1-27.

Smith, P. K. and Pellegrini, A. D. (2004). Play in great apes and humans. The nature of play: Great apes and humans, 285-298.

Telama, R., Yang, X., Viikari, J., Välimäki, I., Wanne, O. and Raitakari, O. (2005). Physical activity from childhood to adulthood: a 21-year tracking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8(3), 267-273.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6). The Nichd Study of Early Child Care and Youth Development: Findings for children up to age 4½ Years. www.nichd.nih.gov에서 인출.

Vandell, D. L., Reisner, E. R. and Pierce, K. M. (2007). *Outcomes Linked to High-Quality Afterschool Programs: Longitudinal Findings from the Study of Promising Afterschool Programs*. Policy Studies Associates, Inc.

Vaden-Kiernan, M., D'elio, M. A., O'brien, R. W., Tarullo, L. B., Zill, N. and Hubbell-McKey, R. (2010). Neighborhoods as a developmental context: A multilevel analysis of neighborhood effects on Head Start families and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5(1-2), 49-67.

Vanwolleghem, G., Schipperijn, J., Gheysen, F., Cardon, G., De Bourdeaudhuij, I. and Van Dyck, D. (2016). Children's GPS-determined versus self-reported transport in leisure time and associations with parental perceptions of the neighborhood environ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geographics*, 15, 1-12.

Van der Ploeg, H. P., Merom, D., Corpuz, G.and Bauman, A. E. (2008). Trends in Australian children traveling to school 1971–2003: burning petrol or carbohydrates?. *Preventive medicine*, 46(1), 60-62.

Van Hecke, L., Deforche, B., Van Dyck, D., De Bourdeaudhuij, I., Veitch, J. and Van Cauwenberg, J. (2016).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influencing adolescents' physical activity in urban public open spaces: A qualitative study using walk-along interviews. *PloS one*, 11(5), 1-24.

Veitch, J., Salmon, J. and Ball, K. (2010). Individual, social and physical environmental correlates of children's active free-play: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Nutrition and Physical Activity*, 7, 1-10.

Veitch, J., Flowers, E., Ball, K., Deforche, B. and Timperio, A. (2020). Exploring children's views on important park features: A qualitative study using walk-along interview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3), 4625.

Villanueva, K., Giles-Corti, B., Bulsara, M., McCormack, G. R., Timperio, A., Middleton, N., ... & Trapp, G. (2012). How far do children travel from their homes? Exploring children's activity spaces in their neighborhood. *Health & place,* 18(2), 263-273.

Wandersman, A. and Nation, M. (1998). Urban neighborhoods and mental health: Psychological contributions to understanding toxicity, resilience, and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53(6), 647.

Wales, M., Mårtensson, F. and Jansson, M. (2021). 'You can be outside a lot': independent mobility and agency among children in a suburban community in Sweden. *Children's Geographies*, 19(2), 184-196.

Westman, J., Johansson, M., Olsson, L. E., Mårtensson, F. and Friman, M. (2013). Children's affective experience of every-day travel. *Journal of transport geography*, 29, 95-102.

[온라인 자료]

권민정. (2022). 20년 걸린 독일, 한국은 3년만에 뚝딱. 한국교육신문. 9월 5일 기사.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7061 (검색일: 2024.3.12.)

공공데이터포털. (2024). 교육부 온종일돌봄(초등돌봄) 시설 현황. https://www.data.go.kr/data/1

5106335/fileData.do# (검색일: 2024.8.27.)

공주시 홈페이지. https://www.gongju.go.kr/stat/index.do. 2021년 토지현황. (검색일: 2024.3.23.)

국토정보맵. https://map.ngii.go.kr/ (검색일: 2024.5.3.)

김기훈. (2024). 서울시, 전국 첫 '학교밖 늘봄학교' 운영… 시 돌봄-현장 연계. 연합뉴스. 5월 2일 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240502057700004 (검색일: 2024.6.30.)

김다이. (2020). [주민 손으로 만드는 광주 마을공동체](10)여성친화마을-숲속 작은 도서관. 광주매일신문. 2월 20일 기사. http://www.kjdaily.com/read.php3?aid=1582193640501177036 (검색일: 2024.3.19.)

김명일. (2023).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김해' 맞춤형 복지 제공. 경남매일신문. 8월 30일 기사. http://www.gn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25390 (검색일: 2024.3.12.)

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 (2024a). `24학년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2024.3.29.). https://www.afterschool.go.kr/intro/state/state1.do (검색일: 2024.8.5.)

늘봄·방과후중앙지원포털. (2024b). 초등늘봄교실 운영 현황 (2023년 기준). https://www.afterschool.go.kr/intro/state/state1.do (검색일: 2024.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1). 늘 따뜻하게 아이들을 돌보는 '늘봄'입니다. 12월 27일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97417 (검색일: 2024.3.12.).

사회정책대표 누리집, http://www.socialpolicy.go.kr/boardCustomList.do. (검색일: 2024.10.2.)

살고싶은 우리동네. https://sgis.kostat.go.kr/ (검색일: 2024.3.23.)

서한기. (2017). "온마을이 아이 돌본다"…전국 10곳서 '다함께 돌봄'사업. https://www.yna.co.kr/view/AKR20170727060400017 (검색일: 2023.10.10.)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 (2024a). 사업소개.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content/content.motion?mnucd=SJMENU0100046 (검색일: 2024.3.19.)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누리집. (2024b). 센터소개. https://www.sejong.go.kr/happyedu/damoa/contents/happy/content/content.motion?mnucd=SJMENU0100064 (검색일: 2024.3.19.)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2023a).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안내. https://dadol.or.kr/center/center_info (검색일: 2023.10.14.)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2023b). 다함께돌봄센터 센터현황. https://dadol.or.kr/board/center (검색일: 2023.10.14.)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2024). 아이돌봄활동 범위. https://idolbom.go.kr/front/srvcGuide/prttm)에서 (검색일: 2024.8.27.)

안태호. 2023. 10년간 비수도권→수도권 이동한 20대 166만명. 연합뉴스. 11월 7일 기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5259.html (검색일: 2024.8.27.)

유경호. (2024). 공공 인프라 외면한 늘봄학교 확대, 덴마크 일본은 달랐다. 이코리아. 1월 29일 기사.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487 (검색일:24.3.12.)

윤자영. (2022). 이런 돌봄, 엄마들 우왕좌왕하지 않아 좋겠네. 오마이뉴스. 8월 16일 기사. https://www.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857568 (검색일: 2024.3.12.)

이미지. (2024). 늘봄 대신 학교 수업시간을 늘리는 건 어떨까. 동아일보. 8월 16일 기사.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816/126552789/1 (검색일: 2024.10.17.)

이성희. (2022). 만족도 99% '중구형 초등돌봄' 왜 직영 중단하나. 경향신문. 9월 15일 기사. https://m.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9152117005#c2b (검색일: 2024.3.1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누리집. (2023).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개최.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91. (검색일: 2024.3.10.)

정재훈. (2023). 독일의 전일제학교 확대와 일·가족 양립의 의미. 행복한 교육, 2023년 4월호. https://happyedu.moe.go.kr/happy/bbs/selectHappy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191&nttId=28761 (검색일: 2024.3.12.)

정종훈. (2018). 독일 초등생 수업 마치면 '전일제 학교' 옮겨가 논다. 중앙일보. 4월 5일 기사.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508591#home (검색일: 2024.3.12.)

중구교육보육포털. (2024a). 초등돌봄 정보. https://edu.junggu.seoul.kr/eroum/contents.do?key=32 (검색일: 2024.3.19.)

중구교육보육포털. (2024b). 초등돌봄 신청. https://edu.junggu.seoul.kr/eroum/selectCareCnterWebList.do?key=33 (검색일: 2024.3.19.)

중구청 공식블로그. (2023). 중구 초등돌봄센터 2024학년도 이용아동 모집. https://blog.naver.com/junggu4u/223297034344 (검색일: 2024.3.19.)

충북온마을배움터 누리집. (2024). 옥천온마을배움터. https://www.cbe.go.kr/hp-oce/cm/cntnts/cntntsView.do?mi=10610&cntntsId=35393 (검색일: 2024.9.30.)

통계청(http://kosis.kr), 주민등록인구현황(2024). (검색일: 2024.3.23.)

한국교육개발원. (2023).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 (검색일: 2023.11.15.)

행정안전부(https://jumin.mois.go.kr), 주민등록 인구통계-행정동별, 연령별 인구현황(2023). (검색일: 2024.3.23.)

KOSIS 국가통계포털. 보건복지부(2018). 「아동종합실태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074_2018_A088&conn_path=I2에서 2024.03.12.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여성가족부(2020). 「가족실태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01_081&conn_path=I2 에서 2024.03.12. 인출

KOSIS 국가통계포털.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154013_A006&conn_path=I2에서 2024. 3. 11. 인출

Gesetz zur ganztägigen Förderung von Kindern im Grundschulalter, https://www.bmfsfj.de/bmfsfj/service/gesetze/gesetz-rechtsanspruch-ganztagsbetreuung-grundschulen-178966 (검색일: 2024.9.1.)

부록 1

돌봄 환경 및 실태조사 설문지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 조사 설문지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돌봄 환경과 실태, 욕구를 파악하여 방과후 초등 돌봄 정책과 지역 단위 돌봄 환경 조성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초등학생 돌봄 환경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주신 모든 내용과 결과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윤리 및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2024년 4월

SQ 1 귀하는 현재 초등학교 1~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조사 중단

SQ 1-1 그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는 총 몇 명입니까?

총 ( )명

SQ 1-2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학년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응답해주세요.

(logic) SQ 1-1에서 응답된 자녀 수만큼 출현

	초등학교 학년						성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남자	여자
(1) 첫째								
(2) 둘째								
(3) 셋째								
(4) 넷째								
(5) 다섯째								

(logic) 초등학교 1~4학년 자녀가 없으면 → 조사 중단

SQ 2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말씀해주세요.

시도	코드입력
시군구	코드입력
동부/읍면부	코드입력

※ 시도, 시군구 입력 후 89개 인구소멸지역은 추가 코드입력

SQ 3 귀하께서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그 외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돌봄센터 등을 포함합니다.

① 이용 ② 이용하지 않음

※ 초등학생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가장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Ⅰ 돌봄 필요

1 귀하의 자녀는 학기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자녀의 학교 등교시간과 수업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12시간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예: 13시 → 1시)

2-1. 자녀의 등교시간(학교 도착 시간)과 학교 수업 시작 시간은 언제입니까?

	등교시간(학교 도착)	학교 수업시작시간
등교시간(학교 도착)	__시 ① 00분 ② 30분	__시 ① 00분 ② 30분

2-1.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녀의 학교 수업이 끝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학교 수업 종료시간	__시 ① 00분 ② 30분	__시 ① 00분 ② 30분	__시 ① 00분 ② 30분	__시 ① 00분 ② 30분	__시 ① 00분 ② 30분

3 자녀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과후에 이용한 기관은 무엇입니까? 이용한 기관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 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 늘봄학교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학생의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24년 1학기 전국 2,700개 초등학교 우선 운영 후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
- '24년은 초등1학년 대상이며, '25년 1~2학년, '26년 모든 초등학생으로 확대 예정
※ '③늘봄학교' 선택 시, '①초등돌봄교실' 또는 '②방과후학교'는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 안			학교 밖					①~⑧번 항목 모두 이용하지 않음
	①초등돌봄 교실 (방과후연계형 돌봄교실 포함)	②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	③늘봄 학교	④지역아동 센터	⑤다함께 돌봄센터	⑥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⑦지자체 돌봄센터	⑧학원	
월요일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미이용 □
화요일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미이용 □
수요일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미이용 □
목요일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미이용 □
금요일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이용 □	미이용 □

II 돌봄 실태

7 지난 한 주를 회상할 때 자녀에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요일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7-1. 귀하의 자녀는 ____요일에 **주로 누가 또는 어디**에서 돌보고 있습니까?

〈 주된 돌봄 방법 - 보기 항목 〉

⓪ 학교 정규수업
① 아동의 어머니 ② 아동의 아버지 ③ 아동의 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⑤ 초등돌봄교실 ⑥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⑦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⑧ 늘봄학교 ⑨ 다함께돌봄센터
⑩ 지역아동센터 ⑪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⑫ 그 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
⑬ 학원(학습관련) ⑭ 학원(예체능) ⑮ 방문 학습지, 방문 과외
⑯ 아이돌봄서비스 ⑰ 민간 베이비시터 ⑱ 가사도우미
⑲ 육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이웃 등)
⑳ 혼자 있음(☞ 보호자나 성인없이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함. 미성년 형제자매와 있을 경우도 혼자 있는 것으로 간주함)
㉑ 기타(적어 주세요_____)

시간대	돌봄 방법(※ 보기 항목 참조)
(1) 오전 8:00~8: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 오전 8:30~8: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3) 오전 9:00~9: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4) 오전 9:30~9: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5) 오전 10:00~10: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6) 오전 10:30~10: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7) 오전 11:00~11: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8) 오전 11:30~11: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9) 오후 12:00~12: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0) 오후12:30~12: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1) 오후 1:00~1: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2) 오후 1:30~1: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3) 오후 2:00~2: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4) 오후 2:30~2: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5) 오후 3:00~3: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6) 오후 3:30~3: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7) 오후 4:00~4: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8) 오후 4:30~4: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9) 오후 5:00~5: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0) 오후 5:30~5: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1) 오후 6:00~6: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2) 오후 6:30~6: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3) 오후 7:00~7: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4) 오후 7:30~7: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5) 오후 8:00~8: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6) 오후 8:30~8: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4 귀하는 **학기 중 평일 아침 시간**에 자녀를 돌봐주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① 예 (Q4-1 이동) ② 아니오 (Q5 이동)

4-1 아침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 12시간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예: 09시 → 9시)
___ 시 ____분 ~ ___ 시 ____분

5 귀하는 **학기 중 평일 저녁 시간**에 자녀를 돌봐주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① 예 (Q5-1 이동) ② 아니오 (Q6 이동)

5-1 저녁 돌봄이 필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 12시간 기준으로 입력해주세요. 예: 18시 → 6시)
___ 시 ____분 ~ ___ 시 ____분

6 귀하는 **자녀의 방학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십니까?

① 예 (Q6-1, Q6-2 이동) ② 아니오 (Q7 이동)

6-1 방학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요일은 언제입니까? 해당되는 요일을 **모두** 선택해주세요.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⑦ 일요일

6-2 방학 중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 12시간 기준으로 응답 부탁 드립니다.)
(오전/오후) ___ 시 ____분 ~ (오전/오후) ___ 시 ____분

II 돌봄 실태

7 지난 한 주를 회상할 때 자녀에게 **가장 일상적이었던** 요일은 무슨 요일이었습니까?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7-1. 귀하의 자녀는 ____요일에 **주로 누가 또는 어디**에서 돌보고 있습니까? (Q7에서 선택한 요일)

〈 주된 돌봄 방법 - 보기 항목 〉

⓪ 학교 정규수업
① 아동의 어머니 ② 아동의 아버지 ③ 아동의 조부모(친조부모, 외조부모)
④ 기타 친인척 ⑤ 초등돌봄교실 ⑥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⑦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⑧ 늘봄학교 ⑨ 다함께돌봄센터
⑩ 지역아동센터 ⑪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⑫ 그 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
⑬ 학원(학습관련) ⑭ 학원(예체능) ⑮ 방문 학습지, 방문 과외
⑯ 아이돌봄서비스 ⑰ 민간 베이비시터 ⑱ 가사도우미
⑲ 육아공동체(☞ 공동육아나눔터, 이웃 등)
⑳ 혼자 있음(☞ 보호자나 성인없이 혼자 있는 것을 의미함. 미성년 형제자매와 있을 경우도 혼자 있는 것으로 간주함)
㉑ 기타(적어 주세요_____)

시간대	돌봄 방법(※ 보기 항목 참조)
(1) 오전 8:00~8: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 오전 8:30~8: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3) 오전 9:00~9: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4) 오전 9:30~9: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5) 오전 10:00~10: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6) 오전 10:30~10: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7) 오전 11:00~11: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8) 오전 11:30~11: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9) 오후 12:00~12: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0) 오후12:30~12: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1) 오후 1:00~1: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2) 오후 1:30~1: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3) 오후 2:00~2: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4) 오후 2:30~2: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5) 오후 3:00~3: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6) 오후 3:30~3: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7) 오후 4:00~4: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8) 오후 4:30~4: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19) 오후 5:00~5: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0) 오후 5:30~5: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1) 오후 6:00~6: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2) 오후 6:30~6: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3) 오후 7:00~7: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4) 오후 7:30~7: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5) 오후 8:00~8:2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6) 오후 8:30~8:59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①~⑦에 한 가지 이상 체크한 경우

8 귀하의 자녀가 현재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된 이유 **1가지만** 응답해주십시오.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① 급간식을 제공해주어서
② 아동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③ 이용료가 적거나 없어서
④ 학원과 중복해서 이용할 수 있어서
⑤ 다른 곳보다 믿을 수 있어서
⑥ 서비스 질이 좋아서
⑦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⑧ 자녀가 가고 싶어해서
⑨ 기타(적어 주세요 :)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①~⑦에 한 가지 이상 체크한 경우

9 귀하의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가장 주된 경로 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① 또래 자녀를 기준으로 한 학부모 모임
② 가족, 친구, 이웃 등
③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등 공공기관 전화 또는 방문
④ 학교,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보낸 안내문(가정통신문 등)
⑤ 텔레비전 또는 신문(무료신문, 인터넷신문 포함)에 나온 방송 및 홍보 자료
⑥ 인터넷(유튜브, 블로그, 맘카페, 트위터, 페이스북 등)
⑦ 길거리 또는 아파트, 공공기관에 게시된 현수막, 전단지, 포스터 등
⑧ 통·반장의 안내
⑨ 기타(적어 주세요 :)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①~⑦에 한 가지 이상 체크한 경우

10 귀하의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운영시간(이용시간)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①~⑦에 한 가지 이상 체크한 경우

11 귀하의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①~⑦에 한 가지 이상 체크한 경우

12 귀하의 자녀가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별로 도움이 안됨 ③ 약간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①~⑦에 모두 체크하지 않은 경우

13 귀하의 자녀가 현재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1순위 ____ 2순위 ____

① 이용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② 이용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③ 이용 신청을 하였으나 탈락해서
④ 주변에 해당 시설이 없어서
⑤ 공적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알지 못해서
⑥ 서비스의 질에 믿음이 가지 않아서
⑦ 원하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서
⑧ 자녀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서
⑨ 방과 후에 집에 보호자(부모나 조부모 등 친척)가 있어서
⑩ 방과 후에 집에 형제자매가 같이 있어서
⑪ 기타(적어 주세요 : _____)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⑧에 체크한 경우

14 귀하의 자녀가 현재 학습 관련 학원이나 예체능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전혀 도움이 안됨 ② 별로 도움이 안됨 ③ 약간 도움됨 ④ 매우 도움됨

15 귀하는 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자녀의 질병 및 감염 등의 이유로 학교에 보내지 못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Q15-1 이동) ② 아니오 (Q16 이동)

15-1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했을 때, 긴급하게 자녀를 **주로** 돌봐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① 아동의 아버지
② 아동의 어머니
③ 아동의 친조부모
④ 아동의 외조부모
⑤ 기타 친인척
⑥ 이웃
⑦ 아이돌보미(정부지원서비스)
⑧ 베이비시터
⑨ 가사도우미
⑩ 기타(적어 주세요 :)

16 귀하는 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출장, 야근, 병원 진료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적이 있었습니까?

① 예 (Q16-1, Q16-2 이동) ② 아니오 (Q17 이동)

16-1 간헐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날은 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몇 회 였습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16-2 귀하가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할 때, **주로** 도움을 준 사람 혹은 시설은 누구(무엇)입니까?

① 아동의 아버지
② 아동의 어머니
③ 아동의 친조부모
④ 아동의 외조부모
⑤ 기타 친인척
⑥ 이웃(자녀 친구 학부모 포함)
⑦ 아이돌보미(정부지원서비스)
⑧ 베이비시터
⑨ 다함께돌봄센터
⑩ 기타(적어 주세요 :)

Ⅲ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한 인식

17 귀하의 자녀를 위하여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혹은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방과후돌봄서비스 구성 항목의 중요도를 **전체 합계 100%를 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① 이용시간 등 접근성	②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	③ 돌봄 제공 인력	④ 급·간식 제공여부과 질	⑤ 시설 내부 환경	⑥ 시설 외부 환경	합계
						100%

18 귀하의 자녀를 위하여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혹은 이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의 각 서비스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 :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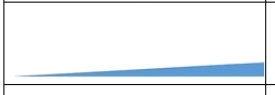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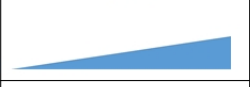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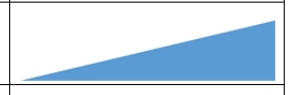
방과후 돌봄 서비스 구성 요소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접근성	(1) 주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2) 주말 및 공휴일 이용 가능 여부	①	②	③	④
	(3) 방학 중 이용 가능한 시간	①	②	③	④
	(4) 자녀가 혼자갈 수 있는지 여부	①	②	③	④
	(5)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에 시설이 있느냐 여부	①	②	③	④
프로그램	(6) 숙제 지도	①	②	③	④
	(7) 교과목 보충학습 지도(학습지 등)	①	②	③	④
	(8)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9) 각종 체험활동 프로그램(외부 활동 포함)	①	②	③	④
	(10) 쉬는 시간 혹은 노는 시간	①	②	③	④
돌봄 인력	(11) 돌봄 선생님의 자격요건	①	②	③	④
	(12) 돌봄 선생님이 아동을 대하는 태도	①	②	③	④
	(13) 돌봄 선생님과 부모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14) 돌봄 선생님과 아동 간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15) 돌봄 선생님 1인당 담당하는 아동의 수	①	②	③	④
식사/ 간식	(16) 오후 간식 제공	①	②	③	④
	(17) 저녁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18) 방학 중 점심 식사 제공	①	②	③	④
	(19) 조리 및 제공 관련 위생 상태	①	②	③	④
	(20) 식사 및 간식의 질	①	②	③	④
시설 내 환경	(21) 가정과 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①	②	③	④
	(22) 실내 공간의 충분한 면적	①	②	③	④
	(23) 교재나 교구의 구비	①	②	③	④
	(24) 실내 시설 공간의 안전(모서리 방지, 콘센트 등)	①	②	③	④
	(25) 비상구, 미끄럼 방지 등 안전사고 관련 환경	①	②	③	④
시설 외 환경	(26) 시설이 위치한 건물 유형(전용 건물, 복합상가 등)	①	②	③	④
	(27) 시설이 위치한 건물의 인접 가게의 업종	①	②	③	④
	(28) 시설이 위치한 건물의 노후정도	①	②	③	④
	(29) 시설이 위치한 주변 환경(대로변, 시장 등)	①	②	③	④
	(30) 실외놀이터, 운동장, 텃밭 등 실외 환경	①	②	③	④

Ⅳ 근린 환경과 돌봄 인프라

19 귀하의 동네는 아파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가장 가까운 비중을 말씀해주세요.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안의 환경을 떠올려주세요)

① 전혀 없다	② 25%	③ 50%	④ 75%	⑤ 100%
아파트가 전혀 없다.	전체적으로 단독/다세대가 많고 아파트가 일부 섞여 있다.	아파트와 단독/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비슷하다.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많지만 단독/다세대도 일부 섞여있다.	모두 아파트이다.
				

20 귀하의 동네는 전반적인 경사가 어떻습니까?
(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아파트단지 바깥의 도로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0-4도	② 4-10도	③ 10-30도	④ 30도 이상
경사가 거의 느껴지지 않아 평탄하고 쾌적하다.	완만한 경사가 산책하는 데 무리 없고 쾌적한 정도이다.	언덕 느낌이 들고, 경사방향을 올라갈 때 속도가 느려진다.	급경사로 계단이 없으면 걸어서 오르내리기 힘들다
4도	10도	30도	
			
			

21 귀하의 자녀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보호자 없이 혼자 통학하기 적당합니까? (귀하의 자택에서 학교까지 가는 통학로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십시오)

① 전혀 그렇지 않다 (Q21-1 이동)　② 별로 그렇지 않다 (Q21-1 이동)
③ 대체로 그렇다 (Q22 이동)　④ 매우 그렇다 (Q22 이동)

21-1 귀하의 자녀가 혼자 통학하기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거리가 멀어 걸어다닐 수 없는 거리이다(예: 1km 이상 거리).
② 가는 길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다.
③ 가는 길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다.
④ 가는 길에 인적이 드물고 으슥한 장소(예, 골목길 등)를 지나가야 한다.
⑤ 가는 길에 큰 공사장 등 위험한 장소가 있다.
⑥ 기타(적어 주세요 :　　)

22 다음 중 귀하의 자녀가 동네에서 이용하는 시설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활동유형	시설유형	장소구분	공간(시설)	이용 여부
놀이터 (놀이전용 공간)	공공	실내	지자체에서 만든 공공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시립 · 구립 등)	□
		실외	공공 놀이터 (아파트단지 밖에 위치)	□
	민간	실내	민간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레고, 보드게임방 포함)	□
		실외	아파트단지 내 실외놀이터(이웃단지 포함)	□
신체활동 공간	공공	실내	공공 실내체육관 (구립 · 시립 · 군립 체육관 등)	□
		실외	공원, 운동장(학교 밖) 등	□
	민간	실내	민간 실내체육시설·학원 (예: 태권도장, 탁구장 등)	□
		실외	민간 실외체육시설·학원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
학습·문화 공간	공공	실내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어린이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
	민간	실내	학원 (학습 관련)	□
			학원 (예술 관련)	□
-	-	-	이용하는 시설 없음	□

☞ Logic 문 22) 이용 시설에 체크된 시설만 표시

23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시설 중에 보호자가 데려다주지 않아도 아이가 혼자 갈 수 있는 곳을 **모두** 체크해주십시오.(한 항목에 혼자 갈 수 있는 시설이 1개 이상 있다면 체크해 주십시오)

활동유형	시설유형	장소구분	공간(시설)	이용 여부
놀이터 (놀이전용 공간)	공공	실내	지자체에서 만든 공공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시립 · 구립 등)	□
		실외	공공 놀이터 (아파트단지 밖에 위치)	□
	민간	실내	민간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레고, 보드게임방 포함)	□
		실외	아파트단지 내 실외놀이터(이웃단지 포함)	□
신체활동 공간	공공	실내	공공 실내체육관 (구립 · 시립 · 군립 체육관 등)	□
		실외	공원, 운동장(학교 밖) 등	□
	민간	실내	민간 실내체육시설·학원 (예: 태권도장, 탁구장 등)	□
		실외	민간 실외체육시설·학원 (배드민턴장, 풋살장 등)	□
학습·문화 공간	공공	실내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어린이문화센터 (청소년문화센터)	□
	민간	실내	학원 (학습 관련)	□
			학원 (예술 관련)	□
-	-	-	아이가 혼자 갈 수 있는 곳 없음	□

24 귀하의 자녀가 다음 공간 사이를 이동하는 **주된**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 개의 시설을 다니는 경우 가장 자주 다니는 시설을 떠올려주십시오. 예: 자주 다니는 학원, 놀이터)

이동 경로	이동수단					성인 동행자			소요 시간 (분)
	도보 (걸어서)	자전거	대중 교통	셔틀 버스	자가용	부모 (조부모)	그외	없음	
① 집↔학교	□	□	□	□	□	□	□	□	___분
② 학교↔학원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⑧에 체크한 경우	□	□	□	□	□	□	□	□	___분
③ 학교↔학교 밖에 있는 공적 돌봄기관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④~⑦ 체크한 경우	□	□	□	□	□	□	□	□	___분
④ 학교 밖에 있는 공적 돌봄 기관↔집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④~⑦ 체크한 경우	□	□	□	□	□	□	□	□	___분
⑤ 학원↔집 ☞ Logic 문 3) 이용 시설 중 ⑧에 체크한 경우	□	□	□	□	□	□	□	□	___분
⑥ 학교↔놀이공간 ☞ Logic 문 22) 이용 시설 중 ②, ④, ⑥번 중 1개 이상 체크한 경우	□	□	□	□	□	□	□	□	___분
⑦ 놀이공간↔집 ☞ Logic 문 22) 이용 시설 중 ②, ④, ⑥번 중 1개 이상 체크한 경우	□	□	□	□	□	□	□	□	___분

* **학교 밖에 있는 공적 돌봄기관** :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
* **놀이공간** : 뛰거나 공놀이할 수 있는 실외놀이터, 공원 등

주: 1) 대중교통은 버스나 택시 등 개개인이 이용하는 것을 뜻함.
2) 셔틀버스는 학교나 학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전용 차량을 뜻함.
3) 그 외는 학원 선생님이나 돌봄 교사, 아이돌보미 등을 포함.

25 ☞ Logic 문 22) 이용 시설에 체크된 시설만 표시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체감하기에	집, 또는 이전 장소부터의 **거리** ① 매우 멀다 ↔ ④ 매우 가깝다	자녀 혼자 **이동**하기 쉬움 ① 매우 어렵다 ↔ ④ 매우 쉽다	자녀가 **이용**하기에 시설이 안전함 ① 매우 위험하다 ↔ ④ 매우 안전하다	자녀가 **이용**하기에 이용자나 주변 환경이 안전함 ① 매우 위험하다 ↔ ④ 매우 안전하다	자녀가 가고 싶어함 ① 전혀 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 ④ 매우 가고 싶어한다
공공 실내 놀이터 · 키즈카페(문 22 ①)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공공 실외 놀이터(문 22 ②)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민간 실내놀이터 및 키즈카페(문 22 ③)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아파트단지 내 실외놀이터(문 22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공공 실내체육관(문 22 ⑤)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공원, 운동장(학교밖) 등(문 22 ⑥)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민간 실내체육시설·학원(문 22 ⑦)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민간 실외체육시설·학원(문 22 ⑧)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공공도서관(문 22 ⑨)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작은도서관(문 22 ⑩)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공공 실내 어린이문화센터(청소년문화센터)(문 22 ⑪)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주: ① ↔ ④ : 숫자가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

26 귀하의 자녀가 이용하는 동네 돌봄 인프라(돌봄 기관 및 동네 시설)는 자녀의 발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응답해주십시오.

자녀 발달 항목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자녀의 신체 발달	①	②	③	④
(2) 자녀의 정서 발달	①	②	③	④
(3) 자녀의 인지 발달	①	②	③	④
(4) 자녀의 사회성 발달	①	②	③	④
(5) 자녀의 편안한 쉼과 돌봄 제공	①	②	③	④
(6) 자녀의 소질 및 재능 계발	①	②	③	④
(7) 다양한 교육 및 체험 기회 제공	①	②	③	④

27 귀하가 거주하는 동네를 평가해주십시오
(귀하의 자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약 400미터 반경 내- 동네 환경을 떠올려주십시오.)

거주하는 동네와 돌봄 환경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a. 보행환경	(1) 차가 다니는 차도와 구분된 인도가 잘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2) 아이와 나란히 걸어가기에 인도 폭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3) 인도는 울퉁불퉁하거나 패인 곳 없이 포장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4) 인도에 기울어짐이나 턱이 적어 유모차나 휠체어를 밀고 다니기 편하다	①	②	③	④
	(5) 길을 걸을 때 자동차·이륜차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6) 길을 걸을 때 자전거·킥보드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7)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잘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8) 길을 건널 때 신호등, 횡단보도가 잘 설치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9) 가로등이 충분히 있어 밤에 걷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0) 길가 화단이나 가게 등 흥미로운 볼거리가 많다.	①	②	③	④
b.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지	(1) 아이와 아이 키우는 가족을 환대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동네에서 이웃 · 친구를 사귀기 좋다	①	②	③	④
	(3) 아이를 잠시 맡기거나 지켜봐 줄 만한 이웃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이웃집에 종종 놀러가고 놀러온다	①	②	③	④
	(5) 이 동네는 (아이가) 친구 사귀기 좋다.	①	②	③	④
	(6) 공적 돌봄기관(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연계형돌봄교실, 방과후학교(방과후교실), 늘봄학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자체 돌봄센터)을 이용하는 것은 아이가 친구 사귀는 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7) 학원에 다니는 것은 아이가 친구 사귀는데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8) 아이는 동네에서 다양한 사람(노인, 가게주인, 학원 선생님 등)과 접하며 사회적 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c. 놀이기회	(1) 가까운 곳에 아이가 놀 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아이의 연령대에 맞는 놀이공간이 있다	①	②	③	④
	(3) 놀이공간과 주변환경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4) 아이가 놀기 좋은 녹지·자연환경이 풍부하다	①	②	③	④
	(5) 날씨나 공기가 좋지 않아도 동네에 놀 곳이 있다	①	②	③	④
	(6) 놀이터에서 가면 같이 놀 친구를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7) 학교 바로 근처에 놀기 좋은 장소가 있다	①	②	③	④
	(8) 아이가 미리 약속을 잡지 않고 나가도 동네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다.	①	②	③	④
d. 위해 환경	(1) 우리 동네는 외부 소음이 많아 시끄럽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미세먼지, 매연 등 공기가 나쁘다.	①	②	③	④
	(3) 우리 동네는 이상한 냄새가 자주 난다.	①	②	③	④
	(4) 우리 동네는 공사장이 많아 낙하물 사고의 위험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우리 동네는 아이에게 유해한 시설이 많다.	①	②	③	④

V 아동 발달

28 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월 1~2회 이하	월 3~4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5회	거의 매일
(1) 가족과 함께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가족과 함께 식사	①	②	③	④	⑤
(3) 친구들과 함께 야외 놀이(놀이터, 축구 등)	①	②	③	④	⑤
(4) 문화여가활동(영화, 취미, 운동 등) 참여	①	②	③	④	⑤
(5) 친구집에 놀러가거나 친구가 놀러옴	①	②	③	④	⑤

29 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다음의 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월 1~2회 이하	월 3~4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5회	거의 매일
(1) 친구나 형제와 다툼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과 갈등, 의견대립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말	①	②	③	④	⑤
(4) 친구나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	①	②	③	④	⑤
(5)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나 학원, 방과후돌봄 시설에 가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30 지난주 **평일**을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컴퓨터 등으로 게임이나 동영상 시청 등을 **하루 평균** 얼마나 하였습니까?

하루 평균 ( ) 시간 ( )분

31 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하루 평균 몇 시간 수면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 ) 시간 ( )분

32 가장 최근에 측정한 자녀의 키와 몸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키: ( )cm 몸무게: ( )kg

33 지난 한달을 기준으로 귀하의 자녀는 해당 음식들을 얼마나 자주 먹었습니까?

	월 1~2회 이하	월 3~4회	1주일에 2~3회	1주일에 4~5회	거의 매일
(1) 신선한 채소와 과일	①	②	③	④	⑤
(2) 육류, 생선	①	②	③	④	⑤
(3) 우유, 두유, 두부	①	②	③	④	⑤
(4) 편의점/패스트푸드	①	②	③	④	⑤
(5) 배달음식	①	②	③	④	⑤

34 평일 방과후에 귀하의 자녀가 주로 **오후 간식을 먹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① 집 ② 학교 ③ 편의점 ④ 식당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포함) ⑤ 지역아동센터
⑥ 이동하는 차 안(셔틀버스, 자가용 모두 포함) ⑦ 기타(적어 주세요:)

35 평일 방과후에 귀하의 자녀가 주로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① 집 ② 학교 ③ 편의점 ④ 식당 (분식집, 패스트푸드점 포함) ⑤ 지역아동센터
⑥ 이동하는 차 안(셔틀버스, 자가용 모두 포함) ⑦ 기타(적어 주세요:)

Ⅵ 응답자 및 가구 일반 현황

DQ1 귀하(응답자)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성 ② 여성

DQ2 귀하(응답자)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1	9			년

DQ3 귀하(응답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이상

DQ4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 일자리 : 최근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일자리가 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도 '① 예'에 해당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DQ 5 항으로 이동

DQ4-1 귀하의 일자리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전일제 근로자
②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
③ 고용주/자영업자/프리랜서
④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DQ4-2 평소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오전 00:00 ~ 05:59 ② 오전 06:00 ~ 06:59 ③ 오전 07:00 ~ 07:59
④ 오전 08:00 ~ 08:59 ⑤ 오전 09:00 ~ 11:59 ⑥ 오후 12:00 ~ 14:59
⑦ 오후 15:00 ~ 17:59 ⑧ 오후 18:00 ~ 20:59 ⑨ 오후 21:00 ~ 23:59
⑩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⑪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

DQ4-3 평소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오전 00:00 ~ 05:59 ② 오전 06:00 ~ 08:59 ③ 오전 09:00 ~ 11:59
④ 오후 12:00 ~ 14:59 ⑤ 오후 15:00 ~ 17:59 ⑥ 오후 18:00 ~ 18:59
⑦ 오후 19:00 ~ 19:59 ⑧ 오후 20:00 ~ 20:59 ⑨ 오후 21:00 ~ 21:59
⑩ 오후 22:00 ~ 22:59 ⑪ 오후 23:00 ~ 23:59
⑫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음
⑬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

DQ5 귀하(응답자)는 현재 배우자가 있습니까?

① 있다(사실혼 포함) ② 없다(이혼, 사별) → DQ 6 항으로 이동

DQ5-1 배우자의 출생연도는 언제입니까?

1	9			년

DQ5-2 배우자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전문대,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석사, 박사) 졸업 이상

DQ5-3 배우자께서는 지난 일주일 동안 일자리가 있었습니까?
※ 일자리 : 최근 1주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우 또는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한 경우 (일자리가 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도 '① 예'에 해당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DQ 6 항으로 이동

DQ5-4 배우자의 일자리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전일제 근로자
② 시간제(파트타임) 근로자
③ 고용주/자영업자/프리렌서
④ 무급가족종사자(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경우)

DQ5-5 배우자께서 평소 출근을 위해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오전 00:00 ~ 05:59 ② 오전 06:00 ~ 06:59 ③ 오전 07:00 ~ 07:59
④ 오전 08:00 ~ 08:59 ⑤ 오전 09:00 ~ 11:59 ⑥ 오후 12:00 ~ 14:59
⑦ 오후 15:00 ~ 17:59 ⑧ 오후 18:00 ~ 20:59 ⑨ 오후 21:00 ~ 23:59
⑩ 출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해당없음(주말부부 등)
⑪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

DQ5-6 배우자께서 평소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하는 시간대는 다음 중 언제입니까?

① 오전 00:00 ~ 05:59 ② 오전 06:00 ~ 08:59 ③ 오전 09:00 ~ 11:59
④ 오후 12:00 ~ 14:59 ⑤ 오후 15:00 ~ 17:59 ⑥ 오후 18:00 ~ 18:59
⑦ 오후 19:00 ~ 19:59 ⑧ 오후 20:00 ~ 20:59 ⑨ 오후 21:00 ~ 21:59
⑩ 오후 22:00 ~ 22:59 ⑪ 오후 23:00 ~ 23:59
⑫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해당없음(주말부부 등)
⑬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으로 출근하지 않음

DQ6 귀 댁에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함께 살고 있는 친족 및 비혈연 관계를 모두 포함)은 본인을 포함하여 총 몇 명입니까?

총 (　　) 명

DQ6-1 귀 댁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본인 기준으로 모두 선택해 주세요.

① 본인　② 자녀 (　　명)　③ 배우자
④ 본인의 부모님　⑤ 배우자의 부모님　⑥ 본인의 조부모님
⑦ 배우자의 조부모님　⑧ 본인의 형제자매　⑨ 배우자의 형제자매
⑩ 비혈연동거인　⑪ 기타(적어 주세요 :　　)

DQ7 귀 댁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어떤 종류입니까?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 DQ 7-1 항으로 이동
③ 연립주택/다세대주택　④ 오피스텔(주상복합 포함)
⑤ 상가주택 (1, 2층을 상가로 사용하고 위층에 거주하는 경우)
⑥ 기타(적어 주세요 :　　)

DQ7-1 귀 댁에서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세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50세대 미만　② 150-299세대　③ 300-499세대
④ 500-999세대　⑤ 1,000세대 이상

DQ8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임대소득, 예금이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답해 주십시오.

① 월 200만원 이하　② 월 200 ~ 399만원　③ 월 400 ~ 599만원
④ 월 600 ~ 799만원　⑤ 월 800 ~ 999만원　⑥ 월 1,000만원 이상

DQ9 귀 가구의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모두 체크해주십시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② 장애인이 포함된 가족　③ 한부모가족(조손가족)
④ 다문화가정　⑤ 맞벌이가정　⑥ 주말부부
⑦ 해당사항 없음

PQ1 조사에 응답해주신 분들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개요를 확인하신 후, 인터뷰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부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층인터뷰 개요]

- 목　적 : 돌봄 환경과 실태, 욕구를 파악하여 방과후 초등 돌봄 정책과 지역 단위 돌봄 환경 조성
- 대　상 : 초등학교 1~4학년 자녀를 둔 부모
- 기　간 : 4월 중순 ~ 5월 중순 예정
- 시　간 : 약 1시간 30분
- 방　법 : 일대일 개별심층면접
- 사례비 : 15만원

* 인터뷰 내용은 익명으로 처리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 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께는 별도의 안내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① 인터뷰 참여 희망(연락처를 기입해 주세요 :　　)
② 인터뷰 원치 않음

부록 2

양육자 심층면담 질문지

심층면담 질문지

심층면담 : 아동 돌봄 실태 및 근린 환경 특성 ID ☐ Date ☐☐

본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건축공간연구원**에서 공동 수행하는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연구책임 강현미 부연구위원)"를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아동 돌봄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엄격히 보호**되며, 연구 및 정책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A. 일상 생활

[돌봄 시간과 패턴]

A0. 초등학생 자녀의 성별과 학년을 말씀해주세요. 성별:_____ 학년:____학년

A1. 자녀의 요일별 스케줄을 대략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 이용하는 돌봄 시설/학원 일정 등)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학교							
방과후							
(저녁식사)							

A2. 학교 일과시간 외, 귀댁 자녀는 며칠이나 돌봄기관/학원에 가나요?

공공돌봄: 평일 5일 중 _____일, 주말 2일 중 _____일 (긴급돌봄 포함)
사설돌봄: 평일 5일 중 _____일, 주말 2일 중 _____일
학 원: 평일 5일 중 _____일, 주말 2일 중 _____일

A3. 학교 일과시간 외, 귀댁 자녀는 며칠이나 밖에서 노나요?

평일 5일 중 _____일, 주말 2일 중 _____일

A4. 자녀가 밖에서 노는 날, 하루에 노는 시간을 모두 합하면 얼마나 되나요?
( )시간 ( )분

A5. 귀 댁 자녀는 방과 후 부모님 또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있거나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나요?
( )일

A6. 자녀가 평소에 등/하교, 학원 왕복 등을 위해 차량에 타고 있는 시간은 총 얼마나 되나요? (평일 하루 기준으로 답해 주세요)
( )시간 ( )분

[일과 구성 및 공간 특성(mapping)]

A7. 자녀 돌봄에 대해 양육자가 느끼는 불만 정도를 요일별로 표시해주십시오.
만약에 양육자의 불만이 요일별로 큰 차이가 없다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싫어하는(힘들어하는 요일)로 나누어 답해주십시오.

	돌봄만족도	비고
월	(매우 불만) 1----2----3----4----5----6-----7 (매우 만족)	
화	(매우 불만) 1----2----3----4----5----6-----7 (매우 만족)	
수	(매우 불만) 1----2----3----4----5----6-----7 (매우 만족)	
목	(매우 불만) 1----2----3----4----5----6-----7 (매우 만족)	
금	(매우 불만) 1----2----3----4----5----6-----7 (매우 만족)	
토	(매우 불만) 1----2----3----4----5----6-----7 (매우 만족)	
일	(매우 불만) 1----2----3----4----5----6-----7 (매우 만족)	

A8. 평일 중 돌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높은 날과 낮은 날 아이의 하루생활패턴을 나누어 적고, 방문 장소와 이동 경로를 지도에 그려주세요.

A9. (평일-불만족). (시간표를 보며) 불만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A10. (평일-만족). (시간표를 보며) 만족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평일/ 돌봄이 만족/불만족스런 날			___요일		
	어디에 있었나요?	그곳에 어떻게 갔나요?	가는 데 얼마나 걸렸나요?	누구와 함께 이동했나요?	그곳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나요?
	(장소이름)	걸어서/자전거/승용차/(학원)셔틀/시내버스/지하철/기타	00분	혼자/형제자매/친구 학원선생님/부모님 등	활동을 자세히 적기 (어울린 친구 수, 놀이종류)
8:00	〈집〉				
8:30	등교				
9:00 ~13:00	〈학교〉				
13:30					
14:00					
14:30					
15:00					

A11. 그 외에 아이가 이용하는 돌봄시설과 생활인프라(문화/여가/놀이장소 등) 장소 및 이동 경로를 지도에 그려주시고, 각 경로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연구원과 진행)

A12. 집을 기준으로, 아이가 어른 없이 독립적으로 가는 최대 범위를 지도에 표시해주세요
(연구원과 함께 진행)
* 보호자 없이 걷는 범위, 나가서 노는 범위, 킥보드, 자전거 타는 범위/ 셔틀버스, 대중교통 타는 곳

A13. 동네에 비공식적 장소이지만 아이들이 편히 모이고 노는 곳이 있습니까?

B. 공적 돌봄을 통한 돌봄 공백 해소

[이용하는 돌봄 시설의 환경 및 아동 활동 특성] ※이용하는 공공돌봄시설(복수)에 대해 각각 질문

(시설명)_____

B1. 돌봄 시설의 내부 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B2. 돌봄 시설에서 아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합니까?

B3. 아이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돌봄시설 공간의 장점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은 어떻습니까?

B4. 돌봄시설 주변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공적 돌봄에 대한 불만족과 개선 방안]

B5. 공적 방과후 돌봄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B6.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십니까?

B7. 학원이 돌봄공백에 도움이 되는 이유 또는 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B8. 작년에 비해 올해 아이를 돌보는 방법이 달라졌는지(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점이 좋고 아쉬운지), 그리고 내년에도 현재와 같은 돌봄 방식을 유지하실 계획이신가요?

B9. 공적 돌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졌으면 좋겠습니까?
(B8에서 어느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추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 질문)

C. 근린 환경의 돌봄 지원 수준

[근린 내 아동 이용 시설]

C1. 자녀가 가장 많이 가는 실내·실외 여가장소에 대해 적어주세요 (학교-학원 제외)

(동네에서 가는 곳을 우선적으로 답해주시되, 자주 가는 순서대로 작성해주세요.)

아래 공간 예시를 참고하여 동네 외 장소도 있다면 답해주세요. 놀이터의 경우 개별 놀이터의 이름을 구분해서 써주세요)

장소 이름	방문 빈도	이동방식	자주 가는 이유	장소에서 하는 일	아쉬운 점
예시)XX동 복합커뮤니센터	주 2 회	도보	학원과 가까워서	책읽기	
①	주 ___회 또는 월___회				
②	주 ___회 또는 월___회				

[예 시]
- 책을 읽거나 영상자료를 볼 수 있는 공간 (도서관, 어린이도서관 등)
- 만들기나 미술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작업실 등)
-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공공체육센터의 개방된 공간, 동네 배드민턴장 등)
- 아동청소년을 위한 공간 (청소년문화의 집, 공공도서관 내 아동·청소년 전용공간 등)
- 동네 커뮤니티 공간 (마을 커뮤니티 카페, 서점 등)
- 놀이공간
- 문화 및 체험학습이 가능한 공간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 미술관, 박물관, 과학관, 공연장 등)

〈학습시설 (학원 등)〉 〈문화·예술·체육 등 생활인프라〉 에 대해

C2. 해당 시설에서 아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활동합니까?

C3. 아이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돌봄시설 공간의 장점이나 프로그램의 질적 특성은 어떻습니까?

[근린 내 돌봄인프라간 이동 및 독립적 이동]

C4. 학교-시설(돌봄·학원·여가)간의 이동에 대해서 안심하고 있습니까?

-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또는 성인과 동행/차량 이용하는 경우 모두

C5. 돌봄이나 학원 등의 일정 사이가 빌 때, 아이가 안심하고 머물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C6. 부모님께서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행동들을 어느 정도까지 허락하십니까?

	허용안함	가끔허용	자주허용	늘 허용
동네에서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걷는 것을 허락한다				
동네에서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자전거 또는 킥보드 타는 것을 허락한다				
동네에서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노는 것을 허락한다				
단거리 대중교통를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셔틀버스를 혼자 또는 친구들끼리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다				

C7. (근린 환경이 좋은 경우) 아이가 혼자 걸어다니기 좋은 환경은 돌봄 부담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C8.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없는 동네 환경/돌봄시설 선택으로 인한 돌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뭘까요?

C9. 만약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있는 환경이고 믿을 수 있는 돌봄시설이 충분하다면 파트타임, 또는 전일제 직장을 다닐 생각이 있으신가요?

[신체활동 수준에 대한 평가]

C10. 귀하는 평일에 자녀의 신체 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아이가 만족할만큼 마음껏 노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양적으로 (시간 자체): _____	질적으로 (신체활동과 자녀의 만족도): _____
① 매우 충분하다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이 정도면 충분한 편이다	② 이 정도면 충분한 편이다
③ 조금 아쉽다	③ 조금 아쉽다
④ 매우 아쉽다	④ 매우 아쉽다

→ 둘 중 하나라도 ③, ④에 해당될 경우 C11질문으로

C11. 귀 자녀의 신체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예시
① 하루 일과 중에서 신체활동 시간을 확보하기
② 신체활동 장소를 찾아가기 (아이를 장소에 데려가기, 아이가 혼자서 가도록 허락하기 등)
③ 함께 신체활동 할 수 있는 친구 만들어주기
④ 아이가 혼자서 마음 놓고 나가서 놀도록 하기
⑤ 아이의 신체활동 부족을 주말에 따로 시간내서 보충해주기
⑥ 기타 요인: 코로나, 아이의 성향 등

C12. 학교 및 공공돌봄 시설에서 아이의 신체활동에 대한 필요를 얼마나 채워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

거의 채워주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부분 채워준다

(참고) 신체활동source: ①학교·공공돌봄 ②사교육(학원) ③아이 혼자 나가서 활동 ④부모와 함께 나가서 활동

[자유로운 놀이 수준에 대한 평가]

C13. 귀하는 평일에 자녀의 놀이 활동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질적으로 아이가 만족할만큼 마음껏 노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양적으로 (시간 자체): _____	질적으로 (놀이활동과 자녀의 만족도): _____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이 정도면 충분한 편이다	① 매우 충분하다 ② 이 정도면 충분한 편이다
③ 조금 아쉽다 ④ 매우 아쉽다	③ 조금 아쉽다 ④ 매우 아쉽다

→ 둘 중 하나라도 ③, ④에 해당될 경우 C14질문으로

C14. 귀 자녀의 놀이 활동이 충분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인 예시
① 하루 일과 중에서 놀이시간을 확보하기
② 놀이활동 장소를 찾아가기 (아이를 장소에 데려가기, 아이가 혼자서 가도록 허락하기 등)
③ 함께 놀이할 수 있는 친구 만들어주기
④ 아이가 혼자서 마음 놓고 나가서 놀도록 하기
⑤ 아이의 놀이활동 부족을 주말에 따로 시간내서 보충해주기
⑥ 기타 요인: 코로나, 아이의 성향 등

C15. 아이의 하루 평일 일과가 아이의 놀이에 대한 필요를 얼마나 채워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2-------3-------4-------5

거의 채워주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부분 채워준다

(참고) 신체활동source: ①학교·공공돌봄 ②아이 혼자 나가서 활동 ③부모와 함께 나가서 활동

*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록 3

양육자의 주택 및 근린환경 인지

주택 및 근린환경 관련 초등학생 양육자 면담 내용 요약 (25명)

근린 구분	면담자 거주지	물리적 환경 요소		특성	아동 행태	아동 영향
고밀	구로구 개봉1동	주택 입지	주변 환경	(주택 입지) 아이들이 많이 사는 곳과 집이 떨어져 있음	아이의 모든 생활이 집 근처가 아닌 친구들 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생활인프라	놀이터 접근성 (거리)	(옆단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그네, 시소, 미끄럼틀이 있는 평범한 놀이터	아이의 대부분의 사회적 활동이 집근처가 아닌 해당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X
			단지 내 놀이터	(소규모 아파트 단지) 놀이터가 있지만 그네가 없어서 아이의 흥미가 낮음	아이의 모든 생활이 집 근처가 아닌 친구들 집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X
			시설 및 규모	(집근처 소공원) 운동기구만 있는 작은 공원이며 바닥이 울퉁불퉁한 돌재질로 마감되어 있음	바닥이 울퉁불퉁한 돌재질로 마감되어 있어 아이가 뛰어놀기에 불편하기에 잘 안가게 됨	X
		보행환경	통학로 교통안전	(공공인프라-보행로) 학교 및 학원으로 이어지는 보행로는 왕복 2차선 도로이나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며 보행로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노변 상업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주정차차량이 많음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른과 반드시 동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엄마가 차량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고 있음	X
	동작구 상도1동	학교	접근성 (거리)	(학구도와 집 위치-구경계) 집이 구 경계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구도가 비교적 넓게 설정되어 있음	독립적 이동범위가 현저히 좁고, 바깥놀이 활동이 매우 적음	X
고밀	동작구 상도1동	생활인프라	단지 내 놀이터	(소규모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에 놀이터가 없음	타 단지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엄마와 함께 나가야하는 불편사항이 존재, 때문에 귀가 이후에 바깥놀이 활동이 전무	X
			접근성 (경사)	(공공인프라-경사지 공원) 집근처 공원이 있지만 알지못함 -> 실제 해당 공원이 높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갈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함	주말에 좀 거리가 있지만 같은 구에 위치한 다른 공원을 이용함	X
		보행환경	유해시설	(등굣길-대학가 상업지역)거리상 지름길은 상업지역을 가로질러가는 것이 빠르나 술집 등 유해시설이 위치하고 있음	불편함을 감수하고 유해시설이 비교적 적은 큰길가로 나와서 등교하고 있음	X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대로) 집과 학교 사이에 왕복 6차선 도로가 위치	독립적 이동범위가 현저히 좁고, 대부분의 이동을 학원차량을 통해 해결하고 있음	X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경사지) 등굣길이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음	독립적 이동범위가 현저히 좁고 도보이용이 많지 않음	X
	은평구 갈현동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 사이의 거리) 관외 모집을 받는 타 구의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어 주거지와 학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멈	아이의 대부분의 생활이 학교 근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교 이후에는 동네에 친구가 없어 바깥놀이 활동자체가 전무	X
			접근성 (거리)	(등굣길-대중교통) 아빠 출근길는 함께 대중교통을 타고 등교하며 하교 및 집으로 돌아갈때는 엄마 차를 타고 하교	독립적 이동범위가 매우 좁고 남자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신체놀이 활동 비중이 매우 적음	X

근린 구분	면담자 거주지	물리적 환경 요소		특성	아동 행태	아동 영향
		주택 입지	주변 환경	다세대 주택	주변 생활인프라에서 고립된 위치	X
		생활인프라	시설 및 규모	(공원인프라 부족-집근처 소공원) 집 바로 앞에 소공원이 위치하고 있으나 놀이기구가 없고 매우 작은 규모	집에 돌아와서 신체놀이 및 바깥놀이 시간이 전무함	X
	김포시 통진읍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800m 정도이며 등굣길이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음	독립적 도보통학이 불가능하여 엄마 차량 및 학원 차량을 통해 통학함	X
		주택 입지	주변 환경	(다세대/다가구 주택)집 근처 놀이 공간이 전무함	아이의 바깥놀이 활동 비중이 매우 적음	X
			주변 환경	(읍내 편의시설등과 떨어진 주거지) 학교가 있는 읍내와 주거지가 떨어져 있어서 고립되어 있음	독립적 이동범위가 현저히 좁고 도보이용이 많지 않음	X
	세종시 다정동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 - 생활권의 중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걸어서 아이 혼자 등교할 수 있음	O
		주택 입지	주변 환경	주변에 중규모의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인접하고 있어서 마치 대규모 아파트 단지처럼 안전한 영역 형성	아이가 독립적으로 집에서 복합커뮤니티센터까지 걸어다닐 수 있음	O
고밀	세종시 다정동	생활인프라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 놀이터) 집 바로 앞에 단지 내 놀이터가 위치	자율적 바깥놀이의 비중이 높음	O
			접근성 (거리), 단지 내	(집근처에 위치한 생활인프라)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도보권에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이 위치	아이의 도보통행이 활발함	O
			학교에서의 접근성	(초등학교 근처 놀이터) 학교 바로 앞에 근린공원 겸 놀이터가 위치	도보통행 및 자율적 바깥놀이의 비중이 높음	O
			접근성	(동네-많은 놀이터) 동네 곳곳에 많은 놀이공간이 있음	도보통행 및 자율적 바깥놀이의 비중이 높음	O
		보행환경	보차분리	(보도와 분리된 자전거도로) 등굣길이 보도와 자전거도로가 모두 있으며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음	중교등학생이 등교하며 자주 이용하지만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분리되어 있어 비교적 안심하고 있음	O
	세종시 소담동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까움 - 생활권의 중심에 학교가 위치하고 있음	독립적 도보통학권	O
		주택 유형	아파트 단지 규모	1,522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안전한 활동 영역 형성	O
		생활인프라	단지 내 생활인프라	(단지 내 놀이터)다양한 컨셉을 지닌 놀이터가 단지 내에 위치	신체활동과 바깥놀이활동 비중이 높음	O
			접근성	(공공인프라-복합커뮤니티센터)집 근처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위치	도서관을 이용	O
		기타	양육자 직장 위치	(가까운 엄마의 직장) 근처에 엄마의 직장이 있음	엄마가 아이의 이동이나 긴급한 돌봄 필요에 대응할 수 있음	O
	수원시 망포동	학원	접근성 (거리)	(축구학원) 집 근처 축구학원(실내), 근린공원 근처 축구학원(실외) 총 2개의 축구학원이 있음	집 근처 학원은 걸어서, 근린공원 근처 학원은 학원 차량을 타고 이동	△
		학교	접근성(거리)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 집과 학교가 매우 가까움	독립적 도보통학을 함	O
		생활인프라	접근성	(집 근처 근린공원)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으로 축구장, 수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들이 있음	(아이) 신체놀이 활동비중이 매우 높음	O
			학교에서의 접근성	(학교 근처 아파트 단지 공터) 학교와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공터 공터- 놀이시설은 없음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모여서 공차는 공간으로 놀이시설 등이 없어 공차기 등 자유로운 신체놀이활동을 하기에 좋음	O
		보행환경	경사	(경사지) 아파트 단지가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음	위험해서 자전거, 킥보드 등 이륜차 등을 타지 않음	X

근린 구분	면담자 거주지	물리적 환경 요소		특성	아동 행태	아동 영향
			교차로 주정차 차량	(교통안전-교차로, 주정차차량) 근린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에 불법 주정차차량이 다수 있고 교차로에서 차량이 예고 없이 튀어나옴	해당 구간은 아이 혼자 보내지 않거나 아이가 다니지 않도록 지도	X
		개발특성	신규개발 주거지	(신규 개발택지-공사) 해당 지역 일대는 신규 개발택지로서 곳곳에 공사지역이 많아 공사차량이 많고 밤에는 유동인구가 적음	해당 구간으로는 아이가 다니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다른 큰길을 통해 돌아오도록 함	X
고밀	수원시 영통동	학교	운동장 개방	(학교운동장) 동네주민들에게 학교운동장이 개방되어 잇음	저녁에 너무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어서 이용안하게 됨	△
		생활인프라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 놀이터) 농구장, 자연물등이 있는 비교적 규모가 있는 놀이터	농구장이 있어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함께 이용하며 자연물이 함께 있어 보물찾기 놀이를 하곤함	O
			학교에서의 접근성	(하굣길에 위치한 근린공원) 하굣길에 위치한 공원, 최근 리뉴얼이 되어 고학년이 축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	(다른 경로를 제안) 놀다가 학원을 늦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양육자가 공원이 아닌 다른 경로로 하교하도록 지도하곤 함	O
		보행환경	단지 지상부 계획	지상부 보차혼용-중규모 아파트 단지	활동 영역을 형성하고 있지만 보차혼용으로 차량으로 인한 위험이 우려됨	X
			대로	(왕복 10차선 간선도로) 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 종종 방문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왕복10차선 도로 건너편에 위치	이를 이용하기 위해 육교나 횡단보도를 건너야 한다는 점이 불안	X
			상가 주변 차량 안전	(상업지역 불법주차) 상가이용 차량, 트럭의 불법주차 및 이중 주체 문제가 심각	아이 혼자 보내기에는 불안하여 동행함	X
			통학로 안전	(등굣길) 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등굣길이 겨울철에는 빙판길로 인해, 단속 카메라 부재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조명 부족 등	(등교 동행) 양육자가 아파트 단지 정문까지 동행하며 해당 지점부터는 친구와 함께 걸어감	X
			통학로 안전	(학교 앞 경사로)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없으며 경사로를 올라오는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불법유턴이 빈번함	아이가 도로를 건널 때 불안해함	X
	안산시 성포동	생활인프라	놀이터 시설물	(집근처 근린공원-놀이터) 공원 내 놀이터가 있으나 미끄럼틀만 있어서 협소	평일보다는 주말에 이용이 잦음	X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에는 2개의 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모두 모래놀이터로 계획되어 있음,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가 설치	모래놀이터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자주 가지 않음, 길고양이, 쥐 등이 있어서 위생적으로 걱정되어 양육자도 해당 놀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보이고 있음	X
			단지 내 학원	(집과 가까운 태권도학원) 태권도 학원이 단지 내 상가에 위치하고 있음	1학년때는 사범님이 학교에서 바로 픽업해서 태권도학원으로 이동하였음, 지금은 혼자 걸어서 감	O
		보행환경	단지 지상부 계획	(대규모 아파트 단지) 85년에 준공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지상통행과 지상주차 시스템으로 계획되어 있어 단지 내 차량 통행이 많은 편	2학년이 되어서야 단지 내에서 독립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음	X
			생활인프라 주변 보행안전	(집근처 근린공원-접근로) 접근로가 거주자 주차공간으로서 시가 운영하고 있어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확보가 어려움	아이들끼리 가기에 위험하게 느껴져 평일에 방문할 경우 항상 동행함, 주변 다른 엄마들도 모두 동행하고 있음	X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신호등 부재) 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등굣길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음	양육자 불안요인	X
중밀	서대문구 연희동	생활인프라	놀이터 접근성	(집 앞 어린이공원) 집 바로 앞에 꽃게모양의 그네가 있어 꽃게놀이터라 불리는 어린이공원이 있음	자율적 바깥놀이의 비중이 높음	O
			접근성,	(동네- 공공인프라) 동네 전반에 키움센	주변 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해 동네	O

근린 구분	면담자 거주지	물리적 환경 요소		특성	아동 행태	아동 영향
			다양성	터, 도서관, 숲놀이터, 자연사박물관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위치하고 있음	활동범위가 넓고 활동적 이동시간 비중이 높음	
		보행환경	경사	(등굣길-경사지) 등굣길이 인근 산과 이어지는 매우 가파른 경사로로 이루어져있음	1, 2학년 때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간에 위치한 문화체육회관까지 데려다주심 - 키움센터에서는 문화체육회관에서 아이들을 픽업해서 이동함	X
			보행안전	(동네-수변가로) 특공무술학원으로 가는 길에 지방하천이 위치하고 있음	하천을 피하지 않고 징검다리를 건너 학원으로 감, 밤에는 학원 셔틀을 타고 옴	△
			보행안전	(등굣길-교차로 차량) 등굣길에 차량통행이 많은 편이며 일부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음	아이가 도로를 건널 때 불안감을 느낌	X
	안산시 일동	생활인프라	생활인프라 간 접근성	(공공인프라-청소년 문화의 집) 근린공원 옆에 청소년센터가 위치	공원과 청소년센터를 함께 이용하여 편리함	O
			접근성 (거리), 이용자 특성	(집 앞 근린공원-위협요인)집 바로 앞에 소공원이 있음	남자 어르신, 목줄 없는 강아지 등으로 안전측면에서 우려되어 편히 이용하지 못함	X
			학교에서의 접근성/ 이용특성	(학교 앞 근린공원) 학교 바로 앞에 근린공원이 있음, 노인/사이비/비행청소년 등 위협요인이 있음	주변에 위치한 아이들의 비공식적 모임장소(편의점, 분식점 등)와 연계하여 바깥놀이활동을 함, 그러나 위협요인으로 부모는 걱정	△
		보행환경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보도)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않고 주거지 내 골목길의 차량속도가 빨라서 아이들이 걷기에 위험	늘 엄마와 함께 다녀야만 지날 수 있고 불가피하게 엄마가 못데리러 갔을 때에는 아이들끼리 다른 경로로 돌아오게 함	X
		돌봄시설	접근성 (동선 연계)	(등굣길-지역아동센터) 등하굣길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치하고 있음	하굣길에 지역아동센터에 방문하기에 편리함	O
	세종시 어진동	학원	접근성 (거리)	(집과 학원간의 거리) 학원(피아노, 수영학원)이 집과 먼 거리(약 1km)에 위치	하교 이후에 모든 이동이 학원 셔틀 차량통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있음, 또한 친구들과 함께하는 신체놀이 및 바깥놀이 활동의 비중이 매우 적음	X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와의 거리) 학교와 집이 반경 400m 내에 위치	독립적 도보통학을 함	O
	양주시 옥정동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 학교와 집이 반경 400m 내에 위치하고 있음	독립적 도보통학을 함	O
		생활인프라	접근성	(단지 내 놀이터) 놀이터가 집에서 보이는 곳에 위치	아이가 놀이터에 놀러가도록 허락	O
중밀	양주시 옥정동	생활인프라	접근성	(집근처 근린공원) 규모가 있는 근린공원, 공원 내 도서관이 있음	근린공원에서 종종 산책을 하거나 엄마랑 걸어서 도서관에 감	O
		보행환경	단지 지상부 계획	(지상부 공원화) 차량통행은 모두 지하에서 이루어지며 지상은 모두 도보통행으로 계획	단지 내를 중심으로 독립적 도보통행이 이루어짐	△
			단지 지상부 계획	(단지 내 레벨차)단지 내에 레벨차가 있어 추락 위험이 있고, 공간적으로 단절된 느낌이 듦	같은 단지이지만 이 구간 이상은 아이가 나가지 않도록 지도	X
		기타	주변 공사지역	(신규개발지구)해당 지역은 신규택지개발지구로 지속적으로 개발중이며 학교와 아파트 단지 인접한 지역은 개발 중인 공간임	학교 위쪽으로는 이동을 허락하지 않음	△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와의 거리) 학교와 집이 반경 400m 내에 위치	독립적 도보통학을 함	O
		생활인프라	접근성 및 시설특성	(집 근처 근린공원)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 근린공원이 있음-화장실, 상설무대,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놀이공간이 있음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보다 친구들과 더욱 자주 노는 공간	△
		보행환경	통학로 상업시설	(등굣길-상업지역) 등굣길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음	사람들이 많은 지역은 들어가지 않도록 지도	X

근린 구분	면담자 거주지	물리적 환경 요소		특성	아동 행태	아동 영향
		돌봄시설	접근성	(집과 지역아동센와의 거리)집과 지역아동센터가 반경 2km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아이가 직접 버스 어플을 보고 시간을 맞춰 버스를 타고 지역아동센터로 혼자 감	X
	충주시 칠금동	학원	접근성	(집과 학원간의 거리) 학원(영어, 택견교습)이 집과 먼 거리(약 3km)에 위치	대부분의 이동이 차량을 통해 이루어지며 할아버지, 학원 셔틀이 이를 책임지고 있음	X
		학교	접근성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학교와 집은 반경 1km 정도	등교는 아빠가 차량을 통해 해결하며 하교시에는 혼자 걸어옴	X
		생활인프라	학교에서의 접근성	(학교 앞 근린공원) 학교 바로 앞에 근린공원이 있음	할아버지와 만나 학원 가기전에 간단히 간식을 먹는 장소로서 활용	O
		보행환경	단지 지상부 계획	단지 내 차량과 도보 통행이 구분되어 있으며 단지 중앙에 산책로 및 놀이터가 조성되어있음	종종 엄마와 함께 단지 내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산책을 함	O
		보행환경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상업지역) 등굣길에 상업지역을 가로질러 가야하며 차량 통행이 많고 일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음	등교는 아빠가 차량을 통해 해결하며 하교시에는 혼자 걸어옴	X
		기타	양육자 직장 위치	(먼 어머니의 직장) 어머니의 직장이 왕복 두시간 거리에 위치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아이에게 신체 및 놀이활동의 절대적 시간이 매우 부족 대신에 패드를 제공함으로써 아이의 스크린타임 시간이 매우 김	X
	충주시 호암동	학원	접근성	(집과 택견학원간의 거리) 택견학원이 먼 거리에 위치, 그러나 별도의 셔틀제공은 없음	셔틀이 없기 때문에 직접 픽업을 하거나 함께 이용하는 엄마들끼리 시간을 조율해서 아이의 이동을 해결	△
중밀	충주시 호암동	주택 유형	접근성, 단지 지상부 계획, 단지 내 놀이터	(옆 아파트 단지 놀이터) 숲, 놀이터, 조경관리가 잘되어 있음	본인이 살지 않는 단지이지만 방문해서 놀이	O
		보행환경	교통안전	(학교/피아노학원 사이 보행로)-신호등의 부재, 회전교차로 횡단보도 등으로 인해 위험	피아노학원에서 차량으로 픽업	X
		개발특성	신규개발 주거지	(신규개발지구) 해당 지역은 신규개발지로 학교들도 새로 지어지고 있음	과밀학급이 발생	△
	진천군 덕산읍	학교	접근성	(집과 초등학교와의 거리) 학교와 집이 반경 400m 내에 위치	학교에 걸어가기 쉬움	O
		생활인프라	접근성	(혁신도시-생활권) 해당 지역은 혁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으로 생활권 단위로 계획됨에 따라 아파트 단지, 근린공원, 커뮤니티센터 등 생활인프라가 400m 내 위치	아이들이 여러 놀이터 및 공원을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바깥놀이 활동의 비중이 높음	O
		보행환경	보차분리, 자전거도로	(도보와 자전거도로) 아이의 생활권 일대가 도보와 자전거도로가 구분되어 있음	아이가 체육센터(수영학원)까지 혼자 자전거를 타고 20분동안 이동함	O
저밀-근거리 통학	평택시 고덕면1	학원	접근성/ 주변환경	(집과 학원간의 거리) 옆단지 노변상가에 위치	엄마와 함께 이동	X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와의 거리) 학교와 집이 반경 400m 내에 위치	독립적 도보통학을 하며 활동반경이 넓지 않음	O
		주택 입지	주변 환경	(고립된 주거지) 아파트 단지가 주변지역과 마치 섬처럼 위치하고 있음	인근 옆단지 아파트 단지를 포함하여 두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영역을 제외하면 도보이동할 수 잇는 공간이 없어 다른 생활인프라를 위해서는 반드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함	X
		생활인프라	단지 내 놀이터	준공년도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로 놀이터시설 노후	아파트 전반의 놀이공간이 노후되어 단지 내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음	X
		돌봄시설	접근성 (거리)	(집과 돌봄센터와의 거리)단지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위치	아이의 활동반경이 넓지 않고 신체활동 비중이 매우 적음	△
	평택시	생활인프라	단지 내	(단지 내 놀이터) 단지 내 놀이터가 3개가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놀	O

근린 구분	면담자 거주지	물리적 환경 요소		특성	아동 행태	아동 영향
	고덕면2		놀이터 / 자연감시	있으며 그 중 집 안에서 볼 수 있는 위치의 놀이터가 있음	이터를 가장 많이 이용	
			접근성	(아파트 단지와 연결된 공원) 아파트 단지와 근린공원이 연결되어 있음	집 가까이서 근린 공원을 이용	O
		보행환경	입지 및 단지 지상부계획	아파트 단지가 주변지역과 마치 섬처럼 위치하고 차량통행은 모두 지하에서 이루어지며 지상은 모두 도보통행으로 계획	단지 외부는 보행환경이 좋지 않아 단지 내에서만 아동의 독립적 보행이 가능	△
저밀-근거리 통학	평택시 고덕면2	보행환경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스쿠터 주차) 등교길에 스쿠터 및 PM 주차 장소가 있음	혼자다니게 하지 않음 (쌍둥이라 동생이랑 같이 가거나 친구랑 같이 다님)	X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상업지역) 최근 유해시설(술집)이 많이 생김	혼자다니게 하지 않음 (쌍둥이라 동생이랑 같이 가거나 친구랑 같이 다님)	X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신호등 부재) 건널목에 신호등이 없음	혼자다니게 하지 않음 (쌍둥이라 동생이랑 같이 가거나 친구랑 같이 다님)	X
	보은군 보은읍1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와의 거리) 초등학교가 집으로부터 반경 1.2km 정도에 위치	엄마차량을 타고 이동	X
		생활인프라	접근성 (거리)	단지 내 외부놀이공간이 없음	근처 주차공간 겸 공터로 사용되는 공간에서 누나랑 놂	X
		보행환경	경로의 단조로움	(등굣길-단조로운 경로) 도보 통학할 경우 직선경로로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지 않음	차량통행을 선호	△
			통학로 교통안전/편의성	(등교길-보행로 미비) 보행로의 연속성이 부족하며 꺼진곳이나 울퉁불퉁한 구간이 일부 있음, 풀이 자라있어서 좁게 느껴짐	차량통행을 선호	X
		돌봄시설	주변환경 (보행안전)	(지역아동센터 주변) 주변에 차가 많고 버퍼공간이 없음	아이가 자동차를 피해 조심하며 걸어야 함	X
		기타	친인척 집 접근성	(근처에 위치한 외할머니 집) 초등학교와 센터 근처에 외할머니 집이 있음	외할머니 집이 일종의 중간 휴식(돌봄) 장소로 기능	O
	보은군 보은읍2	생활인프라	시설 특성	(집근처 근린공원-놀이터) 놀이터에 미끄럼틀, 물놀이장 등 놀이공간이 많음	놀이터에서 친구들을 만나 오랫동안 즐겁게 놀 수 있음	O
			접근성 (거리), 종류	(집근처 공공인프라)집근처에 중학교, 청소년 복지센터, 체육센터, 공원 등이 있음	등하교 시 차량통행을 감수하면서도 현재 위치의 아파트로 이사하였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이동은 대부분 도보로 이루어짐	O
			접근성 (보행환경)	(집근처 근린공원-경사지 접근로) 접근로가 경사지로 되어 있고 주정차 차량이 많아 시야확보가 어려움	실제 아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간으로 다른 길로 접근하고 있음	X
			접근성 (보행환경)	(체육센터-접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간이 있어 보행의 연속성이 떨어짐	이곳이 위험해서 좀더 멀더라도 인도가 설치된 길로 돌아오게 지도함, 아이걸음으로 15분 정도로 형이랑 같이 걸어옴	X
		보행환경	통학로 연속성	(등교길-천변) 학교와 집은 반경 600m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등교길 중간에 하천이 흐르고 있음	공간적으로 구분된 느낌이 있으며 학교까지의 경로 상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차량통행을 하고 있음	X
저밀-근거리 통학	증평군 증평읍	학원	접근성 (거리)	(학원과 돌봄센터의 위치) 학원과 돌봄센터가 집으로부터 반경 800m 에 위치하고 있음	하교 이후에 모든 이동이 학원 셔틀, 엄마차량 등 차량통행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있음 -> 도보통행의 비중이 매우 적음	X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 학교와 집 사이의 거리가 반경 400m 이내로 매우 가까움	학교까지 독립적 이동범위(허용)가 형성되어 있음	O
		생활인프라	접근성 (거리)	(놀이터 없음) 집근처 놀이터가 없음	바깥놀이활동 비중이 매우 적음	X
			접근성 (경로	(공공인프라-돌봄센터) 지자체 복지타운 안에 위치하고 있어 센터 주변 자체는 정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 모두 반드시 부모가 차량으로 픽업해야 함	△

근린 구분	면담자 거주지	물리적 환경 요소		특성	아동 행태	아동 영향
			연속성)	비가 잘되어 있음, 그러나 00역을 중심으로 단절되어 있어 반드시 차량으로만 접근할 수 있음		
			접근성(거리)	(단독주택) 외부 놀이공간이 없음	바깥놀이 활동 비중이 매우 적음	X
		보행환경	통학로 교통안전	(등굣길-불법주정차)아이의 등교길의 일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지 않아 불법주정차가 많음	언니, 오빠랑 같이 걸어서 등교	X
저밀-원거리 통학	괴산군 소수면	학교	접근성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 초등학교가 위치한 읍내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거주	매일 엄마차를 타고 등하교하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바깥놀이활동이 전무함	X
		주택 입지	주변 환경	(단독주택)외부 놀이공간이 없음	바깥놀이활동 비중이 매우 적음	X
		생활인프라	생활인프라 간 접근성	(근거리에 위치한 학교와 학원) 학교, 미술학원, 피아노 모두 근거리에 위치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모두 엄마의 차량 또는 학원 셔틀을 타고 이동하고 있어 도보통행 및 독립적 도보통행 범위가 매우 좁음	△
			접근성	(집 주변 환경) 집 주변이 모두 논밭이며 생활편의시설 및 인도가 없음	아이가 독립적으로 나가지 않음	X
			접근성 (거리)	(놀이공간의 부재) 모든 생활권에 놀이터가 없음	바깥놀이활동 비중이 매우 적음	X
		기타	양육자 직장 위치	(엄마의 직장) 초등학교 근처에 엄마의 직장이 위치하고 있음	일종의 스테이션으로 기능하여 학교와 학원 끝나고 귀가 전까지 엄마의 가게에서 시간을 보냄	O
	연천군 연천읍	학교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의 거리)집과 3km 이상 떨어진 초등학교에 진학함 - 작은 소학교	도보통행의 비중이 매우 적음	△
				(학교셔틀)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 셔틀을 제공하고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는 학교 셔틀을 통해 이루어짐	하루 80분 이상의 차량이동시간 발생	△
저밀-원거리 통학	연천군 연천읍	주택 입지	주변 환경	(대규모 아파트 단지(군인아파트-관사) 아파트 단지가 주변지역과 마치 섬처럼 위치하고 있음	아파트 단지 이외의 이동은 모두 차량으로 이루어짐	X
		생활인프라	단지 내 놀이터 / 시설 특성	(단지 내 놀이터) 큰 놀이터(고학년 위주의 놀이기구 설치), 작은 놀이터(저학년 위주의 놀이기구 설치) 2가지 놀이터가 위치	큰 놀이터에서는 주로 고학년이 이용하고 작은 놀이터에서는 저학년들이 이용	O
		기타	친인척 집 접근성	(엄마의 직장과 할머니집 동네의 인접)옆 동네에 친정조부모님 댁이 거주하고 있으며 엄마의 직장도 인근에 위치	학교가 끝난 이후에 할머니집 근처에 위치한 피아노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할머니 집에 세 아이가 모두 모여 엄마가 퇴근 이후 모두 픽업하여 집으로 이동	△
	옥천군 안남면	학교	셔틀버스 운영	(학교셔틀)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 셔틀을 제공하고 있어 아이들의 등하교는 학교 셔틀을 통해 이루어짐	차량통행의 비중이 높음	△
			접근성 (거리)	(집과 초등학교와의 거리) 학교와 집이 반경 1.2km에 위치	학교 셔틀을 이용하여 이동	X
		주택 유형	주택 내 외부공간	(단독주택) 집 마당이 있음	신체활동, 특히 자율적 바깥놀이의 비중이 높은 편	O
		생활인프라	주변 환경	(작은도서관-왕복 2차선 도로, 대형공사차량, 농기구 등)도로와의 완충구역없이 바로 가까이 입지	작은도서관 주변에서 길건널 때 불안감을 느끼며 조심해야 함	X
		돌봄시설	셔틀버스 운영	(돌봄운영하는 작은도서관-마을셔틀) 작은도서관을 기점으로 하여 마을 셔틀이 운영됨	학교 셔틀을 놓쳤을 경우에는 마을셔틀이 대안적 역할, 작은도서관이 끝난 이후에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줌	O
		기타	마을환경	(동네-비공식적 스테이션) 마을 곳곳에 비공식적인 돌봄스테이션이 있음	아이들이 동네 곳곳을 도보로 이동하며 돌아다녀도 부모들이 걱정 안함	O

〈아동 영향〉 구분 범례 O 긍정적 △복합적 X부정적

출처 : 본 연구에서 수행한 '아동돌봄안전망에 근거한 아동 돌봄 실태와 취약요인 분석' (IRB 승인번호 2024-0239호) 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작성

연구보고서 24-24-01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발 행 2024년 11월
발 행 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연구지원동
전 화 044) 211-1000
홈 페 이 지 www.nrc.re.kr
I S B N 979-11-5567-755-1

* 연구회의 허락 없이 보고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복사하거나 전재하는 행위를 금합니다.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아동 성장을 지원하는 근린 단위 돌봄안전망 공간 모델 개발

Building Spatial Model for Safety Nets for Childcare: Foster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in Neighborhoods

경제·인문사회연구회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비매품/무료
93330
9 791155 677551
ISBN 979-11-5567-755-1